

경제적모순들의체계혹은빈곤의 철학제 2 권

피에르조제프프루동

경제학자들은세관에서이유없는금지만을보며, 보호에서특권만을 보며, 차별관세에서무제한의자유를향한첫걸음만을본다고고집을부린다. 모두는예외없이절대적금수로부터보증부자유로진보해서행복한결과를얻게되었으므로새로운진보에의해모든관세가제거되고, 무역, 즉독점이그모든질곡에서구원을받을때는이결과는증가하기만할것이라고상상한다. 우리의모든국회의원들, 기자들, 장관들조차이런심한환상을공유한다. 그들은하나의부정에서다른부정으로의논리적운동, 자발적이고립으로부터자기자신의포기로의이행을진보라고본다. 그들은실명失明으로부터시각까지의거리만큼멀리떨어진것이중용으로부터중합까지의거리라는것을모르면서도진보가두모순항의결과라는것을이해하지못한다. 그들은길에서멈추어서고중용으로취급받는것을두려워한다.

이와관련해서나는내가차별관세또는무역수지균형이라부르는것, 자유와독점의종합적표현인이것이어떤점에서중용의조직과다른지를설명해야한다.

장벽의철폐후에프랑스의수출이일반의기대, 그리고모든개연성에상반되게그수입과똑같다고가정하자. 경제학자들에따르면무역수지균형의추종자들은만족해야할것이다. 그들은아무불평거리도더이상없을것이다. 나는이것이중용일것이며, 결과적으로우리는아직셈이끝나려면멀었울것이라고말한다. 왜냐하면, 이미말해진것에따르면, 우리가우리의상품들로, 우리나라의화폐로우리나라의시세대로결제하는외국상품들이외국에서우리상품들보다더비싸지않은것을우리에게보장해주는것은아무것도없기때문이다. 그럴경우에우리는언제나손해를보고노동할것이다. 또한수출의수치가수입의수치보다못미쳐서정부가균형의재확립필요성을확신해이런목적으로우리의시장에서외국의특정한상품들을배제하고그상품들이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것을장려한다고가정하자. 이는여전히중용에속할것이며, 이에따라, 잘못된계산일것인데, 노동조건을평준화하는대신에완전히임의적인수치들간의균형만을확립하는것이기때문이다. 내가알기로균형보다더중용을닭은것은없지만, 근본적으로는그보다더다른것도없다. 그리고여기서미묘한사항들을길게파고들어길을잃지않도록나는딱한번, 중용이양극단의부정이지만, 긍정도없고, 아무런지식도없고, 제 3 항, 참된항에대한어떠한규정도없는부정인반면, 종합적지식, 관념들의참된중용 pondération 은 과학이고제 3 항의정확한규정이며, 진실의이해로서그반대의것들에의해서만이아니라그자체로, 그리고그자체를우해서그러하다는것만 주목하게하는데그칠것이다.

오늘날여전히경제학자들을눈멀게하는것은이중용, 절충및교조주의의이잘못된철학이다. 그들은보호가일시적전복, 비정상적우연의결과가아니라여러정부에그럴수밖에없게하며, 영구적으로그렇게하도록

1846 년

차례

제 9 장제 6 기 — 무역균형	4
I. 자유무역의필요성	4
II. 보호의필요성	12
III. 무역수지균형이론	52
제 10 장제 7 기 — 신용	64
I. 신용관념의원천과계통 — 이관념에관한모순적편견들	67
II. 신용기관들의발달	77
III. 신용의거짓말과모순. 그파괴적효과, 그것이가지는빈곤 화능력	98
제 11 장제 8 기 — 소유권	124
I. 소유권은경제적계열바깥에서는해명이불가능하다. 상식 의조직에관해, 혹은확실성의문제	124
II. 소유권확립의원인들	145
III. 소유권은어떻게타락하는가	165
IV. 소유권에의한신가설증명	185
제 12 장제 9 기 — 공동체	200
나의벗공산주의자빌가르델에게	201
I. 공동체는정치경제학에서생긴다	203
II. 고유한것과공통인것의정의	204
III. 공산주의문제의입장	209
IV. 공동체는그목적을시작으로간주한다	210
V. 공산주의는공동체의형상이고원형인가족과양립불가능하다	213
VI. 공동체는분배의법없이불가능하며, 분배에의해멸망한다	219
VII. 공동체는조직의법칙없이불가능하며, 조직에의해멸망한다	221
VIII. 공동체는정의없이불가능하며, 정의에의해멸망한다	225
IX. 절충적이고, 똑똑하지않고분간이안되는공동체	229
X. 공동체는빈곤의종교다	235

조치는사회경제학에서하나의관념이몸, 형제, 그리고물질의모든속성을취하는조직이다. 이는무로부터의창조다.

그결과들은무한히달라질수있다. A 의생산자들이 B 의시장으로와서 B 의생산자들에게경쟁을결능력을획득한다고가정하자. 그들이판매할밀한말마다 50% 의이득, 즉 B 의연간산물의절반을그들에게가져다주어서, A 나라가우선은유통하는가치물들을정복하고그다음은그도움으로투자된가치물, 그리고끝으로그속적의토지자본을정복하는데 20~30 년이면충분할것이다.

그런데, 이야말로여러민족들의상식이원하지않던일이다. 이민족들은실무적으로그들중가장불리한민족들이가장유리한민족들에게이들의지대초과분에대해해명을요구할권리가없다는것을인정해왔다. 이완화된태도에는이순간에도출하는것이쓸데없는이유들, 게다가각자가생각을해본다면발견하게될이유들이있었다. 그러나무역이문제가되었던경우에각자는자신의원가와자신의적수의원가를계산하는일에착수했다. 그리고모든민족이특혜관세를제정해서, 그것없이교역을하는데 동의해서도안되고동의할수도없게된것은이계산에따른것이다. 이야말로진정한원리이며, 세관의철학이다. 그리고이야말로경제학자들이원하지않는것이다.

나는통속적으로무역수지균형이라고불리는이균형법칙의필요성을길게증명함으로써독자들을모욕하지않을것이다. 이모든것은어린이라도낮을불힐만큼간단하고, 진부한것이다. 경제학자들에게말한다면, 나는그들이장황한설명이필요없을정도로충분히계산이빠르다고가정한다.

지금관세가끊임없이절대적금수에서완전한면세까지각나라의필요, 여러정부들의현명함, 독점체들의영향, 여러이익들의대립, 민족들의불신에따라진자운동을하면서, 그럼에도한균형점을향해, 그리고기술적용어를사용하자면차별관세를향해수렴한다는것이진실이아닌가? 그것을엄밀하고충실하게획득하는것이가능하다면실질적연합, 민족들의물질적연합 association in re 을표현하는일일것이며, 세의경제원리의엄격한집행일, 그런차별관세말이다.

그리고우리사회주의자들은, 너무오랫동안우리의망상에지배받아왔지만우리의논리에의해결국보호주의원리, 연대의원리를일반화해그원리를국가들로부터시민들에게로내려가게한다면, 사뭇투명한방식으로노동의이율배반들을풀고우리가우리의관념의원조말고다른원조없이, 법칙의권능말고다른권능없이, 숫자말고다른강제와영속의수단없이영원히자본을노동에복속시킨다면, 우리는우리시대의문제, 옳건그르건인민에의해, 그리고몸을움츠리는경제학자들에게의해노동의조직이라고불리는이문제의해결을이상하게도전진시킨것이아닐까?

스의이연대성덕분에개별산물이비용을충당하지못하는토지들에경작을확장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이는독점에서는불가능한일이다.

이모두가사회주의자의꿈일뿐임을나는잘안다. 소유주의일상관행에의해반박되는유투피이다. 그리고이성이관습에대해무능력하므로노동에따른분배가장기적으로사람들사이에확립될지도걱정이다.

그러나소유권과정치경제학이민간산업의열정과같은열정을가지고배척하는것을, 모든민족은그들의영토에서난산물을서로교역하는것에관한경우에는이를바라는것으로의견일치를이루었다. 그경우에그들은서로를독립적인주권자로, 리카도의가설에따라불균등한품질의토지를개발하지만, 서로간에사회주의자들의가설에따라지구의개발이용을위해하나의거대한회사를이루어그각구성원이토지전체에대해분리되지않은소유권을가지는개체들로간주했다.

그리고다음은그들이추론한것이다.

산물들은산물들로만구매된다. 즉, 산물은그쓸모에비례하지않고, 이쓸모에들어간노동에비례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불균등한토질때문에 A 나라가 50 의노동에 100 의산물을내는반면에 B 나라는 80 만을내놓는다면, A 는자신의모든수확물에서 10% 를 B 에게채워주어야한다.

이할당은정말로교역의순간에만, 또는말하듯이, 수입에서만요청된다. 그러나원리는준속하며, 이를부각시키기위해서는두민족간에교역이되는다양한가치물들을단일한표현으로가져가기만하면된다. 밀을예로들어보자.

비옥도가같지않은두나라 A, B 가있다. A 에서는일꾼 2 만명이밀 100 만말을생산한다. B 에서는그절반밖에생산하지않는다. 그러므로 밀은 B 에서는 A 에서보다두배가더비싸다. 실제로는일어나지않는일이지만이론에서는아주잘수용되는일을가정해보자. 근본적으로가장다양한무역은다양한형태에서유사한가치물의교역말고다른것이아니니 말이다. 말하자면, B 나라의생산자들이그들의밀을 A 나라의밀과교환하기를요한다고가정하자. 밀한말이밀한말의대가로주어진다면, 하루치노동의대가로주어질것이이틀치노동일것임이명확하다. 소비면에서그효과는전무할것이다. 결과적으로어느쪽에도실질적손해는없을것이다. 그러나두수량에내포된가치가그로부터다른쓸모의형태로, 혹은화폐의형태로도출될수있게하라. B 에서생산된모든가치물이그곡물의가치에비례하므로, 다른한편 B 가내놓는국정화폐가 B 에제시될때는어떠한지불에서도 B 는이를거절할수없으므로우선은산물들의유사성때문에실재가없는비교에불과했던교역, 이교역이효력이있게된다. 그리고 B 는 A 와의무역에내놓는모든가치물에대해정말로 50% 를잃는다. 교역이라고하는, 말하자면아주형이상학적이고아주대수학적인이

제 13 장제 10 기 — 인구	242
I. 생식과노동에의한사회적파괴	242
II. 빈곤은정치경제학의소행이다	253
III. 인구균형의원리	272

제 14 장요약과결론	305
-------------	-----

제 9 장 제 6 기 — 무역균형

I. 자유무역의 필요성

자신의규제조치들의효과성에속고자신의내부에서프롤레타리아트에대한보상을찾기에절망한사회는외부에서프롤레타리아트에대한보장책들을찾기에나선다. 이런것이사회적진화에서대외무역의국면을가져오는변증법적운동으로서, 이국면은곧바로절대적자유와금지라는모순되는두이론으로정식화되며, 무역균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공식으로 해소된다. 우리는이관점들각각을차례로살펴볼것이다.

대외무역이관료를, 따라서노동을증대하고, 따라서또한임금을증대해인민에게아주헛되이, 아주불행하게자신을위해구상된조세의보충수단을제공해주어야한다는생각보다더합당한것은좀처럼없다. 노동이독점으로부터세금으로, 그리고권리청구의명목으로획득할수없었던것을 다른데서무역으로풀어낼것이다. 그리고인민에게서인민으로조직된생산물의교환은빈곤을완화해줄것이다.

그러나독점은자신이감당해야하지만실제로는감당하지않는부담에 대해보상을받아야한다는듯이노동자체의이름과이익으로교역의자유에반대하고, 민족시장의특권을주장한다. 그러므로사회는한편으로조세, 공안기구, 그리고무역자유로써독점을길들이려는경향을 띤다. 다른 한편으로독점은사회적경향에반발하고, 거의언제나납부액의비례성, 임금의자유토론, 관세로써이를무효화하는데도달한다.

모든경제문제중예보원칙의문제보다더열띤논쟁이벌어진것은없었다. 어떤것도언제나배타적인경제학파의정신을더두드러지게하지않는다. 이학파는이점에관해자신의보수적습성을벗고갑자기표변해무역균형에결연히반대선언을했던것이다. 다른데서는어디서나경제학자들이모든독점과재산권의잡들지않는수호자들로서수세를취해신출내기들의주장을유평파아적인것으로멀리하는데급급한반면, 금지문제에서는그들자신이공격을시작했다. 그들은마치독점이자신들에게처음나타난듯이독점에고함을쳤다. 그리고그들은전통, 지방이익, 보수적원칙들, 주권자의정책, 모두말해서상식에정면공격을했다. 그들의파문과그들이했다는증명에도불구하고금지체제는오늘날영불英佛친선의선동은아랑곳없이콜베르와필리프 2 세의미움받는시대에그랬던것만큼활

첫번째영예는아담스미스에게돌아간다. 2. 리카도의지대이론에서나온다.

독자는첫째항목에대해충분히교화되었다. 그래서나는둘째항목으로넘어간다.

우리는리카도가지대의원천을어떻게설명했는지안다.

리카도의이론은철학적관련사항에서는아쉬운지점을남기지만, 그렇다고해서우리가뒤에가서제 11 장에서보여줄것처럼소작료불균등의원인에관해덜정확한것도아니다. 리카도가말했다. 처음에사람들은 1 급토지에, 같은지출로더큰수확량을내는토지에우선매달릴수밖에없다고. 이토지의산물이인구를먹여살리는데불충분해지면서 2 급의토지개간에착수하며, 이런식으로 3 급, 4 급, 5 급그리고 6 급의토지들까지계속해가지만여전히토지의산물이적어도경작비용에상당하다는조건에서그렇게한다.

동시에토지독점은확립되기시작해서, 모든지주는그가토지의개발을맡긴대리인에게토지의경작이생산물로내놓을수있는것에서경작노동자의임금을빼앗, 즉개발비용을빼앗만큼을소작료로요구했다. 그래서리카도에따르면, 본래적의미의지대는가장비옥한토지산물이열등한품질의토지들에대해가지는초과분이다. 그결과소작료는더낮은품질의토지로, 이런식으로해서더이상비용을충당해주지않는토지에도달할때까지 옮겨가지않을수없을때만열등한토지들에적용되는결과가된다.

이러한것이아마도가장철학적이지는않지만소작료확정의점진적인행과정을설명하는가장간편한이론이다.

이점에동의하고나서, 모든사회주의학파의작가들과함께토지의소유권이집단적인것이되어각농업인은그의땅의비옥도에따라서가 아니라, 바스티아씨가아주잘말하듯이그의산물에들어간노동의양에따라서보수를받는다고가정하자. 이가설에서 1 급토지가아르팡당 100 프랑의추가액을낸다면, 이는

- 1 급토지 100 프랑
- 2 급토지 80 프랑
- 3 급토지 70 프랑
- 4 급토지 60 프랑
- 5 급토지 50 프랑
- 총계 60 프랑

개발비용을아르팡당 50 프랑이라고가정하면, 5 아르팡에대해서는 250 프랑

개발전체에대한순생산은 110 프랑

그리고공동소유자인개발자각사람에대해서는 22 프랑

각종토지의개발비용들이다를경우에경작의모든다양한형태에대해서처럼같은기준이적용된다. 나아가연합의체제에서는생산물과서비

자유무역, 즉자유독점은자본과산업의거대봉건신하들의신성동맹이며, 지구상의각지점에서노동분업, 기계, 경쟁, 독점및경찰에의해서작된과업을완수해소산업을짓뭉개고, 프롤레타리아트를최종적으로복속시켜야하는괴물박격포 mortier monstre 다. 이는시초에는문명의자생적산물이던, 그러나문명이자신의법칙들에대한의식을획득하자곧소멸해야할약탈과빈곤의체제를지구의모든표면에서중양집중화하는것이다. 이는소유권이그힘과그영광안에있는것이다. 그리고수백만의노동자들이굶주리는것, 수많은무고한피조물들이젓먹이때부터죽을때까지억압을겪고, 수많은딸들과부인들이매춘부가되고, 수많은영혼들이팔리고, 수많은성품들이시드는것은이체제의완성을가져오기위한것이다! 경제학자들이이미로에서출구를알고, 이고역의끝을안다면! 하지만아니다. 언제나! 결코! 저주받은자의시계처럼, 경제적묵시록의되풀이다. 오! 저주받은이들이지옥을볼태울수있다면!

III. 무역수지균형이론

무역자유의원제는오늘날아주중요해져서그로부터결과로나오는, 인류에게선과악이되는두계열의결과들을해설한후에나는그해법을알리기를그만둘수없다. 이처럼내증명을보완해서희망컨대내가차후의일체의토론을독자의밝은눈으로볼때쓸모없는것으로만들었기를바란다.

옛사람들은자유무역의참된원칙들을알았다. 그러나그들은현대인들이이론에대해자만을드러내는것만큼이론에별호기심이없어서내가알기로이런점에서자신들의관념을결코요약하지않았다. 그리고곧바로전통적인리가모호하게되는데는경제학자들이그문제를독차지하게된것으로충분했다. 무역수지균형이란세기의파문破門후에자유와평등의이름으로, 역사와만민법의이름으로모든기정사실의옹호자들이아주자유롭게유포피아주의자라는칭호를붙여주는자들중한사람에의해증명되고옹호되는것을본다면가슴이아플것이다. 이증명은내가가능한한 짧게하려고신경쓸것인데, 이는내적들의의식과마찬가지로사색에내가내놓을마지막논지일것이다.

무역수지균형의원리는다음의둘로부터종합적으로나오는결과다.
1. 세의공식, 산물들은산물들로만구매된다는공식에서나오는데, 바스티아씨는이공식에대해보수는생산자가시장에가져다놓는쓸모에비례하지않고이쓸모에내포된노동에비례한다는논평을했으며, 이는평을한

하지못했으며, 일어난일을전혀말하지않았음을보고해야하는것은괴롭다. 그들은카르파이타에야영하려했던것인가보다!

기차다. 이런점에서한세기전사람들이경제학과라고명명했던것같은중파의옹변이하는말마다내세우는것의반대를증명하며, 공산주의자들의선전과같은불신으로받아들여진다고말할수있다.

그러므로나는이저서에서채택한진행방식에맞게우선은금지체제의당파들에반대해무역자유가필연일뿐아니라경제적필연에속한다는것을증명해야하고, 둘째로는반보호주의경제학자들에반대해그들이독점의파괴로간주하는바로이자유가오히려모든독점들의수립에주어진마지막손길이고, 중상주의적봉건성의공고화이며, 모든빈곤과같이모든폭정들의연대성이라는점을증명해야한다. 나는이이율배반에대한이론적해법, 모든세기에서알려진무역수지균형이라는이름의해법으로끝을맺을것이다.

무역의절대적자유를편들어내세우는논리들은알려져있다. 나는그것들을그모든논조에서받아들인다. 그러므로그것들을몇쪽에걸쳐환기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경제학자들스스로말하게하자.

“세관들이알려져있지않다고가정해보라. 어떤일이일어났을까?”

“우선, 피비린내나는무한한전쟁이적어질것이다. 사기와밀수의위법행위가존재하지않을것이고이들을처벌하기위해만든형법들도없을것이다. 상공업대결상대로서의이해관계에서나오는민족적대결관계는미지의일일것이다. 정치적국경선만있을것이다. 생산물들은영토에서영토로질곡없이유통하며, 생산자들의최대이익을가져다줄것이다. 교역은광범위하게정착되었을것이다. 충색, 궁핍은예외적사실들일것이다. 판로는가장넓은의미에서존재하고, 각생산자는전세계를시장으로삼을것이다. ...”

나는여기서환상으로전략한이묘사를축약한다. 그저자픽스씨는다른점에서보면그환상에속지않았다. 인류의행복은세관원들같이별것아닌것에집착하지않았다. 그리고세관이결코존재하지않았다면, 노동분업, 기계, 경쟁, 독점, 그리고공안기구만으로도어디서나억압과절망을창조하기에충분했을것이다.

이어지는말은어떠한비난을받을내용도아니다.

“이시기에각정부의한시민이다음과같은말을들어왔다고가정하자.”

“나는내동포들의빈영을앞당기고증진할수단을찾았다. 그리고나는내구상의결과들의탁월성을확신하므로내정부는이를즉각아주엄격하게적용할것이다. 장래에당신들은우리제품들중어느것들은더이상가지지않을것이고, 우리도당신들의제품중에어떤것들이상은가지지않을것이다. 우리국경선은상품들에전쟁을벌일군데, 어떤상품들은완전히배척하고다른상품들은무서운액수를받고받아들일, 감히들어오거나같은것에지불을시키고, 행렬, 수송차량, 짐꾸러미, 상자, 그리고작은갑까지찾아가고, 상인을몇날몇시간동안국경선에서멈추어있게하며, 옷

옷과살가죽사이에들어와서도나가서도안되는무언가를찾아내기위해 때로는그의옷을벗길군대로둘러싸일것이다.”

“장총과칼로무장한이군대에는앞의것보다더무서운, 펜으로무장한 다른군대가짜을이룬다. 그군대는항시규제를하거나규제를시킬것이다. 온갖명령, 통지문, 안내문으로상인을계속골탕먹일것이다. 파수를 서면서도그상인은자기상품을몰수와벌금에서구할수있다고항상확신하지는못할것이다. 그리고두군대중어느쪽과분쟁을하지않으려면개별 적용이그에게필요할것이다. 그리고이모두를당신은지구반대편에서처럼당신의나라에서도발견할것이다. 그리고당신은멀리갈수록장애물과 위험을많이만날것이다. 그러나이런조합을통해당신은당신의동포들에게판매하는데확신을품으며, 이들에게는외부에서구매하는것이금지된다. 당신은경쟁을하지않으려고작은독점, 엄청난시장을포기하는거래를할것이며, 국내소비의주인이될것이다. 소비자에대해말하자면, 관심을기울여보면된다. 그는더비싸게지불할것이고, 향유는더적게할것이다. 이는그가공적인것, 즉정부가새롭고효과적인방식으로보호하려고하는공업과상업에행하는희생이다.”

나는모든지성들을만족시키기위해서이부정적인, 그리고아마너무 시적인논지를아주길게보고했다. 공중앞에서자유는노예상태의빈곤의 그림보다자신을더잘방어하지못한다. 그럼에도이논지자체는아무것도 증명하지못하고, 아무것도설명하지못한다. 자유무역의필요성을이론적으로증명하는일만남는다.

무역자유는각각의사회를그민족적단위에서그리고인류전체의일부를이루는것으로고려하든, 그안에서자유로운개인들의군집, 자신들의 인신에대해서처럼재화에대해서도주인인자들의군집만을보든, 경제발전, 그리고인류의행복창조에필요하다.

그리고우선여러민족들은서로에대해거대한개체들과같이서이들사이에서지구의활용이나누어졌다. 이진실은세상만큼이나오래된것이다. 땅을아들들에게나누어준노아의전설은다른의미를가지는것이아니다. 땅이수만구획으로나누어져서그각각에서밖으로나가지도않고이웃과소통하지도않으면서하나의작은사회가살아가는것이가능했는가? 그러한가설의절대불가능성을확신하려면부자만이아니라소박한장인의 소비에쓰이는물건들의다양성에주목하고이다양성이고립에서언어질수있었는지를자문해보기만하면된다. 근본으로곧장가보자. 인류는진보적이다. 이야말로인류의독특한모습이고, 인류의본질적특성이다. 그러므로독방체제는인류에게적용불가능했으며, 국제무역은우리의완성가능성의제 1 조건이며필요불가결조건이었다.

그러므로단순노동자처럼, 각민족은교환을필요로한다. 인류가부, 지성, 그리고존엄에서상승하는것은바로교환에의해서일뿐이다. 우리가동일한사회의여러구성원간의가치의형성에대해말한모든것이마찬

그리고거것관대함의움직임으로써자신을드러내는것은그과학에는재앙이라고간주한다.

모든사람은무역의자유를위한영국의선동이우선은단지곡물의독점에반대해이끌어진것임을안다. 산업이감축의모든수단을다내고나서, 과거에는노동자의급료에잔돈으로쓰이던구빈세가폐지되고나서, 제조업자들은곡물관세의개혁을요구하면서필수품가격을낮추려고했다. 그들의생각은처음에는더멀리진행되지않았다. 그리고그들이그들 입장에서, 즉영국산업전체의입장에서더이상보호를필요하지않는다는것, 농업의도전을아주잘수용할수있다는것을이해하게된것은지주들이그들에게제기한항의에따라서였을뿐이다. 제조업자들은서로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더이상부분적개혁이아니라일반적개혁으로밀고나가자.’ 이는이로운동시에논리적일것이다. 이는최상으로여겨질것이다. 일순간자리를빼앗긴재산가들은다른사항들에관해스스로개혁할것이고, 영국의프롤레타리아는새로이세계에대해견지되는산업전쟁으로인해 자신의모호한평등의기대를벗어날것이다.

관세폐지연맹이실도하든부인하든, 연맹은무역자유를통해여러민족들의의숙화로나아간다. 그리고사람들이우리에게그웅변자들의박애주의를자랑할때신실한영국이그경전들과선교사들을가지고서도처에서약탈과강도짓을시작했음을우리가잊어버리게해야했다. 경제학자들은대영제국의반금수론선동에대한프랑스언론의긴침묵에놀랐다. 그리고나역시그에놀랐지만, 아주다른동기때문에놀랐다. 우리가웃들의 입장에서이체제의가장큰, 그리고가장완전한적용에불과한것을사람들이무역수지균형체제의엄숙한포기로간주한다는것, 이거대한영국인의희극을사람들이유럽의경찰에고발하지않았다는것이다. 이희극에서이론가라고하는자들도버해협이쪽편의바보들이자저쪽편의친구들로서우리에게희생자역할을말도록하려고애쓰는것이다.

수입하는민족들, 착취당하는민족들. 대영제국의위정자들이경이롭게도아는것이바로이것이다. 이들은자신들의산물을무력으로세계에강요할수가없어서세계의다섯대륙에서자유무역의광산을파헤치기시작했다. 로버트필은연단에서이렇게실도했다. “우리가곡물법을개혁하는것은더낮은가격에생산하기위함이다.” 그리고프랑스의회에서인용된 발언은갑자기우리들사이에서관세폐지론에관한열심을잠재웠다. 로버트필의개혁이충분히보호주의적인특성을보존하며해외시장에서자신의패권의기초를놓기위해서사용하기원하는또하나의무기에불과하다는것은거의모든프랑스언론⁹의고백에서확인된채로있었다.

⁹ 부처部處에맞서싸우려고한신문들, 「주르날데테바 le Journal des Débats」, 「시에클 le Siècle」, 「쿠리에프랑세 le Courrier français」는바로저명한경제학자들에게경계면을말긴신문들이다. 부처의현명함에경의를표하면서도그신문들은자신들의이론을남겨두었다. 민주적신문들로말하면, 그신문들이아무것도몰랐고, 아무것도이해

의소리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멀리한다. 다른 한편, 영국은 여러 조약들에 추가 조항을 넣는 데 동의했는데, 이는 원래 영국이 자국의 것으로 배타적으로 유보했던 모든 이점을 모든 국가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런 의면적 양보 덕분에 영국은 중국에서 유럽의 외교관들과 상인들, 심지어는 아메리카의 외교관들과 상인들의 존재를 쓸데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영국은 중국시장의 혜택을 차지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을 처리했다. 왜냐하면 관세를 조절하고 무역에 개방된 다섯 항구들에서 관세의 적용을 주관할 것이 영국이기 때문이다. 이 관세들이 특히 영국이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해서 완화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 좋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신의 없는 충직성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영국이 자유무역 이론을 가지고서 요구하는 것, 이는 교역자들이 아니라 로지구매자들이라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었는가?

1845년 「정치경제학연감 L'annuaire de l'Économie politique」은 1845년 「경제평론 Revue économique」의 불길한 예견을 확증했다. 거기서 이런 구절을 읽게 된다.

“중국과의 조약은 아직 영국인들에게 그로부터 기대하는 혜택을 낳지 않았다. 영국인들은 수년 전부터 천하의 제국에 해로운 엄청난 무역수지에 따라 척도 재가 그 나라에서 아주 희소해져서 이 나라와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⁷

그리고 결론적으로 픽스씨는 다른 날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다. “중국의 운명은 인도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국이 이 방대한 지역에서 가지는 소유물의 원천은 다양한 인민들에 대한 예측과 착취를 명령한 역겹고 악몽 높은 이 정책에 관련된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경제학자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들은 금수론자들, 그리고 신의 없는 알비온 Albion⁸의 상품들을 불신하는 이들을 황송하게도 놀려대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어느 프랑스인이 이 주제와 관련 있는 문제들에 관해 아주 온전한 진리를 말하려고, 혹은 심지어 발견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동발씨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으므로, 조금 한 마음으로 경제학자들이 대답하기를 기다린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옳건 그르건 그들의 이론이 지니는 신용을 파멸시키는데 관심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기는 하지만, 나는 그 과학을 분열시키는 — 심지어 ‘그 과학을 영예롭게 하는’이라고 말하자 — 위대한 여러 학파들 중 하나가 우리의 자존심 강한 나라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적수인 나라의 비밀요원으로 행세하는 것으로 쾌활한 마음에서

⁷ 이기사는 「주르날 데 제코노미스트」에서 그 후로 더 진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에 기초해 반박되어 왔다. 내 의견으로는 그 사실이 영국 정책의 필연적 결과인 만큼 더욱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필연성 앞에서는 자유식한기자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의 철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⁸ 영국을 지칭하는 옛 명칭·역자주

가지로 사회들 서로 간에 대해서도 참이다. 그리고 각 정체政體가 그 품안에 서 발달하는 이 율배반들의 점진적 해결을 통해 그 정상적 형성에도 달하는 것처럼, 인류가 자신의 단일한 형성을 향해 행진하는 것도 한 민족들 간의 유사한 방정식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민족과 민족 간의 무역은 어느 사회도 인류에서 파문당하지 않도록, 집단적인 모든 활동들과 전문성들의 톱니바퀴를 도와주고, 모든 종족이 하나의 가족 이상을 이루지 않고 지구가 하나의 작업장이 상을 이루지 않는, 경제학자들이 예견한 시대를 가속화하도록 가능한 한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대한 그에 못지않게 결론적인 증명은 개인적 자유에서, 그리고 사회가 독점체들로 구성되는 사회의 체제에서도 출된다. 우리가 제 1권의 강의를¹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체제 자체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 노동자들의 조건의 필연이다.

개인 전유와 시민적 평등의 원리에 따르면, 법은 생산자와 생산자의 어떠한 연대도 인정하지 않고 기업가의 임금 노동자에 대한 연대도 인정하지 않아서, 어떠한 사업가도 자신의 개별 독점의 이익에서 다른 독점체들의 종속이나 제약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 결과는 사회 각 구성원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 소비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받고 자신의 산물을 그가 발견하는 구매자에게, 그런 값에 판매할 무제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은 자기 정부에 이렇게 말할 근거를 지닌다. 소금, 철, 담배, 육류, 설탕을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값에 내게 양도하든지, 내가 조달하는 것을 그냥 놔두라. 내가 왜 당신이 그것들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옷돈으로써 나를 파멸시킬 산업들, 내게서도 독질하는 사업가들을 지탱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가? 각자는 자신의 독점 안에, 각자는 자신의 독점을 위해, 그리고 무역 자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러므로 민주적 체제에서는 영주권과 왕권에 원천을 두는 제도인 세관은 역겹고 모순적이다. 자유, 평등, 재산권이 단어들이고 현장은 쓸모없는 종잇장이든지, 아니면 세관이 인권과 시민권의 영원한 유린이다. 또한 영국의 선동의 소음에서 프랑스의 민주적 신문들은 일반적으로 폐지론적 원칙의 입장을 취했다. 자유! 이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흔들리는 붉은 깃발 앞에 선험소처럼 격분한다.

그러나 무역 자유의 전형적인 경제적 이성은 집단적 부의 증가, 그리고 각 개인을 위한 행복의 증대로부터 민족과 민족 간의 교역이라는 사실에서만 도출되는 이성이다.

집단적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을 교역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사회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 교역을 통해 소비는 더 다양해져서 결과적으로 더 낮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노동의 헌법과 정치적 형성에 따를 때 독립적이고 비연대적인 시민들이 모두 개인적으로 외국 산업의 공급물에서 이득

¹ 제 6 장 I 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역자주

을볼권리를지니며, 거기서그것들각각의독점에대비한보장책을구할권리가있다는것은더구나논란의여지가없다. 그러나그때까지사람들은가치들의‘교환’밖에감지하지못하며, ‘증대’가있다는것을알지못한다. 이를발견하려면, 다른측면에서사물을바라볼필요가있다.

교환을이렇게정의할수있다. 산물들의생산에본업의법칙을적용하는것. 노동분업이가치물들의생산과배증의거대영역인것처럼, 교환에의한소비의분화는바로이가치물들의가장정력적인흡수수단이다. 한마디로, 산물들의다양성에따라, 그리고교환에따라소비를나누는것은소비할역량을증대하는것이다. 노동을그파편적작업들로나누면서그생산적역량을증대하는것과마찬가지다. 서로모르는두사회, 매년각각 2억 프랑의가치물을소비하는두사회를가정하자. 우리가가정하는이두사회가산물들처럼서로다르고, 자신들의부를교환하게되면, 일정시간이지난후에소비의총액은, 인구가변함이없을때더이상 2억 프랑이아니고 2억 5000 만프랑일것이다. 한마디로, 두나라의주민들은일단관계를맺고나서는자신들의산물의대체에지나지않을단순한교환에만정되지않을것이다. 다양성이이쪽과저쪽에또산물을포기하는일없이외국산물을향유하게초대할것이다. 이는이쪽과저쪽에동시에노동과행복을증대해줄것이다.

이와같이민족들의조화와진보에필요하고독점의성실성과정치적권리들의통합성에필요한무역자유는또한개인들과국가에는부와행복증대의원인이다. 이일반적고려는자유무역을편들어언급하는것이가능한모든공정적이유들, 내가일찍이받아들이며, 이에대해그장점을강변하는것이쓸데없다고보며, 게다가내가아는아무도그명백성에대해논란하지않는이유들을담고있다.

오컨대, 국제무역이론은개인들간경쟁이론의연장일뿐이다. 경쟁이산물들의저렴한가격만이아니라저렴한가격에서진보의자연스러운보장책인것처럼, 노동의증대, 그리고노동이창출하는행복의증대와는독립적으로국제무역은각민족의그자신의독점들에대항한자연스러운보장책이다. 이는능숙한정부의손에서모든규제법률과상한보다더강력한고등산업공간의수단이될수있는보장책이다.

무수한사실들, 기괴하거나우스운도발들이다음으로이이론을정당화해준다. 보호책이독점에소비자를무방비상태로넘겨줌에따라, 극히이상한무질서, 극히맹렬한위기들이사회를뒤흔들고, 노동과자본을위협에처하게하는것을보게된다.

“석탄, 철, 양모, 짐승들의인위적고가격은어떤이들의이익을위해공동체사회에징수하는조세일뿐이다. 어떤노력을하든, 문제는언제나약속은항상하지만이런방식으로는될수가없으므로결코있을수없는개선조치들을염두에둘때민족이그런부담들을언제까지스스로에게부과할것인가하는점이다”하고블랑키씨는말한다.

이것이바로하나의예로정식화된것으로서대영제국의경제다. 영국의인구가 2200 만명이라고가정하자. 영국의직조공을고용하는데는외국인 1 억 3200 만명이필요하고, 그방직공에게일을주는데는외국인 1 억 1000 만명이필요하며, 영국의모든산업들에대해이와같은비율이된다. 이는더이상교역이아니라극단적인노예살이면서극단적인독재다. 관세폐지동맹원들의모든장광설은비례의법칙, 단일사회에대해서만아니라인류전체에대해서도참인법칙, 정치경제학의지고의법칙의이명백한위배에부딪쳐부서진다.

의문의여지없이영국노동자들의산물이오로지외부에서들어온물품으로변제되고그들에의해소비된다면, 교역이영국상인들과다른민족들사이에서만아니라그들과그들의임금수령자들사이에서도노동의법칙에순응한다면, 마찬가지로제한된산업적특수성의비정상상태에도불구하고그약은상업적으로말해서존재하지않을것이다. 하지만누가영국의상황에대한허위를, 거짓말을못보는가? 영국노동자들이일하는것은다른민족들의산물을소비하기위해서가아니다. 그수출은항상상승하는척도재의반입으로영국에유리하게변제되는것이절대로필요하다. 영국은아무에게서도실도, 직물도, 석탄도, 철도, 기계도, 철물도, 모직물도기다리지않는다. 나는십지어곡물도, 맥주도, 육류도기다리지않는다고말할것인데, 영국이겪는결핍은귀족계층의독점의결과로서실질적이라기보다는인위적인것이다. 곡물법개혁후에영국의수입收入은한편으로줄어들것이지만다른한편으로곧바로늘어날것이다. 그렇지않다면영국에서벌어지는현상은이해불가능하고, 터무니없을것이다. 영국이외부에서끌어들이는소비물품, 차, 설탕, 커피, 포도주, 담배를보자면, 영국이대가로내놓을수있는제조물품의양에비하면별것아니다. 형성된조건에서영국이살수있으려면, 영국과거래하는민족들은면, 모, 마, 아마, 비단을방적하지도직물을짜지도않겠다고약속하는것, 그민족들이영국에게철물의특권과더불어해양의독점을양보하는것, 결국그민족들이현대의개혁자들중가장유명하고미친사람푸리에가조언하듯이영국인들의위원회를수용하는것, 영국인들이지구의배달부가되는것이필요하다. 이모든것은가능한가? 그리고이모두가불가능하다면, 영국인들과의교역의호혜성은무역의절대적자유체제속에서어떻게참일수있을까? 끝으로다른민족들을희생시키지않고영국의상황은어떻게유지될수있는것인가?

영국인들이중국에들어간 이래로 그들은 중국인들에게 비금지 원칙을 실행하게 한다. 옛날에 척도재의 반출은 천하 제국에서 엄격히 금지되었다. 지금은 금화, 은화가 자유롭게 나간다. 「주르날 데 제코노미스트」(1844년 1, 2월)는 이 주제에 관해 이렇게 의견을 표명했다.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원하던 것을 얻었으며, 북경에 대사를 두는 값비싼 명예를 포기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두려워 할 수 있을 모든 정치적인 물으리 이렇게 불평

“관세폐지동맹원들은인민을향해말할때는애덤스미스를근거로삼아말한다. 밀의자유로운수입은빵값을낮출것이며, 동시에제조된산물들의상당한수요에따라서노동임금을높일것이다.”

“자본가들에게는이렇게말한다. 생필품가격하락은임금을낮추고, 판로의크기에비해해우리의이윤을상승시킬수있게해줄것이다. … 게다가임금수령자들이요구가많은이들로드러난다면, 우리는언제나기계와증기력의도움으로그들없이지낼수있을것이다.”

“그들은지주를향해서말하는가? 그럴때그들은스미스는놔두고리카도를취한다. 그들은무역자유가영국의밀가격을외국시장들의가장낮은가격수준으로낮추는것이아니라반대로외국의밀이영국밀과같은수준이되게상승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임을증명하려고애쓴다. … 그리고섭나라인대영제국의위치는언제나지주들에게엄청난특권, 독점을보장해줄것이다.”

“소작인들을설득하기위해서는이렇게말한다. 관세폐지동맹은그들에맞서서싸움을거는것이아니다. 왜냐하면독점으로이익을보는것은그들이아니기때문이다. 굶주린자들에게조세를징수하는것은지주다. 밀에대한관세를폐지하는날, 의회는소작료에서비례적인감축을명령할것이다. … 다른한편, 역학力學은우리가그증인이되는진보보다더경이로운진보를할시점에있다. 머지않아드판의노동은생명이없는원동기들에의해수행될것이다. 모든경우에물품가격의감축은임금도낮출수있게해줄것이다. 그리고모든산물은소작인들에게로되돌아올것이다. …”[비달 (Vidal), 「독립평론」, 1846년 1월 25일]

하지만담화들이하는것이무엇이며, 말들이무슨의미를가지는가? 판단할필요가있는것은사실들이다. 적힌사실보다사실이더정확하다 (potius quod gestum, quam quod scriptum). 영국인민은그영토에서나는천연산물에제조산물의비례적인양이더해지고거기에자국산물과의교환으로외부에서공급된산물의새로운비례분득분이아니라철물류와직물의배타적판매에의한세계의착취덕분에, 자국의고객층의돈 말고다른돈을되돌려주는일없이, 생존의발판위에놓였다. 영국에서자본주의와임금제도를과도하게발달시켜영국을파멸시킨것은이런비정상적착취다. 그리고그러한것이영국이관세를방패로삼아자국의뚝리지 않는자본의갑옷을입고세계에감염시키려노력하는해악이다.

레옹포세씨가인용한영국의한노동자는연회에서이렇게말했다. “작년 (1844) 에우리는 6 억 3000 만프랑가치에해당하는실과직물을수출했다. 이것이바로우리나라번영의주된원천이되는것이다. 그러나외국시장들이우리에게달하면서임금하락이생겨난다. … 방적공들중에만명이내수를위해서일하는반면다섯명이외국인을위해일한다. 그리고직조공들은외부시장으로가는천을여섯필짜는반면내수용으로단한필만짜다.”

“금수禁輸체제는나머지유럽에서처럼영국의방식에따라조직된우리의어떤산업들에자본의이익을위해인위적이고위험한추진력을거의배타적으로가하는경향을떨뿐이다. 그것은생산을과장하며, 동시에언제나보복이따르는외제수입에부과하는질곡을위해소비를제약한다. 그것은대외경쟁의도전을국내경쟁의광포한투쟁으로대체한다. 민족들간노동분업의행복한효과를파괴한다. 그들간의오랜적대성을유지한다. … 노동과자본을너무자주갈라놓는깊은분열을조장하고, 일꾼들을갑작스럽게격하시켜극빈층을낳는다.”(「주르날데제코노미스트」, 1842년 2월)

블랑키씨가지적한보호체제의이모든효과는진실이고, 무역자유에가해지는질곡에불리한이야기가된다. 유감스럽게도우리는곧그효과들이자유자제로부터그에못지않은강도로생겨나는것을보게될것이다. 그래서악을치료하기위해블랑키씨와함께병원病源을절대적으로퇴치해야한다는결론을내려야한다면, 국가, 재산권, 산업, 정치경제학에한꺼번에반대하는결론을내릴필요가있을것이다. 그러나우리는아직까지이울배반에도달하지않았다. 인용문을계속따라가보자.

“특권, 독점, 보호는불행한일꾼에게는예외가되지만, 잇따라검쳐져서모든노동의목표인생산물의분배에서기괴한현상을불러왔다. 어디에서도자유는작용역량에관한바람직한수준을지나친적이없다. 질곡들은사기를낳았다. 도둑질, 거짓말, 폭력은그일의보조수단들이다. 탐욕은오늘날부끄러움도없이모두의희생으로축적할수단을권리로주장한다. 투쟁은어디에나있고, 조화는어디에도없다.”

“그러나우리자신이달려가는곳은그렇게재앙적인결과다. 인민이아직아무것도아닌나라에서는사람들은착취의이런확고부동함을이해하지못한다. 그러나인민이전부가되는나라에서왜인민의목소리가들리지 않는채로있는가? 경제적토론에서인민의이름이왜결코발설되지 않는가? 이성이세상을다스려야한다고사람들이외친다. 그러므로프랑스민족이오늘날거의완전히채식식단을대할처지로전락한것은이성의이름으로된것인가? 프랑스민족이지성의기적들중에서입을웃도, 웃웃도, 신발도교환수단도없는채로있는것, 감자가이미이들의위생에서밀을대체하는것, 끝으로노동이오늘날영국에서처럼소비에대한생산의초과분을점점덜남기는것은이성의이름으로된것인가? 임금에비한산물의가격을결코격정하지않으면서때로는이사람들에게, 때로는저사람들에게먹잇감처럼시장을넘겨주는것은이성인가!”

“18년전부터프랑스민족은육류를먹지 못하고있다. 매일각개인에게해당하는몫은급감한다. 그리고권리청구를할때마다 55 프랑의가격이생산자에게필요하다고우리에게차갑게말한다! 필요하다고! 먹을것을못먹는것이어떤이들의재산에필요하다고!”[뒤사르 (H. Dussard), 「주르날데제코노미스트」, 1842년 4월]

확실히그그림은윤색된것은아니다. 그리고경제학자들이자신들의 유토피아에대한관심에몰두해있을때이들에게진실을말하게, 사회적빈곤에관해온전한진실을말하게하려는것이다. 그러나그토록비난받는보호의원칙이정치경제학의구성원칙으로서길위의어디서나마추지는독점말고다른것이아니라면, 이원칙이재산권자체, 이독점의종교인재산권이라면, 나는경제학자들의위선에대해서는아니어도이들의비밀관성에대해분노할권리가없는가? 독점이그토록역겨운것이라면왜그발판을 공격하지않는가? 왜한손으로는향을바치고, 다른손으로는그것에칼을 빼어드는가? 왜이런꿈수를쓰는가? 토지든, 산업자본이든, 제조공정이든모든배타적활용, 모든전유는독점을이룬다. 이독점은왜그것의경쟁상대인해외독점이자신에게경쟁을걸어오기위해등장하는날부터만역겨운것이되는가? 왜토착민이외국인에게행사하는독점보다동포가동포에게행사하는독점이덜존경스러운가? 프랑스에서정부는왜루아르의석탄담합을감히직접공격하지않으면서, 자국민에맞는신성동맹의무장을 촉구하는가? 내부의적에맞서왜외부의적의이런개입이있는가? 영국전체는오늘날교역의자유를위해일어섰다. 이나라의산업독점자들이토지독점자들에반대해러시아인, 이집트인, 미국인들에게행한호소를말할것이다. 공격하는것이정말로독점이라면, 왜이런반역이필요한가? 영국의수백만명의맨손은수천명귀족에맞서기에충분하지않은가?

자유무역연맹 Ligue 의가장영향력있는구성원중한분인시니어(Senior)² 씨는이렇게외쳤다. “일꾼들에게전적으로진실성을지닌말로서정부가제조업과상업에제공할방향에서선제조치를취했으며, 이런과상한형평을어떤사람들의(실질적혹은가상적) 이익을위해활용했다고말할때, 양허한모든독점중에서가장악착같이수호하는독점이생존수단의독점이라는것을그들이발견할때, 자신들에게가장뻔뻔한박탈을가하고, 지배하는계급에게가장크고가장직접적인이익을주는것이바로그독점임을그들이알때, 우리는그들이이해악을섭리에따른재난으로견딜것인지아니면불의의슬픈결과로바라볼것인지를정부에묻는다. 이성이그들을후자의판단으로유도한다면, 그들의분노는어떤형태를취할것인가? 그들은복종할것인가, 아니면자신들의역량속에서이오랜침해의재분배를추구할것인가? 그리고그들의힘은무서운것이되기에충분히큰가?”

“이모든질문에대답하기는쉽다. 영국인구는도시들에모여살고정치토론에익숙해진수백만개인으로이루어진다. 그들은우두머리를두고있고, 고유한언론을가진다. 그들은조합이라고칭하는단체들로조직되어그각각이공직자, 집행권, 심의권을가진다. 그들은각사회의필요를위한

² 나소윌리엄시니어 (Nassau William Senior, 1790~1864), 영국의경제학자-역자주

대륙봉쇄는유럽이그혼수상태에서벗어나지않을수없게했다는것, 그황제의통치시기에서부터대륙의산업적움직임이비롯된다는것, 이새로운사태전개에따라프랑스, 에스파냐, 독일, 러시아가영국의물품조달없이지내기를배웠다는것, 나폴레옹이상상한배제체제에맞서봉기한후에그나라들은저마다자신의입장에서이를활용하기시작했다는것, 단한사람의생각이이와같이모든정부들의생각이되었다는것, 영국을그산업에서만이아니라그금수적인장치들에서도모방하면서그들은어디서나국내제조업자들에게자국시장을남겨준다는것, 그래서영국은나폴레옹이갱신한이보편적봉쇄로인해어느때보다심각하게위협을당해관료를잃게될까오를하고, 이제장벽의철폐를소리높여요구하고, 절대적무역자유를위한과상한회담들을소집하고, 이전술적변화에따라관세폐지운동에속적관계인민족들을끌어들여노력한다는것이다. 허스키슨(Huskisson) 씨는자치공동체회의 chambre des communes 에서이렇게말했다. “보호체제는영국에게는시효가끝난발명특허다.”동발씨는이렇게대답한다. “그렇다. 그특허장은공유재산으로들어왔다. 그이유때문에영국은이를더이상원하지않는다.”나는이것이영국이그것에어느때보다더집착하는것을정확하게증명해준다고덧붙여말한다.

관세폐지동맹자들측에서우리경제학자들을가장많이건드리는것은이들이모든외국산품에대해수입관세의폐지를요구하고그반대는요구하지않는다는것이다. 그반대는요구하지않는다! 이는방문권 le droit de visite 을상기시킨다. 그반대는없다는것이다! 우리프랑스인, 독일인, 포르투갈인, 에스파냐인, 벨기에인과러시아인은어떻게이런무사무욕의증거에서저항할수있는가?

관세폐지동맹의변호자인바스티아씨는이렇게적고있다. “그러한끈질긴노력, 그러한진실한열정, 그러한생명력, 그러한행동, 그러한동기가단하나의목적, 이웃인민들을속여서합정에빠뜨리는목적만을가진다는것을어떻게상상하겠는가? 나는관세폐지동맹의옹변가들의담화를300 편도더읽어보았다. 나는이강력한협회에서발간한엄청난수의신문과팸플릿을읽어보았는데, 그러한가정을정당화해줄한마디말도, 무역자유를위해서는영국인민에게세계를착취하도록보장해주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그로부터도출할수있는한마디말도보지 못했다.”

바스티아씨가잘못읽었거나이해를못한듯하다. 왜냐하면관세폐지연맹의발행물에서관세폐지동맹원들의수사修辭에관해바스티아씨못지않게유식한한경제학자가발견한것은다음과같다.

“이신문들, 이팸플릿들은미묘한사항들과괴변으로오염되어있다. 그것들은많은경우같은사람이쓴글인데도서로뻔뻔스럽게모순을이룬다.”

한재치로대답해, 세관이거머리한마리에 5 상팀을징수하고, 독사한마리에 15 상팀, 기나나무 1 파운드에 25 상팀, 감초 1 킬로그램에마찬가지액수등을징수하는것을보여주면서독자들을아주웃겼다. 모든것이납세물품이라고, 건강한자를불행하게만드는치료수단까지도관세를납부한다고그는 썼다. … 블랑키씨는우리가먹는육류에까지, 우리가마시는포도주에까지, 우리를감싸는직물류에까지무엇을더하지않았는지? 하지만왜무언가가관세를납부할필요가있는데, 모든물건이관세를납부하지않을것인가? 그러므로과장하고말장난을하는대신, 끝으로어떻게국가가가조세없이유지될것인지, 어떻게인민이노동없이생존할것인지를말하라!

바닷가에서이용되는철물과철판의경우에, 샤를뒤팽씨가보조금체제를농상업일반협회의회에서강조한것에대해 「주르날데제코노미스트」지는 1846 년 1 월호에서이렇게성찰했다. “샤를뒤팽씨는항해의모든필요를충족하기위해프랑스에충분히많은공장이있다고주장한다. 문제는거기있지않다. 이공장들은벨기에나영국에서와마찬가지의저가격에철을제공할수있으며, 제공하려고하는가?”

문제는바로그것이다. 한민족이노동을해서생존하느냐아니면돈을빌려서죽느냐하는것이상관없는일인가? 프랑스가외국인에게서낮은가격에취할모든것을스스로생산하기를포기해야한다면, 우월한산업들도포기하지않을이유가없다. 그리고우리가우리를외면하는고객층을다시우리에게로불러오기위해행하는모든노력은아주오해를받는다. 끝까지추진된금지원칙은뒤사르 (Dussard) 씨가말했듯이외국산품을심지어무조건거부하는데까지나간다. 하지만반금지원칙은다른한편으로더저렴한가격에서도민족의노동을그치게하는데까지나간다. 그리고경제학자들은그대안을넘어오르는대신에그대안을수용하고선택한다! 얼마나가없는과학인가!

경제학자들의아우성을가장많이일으킨정책적조치는영국에맞서나폴레옹이착수한대륙봉쇄였다. 이전쟁기계안에있던거대하면서사소한것은치위버리자. 이기계는의문의여지없이방진方陣수비와같은정확성을가지고조정하는것이불가능했던것이지만, 그원리에서는완벽하게설계된것이다. 이는내생각으로는나폴레옹의천재성을보여주는가장놀라운증거들중하나다. “그행동은내게유리한것으로판명되었다”고그는세인트헬레나에서말했다. 그만큼그는자기영광의이불멸의명목에가치를부여했으며, 그만큼그는위털루에서패전하면서도적의가슴을단칼에절러죽였다는생각으로유배지에서위안을삼기를좋아했다.

「주르날데제코노미스트」(1844 년 10 월) 는나폴레옹을정당화해주는모든이유들을모은후에, 그행동이나폴레옹에게해가된것으로판명되었다는결론을끌어낼수단을발견했다. 그잡지가제시한동기들은다음과같은것들이다. 나는아무것도변경하지않고과장하지도않는다.

기금, 그리고결합된모든사회들의일반적필요를위한기금을가진다. 그들은오랜관습덕에담합을금지하는법들을피하고, 국가의권위에맞서싸우고도전하는데익숙하다. 그러한인구는번영시에도무섭다. 불행시에는심지어그불행을정부 탓으로돌릴수없을때에도천배는더무서울것이다. 그러나이빈곤을입법의타오로돌릴수있다면, 노동자들이실수때문이나나라도독질과압제때문에지배계급을고발할수있다면, 그들이지주의지대에, 농장주의이득, 혹은캐나다삼림업자의이득에자신들이희생되는것을본다면그들의분노의효과에는어떤한계까지정될수있는가? 우리의부, 우리의정치적보장혹은우리의헌법마저그러한갈등에서벗어날것이라고우리는확신하는가?”

이장광설에서폐지론자들위로곧장다시떨어지지않는것은한마디도없다.

누가일꾼들에게세관을폐지함으로써그들을구원하기를원하는것처럼둘러대는독점이이폐지로부터새로운기운을받아야했다고말할때, 사람들이실토하려고하는것과는아주다르게뿌리깊은독점이시장의배타적제공만이아니라특히토양과기계류의배타적활동에, 자본의확산되는전유專有에, 산물의매점買占에, 교역의자의성에도있다고말할때, 그들이이차취득거래의투기에희생되었고, 손발이묶여자본의지대에넘겨졌으며그로부터파편적노동의파괴적효과, 기계류의압박, 경쟁의재앙적인요동, 그리고조세의이사악한조류이생겨나는것을그들에게보여줄때, 그다음으로보호관세의폐지가어떻게특권의망을확장하고, 박탈을배가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맞서모든나라의독점들을결탁시키기만했는지를그들에게보여줄때, 선거로선출된, 그리고양조의부르주아지가자유를구실로이거짓과약탈의체제를유지하고공고히하고준비하는데에극히큰노력을했다고, 이체제를지키기위해교수자리가만들어지고, 보수가제안되고지급되고, 궤변론자들이고용되고, 신문들이매수되고, 정의가부패하고, 종교가동원된다고, 계획도위선도폭력도자본의폭정에빠짐이없었다고그들에게이야기할때, 결국그들이분노에휩싸이지않을것이라고, 일단복수의주인들이되고서그들이사면을하면서안식할것이라고생각하는가?

시니어씨는덧붙였다. “우리는이렇게경보를발하는것을유감으로여긴다. 우리는그럴필요성에탄식하고, 우리가하는역할은결코우리의마음에맞지않는다. 그러나우리는우리가가정한위험들이우리를위협한다고굳게믿으며, 우리의의무는공중에서우리신념의기초를알리는것이다.”

그리고나역시경보를울리는것을유감으로여긴다. 그리고내가행하는고발자의이직무는내성정에맞는가장끄트머리의것이다. 그러나진실이말해지고, 정의가행해질필요가있다. 그리고부르주아지가자신을위

협하는 모든 악들을 당할 만 했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 의무는 부르주아지의 죄책의 증거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경제학자들이 독점을 세관원의 복색복장에서만 보고 거부하는 반면, 내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추적하는 이 독점은 무엇인가? 이는 자본도 재산도 보유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노동과 운동의 금지, 공기와 빛과 생존수단의 금지다. 이는 절대적 박탈, 영구적 죽음이다. 옷도 신발도 셔츠도 빵도 고기도 없는 프랑스다. 포도주도 철도도 설탕도 연료도 없는 것이다. 끊임없이 기근으로 낙담하고, 형언할 수 없는 빈곤의 공포에 넘겨진 잉글랜드다. 빈곤해지고, 퇴화되고 야만과 야생으로 돌아간 종족들이다. 그러한 것들이, 무슨 특권이건 그 특권에 의해 얻어맞고 비상을 억압당할 때 자유가 표현되는 무서운 표징들이다.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에 든 대리석 왕좌 위에 결박당한 이 위대한 죄인의 음성을 듣는 듯하다.

불행한 테세우스가 앉아 있으니 영원히 거기 앉아서
큰 목소리로 그림자들을 뚫고 선포하네.
정의를 배우고, 신들을 모욕하지 않기를 배우라.

Sedet, aeternumque sedebit
Infelix Theseus, et magna testatur voce per umbras,
Discite justitiam moniti, et non temnere divos!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상거래를 많이 하는, 정치경제학이 보호하고, 성별하고, 신앙고백하는 모든 종류의 독점에 가장 많이 집어삼켜진 민족이 보호에 반대해 온통 그리고 한 사람처럼 들고 일어났다. 정부는 온 국민의 갈채를 받으며 관세 폐지를 명했다. 프랑스는 경제적 선전에 넘어가서 영국의 방향을 따르고 유럽 전체를 따르는 쪽으로 이끌기 일보직전이다. 이 위대한 혁신의 결과들을 연구하는 것이 할 일이다. 거기 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신을 일으키지 않기에는 결코 충분히 순수하지 못하고, 그 원리는 충분히 심오하지 못하다.

II. 보호의 필요성

내가 자유무역이론에 맞서 아주 새로운 이성들, 내가 홀로 그리고 처음으로 알아챈 사실들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면, 내가 이론에서 솟아나게 할 모순은 내 고집의 위안거리일 뿐이며, 역설을 이용해 나를 두드리지게 내세우려는 도가 지나친 질투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견은 내 이야기의 신뢰를 아주 잃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보편적 전통, 극히 향상적이고 극히 진실한 신념을 수호하려는 것이다. 나로서는 경제학자들 자신에 대한 의문, 그들이 보고하는 사실들에 대한 반감을 지닌다. 내가 설명하고, 또 나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이 반감, 이 의문, 이 전통이다.

는 가장 손쉬운 길이라면 많이 구매하고 적게 판매하는 것은 덜 급속하지만 마찬가지로 확실한 멸망의 인자임을 모호하게 감지했다. 그들의 배타적 체제, 혹은 더 제대로 말해 노동에 대한 강제 권체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다른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에 관해 블랑키씨가 가진 그 모든 창의적 지적력에 호소한다.

두 가지가 에스파냐 왕들에게 결여되었다. 금을 맡은 민족에게 일을 시키는 비밀, 이는 금을 만드는 비밀보다 아마 더 알 수 없는 비밀이다. 그리고 종교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나라에서의 종교적 관용의 정신이다. 풍요로운 가톨릭 국가 에스파냐는 그 나라의 종교와 예배 행위 때문에 미리 저주를 받았다. 카를 5 세와 펠리페 2 세가 세운 장벽들은 백성들의 게으름으로 뒤집어져서 외국의 침입에 약한 저항만을 했으며, 두 세기가 못되어 영웅들의 인민이라 사리오 (Lazarillo)⁶의 인민으로 변해 있었다.

블랑키씨는 에스파냐가 교역 때문이 아니라 그 무행동 때문에, 장벽들의 폐지 때문이 아니라 장벽들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진다고 말할 것인가? 블랑키씨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열띤 운변으로 별일도 아닌 것들을 부각시킬 줄 아는 자로서 이런 반론을 제기할 능력이 있다. 장벽을 세우는 것을 예방하는 일은 내 의무다.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은 제대로 말해서 파괴라는 점, 따라서 비생산적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은 파괴라는 점, 이런 목적으로 자신의 상속지를 걸고 돈을 빌리는 것은 파괴라는 점, 손해를 보고 일하는 것은 파괴라는 점,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것은 파괴라는 점에 사람들은 동의한다. 그러나 내놓을 수 있는 상품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손해를 보면서 일하는 것이고, 자신의 상속 재산을 먹어버리는 것이며, 자신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재산이 밀수입으로 달아나든, 정식 계약으로 달아나든 무슨 상관인가? 세관이든, 장벽들이든 무슨 상관인가? 문제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해주는 상품, 노동과 교역을 통해서만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상품을 양도하면 자신의 자유를 매각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에스파냐가 카를 5 세와 펠리페 2 세 치세에 자신의 금을 외국산 물과의 교역에서 내주는 데 국한한 경우 행한 일을, 우리가 2 억 프랑의 외국산품을 1 억 6000 만 프랑의 국내산품 더하기 4000 만 프랑의 우리 화폐와 교환할 경우에 우리 자신이 행하는 일과 동일시할 권리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원리들에 관해 너무나 급한 처지에 있을 때, 세세한 사항들에 몰두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에 관해서 툭 말장난을 하고, 인용 문들로 우리를 현혹한다. 그들은 세관의 남용, 그 번거로움, 그 기분상함을 고발한다. 그들은 언제나 독점의 더 큰 자유로 결론을 맺기 위해 독점과 분리 불가능한 악을 부각시킨다. 블랑키씨는 한 저명한 기자에게 무궁무진

⁶ 1554년에 출간된 소설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의 삶, 그의 행운과 불운』의 주인공으로, 생존을 위해 비루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역자주

제나지속되어야한다고, 적어도그것의현재형태로지속되어야한다고말하지않는다. 하지만나는그것을생겨나게한원인이언제나지속될것이라고단언한다. 따라서거기에는사회가영구적으로해결해야하는, 그리고이해결의밖에는여러사회들에기만과상호적빈곤만이있게되는이율배반이있다고단언한다. 정부는명령을내려그관세선들을폐지할수있다. 이때지는원리상으로무슨의미가있으며, 우리가그기관器官들일뿐인숙명에무슨의미가있는가? 노동과자본의적대가그것으로누그러질것인가? 그리고세습귀족과프롤레타리아트의전쟁이일반화될것이므로, 풍요와빈곤의전파가더이상장애물을만나지않을것이므로, 신하신분의사슬이그물처럼세상에, 그리고단일한후원아래군집한모든민족들에던져질것이므로산업적연합의문제가풀렸고사회적균형의법칙이발견되었다고감히말할것인가?

몇가지를더고찰하고, 벌써너무길어진이단락을끝맺겠다.

우리의모든경제학자들중가장인기가있는사람이지만, 동시에교역의절대자유가장열렬한추진자인블랑키씨는그의책 『정치경제학사 Historie de l'économie politique』에서, 에스파냐의왕들인카를 5세와펠리페 2세가정책의기준으로서무역균형의체제와그필수불가결한보조물인세관을처음으로채택했다고해서후세의저주를받게했다. 확실히이비행非行으로카를 5세와펠리페 2세가티베리우스와도미티아누스보다나쁘다고하더라도, 그들이에스파냐전체와유럽전체를공범으로두었다고시인할필요가있다. 후세의눈으로볼때그들의범죄를경감해야하는상황인것이다. 이군주들이그들세기의대표자로서그들의배타적민족성체제에서그렇게크게잘못했는가? 블랑키씨가우리에게대답할것이다.

그는어떻게에스파냐가신세계의발견이그나라에가져다준엄청난부덕분에옛산업에서휴식을취하면서우선은무어인들을추방하고, 다음으로유대인들을추방하고, 마지막으로그음란함과게으름때문에짧은시간내에멸망했고, 모든민족들중에서가장궁핍한민족이되었는지를보여주기위한장황을할애한다. 언제나구매를하고, 결코판매를하지않아서에스파냐는그운명을피할수없었다. 블랑키씨는이를말하고이를증명한다. 이는그의저작에서아름다운부분들중하나다. 카를 5세와펠리페 2세가어떤수단으로든에스파냐에일하도록강제할수있었다면그들이에스파냐의진정한수호신, 조국의아버지들이되었으리라는것은진실이아닌가? 유감스럽게도카를 5세와펠리페 2세는사회주의자도경제학자도아니었다. 그들은 20개의조직및개혁체제를결코가용한것으로가지고있지않았으며, 자본이에스파냐에서빠져나가는것이그리되돌아오게하는것의 4승을한것만큼더욱다고민지않도록했다. 그시대의모든사람들과마찬가지로그들은척도재가빠져나가는것이민족의부가흘러나가는것과대등하다는것, 언제나구매하고결코판매하지않는것이망하

자유를이야기하면서내가방금이야기한픽스씨는조심성과신중함그리고절제가득찬작가이고세 (Say) 학파의가장머리가깎경제학자들중한사람으로서그자신다음의말로자신의먼저번명제에반대되는것을내놓았다.

“어떠한차별도인정하지않는진보경제학자들은심오한신념이일키는민첩함과모든기력을다해진행하기를원한다. 그들은세관, 독점그리고이것들을지행하는인원을한방에처부수기를원한다. 그러한개혁의결과들은어떤것일까?”

“외제직물, 가공된철과금속들을관세없이들어오게하면소비자들은적어도일정시간동안은형편이좋을것이며, 어떤산업들은거기서큰이윤을보게될것이다. 그러나이런순간적이고이기치못한변화는엄청난재앙을그산업에유발할것이확실하다. 엄청난자본이비생산적으로될것이다. 수십만일꾼이갑자기일자리와빵이없는처지가될것이다. 영국과벨기에는예를들어서프랑스의소비절반을힘안들이고조달할수있을것이다. 이는그만큼국내제조업을축소시킬것이지만, 또한생산을계속할입장에있는제련소주인들에게상당한피해도일으킬것이다. 직물산업에대해서도같은결과를보게될것이다. 영국, 벨기에, 독일은자신들의제품으로프랑스를범람시킬것이다. 그리고이런이례적인수입에직면한우리공장들대부분은지체없이폐멸할것이다. 어떤나라도그러한경험을감히하지못했다. 단하나의산업분야에서도하지못했다. 아담스미스의이론을추종했고아직도극히열렬히추종하는국가공무원들은이런성격의사업앞에서후퇴했다. 그리고나로서는그사업이위험과위험으로가득한것을발견한다고실토했다.”

이이야기들은충분히정력적이고충분히명확하지않은가? 그저자가물적인사실앞에멈추지않고이론적으로자기공포감의동기를도출하지않은것이유감스럽다. 그의비판은내비판이확득하지못할권위를누릴것이다. 그리고아마도무역균형의문제는세의제자이자친구인한 1 급경제학자에의해해결되어어른에게준을제공했고, 민족들간에진정한연합의기초를마련했다.

그러나픽스씨는경제이론에물들고, 그확실성과신해서그모순에대한예감을넘어서가지못했다. 사람들이말해온경악스러운프로그램후에픽스씨가이이상한생각으로끝을맺을용기를지녔다고누가민쳤는가. 이는이론의탁월성, 그리고그것의응용가능성을조금도훼손하지않는다!

나로서는이를다시말하지않을수없다. 내가오래살수록사람들의이론을더깊이있게만들며, 그럴수록나는우리가초자연적인숨결에영감을받은예언자의종족으로서우리를살리는신의너럭함에대해말하는예언자라는것을발견한다. 하지만, 아슬프도다! 우리안에는신만있는것이아니다. 짐승도있어서, 그광포한또는어리석은암시들이우리의성을

끊임없이 흔들고, 우리의 열심을 해매게 한다. 그러므로 인류의 운명은 신은 내게 신을 가상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가설을 보완하기 위해 사람 안에는 동물의 왕국 전체가 살아 숨쉬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유신론은 그 보조명제로서 유효설을 지닌다.

뭐라고!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에 의해, 인간 기력의 자연 발생적 결과로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의 해는 박되는 이론이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들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했지만, 이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리쳐 버린 이 이론을 사람들은 의심할 바 없다고, 탁월하다고 선언한다. 그 추종자들이 프랑스에, 영국에, 벨기에에, 독일에, 유럽 전체에 그리고 세계의 5 개 대륙에 적용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이론이여기 있다. 엄청난 재앙을 야기하지 않고서, 엄청난 자본을 비생산적으로만 만들지 않고서, 수십만 일꾼에게서 빵과 일 자리를 빼앗지 않고서, 한 나라의 제조업 절반을 죽이지 않고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적용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말하건대,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18 세기, 17 세기, 예전의 모든 세기들에서처럼 19 세기에도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어지는 여러 세기에도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언젠가 지구상의 각 지점에서, 민족적, 개인적 활동들의 효과에 의해, 독점들의 형성에 의해, 그리고 다양한 풍토에 의해 이익의 엇갈림과 경쟁 관계가 생겨날 것이며, 따라서 죽거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결과 과배제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학파의 명예를 위해 그에 못지않게 이 이론을 적용할 가능성도 꾸준히 강변한다!

인내 하라 그 그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교역 자유로부터 야기된 악은 일시적일 것인 반면, 그로부터 나올 선은 영구적이고 해아릴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후세를 향하여 행복의 약속은 아무것도 그 실현을 보장하지 못하고, 실현이 되더라도 의문의 여지 없이 다른 재앙들에 의해 상쇄될 것인데, 이 약속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제조업자에게 100 킬로그램당 359 프랑 50 샤틀을 지불하는 레일을 영국이 우리에게 100 킬로그램당 150 프랑에 제공할 것이고, 국가는 이 시세에서 2 억 프랑을 벌었으리라는 것, 외국가축들을 우리 시장에 받아들이지 거부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육류 소비를 인당 25 퍼센트 줄였으며 공중의 건강이 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외제비단의 도입은 바지 한 벌당 평균 1 프랑의 가격 인하를 가져와서 납세자들의 주머니에 3000 만 프랑을 남겨 주리라는 것, 설탕에 대한 관세는 실제로 납세자들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것, 주민들이 서로 창문으로 마주보는 두 나라가 만리장성에 의해서 보다는 서로 더 갈라지는 형편에 처하는 것이 더 무니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말하노니, 금수 정책으로 인한 빈곤의 광경에 마음이 동한 후에 비보호가 유발할 해아릴 수 없는 해악에 대한 고려 때문에 내 열정이 다시 식게 되는 마당에 이 모든 비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영국의 철을 취하면, 이로써 2 억 프랑을 벌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공장들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제철

의 경제적 조건이다. 나는 새로이 시민적 연대성의 이 원리에 누구든 반대론을 펴 보라고 도전한다.

그러므로 국내 세관들이 프랑스에서 폐지되었을 때, 민족적 독점체들의 중앙 집중의 주된 결과들 중 하나였던, 그리고 86 개도 départements 사이에 무역 자유의 이익을 크게 감소시키는 빈곤의 증대는 논의로 하고, 바로 이 도들 사이에는 조세의 비례적 배분과 부담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래서 부유한 지방들은 더 납부하고, 가난한 지방들은 덜 납부해 지방들 간에 일정한 상쇄가 행해진 것이다. 여느 때처럼 부의 증대와 빈곤의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모든 것이 호혜적이었다.

지구상의 민족들 간에는, 그 민족들이 여러 정부들로 나누어지고 비연대적인 동안에는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물론 군주들에게 전쟁을 걸고, 왕조들을 전복하고, 여러 정부들을 도시 집행관의 기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들의 구분을 보편적 왕정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그들은 인민들을 연합시키는 비밀, 즉 경제적 모순들을 해결하고자 자본을 노동에 종속시키는 비밀을 훨씬 더 모른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을 결합할 것이 아니라면 무역의 자유는 민족들에 대한, 노동계급에 대한 함포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내게 설득력 있는 이유를 들어 이 문제에서 나머지 모든 문제에서처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가 필요성에 의해 명령되고, 전쟁 상태에 의해, 즉 여러 독점들의 보편적인 정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을 본 후에 세관의 문제를 토론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이 문제가 여전히 정치 경제 학과 법에 기초를 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발견한다. 세관의 존재는 민족 독립에, 그리고 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에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징수, 그리고 시민적 연대성의 원리에 긴밀히 연결된다.

그러므로 나는 어째서 보호를 요구하는 산업인들을 단지 이기주의와 독점으로 고발할 것인가?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자들은 그럼 그렇게 순수한가? 어떤 이들이 그 나라를 착취하고 약탈하는 동안에 나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을 구원자로 간주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입장에서 친영파 관세 폐지론자들을 반역행위로 고발할 이유는 조금도 없을까? 이와 관련해서 나는 동발씨의 명예로운 한 마디를 환기할 것인데, 이는 내게 가슴 위의 납덩이와 같이 남아 있었으며 나는 그 신비를 결코 간파하지 못했다. 그는 슬픔을 품고 이렇게 적었다. “나는 어느 프랑스인이 이 주제에 관련된 질문들 몇 가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는지, 혹은 아예 온전한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

세관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무역이 확립되는 곳 어디서나 존재한다. 야만 민족들도 문명인들과 마찬가지로 세관을 실행한다. 세관은 역사에서 산업과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노동 분업, 기계, 독점, 경쟁, 조세, 신용 등과 같은 명목으로 사회의 구성원리들 중 하나이다. 나는 그것이 인

각나라는그품안에서독점과조세들에의해발달한빈곤을, 외국인의독점과조세조치에의거해더악화시키지않아도충분히가진다는것이다.

나는민족들간에그들각각의영토에대한독점에서오는불평등에관해충분히말했다. 그러므로여기서는조세의관점에서자유무역의문제를고려하는데국한할것이다.

문명화된사회에서생겨나는모든유익한서비스는이산물이공적부담들중에서지원하는비례적몹을나타내는일정조세의부담을지고서소비에도달한다. 이처럼생테티엔에서스트라스부르로보내진석탄 1 톤은모든비용을포함해서 30 프랑의비용이든다. 이 30 프랑중에서 4 프랑은수운세라 불리는직접세를나타내며, 이는생테티엔에서스트라스부르로가는데석탄산물이 지불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 4 프랑의금액은석탄 1 톤이 지불하는모든부담을나타내지않으며, 내가석탄의간접세라고부를것으로서또한계산에넣는것이타당한 다른비용들도있다. 실제로 26 프랑은스트라스부르에제공된석탄의총가액의필수요소를이루는것으로, 광산을개발하는자본가에게전액이 지불되는이자에서부터배를목적지까지이끄는역마담당자와수운업자에게돌아가는임금으로구성된다. 그런데이임금들은또분해되어마찬가지로두부분으로나누어지는데, 하나는노동의가격인부분이고, 다른 하나는조세에서각노동자의납부몹을나타내는부분이다. 그래서이분해를될수있는대로멀리추진하면아마도발견하게될것은 30 프랑에팔리는 1 톤의석탄이그상업적가치의약 3 분의 1, 즉 10 프랑의세부담을진다는것이다.

그나라가생산자들에게이례적인비용을부담시킨후에그들의산물을그나라에아무리불도하지않은외국생산자들의산물보다우선구입하는것이정당한가? 나는아니라고답할테면해보라고누구에게든도전한다.

프로이센의석탄을 25 프랑에가질수있을스트라스부르의소비자가 30 프랑을지불하는프랑스에서조달할의무를지거나프로이센의석탄을 획득하기위해새로운세금을납부할의무를지는것이정당한가?

이는이렇게질문하는것과같다. 스트라스부르의소비자는프랑스에속하는가? 그는프랑스인자격에부속하는권리를누리는가? 그자신은프랑스를위해서그리고프랑스의보호밑에서생산하는가? ...그러므로그는그의모든동포들과연대관계를가진다. 그리고그들과객층이프랑스사회의보호아래서획득된것처럼그의개인적소비도그들의판로일부를이룬다. 그리고이연대성은회피할수없다. 왜냐하면그것이존재하기를그치기위해서는정부를제거하고, 행정, 군대, 법무그리고모든그부속물들을제거하고산업인들을그들의자연상태에다시처하게하는것으로시작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는명백히불가능한일이다. 그러므로우리가우리의민족자본을지탱불가능한무역에서상실하고싶지않다면, 외국인에맞서집단을이루도록의무를부여하는것은부담의공동체이며, 프랑스사회

산업은해체되고, 5 만명의노동자는일자리도빵도없는처지가된다! 이익은어디있는가? 이희생을치른후에우리가영구적으로낮은가격에철을가지게되리라는것이라고들말한다. 나는이런말을듣는다.

우리의자손들이우리덕에이그늘을얻을것이다.

하지만나는좀더일하고죽지않기를선호한다. 내자식들을위한배려는, 그들이조상들중에쿠르티우스³를짚는즐거움을가지도록내가구렁덩이에몸을던지는데까지갈수는없다. 아아! 내입장이변했다면, 내가내자유와생존을위태롭게하지않으면서이유익한제안들을받아들일수있었다면, 적어도내가후손들에게약속된이득에확신을가졌다면, 내가저항했다고사람들이민짚는가?

시의적절한질문, 즉곧알게되겠지만영구적인질문이모든논쟁을지배하며, 보호의추종자들과자유무역의추종자들을갈라놓는다. 유토피아를만드는자들을아주경멸하는경제학자들은여기서유토피아를만드는이들처럼움직인다. 그들은자신들도실토하는불확실하고즉각 — 이는사회에는‘영구적으로’를의미한다 — 실현이불가능한행복의가능성과의교환으로위대한희생, 엄청난파괴, 들어보지못한빈곤을요구한다. 그리고그들은자신들의계산을사람들이신뢰하지않는데본노한다. 그렇다면그들은왜더이상관관을결연하게공략하지않는가? 왜그들은(노동분업, 기계, 경쟁과조세에대해서도했던것처럼, 그래서아주성공적이었던것처럼) 특정한독점들의폐지에서나올해악에대해상쇄물은아니라해도적어도진통제를발견하려고시도하지않는가? 자! 여러분, 문제로들어가라. 왜냐하면지금까지당신들은통보의물결에매달렸기때문이다. 자유무역이론이여러정부와민족들의협오에도불구하고, 폐단의보편성과영구성에도불구하고어떻게적용가능한지, 즉이롭고합리적인지를보여달라. 당신들의의견으로는이이론이당신들이방금말한이엄청난재앙을일으키지않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독점의명예를지우지않고, 자유, 평등, 민족들의개성을위태롭게하지않고어디서나실현되려면무엇이필요할것인가? 민족들간의새로운법은어떤것일까? 자본가와노동자간에어떤관계들을창조할까? 정부는노동에어떤개입을할까? 이모든연구들은당신들소관이다. 이모든설명에대해당신들은우리에게빚을지는것이다. 아마도당신들의이론의경향상당신들자신이의심할나위없이사회주의자들의새로운종파다. 비난을걸고두려워하지말라. 공중은당신들의보수적의도를너무확신하며, 사회주의자들에관해말하자면, 그들은당신들에게이런시비를걸기에는당신들이자신들의대열에있는것을보면너무행복해한다.

³ 고대로마의전설적영웅마르쿠스쿠르티우스 (Marcus Curtius). 전설에따르면땅에균열이생겼을때, 점쟁이들이로마의가장소중환보물이그안에던져지지않으면그들이닫히지않을것이라고했다. 쿠르티우스가로마의용감한시민만큼소중환보물은없다고하면서그틈으로뛰어들자그틈이닫혔다.

하지만, 내가무엇을하는가? 경제학자들만큼의결백성을지닌추론자들을성나게하는것은별로너그럽지못하다. 대부분에게는생소한일이겠지만그들에게차라리그들이모순을일으킬때마다옳다는것, 그리고그들의자유무역이론이구체적으로자유로운독점의이론이기때문에비소장점을가진다는것을보여주자.

무역의자유가통신과교역에대한일체의질곡을제거해바로이때따라그장場을더자유롭게만들고, 자본의영역을확장하고, 경쟁을일반화하고, 각민족의빈곤을, 그리고금융귀족집단을사해동포적인사안으로만들어, 그광범위한항상이후로는연속성의단절도해소도없이그연대적그물안에인류전체를포괄하게하는것이자명하고대낮처럼명확하지않은가?

왜냐하면, 결국노동자들이타키투스가말하는게르만인들처럼, 유목생활을하는타타르인, 목자인아랍인, 그리고반半야만상태의모든민족처럼각자자기몫의땅을받아서스스로자신들의소비물품모두를생산해야하고그들서로간의교환을통해전혀소통하지않는다면, 부자도빈자도전혀없을것이기때문이다. 아무도이익을보지않겠지만, 또한아무도망하지않을것이다. 그리고민족들이이번에는, 그구성요소들인가족들처럼모두자재적으로자신들을위해생산해어떠한무역관계도유지하지않는다면, 사치와빈곤은우리가여기서경제적전염이라고아주잘표현할수있는교환의이동수단을타고한민족에서다른민족에게로 옮겨갈수없으리라는것이여전히상식적이다. 부그리고재산의불평등을한꺼번에창조하는것이무역이다. 풍요와빈곤은무역으로계속진행해간다. 그러므로무역이중단되는곳에서는동시에경제활동도중단되며, 부동산과일반적범용함이 지배한다. 이모두는아주간단하고, 아주통속적인상식이고, 결정적인명증성을떠서경제학자들에게는인식에서벗어난것이다. 왜냐하면경제학자들의특성은결코상반물의필요성을인정하지않는것이어서그의운명은언제나상식의바깥에있기때문이다.

우리는자유무역의필연성을증명했다. 우리는자유가어떻게더욱폭을넓힐수록상업민족들에게억압과강도짓의새로운원인이되어가는지를보여줌으로써이이론을보완하려고한다. 그리고우리의말이우리신념에응답한다면우리는도버해협저편의우리이웃들이아주요란하게시도한개혁의의미를드러내게될것이다. 우리는일체의경제적신비화중가장큰신비화를받기바쁘게될것이다.

보호체제에맞서조직된십자군원정에서는자피에르의역할을한세(Say) 의주된논리는이런삼단논법에있다.

“대전제. 산물들은산물들에의해서만지불되며, 상품들은상품들로만구매된다.”

“소전제. 금, 은, 백금, 그리고모든금속가치물은노동의산물이고, 기름, 철, 비단, 천, 실, 수정등과같은상품들이다.”

뒤누아예씨는보호가인민들간경쟁의행복한효과를멈추며, 이로써산업의일반적진보에장애물을놓는다고불평한다.

나는벌써이와관련해서, 금수의문제가상업적이고공공안의문제이며, 언제금수를확대해야하는지, 언제이를제한해야하는지판단하는것은정부의일이라고대답했다. 게다가금수체제가인민들간에경쟁을제거해문명으로부터그행복한효과를빼앗는다면, 이는동시에문명을그과파괴적효과로부터보전해준다는것이명확하다. 상쇄가있다.

끝으로뒤누아예씨는보호주의의요새에자신의논리의해자를두른후에공격을감행하기로결심한다. 다음은우선그가그의적들의이유를어떻게고려하는가하는것이다.

“같은나라의내부에서모든광산들은똑같이이용이하게개발될수없다. 모든경작자들은똑같이비옥한토양을경작하지못한다. 모든공장이똑같이좋은위치를잡은것이아니다. 모든공장이무료의자연동력을, 혹은같은출력의동력을활용하지않는다. 모든공장이똑같이똑똑하고잘훈련된인구를고용하지않는다. 조건들이극히동일한곳에서새로운양식, 새로운절차, 완벽화고어느것이든수많은원인이우발적으로조건들을달라지게할수있다.”

아주좋다. 음, 그렇다면! 이론은무엇을말하는가? 그의상쇄의체계는무엇인가? 이다양한생산수단의소유가벌써독점이니이론은이모든독점들에의해창조된불평등들을평준화하는데어떻게착수할것인가? 당신의동료바스티아씨의표현에따라교역을하러오는이모든생산자들간에그들각자에의해그의산물이넣어진노동은어떻게지불을받는유일한물건일것인가? 어느날파리에서오렌지를생산하는자가어떻게같은때에포르투갈에서오렌지한상자를생산하는자만큼부유할것인가? 왜냐하면, 당신에게서대중의양식이기다리는것이바로이것이때문이다. 그리고이는금수체제의정당화논리는아니라해도그것의원리이고, 구실이다.

이론들의공허함! 뒤누아예씨는물러선다. 힘껏어려움을이겨내는대신그는어려움이존재하지않음을확인하려고한다. 그리고그의이성은경제학자들이상상한가장강력한것임을우리는당연히시인할필요가있다. 세관이모든나라들의내부에서, 프랑스, 독일, 아메리카등에서폐지되었다고그는말한다. 그리고이나라들은상태가좋았다. 모든인민들간에, 외부에서도마찬가지로왜그렇지않을것인가?

아! 당신은왜냐고묻는다! 즉, 당신은그만큼기정사실의의미를모른다는것, 당신이그완성을촉발하는사실들의의미를견찰줄모른다는것이다. 그리고당신의모든이론은모호한유비에의존한다! 당신은일어난일을보지못했고, 듣지못했고, 이해하지못했다. 그리고당신은일어날일에대해언자의확신을가지고서말한다. 당신은왜내부처럼외부에서도세관을폐지하지않을지를묻는다! 나는당신의질문에세마디말로대답하려고한다. 인민들간에는독점들의공동체도, 부담의공동체도없다는것,

“최근기회에민족적사업의이름으로, 그리고민족적사업의이익을위해벨기에와의무역연맹에격렬히반대해싸우는일정수의산업들이수많은다른이들에의해논박되고, 고발되고, 봉변을당했다.”

거기에무슨놀랄것이있는가? 이는자유와보호의이율배반이비극으로드러난것이었다. 각당파가불관용과자기이익에서나온악의를가지고등장해전투, 고함, 상해와주문이있었던듯하다. 그러한복새통속에서경제학자들의역할은누구의편도들지않는것이었다. 그들은모두에게어떻게자신들이얼간이였고모순의희생자였는지를보여주어야했다. 독점에대항한독점, 도둑들에대항한도둑들! 과학이하는평화의말을사람들이듣기를거절한다면, 과학은물러서있을수밖에없었다. 경제학자들은일꾼의권리가문제일때는내부독점의옹호자들로서, 한량의소비가문제일때는해외독점의변론자로서이익들의투쟁이론을찬성하는입장을취하는데만신경을썼다. 이성을말하는대신에그들은불을지폈고금수론자들의저주를끌어들이고그들을더완고하게만드는데만성공했을뿐이다. 그들의행실은이상황에서진정한학자의자격이없었으며, 그들이비난을기고한신문들은그들의믿을수없는맹목성의증거로남을것이다.

뒤누아예씨는말한다. “정부가민족에게혜택을주는것만으로외국인들에대해적대적임을드러낸다.”

이는인도주의적국수주의다. 이는마치유명한격언, ‘저마다자기집에서, 저마다자기를위해’가전쟁선포라고말하는것과같다. 그리고의견이분분함에도불구하고모두가사회의일들에서어떻게역하는지를보라! 우리경제학자들이영국의자유, 우리의발에채워진사슬을벗기면서우리의팔을자르는이자유를품에안는것은그재상이영국의연합을품에안고어떤대가를치르고서도이를수호하는그순간이다. …사적이익도민족적이익도욕하지말자. 특히우리나라를너무사랑하는것을조금도두려워말자. 나는뒤누아예씨가이에충격을받지않은것에놀랐는데, 동발씨는각별히실천적인이성을가지고, 간단한양식良識이민족들에게일찌감치자신들이소비하는물건을외국인에게서구매하기보다생산하는것이더 낫다는것을느끼해해주었다고말했다. 왜냐하면, 외국상품들의초과분의거절은아주간단히자신의소득과더불어자신의기금을먹어치우기를거부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오늘날혼란이초래된환상, 모든것을 스스로생산한다는환상에대해말하자면, 그것은여전히우리가가지는, 상업적봉건제의이감염에대한유일한보장책이라는것을제대로인정할필요가있다. 상업적봉건제는영국에서태어난후에콜레라처럼유럽에침투하려는위협을가한다.

그러나자유무역이론은구별도유보도인정하지않는다. 이것에는토지와노동수단의독점과더불어시장의공유, 즉귀족집단의결탁, 노동자들의일반적예속, 빈곤의보편성이필요하다.

“결론. 그러므로모든상품수입은등가의수출로청산되어대가로제공되는상품의일부가척도재로구성되는지예따라어떤점에서도이익이있을수있다고믿는것은터무니없다. 정반대로, 금과은은그유일한서비스가다른것들에유통과교환수단으로서쓰이는것으로귀결되는상품이라서어느구석에든이익이존재할경우그이익은산물을제공하는것보다더많은산물을타민족으로부터들여오는민족에게돌아간다. 그리고사람들이말하듯관세로써노동조건을평준화하려하기보다는가장절대적인자유로써이를평준화할필요가있다.”

결과적으로세는그의유명한원리, 산물은산물로만지불된다는원리의보조정리로서다음명제들을제시한다.

1. 한민족은수입한산물의총계가수출한산물의총계를초과하는만큼이익을본다.

2. 이민족의상인들은그들이받는대가물의가치가그들이바깥으로수출한상품들의가치를초과하는만큼더이익을본다.

중상주의체제의당파의논리와역인인논리는아주명확하고, 아주결정적이고, 보호주의체제의파괴적효과가이논리를도와주어독립성과진보를자부하는모든위정자들, 어떤가치라도있는모든경제학자들은이를채택했다. 반대되는견해를옹호하는자들에게는더는대꾸하지않으며, 이들을웃음거리로돌린다.

“사람들은일반적으로산물이산물로지불된다는것을잇는다. … 영국인들은물론우리에게싼값으로산물을줄수있다. 나는그들이우리에게그산물들을공짜로주는데동의할지알지못한다. 교환할것이아무것도없는사람들과는거래하지않는다. … 프랑스가신의없는이웃에게승리해자신을위해일하도록강제한다면, 영국이매년우리생각에너무비싸게지불하도록하는것을공물을바치기위해무료로보내준다면, 보호주의자들은일관성이있으려면반역이라외쳐야할것이다. 우리가공언하는바는우리에게너무강한추론이있다는것이다. 우리의적들은두날을가진무기를다룬다. 1815년처럼영국이우리를덜치면, 그들은파멸을외친다. 우리가그렇게가설을세우듯이영국이우리에게주면, 그들은더세계외친다.”(「주르날데제코노미스트」, 1842년 8월)

그리고같은잡지의 1844년 11월호, 1845년 4월호, 6월호, 7월호에서대단한재능을가진, 최고로너그러운박애에가득찬, 놀랍게여겨지겠지만최고로평등주의적인관념에이끌린한경제학자가, 수용할수없는한논제때문에그의갑작스러운유명세가생긴것이라면내가더찬양할 사람으로서, 모든경제학자공중의갈채를받으며다음을증명하기를떠맡았다.

노동조건을평준화하는것은교환을그근원에서공경하는일이라는것.

한나라의노동이더유리한고장의경쟁에압살될수있다는것은진실이 아니라는것.

보호관세가생산조건을균등화하지않는다는것은꼭맞는말이라는것.

자유는이조건들이그럴수있는만큼이조건들을평준화한다는것.

교역에서가장많이이익을보는것은가장불리한나라들이라는것.

자유무역연맹과로버트필은그들이다른민족들에게주는예외의해인류에지대한공헌을했다는것.

그리고그반대의것을주장하고옹호하는모든이들은시시포스를따르는이들이라는것.

확실히란드 Landes 의바스티아씨는대담함과그의논변의침착함으로경제학자들을놀라게했으며, 자유무역에관한관념이아직유동적인이들을고정시킨것을자부할수있다. 나로말하자면, 바스티아씨의 『경제적역설 Sophismes économiques』보다더교묘하고, 더간결하고, 더양심적이고, 더솔직한진리의분위기가나는역설은어디서도만나본적없다고공언하는바다.

그렇기는하지만나는만약우리시대의경제학자들이즉흥성을덜계발하고, 논리성을좀더계발했다면, 피레네의코브던 Cobden des Pyrénées 의논리의해악을더쉽게간파했으리라고, 산업국프랑스를장벽일체를폐지해영국을따르도록이끌기보다는‘조심하자!’고적었을것이라고감히말한다.

산물은산물로만구매된다! 이야말로물론옹장한, 논박불가능한원리로서이때문에나는세에게동상이세워지기를바랄것이다. 나는이원리의진리성을가치이론을제시해입증했다. 나는이에더해이원리가재산의평등의기초라는것, 그리고생산과교환에서균형의기초라는것을증명했다.

하지만삼단논법의두번째항으로서화폐로주조된금과은이다른상품과마찬가지로상품이라고덧붙일때, 이는잠재적으로만참인사실을언명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부정확한일반화를하는것이며, 정치경제학자체가화폐에대해제공하는기초관념들때문에이는부정된다.

돈은교환수단으로쓰이는상품, 즉우리가보여준것처럼옴 상품, 특출한상품으로서언제나공급보다수요가많고, 모든다른상품을능가하며, 모든지불에서받아들여질수있고따라서모든가치물, 모든산물, 모든가능자본을대표하는것이된상품이다. 실제로, 상품을가진자는그렇다고아직부를가진것은아니다. 교환조건, 까다로운조건, 잘알듯이수천의기복과수천의우연에종속된조건을충족하는일이남아있다. 그러나화폐를가진자는부를가진것이다. 왜냐하면그는가장관념화되면서도가장실질적인가치를보유하기때문이다. 그는모든사람이갓기를원하는것을가진다. 그는이유일한상품을통해서원할때는가장유리한조건에, 그리

“그체제에정당한이유가있었다는것, 이는논박불가능하다. 나아가일이더구치적이고더합당한흐름을취했다라면그랬을것보다확실히무한히덜한진보이고, 특히덜행복하게지도된진보나마그것이일정한진보를, 심지어상당한진보를막지않았다는것, 이는더구나논박될수없다.”

그를아주나쁜패거리에넣어서유감이지만, 뒤누아예씨는꼭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처럼사고한다. 물론문명은전진했다고, 물론종교와재산권은나름존재이유가있다고그들은말한다. 하지만왕도, 사제도 없고, 가족의기초인재산권도없다면, 타락과육肉에맞서싸울필요성에대함이무서운교리가없다면우리의진보는얼마나더빨랐을까! ...부질없는후회다. 금지조치들은그들시대에재산권, 왕정그리고종교와같이국가들의의치안의필요불가결한구성부분이며, 그국가들의번영의조건중하나다. 그러므로문제는금지조치들그자체를논하는것이아니라, 또한그것들의운명이다했는지를아는것이다. 가장통속적인이비판의원리를오해한다면도덕및정치, 역사과학아카데미의회원이라는것이무슨소용인가?

뒤누아예씨는그다음으로보호체제에서창조된이익들의갈라짐을고발한다. 이는사물을정반대로해석하는것이다. 이익들의갈라짐은보호에서태어난것이아니다. 그것은노동조건의불평등과독점에서유래한다. 그것은세관설치의원인이지결과가아니다. 인민들이서로에대해자신을보호하는일에유념하기전에는폴란드의밀평야처럼, 보르도그리고부르고뉴의포도밭처럼영국에서석탄과철분을함유한침전물이존재하지 않았는가?

“일정한관련속에서, 그리고일정한시기에자극제로작용한다른특권들의예대로금지조치들은장려책일수있었다고, 그것들은자본가들의망설임을극복하고이들이이익하지만운에맡기는사업들에뛰어드는것을도왔다고가정해도된다.”

금지조치들처럼산업에대한자극제로작용한, 그렇지만금지조치들과마찬가지로이론이정죄하는이다른특권들이무엇인지를질문해도되는가? 어디서나원래우리는독점을만나게된다고로시씨는우리에게말한다. 물건들의자연가격을변화시키는것, 그럼에도무언의합의에의해공고화되고일반화되면서재산권이된것은이독점이다. 그런데재산권이그정당한이유를가졌다는것은논박불가능하다. 나아가그것이일정한진보를막지않았다는것, 심지어자극제로작용했다는것은더구나논박을당할수없다. 그러나재산권이일정지점까지는사실로설명이가능하면서원리이자절대적원칙으로단언되는것, 이야말로내가비일관성을범하지않으려면금지조치의모든적에게금하는것이다. 세번째로뒤누아예씨는공산주의자다.

뒤누아예씨는다음으로그의적들의대열에분열의씨앗을뿌리려고한다.

뒤누아예씨는말한다. “그저명한농학자는그체계를사실로바라보는 데국한되지않는다. 그는이를이론상으로수호하기에착수했다.”

이론과실천, 실천과이론. 이야말로뒤누아예씨가하는모든추론의중심사항들이다. 이는그의구세주 deus ex machina 다. 날마다경제원리들은사실에입각해반박된다. 실천. 원리들덕분에기정사실은파멸적이다. 이론. 실천에의거해이론을끊임없이변명하고, 이론에의거해실천을변명하면서결국에는상식을무죄로선언하고, 심판관은언제나스스로 옳다고확신한다.

그러면어떤이론에서뒤누아예씨는금수문제에관해지주의실천을저버리고공동체의편임을선언하도록유도되었는가?

그는말한다. “사실상, 무역관계들이활기를띠기시작한시대부터어디서나외국상품의금지로서작했다.”

우선이사실을기록하자. 그리고사실과대립되는이론을옹호하면서자신의공산주의의정당화를유토피아로서작한다는것에주목하자. 뭐라고! 도덕및정치과학아카데미는연합에관련된논문공모전에관해발표한보고서에서응모경쟁자들이역사를너무고려하지않았다고불평했으며, 이보고서의 30 분의 1 에해당하는저자인뒤누아예씨는역사에반대되는원리를옹호하는데일생을바친다! 그러므로아카데미회원이되면서부터역사는더이상아무의미도없다!

“해외경쟁을물리치는것만큼자연스럽고, 허락되는일도없어보였다. 인구의탐욕적분능, 정부의세무이익, 민족적민첩성, 두려움, 증오, 질투, 복수와보복에대한애호, 모든종류의악감정들이이수단의사용으로물고간것같다. 가장악한대어들을뒷받침해좋은이유를발견하는데언제나능숙한인간정신의자연적명민함이이수단의사용에결국색칠을할줄알았던것이다.”

이것이바로동발씨처럼취급된인류다. 동발씨는스스로보호주의자라고선언한다. 이사람은아카데미의견책을받을만한타락한천재다. 인류는자유무역에관해뒤누아예씨와다르게생각했다. 악당, 해적, 위조자의종족으로서간접세와세관의모든해악을입을만한종족이인류다.

내가그에게이렇게말하는것을허락해주기를바라며말하건대, 뒤누아예씨는우리의악의에너무많은위력을부여하며, 동시에우리의정신에너무많은명예를돌린다. 나는우리의기구들중어느하나도악한생각을타고났다고믿지않으며, 절대적오류를타고났다고도믿지않는다. 그리고인간의명민함의질정은사회적결의에대한핑계를사후적으로발명하는것이아니라, 진정한동기였던것이무엇인지를발견하는것이다. 보편적찬성이각인민의둘레에보장의원을그린것은잘못한일인가? 뒤누아예씨가그의용어로그문제를이렇게제시했다면, 물론그는더신중하게답변했을것이다.

고가장좋은기회에다른모든상품을취득할수있다. 한마디로그는돈에의해시장의주인이된다. 상업에서돈의소유자는옴브레게임에서옴패를뽑은자와같다. 모든카드는서로간에위치가치와상대가치를가진다고물론주장할수있다. 심지어게임은모든카드의서로에대한교환에따르지않고는행해질수없다고도덧붙일수있다. 그렇다고해서옴패가다른색상을취하지못하는것은아니다. 그리고옴패들중에처음것들이다른것들을없애지못하는것도아니다.

모든가치물이돈으로정해지고구성된다면, 각상품이직접그리고손실없이다른상품과의교환에서받아들여진다면, 국제무역에서수입이수출을초과하는지아닌지를아는것은완전히상관없을것이다. 이질문자체는한쪽가치물들의총계가다른쪽가치물들의총계를초과하면모를까더는의미가없을것이다. 그럴경우에는마치프랑스가 20 프랑동전을 1 파운드스털링과, 혹은 40 퀴틀의쇠고기를 30 퀴틀의쇠고기와교환하는것과같은것이다. 첫째거래에서는프랑스는 20% 이익을보았을것이고, 둘째거래에서는 25% 손해를보았을것이다. 이런의미에서세가한민족이수입하는상품들의가치가수출하는상품들의가치를초과하는만큼이익을본다고말한것은옳았을것이다. 그러나그런것은무역의실제조건에서는결코들어맞지않는다. 수입과수출의차액은오직척도재의일정량이그에대해잔금으로주어져야하는상품들로만해된다. 그런데이차액은결코상관없지않다.

이는중상주의체제의당파들이완벽히이해한것이다. 이들은돈의특권의당파라고다른것이아니다. 그들은금속만부르간중한다고들기에못이박히게반복한다. 순전히중상모략이다. 중상주의자들은우리와마찬가지로금과은이부가아니고, 교환의전능한수단, 결과적으로행복을이루는모든가치물들의대표, 행복을주는부적이라는점을안다. 그리고제유법에따라여러민족들이다른어떤산물보다모든부를응축하고실현하는종류의산물을부라고불렀을때, 논리는그민족들에결여되지않은것처럼그들에게도결여되지않았다.

경제학자들은게다가돈의보유에붙는이익을오해하지않았다. 그러나그들의모든글을통해알수있는것처럼, 그들이금과은상품의이본의를이론적으로전혀고려할줄몰랐으므로, 그들이거기서대중적인편견밖에보지못했으므로, 끝으로그들의눈에는화폐로주조된소재가통상적상품일뿐이어서휴대가더 간편하고, 더희소하고, 덜변질된다는것때문에만교환수단으로서취해지는것이므로경제학자들은자신들의이론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자신들의화폐에대한무지때문에, 상업에서의그진정한역할을오해하도록유도되었다. 그리고세관을반대하는그들의전쟁은근본적으로돈을반대하는전쟁일뿐이다.

나는가치를다른장에서, 돈의특권은돈이애초부터그리고아직도생산자들의손안에서유통하는유일한정해진가치물이라는데서생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남김없이 다루어진 문제를 여기서 재론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척도재를 소유하는 자, 돈을 빌려주거나 파는 직업을 행하는 자는 왜 이것만으로도 모든 생산자들에 대해 주목되는 우월성을 취득하는지, 끝으로 은행은 왜 상업의 여왕인 것처럼 공업의 여왕인지를 말해 진 것에 따라 이해하기는 쉽다. 그리고 이는 특별히 다음 장에서 고찰할 대상일 것이다.

이런 고려 사항들은 정치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들에 기초를 두어, 일단세의 삼단 논법에도 입되면서 그의 자유무역과 판로 이론 전체가 그의 제자들에게 경솔하게 수용되어 그들이 맹비난하는 것 자체, 소비자들의 약탈, 독점의 무한한 확장으로만 나타난다.

우선이 반대 명제의 이론적 증거를 추적하자. 그 다음에는 응용과 사실들로 가게 될 것이다.

세는 민족들 사이에서 돈은 개인들 사이에서와 같은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는 세가 오직 돈의 진짜 본성을 몰랐기 때문에 내놓은 이 명제를 적극 부정한다. 돈의 효과는, 비록 민족들 사이에서는 덜 명백한 방식으로 그리고 특히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단순 개인들 사이에서와 정확히 같다.

모든 종류의 상품을 끊임없이 사들이고, 교환으로 돈밖에 내놓지 않는 어느 민족의 경우를 가정하자. 나는 앞에서 인용한 경제학자가, 영국이 만일 우리에게 산물을 공짜로 내준다면 보호주의자들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반역이라고 외쳐야 할 것이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 것처럼, 이런 극단적 가정을 할 권리를 가진다. 나는 동일한 절차를 활용하며, 반대 체제의 불가능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들이고 아무것도 팔지 않는 한 민족을 가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경제학 이론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그의 미를 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귀금속으로 이루어지는 이 민족의 자본 부분이 유출됐다면, 판매하는 민족은 구매하는 민족에게 저당물을 매개로 다시 이를 돌려보낼 것이다. 말하자면, 이 민족은 세습 재산이 결여된 로마의 프롤레타리아처럼 살기 위해 자신을 팔 것이다.

이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거해 대답한다. 돈이 한편으로 희소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풍부해져서 금속 자본이 판매하는 민족들로부터 구매하는 민족에게로 재유입된다는 것, 이 민족은 돈의 낮은 가격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리라는 것, 그리고 이 인상과 인하의 번갈아들이 균형을 다시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가소롭다. 돈은 신의 이름으로 공짜로 주어질 것인가? 모든 질문이 거기 있다. 빌린 금액의 이자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가변적이라도, 이자가 웬만큼 된다는 조건에서는 이는 언제나 구입만 하고 판매는

해 놓는 물이나 공산물이 아니라 귀금속으로 지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차 우리의 토지 재산을 매각하며, 정말로 외국의 속국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지불할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금과 은 재매입하거나 담보를 잡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입장은 상업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입장이 남으며 이는 본래적으로 말해서 노예 신분이다.

뒤누아예씨가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 회의의 가장 진행 중일 때 분개해 일어난 것은 정치 경제학 자체의 관념에서 끌어낸 이 반증 불가능한 연역에 반대해서다.

그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 “동발씨는 지성이 가장 강하고 가장 건전한 분들에게 속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순수한 성품을 가진 분들 중 한 분으로서 다르구(d'Argout) 씨와 마찬가지로 보호 체제의 추종자다. 그러나 무오류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재능을 타고난 이들이 오해를 받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

별로의 원답지 못한 이런 암시는 왜 하는가? 판로 이론은 일체의 이성이 바보가 되고 싶지 않으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는 것을 그리도 확신하는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이 이론의 확실성은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에서 확보되며, 아카데미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 당신은 왜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는가? 아카데미 밖에는 음모꾼, 말쑥꾼, 혐오스럽고 뒤누아예씨에게 회초리를 맞을, 그리고 레이보씨가 쓸 전기의 주인공이 될 공산주의자들밖에 없다고.

이에 대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공산주의적 유포 피아의 침입에 대한 산업적 자유의 수호자인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에, 어떻게 다르구 씨와 동발씨가 바로 공동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역 자유에 반대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를 질문할 것이다. 장벽을 낮추는 것은 노동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적어도 개발자들의 공동체다. 이는 벌써 평등의 시작이다. 그런데 다르구 씨와 동발씨는 한목소리로 자급자족 *chacun chez soi, chacun pour soi* 을 외친다. 우리는 근심이 충분히 많으며, 아무와도 약탈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동발씨는 이런 고찰도 한다. “이익들의 분화로 부터 다양한 민족들 간에 실질적인 사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연이은 사회들의 단순한 근집밖에 없고, 그것밖에 있을 수 없다. … 민족들의 특수 이익 바깥에 인류의 일반 이익이란 무엇인가?”

명시적인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인민들 간 공동체는 불가능하므로 인민들 간 관계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동발씨는 말한다. 그러면 다르구 씨, 동발씨가 본능적으로 그런 것처럼 원리상 공동체의 적인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는 어떻게 자유 무역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편을 들었는가?

제노동수용소에대한행복한보완물일것이다. 그러나이런위대한혁명적조치가시행되어영국시장이계속과거처럼외부로부터의곡물및다른농산물에열려있게된다면, 새로운지주들은자신들의땅위에서살며거기서빵, 보리, 육류, 낙농품, 달걀과채소를얻지않을수없고, 그들의생산은외국에서수입되는같은성질의물품생산보다비싸게먹히니교역을할수가없거나손해를보면서교역을하게되어, 내가말하노니이지주들은옛날우리농민들처럼아무것도구매하지않고스스로자신들에게필요한모든것을생산하도록채비를갖출것이다. 장벽들은폐지될것이다. 그러나농촌인구는육식을억제해마치장벽들이폐지되지않은듯할것이다. 그런데, 그러한것이보호체제의제 1 원인이었다는것을아는데는많은통찰이필요하지않다. 경제학자들은자신들의수치와옹변으로써이원을어떻게벗어나려고생각하는지말할수있을까?

화폐의본질이오해되어, 인상과인하가돈에미치는효과가상품들에미치는효과와아무런분별도없이비견되고독점이산물들의가치에미치는영향은도외시되고, 이기주의가어디서나사회적이익을대체하고, 한량들의연대가노동자들의연대의폐허위에세워지고, 원칙안에모순이있고, 무엇보다도민족성이특권의제단위에서희생되는것, 이런것들이야말로내가틀리지않았다면, 우리가자유무역이론에관해저항할수없는증거를가지고부각시킨것이다.

내가아주고귀한경제학자들에게이유토피아에대한반증을계속할필요가있는가? 나자신이극히이상한환각에빠진것이든지, 아니면불편부당한독자가지급아주한멸을느낀것이분명해서적들의논리가그에게아주역겹게, 철학도진정한과학도결여된것으로여겨져서내가겨우그이름들과본문들을인용하기를감행하는정도밖에안되는것이다. 내비평이증거의힘으로결국불손하게된것이아닌가생각한다. 그리고공개적토론으로, 어엿한자존심을자극하기보다는나는천번이라도그들을회한의정적속에방치해두기를택하겠다.

그러나우리는아직모든것을말하지않았다. 게다가의견은별로명쾌하지못하고이름들의권위는우리가운데아주강력해서내가이렇게인정하는것이다행이라고보는바, 그의도는탁월하지만그수단들은모순적이고불길하다고내가주장한학과에맞서싸울수밖에없는치열함에대해서사람들은나를용서할것이다.

마티외드롬발 (Mathieu de Dombasles) 씨는우리의최상급농학자들중한사람으로서보호체제의철학적이유를아주잘간파했다. 그리고그는독창성과재치로가득한양식良識을가지고서장바티스트세외의론에맞서싸웠다. 그는이렇게말했다. 물론상품들이원시사회들에서처럼단순히교환된다면세세는완전히옳을것이다. 그러나상품들은쌍방에서판매되고구매되어왔다. 잔돈으로써이는금과은이있었고, 화폐가차액을변제했다. 그러면저가격은무엇이중요한가? 우리가우리의구매에대

결코하지않으면서자기자신의상인에게서끊임없이돈을꿀생각을하는민족이천천히든급속히든, 연속적이건간헐적이건퇴화함을기록할것이다.

이제바로우리는어떤나라가저당에중속될때무엇이되는지를살펴볼것이다.

이처럼세가아주현명하게도과도한수입에서두려워해야할유일한것으로지적한민족자본의포기, 이포기는불가피하다. 그것은참으로자본의물적이전에의해서가아니라자산소득의이전에의해, 그리고 — 정확히같은것인 — 소유권의상실에의해실행된다.

그러나경제학자들은우리가방금가정한, 그리고그들에게너무명백하게잘못이돌아가는극단적인경우를인정하지않는다. 그들은어느민족도오로지돈만가지고거래하지않는다는것, 그러므로저당물이아니라실물에관해추론하는데한정할필요가있다는것을고찰한다. 자기들의적을반박하기위해그원리들을마지막결과까지밀고가는것이좋다고본후에그들은사람들이자신들과마찬가지로이를활용하는것을견디지않을것이다. 이는사람들이이원리들을끝까지밀고가려고시도한이래로그들이더이상자신들의원리를믿지않는다는나름의자백을내포하는것이다. 그러므로경제학자들과함께실재의터위에서자. 그리고적어도그들의이론이, 중용에의해이를취할때참인지를알아보자.

그러나나는동일한포기의움직임이, 그강도는덜할지라도그취득물전체에대해돈으로지불하는대신수입국이그중일부를자기자신의산물로변제할경우에발현될것이라고주장한다. 수학적명증성을뒀던명제를모호하게하는것이어떻게가능하? 프랑스가매년영국산물 1 억프랑어치를수입하고영국으로 9000 만프랑어치의자국산물을재발송한다면, 9000 만프랑어치의프랑스상품이 9000 만프랑어치의영국상품을충당하는데쓰이고, 그나머지영국상품은다른나라들에대해발행된환어음으로변제가이루어질경우를제외하면돈으로변제될것이다. 환어음은저당물에서나온다. 이는그러므로프랑스가자신의자본 1000 만프랑어치를매각하는것, 그리고아주낮은가격에그렇게하는것과같은것이다. 왜냐하면, 차입이일어날경우에는얼마되지않는돈이큰저당물을대가로주어지리라는것이명확하기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의또하나의오류다.

돈을다른상품들과가담없이동일시한후에보호의반대자들은돈에대한인상과인하의효과를다른종류의산물들에대한인상과인하의효과들과동일시하며그에못지않게심각한혼동을범한다. 그들의자유무역이론이주로지초로삼는것이이혼동이므로논의를명확히하기위해우리가원리들을거슬러올라가는것이필요하다.

우리가제 2 장에서말한것인데, 돈은가변적이지만구성된가치다. 다른산물들, 적어도엄청난다수는그가치가가변적일뿐아니라자의에나

맡겨진다. 이는돈이한장소에서그양이달라질수있어서같은액수를가지고서다른상품을때로는더많이, 때로는더적게획득할것임을뜻한다. 그러나그질서에는변함이없는데, 나는독자에게이런형이상학적용어들을 사용하는것에대해용서를구한다. 즉화폐상품의비례성의변이에도불구하고이상품은모든지불에서받아들여지는유일한상품입에는조금도달라지는것이없고, 모든다른상품들의종주宗主이며, 그가치가말하자면일시적인, 그러나실질적인특권에의해사회적으로, 정기적으로그진자운동중에정해지는상품, 결과적으로그우세성이불가항력적으로확립되는상품이라는것이다.

밀가적이갑자기오르고일정시간이례적인가격을유지한다고, 그러는동안돈은그가치의 3 분의 1 또는 4 분의 1 로낮아진다고가정해보라. 그러면결과적으로밀은돈의자리를차지할것이며, 밀이돈의값을매길것이며, 세금, 상업, 채권, 국채이자를납부하고모든거래를청산하는데사용될수있을것인가? 단연코아니다. 급진적개혁으로산업조직에서생산된모든가치물이화폐로조성되고정해지기전까지 (이조성이확정적일수있다면), 돈은그왕권을유지한다. 그리고부를축적하는것이권력을축적하는것이라고말할수있는것은돈에대해서뿐이다.

그러므로경제학자들이이모든개념들을혼동해, 돈이한나라안에서희소하다면가격인상에의해호출을받아다시돈이그나라로들어간다고말할경우에, 나는이것이바로이나라가중속되는증거라고, 그나라의자본의포기는이것으로이루어진다고대답한다.

그리고우월한수출에의해한지점에축적된금속자본이어쩔수없이그나라를빠져나가팅빈지점들로되돌아가그곳들에서사용처를찾는다고그들이덧붙여말할때, 나는이회귀가바로수입하는민족들의쇠퇴의신호이고, 그들이끌어들인금융왕권의기별이라고대답한다.

게다가, 상업에의한민족들의중속이라는아주중요한현상은, 경제학자들이사실의표면에만멈추었고법칙들과원인들을조사하지않았다는바로그것만으로경제학자들에게간과되었다. 사태의물적측면에대해서라면그들은이를감지했다. 그들은그의미와논리적결과에대해서만오해했다. 이점에관해, 다른모든점들에서처럼그들을압도하는모든증거들이수집되어있음을여전히그들의글에서발견하게된다.

내가 1845 년 7 월 29 일자 「데바 Débats」 지에서읽은것은 1844 년프랑스의수출가액이수입가액보다 4000 만프랑적었으며, 1843 년에는이차이가 1 억 6000 만프랑이었다는것이다. 다른해들은이야기하지말자. 나는중상주의체계에불시의반격을가할이 기회를놓치지않은그기사의저자에게프랑스가지불한거스름돈으로쓰인이현금 2 억프랑이어떻게되었는지를질문한다. 우리나라안에서자본의가격인상은그자본이되돌아오게했을것이다. 세에따르면바로이것이그가대답해야하는말이다. 실제로자본은되돌아온듯하다. 정치및산업의모든언론은, 이투기

에서노동할것이다. 그대는그이상멀리가지않을것이다. 자연은각지대의거주자가우선은그의자연산물로생존하기를원했으며그러고나서는그가잉여의도움으로자기나라가산출하지않는물건들을획득하기를원했다. 반대로독점의구도속에서는노동자는세계적인한량의농노에불과하다. 폴란드의농민은영국의주인을위해파종한다. 포르투갈인, 프랑스인은세상의모든한량을위해서포도주를생산한다. 감히말하자면, 소비는조국에서추방된다. 노동자체는금리의제한을받아협소하고노예적인특기로전락해더이상조국이없다.

이처럼교환불평등이장기적으로구매하는민족들을파멸시킨다는것을발견한후에우리는또한그것이판매하는민족들도파멸시킨다는것을발견한다. 균형이일단깨지고나면전복이모든부분에서느껴진다. 빈곤은그것을초래한자에게반발한다. 그리고전쟁에서정복을하는군대는결국승리중에소멸하듯이, 무역에서가장강한인민은결국가장심하게착취를당하고만다. 이상한반전이다! 세는우리에게자유교역에서일체의이득은가장많은것을받는자에게속한다고말한다. 그리고사실, 이득을가장적은손해라는의미로받아들이면세는완전히옳았다. 소비하지않고생산하는것보다생산하지않고소비하는것이고통을덜 겪는것이다. 모든것을상실한후에모든것을재탈환할노동이남는만큼더욱더그렇다.

영국은오래전부터바스티아씨가지목한그 A 나라다. 그나라만으로세계에다수의물건을, 그것도다른모든나라들보다더 나은조건에서조달할능력이있는나라다. 여러민족들의불신을도처에서감싸는관세에도불구하고영국은자기우수성의결실을거두었다. 여러왕국들을고갈시켰고땅의금을자기에게끌어왔다. 그러나동시에빈곤이지구상의모든지점들로부터영국을찾아왔다. 못들어보던재산의창출, 모든소지주들의갈취, 민족의 3 분의 2 를빈곤한카스트로전환시킨것, 이야말로산업적정복이영국에가져다준것이다. 터무니없는이론으로여러정신들에변화를주고, 악의원인은을폐하려고노력해도소용없다. 강력한음모가자유주의의탈을쓰고경합하는민족들을파멸적인혼동으로끌어들여려해도소용없다. 사실이여러사회에교훈을주도록남아있다. 그리고언제나정의에대한일체의침해가희생자와동시에강도에게도타격을준다고확신하는데는이사실들을분석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내가무엇을더말하겠는가? 자유독점의추종자들은자신들의원칙을끝까지추구할수있는데대한만족도가지지않으며, 그들의이론은그자체의부정에다다른다.

곡물에대한조세에이어서영국이우리의대혁명의길에들어가서모든영지의매각을명하고, 오늘날눈에안띄는소수의손에집중된토지가영국농업인구의상당부분을이루는 400 만 ~500 만의주민들사이애나누어진다고가정해보자. 확실히이절차는이미몇몇경제학자들이예견한일로서한동안영국을그끔찍한빈곤으로부터구원해주는데최상일것이며, 강

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면, 경제학자들은 내게 이런 새로운 세심한 측면을 제기한 명예를 돌려줄 것인가?

프랑스는 자신의 포도주에 대해 어떠한 경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온 세상이 프랑스 포도주를 요구한다. 이런 관계속에서 보르도 사람들, 상파뉴 사람들, 부르고뉴 사람들은 무역의 자유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우리의 포도주 산업이 나라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해 장벽의 완전 철폐가 우리에게 이득의 거대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유무역은 그들의 포도주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정반대로 이는 그 값을 올리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경작자들과 산업인들은 이 가격 인상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인당 소비는 이미 파리에서는 95 리터에 지나지 않는데, 60 리터로 내려갈 것이다. 포도주를 커피마시듯이 작은 커피잔과 작은 유리컵으로 마실 것이다. 이는 프랑스인들에게는 끔찍할 것이다. 우리 포도주는 우리와 같은 토양에서 성장하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해외판로는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보상은 무엇인가? 확실 히 이는 영국과 벨기에의 포도주는 아니다. 더 실질적이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민에게 접근 불가능한 포르투갈, 헝가리, 알리칸테나 마데이라산 포도주도 아니고, 홀란드의 맥주도 아니고, 알프스 오두막의 요구르트도 아니다. 우리는 무얼 마실 것인가? 우리는 철, 석탄, 철물류, 천, 수정, 육류를 더 저렴한 값에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말한다. 이는 말하자면 한편으로, 우리가 포도주를 더는 가지지 못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입증된 것처럼 우리가 외국인의 산물에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산물으로써가 아니니 일 자리를 더는 가지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상호적으로 영국의 일꾼들은 자신들을 위해 빵, 포도주, 그리고 다른 식품들의 가격을 낮추어갈 것이지만, 동시에 영국이 생산하는 석탄, 철 그리고 모든 물건들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경쟁에 직면해 자신들의 일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그들이 언제나 새로운 임금 감각을 겪어야 할 것이므로 그들은 프랑스의 일꾼들에게 닦아 준 것과 같은 일이 닦아 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산물도 우리의 산물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에서 누가 이익을 보았을 것인가? 독점자들, 오직 독점자들, 금리 생활자들, 자본의 성장으로 먹고사는 모든 이들, 한마디로 빈자들을 만드는 모든 자들로서 이들의 카스트는 제 1 급 품질의 토지가 소작인에게 남겨주는 초과분, 가장 풍부한 광산이 광업인에게 남겨주는 초과분, 가장 생산적인 개발이 산업인에게 남겨주는 초과분을 삼키기에 충분히 수가 많아서 노동이 더 열등한 토지에, 그리고 더 열등한 개발 사업에도 달하는 것을 자신의 소득을 포기하지 않고는 허락할 수가 없다. 서로 맞물린 이 독점체들의 체제를 무역의 자유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서 생산수단의 보유자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그대는 그대의 노동으로 내게 초과분을 남겨 줄 수 있을 한

분야만 여기서 인용하기로 한다면, 우리의 철도에 투자된 자본의 3분의 1이 스위스 자본, 영국 자본, 독일 자본이었다는 것, 이 철도의 행정자본회의들은 부분적으로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외국인들이 주재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 노선들, 그중에서도 가장 생산적인 노선인 북부 노선이 외국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는 명확한가? 비슷한 사실들이 영토의 모든 지점에서 일어난다. 알자스의 거의 모든 담보 채무가 바젤 자본가들에게 이익이 되게 되었고, 이를 때개로 반출된 민족 자본이 외국 검인이 찍혀 돌아와서 옛날 그 주인들이던 자들을 노예화한다.

그러므로 금속 자본들은 되돌아왔는데, 공짜로 되돌아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를 시인한다. 그런데 그 자본들이 돌아와서 무엇과 교환되는가, 즉 대여되는가? 상품들과 교환되는가? 아니다. 우리의 수입이 언제나 수출보다 큰 상황에서 이 수출을 그나마 유지하려면 우리는 계속 수입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돈은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외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자본의 이용도가 필요치 않은 우리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 자본으로, 돈으로 교환된다. 우리의 상품은 그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돈과 같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속 재산을 매각하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입차인이 된다. 그 후에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할수록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려움의 매듭은 여기에 있으며, 독자는 이를 힘들어하지 않고 이해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논쟁에서 사실들이 가질 수 있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사실들은 분석에 발걸음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잠시 동안 순수이론에 머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바스티아씨는 자유무역의 아킬레우스로서,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동료들을 눈부시게 한 사람이다. 그는 교역에서 돈의 주권적 역할을 오페라하고 모든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규칙적으로 진자 운동하는 가치와 상품들의 자의적 등락 운동을 혼동해 세를 따라서 아마도 상업란이 생소한 사람을 혼동시킬 수 있을 궤변의 미로에 뛰어들었지만, 그 미로는 가치와 교환의 참된 이론의 햇빛로 아주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곧 경제학설들의 비참함을 알리는 것이다.

바스티아씨는 말한다. “A와 B 두 나라가 있다. A는 B에 대해 온갖 장점을 보유한다. 당신은 이로부터 노동이 A에 집중되고 B는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누가 집중과 무능에 대해 말하는가? 그 문제에 솔직하게 들어가자. 두 나라가 그 고유한 능력대로 비슷한, 혹은 적어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하지만, 한 나라가 더 풍부하게 그리고 낮은 가격에 만들고, 다른 한 나라는 적은 수를 비싸게 만든다고 가설로 두자. 가설에 따르면 이 두 나라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한 나라에 노동이 집중되고 다른 나라에 무능함이 있다고 말할 여지는 없다. 그들의 인구와 산업이 그들 각각의 능력에 비례함은 명확하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상업으로 관계를 맺게 될

때어떨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가설이다. 당신은 이를 받아들이는지를 말하라.

“A 는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판매한다. B 는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구매한다. 나는 논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신의 터전 위에 선다.”

논박하라, 부디! 절대 양보 말라. 이 거짓된 관대함은 비열하고 의심의심을 남긴다.

“그 가설에서 노동 수요가 A 나라에서 아주 많아지고 곧 값이 오를 것이다. 철, 석탄, 토지, 식품, 자본 수요가 A 에서 아주 많아지고, 곧 그것들의 값이 오를 것이다.”

“이 시기 동안 노동, 철, 석탄, 토지, 식품, 자본 모두가 B 나라에서 아주 방치되며, 곧 모두 값이 낮아진다.”

“A 는 언제나 판매하고 B 는 끊임없이 구매해, 척도재는 B 에서 A 로 넘어간다. A 에는 그것이 풍부하고, B 에는 희소하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제 B 가 A 의 저가격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자국의 모든 돈을 지출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척도재의 풍부함, 이는 말하자면, 다른 모든 물건을 사려면 척도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A 에서는 아주 활발할 수요에서 오는 실질적인 상에 귀금속의 과잉 비율로 인한 명목적 고가가 더해진다.”

“척도재의 희소성, 이는 물건을 살 때 마다 척도재가 별로 필요치 않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B 에서는 명목적 저가격이 실질적 저가격과 결합한다.”

바스티아씨의 결론에도 달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자. 문체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번번이 그를 설명해 줄 논평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실질적인 만큼 명목적인 저가격은 B 국에서 A 와의 관계에 따라 생겨나는 것인데, 이는 A 의 생산적 우월성의 직접적 효과이면서 그 원인보다 결코 더 위력 있게 될 수 없는 효과다. 다시 말해, 각각 고려된 두 나라에서 교환 가능한 가치들의 진자 운동이 어떠한, 임금, 석탄, 철 등이 B 에서 인하되는 동안 A 에서 인상된다면, B 에서 지배하는 이른바 저가격은 A 에서 발현되는 고가격이라는 것에 결코 경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앞의 것은 뒤의 것의 결과인데 A 의 산업인들은 언제나 시장의 주인 입에 변함 없으니 말이다.

실제로 임금, 즉 임의의 모든 산물은 결코 A 에서는 그 나라를 위해 산물을 수출하는 기업가들의 수요, B 의 시장 상태에 따라 조절되는 수요를 강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B 에서 생겨나는 가격 인하는 이 나라의 사업가들에게 A 의 경쟁자들에 대한 투쟁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 이 가격 인하는 수입의 결과이지, 그 토지의 천연 자원의 결과가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입국의 사정은, 추가 아래에도 달해서 움직이려면 외적인 힘이 추를 다시 올려주기를 기다리는 시계와 같다. 바스티아씨는 돈을 다른 종류의 상품들과 동일시해서 지속적인 동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항등식은 참이 아니므로 그는 관성만을 만났을 뿐이다.

곡물을 면세로 하자고 영국의 자유 무역 연맹원들이 농부들에게 외친다. 그러면 서비스가 어디서나 낮아져서 영국 밀의 생산이 덜 비싸질 것이며, 소작인, 지주 그리고 일용 노동자는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노니, 이는 영구 운동 기관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해 보일 가치가 있다. 영국에서 서비스의 가격 인하는 아메리카와 흑해 산밀 수입 때문이라면, 영국 밀의 생산은 어떻게 러시아나 아메리카 밀의 생산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결과가 원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외국산 밀의 가격은 수요에 비례해 상승하지 않을까? 경쟁에 비례해 감소하지 않을까? 그것은 시장의 모든 진자 운동을 따르지 않을까? 영국에서 밀의 생산 비용이 아메리카 밀의 수입이라는 사실 때문에 10 리터 당 3 프랑이 감속된다면 아메리카가 떠받치는 영국 생산은 아메리카에 그 가격을 쳐서보다 3 프랑 더 낮추게 강제할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결코 이런 수단으로 이득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영국에서 모든 가격이 인하된다면, 영국 상품들의 가격 인하는 자신들의 곡물의 우수성을 점점 더 확실할 미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그 반대를 증명해 보라. 아니면 당신의 말을 주워담으라.

블랑키씨는 말한다. 우리나라에 철, 석탄, 직물, 우리 노동의 모든 원재료도 도입하자. 그러면 우리 산업들 각각에는 사탕무 설당이 보호 관세를 벗어난 후에 그 생산에 일어난 일이 닥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들은 능력이 증강될 것이다. 블랑키씨의 단언에는 불행한 일이지만, 사탕무 설당 제조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들이 제조에서 획득한 진보는 해외 경쟁 덕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 덕분, 자신들의 지능 덕분이라고, 이 진보는 한 마디로 그들 자신의 기금에서 취했지, 외국인의 원조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블랑키씨의 체제에서 보호는 가장 절제된 것이라도 한 나라의 산업에 해가 되어야 한다. 정반대로 보호 덕분에는 산업은 (이 산업을 보장해주는 것은 이 산업 자신이다) 번영한다. 이처럼 몇 년 안에 아마 산업이 프랑스에서 9 만방추에서 15 만방추로 상승한 것을 보아왔다. 그리고 상무부에 따르면, 6 만방추가 이 순간에 주문되어 있다. 달리 어떻게 그럴까? 프랑스의 설당 산업을 앤틸리스의 설당 산업과 연합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외 산업의 저가격이 우리 산업의 전진을 도와 줄 수 있을까? 한 사탕무 설당 제조업자는 그 반대를 내게 말할 것이며, 나는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블랑키씨는 해외 경쟁이 자극제로 작용해 우리 산업을 더 창의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따라서 우리의 제조업을 더 성과 높게 만들 것이라고 단언이 해했는가? 이 경우에 해외 산물의 도입은 정부의 손사이에 있는 상업적인 공안 수단일 뿐이다. 그렇게 실토하라. 그러면 그대의 대의는 이해가 된다. 더 이상 논쟁 거리는 없다.

이번에 내가 무역의 절대적 자유를 가지고서는 민족들 간의 균형이 파괴되고, 균형이 없이는 진정한 부는 없으니 그러한 자유는 민족적이고 개인적인 독점의 유지와 함께 부의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과 부족의 원

학파적편견들의한심한효과다! 바스티아씨는사회의거대한지평아래자신이위치한다고믿으면서, 이기심이라는좁은관점에서자유무역의문제를판단하면서그본질상(나는세관의변칙성과성기심을결코옹호하지않는다) 토산품의등가의양도에의해외산품의변제를보장해주는이론, 그것없이외산품의구매가어떤가격에서이루어지든지실상은빈곤화일뿐인이론을부족이론 *théorie de la disette* 이라고부른다. 그리고그는외부에서오는모든상품들이척도재로만변제될경우라도그의면세를요구하는이론을풍요이론 *théorie de la l'abondance* 이라칭한다. 결국금리생활자들에게만이익이되고, 나태함을강화하는결과가될뿐인이런종류의자유가마치교역없는소비, 방만한향락, 자본의과과가아니라는듯이말이다. 이길로일단들어서면, 끝까지이길을통해가야했다. 그리고역제의당파에적용된단지그저자에게우스꽝스러운시시포스주의 *sisyphisme* 라는바로크적호칭은이기나긴욕설을끝내려고나왔다.

자유로운독점이론, 이는일종의풍요이론이다. 아, 정말. 철학자들도사제들도존재하지않는다면, 인간적물상식과맹신을재보기에는경제학자들로충분할것이다.

모든관세를동시에폐지하라고경제학자들은말한다. 그리고관세인하가일반적일경우모든산업이이익을볼것이다. 부분적고통은없을것이다. 민족의노동은증가할것이며, 당신은외국인을뒤쫓을수있을것이다. 블랑키씨가화려한논변으로에밀드지라르탱씨라는, 노동의민족성원칙을수호하고자한우리나라기자들중유일한사람을침묵시킨것은이런유아적이성을가지고한것이다.

물론, 한나라의모든산업인들이원재료를더저렴한가격에조달할수있더라도, 그들각각의조건은아무것도달라지지않을것이다. 그러나이어떤점에서난점을건드리는가? 각민족안에서민간산업들의균형이아니라민족들의균형이문제다. 그런데나는위에서행하고찰을다시논한다. 이일반적인하, 이틀치노동과동등한가치로과거에우리에게사흘이걸린것을가지는이이익은우리가무엇의덕을보는것일까? 우리자신의노력덕분일까, 아니면수입덕분일까? 그대답은의심스럽지않다. 이는수입덕분일것이다. 그런데, 염가의원재료가외부에서온다면, 원재료의운송비용으로증가한우리의노동을외국의산물에더하게되는데우리가어찌외국인과경쟁할수있을까? 그리고외국인이우리에게누리게하는가격인하가우리를그에맞서싸우는상태로, 즉그의산물을우리의산물로지불하는상태로둔다는것이모순을내포한다면, 우리는그의발송품을어떤상품으로변제할것인가? 물론우리의돈으로변제한다. 그렇다면, 돈이다른상품처럼하나의상품이라는것을증명하라. 아니면모든상품이돈과등가가되게하라. 그렇지않으면입을다물라. 당신은말썽꾼이고경솔한자일뿐이다.

우리의저자는계속해서말한다. “이런상황에서산업은 A 를포기하고 B 에정착하게될온갖동기, 내가이렇게말할수있다면, 내제곱을한동기를가질것이다. 아니면, 진실에다시들어가기위해산업은이순간을기다리지않았을것이라고, 자연은급격한이동을싫어한다고, 원래부터자유체제에서산업은점진적으로공급과수요의법칙에따라, 즉정의와유용성의법칙에따라 A 와 B 사이에나누어분포했을것이라말하자.”

이결론은반박의여지가없을것이며, 우리가 A 의명목적고가격과 B 의실질적저가격사이에슬쩍집어넣은고찰이아니었다. 바스티아씨는 B 의시장가격표를 A 의시장가격표에종속되게만드는인과관계를못보고는귀금속이 A 에서 B 로, B 에게서 A 로, 마치수평을이론물이균형을재확립하고빈곳을매워주는것외의목적없이, 다른결과없이거니는것같이움직인다고상상했다. 그가말하지않은것이더명확하고참된것이었다. B 의일꾼이자기임금이감축되고일감이 A 의상품수입때문에줄어드는것을볼때, 그는자기나라를떠나스스로 A 로일하러갈것이며, 이는아일랜드인들이영국으로간것과도같다. 그들이 A 의일꾼들에게가할경쟁에의해접차자신들의조국을멸망시키는데기여할것이며, 동시에그들은이민간나라안에서일반적빈곤을증가시킬것이다. 그러면거대한재산과거대한빈곤이어디서나다시특세해균형이확립될것이다. ... 말로써실행된이상한매혹의힘이다! 바스티아씨는스스로 B 나라의쇠퇴를막확인했다. 그리고인상과인하, 상쇄, 균형, 수평, 정의, 대수代數로시달린정신은검은것을희다고보고, 아리만 (Ahriman)⁴의소위所爲를오르마즈드 (Ormazd)⁵의소위로간주하고, 이명백한쇠퇴중에서회복만을감지한다!

A 의산업인들이 B 와의무역으로부유해져서자신들의자본으로더는무엇을할지모르게될때, 그들이그자본을 B 로가져갈것이라고당신은말한다. 그러나이는그들이집, 토지, 목재, 하천, 목초지를구입하러 B 로가리라는뜻이다. 거기서그들이영지를만들고, 소작인과농노를선택할것이고, 사람들이가장존경하는권위인돈에힘입어영주와군주가될것임을뜻한다. 민족의부는조국을떠났다がい위대한봉신들과함께외국인지배와국빈층을데리고다시돌아올것이다.

게다가이혁명이완만하게행해지든급작스레행해지든별로중요하지않다. 바스티아씨가아주잘말하듯이급작스러운이행은자연이혐오하는것이다. 상업적정복의척도는침략하는민족들과침략을받는민족들에서

⁴ 조로아스터교의악신. 페르시아어로아흐리만이라고도한다. 조로아스터교의고대신화에등장하는절대악이자근본적인어둠을상징하는존재이다. 앙그라마이뉴와는분리된존재였으나후에앙그라마이뉴에신격이합치되었고, 선과진실의근원인아후라마즈다와반대되는신으로서앙그라마이뉴와동일개념이되었다. -편집자주

⁵ 조로아스터교의최고신으로아후라마즈다라고도한다. 세상의모든선한것들과인간을창조했다고알려졌다. -편집자주

나타나는원가의차이다. 또한새로운귀족계층이바깥으로부터들어오든, 아니면그들이동포와외국인사이의중개인으로일하는가운데대금업과은행에의해부유해진토착민으로이루어지든별로중요하지않다. 내가말하는혁명본질상외국인들의이민유입에도, 토양의반출에도관련되지않는다. 대외무역의작용아래인민이두계급으로분단되는것, 옛날에는자유로운나라, 그주민들이중속화의다른원인들만아니면평등한상태로있을수있던나라안에서의중상주의적봉건제의고양, 이것이바로이혁명의본질이고, 불리한조건에서행해진자유무역의불가피한결실이다.

그러니뭐라고! 우리는프랑스토양이해협을건너템스강에서소멸되는것을보지못할것이므로, 우리의정부, 우리의법, 우리의관심에서아무것도달라지지않을것이므로, 우리와교역을하는모든민족들에게서내보내진이주민집단이우리의 3500 만주민이사는장소에나타나지않을것이므로, 당신에따르면아무것도달라지지않을것이다! 나라의전리품은담보채권의모습으로다시나타나민족을귀족들과농조들로나눌것이며, 우리는잃는것이없을것이다! 자유무역의효과는기계, 경쟁, 독점과조세의작용을강화하고증진하는것일것이다. 그리고정복된노동자대중이외국침입덕택으로자본의자비에맡겨질때, 그들은침묵을지켜야할것이다. 빛을진나라가스스로팔고, 조국에매춘행위를시키는것말고더는수단이없어질때, 그나라는경제학자들의탁월한천재성앞에서치욕을당할수밖에없을것이다!

내가우발적으로과장하는가? 정치적으로자유로운나라포르투갈, 자신의왕, 자신의신앙, 자신의헌법, 자신의언어를가진나라가매수엔조약과자유무역에의해영국의소유물이된것을모르는가? 영국식경제주의는우리에게벌써역사의감각을상실하게했을것이다. 그리고민족적노동의수호자의상상적양식을빌려서보르도사람이옛날엘레오노르드귀엔(Éléonore de Guyenne) 밑에서했던것처럼프랑스를영국인에게새로이개방하기를원하는것이사실일까? 우리나라안에어떤음모가존재해서마치텍사스의상인들이최근자신들의나라를미국에판것처럼우리를유럽의은행귀족집단에팔려는것이진실일까?

다음은가장공신력있는, 그리고보호주의적편견의혐의가가장적은우리신문들중하나에서발췌한것이다. “텍사스문제는근본적으로돈문제다. 텍사스는재력이없는나라로서는엄청나게큰빚을졌다. 그나라의채권자들은거의모두그나라의영향력있는시민들이었다. 그리고이들의주목적은그들의채권을상환받는것이었고, 누구에게상환받느냐는별로중요하지않았다. 그들은다른팔것이없어서나라의독립을흥정했다. 그들에게는미국이멕시코보다훨씬더빚을갚아줄상태에있는것으로보였다. 그리고그들이당장텍사스의채무를떠안는데동의했다면, 합병은오래전부터기정사실이었을것이다.”(「콩스티튀시오넬 Constitutionnel」, 1845년 8월 2일)

은이런측면에서보호조치를기울여야한다는것을아주길게, 그리고아주현학적으로증명한다. 나는이질문을자격있는독자들에게제기하노니, 지금경제학자들에게걸여된것이라고는추론할줄아는것임이입증되었는가?

당신스스로이것을말했다. 소비자의이익은생산자의이익과사회안에서동일하다고, 결과적으로국제무역의문제에서개인에대해서처럼사회에대해서추론할필요가있다. 그러면당신은이두이익을어떻게서로분리할수있었나? 당신은한소비자가그의산물말고다른물건을가지고서구매했다고상상할수없다. 그렇다면당신은한민족이그민족의돈을가지고구매하든그의산물을가지고구매하든상관없다고어떻게주장하는가? 이체제의결과가생산없는소비, 즉파멸이니말이다. 소비자, 사회는구입하는것의저가격으로부터그사회가자신의구매를동등한가치를체화한일정량의산물로써충당하는만큼만이익을본다는것을당신은어찌잇는가?

나는당신이매달리는것을안다. 당신은당신이생산이라고부르는개별적이익을, 당신이소비라고칭하는사회적이익에대치시킨다. 그리고당신이최대다수의이익을최소수의이익보다선호하므로, 당신은생산을소비에제물로바치기를주저하지않는다. 그리고당신의의도는훌륭하다. 나는이를법적으로인정한다. 그러나당신은구슬을틀렸다고, 검은구슬이라말하기원했을때흰구슬쪽에투표했다고, 당신에게사회는이기주의로파악되었고, 거꾸로이기주의는사회로파악되었다고덧붙인다.

자유무역에엘린어떤나라에서수입과수출의차이가단한품목에서나온다고가정하자. 그품목의생산은보호가되어있었다면그민족을이루는 3000 만명중에 2 만명을먹여살린다고하자. 당신의체제에서이 2 만명의생산자들의개별이익은 3000 만명소비자들의이익을이길수없고, 이겨서도안된다. 그리고외국상품은받아들여져야한다. 내견해로는, 반대로외국상품은토산품으로변제될수있는것이아니라면배척되어야한다. 그리고이는단체이익의관점에서가아니라사회자체의이익에서그렇다는것이다. 나는그이유를말했으며, 이를두마디말로환기하기만하면될것이다. 화폐가치는뭐라고해도다른가치와같은가치가아니라는것, 그리고한민족은그금속자본을가지고서, 가장이상화되고가장굳건한그가치물을가지고서그실체, 그생명그리고그자유를상실한다는것이다. 바늘에찢린상처때문에피를계속흘리는한사람은물론한시간내에죽지않을것이고, 보름안에죽을수있을것이다. 그리고피의유출이목을통해생겨나든, 작은엄지를통해일어나든중요치않을것이다. 이처럼독적이기주의에도불구하고, 각자에게그의재물들, 그의노동과근로의결실에대한완전한처분권을보장하는소유법률에도불구하고같은민족의구성원들은모두가연대해있다. 정의의관계이면서도경제의관계인이관계는당신을어떻게벗어났는가? 당신은당신의글속에서튀어오른이올배반을어떻게감지하지못했는가?

리아자본, 프로이센자본, 작센자본이되어 해외이주로서 그 운명의 불의를 교정해간다. 과거에 이자본들을 멀리했던, 그리고 지금 그들을 보호하는 바로 그 세관들의 보호 아래, 자본보유자들이 노동에 별로 소질이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노동의 도움을 받아 그 자본들은 시장을 장악하고, 모국에 경쟁을 걸고, 연이어서 그 모든 산물을 우선은 직물을, 그다음은 실을, 그리고 나서서는 기계를, 그리고 나서서는 특히 위험한 것, 고리대를 격퇴한다. 그리고 노동조건의 이평준화 작업에서, 각민족이 그 이웃의 산물을 교환의 평등조건 아래서만 받아들일 필요성, 이웃의 자본을 대여가 아닌 투자의 명목에서만 받아들일 필요성을 소리 높여 알리는 이 사실에서 무역자유를 편드는 논리를 발견한다!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바스티아씨가 연합과 임금제도, 대금업과 합자회사 같이 극히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새삼 혼동하든지 하는 것이다.

무역수지균형이론에서, 다른 모든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을 길 잃게 한 모순은 그때문에 바스티아의 정신을 타격했다. 한때 그는 그 현상의 두 측면을 파악하는 듯했다. 유감스럽게도 논리는 프랑스에서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서 원리들의 대답이 그로 하여금 종합해결론을 짓도록 했지만, 그는 하나가 거짓으로 입증된다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수학에서만 참이 되는 수학자의 공리와 관계를 맺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소비하기 위해 생산한다. 그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다. …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그 이익이 이중적임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판매자로서 우리는 고가격, 그리고 결과적으로 희소성에 이익을 가진다. 구매자로서는 저가격, 혹은 같은 것인, 물건의 풍부함에 이익을 가진다.”

거기까지는 관찰과 추론 상흠잡을 데 없다. 그러나 난점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이기도 했다. 바스티아씨의 통찰력에 설치된 올무는 기만적인 대답 아래 숨겨져 있었다. 실제로 나는 생산자인 나와 소비자인 내 이웃간에,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어느 편을 들지 말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인격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한 민족의 생산자들과 또한 그 생산자들도이기도 한 바로 이 민족의 소비자들간에 어느 편을 들까? 논리가 없을 때는 상식이 이 범주들 중이 것 또는 저 것을 선호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해준다. 이 범주들은 카스트가 아니라 상관적 기능들을 지칭해 똑같이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이라는 이 불화의 과학은 이런 총체로서 사물을 볼 줄 모른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사회안에 이익과 권리상 대립하는 개인들밖에 없다. 불행히도 바스티아씨는 감히 선택을 했고, 길을 잃었다.

“두 이익이 서로 모순되니, 그 중 하나는 필연적으로 사회 이익 일반과 일치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이에 상반되어야 한다. …” 그리고 바스티아씨는 소비자의 이익이 생산자의 이익보다 일반적으로 더 사회적이므로 정부들

이것이 바로 기조씨가 막기를 원했던 것이고, 반대 세력이 텍사스와 관련하여 그의 교섭에 대한 보고를 그에게 요구해왔을 때 그가 법정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상이 그의 웅변 재능에 걸맞은 웅장한 언어를 발전시키는 데 착수했다 라면, 그의 다수의 장사꾼들에게 얼마나 공포를 일으켰겠는가? 상업적 영향력은 민족들에게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게 하는 죽음이다!

내가 여기서 그에게 아주 큰 감사를 표명하고 싶은 것인데, 바스티아씨는 지금 허수한 사회주의에 세뇌되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를 사랑한다. 그는 평등의 교리를 소리 높여 선포한다. 그가 아주 큰 헌신성을 가지고 자유무역의 대의를 신봉했다면, 그가 자유무역 연맹관념들의 선교사가 되었다면, 이는 그가 많은 다른 이들처럼 자유라는 이 위대한 날말에 끌린 것이다. 이날말은 그 자체로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자생성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진리와 정의의 영원한적인 모든 열광주의에 경이롭게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자유는 민족들에게도 개인들에게도 평등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가 정의되면서, 자유가 법으로부터 그 형태와 권능을 부여받으면서 그런 것일 뿐, 자유가야만 인들에게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이 모든 확정성을 결여한 채 방치된 상태로 있는 한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경제학자들의 경쟁처럼 모순적 원리, 불길한 애매함일 뿐이다. 우리는 그 새로운 증거를 취할 것이다.

바스티아씨는 이렇게 고찰한다. “결국 우리가 교역에서 지불하는 것은 자연의 선물물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이다. 우리 집에서 일꾼 한 사람을 부른다. 그는 톱을 들고 도착한다. 나는 그의 일당으로 2 프랑을 지불한다. 그는 나에게 판자 25 개를 만들어 준다. 그 톱이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판자 하나도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더 적은 일당을 주었을 것이다. 톱에 의해 생성된 쓸모는 그러므로 나에게 자연의 무료 선물이다. 아니, 이는 내가 모든 형제들과 함께 조상들의 지능으로부터 공동으로 받은 유산의 한 몫이다. … 그러므로 보수는 생산자가 시장에 내놓는 쓸모와 비례하지 않고 그의 노동과 비례한다. … 그러므로 결국 자유무역은 그 목적이 모든 민족에게 자연의 무료 효용을 누리게만 하는 것이어서 어느 민족에게도 손해를 결코 끼칠 수 없다.”

나는 로시, 슈발리에, 블랑키, 뒤누아에, 픽스제씨 諸氏와 그밖의 순수한 경제학 전통의 수호자들이 바스티아씨의 이 학설, 일체의 독점을 일거에 물리치고 무로 돌리고 노동을 가치의 유일하고 최고인 심판자로 만드는 이 학설에 대해 생각한 것을 모른다. 잘 생각해 보라. 바스티아씨의 명제를 공격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눈으로 볼 때 그 명제는 평등 자체의 몇 부린 문장이며,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해하는 의미에서 자유무역의 정죄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불해야 하는 것은 자연의 무료 효용이 아니라 노동이다! 이런 것이 사회경제의 법칙, 아직 잘 안 알려진 법칙이, 오늘날까지도 노동분업, 기

계, 경쟁등이런여러종류의신비들로감싸인채로있어, 그것들의대립에 따라조금씩발견되도록한다. 바스티아씨는스미스의참된제자로서마땅히그래야하는것, 결과적으로그렇게되는것을우수하게인식하고나타냈다. 즉, 그는그렇게있는것을완전히있었다. 노동의법칙, 교환에서의평등이진실로실행되려면, 경제적모순들이모두풀릴필요가있다. 우리를사로잡는문제와관련해서이는, 연합 association 의바깥에서무역자유는언제나힘의횡포에불과하다는뜻이다.

이처럼바스티아씨는몹의사용이어떻게모두에게무료선물이되있는지를아주잘설명한다. 그러나오늘날우리의독점적법률들을가지고서몹이알려져있지않다면, 발명가는즉시특허를받아서그장비의이득을있는대로취할것이확실하다. 그런데이런것이바로토지, 기계, 자본, 그리고모든작업도구들의조건이다. 그리고바스티아씨는경쟁을독점에대립시키고열대지방들을온대지방들에대립시키면서우리에게다음과같이말할때, 완전히잘못된가정에서출발한다. 아니, 그는부당하게미래를기대한다. “행복한기적에의거해모든경작가능한땅들의비옥도가상승한다면, 이현상의이득을취할것은결코농업인이아니라소비자다. 왜냐하면그것은풍부함, 저가격으로풀릴것이기때문이다. 밀 10 리터마다들어가는노동은더적을것이며, 농업인은이를다른모든산물에포함된더적은노동하고만교환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더나아가서

“A 는자연의혜택을받은나라이고, B 는자연의푸대접을받은나라다. 나는교역이두나라모두에이롭지만특히 B 나라에이롭다고말한다. 왜냐하면교역은쓸모를쓸모로교환하는것이아니라가치물을가치물로교환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A 는같은가치에더많은쓸모를내놓는다. 산물의쓸모는자연이거기에만들어준것, 노동이거기에만들어준것을포괄하는반면, 가치는노동이거기에놓은것에만상응하는것이다. 그러므로 B 는자신에게아주유리하게거래를한다. A 의생산자에게단지그의노동만값아주어그는거래를넘어서주는것보다더많은자연적쓸모를받는다.”

그렇다. 다시한번, 당신에게나는목청껏외칠것이다. 가치를만드는것은노동이지, 당신이방금말했듯이, 그리고당신을이해하지도못하면서당신에게갈채를보내는당신의동료들모두가가르치듯이공급과수요가아니라고. 서로지불되고교환되는것은노동이지, 토양의무료효용이아니다. 그리고당신은당신의선의와당신관념의비밀관성을이보다더잘입증해주는어떤것도말할수없을것이다. 그러한조건에서교역의가장절대적인자유는언제나이익이되며, 결코해롭게될수없다. 그러나독점, 산업의여러특권, 자본가의선취권, 소유의주인된권리, 이런것들을당신은폐지했는가? 당신은단지그것들을폐지할수단만을가지는가? 당신은그것들의폐지의가능성, 필요성도민는가? 나는당신에게의사를표명하라

고촉구한다. 왜냐하면여러민족들의안녕과자유가걸린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한문제에서애매한말은반역이된다. 민족영토의특권, 그리고개별소유권이당신에의해전제될것인한에서당신입으로말하는교역의법칙은거짓말일것이다. 모든나라의생산자들간에동의가이루어진연합과연대, 즉자연의선물들의공유, 그리고노동의산물들에만대한교역이없는한, 대외무역은종족들간에노동분업, 임금제도, 경쟁, 그리고모든경제적대개체들이개인들간에작동시키는노예화와종속의현상을재생하기만할것이다. 당신의자유무역은, 내가힘차게가해지는약탈이라고말하는것을당신이좋아하지않는다면, 속임수일것이다.

자연은혜택을본민족들을일반적연합으로가져가기위해침입과정복에족쇄를채우는자연적장애물로써이민족들을분리했다. 그리고당신은보증을취하지않고이장애물들을치운다! 당신은자연의예방조치를쓸모없는것으로판단한다! 당신은자기나라에속하기를원치않는소비자의이기심을충족해주려고한민족의독립을건다! 내부의독점에대해당신은외부의독점만대립시킬수있다. 여전히독점인것이다! 그래서당신의모순의악순환에서땀도는것이다! 당신은우리에게노동이노동을교환할것이라고약속한다. 그리고교환에서는독점과교환되는것이독점이라는것, 그리고노동의적인브렌누스 (Brennus) 가슬그머니저울에칼을올려놓았다는것이드러난다!

진실과실재의, 법과사실의혼동, 전통과진보의적대가최선의정신들을끊임없는당혹함에내던지는그당혹감은바스티아씨에게서가장통속적인실재의사물들에대한분별력까지빼앗은듯하다. 다음은그가자신의논제를증명하려고보고하는사실이다.

한제조업자가맨체스터의상공회의소에서이렇게말했다. “옛날에우리는직물을수출했습니다. 그리고이수출은실수출에자리를내주었습니다. 실은천의원재료입니다. 그다음에는실의생산장비인기계수출에자리를내주었습니다. 나중에는우리가기계를제작하는데들어가는자본의수출에, 끝으로우리가진자본의원천인우리일꾼들과산업의재능을가진이들의수출에자리를내주었습니다. 이모든노동요소들은차례로작동시키기에가장유리하다고보이는곳, 생존이더저렴하고, 생활이더쉬운곳에서작동해왔습니다. 그리고오늘날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작센, 스위스, 이탈리아에서엄청난제조업들이영국자본을가지고창설되어, 영국일꾼들을고용하고영국엔지니어들에의해경영되는것을볼수있습니다.”

이야말로자유무역의경이로운정당화이유가아닌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작센, 이탈리아는세관의보호를받고보유금속의수량이미미해그구매에제한을받아영국의산물을할인혜택아래서만받아들였고, 지불할수있던것만을취했다. 영국자본들은족쇄가채워지고, 견딜수없어서자신의나라를빠져나가이접근불가능한나라들에귀화해서오스트

상속재산을집어삼키는데동원하는유녀들이다. 귀부인들은스스로를위해일하고가난한이들도자신들을위해일하기를바라며, 정의는헌신보다세상의행복을위해더값어치있지않은지일단알기를바란다!

누가우리를자선에서구할것인가? 프롤레타리아의순진함을끊임없이남용하는이신비화에서, 노동과자유에맞선영구적인이음모에서말이다.

나는어린이집, 공중휴게소, 무료 (수습과정처럼무료다!) 학교들을지나서공영전당포 mont-de-piété 에도달한다. 여기서나는이쓸모있는재단을생각한사람들에대한깊은존경에서새로이항의해야할것이다. 그러나사람들이나를체계적인인간혐오자라고비난하지않도록, 그리고내가고발하는것이관념들, 이론들그리고이관념들과이론들에서태어난제도들이라는것이잘입증되도록공영전당포에관해가장유리한가설, 즉인민의돈, 저축금고에예치된돈은오직인민에게신용대출하도록공영전당포에받아들여진다는가설에서출발할것이다.

그러므로나는공영전당포에투자한자본의이자가 100 프랑에 3 프랑 50 샤틀므로저축금고의예금자에게지불되는이자와같다고가정한다.

그래서 3 프랑 50 샤틀

사무실, 사무원, 점포등비용 100 프랑에 0.5 프랑 50 샤틀

바깥으로내보내진물건가액 33%— 예치된총량중 10 분의 1 만이방치되고그기관에의해서든예치자자신에의해서든인가받은상인에게실제가격보다 16% 낮게판매된다고가정하면, 10 개의예치물에배분되는이손실은 1 프랑 60 샤틀

총계 5 프랑 60 샤틀

도덕성:

신용이론을가지고서 100 프랑에 3 프랑 50 샤틀므로대출하는노동자는 5 프랑 60 샤틀에차입한다. 차액은 2 프랑 10 샤틀이며, 그만큼을그는이자에서손해본다. 12% 에대출하는공영전당포도있다. 그수익금이성스러운사업에, 병원등의유지에쓰인다는구실에서다. 이는정확히한사람에게서피를 20 온스뺏고, 설당물한잔을보상으로제공하는것과마찬가지다. 인민이전당포에누더기옷을가져오지않게하려면공영전당포의이자높아지는것이좋다고말하는데까지나갔다. 또하나의위선적인영터리다. 그러면왜공영전당포를아주없애지않는가? 왜이거룩한기관들의문에“여기서는신의사랑과인류의선을위해살인합니다”라고써붙이지않는가?

그러나오늘날가장많은투표자를모으고, 내가가장하지않고말하건대모든관계에서투표자들의지지를받을자격이있는기관은저축금고다. 정부가쓸모있는일을했다고실토하는것을너무힘들어하는우울한정신이사람들은이주제에대해가장어리석은반론을내놓았다. 그들은저축이탐욕을가져온다고, 아내가남편모르게절약을하는데서발견할수있는손

할실질적이고파괴될수없는원인의결과라는것을알지못했다. 생산수산의불평등에, 그리고다른상품들에대한화폐의우위에있는이원인은옛사람들에의해감지되었다. 역사는이원인이일으킨여러혁명과파국들로만가득하다.

현대에, 그리고중세에홀란드인들의재산, 한자와롬바르디아도시들, 피렌체, 제노바, 그리고베네치아의변영은그들이세계의모든지점에서도모한무역에의해그들의이익이되도록실현된엄청난차액이아니라면어디서왔는가? 균형의법칙은그들에게알려져있었다. 그들의항상적인업려의대상, 그들의근면과노력의목표는언제나이법칙을위배하는것이였다. 이모든공화국들은이들의천과양념에대한교환으로은과금말고는그들에게줄것이없는여러민족들과의관계에의해부유해지지않았는가? 기기회에그들의고객층을이론민족들은망하지않았는가? 귀족층이빈한한상태로전락하고봉건제가끝난것은이시기부터가아닌가?

시대의흐름을거슬러올라가보자. 카르타고와티로스의풍요로움에대한기초를놓은것이무역이아니라면무엇인가? 무역, 이는공상사商社들과교역의체계로서, 그계정들은언제나혐오대상인이투기자들에게유리하게야만인들의무지와순진함을타빠앗은다량의금속으로수지를맞추었다. 한순간중상주의귀족정이지중해모든연안에서발달해세계의제국을장악하기일보직전이었다. 그리고이순간, 역사가가장엄숙한이순간은스키피오에서시작해루터와레오 10 세에와서야끝나는이어나긴퇴보의출발점이었다. 때는오지않았다. 귀족층, 토지봉건제는당시에도마인들로대표되어산업에대한최초의전투에승리했고, 프랑스혁명에서야치명타를입은것같다.

현재는금융세습귀족들의차레다. 마치다가올자신들의패배를예감한듯, 그들은서로인정하고서로단합하고자신들의질과비중에따라등급을나누고서열을만들며, 노동자의전리품에서각자의몫을정하고그유일한목표가프롤레타리아트의확정적복속인평화를공고히하는데만몰두했다. 이신성동맹에서여러정부들은서로연대관계가되고해소되지않는친선으로엮여서독점의위성체들에불과하다. 절대군주와입헌군주, 대공, 백작, 러시아귀족, 그리고변방총독들, 대지주, 대산업인, 대자본가, 행정부, 법원, 교회의공무원들, 한마디로일을하는대신세비, 연금, 주식투기, 공안과광신으로살아가는모든이들, 공동이익으로단합을이루고이미지평선에오르릉대는혁명의폭풍에의해곧결집한이들은필연적으로노동에대한자본의이광대한음모에가담해있다.

당신들은이를생각했는가, 프롤레타리아들이여?

그러한것이진정여러정부들과귀족정들의비밀스러운생각인지내게 묻지말라.¹⁰ 이는상황에속하며, 숙명적이다. 세관은오로지경제학자들의해민족적독점체제에주어진보호로간주되고, 균형법칙의아직은불완전한표현으로는결코간주되지않아서, 이제부터는세계를담는데더이상충분하지않다. 독점체에는더큰보호가필요하다. 어디서나동일한독점의이익이이를요구하며, 온갖방법으로장벽들의파괴를촉발한다. 로버트필의개혁으로, 관세동맹의끊임없는확장으로, 벨기에와프랑스간의단지연기된관세동맹으로세관의올타리들은거대한두세구획으로정리될 것이며, 완전한자유, 더긴밀한단합의필요는지체없이느껴질것이다. 땅위의모든경찰, 모든부르주아지, 모든왕조들이서로협력하는것은노동계급의무지에도불구하고, 이들이처해있는버림받은상태와분산성에도불구하고이들을억제하는데는지나친것이아니다. 끝으로위계의원리에따라수많은직업과특권들로분산된중간계급의공모, 가장똑똑한, 담합을위해지휘자, 십장, 사무원, 감독이된일꾼들의기용, 언론의변질, 다른한편으로분열과빈곤. 수많은원인들이결합해비생산적계층을난공불락으로만들어퇴폐의기나긴시기가인류에게시작될것이다.

두번째로, 당신들은이를생각하지못했는가, 프롤레타리아들이여?

게다가이제부터민족들의균형을차별관세, 다르게말해서무역수지균형이라는더잘이해되고더정확한실무에기초시키려고하는것은쓸데없는수고일것이다. 왜냐하면두가지중하나가일어날것이기때문이다.

문명이봉건제와농노제의세번째시기를통과해야한다면, 세관제도는경제학자들이아주우습게도그렇게상상했듯이독점을삼기기는커녕독점체제의담합에대한장애물, 그들의발달과존재에대한장애물이다. 이제도가폐지되는것이필요하고, 폐지될것이다. 이폐지의조건들을조정하고독점자들의이익을조화시키는것만이문제다. 그런데독점자들은이런종류의타협에서깨지며, 프롤레타리아의노동은거기서퇴직수당으로소용된다.

반대로사회주의가과학의성년복을입고그유포아를포기하고, 자신의우상들을불태우고노동앞에서자신의철학적이고집을낫추면서, 자유무역의문제에관해이순간까지로버트필에게명예를돌리며심벌즈를흔드는것밖에모르는사회주의가이성과경험을통해사회질서를형성하는데진지하게유념한다면, 노동조건들의평준화는국경선에서상품들이통관할때더이상작동할필요가없다. 그것은모든생산자들사이에작업장들

¹⁰ 벨기에조약에관해국회에서한장관연설은그런것이아직은우리나라에서체제의생각이아님을증명해준다. 상무부장관퀴닝그리덴 (Cunin-Gridaine) 씨는관세폐지론의유혹에서항해우선모든재언론에서, 그리고일부여당언론에서호의적으로받아들여졌으며, 아마도 10 월 29 일내각에감사해야할가장큰도움을프랑스에주었다. 이영예로운협상가가프랑스에마련해주는유에로이익을보는프랑스가결국민족들간의자유와평등의진정한원리들에관해깨달을수있기를바란다!

라는것때문에만당신에의해옹호된다는것을누가모르겠는가? 글썽! 당신의자선, 이제이를정당화해보라. 그것을옹호해보라.

탁아소에서는벌써엄마의좋은행실을담보로요구하는것으로는결코충분하지않다. 이가난하고아기들을책임진엄마에게납부금을부과하는것이필요하다. “엄마는보모에게아가가는날마다 20 상팀을낸다. 그리고엄마가두아이를맡기면 30 상팀을낸다.”이제계산해보자. 맡기는데 30 상팀, 속옷과세탁에 10 상팀, 엄마가탁아소에까지가야하는모든이동을위한신발에 10 상팀, 모두해서 50 상팀을 90 상팀이나 1 프랑의하루일당에대해탁아소가징수한다. 여기에이엄마가살림을태만히하고, 남편을위해서도자신을위해서도아무것도안한다는것을더해보라. 그러면당신은가난한여성들에게탁아소의이익은 0 이라는것을알게될것이다.

그렇지않을수있는가? 없다. 보육, 세탁, 아기에게주어지는그밖의돌봄이무료라면, 엄마는젖을주기만하면된다면, 탁아소는곧상당한조세, 진정한구빈세의구실이자대상이될것이며, 이렇게해서합법적, 비합법적모성과인구의증가에장려책이주어질것이니말이다. 현대사회들의이스핑크스에말이다. 그러므로자선은여기서두가지를해야한다. 그리고그두가지는양립할수없는것들이다. 가난한이들의아기를돌보는일, 그리고가난한이들에게아기를만들게장려하지않는일. 이는바로멜서스의문제다. 생존수단이인구를증가시키는일없이생존수단을끊임없이증가시키는것이다. 자선의사도들이여! 당신들은경제학자들처럼터무니없다.

그리고이대조에주목하라. 행실이좋고일을해서그아기가탁아소에받아들여진엄마는사람들에게적선을받는모양새인데, 그녀가보모들에게 20 수 (1 프랑) 의일당을줄때는그자신이이로써그들에게더큰선을행하는것이다. 나는이따금신문을읽다가가난한이들을위해뺏는복권에대한보도를본다. 그복권기사들은일반적으로자선을행하는부인들의손에서나온미담들로구성된다. 말하자면, 상류사회의기독교인이자비로운부인이부자의임무는빈자를향해재산의손실을보전해주는것이라고이해하고, 빈자들의근로와약탈의결실인 1 만파운드의연금을누리면서빈자들에게마땅히돌려주어야할금액의약 5 퍼센트에서 10 퍼센트를돌려주고⁸ 의무이상의선행으로희생의공로를즐긴다는것이다. 당신의자선은위선과대금업일뿐임이명확한가? 아! 각자자기일이나신경쓰라. 가난한이들을위한당신의성금모금자들은당신이인민을유인해서그들의

⁸ 1846 년 3 월 8 일의보도에따르면, 아기 191 명이탁아소에받아들여졌다. 이에보모 14 명을더하면 205 개가정이구제를받는것이다. 구제받는가정마다자선기관에, 창설자들이지불한보조납부금에엄마가지불해야하는 20 상팀의일일탁아비용에월 3 프랑 50 상팀의비용이들게했다. 탁아소에참여하는자선가수를 100 명이라고하면그들각자의희생은 7 프랑 17.5 상팀이다.

어째서엄마들이집밖에나가생계를벌어야만하는두살미만의가난한 아기들을위해행해지는자선사업에서, ‘행실이훌륭하다’는이런우울한 제한이있단말인가! 의문의여지없이노동을권장하고, 절약을돕고좋은 행실을보상하고그러면서무질서를촉진하는일이없기를바란것이다. 하지만그러면누가배제를당할것인가? 엄마일까아니면아기일까? 게다가이엄마의비행은그가난한아기가방치와가난보다도치료받을필요가더 큰재앙아닌가?

하지만, 아, 슬프도다! 자선은그것이우발적으로움직이고해악보다 선을결국더적게만들고싶지않다면, 신용처럼그수혜자를선택해야한다. 자선은때로는어린이집과탁아소처럼무를수있는조건으로, 때로는 병원처럼회수가안되는조건으로하는일종의배치와같지않은가? 하지만 모든경우에그것이향하는사람들이이를값어치있게할줄을더잘알고, 스스로든그자손들에의해서든언젠가자신들의의무를인정할용의를가지게되는만큼더욱효과적인것이되는배치다. 자선, 가슴은이성이우리에 게말하는만큼구제불능인자들에대한온기가없다. 신용이파멸한상인을 위한자본을가지지않는것과도같다. 또한사람들이자선에관해쓴모든책 은, 자선은무엇보다앞서똑똑하게보여야한다는, 말하자면, 순전한손실로행해지지않으려면, 그리고또한비생산적소비와파괴로타락하지않으려면답보없이제공되어서는안된다는이격률로가득하다.

이처럼자선은신용의이미지이면서신용처럼거짓말쟁이이고노랑이다! 도덕가들이외견상으로아주대립되지만완벽하게동일한이들, 자선과대금업의유사성으로부터옛날의신학을결코피해가지못한이숙명적인결론을도출할줄몰랐다는것은이상하다. 이는자선이진정으로초인적 미덕, 반사회적, 파괴적, 부정부적원리, 인간에게적이되는미덕이라는 것이다. 우리가말하건대, 아직도세상에사랑과희생의전능에의한갱생을설파하는미슐레 (Michelet) 같은저명한작가들이있다는것은이상하다.

뭐라고! 당신은이성을활용하지않고는, 즉당신의자선과희생은단순한교환적정의, 신용의조직으로변환하지않고는현신의사업도실천할줄 모르고자선을행할줄도모른다. 그리고우리가당신에게바로이신용을조직하고, 노동을조직하고, 정의를창조하고, 자선을똑똑하게만들것이 아니라분별있게만들라고말할때, 당신은때로는중상주의를, 때로는유평아를외친다! 당신은우리가냉담하다고비난하며이기주의의희생제물을드린다고꾸짖는다. 우리가당신과함께사랑과신앙에불을지피는대신모든것을계산에종속시키고자하기때문이다! 당신은위선적인자선을산술보다선호한다. 그런데위선적인자선도곧바로보것이되지않으려면산술없이는될수없다! 하지만자선, 희생, 포기가당신이불평등을사랑하고당신의겸손한행색밑에까다로운고집을숨기고있고당신이재산소유자

속에서스스로완성된다. 공장들의연대라는사실덕분에민족들간의연대가존재한다. 회사와회사간에성립하는균형은사실상은세계에존재한다. 세관은쓸모없고밀수는불가능하다. 여기서균형의문제혹은가치들의비례성문제는민족들간의평등문제와도같다. 그문제는조사와사후적계수가아니라노동으로풀수있다. 게다가이행기몇년동안세관선의유지가유익하다고판단된다면, 관세를정하는것은무역정보담당이할일일것이다. 관세의징수에관해서는나는행정의경험을기꺼이참조할것이다. 그런상세한사항은내구상에들어가지않는다. 내가국제무역의종합적법칙을입증해보이고, 독자가절대적금수의위험에대해서그리고한계없는 자유의거짓말에대해서한꺼번에경계하도록그적용의최종적양태를지적하는것으로충분하다.

무역수지균형의형이상학적성격에관해몇마디더이야기하고끝맺는다.

무역수지균형의원리가우리가가치를다루면서정한명증의조건들을 충족하기위해서는그것은무역의자유와노동의보호를한꺼번에조화시켜야했다. 그런데이는차별관세의확정을통해일어나는일이다. 한편으로그역사적원천이조세의원천만큼별로명예롭지못한이관세는사람들이남용적통행료로간주하는경향을띠는것으로, 실제로자유에평등의조건을부과하면서자유를인정하고확정하기만한다. 다른한편이관세의징수는, 언제나정확히정해진다고가정하면, 노동을충분히보호한다. 노동에대해대등한힘들간의경쟁을불러일으켜그로부터그것이내놓을수 있는것을요구하고, 그것이내놓을수있는것만을요구하기만하는까닭이다.

그러나이조화, 이균형은또한아주새로운속성들을얻으며, 그종합적본성덕에온전한자유도절대적금지도일으킬수없던효과를불러온다. 다시말해이는자유와금수를결합한장점들이상을제공하는동시에그폐단들을멀리한다. 균형없는자유는물론저가격을가져왔지만미약한이득만을제공한모든개발사업들을불모로만들었다. 이는언제나빈곤화였다. 절대적배제에까지밀어붙여진보호는독립을보장했지만고가격을유지하는것이였다. 같은노동의양으로산물들의한종류만을획득하는것이이고가격인것이다. 무역의상호성에의거해인간들의번덕과는독립된물적인실제적연대가창조된다. 노동하는인민들은그들이거주하는어느지대에서나모두가똑같이자연의재화들을향유한다. 각인민의힘은배가되고그행복도동시에배가되는듯하다. 노동수단의연합은비용을모두에게배분함으로써독점에서는접근불가능한토지들을생산적으로만들수단을제공해, 더많은산물이사회에획득된다. 끝으로무역수지균형은민족들간에곧게키쳐져서결코보호와자유방임처럼에속과특권으로타락할수없다. 그리고이는무역수지균형의진리성과유익한영향을증명하기를다한다.

그러므로 무역수지균형은 명증의 모든 조건을 채운다. 그것은 우월한 관념 안에서 자유와 보호의 상반된 관념들을 포괄한다. 이들에 생소한 속성들을 누리며, 이 둘이 가지는 폐단의 어느 것도 제시하지 않는다. 의심할 것 없이 이 종합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방법은 결합이 있으며, 그 원천에서부터 야만적이고 세무적인 냄새가 난다. 그 원리가 참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를 오해하는 것은 자기 나라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이제 더 고차적인 고려 사항으로 올라가보자.

변증법적 절차들에서 그런 것을 본다고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처럼 관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되고 분해되고 일반화되고 단순화된다고 상상한다면 이상한 환상 속에 있는 것이다. 절대 이성 안에서 우리의 비교 능력 덕분에, 그리고 우리 오성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분류하고 차별화하는 이 모든 관념들은 똑같이 단순하고 일반적이다. 감히 말하자면, 그 관념들은 존엄성과 잡재성에서 동등하다. 그것들은 모두가 지고의 자아에 의해 (지고의 자아가 추론을 하는지?) 그의 추론의 전제나 결과로, 회전축이나 반경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 관념들의 일종의 발판을 딛고서만 과학에도 달한다. 그러나 진리 그 자체는 이런 변증법적 형상들과는 독립적이며, 우리 정신의 조합들에서 자유롭다. 운동, 인력, 원자들의 연합의 법칙들이, 우리의 이론들이 그 법칙들을 표현하는 수단 이 되는 계수 체계와 독립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학이 거짓이라거나 의심스러운 것은 아니다. 단지 진리 그 자체는 우리의 과학보다 무한히 더 참되다. 예를 들어 모든 가능한 계수 체계에서 참인 원자 비율들이 우리의 눈을 벗어나는 무한개의 관점들에서 참인 것이다.

확실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인간 인자의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이 특성, 궤변론자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의문을 정당화하지 않는 특성은, 조만간 그 역할이 일꾼의 자발성에는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을 기계처럼 사상을 무더기처럼 일종의 기계 체계에 매이지 않으려 면 특히 눈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잠시 무역수지균형의 예로써 우리의 인식의 주관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국한할 것이다. 나중에 가서 우리는 새로운 지평, 새로운 세계를 이 무한 논리에서 발견하고자 할 것이다.

사회경제학에서 아주 흔한 경우의 예로, 무역수지균형의 이론은 말하자면 가감승제의 보통의 어떤 산술적 조작의 특정한 응용에 불과하다. 그런 데함, 차, 곱, 몫의 이 네 표현 중 어느 것이 가장 간단하거나 가장 일반적이나 고내가 묻는다면, 인수로 취해진 숫자 3 과 숫자 4, 혹은 그 곱인 숫자 12 중 어느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곱셈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들이 거기서 서로 만난다는 오로지 그것에 의해 곱셈도 포함하는 영원한 산술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뺄셈에서 나머지, 나눗셈에서 몫이 이를 형성하는데 소용된 숫자들보다 더 복잡한 비율을 가리키는 지아

정말로 내가 신성한 재단들을 욕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파리가 가장 저명한 시민들 중 한 사람인 미라보씨의 개명하고 적극적인 열정에 감사해야 할, 아기예수의 가호 아래 위치한 재단들이다. 빈곤의 근원은 전적으로 사회적이다. 이는 모든 사람의 범죄다. 그러나 자선 사업들은 인적인 이고 무료다. 그리고 빈곤 계급의 신체적, 정신적 해방을 마련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수많은 선한 사람들의 미덕을 무시한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봐주지 말아야 하는 이 책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분석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고, 내 이성의 불굴성에 거해 내가 숨의 지독함을 판단하지 말기 바란다. 내가 감히 말하노니, 내 감정은 언제나 친구들과 과격들이 자신들이 그러하기를 바랄 수 있었던 그런 감정이었다. 내 글로 말한다면, 아주 어두워 보여도 결국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내 동정심의 표현일 뿐이다.

다음은 탁아소 선전을 위해 공중에 보급된 네 쪽짜리 작은 인쇄물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엄마가 가정 바깥에서 노동을 하고 또 행실이 훌륭한 두 살미만 가난한 아기의 탁아소

“탁아소는 아침 다섯 시 반에 열고 저녁 여덟 시 반에 닫습니다. 엄마는 그 날 필요 한 속옷과 함께 아기를 데려옵니다. 식사 시간에는 아기에 젖을 먹이러 오고 저녁에는 아기를 찾아 갑니다. 젖 떴어가는 어린이 집의 어린이처럼 작은 바구니를 가집니다. 가난한 여성들 중에 선발된 모모가 아기를 돌봅니다. 의사가 매일 탁아소를 방문합니다. 엄마는 아기가 가는 날마다 20 상푼을 모모에게 보냅니다. 탁아소에 맡길 아기가 둘 인 엄마는 두 아기에 대해 30 상푼 만 냅니다.”

감독과 소장인 부인들, 그리고 의사와 운영 위원들의 이름이 뒤에 이어진다.

나는 태생, 교육, 그리고 재산으로 가장 두드러진, 더 나은 사회가 그들에게 그 수녀들의 협력자와 동료 가 되게 해주기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매들을 돕는 그런 구제 수녀가 되는 여성들의 자선이, 내 마음을 꿰뚫고 감동 시킴을 실도 한다. 그리고 이 고귀한 부인들이 그 많은 사랑으로 써 완수 하는 의무, 아무도 그들에게 부과하지 않은 의무들에 대해 말하자면 풍자나 멸시의 냄새가 나는 단 한 마디 말이라도 내 펜에서 튀어나온다면 나는 내가 싫을 것이다. 오, 거룩하고 용감한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가슴은 시대 를 앞섰소! 그리고 당신들의 노력에 대한 쓸데 없는 공문에 책임이 있는 것은 한심한 실천가, 거짓 철학자, 거짓 학자들 인 우리들이오. 당신들은 언젠가 당신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들은 지옥에서 불러 일 으켜 진 변증법이 내게 곧 당신들에 관해 말하도록 강제 할 것을 영원히 무시 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신용의 보편성 때문에, 그 조합들의 다양함 때문에 각자는 출자자이면서 출자를 받은 자가 되고, 신용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앞의 경우에는 수당을 받고 뒤의 경우에는 이를 지불하는 식이 되어 이런 진정한 유통에 의해 조건들이 평등화되고, 그것이 사람들 간에 가능한 만큼 상호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말한다.

나는 이 반론이 아무리 유치해도 신용의 악순환, 이 평등주의적 유통이라고 하는 것의 수학적 불가능성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이를 보고한다. 게다가 한 사람이 상의 금융가, 한 사람이 상의 신용조직자가 이 유포피아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공통으로 유포피아를 들고 나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답하는 것이 그리하듯이 용서받을 만하다.

우리가 신용이라 명명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에서 아주 멋들어진 기적을 기다리게 하는 사회적 이윤 배반들의 현 시기에 아직 아무 것도 조직되지 않았음을 상기하자. 노동은 파편화된 분업에 넘겨져 있다. 작업장은 장인제도와 임금제도에 넘겨져 있고, 시장은 경쟁과 독점에 넘겨져 있다. 사회는 세무적, 의회적 위선에 넘겨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런 균형이 확립될 수 있으려면 큰 자본들이 이미 약한 임금 노동자들에게 계속하는 것이, 2 급 자본은 상급 일꾼들에게 계속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미미한 자본, 따라서 가장 적은 정기 수령금은 노동자들 중 가장 높은 보수를 누리는 자들에게 계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모순적이고,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다. 가장 많이 버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가장 큰 저축을 할 자들, 사람들이 창설하겠다고 주장하는 보편적 합자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질 자들이다. 그럴 때 각각의 임금 노동자가 바퀴 하나에 달라붙어 하루 1 프랑 25 샤틀을 버는 불행한 자에서부터 공직자 명부에서 1200 만 프랑을 받는 국가원수까지 국가의 채권자 명부에, 정기 수령금의 큰 장부에 실리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임금의 부조리에 당신은 소득의 부조리를 더하는 것뿐일 것이다. 이는 블랑키씨의 참여기회에서와 같은 것인데, 거기서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봉급 외에 이득의 명목으로 하루 18 샤틀의 몫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행한 일반적 고찰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신용이 진정한 균형 수단이 될 수 있으려면 균형이 작업장에서, 시장에서, 국가에서 사전에 확립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노동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구나 사람들은 이를 배척한다. 그러므로 신용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

이 모순을 환히 밝히기 위해 신용의 몇 가지 개별적인 경우들을, 그중에서도 특히 이익보다는 자선에서 태어난 경우들을 조사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를 언급할 기회를 가지겠지만 자선은 신용의 가족에 속하고, 이는 신용의 형태들 중 하나이며, 신비적 자생에서 나와 이성의 이끌림을 받으면서부터 그것은 신용의 모든 법칙에 종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탁아소에서부터 시작한다.

니면 덜 복잡한 비율을 가리키는지를 묻는다면, 내가의 미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 참이 아닌가?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이 엉뚱하다면, 이 산술적 비율들을 형이상학적 또는 상업적 언어로 번역하면 그것들의 각자의 질을 변경한다고 믿는 것도 똑같이 엉뚱하다. 사람들 사이에 공평하게 자원의 공짜 선물을 ‘배분’한다는 것은 ‘교환’하거나 ‘생산’한다는 관념과 마찬가지로 무한이성에서는 기초적인 관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우리의 논리를 믿는다면, 이 관념들 중 첫째 것은 나머지들을 따라오며, 우리가 첫째 것을 실현하기에도 달하는 것은 심지어 이들의 성찰된 조성에 의해서일 뿐이다.

나는 영국에서도 노동이 60 의 지출에 100 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러시아에서는 80 에 대해 100 을 생산한다. 우선 두 산출량을 더하고 (100+100=200), 다음으로 지출액을 더하고 (60+80=140), 그 다음으로 이 두 액수 중에 작은 것을 큰 것에서 빼고 (200-140=60), 그 차액을 2 로 나누면, 그 몫 30 은 무역수지 균형에 의해 두 생산자가 연합한 후 각 생산자가 얻을 순이익을 가리킬 것이다.

우선은 계산을 들여다보자. 그 계산에서 100, 200, 60, 80, 140, 2, 30 이라는 숫자들은 일정한 도출에 따라서 서로를 낳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발생은 오로지 우리의 지적 시각의 효과다. 이 숫자들은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필연적으로 간단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각 계기, 각 비율이 다른 계기, 비율들과 동시대의 것이 고아주 필연적으로 그것들과 조율이 되는 한 계열의 항들일 뿐이다.

이제는 사실들로 가보자. 러시아에서도 영국에서도 사회경제학이 토지의 지대, 개간비용, 교역, 수지 균형 등으로 칭하는 것은 숫자 100, 200 등으로 표현되는 추상적 관계들의 경제적 실현이다. 감히 말하자면, 이는 자연이 우리를 위해 이 숫자들 각각에 위치시킨, 그리고 노동과 무역을 통해 우리가 도출하려고, 운명의 항아리에서 뽑으려고 노력하는 도전들이고 고품들이다. 그리고 이 숫자들 모두의 관계가 필연적 방정식을 가리키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그들의 공존이라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토양의 다양한 품질, 그들의 도구들의 성능이 큰가 작은가 하는 것만으로도 영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은 연합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들의 연합은 정신의 법칙의 구체적 표현이며, 이는 필연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칙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낳기 위해서 문명은 극단적으로 완만하게 진행하며, 엄청나게 긴 길을 지나간다. 우리가 이 절의 서두에 다양한 토질을 나타낸 100, 80, 70, 60, 50 이라는 숫자들이 연산을 할 방정식, 내가 뭐라 하는가? 연산이 벌써 된 방정식, 그러나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전제된 방정식만을 정신에 제시하고 모두가 이 방정식의 결과인 숫자 72 로 해소되는 반면, 사회는 우선은 이 다섯 가지 토질의 독점을 받아들이면서 다섯 범주의 특권들을 창설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것들이 평등이 찾아오기까지 서로 간에 노동자들 위에 형성되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귀족계층을 이룬다. 곧이독점들은 그들의 질투심 많은 불평 등의 해보호와 자유의 투쟁을 불러오며, 이로부터 결국 통일과 균형이 생겨나야 한다. 인류는 그 최면술사의 명령에 저항하는 몽유병자 처럼 의식 없이 천천히, 걱정하고 당황하면서 영원한 이성의 명령을 완수한다. 그리고 인류에 의한 이 신적 정의의 마지막 실현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안의 과학은 참된 것에 대한 내적 관조다. 참된 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의 도움으로만 우리의 지성을 사로잡는데, 우화에서도 덕성이 형상화되고 극화된 것을 보는 것처럼 이 메커니즘이 그것을 확장하고 치장하고 주조하고, 그것에 몸과 얼굴을 부여하는 것 같다. 나는 심지어 우화에서 변장한 진리와 논리의 옷을 입은 진리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까지 감히 말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시가 詩歌와 과학은 같은 기질을 가지며 종교와 철학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체계들은 모두 비슷한 크기, 색깔, 형상, 재료의 금속 조각들로 수를 놓은 것과 같으며, 예술가의 일체의 환상에 양분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결국 오직 내 약함을 증언해주는 지적 고집을 왜 부릴 것이며, 내 지성의 모호한 기초 위에 흩어진 빛나는 점들을 태양들처럼 키워서 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장점만을 가진 상상력의 열간이로 왜 자진해서 남을 것인가? 내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게는 장난감들의 군집이고, 어린애 같은 행동들의 진지한 조합으로서 내 정신 안에서 지나가고 끊임없이 다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와 자연에 관한 이 위대한 법칙들은 우주를 흔들기 위한 신의 손을 지탱하는 지렛대들인 것으로 내게 보이는데, 이는 내가 유념하지 않는 다른 무한한 사실들처럼 단순한 사실들이고 실재들의 바다 속에서 잃어버린 사실들이며, 원자들보다 내 주의를 더 도덜도 끝만 한 것이 아니다. 그 광채와 신속함이나를 짓누르는 이 현상들의 연속, 차례차례 내뱉을 빼앗고 나를 겁에 질리게 하는 이 인류의 희비극은 오직 홀로 비극을 복잡하게 하고, 시간을 늘릴 능력을 가지는 내 생각의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관찰의 토대 위에 인류가 사회와 자연을 그려보는 수단이 되는 이 경이로운 저작들을 세우는 것이 인간 이성의 본령이라면, 인간 이성은 진리를 창조하지 않고, 존재의 무한한 형태들 안에서 자기 마음에 가장 잘 드는 형태를 선택하기만 한다. 따라서 인간 이성의 작업이 가능하려면, 인간 이성 측에서 비교와 분석의 시작이 있으려면 진리, 온전한 속명 전체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도래한다고, 무언가가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우주에서 처럼 문명에서도 모든 것은 태곳적부터 움직인다. 이처럼 균형 법칙은 이웃하는 두들판의 지주들 사이의 관계가 확립되는 순간부터 발현된다. 제한, 금지 그리고 후한 인간의 환상을 가로질러 우리가 그 법칙을 발견할 줄 몰랐다면 이는 그의 잘못이 아니다.

법을 개정하고 토지 신용을 조직할 책임을 맡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탐험대들이 된다. 오지에서는 대재앙에 대해 미리 우는 예레미야다. 정치 경제학, 금융, 강의와 사법 司法의 거봉들이 공적 호의에 힘입어 과학과 이해 관계의 이름으로 발원하면서 그들의 관념을 국가의 거대 권력자들에게 채택되도록 하고, 입법자에게 강의를 한 후에 민주주의, 귀족정 그리고 왕정을 담은 우리의 낡은 짐꾸러미에 은행주의 bancocratie, 파산의 통치를 더했을 때 누가 감히 불평할 것인가?

신용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위선자이고, 독점과 마찬가지로 약탈자이고, 기계들과 마찬가지로 노무자다. 미묘하고 완만한 감염처럼 그것은 인민 대중에게 예전 재앙들의 더 집중화되고 더 국지화 된 효과를 퍼뜨리고 확장하고 분산시킨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심, 노동, 진보, 연합, 박애 등 어떤가면 쓰고 있든 신용은 도둑이고 살인자이며, 산업적 봉건제의 근원이고 수단이고 목적이다. 히브리 사람들의 입법자가 그의 인민에게 다른 민족들에게는 신용을 주더라도 그들로부터 결코 신용을 받지 말라고 권고했을 때, 이런 조건에서 그들에게 지배와 제국을 약속했을 때 그는 이 모든 깊은 내용들을 헤아린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민족이 너희에게 돈을 꾸겠지만,
너희가 남에게서 돈을 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너희의 다스림을 받겠지만,
너희가 남의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 신명기 15 장 6 절

야훼에게는 흔히 불충성하고 맘몬에게는 언제나 신실한 유대인들이 이 계명은 결코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오늘날 모세의 약속이 성취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신용은 직접적으로 생산자만을 타격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방식으로써 소비자에게 정률세로 부과되는 식으로 작동한다. 이야말로 신용의 작용이 보통 사람에게는 지각 불가능한 것으로 남고 여론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다. 생산이라는 분화된 이익은 여기서 모든 조세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라는 집단적 이익을 이긴다. 힘은 집중됨으로써 증강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 합쳐진 힘이 더 크다 (vis unita major) — 나누어진 힘은 덜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의 마력과 지속은 이 원리 위에서 확립되었다. 모든 사람은 돈을 따면 노름에서 벗어나겠노라고 다짐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익을 공중에게 전가해 신용을 요구하는데의 견합치를 이룬다. 아무도 파괴적 효과를 쫓아 버리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복권에 서운세는 은행가가 언제나 따도록 조합된다는 것, 결국 항상적으로는 행에 결합하고 마는 몇몇 행복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생산물의 부가세가 보편적이고 상호적이라서 각 생산자는 그가 자기 자신의 신용의 무게를, 나쁜 양심의 짐을 혼자서 지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짊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성찰하지 않는다.

물적이야한다는것을가르쳐준다고말했을때, 우리세기의이론가들보다더많은솔직함을보여주었다. 그러나사회에서이자의진행은속명적으로차입자의지불능을가져와서, 물적인것으로시작하는신용이결국완전히인적인것이되는것, 에스파냐에있는성들에기대되는것이불가피하다. 그때부터채무자가다른어떤사람인것보다국가의공직자인것이더 낫다. 도덕적담보의문제에서국가의공직자가가장확실하다. 그리고이채무자가전능하니, 결과적으로다른어떤채무자와는반대로신용을받는대신신용을주는것이그다.

가능하다면, 이사람이당시에아무도그비밀을알지못한이모든모순들의와중에어떤정신적고통에서로잡혀야했는지를상상해보라. 결국에그가미라보가말한것처럼이모든조합들이붕괴에, 무서운파산에도달하는것을보았을때나중에어떤현기증에쓰러져야했는지상상해보라. 우리에게는로라고하는이우수한지능을가진사람, 불가능한건축물인사회의영구운동을신용으로써추구한대담한모험가이자, 경이로운정확성을가지고추론하면서그논리자체로인하여전히모순으로, 무로인도된그가어떤자였는지를이해하는데는역사상유례없는 50 년이상의철학적발전이우리에게필요했다. 이사람이그를이해한다고믿은자들에게경탄을받고, 그를이해하지못한자들에게는욕설을들어야할사람인지판단해보라! 로는물론현자의돌로서왕국에서왕국으로퍼뜨린이무서운이울배반에대한모호한감을지냈다. 왜냐하면우리는그가미시시피에대한그의주식가치에관해환상을품었다고인정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그에게는이론이논박한의심을고려하는것이불가능했다. 그리고사태들에의해압박을받고통속적인일상관행에서결코멀어지지않았다고확신한그는형이상학적경험을위해제국을붕괴시키고나중에모두의저주를깊어지고물러날것을무릅쓰고미지의것에손을덜결심했다. 내가이사람에게서가장경탄하는점, 로를내눈으로볼때정말역사적인물, 이상적인물로만들어주는점은, 그가그러한경험은그것을겪는고통의값어치가있다고믿었고주저하지않았다는점이다. 결국로는결코사회자본을훼손하지않았으며, 이를옮기기만했다. 노동은안녕의맛으로변함이없었다. 인민은그실험을하는데서아무위험도무릅쓰지않았다. 탐욕적이고, 한가하고, 타락한귀족계층에대해본다면, 로의염려를받을만한그런자격이그들에게는없었다. 그런점에서사기꾼들과얼간이들의제거만이있을것이었다.

로의관념들은아무에게도, 심지어저자에게도이해되지못했다. 그리고그후로이에대해말해오고아직도말하는역사가들과똑같이경제학자들도그신비를더잘 꿰뚫은것으로보이지않는다. 그러므로경험이재현될 필요가있다. 그리고그시도가지극히일반적이도록, 어떠한행운도그것을피해가지않도록모든것은오늘날경이로운충체를이루어채비를갖춘다. 치에슈코프스키씨와볼로프스키씨는주된탐험대장들이다. 담보물

사회경제학전체가이와같다. 어디서나종합의관념은그적대적요소들과동시에가능하다. 그리고우리가인류의진보를끊임없는탈바꿈으로상상하는반면, 이진보는실제로는하나의관념의다른관념에대한점진적우세, 마치우리를감추는베일들이알아채지못하게벗겨지는듯이여겨지는우세를점하고점진적으로단계를밟는것에불과하다.

이런고찰들로부터다음과같이결론을내릴필요가있으며, 이는이절의요약이면서더고차적인해결책의고지일것이다.

노동에의한사회의조직공식은이기주의에의해발견되고증오에의해지탱되고, 거짓된철학에의해욕을먹으며민족들간에노동과행복의조건들을균등화하는이균형법칙처럼단순하고그처럼원시적이며그처럼쉽게이해되고적용될수있는것이아야한다는것.

과학의과거와미래를한꺼번에포괄하는이지고의공식은사회적이익들과개인적자유를똑같이만족시켜주고, 경쟁과연대, 노동과독점을, 한마디로모든경제적모순들을조화시켜야한다는것.

이공식은인류의비인격적이성안에존재하며, 오늘날에도그리고여러사회들의시초에서부터인류의이성을구성하는부정적관념들각각처럼움직이고기능을수행한다는것. 문명을살리고, 자유를확정하고, 진보를다스리고, 수많은진자운동과파국들중에우리를확실한노력으로평등과질서를향해옮겨주는것이이공식이라는것.

노동자들과자본가들이잔혹한투쟁에서기진맥진해도소용없다. 파편적분업, 기계, 경쟁그리고독점이프롤레타리아트를괴멸시켜도소용이없다. 여러정부들의악행과조세의허위, 특권층의음모, 신용의기만, 지주들의횡포와공산주의의환상이여러민족들에게예중, 부패그리고절망을배증해도소용없다. 인류의수레는굴러간다. 그속명적길위에서멈추지도후퇴하지도않는다. 그리고여러담합들, 기근, 파산은지구상의합쳐진표면위의알프스와안데스산맥의꼭대기들보다그엄청난수레바퀴로가는길에서덜나타난다. 신은저울을손에들고서평온하고장엄한태도로나아간다. 그리고길의모래는보이지않는미동만을그두고원에새긴다.

제 10 장 제 7 기 — 신용

우리의 동시대인 한 사람에게, 아무도 감히 그의 지성과 성실성을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심지어 그의 모순들에 대해 그를 비난하는 것 — 이는 전혀 대응도 아니었다 —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극히 상반되는 관념들을, 극히 어울리지 않는 경향들을 하나씩 표현하는 일이 주어졌다. 이 사람은 드라마르틴 (de Lamartine) 씨다.

그리스도교인이면서 철학자, 왕당파이면서 민주주의자, 귀족이면서 민중, 보수주의자이면서 혁명가, 예감과 후회의 사도 드라마르틴 씨는 19 세기의 살아있는 표현이고, 모든 극단들 사이에 걸려있는 이 사회의 인격화다. 획득하기 쉬운 것 한 가지가 그에게 걸려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모순들에 대한 의식이다. 그의 별이 모든 적대 관계를 표현하도록, 그리고 그의 문이여 지 없어도 또한 보편적 화해의 사도가 되도록 점지했다면, 드라마르틴 씨는 우선 우리에게 아주 큰 광채를 가지고서 나타난 것인, 거룩한 전통들과 고귀한 기억들의 시인인 채로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르틴 씨는 그가 고발자이면서 동시에 기도가 한이 율배반의 이광대한 체제를 자기 조국에 설명할 책무를 진다. 드라마르틴 씨는 그가 취한 입장 때문에, 내가 말하건대 그의 비밀 관성의 부담 아래서 죽을, 혹은 그의 모든 가설들을 조화시킬 형벌에 처해졌으며, 그는 그가 대표하는 상반된 견해들보다 더 높은데 그 원천이 있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아가야 노래의 신부 新婦』¹ 처럼 그는 자신의 천재성의 성숙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는 자신의 역할의 모든 위대함을 의식하고 그들만이 그 비밀을 보유하고 그의 비켜남에 갈채를 보낼 수 있는 오직 그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웅변가, 정직한 사람, 위대한 시인인 그가 우리 진영으로 오면 좋으련만.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누구 인지를 말해 줄 것이며, 우리는 그에게 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Si ignoras te, egredere, et pasce hoedos tuos juxta tabernacula pastorum!)”

사회주의자들! 미래를 상실한 계몽자들, 암흑의 나라를 탐구하는데 헌신한 개척자들, 그 오해 받은 작작이 아주 드문 동감을 일깨우고 다중에게 불길한 징조 같이 보이는 우리.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신심들, 법칙들, 신들

해제와 단일 창고에 들어있는 그것들의 풍부함에 힘입어 빈곤의 체제를 폭로하고 우리에게 우리 사회 질서의 수학적 불가능성을 입증할 준비를 한다.

정치 경제학은 가치들의 형성의 방향으로 사회의 움직임의 인도하면서 사회에 관해 연구 운동의 문제, 기계공들과 경제학자들이 한 마음으로 해결의 조건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선언하는 문제를 풀기를 갈망한다. 운동은 영구적일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에서 그렇다. 이는 자생적이라는 것, 그 기계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 힘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주에는 운동의 영구성이 있다. 거기서 운동은 물질 내적 인 힘, 인력引力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명은 동물 안에서 영구적이다. 유기체에 내적이고 유기체를 창조하고 일정한 정도로 요소들을 지배하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으로써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것 조차 중대시키는 것이 생명의 본성인 것처럼, 생명이 분자적인 력에 짓눌리고, 자생성이 다른 자생성에 짓눌릴 때가 온다. 그러나 생명은 인력과 똑같이 영구적이다.

그러한 것이 또한 사회에 활기를 주고 사회를 발달시키는 힘, 자생적이고 불멸인 힘, 말하자면 우리의 모순들은 그 흔들림 일뿐인 힘이다. 신용의 가설에서 사람은 특권에서, 오직 특권에서만, 그리고 언제나 특권에서, 즉 소외에서 생산력, 노동에 내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사회의 내장 안에서 거주하는 힘이 나오게 한다. 신용이 그것의 모든 조합들을 가지고서 숙명적으로 부동성과 죽음에 도달하는 것이 놀라운가? 신용에 의거 노동에 자금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권, 그 특권은 노동자가 생산을 하면서 특권의 이익이 되도록 명하지는 않으면서 빼앗기는 시간만큼만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복리이론에 따라 노동에 대출된 자본은 14 년마다 두 번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신용의 완전한 조직에서 노동은 14 년마다 그 가운데서 킨 자본을 상실한다는 결과가 된다. 그 결과는 자본에 대해서 균형이 파산으로밖에 확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 발전의 법칙은 신용의 법칙과 전혀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진행하게 만드는 원리와 합치하려면 소유하는 자들의 소유를 박탈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앞선 모순들이 풀리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상상 가능한 모든 공식들으로써 신용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에 기대야 한다는 것, 신용은 가설이 아니라 담보를 요한다는 것을 말하고 반복할 지어다. 이 모든 이론은 특권의 일상 관행에 자리를 차지하는 누구에게나 난공불락의 이론이지만, 결국에는 자본들을 사회에서 총체로 고려할 때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담보를 가지지 않으며, 서로 간에 신용을 줄 경우에는 자신들의 실물 말고 다른 담보를 가지지 않으며, 서로 간에 신용을 줄 경우에는 자신들의 실물 말고 다른 실물에 기댈 수 없으니 이 이론은 근본적으로 무능하고 허위를 확신하는 입장이 된다. 로 (Law) 가 신용의 의미 모든 몽환을 일거에 뛰어넘어 신화 위에 그 기초를 두게 하려고 (물론 원가를 통해 상상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했을 때, 그리고 이론은 참으로 신용이

¹ 아우구스탱 나달 (Augustin nadal) 의 1738 년 작품·역자주

을지라도자본자체는이득을보면서무한정으로재생산할순간부터언제나노동이생산자에게남기는초과분을초과하므로, 한민족안에서노동이말하자면계속해서자본의이익에종속될필연성, 계속해서또한파산과빈곤이균형을재확립할필연성이있다.

프라이스박사와그의제자피트 (Pitt) 는복리를기초로계산하던때에그들이신용의모순을수학적으로입증해온것을알아채지못했다. 형태들의다양성, 조합들의미묘함, 운송의용이성, 상황에부여된관대함, 이모두는아무소용이없다. 균형은신용을자기자신에게되돌아오게하는조건에서만, 즉자본가와노동자를같은정도로채권자들과채무자들로만든다는조건에서만존재할수있다. 이는독점체제에서는불가능한일이다.

그러니돈이라는낱은우상이은퇴하게될이보편적인자본의담보해제, 이정기수령금수령권의지배가가장속히올지어다. 그리고우리는시인들이신의연인이자자연의여왕으로묘사하는인류가유녀遊女처럼눈에볼을켜고목을헐떡이며노름탁자앞에앉아노름을위해생산하고, 여전히노름을위해구매, 판매, 투기하는것을보게될것이다. 그때노동수단들은노름에거는판돈이면서동시에노름의도구들이되어있을것이다. 시장들은증권시장으로전환될것이고, 도로들은위험한장소로전환될것이다. 항해는해적질일것이다. 모든예술과모든과학은가짜열쇠, 도둑질을위해장만하는끌, 집게, 톱의제조공장같은것이다. 그리고섬뜩한자살사건들, 잔혹한복수극, 해체, 약탈, 부정부상태가있을것이다. 그런다음에는피로에지쳤지만만족하지않은사회는지옥같은원무圓舞를다시시작할것이다.

오지에씨는이무서운미래의모습에관해이렇게소리친다. “관습이후안무치함을끌고와서인간가족의군집이공평을비웃는법의지배를받고모든시대에정직한사람들이정착시키고자추구한정의에맞서위선적으로결탁한도둑들이나체계적인파산자들의본거지가될지두려워해야할것아닌가? 끝으로, 과거에도유례없는도덕관념이아메리카의여러주들에서 48 시간동안본것, 한꺼번에 100 개은행의도산, 정부의도산, 그리고이어서그광경에는없던것, 하루안에모든시민의도산을영구적으로재현하고실현하게될것을두려워해야할것아닌가? 도형徒刑을위한꿈같은요정이야깃거리, 새로운장르의농지법종류다!”

어떻게이를더의심하는가? 독점체제에서신용의조직은사회의미래를운에맡기는것이다. 이는민족들의돈을몽땅거는것으로서끊임없이없고끊임없이파산에서로잡히게되는것이다. 사회안에서총생산과순생산의차이가빈곤의유일한진정한원인으로서과학의요란함과장식의변화때문에은폐되어감지되지않은채로지나가는반면, 산업혁명의진보, 경쟁의투쟁들, 거대회사들의형성, 의회의선동, 교육, 조세, 식민지개척, 대외정책의문제들이공공의관심을흡수하고그거대한이익으로부터관심을흩어놓는반면, 신용은가치물들의일반화에힘입어, 그것들의담보

을다시건네주지만우리자신은우리의과업이완수되는동안신앙도, 희망도, 사랑도보전하는일이없는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여, 우리의가장큰적은유토피이다! 경험의햇불을들고결연한발걸음으로행진하면서우리는우리의지시, 전진만을알아야한다. 우리가운데얼마나많은이가사라졌는데, 아무도이들의운명에눈물흘리지않았다! 우리가길을터주는세대들은흔적만남은우리의무덤위를즐겁게지나간다. 현재는우리를파문하고, 미래는우리에대한기억을지니지않으며, 우리의존재는이중허무속에잠긴다.

그러나우리의노력은상실되지않을것이다. 과학은우리의영웅적회의주의의과실을딸것이며, 후세는우리가있었다는것도모른채우리의희생으로우리를위해만들어지지않은행복을누릴것이다. 전진! 이것이바로우리의신이고, 우리의신념이고, 우리의열광이다. 우리는한사람씩쓰러질것이다. 마지막사람까지새로운자의삽이노병의시체를흙으로덮을것이다. 우리의종말은짐승들의종말과같은것이다. 우리는순교에도불구하고사제가장송곡, <하느님이성자들의뼈를지키신다!> 를부르러갈사람들중에결코들지않는다. 우리를따르는인류와분리되어우리자신이인류전체가되자. 우리의힘의원리는이지고의이기주의에있다. 학자들이우리를멸시할테면하라고해라. 그들의관념은그들의용기수준이다. 그리고우리는그들의책을읽어서그들의평가가없어도괜찮은범을배웠다. 그러나어떠한모순에도놀라지않는시인에게, 노래하는자, 늙은음유시인, 문명으로부터배척당한자들에게, 그리고어느날그들의추억에관해명상하러올자에게평안이있기를! 시인이여, 벌써망각이둘러싸는자들, 그러나지옥도죽음도두려워하지않는자들이당신에게인사한다! 귀를기울이라.

날이새기두시간전이었다. 밤은추웠다. 바람이히스가무성한땅을가로질러휘파람소리를냈다. 우리는산마루의말안장처럼들어간부분을벗어나침묵가운데식생과생물이눈에띄지않게숨을내쉬는황량한곳들을가로질러갔다. 갑자기우리는자기생각을회상시키는사람의목소리처럼그늘진목소리를들었다.

노동분업은노동자들의저열화를일으켰다. 이것이내가기계와작업장안의노동을요약한이유다.

기계는노예들, 그리고임금수령자들의작업장만을낳았다. 이것이내가경쟁을일으킨이유다.

경쟁은독점을낳았다. 이는내가국가를형성하고자본에압류를가한이유다.

국가는프롤레타리아에게새로운노예제가되었다. 그래서나는이렇게말했다. 한민족에게서다른민족에게로노동자들은서로손을내민다.

그리고모든부분으로부터피착취자들에게맞서담합하는것이착취자들인것은다음과같다. 토지는곧노예들의병사兵舍에불과할것이다. 나는

노동이 자본에 의해 출자되고, 각 노동자는 기업가가 되고 특권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새로운 모순을 의미할 수 있었던 것을 염려해 우리는 이 말들에서 멈추었다. 낮은 목소리가 우리의 흉곽에서 다시 울렸다. 그렇지만 우리의 귀는 마치 어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발한 것 같이 들렸다. 우리의 눈은 맹수의 눈처럼 밤중에 번뜩이는 특성을 내보이며 우리의 모든 감각은 열정과 알려지지 않은 에민함으로 활기를 띠었다. 가벼운 떨림, 이는 놀람에서도 두려움에서도 온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사지를 타고 흘렀다. 어떤 액체가 우리를 감싼 것 같이, 생명의 원소가 각자에서부터 다른 이들을 향해 비추어져서 우리의 존재를 공동의 끈으로 엮어매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이 서로 간에, 혼동 없이 하나의 거대한 영혼, 조화롭고 동감하는 영혼을 이룬 듯이 여겨졌다. 저위의 번개처럼 하나의 우월한 이성이 우리의 지성을 비추었다. 우리 생각들의 의식에는 우리 안에서 타인들의 생각에 대한 통찰이 결합되었다. 그리고 이 긴밀한 교류로부터 우리가 가슴속에는 의견 일치의 즐거운 감정이 태어났으며, 그렇다고는 해도 이 감정은 그 표현과 동기에 서다 채로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결합되고 더 분리 불가능하며 그렇기는 하지만 더 자유롭다고 느꼈다. 순수하지 않은 어떤 사상도, 충직하고 관대하지 않은 어떤 감정도 우리 안에 일깨워지지 않았다. 한 순간의 이 황홀경속, 여러 성격들을 지워 버림 없이 이들을 사랑으로써 이상理想에까지 고양시킨 절대적 일치 안에, 우리는 사회가 그럴 수 있는 것, 사회가 그래야 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불멸의 삶인 신비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매일, 말도 필요 없고 어떤 신호도 보낼 필요 없이, 내면에서 명령에도 복종에도 닮은 어떤 것도 겪지 않고 우리는 마치 우리 모두가 공동의 원소들이면서 기관들인 듯이 경이로운 총체를 이루어 일했다. 그리고 저 녀석처럼 우리가 점점 우리의 거친 인성으로, 이어듬의 생활로 옮겨져서 그 안에서 모든 사상이 노력이고, 모든 자유가 분리이고, 모든 사랑이 관능주의이고, 모든 사회가 무제한 접촉인 그런 때가 되자 우리는 생명과 지성이 우월한 유출에 의해 우리의 품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믿었다.

인간의 삶은 모순으로 짠 천이다. 이 모순들 각각은 그 자체가 사회적 체제의 기념물이고 공공질서와 가족들의 행복의 요소다. 이 기념물, 요소는 극단적인 것들의 이신비적 연합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 발현의 총체에서, 그리고 그의 이율배반들의 완전한 비움 후에 고려될 때 여전히 하나의 이율배반을 제시하는데, 이는 지상의 아무 것에도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아서 이승에서 해결책 없이 남는 것이다. 이는 사회안의 질서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결코 쓰라림과 권태를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할 이유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우리가 언제나 추구할 형벌에 처해진, 그러나 자연과 정신의 벗어날 수 없는 적대가 우리의 입자 바깥에 두는 이상이다.

넘을 수 없는 것은, 그 너머로 노동자와 자본가가 평등해지고 비슷해지는 이 간격이다.

이자, 대금업, 고위성직 취득권, 십일조 혹은 내가에 전에 그렇게 불렀던 이 협재권은 자본의 필수적 특성, 그것의 특권의 표현, 따라서 신용의 필수불가결 조건이다. 이 이자는 토지 및 동산 자본들의 담보해제에 의해, 그리고 정기 수령금 수령권의 창조에 의해 중단되는가? 그러기는 커녕 더 큰 규모에서 더 큰 일반성, 규칙성, 확고함을 가지고 작용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구성에서 아직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 구성의 기초인 적대는 활동과 에너지의 가중만이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이자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는 사회 안에서 순생산이 총생산을 넘어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 허구적 자본, 명목적 부, 수입이 선행하지 않는 지출, 있을 수 없는 자산을 끊임 없이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불가능을 가정하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산하는 자들과 허구에 따라서 신용을 받는 자들의 손에서, 생산하지 않고 같은 허구에 따라서 신용을 주는 자들의 손으로 끊임 없이 부를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세 번, 네 번 모순된 것이다.

그러므로 금속 가치물, 유일하게 구성된 가치물이고, 모든 교환에서 수용 가능한 가치물인 금속 가치물을 가용한 것으로 처분하는 자본가는 내가 말하건대 노동자를 돌고, 상업과 생산을 촉진하고 공적 재산에 그가 할 만큼 기여하기를 원해서 그의 고객들의 재산권을 담보로 잡고, 그들에게 돈이 든 자신에 대한 환어음 이든 교부한다. 이는 그의 이득을 두 배로 높여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자를 통해서 하는데, 이는 끊임 없이 대출된 것과 동일한 한 척 도 재물은 행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자 지불의 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대금업에 의해 되돌아오는 대출된 금액이 계속해서 다시 대출되는 것처럼, 토지, 가옥, 그리고 모든 민족적 동산은 은행가들의 이익을 위해 담보로 잡히고 저당 잡히는 일이 곧 일어난다. 이양도 운동은 아주 속도가 빨라져서 이를 천체 운동에 만 비교할 수 있다. 프라이스(Price) 박사는 기원원년부터 1772년까지 복리로 투자된 10% 부가세는 지구 크기의 별 1억 5000 만 개가 보유할 수 있을 만큼보다 많은 금을 산출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돈은 언제나 대출되자마자 재포착되고 따라서 언제나 더욱 간곡하게 요청되는 것인데 부족해지는가? 은행가는 자신의 신용표인 지폐를 발행하는 데 이는 작은 사고들 과 어떤 계산 착오들에도 불구하고 척도 재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지체 없이 돌아오며, 언제나 증가된 수요를 가지고서 돌아온다.

담보로 지원을 받는 은행 지폐는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정기 수령금 수령권을 창조한다. 자본에서 남는 것 전부를 유통에 넣는다. 부채 상각의 새로운 조합들을 발명한다. 대출의 가격, 계약 비용을 낮춘다. 기한을 연장한다. ... 그러나 결국 자본이 무료로 대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본이 교부된 대로 돌아올 수는 없으므로, 끝으로 자본의 이자는 아무리 작

그러므로 신용은 모든 사회적 가치들의 비례성을 확정하면서 그 가치들을 그 자연적이고 정당한 율로 형성한다는 정치경제학의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내게 여겨진다. 정반대로 신용은 동산과 부동산의 가치물들을 담보해제하면서 척도재에 대한 그것들의 종속성을 선언하기만 한다. 그것은 거침없는 유통을 창출하는 대신 척도재의 왕권과 다른 재화들의 종속성을 확인하며 모든 가치물들에 대해 그것들을 유통가능하게 만들 목적으로 그것들에게 겪게 하는 공제로써 통행료를 책정한다. 한마디로 신용은 그것을 둘러싼 여러 모호한 것들의 문제를 치우기만 하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게다가 가치에 슈코프스키 씨가 실도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신용과 유통의 개발이 용, 이는 민족의 가장 광범화되고 가장 일반화된 가치물들의 개발이 용이다. 이는 말하자면 산업이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총가치와 직접적 가치에 대해서 가 아니라 모든 가치의 일반적으로 체에 대해서, 모든 실제적부의 승화된 산물에 대해서 작동하는 산업이다. 그 산물의 추출 후에 그 정화의 잔여물이 찌꺼기 이상으로 내놓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이 바로 신용의 조작이다. 그것은 광석 안의 금부스러기처럼 불완전하게 교환 가능한 가치물들 (노동수단들과 산물들)을 단일한 전형 (돈)에 가져가서 부를 일반화하고 정화하는 것으로 (6의 값이나 가는 것을 4로 평가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중앙기관에, 신비가 완수되는 돈의 궁전에 이 모든 일반화되고 정화된 가치물을 수렴시킨다.

마지막으로 그 조작을 모든 면에서 고찰하면서 검토해보자.

우선 신용은 그 자체가 담보로 잡힌 자본들처럼 다양한 형태를 화폐에 주면서 금속 가치물에 어떠한 감가도 가지 않는다. 금과는 은 그 가격과 잠재성을 보존한다. 신용 증서는 아무리 그것들과 동등해도,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자를 낳으니 그보다 더 우월해도 그것들의 소유권을 빼앗지 않는다. 정반대로 담보로 잡힌 자본을 그것들처럼 유통가능하게 만들어서 서로 간의 비율을 표시하기만 한다. 증대된 것은 금속의 양을 두 배로 하거나 값자기 10억 프랑의 국정지폐를 발생할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화폐 상품이 아니다. 운동에 놓이는 것은 사회적 부의 무한한 다양성과 그것의 무수한 형태와 함께 사회적 부 자체다. 이는 정치경제학의 궁극적 목표인 가치의 이질대적 형성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 결국 거대한 발걸음이다. 실제로 이 형성을 확정적으로 만들려면 신용에서 위계를 평등으로 대체하고, 모든 가치물들을 유통가능한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공제화할 인의 이득속에서만 아니라 액면가대로 말이다. 이것이 화폐의 본질적 특성이다.

그런데 신용이 신용이기를 중단하지 않고, 즉 상호성, 연대 그리고 연합으로 탈바꿈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자의 예속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는 뛰어

저편의 세계에 인간의 삶의 계속성이 있는지, 혹은 지고의 방정식이 무뎠로의 회귀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실현되는지, 이는 내가 모르는 것이다. 오늘날 아무것도 내게 이것도 저것도 단언하도록 허락해주지 않는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도달하도록 주어진 것보다 더 멀리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공식, 인류의 모든 앞선 입장들을 포괄해야 할 공식은 여전히 새롭고 형언할 수 없는 조화의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이다.

신용의 예는 우리가 우리 운명의 문제는 끝없는 이 재현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밑바닥에 들어가기 전, 신용에 관해 일반적으로 유포된 편견들에 관해 몇 마디를 하고 신용의 목적과 기원을 잘 이해하기를 시도해보자.

I. 신용 개념의 원천과 계통 — 이 관념에 관한 모순적 편견들

신용의 출발점은 화폐다.

제 2장에서 행복한 상황들의 총체에 의해 어떻게 금과는 의 가치 가치치음으로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화폐는 모호하고 진자 운동을 하는 모든 가치들, 즉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확립된 것도 아닌 가치들의 전형이 된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 기회에 모든 산물들의 가치가 일단 정해지고, 고도로 교환 가능하고 수용 가능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모든 지불시에 화폐처럼 되면서 사회가 어떻게 사실상 상공업적 관점에서 이를 수 있는 경제 발전의 가장 높은 정도에 이르는지가 입증되었다. 사회경제학은 이때 더 이상 오늘처럼 교환과 관련해서 단순한 형성의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완성의 상태에 있을 것이다. 생산은 확정적으로 조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교환과 유통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꾼은 부를 정복해 차지하고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는데 때로는 원가를 줄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노동을 분업화하고, 더 나은 절차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소비품목을 발명하고, 그 적수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공격을 버텨내고 하면서 생산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바로 그장에서 우리는 화폐와 관련한 사회주의의 물이해를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발명품을 그 원리로 소급하면서 우리가 귀 금속들 중에 억눌러야 했던 것은 관습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모든 가능한 사회에서, 심지어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그의 권리를 유린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재분배를 불공정하게 하지 않으려면 교환의 척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치들이 일반적으로 임의의 연합 방식에 의해 형성되기까지, 물론 모든 산물들 가운데 그 가치 가장 공신

력있고 가장 잘 규정되고 가장 덜 변질되는 것으로 여겨질, 그리고 이런 장점에 보 존과 운반이 크게 용이하다는 장점을 결합할 때 산물이 전형적으로, 즉 다른 모든 가치물의 유통수단이 자본보기로 취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말로 특권을 지닌 산물이 모든 야심가들의 목표물, 노동자의 시각에서의 낙원, 독점의 수호신이 되는 것, 모든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부적이 질투심 많은 권력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손에서 손으로 유통되는 것, 귀금속들의 대부분이 척도재로 사용되어 이렇게 해서 그 진정한 용도에서 벗어나 화폐의 형태에서 잠자는 자본, 소비바깥의 부가 되는 것, 이런 교환수단의 자격에서 금이 이번에는 투기물로 취해지고, 엄청난 상업에 기초로 사용되는 것, 끝으로 여론의 보호를 받고, 공중의 호의에 감싸여 권력을 정복하고, 동시에 공동체를 끝장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무서운 잠재능력을 파괴할 수단은 그러므로 그 기관을, 내가 거의 그 보관인이라고 한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원리를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 모든 명제는 기하학의 정리들처럼 이제부터는 잘 입증되고, 엄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금과 은, 즉 가치로 형성된 첫 상품인 이것들은 그러므로 다른 가치들의 척도이며, 보편적 교환수단으로 취해져서 모든 상업, 모든 소비, 모든 생산이 이에 의존한다. 금과 은은 사회성과 정의의 성격들이 가장 높은 정도로 획득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권력, 왕권, 그리고 거의 신성과 동의어가 되었다. 금과 은은 상업적 생명, 지성, 덕성을 대표한다. 동전으로 가득 찬 상자는 성스러운 방주, 마술 항아리로서 거기서 퍼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건강, 부, 즐거움 그리고 영광을 준다. 노동의 모든 산물이 화폐와 같은 교환 가능한 가치를 가졌다면 모든 노동자는 화폐 보유자들과 같은 장점들을 누릴 것이다. 각자는 생산 능력 안에 고갈되지 않는 부의 원천을 보유할 것이다. 그러나 돈의 종교는 폐지될 수 없다. 아니, 더 제대로 말하면 가치들의 일반적 형성은 이성 과 인간적 정의의 노력으로써만 가능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돈의 보유는 부의 보장된 신호이며, 돈의 결여는 빈곤의 거의 확실한 신호이다. 그러므로 돈이 사회의 인 지 印 紙 를 붙인 유일한 가치물이고, 상업에서 시세를 가지는 유일한 화폐 주조용 금속 상품이므로 돈은 일반적이 성으로 서 인류의 우상이다. 상상력은 금속에 의해 발현된 집단적 사유 思 惟 의 효과를 소급해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그 진정한 원천에서 찾는 대신에, 즉 모든 가치물의 사회화에서, 새로운 화폐적 형상들의 끊임 없는 창출에서 찾는 대신에, 돈, 돈을, 언제나 돈을 획득하는데 오로지 몰두했다.

목표를 직접 겨냥하는 대신, 계열의 첫 번째 항에도 달한 것, 각 산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대신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제조 방식의 완성을 통해, 그 다음으로는 그 발행의 용이성을 이용해, 그리고 끝으로 허구들을 이용해 금속 화폐를 배증하는데만 신경을 쓴 것은 근본적으로 생존수단의 수요, 교환과 판로의 수요 말고 다른 것이 아닌 척도재의 이보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백히 이는 부의 원리에 관해, 화폐의 성격

에 메두사의 머리를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강한 사람만 그것을 따낼 수 있다. 신용은 가난한 자들, 일용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신용은 그들에게는 신화다. 왜냐하면 신용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에 만기될 수 있고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은 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이며 인적이 아니다. 이 규준이 뒤집히고 반대로 취해질 수 있으면 자본에 대한 노동의 반발에 의해 전 유된 모든 부가 집단적 부로 주장되고 사회에서 나간 자본들이 사회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이 율 배 반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 신용은 진보의 부차적 기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 연합에서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신용이 거짓말을 하니 이는 신용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관념의 관계는 비생산성과 빈곤의 관계처럼 필연적이다. 실제로 신용은 돈의 왕권 과 자본의 생산성 — 신용이라는 명칭으로 노동자의 예속화를 완성하기 위해 래 화합 하고 단합해 가는 두 허구 — 에 관한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이다.

원리로 돌아가 길게 을 리 하지 말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지배권과 종속이 있는 것처럼, 다른 말로 자본 이 사회 안에 불가피한 봉건제를 시작하는 것처럼, 돈과 다른 상품들 사이에는 역시 지배권과 하급지위가 있다. 물건들의 위계는 인간들의 위계를 재생 산한다. 리카도의 체계 혹은 치에슈코프스키의 체계에 따라 모든 교환이 은 행권 혹은 담보해제가 가능한 자본의 소유권을 매개로 행해질 때 에라도 금 속 화폐는 여전히 깊은 한가함과 광의 무사태평 중에 신용을 지배하는 숨겨진 신일 것이다. 유통하는 가치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 장 되는 것 은 그것의 형상을 따라서 이니 말이다. 화폐는 언제나 그것들에 척도로 사용 되니 말이다. 그 값 인 이 말하자면 어음 위에 찍힐 것이니 말이다. 어음은 사 람들이 언제나 그리고 자발적으로 돈으로 상환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라 는 이유에서 만 여론에 대해 신인도를 취득하고 상거래에서 신용을 취득할 것이니 말이다. 끝으로 허구의 이 일반성에도 불구하고 가치물들의 실제적 구성은 예전보다 더 앞선 것이 아닐 것이니 말이다.

실제로 국가의 재산에 대해, 그리고 나라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담보설 정된 수십억 프랑의 정기 수령금 수령권을 발매하는 이 중앙은행에 의 해 무 엇이 얻어질 것인가? 엄청난 토지 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 돈으로 평가 된 토지 자본과 노동수단이 유통화되고 전달 가능해지고 한마디로 유통에 던져 놓아 지면서 도 급화한 낯도 격식도 필요 없을 것이다. 오늘날 프랑스에 서 이야기 되는 유통의 규모인 40 억 프랑 대신에 이 유통은 급속히 200 억 이나 300 억 프랑에도 달할 것이다. 그리고 원리들의 명례를 위해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은, 담보물의 다양함으로 이 엄청난 유통의 재료는 감가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상품을 금과 같은 명목으로 지불 시에 반 아 들 여 지는 것으로 만들 가치 구성의 허깨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화폐 화 된 자본들이 상거래에 들어가려면 그 명목 가치의 사전적인, 보장된 감가 를 겪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은 이 구성의 실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며, 거기서부터은몸으로국가의가장저명한작업들로 옮겨간다. 우리의 자유주의사회에서수많은은부신예들을우리가발견하는것처럼말이다. 여러분, 15년전부터두명의상인, 상업의길을따라서상승한두사람이국가의존엄한자리들중최고의자리에, 각료협의회의장의자리에오른것을 여러분은보았다!”(슈발리에, <정치경제학강의>, 1845년개회연설)

이제철학자이면서엄격한경제학자인이의말에귀를 기울이고, 강의를잘음미해보자.

“신용은결코미래에대한예상, 자본을창출하는모양을떠면서유기만하는이재학理財學의기만아니다. 신용은안정적이고저당잡힌자본을유동자본이나저당을벗어난자본으로탈바꿈시키는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이기대되는것에기대는것이아니라실물에기대는것이필요하다. 그것은가설이아니라담보를요구한다. … Ex nihilo nihil fit, 무에서는아무것도없다. 그러므로당신이창조하기를원하면, 당신의재료를내놓아보라, 그리고창조의수단으로서창조되어야할것을내놓지말라. 왜냐하면, 이는악순환일뿐이기때문이다. … 신용을침식하는내밀한악, 이는수단대신목표물을할인한다는것이다.”(치에슈코프스키, 『신용과유통에관해』)

표현으로는경탄할만하지만, 논리로는절망적이다! 이와같이신용은선하고건전한경제에서는결코누구에게도주어지지않고담보에만주어진다. 신용은저당잡힌자본을유동자본으로탈바꿈하는것이라고아주올강하게정의되지만입의의자본을돈으로교환하되취소할수있는교환을하는것, 환매권부매각을하는것이다. 그러므로명칭의어원에도불구하고신용은불신이다. 아무것도보유하지않는사람은결코신용을취득하지못할것이니말이다. 정반대로살기위해쓰이도록강요를받아자신의노동을 8 일, 15 일, 혹은 30 일동안의신용으로영원히기업가에게제공할것은그사람이다!

그리고사람들은신용이마치담보가가능한자본을소유하는자들에게만접근가능한상품의유통말고다른것이아니라는듯이우리에게신용을조직하라고말한다! 그러므로신용의담보를조직하라고말하라. 왜냐하면없는것은그것이기때문이다. 신용의담보, 알겠는가? 즉도지, 산업및노동의소유다. 신용은실물에는결코결여되지않을것이다. 물물에대한신뢰는한정이없다. 사람에대한신뢰, 인간들에대한신용은어디서나결여된다. 그러므로다시한번말하노니창조해야할것은특히신용의담보, 개인들에대한신뢰의동기들이다. 노동을개화하기전에노동에신용을주라고말하는것은객차의그림자안에승객들의그림자를운송하기위해철도의그림자를건설하는것이다.

이와같이그본질적조건에따라신용은노동자에게접근불가능하며마치그것이존재하지않는듯이그의운명에직접적영향을미치지않는다. 그것은항상깨어있는용이지키는헤르페리데스의황금사과로, 자신의방패

에관해, 노동의목표와교환의조건에관해오해하는것이였다. 사회에서벌써변질하기시작한왕정체제를그가치물들에서재형성해서문명에서퇴보하는것이였다. 그러나그러한것이신용기관들을낳은모관념이다. 그리고그러한것이우리가이모든기관들을, 심지어구상에서부터적대성을띠게만드는그오류를더이상입증할필요가없는근본적전견이다.

그러나우리가몇번이를말할기회를가졌듯이, 인류는불완전한관념에복종하는때에도그시각에서틀리지않는다. 그런대놀랍게도인류는후퇴를통해부의조직으로진행해가면서그진화적존재의조건에관해서인류에게행하도록주어진것만큼잘, 그만큼유용하게, 그만큼틀림없이작업해온것을보게될것이다. 퇴행적신용조직은예전의모든경제적발현물들과같이산업에새로운도약을하게해준과동시에정말로빈곤의심각화를확정해주었다. 그러나결국사회문제는새로운날에생성되었고, 오늘날더잘알려진이올배반은다음번의운전한해결에대한희망을남긴다.

이처럼신용의최종목표, 그러나현재까지감지되지않은목표는돈의도움으로, 그리고돈의원형에따라아직진자운동을하는모든가치물을형성하는것이다. 그것의직접적이고공언된목표는사회내질서의, 그리고노동자들중에서의행복의최고조건인이체제를급속가치의더넓은확산으로보충하는것이다. 이새로운관념의축진자들은서로이렇게말했다. 돈이곧부라고. 그러므로우리가모든사람들에게돈을, 많은돈을마련해줄수있다면모든사람은부자가될것이다. 그리고땅의모든표면에서신용기관들이발달한것은이삼단논법에따른것이다.

그런데, 신용의궁극적목표가논리적이고자명한, 그리고결실이많은관념을제시하고한마디로진보적조직법칙에순응하는만큼, 유일하게구해지고유일하게원해지는그직접적목적은환상으로가득하고그것이가진현상태에대한지향때문에위험으로가득하다는것이명확하다. 왜냐하면돈은다른상품들과마찬가지로비례성의법칙에종속되어, 돈의양이증가하는동시에다른산물들이비례적으로증가하지않는다면돈은그가치를상실할것이고, 결국사회적부애아무것도더해지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반대로척도재와함께생산이어디서나증가하고인구가같은보조를따른다면생산자들각자의상황에는아직아무것도달라지지않는다. 그리고두경우에요구되는해결책은한음절도전진하지않는다. 그러므로선형적으로신용의조직이그것이제안된조건들에서사회적문제의해결책을포함한다는것은참이아니다.

신용의계통과존재이유를이야기한후에우리는그출현에관해서, 즉과학의범주들안에서신용에할당되어야할서열에관해서해명해야한다. 우리가정치경제학이별로깊이가없고앞뒤가맞지않는다는점을특히여기서지적해야한다.

신용은판로이론의결과인동시에모순이다. 그최종결론은우리가보았듯이상업의절대적자유다.

나는 우선 신용이 판로 이론의 결과이며, 그런 것으로서 이미 모순적임을 말한다.

사회의 환상적인 동시에 실질적인 역사에 관해 도달한 지점에서 우리는 모든 조직 절차들과 균형 수단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끊임없이 예전보다 더 긴급하고 더 살인적인 것으로서 가치의 이윤 배반을 재현하는 것을 보아 왔다. 그 진화의 제 6 기에도 달해서 사회적 화신은 자신을 밀어붙이는 확장 운동에 복종해 대외 무역에서 판로, 즉 자신에게 결합된 평형 추를 구한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 화신이 그기대에서 환멸을 겪고 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이 평형 추, 이 판로, 이 교환의 보장을 내부의 국내 상업에서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사회는 신용에 의해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세계에 틀어박힌다. 사회는 생산과 소비가 자신에게 적합하고 동일한 것들이어서, 무한정의 분출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그 균형을 발견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노동을 위해 신용 기관들을 요구한다. 이는 블랑키씨, 볼로프스키씨, 슈발리에씨 등 경제적 가르침의 수장들의 인기 있는 논제다. 이는 드라마르틴씨, 수많은 보수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 사회주의를 배척하고 그와 함께 노동의 조직이라는 괴물을 배척하면서도 진보를 표방하는 거의 모든 이들의 견해다. 신용! 신용! 광대한 사상을 지닌 개혁자들, 긴 안목을 지닌 이들이 외친다. 신용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라고. 노동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인구와 마찬가지로. 노동도 인구도 충분히 조직화된다. 생산은 그것이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 소란에 어리둥절해져서 그 느리고 바보 같은 몸짓으로 저당법 개혁을 위해 정부 위원회를 임명하면서 여태껏 있었던 가장 무서운 신용 기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무로 삼았다.

그러므로 언제나 동일한 후렴구다. 돈! 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돈이 없으면 노동자는 절망에 빠진다. 빵이 없는 일곱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노동이 조직되면, 그것은 어떻게 신용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신용의 찬양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조직에 없는 것이 신용 자체라면 어떻게 노동의 조직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질투심 있는 독점, 비연대적 생산, 그리고 요행에 좌우되는 상업의 체제에서 소비자에게 한 산물에서 다른 산물로 가는 데운 반수단으로 소용되는 것이 돈, 오직 돈인 것처럼, 신용은 돈의 이속성을 크게 적용해 생산자에게 그가 산물들을 팔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산물들을 실현하는데 소용된다. 돈은 판로, 부, 행복의 실제적 실현이다. 그것의 신용은 예상된 신용이다. 그러나 이 경우와 저 경우에 우두머리가 언제나 판로이든, 생산에서 소비로 가기를 원할 경우에 우선 지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판로이든, 신용의 조직은 국내에서 판로의 조직과 대등하며, 결과적으로 경제

인들이여! 당신들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의 공장, 도구, 집, 고객, 재능, 성실성이 금이 들어있는 광석임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래를 씻고 그것이 숨기는 귀금속을 빼낼 것입니다. 그리고 채취가 행해졌을 때 우리는 약간의 할인을 거쳐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줄 겁니다. 가부장들이여! 당신은 당신이 죽고 난 다음 당신 딸들에게 줄지 참금, 부인에게 줄지 기수령금, 어린 자녀들에게 줄 유산을 보장받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당신들에게, 당신이 등록한 날로부터 우리가 당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당신의 나이에 비례한 이자만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노동할 것이고, 걱정 없이 살 겁니다. 그리고 금이 넘쳐날 겁니다. 당신은 부자일 것이고, 부자이면서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노동, 판로, 정기 수입, 세비, 상속 재산, 이윤을 어디서나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 발판을 뒤엎고, 신용의 신화를 무로 돌린다.

신용은 본질상, 지향 상복권처럼 언제나 주는 것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며, 그러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용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대중에 대한 약탈이었다. 그리고 은폐 수단이었든, 자본에 의한 노동의 일방적 약탈이었다.

그리고 우선 신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될 때는 거짓말을 한다. 한편으로 손님 끌기를 잘하고, 수다스러운 경제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직한 사람이고, 명예감에 취해 있고, 자기 말에 진실하고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만이 신용을 누리기를 갈망할 수 있다. 신용과 신뢰는 동의어다. 그런데 성실성이 존경받는 곳, 그리고 검증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신뢰가 존속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풍부한 재원을 갖추고 훌륭한 정신으로 관리되는 신용 기관들이 관대하게 제공하는 것에 누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 신용 기관들의 임무는 실제로 노동 수단, 크건 작건 간에 기업들의 필수 생존 수단, 산업의 힘줄, 다른 말로 자본을, 그것들을 스스로 값있게 활용하려고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줄을 모르는 혹은 그럴 겨를이 없는 소유자들의 손으로부터 그것들을 활용하기에 더 적합하거나 더 활용할 의향을 지닌, 그리고 확실한 다른 손들로 넘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 조직된 신용이 있는 곳에 지성을 노동 사랑과 합치고 산업적 적성을 성실성에 합치는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락을 정복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옛 시인이 중용이라고 칭한, 영국인들이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는 이 입장을 취할 수단이 그에게 결여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 일단 그곳에도 달한 후 사람들은, 몇몇 예외는 있어도, 통상적인 시대에는 자발적으로 멈추어서 서서 너머를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천막을 친다. 그러나 예외들 자체에 대해서는 그 예외들이 집에서 우월한 경우에, 우월한 본성들에 대해 신용을 가지고서 사회적 지위의 가장 높은 수준인 산업상의 가장 높은 위치로 상승하기가 그들에게 쉬우

교환에는 법칙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대로 참된 철학자라면, 교환의 법칙 자체가 발견된다면 그와 같은 수단들을 가지고 평등이 구원된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상업부기는 온 세계를 포괄해야 하며, 사회의 원장元帳은 개인들이 존재하는 수만큼,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품목들의 수만큼 많은 개별계정들을 가져야 한다.

이 공정한 시대가 올 때 정치와 대의 체제, 절충적인 경제와 공동체적 사회주의는 경멸을 받을 만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정, 민주주의, 귀족정, 신정 등이 모든 참주정의 동의어는 새로운 젊은 층에게는 형식적 특질들, 갈고리 모양의 원자들, 문장紋章과학, 신학자들의 방언처럼 이상한 것들로 여겨질 것이다.

III. 신용의 거짓말과 모순. 그 파괴적 효과, 그것이 가지는 빈곤화 능력

섭리는 사람을 신용이라는 경이로운 길로 인도해 사회의 품안에 곤궁의 전파와 지속을 위한 일반적 보험기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듯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경제학이 진화할 때마다 주인과 임금생활자 사이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를 구분하는 흠이 더 깊어가는 것을 보아왔다. 기계들과 경쟁, 독점, 국가조직, 조세면제와 마찬가지로 금수등 인간재능이 노동계급의 위안을 위해 상상한 모든 것은 끊임없이 특권의 이익으로, 그리고 노동의 점점 더 거는 억압으로 전환되었다. 지금 세워진 직업적 공고화하고 적의 기습에 맞서 위치를 요새화하고 빼앗긴 자의 공격에 맞서 소유자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보험이 그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여전히 약탈당한 자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노동자에 의해, 그리고 모든 것은 노동자에 맞서 (Tout par le travailleur, et tout contre le travailleur).

일꾼들, 노동자들, 경작자들,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다정함이 넘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 저축금고들을 세운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노년의 위안을 위해서입니다. 오세요. 당신들이 절약을 가져오세요. 우리는 이를 잘 지키고 확실하게 지켜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이자를 드릴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지대수령자들일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채무자일 것입니다. 농부들이여! 당신들은 고리채를 쓰고 있으며, 당신들이 결코 갚지 못하므로 당신들은 수탈을 당합니다. 우리의 저당은 행으로 오세요. 우리는 법률행위로 당신들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이자로 36년, 45년, 50년 후에 당신은 해방될 겁니다. 제조업자들, 상인들, 산업

발전의 질서에서 자유무역 혹은 해외판로의 이론이 곧바로 따른다는 것이 결과로 나온다.

그리고 신용이 소비보다는 생산을 유리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난점을 후퇴시키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학의 여섯 번째 마당인 판로를 넘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총체가 생산, 즉공안, 독점, 경쟁등을 표현하는 모든 다른 범주들을 연속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신용이 판로를 예상하고 판로의 결과인 모든 것을 예상한다고 단순히 말하는 대신, 신용이 피신용자에게서 독점, 경쟁, 자본, 기계, 노동분업, 가치물의 중요성에 힘입어 그의 적수들을 이끌기 그런 능력을 가진다고 여전히 말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논지를 약화시키기는 커녕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의 필요에 대한, 따라서 소비가 생산물에 주어야 할 규모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임금의 기준 없이, 가치물들의 비교방법 없이, 자본의 권리들의 제한 없이, 시장의 치안 없이 —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이론들에는 혐오스러운 것들이다 — 당신은 진지하게 신용, 즉판로, 판매, 분배, 한마디로 행복을 조직하기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문제를 신용의 조직자들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보겠다. 당신이 복권福券을 조직하겠다고 말한다면, 좋다. 하지만 신용을 조직하겠다고, 당신이, 신용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수용하지 않는 당신이! 나는 당신에게 할 테면 해보라고도 전한다.

그리고 모순을 막거나 완화하기 위해 당신이 이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말한 건 대판로가 어디서나 대체로 생산자에게 열린다면, 상품의 판매가 보장된다면, 이득이 확실하다면, 임금과 가치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규율이 잡힌다면 결과적으로 호혜성, 연대, 연합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에 신용은 무익한 공식, 무의미한 말에 불과하다. 노동이 조직된다면 —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노동의 조직이다 — 신용은 더 이상 재료에 주어질 첫 번째 밑그림에서부터 소비자에 의한 상품의 파괴까지를 포괄하는 유통 자체 말고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공통적 사상의 영감을 받아 가치의 정상적 축적을 향해 행진하고 일체의 그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유통을 말하는 것이다.

판로의 보충 혹은 예상으로서 신용의 이론은 그러므로 모순적이다. 현재 다른 관점에서 이 이론을 고찰해보자.

신용은 돈을 생산반열에 올리는 것이고, 임의의 모든 상품에 대한 돈의 왕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은 반反금수론체제의 가장 명백한 부인이고 무역수지 균형에 대한 경제학자들 측의 의심의 여지 없는 정당화론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은 일단 자신들의 관념을 일반화하기를 배우고, 어느 민족이 구매하는 상품들은 돈으로 지불할지 아니면 그 자신의 상품들로 지불할지가 그 민족에게 상관없다면 어떻게 그 민족에게 돈이 필요한지, 노동하는 민족이 기진맥진하는 것은 어떻게 그리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민족에게서소비하지않는유일한산물, 즉돈에대한수요가언제나있는지, 어음, 은행권, 지폐같이돈의부족을보충해주기위해이날까지상상된모든교묘한것들이어떻게이필요를나타내고더감지될수있게하기만하는지를우리에게말해주시바란다. 참으로, 반금수론적열광주의는오늘날경제학자종파를가리키는것으로서돈의상업을퍼뜨리고신용기관들을배증하는데헌신하는이례적인노력과는별개로더는이해가되지않는다.

다시한번문노니신용이란무엇인가? 이론은이렇게대답한다. 투하된가치를빼내서전에그랬던불활성상태로부터바로이가치를유통가능하게만들수있도록하는것이다. 더간단한언어로말해보자. 신용은자본가가교환이어려운가치물들의보관을대가로가장교환이잘되는, 따라서모든것들중가장귀중한상품, 돈을선불하는것이다. 치에슈코프스키(Cieszkowski) 씨에따를때모든교환가능한가치물을미결상태로붙잡아두는돈, 그것없이는가치물들자체가금지를당하는돈, 다른모든산물을추정하고지배하고주변화하는돈, 자신의빛을소멸시키고채무에서벗어나게해주는유일한수단인돈, 개인들에게처럼민족들에게행복과독립을보장해주는돈, 끝으로권력일뿐아니라자유, 평등, 소유권, 모든것이기도한돈을선불하는것이다.

이야말로인류가만장일치의찬성으로이해한것, 경제학자들이누구보다더잘알지만가장정력적으로공언된자신들의원칙과모순되게왠지모를자유주의의환상을지탱하기위해우스운맹렬함으로끊임없이맞서싸우는것이다. 신용은노동자의손에그를죽일수단, 돈을건네주면서노동을구원하기위해발명되었다. 그리고여기서출발해서산업민족들간에는돈의장점은아무것도아니라고, 그민족들에게는계정을상품으로청산하든, 현금으로청산하든중요하지않다고, 그민족들이고려해야할것은저가격뿐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국제무역에서귀금속들이그우세성을상실한것이사실이라면, 이는말하자면국제무역에서모든가치물이같은정도의확정성에도달했고, 돈과마찬가지로수용이가능하다는것, 다른말로하면교환법칙이발견되고노동이민족들간에조직된다는것이다. 이법칙을정식화할때, 이조직을설명할때, 신용을말하고노동자계급을위해새로운사슬을버리는대신, 국제적균형의원리의응용에따라교역하지않으므로파멸하는이모든산업인들에게, 일이부족하므로굶어죽는이일꾼들에게그들의산물이어떻게, 그들의수공품이어떻게이것이은행권이나돈일때처럼자신들의소비를위해처분할수있는가치물인지를가르쳐주시바란다. 뭐라고! 경제학자들에따르면민족들의상업을지배하는원리는사적산업에는작용할수없을것이다. 어째서그런가? 왜? 신의이름으로그이유, 증거를대라!

행을과학으로정립한후에, 그들이스스로모방하는, 그리고그들의주인인이상인들에게경제학자의자격으로충고하는것은우습지않은가?

그렇다면상법전이열줄로모든상인에게지시한것말고경제학자는무엇을더아는가?

상법전은상품가격에관해서도임금률에관해서도아무런속단을하지않았다. 이조항을상인의자에맡겨놓는다. 그에게단지얼마가되었든그가지불한금액을계정에올리도록명령한다. 그래서가치는그자체가공동의척도로추정불가능하며전적으로공급과수요에의존하는것이라고, 까다롭고신실한논평자들인경제학자들이우리에게말하는것아닌가?

상법전은상업회사들장章程에서민법전 1832 조이하의학설을전개하며이렇게말한다. “회사는두명이상의사람들이그로부터낭로수있을이익을목적으로무언가를공유하기로합의하는계약이다.”그러므로상법전은노동만으로는, 그리고노동자체로는회사의대상물, 상업의재료가될수없다고가정한다. 자본은생산적이고사회질서는독점에기초를둔다고경제학자들이가르치는것은이런것이아닌가?

이런평행선을더멀리밀고나가는것은쓸데없는일이다. 공공신용과조세의문제들은여전히국가에적용된상업부기의문제들이다. 경제학자들이이를이해하는방식을볼때정치경제학의한장으로삼을만한것이없었다. 만약정치경제학이여전히상업의철학, 장부작성의철학이라면! 하지만전혀그렇지않다. 정치경제학은그것만으로도 1000 권의실체를담고있는상법전제 8 조, 제 9 조에대한거창한주석일뿐이다.

그러므로나는다음과같이간추려서말할것이다.

상법전은모든채권자는채무자를전제로하며그역도성립한다는형이상학적인리를응용하고모든상인에게그의채권과채무, 그리고그의영업을매일기록할의무를과하면서신용의진정한기초를놓았고미래의평등의저항할수없는수단을창조했다고.

그러나부기는그자체로결코가치들의척도를내포하지않는다는것, 그것은부채와자산의항들로표현되는양들의크기와는상관없는채로있다는것, 그것이아주빈번히활용하는산술처럼냉정한것은상인의풍요와마찬가지로멸망을, 주인의정의와마찬가지로일꾼의횡령을확증할용의가있다는것에서, 입법자가재산의불안정의법칙을만들고자했다는결론이나오지는않는다. 그리고경제학자들은단지편견만이아닌것을판단으로받아들이면서, 일상관행이전혀알수없는것, 더잘공부했다면결국거짓이라고공언했을것을일상관행에말하게하면서철학자의사명을저버린동시에비평가로서의자격도상실했다.

상업장부들은상인이비용을들어서점포에보관할의무를진청렴한증인들이다. 그가사기꾼이면그를고발하고, 지불불능의경우에그가정직한사람이면그를정당화해줄용의가있는납세독촉인들의회사처럼말이다. 경제학자들은아주피동적인이역할, 대수적인증인의이초연함에서

객이 생겨나게 할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오직 그 사람이다. 경쟁의 조작들을 따르기에, 독점의 결과들을 예상하기에, 등락을 미리 알아차리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다. 끝으로 상업적이고 고속으로 된 가치물들의 운동과 자본의 유통에 관해 현지의 사정과 외부의 사정을 환어음, 수수료 계정을 통해 아는 것은 그 사람이다. 회계원은 결국 진정한 경제학자로서 거짓 문필가일당이 그도 모르는 새에 그의 이름을 훔쳤고, 그들 자신도 정치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그토록 시끄럽게 떠든 것이 장부 작성에 관한 객쩍은 수다일 뿐이었다고는 조금도의 심해본적이었다.

상업부기는 형이상학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응용 중 하나이다. 그 대상물과 분야에서 그것이 아무리 제한되었다고 과학이라는 이호칭을 쓰는 것이 합당하기에 이는 과학이며, 그 정확성과 확실성에서 결코 산수와 대수에 양보하지 않는 과학이다.

나는 누가 한수학자에게 이런 문제를 제안했다고 가정한다.

모든 상인이 그의 조작들에 대해 보 존해야 할 수 기 표시들로 어떤 판매, 구매, 어떤 수입, 지출, 어떤 이윤, 손실, 어떤 협상, 거래, 척도 재의 이동이나 자본의 이전도 그 부정적 문서상으로 당장 드러나지 않게 숨겨지고, 번질되고, 왜곡되고, 증감될 수 없는 그런 기록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법 앞에서, 그리고 제 3자와 대면해서 만약 제 3자와 법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 그 상인의 책임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

이 수학자는 도움을 받을 곳이 수 치들 밖에 없다 면 확실 히 아주 당황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바로 상법 제 8 조, 제 9 조 가 문 문제다.

“제 8 조, 모든 상인은 분개장을 가지고서 매일 그의 채권과 채무, 상업상의 조작, 증권 매매, 인수 혹은 배서, 일반적으로 어떤 명목에서든 그가 접수하고 지불하는 모든 것을 제시하고 매월 그 회사의 지출에 쓰인 금액을 밝힐 의무가 있다. 이 모두는 상업에서 통용되지만⁷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은 다른 장부들과는 별개다.”

“그는 그가 접수한 전달 문서들을 철해 놓고 그가 발송하는 문서들을 장부에 복제해 놓을 의무를 진다.”

“제 9 조, 그는 매년 사서 증서로 그의 동산 및 부동산 증권, 채권, 채무에 대한 재고를 조사하고 매년 이용도로 마련된 특별 장부에 그 목록을 복제해 놓을 의무를 진다.”

음, 그건 그렇다고 해도! 이 두 조문은 정치 경제학의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한에서는 훌륭하지만 거기서 정의와 사회의 원리를 보기를 원한다면 혐오스러운 이 일 상 관

⁷ 이런 장부들은 구매 및 판매 장부, 대차 장부, 금전 출납부, 재고 장부, 만기 증권 기록부, 문서 사본 철등이었다.

신용의 관념 자체의 모순, 신용을 조직하는 기획의 모순, 신용 이론과 자유 무역 이론 간의 모순. 이는 우리가 경제 학자들을 비난 해야 할 모든 것인가?

신용을 조직한다는 생각에 경제 학자들은 또 다른 한 생각, 그에 못지 않게 비논리적인 생각을 더한다. 이는 국가를 신용의 조직자이자 군주로 만든다는 생각이다. 저명한 로 (Law) 는 국가 작업장의 창설과 산업의 공화제화를 준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의 일은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금융적 봉건제에 격분하는 모든 이들, 정부의 절대 권력으로 이를 대체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훌륭한 격언이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반대 방향으로 해석되는 애매한 격언이다. 한 부류는 세무와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다. 이들에게는 인민의 돈을 국가의 금고에 가져오는 모든 수단은 선이다. 그들만이 거기서 퍼내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부류는 내가 거의 정부 수용 收用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당파다. 이들에게는 공동체만이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은 기분 좋게 해주는 것에 관심이 없고, 가능한 것을 구한다. 그리고 우리의 반反은 행적 열정, 우리의 절대 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성향은 과학의 눈에는 사물의 내밀한 이성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모든 신용을, 그리고 따라서 모든 보증을 도출하려는 관념은 다음의 문제에서 드러날 수 있다.

국가, 비생산적 기관이고, 재산도 자본도 없는 인격으로서 저당 물로 그 예산만을 내놓고, 언제나 차입자이고, 언제나 파산자이고, 언제나 빚을 잔뜩 지고, 자신과 함께 모든 사람을, 따라서 자신의 전 주 錢主들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투자할 수 없으며, 그 바깥에서 모든 신용 기관들이 자생적으로 발달한, 그 국가는 자신의 자원, 보증, 자신의 창조성, 자신이 부과하는 연대성에 의해 보편적 출자자, 신용의 창조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때 사회는 이를 허용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풀린다면, 사회가 자유 무역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를 해방시킨다는 유토피아를 포기 하고 자신에게 돌아 가 자본을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으로 되 돌림으로써 생산과 소비 간의 균형을 재 확립하기를 구 할 때, 신용에 의해 발 현 된 사회의 서원을 충족 할 수단을 국가가 보유 하는 결과 가 될 것이다. 국가는 신용을 형성 하면 가치 물 구성의 등가 물을 획득 한 셈 이 될 것이다. 경제 문제는 풀릴 것이고 노동은 해방 되고, 빈곤은 격퇴 될 것이다.

국가를 그 독재 공산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신용의 창조자이자 분배자로 만들자는 제안은 그러므로 큰 중요성을 띠며, 우리의 모든 주의를 끌 만하다. 우리가 도달 해 있는 지점에서 경제 문제 들은 더 이상 한계를 가지 지 않으므로 이 제안에 걸맞은 규모에서 가 아니라 세 부 내 용을 오직 보충 해 줄 수 있는 깊이와 일반성을 가지고서 취급 하기 위해 이 제 안을 두 기간 으로 나눌 것이다. 하나는 신용에 관해 서 국가의 모든 과거를 포괄 하는 신용 이론 이 포

합하는것, 따라서국가에의해서든자유로운자본에의해서든신용조직에 서기대할수있는것을확정하는것을목표로삼게될기간이다. 이는두번째와세번째절의소재일것이다.

경제학자들이최근시대에산업과관련해서는국가에그런능력이있음을부인한후에신용에관해서국가에기꺼이인정해주었던조직능력을평가하기위해선행하는것들을호출하는것으로충분했다면, 우리는논리대신에우리의적대자들에게더욱감흥을줄수있는경험을들이미는것밖에할수없는데, 그부분은우리의적대자들에반대하는것으로는너무아름다울것이다.

그들에게우리는이렇게말할것이다. 국가는재산도자본도가지지않으며, 한마디로국가가그신용증서의기초로삼을것을가지지않는다는것이경험에서증명된다고. 국가가동산가치물과부동산가치물로소유하는모든것은오래전부터투자되어있다. 국가가자기자산외에진채무로서민족이국가대신그이자를지불하는것은프랑스에서 40 억프랑을넘는다. 그러므로국가가신용의조직자, 은행의기업가가된다면이는그자신의재원을가지고서는안되고피통치자들의재산으로될수있다. 이로부터국가에의한신용의조직체제에서는허구적혹은암묵적인일정한연대성에의거해, 시민들에게속하는것은국가에속한다. 그러나그역은아니다. 그리고루이 15 세의절정자가이군주에게그의왕국을가리키면서“폐하, 이모두가폐하의것입니다”라고말한것은옳았다고결론을내릴필요가있다.

시민들의재물에대한국가의이상급소유원리는공적신용의진정한기초다. 왜헌장은이에대해말하지않는가? 왜입법, 언어, 관습은오히려그에상반되는가? 왜공공재산과개인재산의이연대성이론을슬쩍도입하기를구하면서국가의모든중주권밖의시민들에게그들의재산을보장해주는가? 그리고이연대성이권력의우위와창도성의체제에서존재하지않고, 존재할수없다면, 이것이허구일뿐이라면국가의보증은무엇이되는가? 그리고국가에의해주어지는신용은무엇인가?

거의진부한단순성과공격할수없는실재성을가진이고려사항은신용문제전체를지배한다. 내가이따금새로운집요함을가지고이문제로되돌아오는데사람들은놀라지않을것이다.

국가에재산이없는것만이아니다. 국가에생산은더구나존재하지않는다. 국가는비생산적인자들의카스트다. 국정지폐에가치와확실성을줄수있는이익이예상되는어떤산업도국가에의해영위되지않는다. 이제부터는국가가생산하는모든것은공익사업에서든, 가정이나개인소비품에서든그값어치의세배의비용이든다는것이보편적으로인정된다. 한마디로국가는비생산적공안기관으로서, 그리고국가의일로삼은집단적사업부분에대한생산자로서오직보조금으로살아간다. 어떻게, 어떤마법적인힘에의해, 어떤들어보지못한변형에의해국가는갑자기그중한핀도소유하지않는자본의처분자가될것인가? 어떻게비생산적인존재자체인

채들의엄청난포위를말하지않을것인가? 자유가어느쪽을향하든지그것은곧이경제적숙명들중어느것에의해예측하지도못한중에붙잡힌다. 구제수단의의양을떠면서자유를그졸라맹에서벗어나지도, 그것들의굴레바깥을의식하지도못하게하는가운데속박하고예속화하는숙명들말이다. 상업, 농업, 이해하는기술로서의계산술이발명되기전에언어는모든정치및경제제도에앞서자생적으로생성되어결과적으로차후의편견들의영향에서벗어난것으로서, 언어가벌써노동, 대여, 교환, 신용, 채무, 내것과네것, 가치, 그리고균형의모든관념들을표현했다. 경제학이존재했다. 그리고칸트는극히투박한경험주의에만믿음을두는것으로거드름을피우는경제학자들과는반대로, 그가경제학에몰두했다라면틀림없이정치경제학을순수과학의반열에올렸을것이다. 즉원리들의구성에따라서, 그리고사실과는독립적으로선형적으로가능한과학말이다.

내가다루는것과같은주제에서는모든것은새롭고뜻밖일수밖에없었다. 나는오랫동안아담스미스에서부터슈발리에쎄에이르기까지정치경제학의교육에쓰이는저작들에서왜어디서도상업부기에대한언급이되고있지않는지를탐색했다. 그리고나는부기, 혹은좀더겸손히말해장부의작성이바로정치경제학이라서이른바경제학이라는잡동사니의저자들, 실제로는장부작성에관한다소간분별력있는논평자들에게불과한자들이이를알아채는것이불가능했다는것을결국발견했다. 또한나의놀람은처음에는극단적이었지만, 수많은경제학자들이부채와자산에대해, 한마디로장부의작성에대해전혀이해하지못해계산에아주어두운자들이라는것을확신할수있었을때일거에중단되었다. 독자여러분을심판관으로삼는다.

정치경제학이란무엇인가? 사회의여러계정들의과학 (이단어에동의하자), 부의생산, 분배, 소비의일반적법칙들의과학이다. 이는밀을생산하는기술도아니고, 포도주를만들고, 석탄을추출하고철을제조하는등의기술도아니다. 이는기술과직업의백과사전이아니다. 이는한번더말하건대부가사회안에서창출되고증대하고교환되고소비되는일반절차들에대한지식이다.

가능한모든산업들에공통인이일반절차들에개인들의행복, 민족들의진보, 재산들의균형, 대내외적평화와의존한다.

그런데산업시설마다, 상사대리점마다생산에, 상품발송과입고에종사하는일꾼들과별개로, 한마디로말해서전문노동자들과별개로상급고용자, 감히말하자면일반법의대표자, 경제사상의기관, 생산, 유통, 소비의일반적절차의관점에서그시설내에서벌어지는모든것에유 의하는책임자가있다. 이고용자는회계원이다. 제대로이해된노동분업의효과를감정하고기계가어떤절약을해줄지, 기업이그지출을충당할지못할지, 판매가얼마나이익을내는지, 최선의판로는무엇인지, 즉어떤고객이소비수준이높은지, 어떤다른고객들을불신해야하는지, 어떤곳에서고

帳이다. 이원장에 항목들을 올리기 전에 로마인들은 우리처럼 일계장에 이를 적어 놓는다. 일계장은 키케로의 『프로로시오 pro Roscio』에서 감독 controle 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드베르사리아 adversaria 라는 이름으로 지칭된다. 이서장으로의 이기移記는 적어도 매월 행해지며, 한편에는 지불한 것 expensum 을 옮겨 적고 또한 편에는 받은 것 acceptum 을 옮겨 적는다. 끝으로 이장부들은 실질적으로 부채 doit 와 자산 avoir 에의 거해작성되어 라티오네스 rationes 라고 불렀다. 당사자들 간에 행해진 모든 것을 설명 raison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이 가계부 livre de raison 혹은 원장이라는 명칭의 기원일 것이다. 그리고 또 레시외르클로 팡클로팡 les sieurs Clopin-Clopant, 아르파공에콩파니 Harpagon et compagnie 같은 상호 raison sociale 라는 말의 기원도 된다. 일정 금액의 채무를 지고 싶으면, 빚을 갚는 자가 자신의 장부에 그가 채권자로 삼을 의향을 가진 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기재했다. 빚을 준 사람 쪽에서는 자기 장부에 그의 채무자로 삼고 자 한 자에게 준 자산을 기입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업 전문 용어에서 우리가 대변과 차변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장부들의 일치에서 계약이 나왔다.”(오지에, 『공공신용의 역사』)

이 평행 관계에 주목하자. 차변에 기록하다 débiter, 채무자 노릇하다 faire débiteur, 빚지다 devoir, 채무자다 être débiteur. 대변에 기록하다 créditer, 채권자 노릇하다 faire créancier, 신용하다 (croire, 이 말은 프랑스어에서는 라틴어 credere 의 어의를 상실했다), 신뢰하다, 완전한 지불 때까지 향유와 소유를 시키다, 한마디로 채권자다.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는 섬기다 servir 와 보조하다 servir, ‘노예다’ 혹은 ‘노예 노릇하다’의 상관성을 특기한 것은 이런 것이다. 매일 사회적 건축물이 솟아 오르는 기반이 되는 관념들의 대립은 나중에 가서 제도들의 계승에 의해 이것이 사실로 정식화 되어야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정식화되었다.

대변, 차변, 구매와 판매 등 우리가 신용에 배정한 궁극적 목적, 생산과 교환 간의 균형을 수립하는 목적을 아주 잘 표현하는 대립 외에 복식 부기라 불리는 부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대립을 드러내 준다. 이는 사람과 사물의 대립이다.

상인은 그와 거래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각각에 대해 대차貸借를 이용해 정하나씩을 개설한 후에도 한 그가 받을 수 있고 인계할 수 있는 가치 물의 본성별로 역사 시대 차를 이용해 또 하나씩의 계정을 개설하며, 그는 이를 네 다섯 개의 큰 범주로 분류한다. 금전출납계정, 환계정, 일반상품계정, 잡계정인데, 이것들은 청산이나 재고 조사 시에 손익계정이라는 단일계정으로 해소된다. 손익은 상인에게 경제학자들이 총생산과 순생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우리의 지성과 활동이 생겨나려고 함에 따라 우리의 지성을 옥에 가두고 우리의 활동을 꼼짝 못하게 위협하는 요새, 보루, 성

국가, 따라서 저축이 본질 상 불쾌한 것이 되는 국가가 국립은행가, 보편적 출자자가 될 것인가?

그러므로 재산의 관점에서처럼 생산의 관점에서 도 국가가 목소리를 높여 이를 공언하고 그 조항들을 명령하는 것이 허락되는 날까지 조심스럽게 그 중재자가 되는,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암묵적 연대의 가설로 되 돌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보기 전에 나는 민간 자본의 도움으로 형성되는, 그리고 그 경영이 단지 공무원들에게 위탁되는 은행업이 단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업은, 그것이 상업에 자본을 더싼 값에 장만해 줄 때에도 모든 유사한 사업들과 어떤 점에서 다를 것인가? 이는 국가를 위한 새로운 재원을, 국가가 거기에 자기 것은 아무 것도 넣지 않으면서 창출하는 일일 것이다. 권력의 손아귀에 상당한 액수를 놔두는 위협이 아니라면 나는 진보가 거기서 얻을 것, 사회가 거기서 얻을 것을 보지 못한다. 국가에 의한 신용의 조직은 사물의 토대로 더 가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조사를 추진해 가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고 말고, 국가가 가장 큰, 가장 불멸의 수입을 올리니, 조세를 가지니 자본을 소유한다고 들 말한다. 국가가 이 조세를 몇 상당 추가로 올려야 했다면, 그래서 이를 신용의 가장 방대한 작동들을 결합하고 실행하고 보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가? 심지어 조세 증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민족의 제한된, 혹은 무제한의 보증 아래서, 민족 대표자들의 투표에 힘입어 농공은행의 완전한 체제를 창설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둘 중 하나다. 신용을 일반 이익을 평계로 국가의 이익이 되게 독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국립은행이 오늘날의 프랑스 은행과 같이 그 나라 모든 은행들과 공동으로 기능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상황은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될 것이며, 사회는 즉각적인 해체를 향해 진행할 것이다. 국가의 손아귀에 신용을 독점하는 것은 어디서나 민간 자본의 가장 정당한 권리인 이자를 받을 권리를 부인해 민족 자본을 폐지하는 불가피한 효과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출자자이고 농공산업의 유일한 할인자로 선언된다면, 자신들의 자본에 의지해 살아가고 이후로는 소득을 먹는 대신 원금을 축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수천 자본가들과 금리 생활자들을 국가가 대체한다. 나아가 자본을 쓸모 없게 만들어서 국가가 그것의 형성을 못하게 한다. 경제적인 화의제 2 기저 쪽으로 퇴보하는 것이다. 정부, 입법부, 민족에게 그런 일을 추진할 때면 해보라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 이쪽편에서는 사회가 어떠한 능력으로도 뒤집을 수 없을 금속 벽으로 인해 멈춘다.

내가 거기서 말하는 것은 결정적이며, 미지근한 사회주의자들의 모든 기대를 뒤엎는다. 이들은 공산주의까지 가는 일 없이 끊임 없는 독단으로써 가난한 계급들의 이익이 되도록 때로는 보조금, 즉 부자들의 행복에 대한 사

실상의참여, 때로는국가작업장, 따라서특권화된작업장, 즉자유로운산업의멸망을, 때로는국가에의한신용의조직, 즉민간자본의철폐, 저축의불임성을창조하기를원할자들이다.

그러한고려사항들에구애받지않는이들에대해말하자면, 내가여기서그들에게그들이신용에손을대기전에풀어야할모수들의아주긴계열을환기시켜줄필요없이, 자본에전쟁을걸고투자를금지하면그들이가치물의발굴과연대가아니라유동자본의철폐, 교환의폐지, 노동의금지에빠르게도달하리라는것에그들이주목하게하는데에당분간한정할것이다. 자본의생산성이작동하는방식에불과한돈의상거래는필연적으로가장자유로우며가장과악이불가능하다고말하고싶고, 독재에가장저항적이고, 공동체에가장반발하고, 따라서중앙집중과독점을받아들일가능성이가장없다. 국가는은행에규칙들을부과할수있다. 어떤경우들에서는특수한법률들로서그행위를제약하거나쉽게해줄수있다. 국가는자체적으로, 자기자신의계정으로도, 공공의계정으로도은행가들을대체하고그들의산업을독차지할수없을것이다.

국가를정말로신용의군주이고처분자로만든다는관념은실행불가능하며, 그것의터무니없음을입증해주는얼마나많은고려사항들을내가침묵하고지나치는가! 그러므로두번째가설, 경쟁의가설, 혹은더제대로말해국가의협조가설에집착할수밖에없다. 특히신용의여전히모호한몇가지부분들, 이는국가의창도성을요구하며민간자본들이아직은싹틔우지못했고달성하지도못했던부분들에관해서는그러하다.

국가에의한신용이라고요란하게공고된이조직, 그리고사물의힘에의해국가에서나오는모든것처럼어떤입법적조작으로, 그리고마찬가지로공안부처로전락하는조직과우리가말하는것은거리가멀다는데에동의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위태로움을초래하고국가에선천적인불신을공유하지않으려면중앙은행이행정집단에들어갔을때에도그작동의독립성전체, 그은행의이익과국가의이익의완전한분리를보전해야했으므로그러한은행은언제나왕국의금융제 1 가일뿐이기때문이다. 이는국가에의한신용의조직이결코아닐것이다. 거듭말하건대국가는노동도, 신용도, 아무것도조직한다는것이불가능하다.

그러므로국가는그태생적빈곤과함께, 그본질인비생산성과함께, 빛을지는습성과함께, 즉창의적능력이가장반대되는모든특질들, 국가를신용의군주가아니라불신의전형으로만드는특질들과함께남으며, 영원히남아야한다. 모든시기에도모든민족들에게서국가가끊임없이자신의품에서신용이샘솟게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차입을조직하는일에매달려있는것을보게된다. 스파르타는보물을가지지않아서차입기금을조성하기위해단식을단행했다. 아테네는미네르바에게서황금망토와보석을빌렸다. 수용, 갈취, 거짓화폐가폭군들의통상적수단이였다. 아시아의도시들은금융의모든비밀에익숙했는데, 덜야만적인방식으로나아갔다.

하지않은것이다. 생명보험은환어음과는행권의유비물로서지금地金에근거를두는대신회수회收到에근거를둔다.

끝으로이렇게조직된노동자들의공제회가 20~30 년동안유지되고, 갱신되고, 발달한다고가정하자. 이공제회가갑자기힘을모아수백만프랑을처분할수있는순간이올것이다. 부지런하고정신이말짱한사람들, 인내와절약으로 30 년동안단련된사람들이그런힘을가지고서무엇을도모하지못할것인가! 그리고그러한경영이 3 세대나 4 세대동안유지되고새로운종교처럼어디어나전파된다면세계를개혁하고틀림없이평등을가져올것임이명백하지않은가?

이런종류의가정들을무한히변형하고조합할수있으며, 언젠나도달하게될결론은, 프롤레타리아가변함없이가난하다면이는그가부유해지려는수고를하고싶지않은것이라는것이다.

하지만말소사! 이결론은, 우리가미쳤다면이는우리가현명하지않은것이라고말하는것과맞먹는다. 그리고우리가고통을겪는다면이는우리가건강이좋지않은것이라고말하는것과맞먹는다. 의문의여지없이우리의공법, 우리의민법과상법, 우리의경제학, 우리의신용기관들은프롤레타리아트가빈곤에서벗어나고이역겨운자본에대한종살이에서, 정신착란의제 1 원인인, 물질의악명높은명에서해방되는데필요한것을백만번포함한다. 그러나이해방의법칙을과악하려면, 초월적개념의도움으로대금업의원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 그리고우리가도달한계에서, 신용의이경이로온국면에서우리는그어느때보다도대금업에처박혀있다. 조금있으면우리는프롤레타리아의잘못, 자본가의잘못, 그리고섭리의잘못을고려할것이다.

이순간까지신용의형태들이었던것, 그형태들이될수있는것을말한후그것들모두에공통인공식에대해말할것이우리에게남는다. 이공식은신용의절차가정의에대해서가지는관계를정치경제학에대해서가진다. 나는회계를이런말로지칭하고자한다.

신용은회계의아버지다. 회계는채권자없이채무자가있을수없고그역도성립한다는원리에그모든비밀이있는과학이다. 이는산물들은산물들에의해회득된다는경구의번역이며, 정치경제학의근본적적대성을새로운표현으로다시가져오는것이다.

로마인들의회계에관한다음의상세내용을흥미없이읽지못할것이다.

“고대로마인들은각자장부를가지고있어서거기에채무와채권, 일종의당좌거래들을기록하는데, 거기에그들은또한관계를가지는사람들의이름밑에각자의부채 acceptum 와자산 expensum 을기입했다. 우리에게서분개장이법에규정된형태로빨간줄로그어진것없이기록될경우에그렇듯이이장부들은정의를입증했다. 그것들중하나이는서장(移書帳, nomen transcriptum), 이서기록부라고불렸고, 이는원장元

금, 그가죽게될경우아내와자녀들이살아갈재원을마련하려고신경을쓴다고가정하자.

우선그에게저축금고가열려있다. 월 5 프랑이면, 예금은연말에 60 프랑이될것이다. 20 년이지나그노동자가한창일할나이이고이성의힘도가장강할때, 그의저축총액은 1200 프랑으로올라갈것이고, 이자가더해진대략 2000 프랑의가용자본, 즉 4% 의이자에 80 프랑의소득을이룰것이다.

이제바로이노동자가마흔살이되어선견지명이가장의첫째의무인때가되어, 이 80 프랑의소득을소비하는대신에생명보험금고에넣는다고가정하자. 3% 의보험료율에이는 2666 프랑의금액이되며, 자신이죽을경우그의처와자녀들에게이금액을보장해주는것이다. 그리고이제는그가저축금고에보유하는 2000 프랑과더하면벌써이선견지명을가지고현명한아버지가 41 세에죽는경우에 3666 프랑의보장된자본을이룰것이다. 반대로이사람이과거처럼계속해서매월 5 프랑에그가인출하고투자한앞의금액의이자를더한만큼을저축금고에넣고 20 년을더산다고하자. 60 세에그는거의 7000 프랑의자본, 장성한자녀들을대하게될것이며, 더일하고싶지않다면, 궁핍을모르는노년을맞을것이다.

이제더큰규모에서이흥미로운가설을발전시키자.

우리의대도시들파리, 리옹, 루앙, 낭트중한곳에서노동자 1000 명이저축과보험의장점으로부터이익을불결심을하고그들간에공제회를만든다고가정하자. 그주목적인질병과실업의경우에각자에게생계유지와함께예금의지속을보장하는방식으로서로돕는것이다. 우선합쳐진그들의예금에서나오는자본으로이노동자들은그들간에생명보험회사를아주잘이룰수있을것이며, 이회사는그들에게이런종류의회사들의모든장점을제공하면서동시에운영이득을남겨줄것이다. 말하자면그들은다른식으로발견할수없는훨씬저렴한가격에스스로보험을할수있으리라는것, 아니면같은보험료로더큰액수를보장하리라는것이다.

이와같이한노동자는 40 년간의눈에띄지않는절약으로 4000 프랑을모음과동시에또한자기가족에게그저축에서나오는이자와함께또다른 3000 프랑을보장해줄수있을것이다. 즉모두해서 7000 프랑으로서그가 60 세, 아직건강하고노동할수있는나이에죽게될경우에그이를자기처에게남겨줄것이다. 7000 프랑, 이는수많은처녀들의지참금이다.

이에는우리에게신용의허구들의가장행복한용도들중하나를보여준다. 실제로보장된총액은계약지속기간중임의의순간에이를고려할경우대부분실현불가능한허구적자본일뿐임이명확하다. 그러나사회에허구적인이자본은그렇다고해서피보험자각자에게조금도덜실재인것은아니니, 각피보험자의사망시에최소의부분만큼씩상속으로밖에상환가능

그도시들은우리가하는것처럼차입했으며, 조세로빚을갚았다.² 역사도전진해감에따라국가에서차입의기술이완성되어가는것을보게된다. 신용을제공하는기술은아직도나타나야할참이다. 흔히당감을받기위해국가는자신의대차대조표를내놓을필요에처했다. 프랑스에서만, 그리고 287 년이흐르는동안오지에 (Augier) 씨는국가에의해행해진파산이총아홉건임을발견했다. 그역사가는이렇게덧붙였다. “우리의모든왕들이래서, 그리고로마가톨릭동맹의시대의영구적인당감, 아니면 1351 년왕인장 (Jean) 에의해이당감수단이발명되면서부터즉위때마다의간헐적인비슷한당감의크고작은수단들을고려함없이.”

실제로그렇지않을수있었나? 그리고신용과국가의이들의어쩔수없는적대성을고려하기위해그리많은이성이필요한가? 국가는누가뭐래도, 무슨것을해도, 시민들의보편성과같은것이아니고결코같지않을것이다. 따라서국가의재산은더이상개별재산들의총합과일치할수없을것이며, 같은이유에서국가의의무는각각의납세자에게공통이고연대적인것이될수없을것이다. 얼마동안여론을혼란시키고, 국정지폐에돈의신용과동등한신용을주고, 교묘한수단과은폐의힘으로이정부의거짓말을지탱하는일에끝장을보기바란다. 여전히당나귀에서자가죽을씩어기만할것이며, 더적은당혹감속에서당신은가면무도회가가뒤에혼란과큰공포만남기고사라지는것을보게될것이다. 인류보다두세기를앞서간연적사색에서국가의일은신용을제공하는것이지신용을받아들이는것이아니라고적었을때, 로 (Law) 가본것은노동자들의실질적인연합이었다. 이는모든적대관계의화해의결과인경제적연대, 산업적인거대한통일로국가를대체해소비자에게처럼생산자에게신용과만족을유일하게제공할수있는이경제적연대였다. 애매한문장에속아서가면을사람으로간주하고국가를사회로간주한로는모순적가설을실현하는일에착수했다. 그는틀림없이실패하지않을수없었다. 그리고재간있는투기자가곧자신의경험의종말로도달한것은이엄청난과국속에서프랑스에는행복이었다. 우리는이거대한기만에관해재론할기회가있을것이다. 거기만의발명자는우리가척도재의유통, 혹은같은것으로서신용의발달을가져온다고상상하게해준수단이되는다양한허구들에관해말할때의첫번째얼간이였다.

II. 신용기관들의발달

신용은정치경제학전체에서가장어려운부분이지만동시에가장신기하고가장극적인부분이다. 또한그주제로간행된저작들의수가많고그중

² 오지에, 『공공신용의역사 Historie du Crédit public』

어떤것들은높은위상³을지님에도불구하고나는이엄청난문제가아직그 모든크기에서, 따라서그모든단순성에서파악되지않았다고감히말한다. 영원한논리의수단인사람이점차일련의기념물들에힘입어하나의순전한추상인신용을실현해가는것을특히여기서보게될것이다. 그전에인간이노동분업, 위계, 경쟁, 독점, 조세, 무역의자유등추상적관념들의이모든풍환을실재물로전환시키는것을우리가본것처럼말이다. 진정한역사철학은경제적국면들의발달에있다고마침내확신하는것, 그리고가치의구성이문명의회전축이고인류의문제로서결연하게나타나는것을보는것은신용이일으키는다양한문제들을연구하면서다. 우리는사회가, 오지에씨의행복한표현에따르자면, 우주가태양주위를맴도는것처럼금화주위를맴도는것을볼것이다. 왜냐하면, 신용은우리가지금까지연구한국면들과같기때문이다. “같은작가의언어를빌리자면이는인간의지의적자嫡子가아니다. 이는인간사회안의하나의필요, 급양의필요와마찬가지로절박한필요다. 이는여전히선천적인, 섭리적혹은숙명적으로지적인힘이며, 미래의사물들혹은어두운혁명들을자신의일로삼는다. … 권력들과왕들은움직이고, 돈은그것들을끌고간다. 섭리가하는행위를풍자함없이이런말이된다.”

하지만우리는이를거리낌없이말하자. 역사철학은결코보쉬에의계승자들이수많은예들을제공한이반쯤시적인환상들에있지않다고. 그것은사회경제학의모호한길들안에있다. 일하는것과먹는것, 이는예술가인작가들에게는실례가되겠지만사람의유일한뚜렷한목적이다. 그나머지는직업을찾는사람들혹은빵을요구하는사람들의오고감일뿐이다. 이겸허한강령을충족하기위해속세의평민은모든철학자들, 학자들, 시인들이결작을만드는데쏟은천재성보다더많은천재성을쏟았다.

우리가아직그런예를인용한적없고, 이사상의변신들에별로익숙하지못한독자를업습할이상한것인신용은그가장앞선표현을입고서벌써종합적인공식으로제시된다. 이는그것이아직이울배반이되지못하게막는것, 경제적진화의순서에서일곱번째의이울배반이되지못하게막는것이다. 치에슈코프스키씨가한저작물, 내가응용형이상학의애호자들에게읽기를아무리추천해도지나치지않은저작물에서입증한것처럼신용은입장, 반대입장, 그리고구성으로연이어발달하면서, 따라서긍정적이고완전한관념을낳으면서그최고의시기에도달한다. 그러나우리가때가되면증명할것처럼, 정기적으로형성된이종합은말하자면부차적인차원의것일뿐이다. 이는아직은모순이다. 이처럼관념들은물체들처럼무한히구성되고분해되며, 그러면서도과학은어느것이물체인지아니면단순

³ 나는다른것들중에서도총체와독창성을위해오지에씨의간결하고사물들로가득한저작『공공신용의역사』(Paris, Guillaumin, 1842)를인용할것이고, 철학정적신을위해서는치에슈코프스키씨의저작『신용과유통에관해 Du Cr dit et de la Circulation』(Paris, Treuttel et Wurtz, 1859)를인용할것이다.

개인적자유는보장된다. 노동자는주인이그의저축을나무라는것을더는두려워하지않는다. 각자는자신의노동과자신의근로의산물을자유로이처분한다. 정의는모두에게동일하다. 헌법이재산권체제에서논란이될수없는보수保守와질서의동기에서납입금을선거권의조건으로했다면, 이조건이물적인데위치고사람들을구분하는데위치지않으며, 게다가모든사람은운명의부름을받은것이므로이런관점에서여전히선거법은조세와마찬가지로평등법이며따라서흠잡을데없고인민을위해만들어진것이되인민을초월한제도라고말할수있다. 게다가국가자체는단순일꾼, 프롤레타리아에게, 부르주아, 예전에는그와같은프롤레타리아이자단순노동자였지만지금안락함과준엄한자리에도달한그의예를따르도록초청한다. 국가는노동자에게저축금고, 그후에는퇴적금고, 더나중에는합자회사, 연합등을제공한다. 프롤레타리아는그의손에놓인수단들을활용할줄안다면언젠가는자신의자본으로써그가비난하는자본가의위력을상쇄하고자신의노동으로써극히방대한산업들과겨루며, 끝으로여러세기전부터아주확실한방식으로권력의축소를출범시킨부의이주권에참여하기를정당하게희망할수있다. 그러므로노동계급의불편과불만에원인을제공한것은실질적으로수단들이결여된것보다는이상한기호嗜好, 무질서와무규율의관습, 그계급이감염된, 그리고그계급에게모든연합과조화의관념을배척하게한이기주의, 그계급을가득채운터무니없는학설이아닐까?

나는프롤레타리아를그태생에서부터파악한다. 왜냐하면사회가그에게골몰하는것은이순간부터, 요람에서부터이기때문이다.

그에게유아기에필요한돌봄을보장해주기위해사회는그에게우선탁아소를얼어준다. 당분간탁아소를빈자를위한신용기관과동일시하는것을허락해주기바란다. 이처럼것먹이아이는벌써은행의채무자다. 왜냐하면사회이이섭리에서이익을보는것은그의엄마라기보다는그이기때문이다.

탁아소를나오면그는어린이집에받아들여진다. 나중에그는모든인간지식의요소들을, 심지어그리기와음악의요소들을그를위해만들어진학교들에서받아들일것이다.

수습의날이찾아온다. 이는가까이서들여다보면노동자생애의모든기간중가장고통스럽다. 그러나이모든비애는그나이의즐거움과순진함, 그의엄마의겨안음, 그의아빠의조언, 막시작되는인생전체의엄청난희망이뒤틀림되는그아이에게는가볍게여겨지리라!

18 세가되면, 그는노동자이고, 자유롭다. 그는사람이되기시작한다. 벌써그는사랑을하고, 몇년안에결혼할것이다.

초등학교가줄수있는, 사람들이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많은양의수습과약간의강의의도움을받은지식, 그리고팔다리만을가지고있는이스무살노동자가, 내가말하건대좋은영감에순종해자신의노년을위한연

그시대의역사가들이돈없는막시밀리아노라고별명을붙인바로그막시밀리아노는브뤼주에서, 이빃진군주가백성들에게끊임없이부과한조세에의해것이겨진플랑드르의정부를포기하게될때까지이도시의부르주아들에의해약국에서활동안간혀있었다. 끝으로우리는교황레오 10세와그의예를따른성직자집단전체가교회들의패물, 성기聖器, 성인들의유골을그것도유대인들에게저당잡히는것을보았다. 이는옛날에페리클레스가라케데모니아사람들과전쟁하던때에미네르바에게서황금망토와보석들을빌리는것을본것과도같다.

1789년의혁명은무엇이었나? 자본의회수다. 귀족층과성직자계층의특권들은사회적자본의대부분을양도불가능하고분리불가능한것으로만들었다. 그리고한꺼번에그청산과유통화를명한명령은진정한농지법이였다. 게다가혁명의목표, 실질적이고실토했목표는이것 말고다른것이아니었고다른것일수도없었다. 뒤를이어서생겨난이모든공화주의적이고제국주의적인소문, 이에대해서는하나의기억밖에남은것이없는데이는이를잘증명해주었다. 그리고그러한것은여전히우리가눈으로볼때정치경제학으로대표되는자본과사회주의로대표되는노동간에벌어진전투의쟁점일것이다. 나는단지오늘날정반대의모든외관에도불구하고노동이옛날보다사뭇더나은부분을가진다는점을고찰할것이다. 하지만그이유를말할순간은아직오지않았다.

제 3 신분이다른신분들에대해가한대금업에의해일반적해방에주어진강력한충동과별개로, 신대륙발견으로유럽에던져진금속의영향, 유통은행, 그리고합자회사의영향을잊지말자. 학문, 예술, 산업의진보등부르주아들의고유의업적을더해보라. 그러면당신은 1789 년에시에예스(Sieyès)가세상에다대고제 3 신분이전부이고성직자계층과귀족층은아무것도아니라고확언하게되면서, 귀족들의우두머리이자교회외장자인전제군주가어떻게한평민의이선언에법의힘을부여하는것이필요했는지를이해하게될것이다.

그에대해의문을품는것은더이상허용되지않는다. 신용, 즉노동과진자운동하는가치들을일종의생산적통화로만들고결과적으로가장절대적인자유가마련해줄수없는이판로를국내에열어주는조합들의총체인신용은노동해방, 집단적부의증대, 개인적행복의가장능동적인원리들중하나다.

그리고인류의천재성이창조한생산, 교환, 분배, 실질적연대의여러수단들을성찰해볼때, 모든것이잘되어간다고, 사회는프롤레타리아를위해충분한일을했다고, 가난한이들이존재한다면그잘못은그들탓일뿐이라고아는이들의낙관주의에덜놀라게된다. 그리고우리는사회주의의불평이조금의근거라도갖는지를스스로의문시하기시작한다.

독자들께서는이요점정리에서잠시나를따라와주기바란다.

관념인지를결코말할수가없다. 관념들과물체들은모두가동일한단순성을띠며, 우리에게는그들의비교혹은다른물체, 다른관념들과의관계에놓임에따라서만복잡해보인다.

그러한것이신용이다. 그것이탄생시에단순하게보이던것에서상반된것을제시하면서돌로나누는, 그다음에는상반된것과결합하면서복잡해지고, 이결합후에는그최초의발생순간처럼단순하고, 기초적이고, 모순적이고, 무력한것으로다시나타나는관념이다. 그증거들에도달할때다.

신용은세계열의기관들로발달한다. 앞의두계열은서로상반되고, 세번째계열은그들을긴밀한결합으로요약한다.

첫번째계열은환어음, 저축금고를관련시킬필요가있는예금은행을포함하며, 끝으로담보나저당을기초로한대출을포함하는데, 공영전당포가한예를제공한다.

이연속되는조작들을통해, 사람들은돈에게우선은길을쉽게해주고, 거리를단축시키고, 그리고는돈자체를집안에덜들어박혀있게, 생성되는것을덜겅내게해서모든사람들에게더접근가능하게만들기를원했다. 더명확한환어음으로는돈을더저렴한값에가지기위해한편으로는환어음으로운송을절약하고, 또한편으로는예금은행을통해재료의마모와환전을절약하는데신경을썼다. 끝으로돈에담보와저당의보증을제공해안전보장으로써척도재를끌어들였다.

환어음을통해서, 내가보유하는돈혹은내가파리에있는동안산트페테르부르크에서내게지불되어야하는돈이마치내가그것을쥐듯이내쳐분에맡겨진다. 그리고역으로내가파리에서보유하고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지불해야하는금액이상트페테르부르크에존재한다.

이조합은무역의어쩔수없는결과다. 이것은결과가원인을따르듯이생산과교역을따라서진행한다. 그리고나는역사에서환어음발명의일자를찾아일자를대략 12 세기나 13 세기로고정하는경제학자들의집착을납득하지못한다. 환어음은그것의작성이아무리아만적이고변칙적이라해도, 두나라가서로관계를맺고서일정금액이차입자의단순한인정이나대여자의권유로한나라에서다른나라에지불될수있는날부터존재한다. 이처럼오지에씨와함께토비⁴에대한지불의무증서, 그의친척가바엘이서명하고그것을소지한, 발행인은전혀모르는토비에게바로그가바엘이결제한지불의무증서를환어음으로보는것을아무것도막지못한다. 전설에따르면아시아에서기원전 5~6 세기에생겨난듯한이사실은이시기에환및할인업무들이라게스와니네베사이에서조직되지않았음을보여

⁴ 성서의외경 『토비트서』의주인공토비트의아들이다. 토비트가가바엘에게는 10 달란트를맡기면서증서를만들어두조각으로찢어가바엘과각자보관했는데, 토비는그증서를아버지에게서받아온을돌려받으려고가바엘을찾아간다. -역자주

준다. 하지만, 그원리는그때부터알려졌고그결과는쉽게끌어낼수있었다. 이는당장우리의논제에충분한것이다.

모든사람은환의장점을안다. 그리고환이얼마만큼의척도재를대신하는지를안다. 마르세유의한상인이리옹의한상인에게 1000 프랑을지불할의무가있고, 리옹의상인은보르도의한상인에게 1000 프랑을지불할의무가있다. 리옹의상인이자신의채권을상환받고동시에빚을갚으려면그는보르도의자기특파원에게마르세유의상인에대한환어음을발급해서보낸다. 이환어음은결과적으로마르세유사람과리옹사람의이중보증아래 1000 프랑을대표한다. 같은조작이동일한환어음으로보르도의상인과틀루즈의다른상인간에반복될수있을것이다. 이는환어음에주어지는보증을세배로해줄것이다. 그리고이런식으로무한히계속되어그증권의보증성, 그리고따라서그견고성, 그상업적가치는계속상승해그만기에도달해서지불하도록제시되기까지한다. 그러므로환어음은화폐의진정한대체물이며, 그약속이배서의경로에의거해점진적보증을획득하는만큼더욱확실한대체물이어서어떤경우에는제 1 품질의상업어음이돈보다선호되기도한다.

예금은행과함께사람들은또하나의추상으로올라갔다. 이는계산화폐와통용화폐의구분이다.

돈은모든물질및상품처럼마모, 변질, 절도그리고사기에종속된다. 다른한편, 화폐의다양성은그유통의장애물이며, 결과적으로근경의새로운원인이다. 공공예금을창조해이러움들을사라지게했다. 그예금에서는모든종류의화폐가그본원적가치대로, 그리고당좌계정에서의수수료를공제하고서받아들여지고예금의총액까지주조화폐로상환가능한물표로대체되었다. 1609 년세워진암스테르담은행은예금은행의모델로인용된다.

이처럼돈은본원적가치가없는지폐로대체되어부스러기와마모에도, 수수료에도구애받지않고, 한마디로결손을겪지않고, 그리고가장큰용이성을가지고서유통될수있었다.

그러나이처럼척도재의길을평탄하게해준것은벌것아니었다. 이를계속으로부터나오게할수단을발견하는것이필요했다. 이를마련하는데사람들은소홀하지않았다.

돈은특별한상품으로서그가치가가장공신력있고, 가장잘평가된산물이다. 따라서교환의매개이고, 모든가치평가의원형이다. 그렇다고는해도이타월한특권들에도불구하고돈은부가아니다. 돈만으로는우리의행복을위해서아무것도할수없다. 그것은말하자면부를구성해야할요소들의지도자, 분위기메이커일뿐이다.

자본가는그의재산이돈으로이루어진자이므로자신의기금을투자하고, 이를교환하고, 이를가능한만큼많이생산적으로, 돈을생산하는것으로, 즉모든종류의물건을생산하는것으로만들필요가있다. 그리고자신

複利로만들었고, 운동이시작되었다. 부를획득하는데노동과지력밖에 가진것없는계급은동업조합체제에서무서운단체를결성했다. ... 상인들은연맹을결성했다. 그들의군집, 그들의조합들이도시가되었다. 도시들은증가했고반란이유력한세력에따라붙는다. 그리고독립은언제나처럼봉기의결실이였다. ... 해양도시들은국경을열었다. ... 연합체는영국, 인도,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덴마크에지점을두었다. 함부르크, 브레멘, 뤼베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은한자 (hanssen, 연합) 도시라는이름으로유명했다. 양허를취득하기위해연맹은군주들에게돈을빌려주었고, 그렇게시민권과특권을취득했다. ... 그리고불평이제기되면, 연합은자신이발생시킨노는일꾼들의투덜댐, 자신이꿂긴민중의빈곤이군주들에게자비를구하도록, 그들나라에서이외국인주인들에게새로운특권, 즉새로운억압수단을제공하면서다시불러들이도록강제할때까지모든상거래를중단시켰고, 항구들을폐쇄했다. 이런상황에서한자연맹앞에서왕들은떨었다. ... 끝으로비밀협회들, 돈의프리메이슨회, 연맹의지회에입회하려면거쳐야하는입회식, 고문拷問, 레반트지역의제노바와베네치아의상사商社들이그랬던것처럼도시들의품안에건설된진정한요새들이있었다.”(오지에, 『공공신용의역사』)

두어마디말로해서, 도시들이공권력을창조했다. 그리고이힘에정기적으로급료를주기위해서도시들은부담금을스스로부과했다. 이는공적수입의기원이였다. 왕들은이혁신을모방하기를서둘렀다. 그리고그들이언제나차입을했으므로공적수입에이어서차입의연속에의해공공부채가지체없이형성되었다. 이처럼우리는신용이노동과농노제의품에서태어나고발달하는것을본다. 그다음으로그것은자유에의해성장하며, 때가되면정복자와군주가된다. 이때국가는우선은자신의비생산적소비를증가시켜점점멸망하기위해, 나중에는자신의소유를증식하기위해, 그리고끝으로새로운봉건제에집착하기위해이를채택한다.

오지에씨는계속해서이렇게말한다. “곧이어왕들은자치공동체들의예를따라돈을가지고전쟁에착수했다. 루이 11 세는돈에대해건전하게생각한최초의왕이다. 그는세르다뉴와루시용백작령을저당잡고아라곤의장 (Jean) 에게금화 30 만냥을대여했다. 그는또한영국의헨리 6 세에게금화 2 만냥을대여하고, 담보로칼레 Calais 시를받았다. ... 이처럼황폐화시키는전쟁에뒤를이은것은자본의전쟁이였다.”

“1509 년에루이 12 세는막시밀리아노에게속한베로나의주둔군비용을지불하는책임을맡았다. 그는이금액, 그리고막시밀리아노가아직도그에게서빌릴수있을금액들에대한담보로베로나의두성채와발레시오광장을그에게넘겨야한다고요구했다. ... 그런데, 선한왕루이가그도시가그에게속해야한다는조건에서주둔군비용을지불한다면, 우리는막시밀리아노황제가이차입에서얻는것이자기사람들을빌려주는것이아니라면무엇인지를묻는다.”

마시는것을잇는사색가들사이에서만불신자들을발견한다. 이스라엘은 금더미앞에엎드려, '이스라엘아, 너를종살이에서구해낸하느님이시다' 하고외쳤을때틀리지않았다. 그리고모세도자기백성이여전히금보다우월한능력을인정하기를원해서, 야훼처럼그들에게자유와부의창조적인 힘, 한마디로노동을보여주었을때틀리지않았다.

그러나현자가말하듯, 모든일에는때가있다. 씨뿌릴때가있고거둘때가있다. 맘몬을위한때가있고야훼를위한때가있다. 자본을위한때가있고평등을위한때가있다. 경제적창세기에서황금송배는노동송배에선행해야했다. 또한오지에씨가아주옹게인급한것처럼, 신용의모든진보는 독재에대해거둔승리다. 마치자본을가지고서우리에게자유고도출된것처럼말이다.

환어음, 예금은행, 화폐들의환전, 이자부대출, 공적차관, 당좌계정, 허구적척도재, 복리, 그리고그로부터도출되는부채상각절차는태곳적부터알려진듯하다. 배서에의한환어음의전달가능성, 영속적공공부채의창출, 신용의고급조합들은더근대적인발명품인것같다.⁶ 철화폐에서부터국정지폐, 그리고정기수령금수령권까지신용이표현되는이모든절차는엄청나게큰기계, 그작동이세상처럼오래된단한마디, 피누스foenus, 이자로정의될수있는기계의부속들로간주되어야한다. 그리고이상하기는하지만더이상우리를놀라게할수없는것은, 이자부대출의발명이자본에속하는것이아니라노동자체에, 그리고노예노동에속한다는것이다. 어디서나그리고모든시대에이자부대출이검과방패보다무서운공격및방어무기가될수있음을발견하는것은억압받는기술자들이다. 어디서나여러민족을상대로내리치기도하고낮게도하며, 잃기도하고되살리기도하는그신들린검을겨누기를기다리며대금업으로부터착취당하는것은특권카스트들, 귀족층, 왕실, 성직자계층이다.

“십자군원정의결과로자본, 토지, 그리고노역에업매인사람에게다친부동성이지체없이사라졌다. 최초의자유로운금화는빌릴수있었던최초의금화였다. 그러나최초의청산기금이최소였다면, 생산은이를복리

⁶ 이모든것들에흥미로운세부내용을제공하는오지에씨는그기원이모두페니키아라는것, 그것들을여러세기동안보전한후에중세말그리고르네상스시대에갑자기재등장시킨것이유대전통이라는것을믿는다. 나는실토헌건대필연적관념들의민족들간전수라는가설들을별로즐기지않는다. 이필연적관념들은이것들을대표하는대상물이생성되자마자공성찰에의해포착되는것이다. 언어, 종교, 산업처럼신용의조합들도그렇다. 민족마다이웃의도움없이그자신의필요의본성과정도에따라자신안에서자생적으로이것들을발달시킨다. 사회의본질에관련된모든것에대해어느민족이건장자권도, 발명의우선권도주장할수없다. 실질이든허구든, 가족이든비단이든조개껍질이든, 철이든뿔뿔화페들이금화와은행권에대해가지는관계는납근상, 개, 양파송배가주피터와야훼의송배에대해가지는것과같은관계다. 이는종교형태들처럼여러민족들의자생성에서나오는선천적인모든신용형태들로서종교형태들과같이더지적인개념과더높은수준의관념앞에서희미해질것이다.

의금화를떨어버릴이필요를그는절실히느끼는데, 가진것이땅, 집, 기계등으로되어있는자본가가자신의사업을위해금화를장만할필요를느끼는것과마찬가지로절실히느낀다.

그러므로이두자본가들이자신들의자본에생산을시키려면, 그들이자본을연합할필요가있다. 그러나연합은그사람에게는필요한것인만큼협오스럽다. 그리고산업인도, 돈을가진자도서로친하게지내기를구하면서도연합을이루는데는동의하지않을것이다. 하나의수단이그들의협오감을강압하지않고도그들의욕망을만족시키도록등장한다. 이는척도재의보유자가산업인에게자신의기금을대여하되담보로이산업인의동산및부동산자본, 그리고이에더해이득이나이자를받는것이다.

오컨대이러한것이신용의최초의발현이다. 혹은그학파가말하듯이신용의명제다.

화폐는그것이다른상품들위로아무리높이있어도곧바로교환의수단으로서는무게, 부피, 마모, 변질, 희소성, 운송의곤란함등상당한불편함을지닌것으로나타나며, 돈을그자체로본다면, 주권자의서명이있고언제나그리고어떤종류의산물에대해서도수용될수있는이담보의도움으로누구나모든가능한재화들을조달할확신을가지게되니, 그소재와가치에서신용의완벽한담보가된다고하더라도가치들의대표물이자유통수단으로서바로이돈은단점들을가지며아쉬움을남긴다는것, 한마디로신용의불완전한증표라는것이된다.

상업적재능이그모든노력을기울이는것을우리가보게될것인데, 이는척도재의이고유한폐단을바로잡으려는것이다.

두번째항, 신용기관들의정반대계열은먼저계열의역, 어떤의미에서는부정이다. 그것은유통은행과할인은행그리고은행권, (불환) 지폐 papiers-monnaie, 태환지폐 monnaie de papier, 국정지폐 assignat 등과관련된모든것을포괄한다. 다음은이발생의메커니즘이다.

내가이형이상학적공식들을끊임없이환기하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란다. 나는벌써앞의모든국면들이공식들로가져갔으며, 그공식들안에또한신용의다양한형태들을넣었다. 이에대해성찰한다면, 첫눈에아주흥해보이고우리의문학적관습에아주생소한이장치가결국우리에게역사의열쇠를주어, 의식과확실성을가지고우리조직의본능적이고굴곡이심한사업을추진할수단을유일하게제공하는사회의대수학, 지적인수단이라는것을이해할것으로나는희망한다. 게다가우리민족은벌써민족을위협하는, 그리고 16년전부터민족에게받아들이게만들려고애를쓰고있지만아주한심하게도성공하지못한정치적추락을피하려면그타락한문학의비루함, 썩어빠진논단과상업언론의수다를포기할때다.

은행권은그배후에담보물, 즉그것이대표하는척도재를가지고있어서아직은결코허구가아니다. 이는아주간단히하나의추상이다. 즉그것

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그리고 그 존재가 은행권의 보증을 이루는 사실이 나뉘는 질에서 떨어진 하나의 진실이다. 이 나라에서 은행권은 화폐의 행복하고 편리한 대용물이지만, 화폐를 증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환어음과 예금인정을 조합시켜 은행권이 이제부터 취득할 능력이다.

환어음이 지불시에 화폐처럼 받아들여지니,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모든 종류의 산물과 교환될 수 있으니, 그것은 또한 돈과도 교환될 수 있다. 이로부터 유통은행, 즉 상업어음을 수수료의 이득을 보면서 할인해주는 할인자의 직업이 나온다.

자신의 어음으로 돈을 만든 상인은 그러므로 이런 조작 없이 는 그에 게 잡자는 자본으로, 따라서 비생산적 자본으로 남아 있을 자본을 처분 가능한 것으로 보우하는 입장에 놓인다. 환어음 총액을 가지고 그는 새로운 가치물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상품들을 결제한다. 생산에서의 신속성, 산물의 증대, 자본의 증식, 이런 것들이 할인의 결과물들이다.

그러나 산업가의 예를 따라서, 그 기술이라고는 금화를 종이돈으로 교환하고 종이돈을 금화로 교환하는 것 뿐인 은행가는 자기 자신이 보증을 서서 자기 자신의 집을 근거로 종이돈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명목적인 것이 든 그것을 제시하는 보유자에게 상환 가능한 것이 든 물표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은행가는 그 상업기금이 100 만 프랑 수준이어서 이 100 만 프랑을 40 일이라는 평균 만기의 어음과 교환한 후에 3 주가 지나고 나면 금고에 1 상 탸도 없게, 따라서 새로운 할인을 하기가 물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은행가가 척도 재로 복귀시킬 확신을 가지는 증서 이상을 현금 대신에 보유하지 않으므로 그는 이 복귀를 근거로 환어음을 발급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은행권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이 은행권은 상거래자에게 진짜 화폐처럼 수용될 것이며, 그렇기는 해도 모든 환어음처럼 상환의 약속이 될 뿐일 것이다.

이처럼 은행권은 여전히 신용의 처음 시대에 창조된, 그러나 말하자면 제 공을 환어음이다. 이는 환어음들로 인수된 가치들에 대해서 명이 된 환어음이다. 바로 거기서 허구가 시작된다. 게다가 이 조작보다 더 논리적인 것도 없다.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는 예치와 할인의 조합된 두 원리로부터 결과로 나온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가 장정당한 결과들 안에서 추구된 은행권은 기괴한 남용, 신용 자체의 뒤집힘을 가져온다.

실제로, 그리고 이론만을 참조할 때, 모든 상업어음은 은행가가 직업 상 예측해야 하는 그런 우연한 사태들을 제외하고는 요구불이거나 만기형으로 상환되어야 하니, 은행가가 그 증서들의 현금 복귀와 자신의 은행권이 제시되는 것을 일치시키는 배려를 한다는 조건, 물질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유예를 규정하는 배려를 한다는 조건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인할 가치물을 가져오는 만큼의 환어음을 발행하고 은행권을 발행하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수학적으로 이 이론은 흡잡을 데

에 의해서 살아간다. 실행에서 교차를 행하는 것이 사회에 때로 허락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이제 신용의 아주 자생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기도한 이 경이로운 운동을 성찰해 보자. 그리고 이 섭리적 필연성의 증거를 부각시키려 노력해 보자.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발걸음마다 마주치는 이 두 항, 사람이 그 비자발적 증가자인 것으로 보이는 이 두 항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노니 오지에 씨를 아주 크게 놀라게 하고 인간의 무오류성의 가장 덜 애매한 증거인 필연성의 두 항인 것이다.

화폐가 없는 것이 가능했는가? 인간 노동의 모든 산물 간에 다른 것들보다 더 상업적인 가치를 지닌 어떤 산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를 묻는 각과 같은 질문이다. 금과 은 대신에 사회가 공동의 평가 척도로서 밀, 철, 비단 혹은 가치가 더 큰, 가변성을 지닌, 그리고 유통이 더 어려운 다른 모든 상품을 채택했다면 진보가 다소 늦어졌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나가면서 관찰하기로 하자.

화폐는 일단 발명이 되고 나서 일반적 탐욕의 대상물,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가장 필요한 물건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척도 재의 더 많은 양을 제작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대신에 이를 미루기만 하니, 돈의 척도 로 모든 자본과 산물을 평가한 후에 이것들을 추려내 어 돈처럼 유통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용감하게 말하자. 이 모든 것은 불가피했다. 이 모든 것은 운명의 책에 적힌 것처럼 인간의 뇌에 적혔다. 이 순간부터 인류가 따라가는 길은 참된 길이었으며, 인류가 한 작업은 정당화되었다. 한 순간 사회주의가 교회 의 입에서 표출되어 경제 제 정신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 자를 받는 대출을 금지해 사회들의 진행을 멈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는 섭리 자체에 의 한 섭리의 부정과 같았다. 이 교도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보편적 이성 에 맞선, 기독교적이 된 보편적 양심의 항의와 같았다. 언제나 로마가 톨릭주의의 기초였던 사회주의는 그때부터 인류가 완벽한 신용 조직을 가지 고서 도충만한 경쟁을 하면서 전진하지 못한 것처럼 전진하지 못하리라는 것, 빈곤과 풍요만 각자 나름대로 전진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래서 더 완전한, 덜 이기적인, 그리고 특히 덜 환상적인 법칙을 주장했다. 불행히도 로마와 공의회들이 인기라는 잘못된 정신에 떠밀려 자본을 엄벌하고 이 자를 금지했던 시대에 자유가 정복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 정복이 재산권에 의 해, 그리고 따라서 이 자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으므로 교회는 자신의 버 락을 거두고 그 과문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세기의 질병은 금에 대한 목마름, 즉 신용의 필요다. 이에 무슨 놀라운 것이 있는가? 위선적 도덕, 허기진 문학, 그리고 퇴보적 민주주의의 가운 행의 지배와 금송아지 숭배에 격렬히 항의해도, 이 똑똑하지 못한 저주들은 관념의 승리의 행진을 비난하는 것 뿐이다. 시나이 이래로 금송아지는 인류 가 숭배하는 신, 강한 신, 불굴의 신으로서, 모세처럼 산위에서 먹는 것과

① 완벽한담보, 이담보는은행의지금地金과금궤들처럼존재하는, 실질적이고더이상허구적이아닌자본일것이기때문이다.

② 완벽한신호, 휴대성이뛰어나고, 본원적가치가무일것이기때문이다.

③ 생산적화폐, 생산전체에서자본들의소유권일것이기때문이다.

게다가이은행권들은화폐의사용을폐지하지않을것이다. 이는화폐의사용을단지줄이고이를부차적역할로제한할것이다. 이는은행권과불환지폐의허구를그치게하지않을것이지만, 화폐와신용증서는말하자면 새로운유가증권창조에표준으로소용되었음에도불구하고, 새로운유가증권들은그구성원리들에관해유기적조합의저높이에서그것들을지배할것이며, 그것들을정당한계안에잡아둘것이다.

저자는그다음으로이방대한가치물의발권의출발점이되는중앙기관의조직에관해, 부차적은행들의위계에관해, 취해야할예방조치, 따라야할진행경로, 뒷받침이되는예들에관해깊고상세한내용에들어간다. 그는자신의기획에서이를 4 분의 3 은이해하고, 자기멋대로손질해업청난유명세를타고그저자를망각하게하는어떤허깨비위정자에게동의하는것말고는빠뜨린것이없다.

끝으로이재미난저작에관해모든것을말하자면, 저자의친구이자동포인콩세르바투아르데자르에메티에의비교입법교수가토지신용의조직기획을퍼낸출처가바로거기다. 이는높은위상의기획으로, 가장저명하고이문제에서가장유자격한사람들의가입을받은기획이다.

그러므로그와같은것이모든가능한신용기관들의정상적이고완벽한발달이다. 생산된, 그리고생산가능한모든가치물, 투자된모든자본과토지를포괄하는이이론을넘어서는것은아무것도없으니말이다.

첫번째진화: 환어음, 담보부대출, 예금은행.

두번째진화: 유통및할인은행, 신용증서, 불환지폐, 국정지폐.

세번째진화: 이자를납는은행권으로대표되는모든자본의구출.

치에슈코프스키씨의체계는앞의두개의필연적결과인데그것은실현될것인가? 사회를사로잡는경제적운동만참조하자면, 이를믿을수있다. 프랑스에서모든관념들은저당의개혁에, 그리고토지신용의조직에속하는데, 다소비판받는형태에서이체계의적용을강제로끌어들인다. 치에슈코프스키씨는진정한예술가에게기획의이상을그려주었다. 그는사회의모든극적개혁들이종속하는경제법칙을묘사한다. 그이후로응용의다채로운형태들과세부사항의변경들은별로중요하지않다. 그관념은이론가로서의자격에서, 그리고심지어실현의경우에는예언가로서의자격에서그의것이다. 치에슈코프스키씨는한마디로사회조직의가장진기한국면들중하나를이야기했다. 여기서역사안에공백이존재하는것은가능하다. 이공백은과학에는존재하지않을것이다. 사회는감각보다더정신

없다. 은행업자들의환어음은, 내가감히이런인쇄업자의용어를사용한다면, 그가할인환어음의이면인쇄 retirement 일뿐이니말이다. 그래서우리는이극단적결과에도달하며, 은행의상거래는무일품으로행해질수있다. 이를위해서는시스몽디씨가섬세하게언급한것처럼상인은은행에게신용을요구하는대신에은행가신에게신용을주는것으로충분하다. 더있다. 은행이돈대신에할인하러오는상인들에게자신의돈주머니에대해발급된환어음을건네주게하는원리는곧장화폐의부정, 상거래로부터의화폐의축출을가져온다. 그후로는한기업의이득이어떨것인지상상해보라. 주권자로부터주어지는특권에힘입어한제국의모든상거래를포괄할수있고, 극히작은금조각도보유하지않으면서서금의위력을중화시키고, 모든가치물들의환업무를수행하며, 수십억프랑의자본에서순이익을끌어낼수있는기업의이득말이다!

우리생각에따르면, 그러한것이저명한로가그의왕립은행아이디어에까지도달한추론의계열이었다. 이는처음에는금고에아무것도가지지않고오로지 (관념에실체를부여하기위해) 미시시피강의거대한개발에만의존해상업어음전체를할인했던것같고, 그은행이현금에대환교환으로내놓을유가증권을통해서만큼이나척도재를점점대체해나온그은행의은행권유통을통해서국가의금고들안에있는왕국의금속으로된모든부를끌어들였던것같다. 로는그의관념들의논리에이끌려서, 그리고국가의상위보장에의한자기체계의도덕성을확신해서, 실질적담보를제공하지않고도신용을출능력이그에게는일상적인명상의주제였는데, 자신의어리석은관념을진지하게받아들였는가, 아니면그를대담한사기꾼으로만보아서는안되는가? 이야말로놀라운모험의단순한해설을하면서내가감히판단하지않을것이다. 확실한것은오늘날경제학자들이정치경제학의철학을이해하지못하는것처럼로도, 그시대의누구도신용이론을철저히보유하지못했다는것이다. 그리고무언가가로에게핑계가될수있다면, 이는선의善意다. 경제학자들이거기서아무것도보지못하면서자유무역, 무한경쟁, 누진적이고공정한조세, 신용조직등그들의유평아를, 즉독점의공정에의한독점의부정을추구하는경탄할만한경솔함이다.

로의체계에관해서는어떠하든지간에, 신용이론에서돈의사용이돈의불사용을가져온다는것이과학에알려진것임은변함없다. 그리고한유명한경제학자데이비드리카도가화폐가완전히배제된다른유통및할인체계를만든것도한이이론을응용한것이다. 그러므로이와같이우리는출발점에서예금은행, 즉상인에게현금을배송하기위해은행이그가보유한현금을요구하는것으로시작하는체계를가진다. 이는돈을전혀보유하지않는자누구에게나신용의무효를함의하는것이다. 터무니없다. 이론의다른한편에서우리는유통은행, 즉돈을만들기위해서는그가치가전무한

정사각형종이만있으면충분하다는결론을내는체계를가진다. 터무니없다.

이터무니없음은화폐의원리로, 가치들의구성이론으로거슬러올라가유통은행의원리를모든종류의산물에적용해일반화한다면더욱부각된다. 실제로은행가가환어음을자신에대해발행하고그런식으로허구적인, 그러나실질적인것으로받아들여지는가치를상거래에넣는것처럼, 모든산업기업가, 모든상인은공모자의도움으로그가결코하지않은인도분에대해, 그가보유하지도않은산물에대해환어음을발행할수있다. 그래서이메커니즘을가지고서은행권들은상업수요에따라증식해국가는산물을가지지도못하고 1 상팀의가치도보유하지못한채수천억의거래의움직임에도달할것이다. 할인은행의원리의이적용은상업에서는빈번한데, 거기서는이를유통이라는단어로지칭한다. 이는부적절한용어이지만, 허구를가지고돈을만들면서최후의수단에호소하는사람의입장을특정짓는데사용하기로사람들이동의한용어다. 공화정에서국정화폐의반복된발행은다른것이아니었다.

그런데이메커니즘의모순을이해했다기보다는어렵뜻이느끼고약한세기까지난후부터도수많은다른정치경제학의폐단처럼이를극단적인것들간의타협말고다른방법으로는여전히치유할줄을몰랐다.

두조작방식⁵이겹쳤으며, 모든능숙한숨씨는중용의입장을유지하는데있다. 이처럼, 은행이에금은행으로서그리고동시에유통및할인은행으로서기능하면서설명없이그금속가치물이상으로 4 분의 1 에서 3 분의 1 까지은행권을발행할수있다는것이양해되는데, 경제학자들은이올타리를벗어나지못한다. 거기서일상관행은멈추고정치경제학은더멀리나가지못한다.

그러므로신용의세번째조합, 즉돈을매개로구성되지않은가치들의유통을마련할세번째양식을시도할일이남았다. 왜냐하면, 앞의두양식간의상반성, 경제학적혼합물이풀지못하는상반성이존재하니, 이는다른두항을조화시켜이것들을보완하고완성하는세번째항이자리잡아야한다는신호다. 그러한것은치에슈코프스키씨가시도한작업이다.

그는지금까지우리가신용의수단들로서다음의것을보유하지만이는서로분리된것이라고말한다.

- ① 화폐, 완벽한담보이지만신용의불완전한신호.
- ② 은행권, 불완전하거나오히려무효인담보이지만신용의완벽한신호.

그안에서유통의매체가한꺼번에그리고동일한정도로돈과같은완벽한담보, 은행권과같은완벽한신호, 게다가이익의법칙에따라토지와자

본처럼생산적이고따라서실업을할가능성이없는조합을발견하는것이중요하다.

이조합이존재한다고치에슈코프스키씨는대답한다. 그리고그는가장아름다운철학적인언어로, 그리고가장완전한경험으로이를입증해보인다. 이는그것을경제학자들과철학자들에게거의이해가안되는것으로만들어줄두특질이다. 치에슈코프스키씨의관념들에대한마찬가지로신속한설명에서나는이작가에게피해를줄수밖에없다. 그렇기는하지만나는나자신의관념들을그의관념들에몇차례더해그의세계에대한일별을제공하고자할것이다.

한번더원리들로거슬러올라가보자.

화폐는모든상품들중에그가치가아무리가변적이라도결국에는구성되고평가되는유일한상품이다. 귀금속들이모든산물에대한공통의평가자로이용되는것은귀금속들의이특권에속하는것이다.

신용의궁극적목표는모든가치들의구성에도달하는것이다. 즉, 그가치들을화폐화된금과은처럼모든지불시에수용가능하게하는것이다. 이는명백히분배의문제를푸는것, 노동의범위에평등을기초시키는것, 그리고같은발걸음으로인류를개인적자유와가능한연합의최고정도로가져가는것이다.

우리는사회의화신이이결과에도달하기위해서동화 assimilation 을통해진행한다고말했다. 즉이어지는추상들과허구들을수단으로모든생산된가치를돈의예에따라유통가능하게만드는경향을띠지만그럼에도사전적평가의조건은없다. 그밖에가치의몸이물리적으로손을바꾸는것은별로중요하지않다. 유통을위해서는재산권의이전인있는것으로충분하다. 이처럼은행권은은행에쌓인부의일부분을표현하는한편그보유자에게는이은행권에적힌금액의실제적보유와동가다. 마찬가지로이처럼판매되는상품의규정되고수용되는가격은환어음의형태에서화폐가될수있다.

그러므로판매되고양도된가치물을대표하는돈만이아니라, 돈을대표하는은행권만이아니라, 끝으로환어음과기한이정해지고인수를거부할수있는다른채권들만이아니라, 판매되지않은가치물들, 이가치물들의생산에소용되는노동수단들, 토지, 노동자체도유통의이득어떻게참여하게할지, 어떻게신용에도움이되게할지를질문하게된다.

그리고다음은치에슈코프스키씨가대답하는것이다.

소득에서만큼자본에서도한민족의동산으로이루어진부와부동산으로이루어진부를평가한후, 재산권들을보유자의보장을위해나누어떨어지는부분(물건가치의절반, 3 분의 1, 혹은 4 분의 1) 을공제한다음, 교환가능하고, 조세납부와모든성격의지불에서수용가능한은행권으로만든다면, 이새로운유통매개에서다음을가지게될것이다.

⁵ 위에서말한, 예금은행과유통은행의조작방식을말한다.-역자주

소유권자가 기사다운 자유분방함으로 과학의 권유에 양보하고 노동에 그 생산물을 개량하고 늘리는 것을 허락한다고 가정하자. 그로부터 엄청난 선이 일용노동자와 시골사람들에게 생겨날 것이며, 그들의 피로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생필품 가격의 인하에 의해 두 배로 지불받는 입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자는 말한다. 아주 딱 떨어지는 이득을 포기한다면 나는 아주 바보 같을 것이다! 100 일의 노동 대신 나는 50 일만 지불할 것이다. 이익을 볼 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나다 — 하지만 그러면 프롤레타리아는 한번 더 실직할 것이니, 이전보다 더 불행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라 — 그것은 내게는 관계 없다고 소유권자가 대꾸한다. 나는 내 권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남들은 할 수 있으면 재산을 사라고 해라. 아니면 그들이 수천명, 수백만 명이라면 다른 데 가서 재산을 구하라고 해라!

모든 소유권자는 가슴 깊숙이 이런 살인적인 사고를 조장한다. 그리고 경쟁, 독점, 신용에 의해서처럼 침투가 항상 확장되므로, 노동자들은 끊임 없이 땅에서 제거되는 처지에 놓인다. 소유권은 땅의 인구 축소다.

그러므로 이처럼 소유권자의 지대는 산업의 진보와 결합되어 노동자의 발밑에 독점에 의해 파인 구덩이를 심연으로 바꾸어 놓는다. 악은 특권과 함께 심각해진다. 소유권자의 지대는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상속 재산이 아니다. 말하자면 경작비용이 결제된 후 남은 농산물의 이 부분으로서 토지 같은 축적된 자본을 생산에 끊임 없이 제공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이론에 따르면 노동에 새로운 개발 이용의 소재로서 언제나 소용될, 그리고 더 많이 노동할수록 더 확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 말이다. 지대는 소유권자에게는 그의 음담함의 담보물, 그의 고독한 향락의 수단이었다. 그리고 남용하는 소유권자가 자선과 도덕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법 앞에서는 무죄임에 변함 없고 정치 경제학에서는 공격이 불가능한 채로 있는 것에 주목하라. 자신의 소득을 먹어 치우는 것! 무엇이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합법적인가? 명사들의 견해에서처럼 인민의 견해도 비생산적 소비는 탁월하게 소유권자의 덕목이다. 사회의 모든 곤경은 이 사라지지 않는 이기주의에서 유래한다.

토지의 개발 이용을 쉽게 하고 여러 지방이 서로 관계를 갖게 하려면 도로, 운하가 필요하다. 이미 설계도는 되어 있다. 이쪽의 가장자리, 저쪽의 길쭉한 땅, 나쁜 땅 몇 헥타르를 희생시킬 것이고 그러면 길이 열린다. 그러나 소유권자는 울리는 음성으로 외친다. 나는 원치 않는다고. 그리고 아무서운 거 부권 앞에 집정관은 옛날에 감히 강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국가가 과감히 대답했다. 나는 원한다고! 하지만 이 영웅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얼마나 주저했을 것이며,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얼마나 고뇌했을 것인가. 얼마나 조정을 했을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쳤겠는가! 인민은 이 권위적 조치에 비싼 값을 지불했으며, 그 축진자들이 소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어리둥절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계산할 수 없어 보이는 선례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 이 루비콘 강을 건넌 후 다리는 끊어질 것이라고, 그 정도로 그

쉬움 탓에 가정의 평화를 교란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먹고 살 것도 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저축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리고 어떤이 성적 모습을 결여하지 않으려고 그 원리 자체를 공격하지 않으며 그 저자들의 나쁜 양심을 보여주는 데만 소용이 된 천 가지 허튼 소리가 있었다.

“1843년 12월 31일에 공탁소가 왕국의 주요 제조업 도시들의 저축 금고에 지불해야 할 잔고 액수는 다음과 같았다.”

생강탕

1,255,000(프랑)

스당

800,000

트루아

1,881,000

루비에

680,000

넵

113

1,675,000

생태티엔

2,606,000

리브드제

130,000

랭스

1,813,000

릴

4,412,000

뮐루즈

1,081,000

114

효다. 그런데비의무적인조건의성취에기초를둔일체의협정은의무를부여하지않는다는원칙덕분에, 우리가앞서서확정한목적에서특권보유자와국가간에체결된암묵적인소유권계약은명백히환상이다. 그것은비호혜성에의해, 쌍방중한쪽의피해에의해무효화된다. 그리고소유권문제에서의무의이행은양허자체가그것만으로철회되지못하면요구가능한것일수없으므로, 따라서정의定義에모순이있고, 협정에비일관성이있다. 계약자들은그후에그들의협약을유지하는데집착한다면, 사물의힘은그들이쓸데없는일을한다는것을그들에게증명해주는일을떠맡는다. 그럼에도그들의적대관계의숙명은그들간에불화를가져온다.

모든경제학자들이, 영도의파편화가농업생산에폐단이됨을지적한다. 이점에서사회주의자들과의견일치를이루면서그들은큰규모에서작동하고기술의위력적공정절차를적용하고물자를크게절약해서생산물을아마도두배, 네배로늘릴총체적개발을환호하며보게될것이다. 그러나소유권자는“나는금한다 veto”고말한다. 나는원치않는다는것이다. 그리고이그의권리이므로, 세상에아무도수탈에의한것과다르게이권리를바꿀수단을알지못하고, 수탈은무無이므로, 입법자, 경제학자, 프롤레타리아는미지의일앞에서기겁하고물러서며, 멀리서약속된수확에인사하는데만족한다. 소유권자는성격상공공선을시샘한다. 그는소유권을상실하지않고는이악을청산할수없을것이다.

그러므로소유권은노동과부에장애물이되고, 사회경제에장애물이된다. 이에놀라는것은경제학자들과법조인들말고없다. 나는어떻게진말하지않고단박에이사실을그들의정신에넣어줄수있을지를찾는다.

우리가각자하루에지출할돈이 56 상탔밖에없어서가난하다는것은참이아닌가? 그렇다. 이는슈발리에씨의대답이다.

더나은농업체계가물자비용에서 10 분의 9 를절약할것이며, 생산물을네배로해주리라는것은참이아닌가? 그렇다. 이는아서영 (Arthur Young) 씨의대답이다.

프랑스에는소유권자 600 만, 토지세납세의무자 1100 만, 그리고필지 1 억 2300 만이있다는것이참이아닌가? 그렇다. 이는뒤누아예씨의대답이다.

그러므로소유권자 600 만, 토지세납세의무자 1100 만, 그리고필지 1 억 2300 만이없어야질서가농업에서지배하고인당하루 56 상탔반대신우리가 2 프랑 25 상탔을가지게된다. 이는우리를모두부자로만들어줄것이다.

그리고이 1 억 4 천만의공공의부에대한반대세력은어째서있는가? 노동에서의협력이소유권의매력을파괴할것이므로, 소유권밖에서우리의눈은아무것도보지못했고, 우리의귀는아무것도듣지못했고, 우리의심장은아무것도이해하지못했으므로, 끝으로우리는소유권자들이므로.

167

하고, 소유권이상의것은상상하지못하는데사회가어떻게소유권을더높은관념에맞서보호할것인가?

리옹

그러므로다음은소유권이론이무엇인가하는것이다.

소유권은섭리적필연에서나온다. 집단이성은이를신에게서받아사람에게주었다. 지금소유권이그본성상부패가능하거나불가항력에의해공격가능하다면, 사회는책임이없다. 그리고누구든지이힘으로무장하고서소유권과싸우려나설자에게사회는굴복하고복종해야한다.

7,589,000

그러므로우선소유권이그자체로부패가능하고파괴를초래하는것인지, 둘째로, 경제적병기창고에소유권을이길수있는수단이존재하는지를아는것이중요하다.

루앙

나는이절에서첫째문제를다룰것이다. 우리는궁극적으로소유권을집어삼키겠다고위협하는적이어떤것인지를찾아볼것이다.

6,158,000

소유권은사용하고남용할권리, 한마디로하면독재 despotisme 다. 독재자가그것을파괴할의도를가지는것으로추정되는것이전혀아니다. 이는사용하고남용할권리라는말로이해해야할것이아니다. 파괴를위한파괴는소유권자쪽에있는것으로예단되지않는다. 언제나그가자신의재물을어떻게사용하든지그에게는편의와쓸모의동기가있음이가정된다. 남용에의해입법자는소유권자가그의재물의사용에서잘못된사용에대해결코추궁을당하지않으면서, 누구앞에서도그의오류에대해책임을지지않으면서오류를범할권리를가진다고말하고자한것이다. 소유권자는언제나그의최대이익이되게행동하는것으로여겨지며, 사회가그에게그의독점물을사용하고남용할권리를준것은이익추구에서그에게더많은자유를남겨주기위한것이다. 그러므로거기까지는소유권의권한은나무랄데없다.

아미앵

4,784,000

그러나이권한이단지개인을존중하는것으로만양허되지않았음을환기하자. 양허의동기들에대한해설에는모두가사회적인고려사항들이존재한다. 그계약은사회와사람사이에쌍무적이다. 이는정말이고, 소유권자들로부터도실도되어서, 그들의특권이공격을받을때마다그들은사회이익으로, 오직사회이익으로이를수호한다.

아브빌

1,386,000

그러나소유권의독재는사회에만족을주는가? 왜냐하면, 그렇지않다면, 호혜성이환상이라서협정은무효일것이며조만간소유권이나사회는멸망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나는질문을반복한다. 소유권의독재는사회에대한의무를이행하는가? 소유권독재는선량한가부장으로서사용하는가? 그는본질상을바르고, 사회적이고, 인간적인가? 바로이것이질문이다.

리모주

467,000

그리고나는이에대해서반증을두려워하지않고대답한다.

개인적자유관점에서소유권의양허가필요했던것이의심할바없다면, 법적인관점에서소유권의양허는양수자쪽에서는이행하거나이행하지않는것이그에게임의선택인일정한의무를내포하므로근원적으로무

15 개도시

∴ (역자주) 합계는 36,717,000 프랑이 되어야 맞는다.

내가 이상세내용을 빌려온 출처인 픽스씨는 이렇게 덧붙인다. “이야말로 모든 갈래를 가진 우리의 주요 산업들을 대표하는 영토 전체에서 선택된 지점들이다. 이 여러 저축 금고들의 보조를 참조할 때 모든 범주의 일꾼들이 예금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어떠한 노동계급도 특별히 빈곤을 겪고 절약을 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축 금고들의 보고가 포함하는 상세내용은 이 단언을 충분히 확인해준다. 예금자들 중에는 극히 다양한 직종의 일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의 모든 구분 nuances 들이 제시된다. 이는 남자들, 모든 연령의 여자들, 미성년들, 독신자들, 약혼한 개인들 등이다.”

이 결과들을 대면한 픽스씨는 이렇게 질문한다.

“이는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제도들과 우리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증언 해주지 않는가?”

그리고 그는 선의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이 사실들은 그것이 아무리 위안이 되더라도 노동계급의 상황이 만족스럽다는, 노동자들의 조건이 행복하다는, 어떠한 개선도 실현할 것이 없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언명들은 물러갈지 어대! 이 세상에는 한 없는 자선, 모든 우수한 정신을 가진 자들의 명상, 그리고 고이 두 가지 노력에서 나오게 될 실천적 수단들이 치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빈곤이 있다. 고통에서 달리는 것은 너무나도 실질적 일 따름이다. 결코 이를 사라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

하지만 끝으로 픽스씨가 방금 주장한 것처럼 정치경제학이 부의 진보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이라면, 그것이 그 가지 금단언하는 것처럼 빈곤을 사라지게 하는데 무능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는 이 명백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픽스씨는 좀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곧 그의 결론으로 간다. 이는 지상의 행복이 우리의 미래 운명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경제학은 경제학자들에게 수수께끼이며, 픽스씨는 이를 짐작하지 못한 것이다.

독자들이여, 나는 당신이 그보다 더 앞서 있다고 감히 기대한다.

픽스씨가 아주 현명하게 고찰했듯이 모든 범주의 일꾼들이 저축 금고의 예금에 참여하며, 예금자들 중에는 모든 성성의, 모든 연령의 그리고 모든 조건의 개인들이 있다. 이는 모든 조건이 부의 수단으로서 동등하다는 것, 모든 연령, 사회 생활의 모든 순간에 사람은 생산자일 수 있고,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장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처럼 새로이 입증되는 것

소유권은 독점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독점처럼 자생적, 필연적, 보편적 사실이다. 그러나 소유권은 여론의 호의를 입는 반면 독점은 경멸의 감정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새로운 예를 통해, 사회가 투쟁에 의해 성립되는 것처럼 과학은 논쟁에 의해 추진을 받아서만 진행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투쟁은 차례로 높여졌다가 조롱을 당했고, 조세는 경제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그들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졌고, 이자부대출은 정죄되었다가 이어서 찬양되었고, 무역수지 균형, 기계, 노동분업은 공중의 칭찬과 저주를 차례로 불러일으켰다. 소유권은 신성하고 독점은 낙인이 찍혔다. 우리의 편견과 비일관성의 끝을 언제 나 보게 될 것인가?

III. 소유권은 어떻게 타락하는가

소유권에 의거해 사회는 유익하고, 칭찬할 만하고, 게다가 불가피한 사고를 실현했다. 나는 사회가 어찌할 수 없는 필연성에 복종하면서 불가능한 가설에 뛰어들었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나는 소유권의 성립을 주관한 어떠한 동기들도 잊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심지어 이 순간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이 동기들에 충체와 명증성을 부여했노라고 감히 말한다. 독자께서는 내가 본의 아니게 누락할 수 있었던 것을 보충해주시기 바란다. 나는 독자의 모든 추론을 수용하고 아무런 논박을 할 생각도 없다고 미리 말씀드린다. 그러나 이어서 독자께서는 양심에 손을 얹고서, 내가 하려고 하는 역증명에 대답할 것을 발견하면 내게 말해주시기 바란다.

의심의 여지 없이 집단적이성은 일련의 섭리적 제도들에 따라 독점을 공고화하는 것을 금하는 운명의 질서에 복종하면서 자기의 무를 다했다. 그 행실은 나무랄 데 없으며,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인류가 가진 능력의 가장 큰 발휘는 그것에 복종할 줄 아는 것인 것처럼, 집단적이성에 있는 숙명적인 것을 인식할 줄 아는 것은 인류의 승리다. 그러므로 집단적이성이 소유권을 제정해 그것의 명령을 따랐다면,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다. 그의 책임은 면해진다.

그러나 이 소유권은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약을 받아, 말하자면 양성화 陽性化한 것으로서, 그것이 지속하리라고 누가 우리에게 보장하는가? 이를 저위에서 구상했고, 거기에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하지 못했던 것은 사회가 아니다. 사람에게 이를 수여하면서 사회는 소유권에 그 장점과 단점을 남겨두었다. 그것을 구성하는 폐단들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파괴할 수 있는 상위의 힘들에 대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 소유권 자체가 부패 가능하다면 사회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소유권이 더 강한 원리의 공격에 노출되면, 사회는 더구나 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유권이 운명의 딸이니, 실제로 사회는 소유권의 고유한 폐단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 자체가 소유권에 의해서만 존속

으로거두는모든것을사회에보고해야할책임은진노동자에불과하며, 차지및분소작, 가축임대차, 장기임대차등의제도는사회의이름으로소유권자와차지인사이에일어나는계약의진자운동형태들이다. 지대는모든가치물들과마찬가지로공급과수요에좌우된다. 하지만또한모든가치물과마찬가지로지대는그정확한크기를가지며이는소유권자에게는이익이고경작자에게는손해가되도록산물에서생산비용을공제한총액으로표현된다.

그러므로본질과목적지때문에지대는분배정의의수단이며, 경제적천재가평등에도달하기위해작동시키는천가지수단중하나다. 이는소유권자와차지인에의해모순적으로, 가능한한충돌없이, 상위이익을위해작성되는엄청난토지대장으로, 그최종결과는토지개발자들과산업인들간에토지소유를평등하게하는것이여야한다. 지대는한마디로모든노동자, 모든사람, 소유자들을토지와그결실에대해평등하게만들어야할아주요망되는농지법이다. 소작인에게서그가자기것으로간주하지않을수없는, 그리고그가배타적으로그주인이라고믿는산물초과분을빼앗으려면이런소유권의마법정도는필요했다. 지대는, 더제대로말해서소유권은, 농업의이기심을깨뜨렸으며어떠한권능도, 어떠한도지분점도생겨나게할수없을연대성을창출했다. 소유권에의해모든사람들간의평등은확정적으로가능하게된다. 지대가개인들간에민족들간의세관처럼작동해서불평등의모든원인들, 모든평계들이사라지고, 사회는이운동에추진력을줄지렛대이상을기다리지않는다. 어떻게신화적인소유권자를진짜소유권자가게승할것인가? 어떻게소유권을과파하면서사람들이모두소유권자가될것인가? 그런것이이제부터풀어야할문제이지만, 지대없이는풀수없는문제다.

왜냐하면사회의화신은이데올로그들이하는식으로척박한추상에의거해진행하지않기때문이다. 그는왕조의이익도, 국가이성도, 선거권도, 대의제이론도, 인도적, 애국적감정도걱정하지않는다. 그는언제나자신의관념들을인격화하거나실현한다. 그의체계는일련의화신化身과사실들로전개되며, 사회를구성하기위해그는언제나개인을향한다. 신용의위대한시기후에사람을땅에묵어두는것이필요했다. 사회의화신은소유권을제정한다. 그다음으로는지구의토지를측량해토지대장을만드는것이필요했다. 떠들썩하게집단적작업을공표하는대신그는개인이익들을싸우게하며, 소작인과지대수령자의전쟁으로부터사회에는가장불편부당함판이생겨난다. 현재, 소유권의도덕적효과는획득되었고, 남은일은지대를분배하는것이다. 마을의회를소집하고, 당신의옹변가들과연설가들을부르고, 경찰을강화하고, 이런독재지구에의해세상을놀라게하지않도록조심하라. 단순한교환의성호성이은행의몇몇장치의 도움을받으면, 충분할것이다. ... 가장단순한수단들을큰효과를발휘하게. 이는사회와자연의지고의법칙이다.

은, 저축금고에서여러기능들의등치성과빈곤의비정상성이다. 그런것이우리의첫째논점이다.

그러나산업상의각범주마다노동분업, 기계, 위계적조직, 독점이익, 조세의편파적배분, 신용의거짓말은무수한희생자들을내며, 다중多衆을위해인간노동의노력, 입법자의선견지명, 그리고정의와공평의모든조합들을쓸모없게만든다. 그런데이세상에서의행복실현에의해생산에서균형이결여되면것은또한분배에서도결여된다는필연성이있다. 그리고현재의운명과미래의운명간에존재할수있는대립성에대해우리가걱정하지않고적어도확실한것은, 현재의운명은그자신과합치하지않는다는것, 그리고이불합치는정치경제학에서나온다는것이다.

저축금고의보고서들이예금자들의복리에대한증거를제공한다는것을우리는기꺼이인정한다. 그러나바로이보고서들이동시에비예금자들의빈곤에대한증거를제공한다면정치경제학을편들어주는것으로증명된것이무엇이었을까? 파리에있는 40 만명의인부들과중들중에 12 만 4000 명만저축금고에등록되었다. 나머지는등록되지않았다. 그러면이들은입금을어떻게사용하는가? 두가지에가우리에게이를가르쳐줄것이다.

파리에서일정수의인쇄공은하루에 5 프랑에서 10 프랑을벌고 1 년내내노동한다. 상당수는 3 프랑에미치지못하고 2 개월간휴식을누린다. 리옹에서는어떤비단직공들은집에서여러작업을가지고있어서인적노동과그들이고용하는인부들의노동에의해 5 에서 6 프랑의소득을올릴수있다. 다중은평균적으로남자 2 프랑, 여자 1 프랑을넘지못한다. 나는이두직종에서멈춘다. 누구든내게파리에서하루에 3 프랑을못버는성인의생존이어떨수있는지, 리옹에서 1 프랑에서 2 프랑의가변적인입금을받는인부의생존이어떨수있는지를말해주기바란다. 이사람들이전혀절약하지않는다는것에우리는놀라며, 이들이극빈자명부에등장하지않는만큼더욱놀라게된다. 그러나참으로말해서이사람들은결연하게난관을극복하고나서공식적인자선한움을받는자들이나마찬가지로더이상불평할것이없는가?

당신은이렇게말할것이다. ‘이는활동력, 절약, 지성을두배로해야할경우다. 이는급여를가장적게받는인부들을위해바로설립된저축금고들과다른예방기관들을활용해야할경우다.’저축금고는빈자의예금은행이며모든은행들이그렇게시작한것처럼빈자들에게복리의경로를가기시작하게만든다는관념은행복한관념이었다.

이처럼저축금고는빈곤에대한공식적선언, 일종의조사일뿐이다. 그리고그것이빈곤에대한치료수단으로소용되기를사람들은바란다! 저축금고는그금고에아무것도낼것없는자들에게는냉정하며저축금고가만들어진것은바로이들을위해서다! 나는도덕가들이스스로그렇게어리석어지도록 40 년간노력한후에프롤레타리아에게지성, 활동그리고모든

도덕적미덕들을요구할용기를가지는것에더는놀라지않는다! 지나가기로하자.

저축금고의파괴적효과는두종류다. 사회에관련된것, 그리고개인들에관련된것이다.

사회와관련해서저축금고는자본의생산성이라는허구에기초하이허구의재앙적인효과들을드러내는가장명확한증거다. 모든저축금고의예금이 10 억프랑이되는것으로드러날때, 이는 3.5% 의이율에서는예산에 3500 만프랑의조세를더하고납세자들에게이를분산하는셈이될것이다. 그런데누가이조세를납부할것인가? 민족이다. 즉대부분은가장가난한계급, 저축금고에아무것도가지지못하는계급, 그보다작은부분은이자를지불받아야할절약하는계급, 그리고최소의부분은부유한계급이다. 이처럼저축은행은약탈을출발점으로한다. 이약탈이없다면저축은행이존재하지않을것이니말이다. 그리고약탈당한자들에게이렇게말한다. 저축금고에넣으세요! 당신은왜저축금고에넣지않으세요?

국가가예금은행의전통에충실하게, 그의보호에맡겨진기금에손을대지않고이를보전한다고가정하자. 20 년이지나면, 복리때문에국가가받았을 10 억프랑이아니라 20 억프랑을상환해야할것이다. 그러므로결국국가에는아무이득도없이상환할금액의절반의불가피한파산이있을것이다. 이가설에서안전보장이파괴되어그제도는다 불가능하다.

그러나국가가그렇게불리한조건에놓일수없으리라하는것은명백하다. 그러므로국가는아무것도떠맡지않으려면인민이절약한돈을공공서비스에배정해야할것이다. 이는저축금고를언제나열린차입으로전환하고계속입금과출금의운동을하도록하지만완전히상환불가능하게하는것이다. 선량한사람들은저축금고의설립에서부터여러차례에걸쳐, 정부가공황이일어나는날자신들의기금을돌려달라고요구하러올예금자들의쇄도에대응하는것이불가능한입장에처하게될것에대한두려움을증언했다. 한유명한팸플릿작성자는심지어이를가지고서정부에반대하는비판문을썼다. 마치정부의목표가바로상환할수없는상태에처하는것이어서는안된다는듯이! 마치불상환이그기관의필요이면서사물의질서의가장소중한보장책중하나이기도한것이아니라는듯이! 이는 「주르날 데데바」 (1845 년 12 월 30 일) 가내가생각하기에슈발리에씨가쓴기사에서아주잘이해하고공식적으로인정한것이다. 예금총액이내가 10 억프랑이되어야한다고가정한최대치에일단도달했다면, 정부는그사실의거해서, 그리고양원兩院의협조없이 10 억을차입하고지출했을것이다. 민족대표자들은결코그이익을위한투표를거절하지않을것이다. 언론이투표도없고감독도없을경우에는유일하게남아있을 6000 만이나 7000 만프랑의이자를제외하고라도권력의실험실에서증발할위험을무릅쓰는이 10 억프랑을감지하지못하면서, 정부가행하지못하도록기각

아니다. 그것은보편적으로만드는것이중요한기능이다. 사람들이지대에대해비난하는소비의남용에그것은수단일뿐인데, 이소비의남용을지대의탓으로돌릴수는없다. 그것은사람의자유 의지에서사오며, 도덕가의꾸짖음을받게된다. 사회경제학은결코이를다루지않는다. 여기서무질서는사람을고발한다. 제도는나무랄데없다.

우리는문제의두번째면을다룬다.

지대가소유권의보수라면, 이는경작에대한부당징수다. 왜냐하면노동없이보수를주는것이어서생산, 분배및교환에관한사회경제학의모든원리를위반하기때문이다. 지대의기원은소유권의기원처럼말하자면경제외적이다. 그것은심리적, 도덕적고려사항들에자리잡으며, 이런고려사항들은부의생산에는아주미미적만관계있고심지어부의이론을뒤엎기까지한다. 이는소유권자에게이롭게다른세계로놓인다리이며, 소작인은이다리위로그를따라가는것이금지된다. 소유권자는반신半神이다. 소작인은언제나사람일뿐이다.

진정한남용, 소유권에내재하는모순이있는것은우리가뒤에가서입증할것처럼거기, 이논리적대립안이다. 그러나우리가배운것처럼이모순은다음의화해의예고다. 그리고이는우리가역사의한두시기앞을내다보면서, 그리고지대의궁극적목적지를직접인식시키면서증명하려고하는것이다.

교환가치가쓸모있는가치와역방향인것처럼, 영속적소득에대해서사회가소유권자에게행한경매낙찰에서주인의이익은차지인의이익과반대방향이니, 소유권자에게지불할지대는일련의진자운동에의해확정되며이모두는균형공식으로해소되어야한다. 그러므로그제도의상위관점에서차지인이소유권자에게값아야할것은무엇인가! 지대의몹은얼마여야하는가? 왜냐하면, 지대의문제는언제나새로운형태를떠가치의문제일뿐임이벌써명백하기때문이다.

리카도의이론은이문제에대답을한다.

사회가시작할때, 땅위의새로운존재인사람이그의앞에엄청나게큰숲밖에대하지못했고, 땅이광활했고, 산업이태어나기시작하던때, 지대는영뿔이었을수밖에없다. 아직노동에의해모양이지어지지않은땅은쓸모있는물건이었다. 그것은교환가치가아니었다. 공유였으며, 사회의것이아니었다. 가족들의배증과농업의진보는조금씩토지의가격을느껴지게했다. 노동은토양에가치를부여하게되었다. 이로부터지대가태어났다. 동일한용역의양으로들판이더많은결실을낼수있을수록그들판은더높이평가되었다. 또한소유권자들의경향은언제나토지의산물에서차지인의임금, 즉생산비용을뺀잔치를차지하는것이였다.

이처럼소유권은노동을따라와서노동에서산물중실질비용을초과하는모든것을빼앗는다. 소유권자가신비한의무를다하고소작인에대해공동체를대표하면서차지인은섭리의예정에서는자기가정당한임금이상

과적으로, 그리고보유자들의단견, 느슨함혹은방향함에의해생겨나는 자본의엄청난손실에도불구하고, 그런일들이일어나는것은이래서다. 지대의대다수는새로운개발이용에쓰인다. 프랑스는운하와철도에 20억프랑을지출하려고한다. 이는마치그영토에도도반쪽을더하는것과도 같다. 어디서이런경이로운확장이나오는가? 집단적저축, 지대에서나 온다.

그소득이수령권자에의해비생산적으로소비되는, 그러나다수의평균적재산들앞에서미미해지는거대한재산들의몇가지예를인용하는것은아무쓸모도없다. 그추문이노동을격분케하고빈곤층을옹성거리게하지만그에대한처벌은기대되는경우가드문이며들은이론을확인해준다. 그임무를오해하면서단지자기재산의관리에한뭇하는일없이이를파괴하는것만을위해서는소유권자는자신의태만을머지않아참회한다. 저축을전혀하지않으므로곧는차입을하고, 빚을지고, 소유권을잃고, 때가오면빈곤에빠진다. 모욕당한섭리는결국잔인한방식으로보복한다. 나는재산들이생겨나기도하고없어지기도하는것을보았다. 그리고나는언제나소유권을취득하는것만큼이나거의마찬가지로어려운것이그것을보전하는노고라는것, 이보전은절제와절약을내포한다는것, 결국소유권자, 선량한관리자, 현명한회계의운명은, 소득이동등하다면동일한선견지명과질서의정신을가질노동자의운명보다결코위에있지않다는것을관찰했다. 지대의전액소비와소유권의보전은서로배타적인것들이다. 보전을하려면소유권자는저축하고자본화하고확장하지않을수없다. 즉, 노동에더많은공간과자유를제공하지않을수없다. 달리말하면, 그가노동으로부터산물로받은것을자본으로돌려주지않을수없다. 입법자의예상으로는소유권자는동정을받을만하지도질투를받을만하지도 않다. 자신을쓸모있게만들줄아는사람, 노동이우리행복의필수적부분을이룬다는것, 모든남용적이고무질서한소비는고통과후회를초래한다는것을이해하는사람, 소유권이이사람손에서저사람손으로넘어가면서소유권자가자신에게불충하면곧바로그를죽이는식으로, 소유권자를배려하지않으면서자신의법칙을완수한다는것을아는사람, 이사람은자기를소비자로만생각하고정의만을열망한다면, 소유권을바라지도않고아쉬워하지도않는것이라고나는말한다.

로마사회를망치고이탈리아에서는사람이없어지게한것은야만인들보다도지대의잘못된사용탓이훨씬더크다. 중세에귀족층의소유상실을 가져온것은이남용이며, 신용이그다음으로그수단이였다. 매일수많은파멸을일키고끊임없이이사람에서저사람에게로소유권을이전하는것역시소유권의똑같은우둔함이다. 이와같이그진화의첫순간부터지대의이론은피할수없는수학적확실성을얻는다. 그법칙은강압적이어서이를인식할줄모르는이에게는불행이돌아간다! 상속물로서의지대는이성과관리에근거를둔다. 그것은파괴하는데신경쓸필요가있는특권이결코

된, 400 만명에게절약을해주지도않을정기수령금전환을위해큰소리를 지르는것은한심한일이아닌가?

예금자들쪽에서저축금고는그에못지않게정력적이고그에못지않게 확실한빈곤의축매제다. 왜냐하면, 저축금고가어디서도빈곤을완화하기는커녕이를배분하고, 이배분을통해빈곤을증가시키기때문이다. 이는엄증을일으키는국부적질환인데, 보편적이고만성적인무기력상태로 전환되는것이다. 사람들은가난한이에게이렇게말한다. 디고생해, 허리띠를줄라매, 굶어, 더가난하고, 더빈곤하고더덜벗어. 결혼하지만, 사랑하지만. 너의포기에힘입어주인이평안히잠자고, 마지막날자선시설이너를덜칠일이없도록말이야.

그러나내가이긴내핍의결실을거둘것을누가내게보장하는가? 생명이연장되어감에따라생존확률은낮아진다. 그리고내게현재의재화, 물적재화의희생을요구하는것은점점낮아지는행운을쫓기위한것이다! 생명은다시시작되지않으며, 내저축은다른이력의준비가될수없을것이다. 현자, 실천적철학자는고독한탐욕의 40 년동안에쌓인 1000 개의금화보다매주의향락을선호한다. 이런체제를가지고서는자기상속인을위해서만저축하는것임을거의확신하는만큼그게더났다. 당신은이렇게말한다. 향락은덧없다고. 행복과건강을이루는이생의충만은드문간격으로만, 그리고아주짧은순간동안만느껴진다. 한마디로행복은이세상의 것이아니다. 심오한도덕가들은반대로생은바로영혼과감각들이욕망과 탐욕의극에달하는이급한순간들에있으며, 이존재의도취를단한번이라도, 1 분간이라도안자가산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면무엇인가! 당신이나에게살을사는것을금하는것은나를근근이연명하게하려는것인가? 그리고저세상의삶이없다면?

요컨대, 저축금고의박애적이고공개적인목표는일꾼을위협하는사 고들, 흉작, 질병, 실업, 임금삭감등에대비해재원을유통해주는것이다. 이런관련속에서저축금고는칭송할만한선견지명과선한감정을증명해 준다. 그러나그것은일꾼의빈곤에대한진정한원인들인자본주의적압제와일반적비연대성의공개적고백이고거의탐욕스러운전횡의승인이다.

저축금고의경제적이고비밀스러운목표는유보금을수단으로해서매일같이일꾼에게닥치고그를절망에빠뜨리는불행을그의전생애에걸쳐 분산시켜생존수단을위한소요, 결탁과파업을예방하는것이다. 이런관점에서저축금고는자연과예기치못한사태를이겨내는법을터득한다는 점에서진보다. 그러나또한그것은세상에가해지는죽음이고, 노동자의 미학적쇠퇴다. 최근시대에서사람들은저축및퇴직금고를일꾼들에게의무 화해이들에게임금에대한공제가이목적에위해행해도록하라는말을 많이했다. 그러한법을만들어보라. 그러면급작스러운빈곤과극단적인 빈곤을멀리하면서도노동자카스트의열위劣位를사회적필연으로, 국가 의헌법으로만들게될것이다.

끝으로, 저축금고의정치적이고왕조적인목적은그것에서사람들이요구하는신용으로써인구를사물의질서에묶어두는것이다. 이는안정, 시민적평등그리고산업에대한권력의중속을향한새로운발걸음이다. 하지만동시에이기주의, 그리고신용의기만을촉발하는것이다. 모두에게노동과자연의산물에대한실질적이고사회적인소유를마련해주는대신저축금고는그것에보장을제공하지않고축적본능을발달시키기만하니말이다.

그런데저축금고가불평등의원인들을조금도건드리지않는다면, 빈곤에서그강도強度를빼고연장延長을더해빈곤의특성을변경시키기만한다면, 저축금고에의해세습귀족층과프롤레타리아트의분리가더심화된다면, 저축금고가독점의성화라서독점의효과들이이를태어나게한것이고, 이것이독점을폐지할것이라면, 저축금고는노동계급의안녕이방주이며, 엄청난혁신이그로부터나올것이라고여전히말할수있는가?

저축금고를계승하는것이퇴직금고, 공제회, 생명보험회사, 톤틴 tontine 연금등이다. 그원리가불운을각개인의인생전체에든, 일정수의조합원에게등분산시키는것으로환원되는, 그러나해악을그근원에서공략하는일이없고, 진정한호혜성의관념으로도, 심지어단순한복구의관념으로도상승하는일이없는모든조합들이다.

로드리그 (O. Rodrigue) 씨의퇴직금고에관한기획에따르면, 모든일꾼은 21 세부터 45 세까지그금고에불입을하도록가입될것이다. 그리고연금은 45 세부터 65 세까지수령되기시작할것이다.

이연금의최소액은 60 프랑일것이다.

그런데 21 세에모집한 1000 명의개인중절반이상은 55 세가되기전에죽는다. 그러므로이는마치 500 명에게불행한노년을면제해주기위해섭리의질서에서는아무두려워할것없는나머지 500 명에게보상금을지불시키는것과같다. 가난한 500 명대신 1000 명을모집할것이다. 그러한것이이모든복권의법칙이다. 드라마르틴씨는사람들이가난한이들의돈으로가난한이들에게적선한다고불평하고, 퇴직기금이예산에서취해질것을요구했을때이모순을느꼈던것이다. 불행히도그치료법은해약보다더나빴다. 구빈세였던것이다! 인민의안녕과국빈자의행복을위해서라면이를바라는안되었다. 이를바라지도않았다.

생명보험은기업가가그에게미리지불되는연금을통해피보험자의사망일에얼마의금액을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고약속하는다른종류의착취다. 이는원금상환불능연금의역전이다. 그러한기업들은특히다수의피보험자에의해서유지될수있으므로, 결과적으로생명보험에서는오래사는이들이일찍죽는이들에의해착취당하는결과가된다. 언제나악의배분은악에맞선보장책으로제시되는것이다. 언제나연장적관계가집약적관계를대체하는것이비밀의전부다. 나는보험자들측의파산위험, 지급을받기위해벌여야하는소송, 어떠한불운에의해서든보험료납입을계속

개선을가져오는산업의완성에해언제나증가하는경향을띠게된다. 따라서결국, 이자는자본의중요도에비례하는반면, 토지와관련해서는소유권은지대에의해평가된다.

본질상그러한것이지대다. 그도달점과그동기에서이를연구하는것이중요하다.

그제도의출발점에서지대는소유권의보수다. 이는소유권자의새로운권리가그에게부여하는관리역할에대해소유권자에게지불되는수당이다. 나는사회가특권보유자의조건을노동과신용의이익상변화시킬필요성에관해본절의제 1 번에서말한것을재론하지않을것이다. 나는경제적진화의제 7 기에허구가실재를사라지게했고, 인간활동이허공중에소실될위험을가해사람을자연에더강력하게붙잡아두는것이필요해졌다는것을환기하는것으로그친다. 그런데지대는이새로운계약의대가였다. 그것이없다면소유권은명목적자격, 순전한명예상의구분일뿐일것이다. 그런데문명을가져오는최고의이성은이런분야의자존심을결코구사하지않는다. 말이아니라실물으로써지불하고약속을이행한다. 운명의예상에서소유권자는사회유기체의가장중요한기능을이행한다. 이는그가자기소유권을값있게하도록호출해내는자들, 나태하고질투심많은임금노동자로부터그의자녀가될자들이그주위로끌려가고모이고몸을맡기는행동중심이다.

게다가기분나쁘지만말할필요가있는것은, 노동계급이누리는행복에비해연금생활자들의행복과안락에대한크나큰환상이일반적으로품어진다. 하루에 30 수를받는인부는지대 10 만파운드를받는부유한소유권자의마차가지나가는것을보면서, 그런사람은자기보다백배나행복하다고생각하지않을수없다. 지대는노동없이살아가고모든향락거리를조달할수단이라고만본다. 그리고자신의모든소득을지출하는것을일종의사회적의무로삼는명사들의도덕성을칭찬한다. 이로부터인민의한사람에게는부도덕할뿐아니라부당한질투와증오의근원, 타락과낙담의적극적원인이생긴다.

그러나사물을높은데서, 그리고그확고부동한진실에서바라보는자에게는, 지대수령자는조직되어가는사회에서사회적경제의수호자, 지대에의해형성된자본의관리인일뿐이다. 모든노동이초과분, 일부는생산자의행복을증진하는데로향하고일부는생산적기금을개량하는데로향할초과분을남겨야한다는이론에따르면, 자본은자연이우리에게준소유지를노동을통해확장한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개발이이용가능한토지는좁은한계안에포함된다. 지구전체는벌써우리가왜인지모르지만그안에갇혀있는우리처럼여겨진다. 일정량의보급품과물자가우리에게주어지며, 이를통해우리는좁은거주지를꾸미고, 확장하고, 덥히고, 청소한다. 모든자본형성은그러므로우리에게는터전의정복과등가다. 그런데소유권자는탐험대장으로서모험에서이익을보는첫번째사람이다. 결

다! 무지의고백! 이는개혁종파를자처하는모든종파의논지로서, 그자체 안에그논지의반증을담고있으며그것만으로도우리를인도주의적설교에싫증내게하기에충분하다.

(3) 신용이보증되고, 가족이형성되고, 승계권이모두에게주어지고 그래서각자가자기차려에가장이될수있도록, 그리고아무도유산을빼앗기지않도록소유권을분배하는일이남았다. 그러나땅을어떻게분배할까? 어떻게몹을정할까? 유산의평등을어떻게유지할까? 땅은수많은세습재산들에충분할것인가? 아니면그것은경작자에게만남겨지고산업인, 비생산활동자, 상인등은소유권에서배제될것인가? 이전, 보상, 청산은어떻게행해질것인가? 노동은어떻게조정될것인가? 결실등의분배는어떻게? 경제문제들은모두소유권에서재현되는것을우리는안다.

그리고사회는그수효, 깊이, 난점, 엄청난상세내용으로아주질리기만드는이모든질문들에지대 rente 라는단한마디로대답한다.

독자의정신에어떤의문도남기지않도록나는제 1 권에서조세에대해한것처럼지대에대해진행해갈것이다. 나는지대의구성에포함된유기적관념이이어지는세계기에따라발달하며그중마지막계기는필연적으로다른두계기와연결되어수평화작업으로해소되는것을보여줄것이다.

그러면우선, 지대란무엇인가?

지대는이자와가장많이답았다. 그럼에도그것은이자가노동에서탄생하고저축에의해축적된자본에만붙는반면에지대는노동의보편적소재, 모든가치의원초적기저인땅에적용된다는점에서이와본질적으로다르다.

자본의고유성은이득을보면서그것을재형성하기에충분한시간당이자만내놓는것이다. 일체의이론적증명의밖에서이자가점진적으로낮아지는것은이를충분히증명해준다. 이와같이자본이희소할때는, 담보가가치가없고보증도없을때는, 이자는영속적이고때로는이례적인율로올라간다. 자본이풍부해짐에따라이자는감소한다. 그러나그것이결코사라질수없으므로, 돈의대여가모든위험은자본가의것이고이득은차입자의것인단순교환이될수는없으므로, 일정율에도달한이자는감소하기를중단하고변형된다. 영속적인소득으로부터그것은웃돈을가지고서연불에의한상환이된다. 이때이자는이론이그에배정하는역할에다시들어간다.

그러므로자본혹은대여된물건이소진되거나, 포도주, 돈등에서그런것처럼사용에의해사라지면, 이자는마지막연불금과함께소멸할것이다. 반대로자본이사라지지않으면이자는영속할것이다.

지대는결코사라지지않는자본, 즉토지에대해지불되는이자다. 그리고이자본이소재와관련해서어떠한증대도될수없고단지그이용과관련해서무한한개선택만가능하므로대여 mutuum 의이자혹은이득은자본의풍부성에의해끊임없이감소하는경향을띠는반면, 지대는토지이용의

하지못할형편에서하게될경우에다년간의회생을감내한것을상실할가능성은제쳐놓는다.

그러나필연적으로소수인특정개인들이구제와선견지명의기관들에서끌어내는완전히인적이득이무엇이든, 빈곤에대처하는이기관들의무능은수학적으로증명된다. 모든기관들은도박과같은방식으로작동하면서그기관들이몇몇사람에게마련해주는이득을대중에게짚어지게만든다. 그래서이성이가르쳐주는것처럼, 그리고악의보편성이요구하는것처럼, 구제회사들은실은구제를필요로하는모든이들을구제해야하지만아무도구제하지않을것이고, 와해될것이다. 평등과함께상부상조도사라질것이다. 또한공제회들이일정한안락수준에있는일꾼들을대상으로하는만큼만유지된다는것, 그것들이가장많은도움을받을자들, 가난한이들을거기받아들이자고말할때부터쓰러지거나아예불가능하게된다는것은경험적사실이아닌가?

저축금고, 상부상조, 생명보험은이미일정한수준의안락을누리면서거기에보장을더하기를바라는이들에게는훌륭한것들이지만가난한계급에게는완전히결과가없는것, 그렇지않으면아예접근불가능한것으로남아있다. 안전보장은다른모든상품처럼값이나가는상품이다. 그리고이상품가격이구매자의빈곤에따라서가아니라그것이보장해주는금액의크기에따라서낮아지므로, 보험은부자들에게는새로운특권으로, 그리고가난한이에게는잔인한풍자로해소된다.

이검토를다른작동영역에서취한예, 신용이일으키기를지향하는, 그리고국가의개입에의해서든독점의작용에의해서든실현하기가절대로불가능한것을더잘부각시킬한예로끝내도록하자.

나는제 6 장에서자본의수익, 다른말로이자부대출의기원과이론을설명했다. 나는이이론이어떻게개인들간의거래문제에관한한에서는, 그리고관심이단지약소한배당만큼증가한자본을재형성하는데한정되는한에서는참이지만이자의지속성을가지고사회에적용될때는완전히거짓이되는지를말했다. 그이유는그렇게되면순생산이총생산을넘는것으로계산되기때문이라고나는덧붙였다. 이는사회에서는모순되고불가능한것이다.

그런데신용은사회에총생산에대한순생산의초과, 그리고이자의지속성원리를사회에적용해조건들을평등화하려는시도말고다른것이아니다.

국가가운하건설에착수한다고가정하자. 그건설은착공후 3000 만프랑이들것이다. 정부가이 3000 만프랑을예산에서취한후운하에소요된금액의이자를물리는방식으로항해세의세율을정한다면이는마치납세자들에게운하에대해두번지불하게하는것과같을것이다. 운하의이용은유지비용을제외하고는무료여야한다. 그러한것이국가지출의경제적원칙이다.

실제로는일이그런식으로일어나지않는다. 우선국가가필요한자본을보유하는일이드물다. 그리고그자본을국가가단번에조세로마련하는것이, 특히공익목적을위한지출이아주높은비율로증가한이래로불가능하므로이자본을차입으로구하는것이더편리하고덜번거롭다는사실을발견했다. 차입을하면납세자들은 3000 만프랑을내놓는대신그이자만지불할것이고, 이자는크기가작아서예산상으로는사라지는것으로보일것이다. 그러나차입은독점법의조항들로, 그리고대금업의법원리에따라조성될것이므로, 한마디로자본은대출자에게이득과함께상환되어야할것이므로차입은영구정기수령금으로전환되어, 말하자면운하는영구적으로지불을받고영구적으로납부대상이되거나아니면이자단지 40, 50 년혹은 99 년동안만개발이용에대한배당금과함께지불되어, 말하자면정해진기간동안운하의가격이두번, 세번, 혹은네번납부되거나할것이다. 통상적으로대출자들은미리배당금을챙기며, 검사장때문에이자를미리빼고대출하는대금업자처럼 80, 70 혹은 60 만을내놓으면서국가가 100 의상환의무를지게한다.

이에따라서차입을하는국가는채무를상환하려면납세에손을대거나새로운차입을하지않을수없는데, 납세를활용하기는불가능하고, 새로운차입은앞선차입과같은방식으로행해지고부분밖에수령되지않은것을전체로삼아야해서채무를증가시키기만할것이다. 오늘날모든사람이이를알며, 특히대출자들은그러하다. 그러므로끊임없이빚을지는국가는, 그렇다고해서어디서언제나차입할대를발견하게되는가? 이는바로국가가채무를집에따라더나은조건을내세우지않을수없다는데서온다. 그래서국가에관련해서어떤의미에서는상환가능성이낮아짐에따라신용이늘어난다는것이맞는일이다. 다음은이현상에대한설명이다.

1815 년에프랑스의채무가 10 억프랑이어서국가가그차입을 90% 에이행한다고가정한다. 1830 년에는채무가 20 억프랑으로올라서, 국가는또한대출자를찾을수있었지만 80% 조건의대출자를찾을수있었다고가정한다. 이체제에서국채가민족산출총량을흡수할경우에만국가의신용에끝이있다. 그러나그럴때국가는파산에의해허구가된차입에서해방되어모든사람은지불을받게되고국가의신용은옛날보다더좋아진다. 영국에서공공채무의이자는 7 억을넘는데이는대략수입의 6 분의 1 이된다. 1789 년에서 1815 년의사태와같은일련의사태들이영국의채무를두배로만들면, 영국의가정마다매년국채를위해 4 개월치의노동을지불해야할것이다. 이는의문의여지없이불가능한일이지만, 영국에닥칠수있는가장행복한일이다.

한때는사람들이부채상각으로국가를해방시킬수단을발견했다고생각했다. 이발명품에관해서는모든것이말해졌으며, 나는여기서기억을위해서만언급한다. 부채상각은숨바꼭질이다. 거기서국가는그신용과신용상실에한꺼번에투기해, 국채들이액면가아래로떨어질때는발행한

처한불순한환경에서일정한점까지는상속없이도존재할수있다. 그가가족을가지지않는다면, 당신의제도들을정당화하라. 그리고서둘러라 ... 가족은특권일수없을것이다. ...”

미사여구로다! 상속은부자의가족에서처럼가난한자의가족에서도존재한다. 이신성하고양도불가능한권리를프롤레타리아는결정적으로우리의대혁명에서전취戰取했으며, 이를귀족계층의약탈에대한힘을수없는장벽으로대치했다. 그와같이옛날에로마의평민은오랫동안귀족들에게만남겨졌던혼인권 jus connubii, 가족권을획득해세습귀족의전횡에서해방되었다. 가난한자에게부족한것은다이상상속이아니라유산이다. 상속을폐지하는대신차라리상속자부재 déshérence 를근절하는데신경쓰라. 왜냐하면“가족은특권일수없을것이다”라고말하는것은당신자신이기때문이다. 그리고가족권이보통권리가아니라보편권리인것, 상속이, 따라서유산이그것에필요한것은이때문이다. 상속이아직모든사람에게실효적이지못하다고해서상속을금지하는것은물질주의적이고반혁명적인방향으로추론하는것이다. 이는마치프랑스가불행한아일랜드에대한동정심때문에감자만먹고물만마시도록처분하는것과같다.

“가족을상속에까지이끌라. 곧당신은사회적이익과가족적이익사이에서연이파이는것을볼것이다.”

하지만다시한번말하건대, 이적대관계는어디서오는가? 상속그자체에서인가, 아니면유산의불평등에서인가? 당신은말한다. 상속이있으면유산은오랫동안모든사람에게실재일수없다. 더구나실재가될수없다. 누가당신에게그렇게말했는가? 상속이소유권, 독점, 경쟁처럼아주오랫동안노동에반대하는자본을섬긴후, 자본을반대하는노동에의해방향전환이될수없을것인지당신은어찌아는가? 하지만당신은경제적모순들을별로잘분별하지못해서, 그모순들과하나씩싸워서그것들이오늘날내놓는결과들과반대의결과들을낳게만든다는생각은당신에게들지않을것이다. 그러기는커녕당신이가진데올로기라고는그모순들을지워버리는경향을떨뿐이다. 사회과학에서사회의원리들을지우고문명에서문명화하는기관들을제거하는것, 그런것이당신의철학이다! 또한민주주의자들은그것을별로자세히들여다보지않을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당신이그들에게할양보로넛을잃을것이다. 애국적인론은당신의옹변을축하할것이며, 모든것은가능한민주주의들중가장현명한민주주의에서최선으로갈것이다.

완화된사회주의자들은승계권을공격한다. 그것을평등의보존수단으로삼을줄모르기때문이다. 푸리에주의자들과생시몽주의자들은가족을공격한다. 그들의체계가사적산업, 내적인삶, 그리고자유교화와양립불가능하기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소유권을공격한다. 소유권이어떻게서비스의상호성에의해남용되기를그만둘것인지를모르기때문이다

은큰유감이다! 국가가개인들대신에결혼하고, 아이들을낳고, 이들을부양하고, 필요한것을마련해줄수없다면얼마나큰재앙인가! 하지만내가무슨말을하는가? 자유노동그리고남녀한쌍의출산은자연스러운일이아닌가? 그리고상속은관습적인일이아닌가?

당신에게다음과같이말해오는이아버지에게무엇이라고대답할것인가? 내가유언장을쓸때는, 단지내상속인으로세운자들만을위해서쓰는것은아니다. 나를위해서도쓰는것이다. 내마지막의사의행위는내가살기를중단한후에도내재물을계속향유할형태이며, 내가떠나는사회안에남아있는방식이며, 사람들사이에서내존재의연장이다. 나를내자녀들과결합해주는것, 우리들간에애착, 공동의의무를가져오는것은연대의끈이다. 당신은내게당신의선견지명을자랑하면서그대가로내게내재물을요구한다. 나는간부층보다는나자신을더믿는다. 당신은모든것을쓸모있을때에생각하기에는너무염려를많이한다. 게다가나는당신을알지못한다. 그러므로스스로국가라고부르는당신은누구인가? 누가당신을보았으며, 당신은어디머무는가? 당신의보장수단들은어떤것들인가? 아아! 당신은당신의사제들의신을닮았으며, 사람들이당신에게땅을준다는조건에서하늘에약속을한다. 그러므로끝으로지혜와최고의능력을가진당신을한번보여달라!

상속의폐지는공화주의적인모든백일몽처럼어디서나사람의자유행동을권력의술선적강제력으로, 실질적존재를이성적존재로, 생명과자유를그슬픈영향력이거의모든사회적재앙들의원인이었던괴물로대체하는것이허황된이데올로기에서나온다.

블랑씨는계속해서말한다. “방계계승의남용은보편적으로인정된다. 이계승은폐지될것이며, 이를구성하는가치들은공유재산으로선언될것이다.”

그러나방계계승을폐지하려면, 소유권을폐지하는데서시작할필요가있다. 나는당신에게, 이것없이방계계승에손을대려면대보라고도전한다. 당신은신탁유증, 원금회수포기조건, 환매, 기부를옹호할것인가? 뭐라고! 나는내재산을모든사람에게, 즉국가에남겨줄능력을가질것이며, 그것을누군가에게줄수없을것이다! 나에게노동하고, 저축을하고, 자본을형성하고, 부동산을취득하고, 다른모든이에대해배타적으로이를향유하는것이허락될것이다. 그리고내가이를처분하고내게없는자연적가족대신에입양가족을구성해내행복을증대하는것이중요할때, 나는아무주인도아닐것이다! 그러니소유권자인것이내게무슨소용일것인가? 당신은공산주의자인가? 과감히말해보라. 우물쭈물하지말라. 당신의신성, 공화국, 정부등당신의시적인산문에서의갈고리이고바보들을위한미끼일뿐인위대한말들의허구로우리를더는피곤하게하지말라.

“오늘날자기자녀들에게남겨줄것을아무것도가지지않은가난한자, 그가난한자는가족은가지는가? 그가가족을가진다면, 그가족은우리가

국채를낮은가격에마련한자본을통해서환매한다. 그래서이부채상각조작으로한편으로국가는하락세일때투기하는데에, 따라서자기자신의신용을상실하는데에관심을둔다. 다른한편국가는새로운차입을마련하고신용을높이기위해상승세일때투기할필요, 따라서상환불가능한상태에처할필요가있다. 사람들이옛날에아주크게찬양했던이유치한행동은천가지다른것들중에위정자의심각한업무들을알리는데도움이될수있다.

그런데국가에일어나는일은사회에도마찬가지로일어난다. 사회는신용에의해두카스트로나누어진다. 끊임없이신용을주는카스트와신용을받는카스트다. 그러나국가에서는그작동이단일하고중앙집중화되지만, 사회에서는신용은수백만차입자들과자본가들사이에무한히나누어진다. 게다가그결과언제나동일하다. 3세기동안에국가의사기파산이아홉건, 센 Seine 상업재판소에매달등록된파산건수가 100 건이다. 이공신력있는수치를보면신용이인민들의경제에하는작용을알수있다.

끊임없는파산, 간헐적인사기파산, 그래서이런것이야말로사회에대해서, 그리고국가에대해서신용의결론이다. 다른쟁점을결코찾지말라. 금융과학은부채상각금고를상상하면서당신에게그모순을드러내주었다. 이제부터는인류의삶이경제적범주들말고다른법칙들에복종한다는것이확인된다. 예를들어인류가신용에의해살았고발견했다는것이참이라면, 국가는 30 년마다, 그리고사회는계속적으로멸망해야할것이니말이다.

그러나인류의삶은불멸이다. 그러나부와행복, 자유와지성은계속진보하는중이다. 그러나실질적신용이우리에게끊임없이죽음을선고한다면, 매번도산에이어언제나되돌아오는인적신용은우리를성공적인노력의선두에둔다. 그리고그문명의작품은언제나, 우리의공식들을믿는다면해체되기직전이그죽음의법아래에서다시이어지는데, 과학에도불구하고, 이성에도불구하고, 필연에도불구하고알수없는기적에의해계속된다.

제 11 장 제 8 기 — 소유권

I. 소유권은경제적계열바깥에서는해명이불가능하다. 상식의조직에관해, 혹은확실성의문제

소유권문제는인간운명의문제다. 다음으로이성이다. 루려고나설수있는가장큰문제이고, 이성이해결에도달할마지막문제다. 실제로신학적문제, 종교의수수께끼는해결된다. 앞의가치와정당성을대상으로하는철학적문제는풀린다. 사회문제가남는다. 이는앞의두문제와하나를이룰뿐이며, 그해결은모든사람의견해로는본질상소유권과관련이있다.

나는이장에서소유권그자체의이론, 즉그것의기원, 정신, 지향, 다른경제적범주들과의관계에서의소유권이론을설명할것이다. 소유권의자기표방을확인하는것, 즉모순들의온전한해결후에마땅히그래야하는것으로서의, 그리고매일그렇게되어가는것으로서의소유권을확정하는일은내가말한것처럼사회구성의마지막국면이고새로운작업의대상으로, 그작업은그설계를일로부터주고기초들을놓는것을목적으로한다.

소유권자체의이론을잘이해하려면, 사물을위에서파악하고, 철학과정치경제학의본질적동일성을새로운측면에서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문명이산업의관점에서산물들의가치를구성하고노동조직하는것을목적으로삼고, 사회는이구성과이조직 말고다른것이아닌것처럼, 철학의대상은앞의가치를확정하고상식을조직화하면서판단에기초를놓는것이다. 그리고사람들이논리라고부르는것은이확정과이조직 말고다른것이아니다.

논리, 사회, 말하자면언제나이성인이런것들은그러므로우리인간속속의운명으로서그발생적기능들인활동과지성에서고려된것이다. 이처럼인류는그계속적발현에의해살아있는논리인것이다. 경제적사실마다정신의법칙의표현이라고, 오성안에는앞서서경험에있지않았던것이없는것처럼, 사회적실천에는이성의추상에서유래하지않는것은아무것도없다고이저서의서두에서우리에게말하게한것이이것이다.

사회는그러므로논리와마찬가지로이성과경험의합치를가장중요한법칙으로삼는다. 이성과경험을합치시키고, 이론과실천의통일로나가는것, 이것이야말로경제학자도철학자도똑같이마음먹는것이다. 이야말로행동하고생각하는모든사람에게부과되는제 1 계명이자최후의계

충론과마찬가지로유치한절충론에뛰어들면서천재성을입증했다고믿었다. 불량씨가그토록아름다운발견에대해스대는것은신기하다.

“사람들은생시몽주의자들에게말했다. ‘상속이없으면가족도없다.’ 그들은대답했다. ‘그래, 좋다. 가족과상속을파괴하자.’ 생시몽주의자들과그들의적들은똑같이반대방향으로틀렸다. 진리는, 가족이어떠한가설에서든파괴될수없는자연적사실인반면상속은사회의진보가사라지게만들수있는사회적협정이라는것이다.”

가족과가족을보호하는상속에서연합에대한장애물을보고, 상속처럼자생적이고보편적인사회적협정이자연적사실이아니라고상상하는저들은모두가틀렸다. 민주주의자들, 신적인일들의위대한이야기꾼들, 레퀴엔의위대한애호가들은인간의의식에서나오는것이동거와발생처럼자연적이아닌지생각하는기색을보이지않는다. 자연은그들에게는물질이다. 그들의말을믿는다면인류는그성향의자생성에복종해자연으로부터빛나갔다. 인류를그리다시 가져올필요가있다. 그러면어떻게그렇게하는가? 자연적사실로써? 아니다. 민주주의자들은그렇게일관적이되는데집착하지않는다. 협정으로써! 왜냐하면, 민주주의자들이상속을대체한다고말하는재산상속불능 *aminmorte* 체제보다더협정에따른것이무엇인가?

“지금까지가족문제와상속문제를절대적으로연결된문제로간주하게한원인들을잘고려할수있는가? 현사회질서에서상속은가족과분리불가능함을아무도의심하지않는다. 그리고그이유는바로우리가맞서싸우는이사회질서의폐단안에있다. 왜냐하면한젊은이가가족을떠나세상에들어간다고할경우, 그가재산없이, 그리고그의재능 말고다른추천사항없이세상에나선다면온갖위험들이그를기다리기때문이다. 발걸음마다그는장애물을발견할것이다. 그의인생은영속적이고무서운투쟁중에소진될것이다. 그투쟁에서그는아마도승리할것이지만패배할큰위험을무릅쓴다. 이야말로아버지의사랑이예견해야할일이다.”

좋다! 아버지의사랑이이를대비해주기를그만둔다면, 누가그를위해이를대비해줄것인가? 민주주의자들은말한다. 이는보이지않고만져지지않고불멸하는, 전능의, 온전히선한, 온전히현명해서모든것을보고, 모든것을하고모든책임을지는이존재다. 이는국가다!

“우리가살아가는환경을바꾸라. 사회를섬기러나서는모든개인이거기서자기능력의자유로운사용처, 그리고집단적노동의참여에들어갈수단을발견할것을확신하게하라. 아버지의선견지명은이경우에사회적선견지명으로대체된다. 그리고이는마땅히그래야하는것이다. 아이에게는가족의보호가있어야하고, 성인에게는사회의보호가있어야한다.”

그렇다. ...을바꾸라. ...하도록하라. 사회의선견지명으로아버지의선견지명을대체하라! 내가당신글을읽지않았다면당신의공적을기대했을것이다. 당신이아직개인들의노동을국가의노동으로대체할수없는것

상속은살림의희망이다. 가족의버팀벽이고소유권의마지막이유다. 상속이없다면소유권은말뿐이다. 여성의역할은수수께끼가된다. 공동의작업장에서남성일꾼들과여성일꾼들이무슨소용인가? 플라톤이본성을교정해그의공화국에서사라지게하려고했던양성의이구별은왜있는가? 경제적이원성의형상인간간존재의이중성, 살림과가족밖에서는진정한중복인이것을어떻게해명할것인가? ... 상속없이남편도부인도더이상없을뿐아니라조상들도자손들도없다. 내가무엇을말하는가? 심지어는망계혈족도없다. 시민적우애라는최상의비유에도불구하고은세상사람들이내형제라면내게는더이상형제가없는것이명확하니말이다. 이럴경우에는사람이주위동료들로부터고립된다면자기의쓸쓸한개체성의무게를느낄것이며, 사회가가족들의해체와작업장들의혼돈에의해인대와내장을빼앗겨말린미라와비슷하게되어가루로화할것이다.

그러나사회주의는용기를가진다. 그런별것아닌것에놀라지않는다. 순수사회주의가조국없고가족없는인류를원하는것처럼반사회주의자로서상속없는가족을원하는루이블랑씨는『노동의조직』에서이렇게적었다.

“가족은신에게서나오고, 상속은사람들에게서나온다!”

이는물론가족이더낫고상속은더나쁘다는것을입증하는것이아니다. 그러나모든사람들은블랑씨의문제를안다. 신성神性을편드는그의끊임없는주장은히브리어에서고운밀가루빵을신들의빵이라고말하듯이시적인최상급일뿐이다. 이는게다가블랑씨가명확히이해하도록제시하는바다.

“가족은신과같이거룩하고불멸이다. 상속은변화해가는사회, 그리고죽는사람들과동일한비탈길을따라갈운명이다.”

비교, 대조법, 4 구별법, 문체의우아함등내가블랑씨에대해분노하는바인상식에정반대인관념말고는부족한것이없다. 상속이필요한것은사람들이죽기때문이고, 사회가변형되기때문이다. 여러세대들을끊임없이휩쓰는운동에그세대들을지탱하는불멸성의원리를대립시킬필요가있는것은, 가족이결코멸망해서는안되기때문이다. 가족이끊임없이죽음에의해분할된다면, 매일아침가족이재형성되어야한다면아무것도아버지를자녀에게다시연결해주지않을것이니가족은무엇이되겠는가? 상속에서당신을경악시키는것은나는안다. 당시에따르면상속은불평등을유지하는데만소용이있다. 그러나불평등은상속에서나오지않는다. 그것은경제적갈등에서나온다. 그것은경제적갈등에서나온다. 상속은사물을발견하는바대로취한다. 평등을창조하라. 그러면상속은당신에게평등을가져다줄것이다.

생시몽주의는상속과가족의연결성을알았다. 이들을다금했다. 사회주의라고도공산주의라고도감히공언하지않는선진민주주의는상속을가족으로부터, 수단을목적으로부터분리하고, 자신이비웃는정부의절

명이다. 의문의여지없이아주단순한외양을가진이공식에서만이를바라본다면아주쉬운조건이며, 사람이그에순응하기위해서만큼그로부터빠져나가기위해서창세때부터행해온모든것을고려한다면비범하고지극한노력이다.

그러나우리가이성과경험의이합치라는것으로, 혹은우리가명명한것처럼상식의조직이라는, 그자체가논리일뿐인것으로이해하는것은무엇인가?

나는우선판단이직관적, 직접적명증성을가진사물에적용되고그지각이연역도연구도요하지않는사물에적용되는한에서그판단을상식이라고부른다. 상식은본능이상이다. 본능은그확정에대한의식을결코가지지않는반면, 상식은자신이원하는것을알고왜원하는지를안다. 상식은신앙도, 재능도, 관습도아니다. 이것들은스스로를판단하지도않고스스로를인지하지도않는다. 반면에상식은그주변의모든것을인지하고판단하듯스스로를인지하고판단한다.

상식은모든사람들에게서동등하다. 여러관념들에최고정도의명증성과가장완벽한확실성이상식으로부터찾아온다. 철학적인심을일으킨것은상식이아니다. 상식은이성과경험이한꺼번에체계적으로결합된것이다. 다시한번말하지만이는판단이면서도변증법없고계산없는판단이다.

그러나상식은그것이직접적명증성을가진사물에만가해진다는바로그때때문에일반적관념들, 명제들의연관에, 따라서방법과과학에거리낌을준다. 그래서사람이사색에몰두할수록그는상식과, 그래서확실성과멀어지는것같다. 그러나상식에의해동등한사람들이어떻게자연스럽게그들이꺼리는바되는과학에의해전히동등한사람들이될것인가?

상식은증대도축소도될수없다. 그자체로고려된판단은언제나똑같고언제나자신과같고동일하기를그만둘수없다. 다시금말하지만상식바깥에서여러역량들의동등함을유지할뿐아니라그역량들에서상식이상으로앎을높이는것이어떻게가능한가?

이어려움은처음보기에는아주끔찍하지만가까이서바라보면서부터사라져버린다. 판단능력혹은상식을조직한다는것은본디말하면정신이아는것에서모르는것으로여러판단들의연속에따라가는데서수단이되는일반적절차들을발견하는것이다. 그판단들은모두고립적으로본다면직관적이고직접적인명증성을지니지만, 그총체는이진행없이확득하지못할공식, 따라서상식의통상적위상을뛰어넘는공식을제시한다.

이처럼우리지식의전체체계는상식에기초를둔다. 그러나그것은개별적인것과직접적인것에만정되어그단순한시선의일반을포괄할수없는상식, 그리고이에도달하려면단순한시선을분리할필요가있는상식위

로 무한히 상승한다. 단한 걸음에는 발고랑의 폭박에 넘어가지 못하고 같은 움직임을 일정회수 반복해 지구를 순회하는 사람처럼 말이다.¹

이성과 경험의 합치, 상식의 조직, 언제나 동일한 판단이 최절정의 사색으로 올라가는 일반적 절차들의 발견, 이런 것들이 인류의 주요 작품, 지구 상에서 완수되는 가장 광대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극적인 돌발 사건을 태어나게 한 작품이다. 확립되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잠재력을 펼쳐 보이는데 멀리서라도 따라가는 과학, 종교, 사회는 없다. 이 위대한 작업이 30 세기 전부터 시작되어 이제 겨우 확정되기 에 이를 정도다. 책 20 권으로도 그 역사를 이야기하기에 간신히 충분할 정도다. 나는 몇 쪽에 그 주요 국면들을 그려 볼 것이다. 이 요약은 소유권의 출현을 설명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

I

상식의 조직은 사전에 다른 문제, 확실성의 문제 해결을 가정한다. 확실성은 두 종류의 상관물, 주체의 확실성, 객체의 확실성으로 나누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의 법칙을 추구하기 전에 생각이 되는 존재,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의 실재에 대해 확신해야 했는데,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법칙을 탐구할 위험성을 무릅쓰게 될 것이다.

이 거대한 논쟁의 첫 번째 계기는 그러므로 자아가 자신을 인정하는데로 나아가고, 말하자면 자신을 만져보고, 자기 판단의 출발점을 찾는 계기다. 그 자아는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한다. 아니, 오히려 '나는 어떤 것인가?'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가?' 하고 자문한다. 이야말로 상식이 대답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다.

그리고 이는 상식이 아주 경탄을 받는 이 판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Je pense, donc je suis)' 로써 실질적으로 대답한 질문이다.

나는 생각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내 존재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 더 알고 할 것이 없다. 내가 이 점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어떠한 존재도 내가 그것을 긍정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자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아. 이는 상식의 출발점이며, 철학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상식의 대답이다.

이처럼 상식, 아니, 생각하고 말하는 미지의 파악 불가능한 본성, 결국 자아는 증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선다. 그 첫 번째 판단은 그 자신에 대한 신임의 행위다. 사고의 실재성은 그에 의해 원초적 사실 fait-principe 로, 필연으로, 끝으로 공리로 선언되며, 그 바깥에서는 추론을 할 여지가 없다.

¹ 변증법은 본래 정신이 하나의 관념으로부터 다른 관념으로 상위의 관념을 통해서 가는 행진, 하나의 계열이다.

성이 결합하도록 하라. 이 신비로운 결합으로부터, 모든 인간 제도들 중 가장 놀라운 것으로부터 곧바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에 의해 소유권, 공동의 상속지를 개인 주권들로 나누는 일이 생겨난다.

살림, 이야말로 그러므로 모든 여성에게는 경제 질서에서 재화들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소유권, 작업장, 자연 노동, 이야말로 여성과 함께 모든 남성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다. 사랑과 결혼, 노동과 살림, 소유권과 가정생활, 독자께서 잘 알 수 있게 여기서 이 말을 감히 보충해 주면 좋겠다. 이 모든 말들은 등가이고, 이 모든 관념은 서로에게 호소하며 철학자에게는 하나의 체계 전체를 계시해주는 것처럼 미래의 가족을 이룰 사람들을 위해 행복의 장기적 전망을 창조해 준다.

이 모두에 관해 인류는 만장일치를 이룬다. 그렇지만 사회주의는 예외다. 사회주의만이 이 관념들의 물결 중에서 인류의 만장일치에 항거한다. 사회주의는 살림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를 원한다. 가족이 조국에 손해를 끼치므로 이를 폐지하기를 원한다. 소유권이 국가에 손해를 끼치므로 이를 폐지하기를 원한다. 사회주의는 여성의 역할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사회가 여성에게 확립해 준 여왕으로부터 코티토여신의 무녀를 만들고자 한다. 나는 이와 관련해서 사회주의자들의 관념에 대한 직접 토론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연합에 관해서처럼 결혼에 관해서 아무런 관념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모든 비판은 아주 공공연한 무지의 실토, 권위도 위상도 없는 논거 제시의 종류로 끝난다.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이 알려진 수단들의 도움으로 각 살림에 안락함과 심지어 사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살림에 반대해 들고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 그들이 시민적 감정과 가정적 애착을 일치시킬 수 있다면 가족을 정죄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고동의 부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인 보편적 부를 일구는 비밀을 지닌다면 그들은 시민들이 공동 생활과 마찬가지로 개별 생활도 하도록 놔둘 것이고 살림에 관한 논쟁으로 공중을 피곤하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사회주의자들의 실토로부터 결혼, 가족, 소유권은 행복에 강력하게 기여하는 것이다. 그들이 해야 할 유일한 비난은 그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공공선과 일치시킬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묻는다. 이것이 바로 진지한 논거 제시인가 하고. 마치 그들이 개별적 무지로부터 인간 제도들의 궁극적 발전에 반대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입법자의 목적이 각자에게 결혼, 가족, 소유권을 실현해주는 것이 아니고 폐지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다!

내 의견을 너무 확장하지 않기 위해 나는 그 문제를 그 주요 측면들 중 하나인 상속 측면에서 다루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시민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화할 것이다. 하나로부터 모두를 배워라 (Ab uno disce omnes).

있게 해주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을 지탱하고, 투기 거래가 야기하는 끊임없는 해체에 대응을 거는 것은 여전히 소유권이다. 상인, 산업가, 자본가 자신은 언제나 소유권을 염두에 둔다. 모두가 경쟁과 독점의 피로에서 쉬기를 열망하는 것은 소유권 안에서다.

(2) 그러나 소유권의 심오한 의미가 발견되는 것은 특히 가족 안에서다. 가족과 소유권은 서로에게 기대며 그들을 하나로 묶는 관계에 의해서만 양측 다 의미와 가치를 가지면서 병진한다.

소유권과 함께 가족의 역할이 시작된다. 살림은 사람들이 이를 우스운 것으로만 만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아주 이상적인 것인데, 이 살림이 여성의 왕국이고, 가족의 기념비다. 살림을 제거해 보라. 부부 사이의 끌림의 중심인이 가정의 돌을 빼내 보라. 남녀 쌍들만 남고 가족은 더 이상 없다. 대도시에서 노동계급이 점점 주거의 불안정, 살림의 쓸모없음, 소유권의 결여로 내연관계와 방탕한 생활로 추락하는 것을 보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며,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해도 소용없다. 아무것도 없이 약혼하는 것보다 약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래서 노동계급은 아비함에서 처할 운명이다. 이는 중세에 영주의 초야권이 표현한 것이고, 로마인들이 프롤레타리아의 결혼을 금지한 일이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주위 사회와 관련해서 살림살이는 소유권의 기초이자 요새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살림은 처녀가 꿈꾸는 첫 번째 것이다. 그토록 끌림에 대해 말하면서 살림을 폐지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여성의 본능의 이런 타락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나로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가족과 살림 밖에서는 여성의 운명을 더욱 고려할 수가 없다. 유녀(遊女)나 살림살이 하는 여자(여종) 말고 살림을 하는 여자(말)이다. 나는 그 중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 양자택일이 무슨 그렇게 굴욕적인 면을 가지는가? 살림의 운영, 소비와 저축에 관련된 모든 것의 책임을 진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역할, 작업장의 지휘, 즉 생산과 교환의 다스림을 고유한 기능으로 삼는 그 역할보다 열등한가?

남자와 여자는 노동의 두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필요하다. 결혼은 그 해소 불가능한 이원성에서 경제적이 원론, 주지하듯이 소비와 생산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들로 표현되는 이원론의 화신이다. 양성의 적성들, 한쪽은 노동, 다른 쪽은 지출인 적성들이 규율되어 온 것은 이런 관점에서다. 그리고 양쪽 중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결합에 화 있을진저! 부부가 서로에게 약속한 행복은 비애와 고통으로 변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를 닦아야 할 것이다!

여자들만 존재한다면, 그들은 멧비둘기들 무리처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남자들만 있다면, 그들은 독점위로 솟아 오르고 투기 거래를 포기할 아무런 이유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 모두가 주인이든 고용자이든 노름탁자에 앉았거나 멧비를 메고 역을 늘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이로부터 살림과 소유권의 필요성이 나온다. 양

그러나 판단력의 결핍에서든, 관념의 미묘함에서든 어떤 사상가들은 상식의 이언명이 벌써 너무 대담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상식이 그 명분을 만들기를 바랐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장하느냐고 그들은 말했다. 내적 감각의 권위는 무엇인가? 그것의 모든 가치가 그자 생성 자체에서 나오는 언명이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긴 논쟁이 시작되었다. 상식은 이유 명한 판결로 거기에 중지부를 찍었다. 의문 자체에 제기되는 의문은 터무니없고, 탐구의 정당성을 목표로 삼는 탐구는 모순적이고, 그러한 회의주의는 반(反)회의적이고 단지 반증이 될 뿐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이 며, 우주와 영원을 포괄하는 이 사실에 관해는 쟁할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유일하게 할 일로 남는 것은 사고가 어디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므로 피론(Pyrrhon) 과 그의 종파는 자아의 존재에 관해서 자아를 안심시키는 부조리의 철학에 의해 인정받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견해는 그본령상 상식에 모순이 있음을 확신하므로 상식으로부터 파문을 당한다.

이전 문(前文)이 힘에 넘쳐에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회의론을 해야 하며 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었다. 진정한 회의론자는 그들의 의심의 실재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한 ‘회의론은 웃음거리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의심의 내용의 실재성, 그리고 더구나, 이는 아주 다른 것인데, 이 내용이 실재하는지를 입증할 수단들의 실재성을 의심하는 것이 그들이 다.

“그렇다면 이는 마치 종교가 사고의 현상이고 자아의 사건이니 당신이 종교들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다만 종교들의 대상의 실재만, 더구나 이대상을 확정할 가능성만 의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군요. 아니면 당신은 가치의 진자 운동이 일반적 사고의 현상이고 집단적 자아의 사건이니 그 운동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며, 다만 가치들의 실재성 자체, 더구나 그 크기에 대해 의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군요”하고 상식이 대답했다. 그러나 사람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치의 실재가 가치의 법칙일 뿐이고 가치의 법칙 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물의 실재가 사물의 법칙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사물의 법칙이 이 법칙을 확정하고 창조하는 자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의심의 실재성과 의심하는 내용의 실재성에 대한 당신의 구분은 그에 따르는 ‘아포르티오리 à fortiori’와 똑같이 터무니없다. 우주의 자아는 사고에 의해 동일하게 되고 서로 꼭 들어맞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과제는 자아가 자신과 관련해서 오류로 이끌 수 있는지, 그 기능들의 발휘에서 자아는 교란에 영향을 받는 지, 이 교란의 원인들은 무엇인지, 우리 관념들의 공통 척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에는 비(非)자아라는 이 개념, 자아가 행동에 들어가자마자 자아를 포착하는 그것, 그리고 자아가 분리되는 것이 불가능한 그것의 가치는 무엇 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처럼상식의판단으로는, 확실성의형이상학적이론은가치의경제적이론과유사하다. 더낫게말한다면이두이론은하나의이론을이룰뿐이다. 그리고의심의실재성을인정하면서도의심의내용의실재성, 따라서이내용을확정할가능성을부정하는회의론자들은가치의진자운동을긍정하면서이진자운동을확정할가능성, 따라서가치의실재성자체를기각하는경제학자들을뒀다. 우리는경제학자들의이모순을정당히평가하지못했으며, 가치가수요와공급사이에서일련의진자운동에의해사회에서결정되는것처럼, 진리도와똑같이우리에게서언명하는이성과확인하는경험간의일련의과동에의해형성된다는것, 의심자체로부터점차로확실성이형성된다는것을곧보게될것이다.

이처럼확득되고확정된주체의확실성은그러므로인지법칙의탐구로넘어가기전에우리우주와의모든관계의기초인대상의확실성을확정할것으로남아있다. 이는상식의두번째정복, 철학작업의두번째계기였다.

우리는우리자신안에감혀있는한에서는감각하고, 사랑하고, 추론하고, 행동하고결국존재할수없다. 자아가그기능들에도약의자극을주는것, 자신의존재를펼치는것, 자신의무가치함에서어떤식으로벗어나는것, 나선후에는대립하는것, 즉존재하거나자아와다른것으로보이는미지의존재, 한마디로비아非我와관계를맺는것이필요하다.

조금후에우리의이성이그두기초위에서강화되어불가항력적으로가정할신, 무한의존재, 내가말하건대신은그본질이모두를포괄하므로살고자신을알기위해자기밖으로나갈필요가없다. 그의존재는자신안에서온전히펼쳐진다. 그의사고는내성적이다. 그에게서자아는비아를자아로서만과약한다. 왜냐하면둘다무한이며, 무한은필연적으로단일하며, 따라서신에게서시간은영원과동일하고행동함은원함과동의어이며, 사랑은자기말고다른대상이없고다른결정하는원인이없기때문이다. 신이란완벽한이기체, 절대적고독, 지상至上의집중이다. 이모든관련에서인간의역의본성인신은스스로에의해, 그리고반대세력없이존재한다. 아니, 그보다는비아를자신바깥에서찾는대신자신안에만든다. 그는구별이되지만여전히자아다. 그의생명은다른어느것에도의존하지않는다. 그가자신을알고살아가고모든것이존재하면서부터모든것이그에의해증명된다. ‘나는존재하는자 (Ego sum qui sum)’라고그는말한다. 신은정말로이해할수없는, 지워지지않는, 그리고그러면서도필요한존재다. 이성이이를말하기를꺼리더라도이를말하지않을수없는입장임에는차질이없다.

유한의존재, 사람은다르다. 사람은스스로에의해존재하는것도, 스스로의안에존재하는것도아니다. 사람개인에게는그의이성이성찰하고그의생명이깨어나고그의영혼이그의기관器官들처럼자신의생존수단을길어내는주변환경이필요하다. 그러한것이적어도우리가우리존재의

그러므로나는사회가소유권자에게독점권을영속적으로보장해줌으로써동시에프롤레타리아의안전보장에노력한다고말한다. 자본을소유자의실체자체로만들어서, 사회는그와함께, 그리고그를위해노동하는모든이들을그가더이상동료로간주하지않고자녀로간주할것을기약한다. 자녀들말이다! 이는통속언어로주인이그의명령을받는자들에게부여하는이름이다. 원시언어들에서는그것은각민족의공통명칭이었다. 이스라엘의자녀들, 미스라임의자녀들, 아수르의자녀들이곧그런것이다. 소유권자는선량한가장으로서이와같이모두의재물을관리하는위치에있었다. 사적이익은사회적이익과혼동되었다. 모든것을말하자면사회는소유권을반포해가부장제를조직하고기품있게만들었다고믿었다. 세습이되고서야이는매각하고교환능력에의해변경되어안정성의새로운보장이되었다. 소유권의최고표현인그러한세습군주제는선거의투쟁을배제해내부적으로내전을막았고외부적으로그민족을인격화했다.

개인의측면에서는개선은덜눈에띄었다.

소유권에의해사람은확정적으로그의소유지를소유하고, 그땅의주인임을선언한다. 의식의확실성, 심오한사항들에관한이론에서보았듯이자아가도약해세상을포괄한다. 그리고사람과자연의이일치에서, 이런종류의자기자신의양도에서그의인격은약해지기는커녕기력을배가한다. 아무도소유권자보다더성격이강인하고더예지력이있지않다. 영혼의배출로정의할수있는, 소유에의해증대하며, 흘러나올수록더욱넘치는사랑처럼소유권은인간존재에게보탬이되며, 그를힘과존엄성에서높여준다. 부자, 귀족, 거물, 소유권자, 주인님혹은마님 sire, 이모든이름은동의어다. 사랑에서처럼소유권에서도소유하기와소유되기, 능동과피동은언제나같은것을표현할뿐이다. 하나는다른하나없이가능하지 않으며, 사람이그때까지는일방적의무에묵여있었으나이제그가자연과더불어체결해온쌍무적계약에매혹되어그자신의모든것, 그리고그자신의값어치를느끼고존재의충만을즐기는것은오직이호혜성에의해서다. 그리고그러한것이사람의가슴안에서소유권이수행하는혁명이며, 그의애착을물질화하기는커녕그것을영화靈化하는혁명이다. 그가순소유권을용익권과, 특출한초월적권한을단순소유와구분하기를배우는것은이때다. 그리고독점에도달할수없던이구별은인류의해방을향한, 그리고영혼과신체를한꺼번에억압하는빈약한재물의공동체보다는의지들의결합이고, 원리들의일치인연합을향한한걸음을더내딛는것이다.

소유권의실험은행해졌다. 소유권을부정하려면역사전체를거짓이라고반박할필요가있을것이다. 우리는신용에대해말하면서, 프랑스혁명은농지법을위한봉기였을뿐이라고말했다. 그런데근본적으로농지법은소유권의수여가아니고무엇인가? 자격없고무능하게된두카스트대신그자리에인민을소유권자로만들어서민족은엄청난재원을마련했는데, 이는그민족에게차례로승리의지출을보조하고실패의비용을지불할수

실제로특권을지닌자가차입을하는과정에서그의사업체를담보로삼게되기전까지는, 그를자기명령아래일하는노동자들의고용주, 동업자들과자기자신의이름으로그들의이익을위해서, 그리고자신의재산상위해서활동하는회사의경영자로만볼수있다. 독점권은자본이자이익에대한특권과함께그의인격에수여된다. 그러나영속성과이전가능성의보장은없으며, 사업에언제나적극적으로, 그리고몸소참여한다는조건에서수여된다. 그에게물건에대한권리는완벽하게존재하지않는다. 사업주는적어도양심상유죄가되지않고는일정한공동체적특성을여전히띤소재를위험에처하게하고침해할수없을것이다. 이는그가여전히사업상의특권만을누리며결코소유권을지니지않기때문이다. 끝으로독점자는일종의수입자였다. 신용의필요성이그를왕으로만든다.

실제로특권보유자가생산수단에담보를설정함으로써작은공화국의반장, 전권공사의자격으로서만행동하는것이가능했는가? 확실히그렇지않다. 차입자에게부과되는그러한조건은그를그의하급자에게중속시키는것이니그의이득의축소였을것이다. 그것은사회계약의해소, 둘째국면으로의퇴보였던것이다.

그러므로사회가신용에의해어쩔수없이독점자에게그의독점권을담보로차입할권리를그의노동하는동료들에대하고려없이인정해주는것만으로도그를소유권자로만들었다. 신용이상업의전제이고, 독점이경쟁의전제인것처럼소유권은신용의전제다. 실무에서는이모든것들은불가분이고동시적이다. 그러나이론에서는그것들은구별이되고계기繼起하는것이다. 그리고분업이거의언제나, 그리고거의필연적으로기계의사용을가정하는것처럼독점이거의언제나, 그리고거의필연적으로소유권을수반함에도불구하고, 기계가노동분업이아니듯이소유권은독점이아니다.

개인에게처럼사회에도이새로운장치로부터심각한결과가초래될수밖에없었다.

우선, 불안정한자격을영구적권리로바꾸어서사회는그근면성에대한더진지하고정신적인집착에, 행복에대한더심오하고사려깊은애착에, 다라서이익에대한더적은악착스러움, 더심오한인도적감정, 상속지에대한승배형태인고향땅의시가詩歌등, 미미한노동자들에게확장되어모든세대를집결시키고조국을이루는것들에소유권자측에서부터의존해야했으며, 실제로의존했다. 조국은소유권에그기원을둔다. 이처럼뒤이어출현한공산주의자들은소유권을파괴함으로써온힘을다해경제학자들이자유무역으로써그렇게하는것과같이종족들, 언어, 기후의차이를파괴하려고애쓴다. 공산주의자나경제학자나모두민족도조국도더이상원하지않는다. 이처럼배타적인두종파는그들의적대와증오에도불구하고근본에서는언제나일치한다. 의견상의적대는희극일뿐이다.

발달을의식하는방식이다. 이점은피론추종자들의모순을전혀고집하지않는모든이들이실토하는바다.

그러므로이현상의의미를인식하고의식이우리에게우리의존재에필요한, 그러나우리의존재와는독립적인외적실재로서제시하는이비아의특질을정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런데회의론자들은자아가이성적으로자기가존재하는것을의심할수없음을인정하자고말한다. 무슨권리로자아는외적실재, 자신이아닌, 자신에게는투시불가능함이분명한, 비아라고칭하는실재를공정할것인가? 우리가우리바깥에서보는물체들은정말로우리밖에있는가? 그리고그것들이우리바깥에존재한다면그것들은우리가보는그런것인가? 감각이자연의법칙들에대해우리에게말해주는것은자연에서오는가? 아니면자연이그자신의품으로부터투기投企하는것을자연의바깥에서우에게보여주는우리의사고활동의산물일뿐인가? 경험은무언가를이성에더하는가? 아니면이성이그자신에발현된것일뿐인가? 끝으로, 이비아의실재성혹은비실재성을입증할어떤수단이있는가?

상식이단독으로는결코하지않은이이상한질문은우리속속을영예롭게한가장심오한천재들에의해제거되고, 웅변, 현명함과경이롭게다양한형태들로전개된것으로서무한히많은체계와추리들을일으켰는데, 그것들에대해두꺼운책을쓴저자들에게서는이해하기가아주어려운것들이지만그것들을몇개의선으로치환해이에관한하나의관념을생성할수가있다.

우선어떤이들은비아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 이는자연스러웠고사람들은이를예상해야했다. 자아에대립하는비아, 이는나타나서타인이가진것을뒤흔드는사람과도같다. 이타인의최초의움직임은그러한이웃을부정하는것이다. 나밖에서는물체도자연도출현물도없고, 나말고다른본질은없다고그들은말했다. 모든것은정신안에서일어난다. 물질은추상이다. 우리가뭔지모르는경험의담지자로서우리가보고연명하는것은스스로결정이되면서바깥으로부터그본성상창조할것을, 더정확히말한다면되어갈것을받아들인다고상상하는우리의순수활동의산물이다. 영혼에관해서는존재하는것, 산출하는것, 그리고되어가는것은동의어이니말이다.

그러나우리는좋은싫든간에앞에서연역과습득이라는두양식을구분한다고상식은관찰한다. 연역을통해정신은실제로배우는모든것을창조하는것같다. 수학이그러하다. 반대로습득을통해서는정신은끊임없이그과학적진보에서멈추어서, 그원인이충분히비자발적이고자아의주권밖에있는끊임없는흥분의도움으로만진행한다. 그러므로무시하는것이불가능한이현상을유심론에서는어떻게설명할까? 모든과학이자아에서만나온다면과학은자생적이고그기원부터완전하며, 모든개인들에게서동등하고, 같은개인안에서존재의모든순간에있는것이아닌가? 끝으로

오류와 진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문제를 푸는 대신에 유심론은 이를 멀리한다. 가장 잘 습득되고 가장 심할 바 없는 사실들, 즉 자아의 경험적 발견들을 무시한다. 이성에게 문을 가한다.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신의 부정적 증언을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원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심론은 모순적이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때 다른 것들이 등장했다. 이것들은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추상적인 것은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자연외에는 아무것도 참이 아니고 아무것도 실재가 아니라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세고, 무게를 달고, 측정하고, 변형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 물체와 그 무한의 변형 형태들만 존재한다. 우리 자신은 물체, 조직되고 살아있는 물체다. 우리가 영혼, 정신, 양심 혹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유기체의 조화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존재자일 뿐이다. 물질에 내재하는 움직임은 통해 주체를 낳는 것은 물체다. 사고는 물체의 변형 형태다. 지성, 의지, 덕성, 진보는 특정 차원의 결정물들, 게다가 그 본질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속성들일 뿐이다.

상식은 대답한다. 그러나 만일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si satanas in seipsum divisus est, quomodo stabit)?² 유물론적 가설은 이중의 불가능성을 제기한다. 자아가 바아의 조직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면, 사람이 자연의 정점, 주인이라면, 그것이 가장 높은 계급을 한 자연 자체라면 어떻게 자연을 반박하고, 괴롭히고, 개조할 능력을 가지는가? 자연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반응, 산업, 과학, 예술 등 자연 바깥의 모든 세상을 낳는, 그리고 그 유일한 목적이 자연을 정복하는 것인 반응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끝으로, 유물론자들이 오직 신앙만을 두는 우리의 감각의 증거에 따라 때때로 물질 법칙 바깥에서 생성되는 것에 어떻게 물질적 변형을 가할 것인가?

다른 한편, 사람이 조직된 물질일 뿐이라면 그의 사고는 자연의 반사다. 그렇다면 물질은, 자연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잘 모르는가? 종교, 철학, 의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뭐라고! 물질이 전부이고, 정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그 최고의 발현에, 그 지상 至上的 진화에도 달했을 때, 그것이 사람이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은 자신을 더 이상 모른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다. 그것은 방황하고 마치 물질이, 경험 자체가 아닌 듯이 경험의 도움으로만 행진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잊는 이 자연은, 그 존재의 충만에 도달하면서부터 자신을 알기를 배울 필요가 있는, 자신을 모르기 위해서 만지적으로 되는, 그리고 이성을 획득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무오류성을 상실하는 이 자연은 무엇인가?

유심론은 사실들을 부정하면서 그 자신의 무능 아래 굴복한다. 사실들은 그들의 증거로 유물론을 짓밟는다. 이 체계들이 스스로를 확립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의 모순을 드러낸다.

같은 것이다. 그에 의해 인류는 영웅들과 거물들만 지냈다. 장래에는 왕조들을 지닐 것이다. 독점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사람은 자기 토지에, 자기 산업에, 마치 자기 아내와 자녀에 집착하듯 집착할 것이며, 사람과 자연은 영원한 애착으로 결합될 것이다.

신용이 사회에 만들어준 조건은 실제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역겨운 것, 사람이 가장 많이 남용하는 동시에 가장 적게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섭리의 견해에서는, 인류와 지구의 운명에서 사람이 자신의 작업 도구, 일반적으로 토지로 대표되는 도구에 대한 보전과 애착의 정신으로 생기를 띠는 것이 좋았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토지를 착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고, 꾸미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갈시키고 더럽히는 허구에 대해 강화시키고 고결하게 하는 실물을 대립시켜, 독점을 소유권으로, 내연관계를 결혼으로, 그녀를 그대의 것으로 선언하는 것 *propriumque dicabo* 으로 바꾸지 않고 달리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그러므로 독점에서 준비되는 혁명은 특히 나토지의 독점을 염두에 둔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권들이 구성되는 것은 토지 독점의 예에 따른 것이고, 토지 소유권의 모델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유는 조건부이고, 잠정적이고, 종신인 것에서 영구적이고, 이전 가능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의 불가침성을 더 잘 수호하기 위해 재물들은 미래에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 양도, 서로 간의 수탈을 규율하기 위해 법률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요컨대 소유지에 의한, 즉 사람의 토지에 대한 극히 긴밀한 결합에 의한 담보의 형성, 독점의 영속성과 이전 가능성에 의한 가족의 형성, 끝으로 재산들 간의 평등 원칙으로서 지대의 형성, 이런 것들이 집단적이성에서 소유권 성립을 결정한 동기들이다.

(1) 신용은 실물 보증을 요구한다.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 점에서의 견이 일치한다. 이로부터 신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형성할 필요가 나온다.

그러나 실물 보증은 동시에 인적 보증이 아니라면 무효다. 나는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또한 신용을 발달시키려면 독점을 소유권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나온다. 경제적 진화의 순서에서 소유권은 신용의 사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신용으로부터 탄생한다. 이는 담보가 차입의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차입에 따라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오지에 씨가 자기 책의 유감스럽게 도너무 짧은 결론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표명할 때 내게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자유 소유권 없이는 담보는 없다. 소유권 없이는 실물 신용은 반드시 없다. … 신용의 작동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민족들은 그들의 담보, 신용의 기초를 이루는 소득의 종류의 형성에서 다양한 시련을 겪는다. …”

² 『루가의 복음서』 11 장 18 절·편집자주

재능, 노동자체는, 일정부분 아직 도노동과 만나지만, 판단으로 소용된다. 특권들, 독점들, 공무들, 산업에 대해 사람들은 더는 염려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를 노동에 요구하지 않고, 주사위를 던지는 것에서 그것을 기다린다. 신용이 고정된 기초를 필요로 한다고 이론은 말했다. 그리고 신용이 모든 것을 뒤엎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담보에만 등을 기대다고 이론은 덧붙였다. 그리고 이 담보물들을 운용한다. 그것은 보증수단들을 찾는다. 그리고 실물에서 밖으로 보증수단을 보고 싶지 않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통해 만드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없다면 담보는 절대로 효력이 없고 무효일 것이니 신용의 담보는 언제나 사람이므로, 사람이 실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보증수단과 함께 담보는 사라지고 신용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자랑해도 소용 없던 것이 대체로 남게 된다.

신용은 한마디로 자본을 배내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사람 자체를 사회와 자연으로부터 빼냈다. 이 보편적 이상주의에서 사람은 더 이상 흠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보이지 않는 권능에 의해 공중에 떠있다. 땅은 주민들로 덮여 있다. 어떤 이들은 풍요속에 헤엄치고, 다른 이들은 빈곤으로 끔찍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땅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는다. 땅을 경멸하는 주인들과 땅을 증오하는 봉신들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땅을 경작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표,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할 표, 땅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심하지도 않으면서 아마도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지나 갈 표를 지닌 자들을 위해 경작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보유자, 즉 지대 수령 권리증을 지닌 소유자는 고물상과 닮았다. 그는 자기 서류가방에 소작지, 목초지, 풍부한 수확, 탁월한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무슨 상관인가! 그는 모든 것을 10 상팀을 더 받으면 내놓을 채비가 되어 있다. 아침에 그의 재물들을 인수한 것처럼 저녁이면 그것들을 애착도 후회도 없이 내놓을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생산성이라는 허구에 의해 신용은 부유라는 허구에도 달했다. 토지는 더 이상 인류의 작업장이 아니다. 그것은 은행이다. 그리고 이 은행이 끊임없이 새로운 희생자들을 만들어 내서 이들이 노름에서 잃은 소득을 노동에 다시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자본의 실물성을 지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면, 파산이 이따금 이 지옥과 같은 난장판을 중단시키려 찾아오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면, 허구가 자신의 증서를 배증하는 동안 담보의 가치는 항상 낮아져서 실물적 부는 무가 될 것이며, 등가된 부는 무한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으려거든 독점을 구해 낼 필요가 있다. 이상적 향락에 빠질 채비가 된 인간 관계성을 구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독점을 공고화하고 확립할 필요가 있다. 독점은 말하자면 독신이었다. “나는 그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사회가 말한다. 그는 토지의 신하, 자본의 착취자였다. 나는 그가 토지와 자본의 주인이고 신랑이 되기를 원한다. 독점은 개인에 머물렀다. 이제부터는 그는 온 족속에 뻗어

그때 독실한 분위기와 명상에 잠긴 표정으로 신비주의자들이 왔다. 정신과 물질, 사고와 연장은 별개로 존재한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이를 알지 못한다. 계시로써 그것들의 실재성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것은 신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신에게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신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성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지성이 유래하는 무한의 정신인 신안에서다. 이처럼 자연에서부터 비아로의 이행이 설명되어 정신과 물질의 관계들은 분별 가능해진다.

처음으로 신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청중들의 주의는 배가 되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정신은 정신하고 만소통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정신인 신안에서 그의 작품들인 물질적 사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능숙하다. 유감스럽게 도 이 체계는 악순환과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의존한다. 한편, 신을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느끼지 못하며, 외적 반응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만큼 밖에는, 즉 우리가 비아非我를 인정하는 만큼 밖에는 우리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계시에 관해 말한다면, 계시는 그 추종자들에 따를 때 기적에 의해서, 그 수단들이 자연에서 취해지는 신호에 의해서 행해졌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세상의 존재에 대해, 그 법칙의 항상성에 대해, 그 현상들의 실재성에 대해 확신하지 않으면 계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며 계시를 어떻게 믿는가?

그러므로 신비주의는 주체와 객체의 필연성을 인식한 후 그것들을 하나씩 기원에 의거해 설명하기를 구한다는 중요한 면을 지닌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에 따를 때 나와 마찬가지로 지적이고, 비아와 마찬가지로 실재적인 제 3 항인 신일이 기원을 사람들은 정의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그것을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 지성에 접근 불가능하게, 따라서 비진실로 만든다. 신비주의는 신비화다.

논쟁이 거기 있었다. 유신론자들과 불신자들, 유심론자들과 유물론자들, 회의론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의견 일치에도 달할 수 없어 세상은 믿기 밖에 할 줄 모른다. 심각한 분위기와 겸허한 정신으로 아무런 과장 없이 과거의 누구보다 가장 능청맞고 가장 교묘한 어느 철학자가 말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아와 비아의 실재성을,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추론이나 경험의 경로를 따라서는, 자신의 밖에 있는, 그렇지만 그가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확신하기가 자아에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물체들은 존재한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방식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 물체들, 이 비아를 우리는 그 자체로는 알지 못하며, 경험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우리의 밑바탕에서 온다. 이는 우리 정신의 고유한 열매로서 그것의 외적 지각에 의해 일으켜져서 사물들에 그 고유의 법칙, 그 법주들을 적용하며, 그리고는 그것이 자연

에 부여하는 이 형태가 자연의 형태라고 상상한다. 그렇다. 역시 우리는 신의 존재, 주권적 본질을 믿어야 한다. 이는 도덕에 대한 강제 이행 수단으로, 우리의 생애에는 보완물로 사용된다. 그러나 지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역시 우리가 성의 공준, 우리의 무지의 필요를 위해 상상된 아주 주관적인 가설에 불과하며, 우리의 변증법의 필요성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이 가설을 증명 해주지 않는다.

이런 말들에 대해 긴 응성 거림이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형벌에 처해진 입장에서 그것을 믿기를 포기했다. 다른 이들은 이성보다 높은, 믿음의 동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믿음을 위해 그자 생성 밖에는 가지지 않는 믿음, 그 대상이 단순한 이성의 형식으로 환원되는 믿음을 거부했다. 앞의 사람들은 비판철학자의 비밀관성을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거의 모든 이들이 누구는 유심론에, 누구는 유물론에, 누구는 신비주의에 빠졌으며, 각자가 장마음에 드는 체계를 위해 이 철학자의 고백을 이용했다. 끝으로 어떤 사람이 고결한 가슴으로 감동한 영혼을 가지고 소음을 잠재우고 자신에게 주의의 끈을 풀기에도 달했다.

그는 신랄하게 이렇게 고찰했다. 우리의 판단의 열쇠를 발견했노라 주장하고 순수이성을 자처하는 이 철학은 절대로 동일성을 결여하며 그 비밀관성에 의해서만 빛을 낸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아무것도으로도 증명이 안 되지만 바로 대단원을 위해 도래하는 이 신은 무엇인가? 사고에 재료를 제공하는 일도 없이 사고를 촉발하는 것 말고 다른 기능을 가지지 않는 이 객관성은 무엇인가? 자아, 자연, 신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존재한다면 그들은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경우에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 있다. 이 관계들은 무엇인가? 반대로 이 관계들이 전무하다면, 혹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듯이 그것들이 순전히 주관적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비아의 실재성, 그리고 신의 존재를 감히 단언하는가?

자아는 본질상 능동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떠한 자극도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과학의 원리들을 보유하고 이를 알고 행하며, 창조적 잠재력을 누리며, 그것 안에서 당신이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분출이다. 새로운 관념에 대해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의 대상 자체를 창조하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사고에 적합한 가치를 산출하는 일꾼처럼 우주 안에서 자아는 비아의 창조자다. 따라서 그는 자신 안에 강제 이행 수단을 지니며, 자연의 증거도, 신성의 개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연은 결코 괴물이 아니다. 일꾼을 발현시키는 작품이니 말이다. 자아와 마찬가지로 실재하는 비아는 자아의 산물이고 표현이다. 그리고 신은 자아와 비아를 동일한 현상 안에 결합하는 추상적 관계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서로 맞물리고 서로 연관되고 서로를 설명한다. 경험, 이는 기록된 과학, 주체에서 발현된, 그리고 주체에 의해 재발견된 사고다.

큼만 지속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이 때로는 종신의, 그러나 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직업들에서처럼 죽음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서 중단되기도 하고, 때로는 특허증에서처럼 제한된 시간으로 축소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행사 非行使에 의해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는 아직도 아랍인들에게서 통용되는 연별 소유와 같은 시효의 이론들을 일으킨 것이다. 다른 때에는 독점은 군사적 태도에서 건축할 허가 등에서와 같이 주권자의 의지로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독점은 실질이 없는 형태일 뿐이다. 독점은 사람에게 매달리며, 물질을 취하지 않는다. 이는 물론 생산하고 판매할 배타적 특권이며, 아직은 노동수단들의 양도, 토지의 양도가 아니다. 독점은 이윤의 고려로만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일종의 임대료다. 독점자는 어떠한 산업에도, 어떠한 노동수단에도, 어떠한 거주지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세계주의자이며, 만능이다. 그가 돈을 버는 조건에서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별로 없다. 그의 영혼은 지평선의 어느 점에도, 물질의 어느 입자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에게 재산의 수단으로서 독점을 부여한 사회가 그를 위해 이 독점을 생의 필연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의 존재는 모호한 상태로 있다.

그런데, 독점은 그 자체로 아주 불안정하고, 모든 침입에, 경쟁의 모든 모욕에 노출되고, 국가에 의해 고동을 받고, 신용에 의해 압박을 받고 독점자의 가슴에 조금도 걸리지 않아서 끊임없이 투기의 작용 아래 비인격화하는 경향을 띤다.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자본의 일반적 철수에 의한 금융 폭풍우에 넘겨져서 노동자 체로부터 벗어나고, 그 행진에서 퇴보하기가 쉽다.

실제로 독점은 신용의 성립 이전, 은행의 지배 이전에 무엇이었나? 이득의 특권이었고, 주권이 아니었다. 수단에 대한 특권이라기보다 산물에 대한 특권이었다. 독점자는 그가 거주하는 땅, 그러나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땅에는 낯선 사람으로 남았다. 그가 자신의 개발 이용을 배가하고, 그의 공장들을 확장하고, 땅에 땅을 더해 소유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 주인이라기보다 관리인이었다. 그는 사물에 결코 자신의 특성을 새겨 넣지 않았다. 그는 사물을 결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그것들 자체로 좋아하지 않았다. 오직 그것들이 그에게 주어야 했던 가치로만 좋아했다. 한마디로 그는 독점을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서 원한 것이다.

신용기관들이 발달한 후에는 독점의 조건은 훨씬 더 나빠진다.

연합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생산자들은 연합을 이루는데 완전히 무능하게 되었다. 그들은 노동의 취미와 정신을 상실했다. 이는 노름꾼들이다. 경쟁의 열광에 그들은 룰렛의 열정을 결합한다. 은행 지배는 그들의 특성과 관념을 바꾸었다. 옛날에 그들은 서로 간에 주인과 임금 수령자로, 봉신과 봉건군주로 살았다. 지금 그들은 차입자와 대금업자, 따는 자와 잃는 자로서만 자신을 안다. 노동은 신용의 입김에서 사라졌다. 실질 가치는 허구적 가치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생산은 투기 앞에서 자취를 감춘다. 토지, 자본,

는 모든 계기들보다 더 많은 진리도, 적은 진리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들처럼 소유권은 같은 비율로 행복의 발전과 빈곤의 증대에 기여한다. 소유권은 질서의 형태가 아니며, 질서와 더불어 변화하고 사라져야 한다. 철학자들의 확실성에 관한 체계들은 그들의 통찰에 대한 논리를 풍성하게 한 후에 반란을 일으키고 상식의 결론들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끝으로 소유권의 성립을 주관한 생각은 훌륭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립을 정당화하는 것, 소유권이 부를 섬기는 것, 소유권을 가져온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인 동물의 일반적 특성을 환기해보자.

제 1 기는 산업들을 분리해 땅위에 노동을 시작하고, 자연의 박대를 그치고 사람을 그의 원래의 빈곤에서 빼내고, 그의 움직이지 않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고활하는 능력으로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능력들은 그에게 그만한 행복의 수단이었다. 우주의 창조에서 처럼 무한의 힘이나 나누어졌다. 이처럼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섭리의 화신이 노동을 나누었다. 이분업에 따라 평등이 복수성의 동일성으로서 가 아니라 다양성 내의 동가성으로서 발현하기 시작한다. 사회적 유기체가 원리로 구성되고, 씨앗이 생기를 주는 충동을 받았고, 집단으로서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분업은 일반화된 기능들과 분할된 기능들을 전제로 한다. 이로부터 노동자들 간에 조건의 불평등이 나온다. 어떤 이들은 낮아지고 다른 이들은 높아진다. 그리고 제 1 기부터 산업적 적대관계가 원시적 공동체를 대체한다.

차후의 모든 진화는 한편 기능들의 균형을 가져오고, 다른 한편 언제나 산업과 행복을 발달시키는 경향을 띤다. 반대로 섭리적 노력이 어떻게 언제나 빈곤과 부, 무능과 과학의 동등하고 대립하는 진보에도 달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왔다. 제 2 기에는 자본과 임금제도, 이기적이고 해로운 분배가 나타난다. 제 3 기에는 악이 상업전쟁에의 핵심각해진다. 제 4 기에는 악이 독점에의해 일반화된다. 제 5 기에는 그것이 국가의 성별聖別을 받는다. 국제무역과 신용은 그들의 차례에서 적대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일으킨다. 나중에 자본의 생산성이라는 허구가 여론의 위력에의해 거의 실재가 되어 새로운 위협이 사회를 위협한다. 이는 자본의 범람에 의한 노동자체의 부정인 것이다. 이론적으로 소유권이 탄생하는 것은 이 순간, 이 극단적 상황으로부터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이행이다.

현재까지 경제적 진보의 궁극적 목적을 사상 捨象하고 이를 단지 그 자체로 고려하자면, 사회가 행하는 모든 것은 독점을 위해서, 그리고 독점을 반대해서 번갈아가며 행한다. 독점은 그들로 다양한 경제적 요소들이 움직이고 순환하는 회전축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존재의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발달을 위해 행한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점을 공언하는 보편적 동물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독점은 아직 임시적일 뿐이다. 칸트가 말하듯이 그것은 권리보유자가 그것을 활용하고 수호할 줄 아는 만

처음으로 철학은 체계를 수립해왔다. 이 순간까지 철학은 하나의 모순에서 다른 모순으로 부결과 배제를 통해 진행하며, 즉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제거하며 진자 운동만을 했다. 기껏해야 그것은 그 여러 명제들을 동시에, 그러나 그것들을 포괄망도 능력도 없이 연명하기를 시도했다. 이 난관이 극복되었다. 새로운 탐구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이 대답한다. 우리가 이해해 온 결론에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며, 그 결론이 요약하는 체계는 사람이 무언가를 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의문시되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에는 경험에 앞서 단 하나의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입증된다면 난공불락일 것이다. 그때는 사람이 배우는 것은 그가 연역하기만 한다는 것임을 사람들은 의식할 것이다. 그는 그가 증명하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가 스스로는 아무 관념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그가 과학을 실험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의견을 먼저 말하는 자에게 그의 건축물의 초석을 놓을 테면 놓아보라고 도전한다.

그는 영감을 얻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다음은 이성과 경험 이내 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자아와 비아를 결합하는 관계는 결코 사람들이 말하듯이 친자관계도 인과관계도 아니다. 이는 공존관계다. 자아와 비아는 서로 대면해 동등하고 분리 불가능하지만, 상급의 원리, 둘 다를 낳는 주체-객체, 한 마디로 절대안으로 가 아니면 환원 불가능하게 존재한다. 이 절대는 자아와 비아의 창조자인 신 혹은 니케아 신경이 말하는 것처럼 유형 무형 有形無形 한 모든 것의 창조자인 신이다. 이 신, 이 절대는 그 본질 안에서 사람과 자연, 사고와 연장을 포괄한다. 왜냐하면, 그 홀로 존재의 충만을 지니며, 그는 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성의 법칙들과 자연의 형태들은 동일하다. 어떠한 사고도 실재의 도움 없이는 발현하지 않으며, 역으로 어떤 실재도 지성으로 꿰뚫어지는 것으로만 나타난다. 이야말로 경험과 이상의 경이로운 이합치, 당신에게 정신을 자연의 변형 형태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을 정신의 변형 형태로 차례로 간주하게 하는 이합치가 나오는 근원이다. 자아와 비아, 인류와 자연은 똑같이 남아 있고 실재한다. 인류와 자연은 절대안에서 공시적 共時的이다. 그것들을 구분하는 유일한 것은, 인류 안에서 절대가의식을 가지고 전개되는 반면 자연에서 그것은 의식 없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고와 물질은 분리 불가능하고 환원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존재들에 따라 불균등한 비율로 발현하며 절대의 구성원소들 각각이 피조물들에서 순차적으로 열등성으로, 혹은 우세성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는 무한의 진화이며, 형태들, 본질들, 의지들, 잠재능력, 덕성 등을 끊임없이 뽑아내는 것이다.

어느 순간이 체계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자아와 비아의 절대안에서의 융합, 창조를 구성하는 사고와 존재의 이구분과 동시에 분리 불가능성, 정신의 끊임없는 뽑아냄, 그리고 끝없는 규모에서의 존재들의 발전이 모든 사람의 넋을 빼앗았다. 이 열광은 번개처럼 지나갔

다. 한새로운변증론자가갑자기일어나이렇게말했다. 이체계는한가지 만필요로한다. 이는증거다. 자아와비아는절대안에서혼동된다. 이절대는무엇인가? 그본성은무엇인가? 그것이발현하지않고절대의자격에서 그것이발현하는것조차불가능하니우리는그존재에대해어떤증거를가 질수있는가? ... 사람들은이렇게덧붙인다. 사고와존재는절대안에서동 일한것들로서분리불가능하고상동相同임에도불구하고창조안에서환 원불가능하다. 무엇에서이를아는가? 우리에게유일하게실재인것은법 칩임이인식되니, 법칙들의동일성은본질들의동일성, 실재들의동일성 을내포하지않는가? 신비적이고투시불가능한절대존재의존하는것이무슨 소용이며, 신이라는이늙은괴물을재생산하는것이그것들의법칙의시인 된동일성에의해완전히화해된두향을화해시키는데무슨소용이있는가? ... 자연과인류는절대의발전이다. 절대왜발달하는가? 어떤원리에힘 입어서, 그리고어떤법칙에따라서? 이발달의과학은어디있는가? 당신 의존재론, 당신의논리는무엇인가? 그리고같은법칙들이물질과사고를 다스린다면, 다른하나를알기위해하나를연구하는것으로충분하다. 과학은당신이뭐라고말하든당신자신의말에따르면선형적으로가능하다. 그러므로당신은왜과학을부정하며우리에게그자체로는과학이아니어 서아무것도설명해주지않는경험만을우리에게내놓는가?

그는이렇게덧붙인다. 자! 나는절대에의지하지않고, 사고와존재의 동일성에집착하면서구별되는것으로받아들여질수없는것, 정신과물질, 즉관념의두측면을당신이구분하므로당신의눈을벗어나고당신이발 견할수없던이발달의과학을건설할책임을맡는다.

그리고이철학의거인이이원론자체에의거해영원한이원론을뒤집는 것에착수하는것을우리는본다. 모순위에동일성을세우는것, 무에서존 재를끌어내는것, 그의유일한논리의도움으로자연과사람을설명하고예 언하고, 무엇인가하면창조하는것말이다! 그이전에다른어느누구도그 령게깊이존재의내적법칙들을깨닫지못했다. 누구도이성의신비들을그 령게활기뻐빛으로밝히지못했다. 과학전체가아니고논리전체도아니라 면적어도과학과논리의열쇠인공식을내놓는데그는성공한다. 그러나이 논리자체를그작자가경험을끊임없이가까이해서만, 그리고경험에서그 의재료를빌려와서만건설할수있었다는것, 그의모든공식들은관찰을따 랐지만절코관찰에선행하지않았음을사람들은아주빠르게느치했다. 그 리고사고와존재의동일성체계후에철학에서더이상아무기다릴것이없 었으므로, 원은단혔으므로, 경험없는과학은불가능하다는것, 자아와비 아가상관적이고서로에게필요하고상대방없이는의식이불가능하므로 그것들은동일하다는것, 그들의파악불가능한절대안으로의환원과파찬 가지로그들의동일성은우리지성의관점, 이성의가정假定으로서특정한 경우들에서는추론에쓸모있지만조금도실재성은없다는것, 끝으로반대 되는것들의이론은우리의의견을통제하고우리의오류를발견하고진리

이로부터입법자의정신에서소유권이라는제도는신용, 상업, 독점제 도와마찬가지로균형을목적으로만들어진것이라는말이 나온다. 이는우 선소유권을조직의요소들중에배치하고, 그것을가치들의구성의일반적 수단들중하나로지적하는것이다. “어느사물에대한권리는내가다른모 든사람들과보유공동체에있는물건의사적사용의권리다”라고칸트가 말했다. 그러므로이원리덕분소유권을박탈당한모든사람은모두의권 리의수호자인공동체에이를호소할수있고호소해야한다. 그결과로사람 들이말한것처럼, 섭리의시각에서는조건들은균등해야하는것이된다.

이논리 (Reid) 와똑같이칸트도다음의구절에서명확히이해하고 표현한것이다. “지금하나의기금을소유할능력은어디까지확장하는지 를묻는다. 그것을자신의잠재성안에지닐능력만큼멀리까지, 즉그것을 전유할수있는자가그것을수호할수있는만큼멀리까지다. 마치그기금이, 당신이나를지킬수없다면당신은더이상나에게명령할수없다고말하 는것과마찬가지다.”

그렇기는하지만나는이구절이소유권에선행하는소유에대해이해되 어야할말인지확신하지못한다. 그취득은사회안에서만결정적이라고칸 트가덧붙였기때문이다. 자연상태에서는그것은임시일뿐이다. 그러므 로이로부터내릴수있는결론은, 칸트의생각에서취득은일단사회적동의 에의해결정적이된후사회적보호아래서무한히증대할수있다는것이다. 이는개인이홀로자기소유권을지키는곳인자연상태에서는일어날수 없 는일이다.

어떻든지, 칸트의원칙으로부터적어도자연상태에서취득은각가족 에대해그가족이지킬수있는모든것으로, 그가족이경작할수있는것으 로확장한다고, 혹은가족수에따라경작가능한표면을나눈부분과동등 하다고하는것이아닌다. 취득분이이몫을넘어선다면곧바로그가족이 수호자를보유하는것보다더많은적들을만나니말이다. 그런데자연상 태에서이처럼제한된이취득은아직은임시적일뿐이므로, 국가는그임 시성을중단시켜그들의취득을결정적으로만들어취득자들의상호적대 성을근절하기를원했다. 그러므로평등은소유권의형성에서비밀의생 각, 입법자의주요목표였다. 이체계에서유일하게합당한것, 유일하게반 아들일수있는것은내소유권의보장책이내이웃의소유권이라는것이다. 나는더이상대여자와함께‘나는소유하므로소유한다 (possideo quia possideo)’고말하지않으며, 철학자와함께‘나는당신이소유하므로소 유한다 (possideo quia possides)’고말한다.

우리는그에따라서소유권의의한평등이신용, 독점, 경쟁, 혹은다른 모든경제적범주에의한평등과똑같이괴상하다는것, 그리고이점에서섭 리의확신은소유권으로부터가장귀중한, 그리고가장이기치않던결실들 을따내면서도그렇다고해서그의희망에서덜속은것은아니며, 불가능한 것에집착했다는것을보게될것이다. 소유권은경제적진화에서그앞서

쟁, 독점, 공안등을 낳은 것처럼 말이다. 이 모든 이윤배반은 노동의 이어지는 지위들과 같은 명목에서 노동에 의해 영원한 길위에 심어진 꽃말들로써, 그 종합적 결합으로써 사람들의 진정한 권리를 정식화할 운명을 띠었다. 그러나 사실은 권리가 아니다. 소유권은 점유와 노동의 자연적 산물로써 예상과 침해의 원리였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회에서 인정되고 합법화될 필요가 있었다. 노동에 의한 점유와 법적 강제라는 이 두 요소는 법학자들이 그들의 주석에서 까닭없이 분리한 것으로서, 소유권을 구성하기 위해 결합되었다. 그런데 이 양도의 섭리적 동기들, 이것이 경제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 이 절의 목표일 것이다.

우선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동의가 필요했음을 증명하자.

소유권이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합법화되지 않는 한, 그것은 사회 외적인 것으로 남는다. 그것은 아버지의 인정, 호적부 등록, 그리고 세례식에 의해서만 가족, 도시,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여겨지는 어린이와 같은 위치였다. 이런 형식들이 없으면 어린이는 동물들의 증식과 같다. 이는 쓸모없는 구성원, 비열하고 예속된, 고려를 받을 자격이 없는 영혼이다. 이는 사생아다. 이처럼 사회적 인정은 소유권에 필요했으며, 모든 소유권은 원시적 공동체를 내포한다. 이 인정 없이 소유권은 단순한 점유로 남고 아마도 처음 온 자에게는 박을 당하는 채로 있을 것이다.

칸트⁵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사물에 대한 권리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원시적 인 혹은 차후의) 공유 공동체 안에 있는 물건의 사적 사용의 권리다. 왜냐하면 이 공동 소유는 내가 다른 모든 소유자에게 그 물건의 사적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소유의 가상이 없이는, 실제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지 상상하기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 혹은 일방적 심판은 타인에게 그 물건의 사용을 스스로 금하게 의무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공동 소유로 결합된 심판들에 의해서만 의무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사물이나에 대해 의무를 진 듯이 사물에게 있는 권리를 상정할 필요에 처할 것이고 그로부터 결국 이 사물의 모든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도출될 것이다. 정말로 더 무니 없는 상상이다.”

이와 같이 칸트에 따르면 소유권, 즉 점유의 합법성은 본래 공동 소유를 내포하는 국가의 동의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을 수 없다고 칸트는 말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감히 대립시킬 때마다 국가는 그 소유권자에게 협약을 할기 시켜 언제나 이런 최후 통첩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다. 내 주권을 인정하고 공익이 주장하는 바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나는 당신의 소유권이 법의 보호 아래 위치하기를 중단했다고 선언하고 그것에서 내 보호를 철회한다.

의본 질적 특성을 확정하는 데는 비할 데 없는 잠재력을 지니지만 자연의 유일한 형태가 아니고, 경험의 유일한 계기, 따라서 정신의 유일한 법칙이 아니라 하는 것이 영원히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cogito’에서 떠나 여러 체계들의 끊이지 않는 계열을 따라 헤겔의 ‘나는 생각한다’로 다음과 같이 되돌아왔다. 철학적 혁명이 완수되었다.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그 결론들을 취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상식이 할 일이다.

그런데 상식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앞에 관련해서. 존재는 우리가 첫째로 자아의 의식, 둘째로 비아의 계시라 부르는, 해소될 수 없이 연결된 두 계기에서 만 자신에게 계시가 되니, 앞에서 궁극적으로 완수된 단계마다 이 두 결합된 계기를 내포하니, 이 이원론이 끊임이 없고 환원 불가능하니, 그것 바깥에서는 주체도 객체도 존재하지 않으니, 하나의 실재는 본질상 다른 하나의 현존에 연결되니, 그것들을 환원하는 것만큼 그것들을 고립시키는 것도 더 무니 없으니, 두 경우에 이는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과학을 제거하는 것이니, 우리는 우선 과학의 특성이 불가항력적으로 이성과 경험의 합치라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을 것이다.

확실성에 관련해서. 앞의 원천적 이원성에도 불구하고 객체의 확실성은 근본적으로 같으니, 주체의 확실성은 반회회주의적인 피론 추종자들에게 맞서 심박에 놓였으니, 이 점에서 판단된 사물의 힘이 있으니, 경험은 비아의 음미만 큼 자아의 확정이니, 이는 이성의 만족을 위해 충분하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체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 말고 무엇을 더 바랄 수 있는가? 그리고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지 아니면 단지 딱 맞아 들어가는지, 과학에서 우리의 관념을 자연에 빌려주는 것이 우리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자기의 관념을 주는 것이 자연인지 탐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구분을 통해 여전히 자아와 비아가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말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혹시 그것들이 분해될 수 있다면, 이는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다.

끝으로 신에 관련해서. 이는 우리의 영혼과 자연의 법칙, 혹은 이 두 관념을 하나의 관념에 포함시킨다면 창조 의 법칙으로서, 존재에서의 의식으로, 자생성에서 반사로, 본능에서 분석으로, 무오류성에서 오류로, 유類에서 종種으로, 영원에서 시간으로, 무한에서 유한으로, 이상에서 실재로 가는 등의 진행에 따라 배열되는 것이니, 논리적 필연성에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변적으로 그러나 다른 비율로 자아와 비아로 구성되는 존재들의 연쇄는 정반대의 두 향 사이에 포함된다. 하나의 향은 범인 凡人이 창조자 혹은 신이라고 명명하는 것으로서 무한, 자생성, 영원, 무오류성의 모든 특성을 결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서 진화적, 반사적, 잠정적, 교란과 오류에 종속된 존재라는 반대되는 모든 특성들을 끌어모으고, 그 선견지명은 주된 속성을 이룬다. 절대과학, 즉 가장 높은 제곱을 한 본능이 신성의 본질적 속성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에게 이성과 경험을 통해 한

⁵ 『법형이상학원리 Principes métaphysiques du droit』, 티소 (Tissot) 번역.

꺼번에알려진다. 신은반대로우리에게여전히이성의공준으로서만계시된다. 한마디로사람은있고, 신은가능하다.

그러한것이철학의작업들에관해서상식의두번째판단이다. 철학자체에의해제공된재료들에서동기들을떠올판단, 최종판단으로서이성은경험없이아무것도할수없음을, 그리고신에관해서우리에게는사실의증거, 실험적증명말고아무것도더부족하지않음을철학이인정한날, 그리고철학이망토로얼굴을가리면서세상에작별을고하고철학에대해끝났다 (consummatum est) 고공언된날에명확히생성된판단이다.

세상이어디서나이원론이터져나오는것을우리가보는데, 이원론을부정하는것이가능한가? 아니다.

존재들의진행을부정하는것이가능한가? 역시안된다.

그런데, 이진행의법칙이알려지고, 마지막항이주어졌을때, 첫번째항이존재하는것, 그리고이첫번째항이마지막항의대척점인것은이성적필연이다. 이와같이무한의존재, 우리가그안에서살고움직이고존재하는 (in quo vivimus, movemur et sumus) 위대한전체, 지고의유類, 인간이끊임없이그로부터빠져나오려는경향을띠고자신의적대자로서대립하는그유, 이영원한본질은끝으로철학자들의절대가아닐것이다. 그반대자인사람처럼, 그것은자아와비아, 주체와객체, 영혼과몸, 정신과물질의구분에따라서만, 즉역시유적인두측면에서정반대의대립으로의구분에따라서만존재할것이다. 게다가신의속성들, 능력들, 발현들은논리가속명적으로신을믿게유도하는것처럼, 그리고무한자에게적절한것처럼사람의속성들, 능력들그리고결정들의역이다. 이제부터는그가설의진리성에는그것의실현, 즉사실적증거말고부족한것이없다. 그러나이모든연역은그자체로회피불가능하다. 그리고논거들에의해그것이거짓으로입증되었다면, 원초적이원론은사라졌을것이고, 사람은더이상사람이아닐것이고, 이성는다이상이성이아닐것이고, 피론주의는지혜가될것이고, 부조리가진리일것이다.

그러나이야말로인도주의적철학을떨게만드는것이다. 그철학에는그모든법신론적환상처럼절대성이아주잘못입혀졌다. 사람이신이면서절대라는것을발견했다고믿어아주큰기쁨을느꼈다. 아주기진맥진하고수많은체계들을크게열망한다. 그래서신에맞서, 사람에게맞서그자신의학설들로부터결론을끌어낼용기를가지지못한다. 이최면술걸린철학은중간항들이필연적으로극단들을전제로한다고, 마지막것은첫번째것을부르고, 유한은무한을, 중은유를부른다고, 이무한, 그것을분할하는유한만큼실재적인이것, 자신의품에서유출하는점진적창조의대조에의해이번에는중이되는이지고의유, 이신, 끝으로인간의적대자인신은절대일수없다는것, 이는바로그것을가능하게하는것이라는것, 가능하다면, 그것이어떤사실에상응하는지를찾을필요가있다는것, 그리고사람안에그것을풀어낸다는핑계로이를부정하는것은우리의전투적본성을무시

그러므로삼단논법, 귀납법, 이율배반, 계열은지성의완벽한무기를이룬다. 다른어떤변증법적수단도그이상으로발견될것이없다는것은알기가쉽다.

삼단논법은, 말하자면관념을위에서아래로전개한다.

귀납법은이를아래에서위로재현한다.

이율배반은이를정면으로그리고측면으로파악한다.

계열은이를추적하고견고성과깊이에서이를꿰뚫는다.

얇은장막은다른차원들이없어서다른방법이없다. 이제부터우리는논리가만들어졌고상식이조직되었다고말할수있다. 그리고노동의조직은상식의조직의불가피한계係이므로사회가곧그확실하고확정적인구성에도달하지않는것은불가능하다.

II. 소유권확립의원인들

소유권은경제적모순들의연쇄에서여덟번째서열을차지한다. 이점은우리가처음으로확인할것이다.

소유권의기원은선점에도, 노동에도관계될수없다는것이증명된다. 이견해들중첫번째것은현상이현상의설명으로써주어지는악순환일뿐이다. 두번째것은본질적으로소유권에파괴적이다. 노동을지고의조건으로한다면, 소유권이확립되는것은완전히불가능하다. 소유권을집단적원망願望의행위로거슬러올라가게하는이론에관해말하자면, 이는이원망의동기들에관해침묵한다는결함을가진다. 그런데정작알아야할것은이런동기들이다.

이이론들이별개로볼때여전히모순에밖에도달하지않지만, 그럼에도그것들각각이일말의진리를포함한다는것은확실하다. 그리고그것들을고립시키는대신에세이론전체를함께, 종합적으로연구한다면거기서참된이론, 말하자면소유권의존재이유를발견하게될것이라고도추측할수있다.

그렇다. 그러므로소유권은참여와공동체의모든관념을배제하는주권적, 실질적점유에서시작한다. 아니, 발현한다. 그렇다. 또한이점유는그합법적이고공신력있는형태에서노동말고다른것이아니다. 이것없이어떻게사회가소유권을양도하고존경하게만드는데동의했겠는가? 그렇다. 끝으로사회는소유권을원했으며, 세상의모든입법은오직소유권을위해서만행해졌다.

소유권은점유에의해, 즉노동에의해확립되었다. 소유권의보존을위해서가아니라노동자들의교육을위해이를자주환기할필요가있다. 노동은잠재성으로소유권을포함했고, 그법칙들의진화를통해소유권을발생시켜야했다. 노동이산업들의분리, 다음은노동자들의위계, 다음은경

체의 필수부분이 되고, 그 부정적 특질들을 상실해 평등, 상호성, 책임, 질서의 긍정적 속성들을 다시 띠게 될 계열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화폐라는, 우리에게 고립되고 경제학자들의 책들에서 보조역할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사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설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남은 이 사실의 역할과 철학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했을 때, 우리는 화폐가 그로부터 떨어진 하나의 고리라고 가정하여 연쇄를 연구했고, 이 단순한 가설에 의거하여 우리는 어려움 없이 화폐가 우리의 산물들 중 첫 번째 것으로서 그 가치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모든 다른 산물에 전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이처럼 우리가 조세라는 또 하나의 고립된 사실, 정치경제학에서 아주 많은 아우성의 대상인 이것의 본성을 알고 그에 대해 하나의 이론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비생산적 노동자들, 즉 그 보수가 결코 교환에 의해 생겨나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의 고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 노동자들을 유류로서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노동자들의 대가족을 완성하기만 하면 되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충분한 이해에도 도달하기 위해, 사회질서에 대한 관념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된다. (1) 소유권이 그 부분을 이루는 모순들의 계열을 확정한다. (2) 일반적 방정식을 이용해 계열의 실증적 공식을 제시한다.

우리의 희망 사항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이 과업의 첫 번째 부분을 완수할 것이다. 소유권은 가치의 진자운동을 확정하는 일반적 사실들 중 하나다. 그것은 노동분업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나서 모든 가치들의 구성으로 해소되는 자생적 제도들의 긴 계열의 구성부분이다. 벌써 우리도 경제적 모순들의 체계에서, 뒤집어본 용단처럼 우리 미래 조직의 뒤집어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작품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문제의 두 번째 부분을 풀기 위해 우리는 말하자면 바로 잡기를 실행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상, 모든 단독의 존재, 즉 분리되지 않거나 공모자가 없는 존재는 그 자체로 분별 가능하다. 이는 정신과 물질과 같이, 모든 발현되지 않은, 혹은 같은 말이지만 계열별로 나누어지지 않은 본질들과 같이, 오성에 접근 불가능한 것, 정신에게는 감정, 신비로 해소되는 것이다. 벌써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강제하는 무한의 존재는 관찰이 그 존재를 확인해 준 후에도 여전히 사람에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할 것이다. 그의 안에 있는 아무 것도, 그의 밖에 있는 아무 것도, 그가 그 근원이자 버팀목이 되지만 그것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영원도, 편재 遍在도, 전능도, 무한의 과학도, 창조도, 진보하는 인류도, 집중과 고독에 중지부를 찍지 못해서, 그러한 존재는 영원히 미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성 이 점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라고는 부정, 혹은 같은 말이지만 신앙이다.

하고, 사람의 위에, 아래에, 그 둘레에 이해할 수 없는 공허를 창조하는 것이어서, 철학은 사람을 없애지 않으려면, 그의 이상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이 공허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감히 실패하지 않는다.

나로서는 이를 말하는 것이 유감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공언이나 사회주의의 가장 지적인 분파로부터 갈라놓는다고 느끼며,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인류에 대한 이 신격화에 가담하는 것은 내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무신론자들에게서 종교적 공포의 마지막 메아리일 뿐이고,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신비주의를 소생시키고 성화 聖化해 과학에 편견을, 도덕에 관습을, 사회경제에 공동체를, 즉 무기력과 빈곤을, 논리에 절대를, 부조리를 다시 가져가는 것이다. 내가 말하노니 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게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내가 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헛되이 애를 쓴다. 그리고 여전히 무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존재, 그 안에 자유와 지성, 자아와 비아 가 특수한 형태, 상상할 수 없지만 필연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존재, 이스라엘이 야훼에 맞서 싸운 것처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내 운명인 존재의 가설을 그럴 듯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내게 있는 것은, 내가 논리와 경험의 이름으로 이 종교를 그것의 모든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버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II

그 과학의 주체와 객체는 발견되었다. 사고와 존재의 진리는 공신력 있게 확인되었다. 그 방법을 발견하는 일이 남아 있다.

철학은 앞의 대상과 정당성에 관한 다 소비난을 받는 그 연구에서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는, 더 가까이서 연구되면 상식의 탐구의 자연적 수단들이 곧바로 인정되는 일정한 변증법적 형태들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따르려는 것을 지체 없이 알아차렸다. 과학 및 예술의 역사는 이 생각하는 기계들의 발명, 우리의 모든 지식의 진정한 수단들, 여기서는 그 주요한 것들만 알리는 데 그칠 것인 과학적 수단들 scientiarum organa 의 발명보다 더 재미나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것의 첫째는 삼단 논법이다.

삼단 논법은 그 본성과 기질 면에서 유심론적이다. 그것은 정신의 긍정이 물질의 긍정을 지배하고, 자아의 도취가 비아를 무시하게 하고 말하자면 경험을 향한 일체의 접근을 거부하는 철학적 탐구의 계기에 속한다. 이는 신학의 인기 있는 논거, 선협의 기관, 권위의 공식이다.

삼단 논법은 본질상 가설적이다. 일반 명제와 보조 명제 혹은 한 개별적 경우가 주어졌을 때, 삼단 논법은 엄밀한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지만 결과의 외인적 진리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 자체로 전제들의 진리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단 논법은 하나의 명제를

다른명제와엮는, 그러나그진리성을증명하지는못하는수단으로서의쓸모밖에내놓지못한다. 그것은계산과마찬가지로올바르게, 그리고정확하게묻는것에대답한다. 그것은결코문제를제기하는법을가르쳐주지않는다. 삼단논법의규칙을내용은아리스토텔레스는이수단을맹신하는바보가아니었으며, 그메커니즘을분석한것처럼그결점을지적했다.

이처럼삼단논법은변함없이선협에의거해, 하나의편견에의거해진행해나가면서어디서오는지를모른다. 관찰과는별로찬하지않아서자신의원리를설명하기보다는제시한다. 한마디로과학을발견하기보다는창조하는경향을띤다.

변증법의둘째도구는귀납이다.

귀납법은삼단논법의역또는부정이다. 비아의전적인긍정인유물론이유심론의역또는부정인것과같다. 모든사람이베이컨이권장하고추천한이추론형태를안다. 그에따르면이는과학들을갱신할것이였다. 그것은일반에서개별로내려가는삼단논법과반대로개별에서일반으로거슬러올라가는것이다. 그런데개별적인것이그무한히다양한측면들에따라무수히많은범주들로분류될수있고, 귀납의원리는전에확인해두지않은것은아무것도가상하지않는것이므로, 그것이어디서오는지모르는삼단논법과는반대로귀납법은자신이어디로가는지를결코모른다. 그것은땅에남아있고, 상승하지도, 끝에도달하지도못한다. 그러므로삼단논법처럼귀납법도이미알려진진리를증명하는데서만위력을가진다. 그것은발견하는데서는힘이없다. 오늘날프랑스에서사람들은관찰들이풍부하게, 그리고놀라운급속함으로축적되는바로그순간에철학정신이라고명명하는것의부재, 즉고등변증법수단들의결여가과학을정태적으로붙잡아놓는다는것을알아차린다. 또한베이컨이래로성취된진보들은사람들이아주여러번반복했듯이귀납법덕분이결코아니라고대철학이우리에게물려준, 그리고관찰들이확인, 변경혹은파괴하기만한소수의일반적편견들에대해유지된관찰덕분이라고하는말이참이다. 우리가우리의술책을다써먹은것같은현재에귀납법은멈추어서고과학은더이상진행하지않는다.

두마디말로한다면귀납법은모든것을경험론에주고, 삼단논법은모든것을선협에주어서, 지식은두개의무사이에서진자운동을한다. 사실들이증대되는동안철학은길을잃고, 경험은너무나흔히상실된채로있다.

이순간에필요해지는것은삼단논법과귀납법의, 따라서개별적인것과함께일반적인것의속성들을결합해서, 이성과경험을동시에다루면서한마디로우주를구성하고무로부터모든존재를나오게하는이원론을모방해언제나틀림없이적극적진리를유도할새로운수단이다.

그러한것이이울배반이다.

소유권은점유권이며, 동시에배제의권리다.
소유권은노동의대가이고, 노동의부정이다.
소유권은사회의자생적산물이고, 사회의해체다.
소유권은정의의기관이고, 도둑질이다.

이모든것에서어느날변형된소유권이적극적인, 완전한, 사회적이고참된관념일것임이결과로나온다. 옛소유권을폐지할소유권은모두에게똑같이실질적이고이롭게될것이다. 그리고이를증명하는것은, 다시한번말하지만소유권이모순이라는것이다.

이순간부터소유권은알려지기시작했다. 소유권의내적본성은베일이벗겨졌고그것의미래는예측되었다. 그럼에도비판은그과업의반을충족하지못했다고말할수있었다. 소유권을확정적으로구성하기위해서, 그로부터그배제적특성을빼내기위해서, 그리고그것에종합적형태를부여하기위해서그자체를분석한것으로충분하지않았고, 소유권은그것의한특정한계기일뿐인관념들의질서, 그것을둘러싸고그바깥에서는소유권을이해하기도, 영향을끼치기도불가능한계열을재발견할필요가있었다. 이조건없이소유권은현상을유지하면서사실로서공격불가능하고, 관념으로서분별불가능한채로남는다. 그리고이현상태에반대해착수된모든개혁은사회와관련해서아마도부모살해가아니라면회피일수밖에없었다.

실제로우리가글을쓰는순간에소유권은여전히우리의과학에서는우리의경제적관습에대해서와마찬가지로법적성격을띤다고, 소유권밖에서는최근시기에서사회주의에서시도한노력들에도불구하고아무것도알지못하고아무것도상상하지못한다는것, 법률학에서도상공업에서도쟁점을발견하지못한다는것, 소유권이파괴되고서사회는끝없는조직해체로떨어진다는것, 소유권을그이울배반적인본성에서알기를배운후에우리는소유권이그확정적공식을어떻게실현할것인지, 현실서로부터어떻게세상에서아무것도우리에게그관념도알려주지않는새로운질서가나올것인지를더잘알지못한다는것, 내가말하노니사람들은이모든것을생각하고서오로지이울배반의장점에의거해어떻게우리의경험과이성을한꺼번에고같이키는현재도로부터우리가마찬가지로관념들과사실들을결여하는사회적형태를정하는것에도달할지를질문한다는것을감히성찰해보기바란다.

이를인식할필요가있다. 이울배반은그자체로소유권인것을 입증하면서그결론을말했다. 그것은그것을넘어서나갈수없다. 또하나의논리적건축물이필요하며, 소유권이여러항목들중하나일뿐인진행대열을발견하고그바깥에서는소유권이고립된사실, 고독한관념으로만나타나서언제나상상이불가능하고척박한채로있는, 그러나그안에서는소유권이자기자리를다시잡아서그에따라그것의진정한형태가조화롭고참된전

니다. 법률가들의 이론이 순수한 자의라면 법률가들⁴의 이론이 순수일상 관행이라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게다가 그 이론은 그 결과들에 따라 아주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서 환히 드러나자 거의 곧바로 버려졌다. 그중에서도 라인강 저편의 법률가들은 거의 모두가 선점先占의 체계로 돌아왔다. 변증법의 나라에서 거의 믿기지 않는 일이다.

신비주의자들, 이성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이 사람들, 사실이 언제나 그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고 정당화한다는 이 사람들의 횡설수설에 대해서는 무엇이랄까? 그들은 말한다. 소유권은 사회적 자생성의 창조물, 섭리의 법칙, 그 효과라고. 섭리 앞에서 우리는 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앞에서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아! 인류가 자생적으로 원한 것, 높은 이의 허락을 받아서 성취하는 것보다 더 존경할 만하고, 더 공신력 있고, 더 필요하고, 더 거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처럼 종교는 그 나름대로 소유권을 성화聖化해 간다. 이 조짐에서 원리의 견고성이 약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다르게 말하면 섭리는 공공선의 관점에서만 소유권에 찬성할 수 있었다. 섭리에 대해 표해야 할 존경심을 결여하지 않으면서 그때그때 배행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묻는 것이 허락되는가? ... 공공선이 절대로 소유권들의 평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것은 소유권자 쪽의 일정한 책임을 내포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기적성을 요구할 때 십일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다. 그러므로 소유권자가 그 누구라도 결코 고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주인이면서 아무런 별 것 아닌 것에 대해서도 이를 나누어 가지지는 것은 어디서 연유하는가?

이 모든 관점에서 소유권은 분별 불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을 공격한 자들은 그들의 비판이 조금도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계산했을 수 있듯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미리 확신할 수 있었다. 소유권은 사실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성으로 소유권을 정죄한다. 여기서 실제와 관념을 어떻게 화해시키는가? 사실 안에 이성을 어떻게 통하게 할까? 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로 남는 것이고 아무도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듯한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소유권이 그렇게 초라한 수단에 의해 옹호될 것인 한에서 소유권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고 더 위력 있는 사실이 소유권에 대립되지 않을 것인 한에서, 소유권에 대한 공격은 미미한 항의일 뿐일 것이고, 거지들을 불러 모으고 소유권자들을 성나게 하는 데만 좋을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논리의 도움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비판이 나왔다.

소유권은 사실상으로, 권리상으로, 본질적으로 모순이다. 그리고 소유권이 무언가인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의 관념, 하나의 사실이 모순적 관계를 제시하고 상반되는 두 계열로 그 결과들을 전개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다릴새롭고 종합적인 관념의 추출이 있다. 그러한 것이 삼단논법과 귀납법의 대립과 조합으로부터 형성되는 새로운 기관器官들의 보편적인, 따라서 무한히 달라지는 원리이며, 이 기관은 누가 뭐라 하든 지고대인들이 단지 얼핏 짐작하기만 한 것이 고안트는 그 계시자였고, 그의 계승자들 중에 가장 심오한 사람인 헤겔에 의해 아주 큰 위력과 터뜨림으로 가동되었던 것이다.

이율배반은 자기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자기가 지니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것이 내놓는 결론은 사전의 명증 조건도, 궁극적 명증 조건도 없이도 참이며, 그 자체로 참이고, 그 자체에 의해 참이며, 그 자체를 위해 참이다.

이율배반은 필연성의 순수 표현이고, 존재들의 내적 법칙, 정신의 기복起伏운동의, 따라서 정신의 진보의 원리이고 개인 안에서처럼 사회 안에서 생명의 필요 불가결 조건이다. 우리는 이 책의 흐름에서 이 경이로운 수단의 매커니즘을 충분히 알렸다. 아직 말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다룰 부분에서 연이어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이율배반이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 전체가 아니며, 이 수단에 한정될 때, 상식의 조직은 이율배반에 의해 정해지는 개별 관념들의 배열을 상상의 자의에 맡긴다는 점에서, 그것이 결코 그 유도, 중도, 진화도, 진화도, 끝으로 체계, 즉 바로 과학을 구성하는 것도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완전할 것이다. 이율배반은 여러 개의 돌들을 자를 것이지만, 이 돌들은 흩어진 상태로 있을 것이다. 결코 건축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피상적인 관찰만으로도 인체의 기관들의 짝을 지은 분포를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상반되는 것들의 거대한 법칙의 진정한 화신인 이 이분법밖에 모르는 자는 아주 복잡하지만 단일한 우리 조직에 대해 아는 것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또한 가지에 가 있다. 선분은 자기 자신에 대립하는 한 점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평면은 선분의 유사한 운동에서 태어나며, 입체는 평면의 비슷한 운동에서 태어난다. 수학은 이 이원론적 통찰로 가득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원론은, 사용되는 것이 그 뿐이라면 수학을 이해하는 데 조금도 덜 척박하지 않다. 이원론에 의거해 선분의 관념으로부터 삼각형의 관념을 도출하려 시도해 보라. 양, 질 등 상반된 개념들로부터 일곱 빛깔의 광선, 일곱 음색의 음계의 관념을 추출하려 시도해 보라. ... 이처럼 관념들은 그들의 모순적 관계들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 후에 여전히 그것들을 군집화하고, 모양을 만들고, 체계화하는 법칙을 필요로 한다. 이 법칙이 없다면 그 관념들은 최초의 천문학자들의 변덕이 환상적인 별자리들로 결합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덜 상호한 것은 아닌 별들처럼, 고립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뉴턴과 허셜 같은 이들의 더 심오한 과

⁴ 문맥상 '경제학자들'의 잘못으로 보인다. -역자주

학이하늘에서그별들을조율해주는관계들을발견하기까지그랬을것이다.

이울배반에서결과로나올수있는것과같은과학은사람과자연의이해에는결코충분하지않다. 그러므로마지막변증법적수단이필요해진다. 그런데이수단은진행, 분류, 그리고계열의법칙이아니면무엇일수있는가? 그일반성안에삼단논법, 귀납법, 이울배반자체를포괄하고음악에서성악이화음에대해가지는관계를이울배반에대해가지는법칙말이다.

이법칙은신이동물들과식물들을종류에따라창조하는창세기의제1장을다시읽을때확신할수있는것처럼모든시대에알려진법칙으로서특히현대의박물학자들에의해조명되었다. 이법칙은수학에서최고의자리에있다. 철학자들은예술가들처럼이름미美와진眞의순수본질인것으로선포했다. 그러나내가아는누구도그이론을내놓지않았다. 그러므로이목표를위해서다른저작을참조하게하는나를양해해줄것이다. 그저작에서는의문의여지없이내가적성보다는선한의지를더많이증명한것을발견하게될것이다.³

자연적군집들에의한관념들의진행, 계열, 연합, 이런것은상식의조직에서철학의마지막발걸음이다. 다른모든변증법적수단들은그것으로환원된다. 삼단논법과귀납법은고등계열에서떨어져나오고다양한의미로고려된파편들일뿐이다. 이울배반은중간지점들과내부적운동에대해서는사상한, 작은세계의양극의이론과같다. 그계열은관념들의모든가능한분류형태를포괄한다. 그것은일체이며다양성이고, 자연의참된표현이고따라서이성의지고의형태다. 하나의계열에관련지어질수있는, 혹은계열로분산될수있는것말고는아무것도정신에분별가능하게되지않는다. 그리고우리에게고립된것으로나타나는모든피조물, 모든현상, 모든원리는우리에게분별불가능한것으로남는다. 감각들의증언에도불구하고, 사실의확실성에도불구하고이성은그것의선행자들, 결과들, 그리고보조정리들, 즉계열, 가족을재발견하기까지는이를배척하고이를부정한다.

이모든것을더감각가능하게하기위해본장의대상이되는문제자체, 소유권에그것을응용하자.

이절의개요에서, 소유권은경제적계열의바깥에서는분별불가능하다고말했다. 이는소유권이정신적, 형이상학적혹은심리학적어떤선행에의해서도(삼단논법의공식), 입법적혹은역사적인아포스테리오투리 à posteriori 에의해서도(귀납의공식), 내가소유권에관한논문에서한것처럼그모순적본성의해설에의해서조차도(이울배반의공식) 충분한방식으로이해되지않고설명되지않음을의미한다. 유비적인, 유사한혹

³ 『인류에서질서의창조 Création de l'ordre dans l'humanité』, 1 vol. in-12, Paris, Prévôt, rue Bourbon-Villeneuve, 65; Guillaumin, rue Richelieu, 14.

은들어맞는발현물들의어떤질서에소유권이정리되는지를인식할필요가있다. 한마디로그계열을재발견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고립되는모든것, 그자체로, 그자체에의해, 그리고그자체를위해서만자신을언명하는모든것은충분한존재를누리지못하며분별가능성과지속성의모든조건들을모이지못하기때문이다. 모든것안에서의, 모든것에의한, 그리고모든것을위한존재도필요하다. 한마디로내적관계들에외적관계들을합칠필요가있다.

소유권은무엇인가? 소유권은어디서오는가? 소유권은무엇을원하는가? 이야말로철학의흥미가장높은정도로끄는문제다. 탁월하게논리적인문제, 사람과사회와세계가그해결에의존하는문제다. 왜냐하면소유권문제, 이는다른형태에서확실성의문제가기때문이다. 소유권은사람이고소유권은신이고소유권은모든것이다.

그런데이무서운문제에법률가들은그들의선행을중얼거리며대답한다. 그것은소유권은사용하고남용할권리, 점유와전유에의해발현되는의지의행위에서결과로나오는권리다. 법률가들이우리에게절대아무것도가르쳐주지않는다는것은명확하다. 왜냐하면전유가사람의운명의성취에, 그리고그의근면의행사에필요함을인정한다면, 그로부터결론을내릴수있는것이라고는전유가모든사람에게필요해서보유는동등해야한다는것, 그래서언제나변화하고이동가능하며증가와감소를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보유자들의동의에도불구하고이는소유권의부정자체다. 선행적추론자들인법학자들의체계에서소유권은자기자신과합치하기위해서자유처럼상호적이고양도할수없는것이여야할것이다. 그래서모든취득, 즉전유권의모든궁극적행사는동시에취득자쪽에서는자연권의향유로드러날것이며, 그의동류들에대해서는횡령으로드러날것이다. 이는모순적이고불가능한것이다.

경제학자들은공리주의적귀납에근거해그들의순서가되어나서서우리에게말한다. 소유권의기원은노동이라고. 소유권은노동하면서살권리, 자신의저축, 자본, 지력과근면의결실을자유롭게주권적으로처분할권리다. 그들의체제가더군건한것이아니다. 노동, 실질적이고생산성있는점유가소유권의원리라면노동하지않는자의소유권은어떻게설명하는가? 임대료를어떻게정당화하는가? 노동에의한이소유권의형성으로부터노동없는보유권을어떻게도출하는가? 30년간건지된노동으로부터영구적소유권이온다고어떻게납득하는가? 노동이소유의원천이라면, 이는말하자면소유권이노동의보수라는것이다. 그런데노동의가치는무엇인가? 그교환이소유권에아주귀한불평등을가져오는산물들의공통척도는무엇인가? 소유권은실질적점유의지속시간에, 노동의지속시간에한정되어야한다고말할것인가? 그렇다면소유권은인적이며, 양도불가능하고, 이전(상속)가능하기를그친다. 이는더이상소유권이아

서다. 그러니 너는 사회의 독재 아래서는 양심의 죽음일 뿐일 것인가? 그리고 너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매일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필요할까?

노동의 자유는 그것이 전유를 내포하므로, 그리고 전유와 함께 독점, 고리대금, 소유권, 사람에게 한 사람의 착취를 내포하므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할까? 나는 곧장, 자유가 이런 남용행위를 낳는다면 이는 교환법칙의 잘못이고, 가치구성의 잘못, 그리고 소비자들 간에 평등을, 기능들 간에 균형을 주장하는 분배 이론의 잘못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여기서 분배에 반대하는 것은 누구인가? 누가 온 힘을 다해 가치이론과 교환법칙을 배격하는가? 공산주의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노동의 자유에 분배의 법칙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배척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동의 공동체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분배를 거부한다. 웬 헛설수설인가!

노동의 조직, 노동의 분업 혹은 자유, 산업들의 분리, 이 모든 용어는 동의어다. 그런데 공동체는 산업들의 분리에 의해 멸망한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필수적으로 무기체적이다. 조직 붕괴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지상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인들을 분리하지 않는 산업들의 분리, 이익들을 갈라놓지 않는 노동의 분업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어떻게 책임 없이, 그리고 따라서 개인적 자유 없이 노동의 능률과 수익의 충실성을 보장할 것인가? 노동은 분화될 것이라고, 산물만이 공유일 것이라고 그대는 말한다. 악순환이고, 선결문제요구의 오류이고, 무의미한 말의 나열이고, 터무니 없는 소리다. 나는 방금 소비가 분화되지 않고서 노동이 분화될 수 없다는 것, 다른 말로, 분업의 법칙은 분배의 법칙을 내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분배는 네 것과 내 것의 동의어인 차변과 대변에 의해 진행하므로 공동체에 대해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 이처럼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품안에서, 생산물들의 분배에서, 그리고 노동의 분업에서 숙명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무엇을 하더라도 공동체는 멸망을 선고받는다. 공동체는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의의 손에 양보하든지, 아니면 우애의 걸모습 밑에 힘의 독재 대신 수의 독재를 만들든지 하는 선택지밖에 가지지 않는다.

사회주의가 아벨의 살해에서부터 리브드제의 총살에까지 조직의 거대한 문제에 관해 내뱉은 모든 말은 돌팔이의 웅변 연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망과 무능의 외침일 뿐이었다. 어제와 오늘도, 사회주의에서도 소유권자 당파에서도, 아무도 사회경제의 모순들을 풀지 못했다. 그리고 조직과 개혁의 이 모든 시도들은, 친애하는 빌가르텔이여, 내가 여기서 우리가 친번 함께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 세상처럼 오래된 진리, 그들이 그 이름도 발음할 줄 모르는 진리를 다가올 과학의 이름으로 에누리하면서 공중의 순진한 믿음을 이용하는 자들이다.

생산자는 그의 노동에서 자유일까 아닐까?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사회주의는 감히 대답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어느 편에서든 지진 것이다. 노동의 분업은 풀수 없는 끈으로 산물의 수학적 분배에 묶여 있고, 생산자의 자

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유권에 폭력을 가하는 것, 웬 조짐인가! 스파르타 쿠스의 그늘이 덜 무서워 보였다.

자연적으로는 덜 비옥한 토양의 깊숙한 곳에서 우연이, 그리고 우연에서 태어난 과학이 연료의 보고를 발견했다. 이는 자연의 공짜 선물로서 공동의 주거지 토양 밑에 놓여서 각자는 자기 몫을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소유권자가 도착한다. 단지 경작을 위해서만 그에게 토지의 양도가 행해졌던 것이다. “당신들은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들은 내 소유권을 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는 말한다. 이에 기치 못한 경고에 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벌어진다. 어떤 이들은 광갱이 경작지와 같지 않아서 국가에 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소유권자가 지상과 지하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토지를 보유하는 자는 누구나 위로 하늘까지, 그리고 아래로 지옥까지 다 그의 것이다 (Cujus est solum, ejus est usque ad inferos)” 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자가 어둠의 왕국에 배치된 새로운 심술꾼은 문지기로서 입구를 막을 수 있다면 국가의 권리는 허구일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탈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는 이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국가는 양보한다. 뒤누아예씨의 입술을 빌려서 트롤롱씨의 뒷받침을 받으며 이렇게 말한다. “과감하게 단언하자. 옛날에 광갱을 왕의 소유라고 말할 것이 옳지 못하고 할당하지 못한 것처럼, 광갱을 민족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할당하지 못하다. 광갱은 본질상 토지의 부분물이 아니다. 보통법이 지상의 소유권은 지하의 소유권을 내포한다고 말한 것은 완전한 상식을 가지고 한 말인가? 실제로 그 분리를 어디서 중단할 것인가?”

뒤누아예씨는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고뇌한다. 그러니 누가 때로 상속에서 1 층과 2 층을 나누는 것과 같이 광갱을 지표면과 분리하는 것을 막는가? 이는 루아르데파르트망에서 석탄 지대의 소유권자들이 아주 잘 행한 일이다. 그곳에서 지하물의 소유권은 거의 어디서나 지표면의 소유권과 분리되었고, 주식회사 주식처럼 일종의 유통하는 가치로 변형되었던 것이다. 누가 또 광갱을 갱도가 필요한 새로운 땅으로 간주하는 것을 막는가? 하지 만 뭐라고! 나폴레옹, 트롤롱씨, 뒤누아예씨는 이렇게 갈채를 보낸다. 더는 재론할 것이 없다. 뭇지모를 사소한 유보 조건에서 협상이 벌어졌다. 소유권자들은 황제의 너그러움을 입었다. 그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나는 벌써 한번 이상 루아르 광산의 담합에 관해 말할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를 재론한다. 왕국의 석탄 광맥으로 가장 풍부한 곳인 데파르트망에서 개발 이용은 우선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가장 터무니 없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광업의 이익, 소비자들과 소유권자들의 이익은 채굴이 총체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몇 해인지 모를 여러 해 동안 소유권자들이 거둬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운 경쟁을 했으며, 광산의 황폐화가 그 첫 비용을 지불했다. 그들은 그럴 권리가 있었는가? 당연

히그렇다. 그들이권리에서벗어난행동을하는것에대해국가가나쁘게생각하는것을살펴보자.

결국소유권자들, 적어도그대부분은의견합치에도달했으며, 연합을이룬다. 의문의여지없이그들은이성에, 보전, 좋은질서, 사적이익만큼이나일반이익이라는동기에양보했다. 이제부터소비자들은저가료연료를얻을것이며, 광산업자들은정규노동자를얻을것이며, 임금은보장될것이다. 공중에게서얼마나우레와같은박수갈채가나오는가! 학계에서얼마나찬사가쏟아지는가! 이아름다운헌신이얼마나꾸며지는가? 사람들은그모임이사업권들을함께 묶는것을금하는법의조문과정신에순응하는지알아보지않을것이다. 사람들은그모임의장점만을볼것이며, 입법자가인민의행복말고다른것을원하지도않았고원할수도없었다는것, 인민의안녕이최고의법이어야한다 (Salus populi suprema lex esto) 는것을제대로증명할줄알것이다.

기만이다! 우선소유권자들이담합하면서쫓는것은이성이아니다. 그들은힘에만복종한다. 경쟁이그들을심연에빠뜨림에따라승리자의편에줄을서서자신들의증대는무리에힘입어반대자들의패주를가속화한다. 그리고나서연합은집단적독점으로형성된다. 상품가격은증대한다. 이런것이소비에가해지는것이다. 임금은낮아진다. 이런것이노동에가해지는것이다. 그렇게되면공중은불평한다. 입법자는개입하려고한다. 하늘은벼락을치겠다고위협한다. 검찰은담합을금하는형법제 419 조를내세우지만이는모든독점자가연합을이루는것을허용하며, 상품가격에는어떠한조치도규정하지않는조항이다. 행정부는 1810 년법에호소한다. 이는개발이용을촉진하고자해서사업권들을분할하면서도오히려통합에반대되기보다는호의적인것이다. 그리고논문, 판결, 논증들을가지고서어떤변호사들은담합이정당한권리라는것을증명하고, 다른변호사들은담합이권리가아니라는것을증명한다. 그러나소비자는이렇게혼잣말한다. 내가투기거래와경쟁의비용을지불하는것이정당한가? 내게최대의이익이되게소유권자에게무상으로주어졌던것이내게그렇게비싸게되돌아오는것이정당한가? 요금표를정하도록하라! 소유권자들은“우리는그런것을원하지않는다”고대답한다. 그리고나는국가가아무것도풀지못하는것인권위적조치, 아니면모든것을버리는것인보상금에기대지않고다른방식으로그들의저항을이겨내려면이겨내보라고도전한다.

소유권은소유에서만아니라생산에서도비사회적이다. 노동수단의절대적여주인인그는불완전하고, 사기성있고, 역겨운생산물만을내놓는다. 소비자는더이상대접받지못한다. 그는자기돈을도둑맞는다. 사람들은농촌의소유권자에게말한다. “당신은이과일들을따기까지, 이밀을숙아내고, 이견초를말리기까지며칠을기다릴줄모르셨나요? 이우유에물을타지않고, 당신의나무술통을씻어내고, 당신의수확물을더잘돌볼줄모르셨나요, 덜안아들고더잘할줄모르셨나요? 당신은과부하예요.

금의비례성과개체성을내포하는것처럼노동의자유와개성을내포하는것을증명하자. 이는언제나공동체의불가능성에도달하는것이다.

산업조직의가장위력있는첫번째관할영역은산업들의분리, 다른말로하면노동의분업이다. 자연은기후의차이로인해이분업을예고했고선형적으로그모든결과를정했다. 인간의천재성이그나머지일을행했다. 이처럼인류는유통과교환이태어나는모체인이위대한분업의법칙을적용해서만자신의일반적필요들을충족한다. 게다가여러민족들이이원초적분업으로부터자신들의독창성과특성을받았다. 여러인종들의모습은결코사람들이생각할수있을것처럼생식에의해보전되는지울수없는모습이아니다. 이는해외이주의효과와관습의변경에의해서비로소사라질수있는자연의도장이다. 그러므로노동분업은단지생산기관으로서작용하는것이아니다. 정신과신체에핵심적영향력을행사한다. 노동분업은우리의노동만큼이나우리의교육의형태다. 이모든관계에서우리는그것이부의창조자인것과마찬가지로사람의창조자라고, 사회만큼이나개인에게도필요하다고, 후자와관련해서처럼전자와관련해서도노동의분업은발휘할수있는모든위력과강도를가지고서적용되어야한다고말할수있다.

그러나분업의법칙을적용하는것은개인주의를조장하는것이고, 공동체의해체를촉발하는것이다. 이결과를피하는것은불가능하다. 실제로, 잘경영된공동체안에서각산업에제공할노동의양은알려지며, 노동자들의수도알려지니, 게다가노동은각자로부터임금의조건이자모두에대한보장수단으로만요구되니공동체는자연법칙에저항하고그작용을억제하고그효과를방지할어떤이유를가질것인가? 그리고정부에다음의제안을하고자하는시민에게대답할말이무엇인가?

“내가속한집단이제공할서비스의액수는 1000 이다.

연간노동일수는 300 이다.

우리는 50 명이다.

나는약속한다. 그리고나는여기첨부하는논문에의거해내제안이어떤식으로든공화국에이로울수밖에없음을증명한다. 말하자면나는총소비에서내게돌아오는몫을보증금으로매일, 매월, 매년정부의형편에따라내게할당되었을수있는집단적노동의부분에 10 분의 1 을더한것을제공하기로약속하며, 그대가로내위험을스스로지면서자유롭게되기를, 혼자서일하기를요구하는바다.”

이시민은노동해방을요구하며, 자유에대한실질조세를납부하겠다고맹세하는데, 그는혐의자로선언될것인가? 개인적자유는개인적자유들의총계로구성되는일반적자유이름으로금지되어야할것인가? 이금지의동기는무엇일까? 내존재의매력이고, 그것없이노동은고역이고 삶은긴죽음이되는자유여! 인류가태초부터싸운것은너를위해서다. 우리가새로운, 그리고거대한혁명의작업중에있는것은너의지배를위해

공화국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공화국이 사람들을 배분해 간하고, 경작하고, 창고와 지하 저장고와 실험실을 짓고, 궁전, 작업장, 학교를 건축한다.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조하고 교육과 공연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두 무료로, 그리고 그 나라의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각 사람은 국가의 일꾼이고 국가의 경리에 따라 노동한다. 국가는 아무에게도 급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가부장(가)가 그의 자녀들에 대해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돌본다. 그러한 것이 거의 이탁월한 카베씨의 유토피아와 같다. 이는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인도, 라틴, 영국, 프랑스, 미국의 공장가들의 유토피아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갱신한 것이다. 페코르씨가 여러 변형들을 가지고 재생하고 우리의 젊은 민주주의의 대표자인 루이 블랑씨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그러나 완전히 자신도 모르게는 아니게 이끌려간 유토피아다. 단순하고 항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이 메커니즘이 적어도 모든 사람의 이해력 범위 안에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을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한다. 또한 저자들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이 노동시간, 복장의 선택, 그 밖의 환상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밖에 논쟁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이는 체계에는 아무것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없다고 그들은 덧붙여 말한다.

그러나 이 체계는 유토피아주의자들의 말로는 간단해도 사람이 자유로 운 존재이고 경찰과 공동체에는 반항하는 존재라는 것, 개인적 자유에 폭력을 가하는 모든 조직은 개인적 자유에 해를 망하리라는 것을 성찰한다면 갑자기 풀수 없는 복잡함을 지니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 유토피아들에서는 전유權(전)이 가향상 재론되고 우애에 대한 존중 없이 공동체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카베씨가 저녁에 가정에서의 밤참을 허락하는 것을 보았다. 이 양보에 카베씨는 또 하나의 양보를 더한다. 일요일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다! 각자는 원하는 곳에서, 자기 집에서, 식당에서, 또는 들판에서, 내키는 대로 ad libitum 저녁 식사를 한다. 착하고 응석을 받아주는 엄마처럼 이 카리아의 입법자는 이따금 공산주의의 엄격함을 양보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시민들에게 그들이 단지 형제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입을 환기시키기를 원했다. 일요일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카베씨는 한 발 더 나아가간다. 농업에 관해서 그는 작은 사업, 거의 작은 소유권이라고 할 것을 복권시킨다. 이 카리아에서 농업인은 공화국의 차지인으로서 자기 오두막 집과 텃밭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과 단독으로 산다. 나는 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체계를 배척한다는 것을 안다. 이 체계에는 경제학자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카베씨가 이단이라면 그의 모든 비방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내가 단지 형태상의 차이만이 존재함을 증명한다면 그대는 그들 사이에 원리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조직은 공산주의적 조직이건 다른 조직이건 필연적으로, 모든 분배가 임

당신의 상속 재산 일부를 내려놓으세요.” “무슨 뜻인지 같은 소리요!” 소유권자가 빈정거리는 기본으로 대답한다. “영성하게 발걸음을 한 20 아르팡이 같은 시간들 들고 비용은 두 배로 쓴 10 아르팡보다 언제나 더 많은 수확을 낸 단말이오. 당신의 체계대로 하면 토지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먹여 살릴 것이오. 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나에게 뭐 난 말이오? 내 소득이 중요하지. 내 생산물의 품질로 말하자면 그 생산물은 언제나 먹는 이들에게는 충분히 양호할 것이오. 당신은 재주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담 선생님, 당신은 어린아이일 뿐이오. 판매에 내놓을 만한, 그것도 공정한 가격에 판다면 소유권자인 것이 무슨 소용이 난 말이오? ...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음, 그렇다면! 당신은 경찰이 그의 무를 행하도록 하라고 말하시겠군요! ... 경찰 말이오! 당신은 경찰의 행동은 바로 악이 실행되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잊는군요. 경찰은 생산을 감독하는 대신 생산물을 검사합니다.” 소유권자가 양심 없이 경작하고, 수확하고 제조하도록 허가한 후 등장해 푸른 과일들을 집어들고, 혼합된 유유단지, 불순물이 섞인 맥주와 포도주통을 쏟아 붓고 금지된 고기들을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다. 이 모든 일이 경제학자들과 민중의 박수갈채를 받는 가운데 행해진다. 이들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존중하기를 바라지만 교활한 자유인들을 견디지 못한다. “이봐, 야만인들! 이 불순한 산물들의 소매를 유발하는 것은 소비자의 빈곤이란 말이오. 당신이 소유권자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왜 당신은 가난한 자가 열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오? 굶어 죽느니 보다 복통을 앓는 편이 낫지 않소?”

이 산업인에게 가난한 이의 빈곤, 아이들과 어린 여자 아이들의 무경험을 놓고 투기 행위를 하는 것을 비열한 것이라고 말해 보라. 그는 당신 말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무모한 과잉 생산에 의해, 잘못된 계산된 사업에 의해, 그가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의 일꾼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고, 그의 이익은 관심사가 아니라 해도 그 주위에 운집한 수많은 가족들의 이익은 고려되어 마땅하다고, 그의 자의적인 선심에 의해 그 주위에 낙심, 비굴함, 증오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증명해 주어라. 소유권자는 화를 낸다. 전설을 흉내 내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주인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하므로 당신은 내 선량함을 모두를 위한 권리로 삼겠다는 것인가? 내게 복종해야 하는 자를 내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내 사업 운영을 위해 하는 것이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나만이 심판관이다. 내 일꾼들이 내 노예들인가? 내가 제시하는 조건이 그들 맘에 안 들고, 더 나은 조건을 발견하면, 가라고 하라! 나는 그들을 출하해 줄 첫 번째 사람일 것이다. 아주 훌륭한 박애주의자들이여, 누가 당신들이 작업장을 여는 것을 막는가? 만들어서 모범을 보여 달라. 당신들이 덕성을 설교하면서 영위하는 이 감미로운 생활 대신에 공장을 지어서 일을 시작해 보라. 끝으로 땅 위에서 당신들의 이해 연합이 결성되나 보자. 나로 말하자면 나는 그런 빌

어 먹을 짓은 온 힘을 다해 거부한다. 조합원들이라니! 차라리 파산하고 말지, 차라리 죽고 말지!”

이와 같이 소유권은 사람과 사람을 독점보다 백배는 더 갈라놓는다. 입법자는 현저하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소유에 더 강한 보장책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독점자에게는 영속적으로 그의 약탈의 매일의 결과물을 보장해주면서 노동자한테는 희망마저 빼앗는 입장에 선다. 어떤 거대한 소유권자가 작은 소유권자를 억제하기 위해 자기 힘을 남용하지 않는가? 어떤 존귀한 물리학자가 그의 영향력과 그의 후원자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않는가? 자문의 견에서 공신력을 얻은 어느 철학자가 번역, 재검토 혹은 논평을 구실로 철학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단을 찾아내지 않는가? 어떤 장학사가 알파벳 입문서를 팔지 않는가? 정치경제학은 모든 주식장사에서 자유로우며, 종교는 모든 성직 매매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인쇄소장인 영예를 누렸으며, 12 절판 다섯 장짜리 교리문답서 12 권을 30 수에 팔았다. 그 아래로 그곳의 주교가 종교서적 독점권을 취해 교리문답서 가격은 15 상탑에서 40 상탑으로 올랐다. 주교 전하는 이 한 품목에 대해 매년 5 만 프랑의 순이익을 실현한다. 어떤 문제는 어떤 서생에게 승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서만 학술원에서 논문 공모에 부쳐졌다. 어떤 작문은 훌륭한 학설을 공표하는, 즉 어떠한 어떤 작자들을 향해 아침의 예술을 행하는 그런 서생에게서 나온 것이라서 비로소 상을 받았다. 작위를 지닌 학문이 평민의 학문의 길을 막아 선다. 떡갈나무가 달대 더러 자신에게 예를 표하라고 강요한다. 종교와 도덕은 석고와 석탄처럼 특권을 이용해서로 착취한다. 특권은 우수마저 공략하며, 청년층의 장려와 학문의 진보를 위해 마자랭극장에서 수상한 자들은 학술적 봉건제도의 표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권위적 남용, 이 독직, 이 비열한 것들은 불법적 남용이 아니라 합법적 사용, 소유권의 아주 합법적인 사용에서 나온다. 의문의 여지 없이 어느 상품의 자유 유통, 또는 조달품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이 검사를 위조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런 식이 아닌가? 그러한 행위는 당국의 기관원들의 덕성에는 역겨울 것이고 형법전의 공소 대상이 될 것인데, 나는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승인하는 자는 그의 승인이 필연적으로 그의 수단에 따른 것이니 그가 만들 줄 아는 것 말고 더 잘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데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그런데 감독관과 검사관에게는 다른 이들에게서는 승인할 책임을 맡은 것을 그들 스스로 만드는 것이 전혀 금지되지 않으므로, 더구나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전혀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서 임금과 이득은 합법적이므로, 따라서 대학과 주교들에게 맡겨진 어떤 저작물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임무는 주교들과 대학 사람들의 이익이 되도록 독점을 형성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법률이 모순을 일으켜 그것을 막겠다고 하면, 법보다 위력적인 사물의 힘

을 당할 것이다. 자기 안에서 사회 정의를 인격화해 공동체를 폐지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사회주의는 계산하지 않으며, 계산을 거부한다. 정치경제학보다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게 사회주의는 가치의 공측 불가능성을 단언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여러 유토피아들을 거치며 추구하는 것이 교환법칙에 의해 주어진다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 법칙의 공식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신학이 그 신화들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서 그러듯이, 철학이 그 논리를 구성하고 나서 그러듯이, 사회주의는 가치의 법칙을 찾고 나서 스스로 알게 될 것이며, 존재하기를 그만둘 것이다. 분배의 문제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회주의 작가에 의해서도 정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 증거는 모두가 경제학자들처럼 분배의 규칙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각자에게 그의 능력에 따라, 각 능력에는 그 공적에 따라”를 표어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에 따를 때 능력의 척도는 무엇인지도, 노동의 척도가 무엇인지도 말하기를 삼갔다. 다른 이들은 노동에, 그리고 능력에 새로운 평가 요소인 자본, 달리 말하면 독점을 더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뜻밖의 주장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끌어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문명의 비열한 표절자들 일뿐임을 한 번 더 증명했다. 끝으로 세 번째 견해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이런 자의적인 타협을 피하기 위해 분배를 배급으로 대체하고 “사회적 자원의 규모에서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를 명문으로 삼는다. 이에 의해 노동, 자본 그리고 재능은 과학에서 제거된 처지가 된다. 동시에 산업적 위계와 경쟁은 제거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로 구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서 사라진다. 화폐는 최종적으로 금지되고, 이와 함께 가치를 대표하는 모든 표시도 금지된다. 신용, 유통, 무역수지 균형은 이 보편적 우애의 왕국에서는 의미를 잃은 말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공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허무한 단순성에 사로잡힌 자들을 안다!

친애하는 빌가르델, 그대는 말했다. 공동체는 사회주의의 숙명적 종말이라고! 그리고 사회주의가 아무것도 아니고 결코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영구히 아무것도 아닐 것임은 이때문이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본성상 그리고 그 정신에서 부정, 과거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VII. 공동체는 조직의 법칙 없이 불가능하며, 조직에 의해 멸망한다

공산주의의 계획보다 만들기 더 쉬운 것도 없다.

개인주의의 동의어다. 세는공유인채로있는자연적부는그말의경제적의민에서분배된것이아니라고, 만약자연의모든산물과노동도마찬가지라면판매가치는 0 일 것이며, 그로부터나오는결과는그것과함께사라질것이며, 더이상정치경제학은없을것이라고옳게말했다. 또한공산주의자들은결코분배하지않는다. 그들의과학은거기까지가지않는다. 그들은배급한다. 그들이폐지하는것은사회과학의새로운범주, 즉가치, 교환, 등치, 정의, 구매와판매, 상거래, 유통, 신용등등이다. 공산주의는생존하기위해수많은말, 관념, 사실들을제거해서공산주의의배려로교육받은백성은말하고생각하고행동할필요를더이상가지지않을것이다. 이는활동성도감정도없이우애의 ... 바위에나란히붙어있는굴들일것이다. 공산주의란얼마나지적이고진보적인철학인가!

그렇지만잘정돈된공동체안에서는정확성을가지고, 모든종류의산물에대해소비의필요와생산의한계를알아야할것이다. 가치들의비례성은소유권에기초를둔사회들에대해서만큼공산주의사회들에대해서도부의지고의조건이다. 그리고사람이그것을고려하기를거절한다면, 속명이그를위해계산해줄것이며, 어떤오류도일어나게하지않을것이다. 각산업조합은그러므로자기인원과수단에비례하는몫을손해와손상을공제하고서제공해야할것이다. 거꾸로각각의제조업과국가기관은다른생산원천들로부터모든종류의공급물자를그필요에비례해계산된것으로받을것이다. 그러한것이노동과균형의필요불가결조건이다. 이는칸트가말했더라면가치의정언명법, 절대명령이다.

이와같이우리는적어도작업장, 조합, 도시들과지방들에대해회계를수립해야할것이다. 정의의순수표현인회계는왜무리들에대해서와똑같이개인들에게적용되지않을것인가? 왜거대국가기관에서시작된분배는사람들에게내려가지않을것인가? 노동자들은사회보다서로간에정의의필요성을덜가지는가? 이결정을완벽히하려면하위분할만하면되는때에왜권리의결정에서멈추는가? 실례하지만, 이자의성의이유는? 그대가감히고백하려하지않으므로내가그대대신대답할텐데, 이는그러한회계를하게되면모든사람이자유로워져더이상공동체는없을것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개인노동이평가되고인당소비가계산되는공동체는무엇인가?

이처럼공동체는모든상업회사처럼장부를가지지않고서는안된다. 그러나공동체는조합들에게만계좌를개설하고사람들에게는계좌를개설하지않는다. 공동체에는약간의정의는필요하지만많은정의는치명적이다. 공화국은그재산목록을만들것이다. 시민의대차대조표를작성하는것은국가안보에대한범죄일것이다! 민족과지방들은가치의절대법칙에따라교역을할것이다. 그러나누구든같은원리를자기자신에게, 그리고남들에게적용하려고시도하는자는위조화폐제조자로간주되고사형

이이를끊임없이다시불러들이고, 정부대신우리는매수買收와허구이상을지니지못한다.

한가난한일꾼이자식이없고심하는아내를두고있는데, 산파가절망적으로의사의도움을요구한다. 의사는 200 프랑이필요하다고말한다. 그렇지않으면움직이지않겠다는것이다. “맘소사! 내살림살이는 200 프랑값어치도안되는데”하고그일꾼이즉답한다. “그러니내아내가 죽든지아기, 아내그리고나, 우리모두별거벗고나가든지해야겠군요!”

신에게서기쁨을얻는! 이산부인과 의사는그래도훌륭한사람이고, 친절하고침울하고부드러운사람으로서여러학회와자선단체의회원이었다. 그의벽난로위에는히포크라테스의동상이있으며, 그는아르타세르세스의선물도거절하는사람이다. 그는어린아이를슬프게할위인도못되었으며, 고양이를위해서희생을할사람이었다. 그의거절은모진마음에서나온것이아니다. 이는전술이었다. 사업에능한의사에게헌신은한철에지나지않는다. 고객층이확보되고명성이일단썩었으면부자손님을기다리며, 허장성세의기회가아니고는귀찮은사람들을멀리한다. 이처럼무조건환자들을치료해야할때그는어디있을것인가? 재능, 명성은귀중한소유권으로서낭비하지말고활용할필요가있는것이다.

내가인용한모습은그래도양반이다. 내가이의료문제를속속들이파헤친다면얼마나섬뜩할것인가! 그것이에외라고내게말하지말기바란다. 나는모든사람을빼준다. 나는소유권을비판하는것이지사람들을비판하는것이아니다. 소유권은아르파공에게서도빈첸시오드폴에게서도언제나잔혹하다. 그리고의료체제가조직되기까지의사도학자, 변호사, 예술가와마찬가지일것이다. 이는그자신의자격에의해, 소유권자의자격에의해타락한존재일것이다.

이는그의시대에는너무선인이었던이재판관이이해하지못한것이다. 그는양심의분노에휩싸여하루는변호사협회에공적으로비난을표출하려고했다. 이변호사들이모든종류의사건을쉽게맡는것은부도덕하고수치스러운일이라는것이다. 이비난이상부에서출발해언론에서주장되고논평되었다면, 아마도변호사라는직업에대한비난이되었을것이다. 그러나명예로운그단체는비난에의해망할수없었고, 소유권도비난으로죽을수없으며, 언론은자기자신의독으로죽을수가없다. 게다가사법관직은변호사협회와연대관계가아닌가? 변호사협회처럼소유권에의해, 그리고소유권을위해설립되지않았는가? 판결하는것을금지당한다면페랭당당 (Perrin Dandin)⁶은무엇이되겠는가? 그리고소유권이없다면무엇에대해쟁송할것인가? 변호사들의회는그래서들쭉서졌다. 언론, 펜으로하는변호사행위가말로하는변호사행위를구원하러왔다. 소요는

⁶ 라블레, 라신, 라퐁텐의작품에모두등장하는인물로, 무식하고탐욕스런재판관을상징한다.·역자주

자기도모르게공공양심의기관이된경솔한사법관이변화에영여로운별
금을때기고그에의해자생적으로모습을드러낸진실을취소하기까지요
란한소리를내며겨져갔다.

하루는한장관이공증제도를개혁하겠다고공표한다. “우리는누가우
리를개혁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고공증인들이외친다. “우리는트집을
잡는사람들이아니다. 변호사들에게말하라. 공증인은특히정직하고흡
잡을데없는사람이다. 고리대금에는낮설고, 공탁금의수호자, 사망자
의의지의충실한통역자, 모든계약의불편부당한심판자로서그의공부는
소유권의성역이다. 그런데소유권이그에게서유린된다니! 아냐, 아니
야...”그리고정부는그장관의몸으로실패의고배를들었다.

다른사람이며못거리며말한다. “나는나한테서 5 퍼센트의이자를받
는채권자들을뒤엎어버리고, 4 퍼센트만을받을다른채권자들로대체하
고싶다.”금리생활자들이기겁해서절규한다. “생각해보았나? 당신이말
하는이자는지대다. 이는지대로서형성된것이며, 당신이이를축소할것
을제안할때이는마치당신이보상없는수탈을제안하는것과같다. 수탈하
고싶으면하라. 그러나법그리고사전보상이필요하다. 그러면무엇인가!
돈이계속해서그가치를상실한다는것이주지의사실일때, 오늘의 1 만프
랑의지대가등기시에는 8000 프랑의가치에지나지않을때, 반증불가능
한결과에의해이제대는금속으로된자본이아니라부동산을대표하니자
신의지대를보전하기위해소득의증가를요구하는것이매일그소유권이
감소하는금리생활자의일일때, 태환을말하는것은이때다. 태환, 이는과
산이다! 그리고정부는한편으로모든채무자와마찬가지로상환을통해자
유로위질권리가있다고확신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자신의채무의성
격을확신하지못하고, 소유권자의소란에위협을느껴무엇을풀어야할지
를몰랐다.

이와같이소유권은더다수의머리들에분산되면될수록더욱비사회적
이된다. 소유권을완화하고인간화해야할것으로여겨지는집단적특권
이바로소유권을그흉측한모습대로보여주는것이다. 분할된소유권, 비
인격적소유권은소유권들중최악의소유권이다. 용간한뒤게클랭 (du
Guesclin) 이프랑스를구해냈을때의유명한침략자무리들보다전리품
에더탐욕을부리고더무서운용병대부대들이프랑스를덮고있음을오늘
날누가그로부터알아채지못하는가!

소유권공동체를연합으로보지않도록조심하자. 개인소유권자는아
직염님, 정의, 수치가통하는것으로드러날수있다. 집단소유권자는피도
눈물도없고후회도없다. 이는환상적이고불굴이며, 모든걱정과사랑에
서벗어난존재, 맷돌이돌면서곡식을짓이기는것처럼자기관념의원안에
서움직이는존재다. 소유권이사회적이될수있는것은결코공유됨으로써
가아니다. 모든사람을죽이는것으로결코격노를치료하지못한다. 소유
권은무한한공동참여가아니라그원리의변혁에의해서끝날것이다. 그리

대한중심지들에묶어놓기를선호하며, 거기로부터노동자들의여러조들
이영토의모든지점으로기관차를타고달려간다. 이모두는다소간이론에
기초한것이고, 다소간공산주의적이고사회적인것으로서우리의시간을
잡아먹을권리는없다. 방법, 과학은절대로공연히거기에들어가지않을
것이확실하다.

1846 년에비평가아이모든지저분한것을치울의무가있다고스스로
믿으려면우리가어느정도의지적인하락에도달해있을필요가있는가! 하
지만, 참으라! 이런빈곤은사회를괴롭히는해충으로서사회는논쟁의불
꽃으로이로부터정화되어야한다. 장뇌, 살사, 수은이약사의기술에합입
어공중건강의가장소중한매체들이되어의료의천재를영구적으로영예
롭게한다면, 인간오류에대한비판, 지적부패를치료하는기술역시가치
를지닐수있다. 편견이아주터무니없고, 생겨나는유토피아가아주밥맛
없게하는것일지라도말이다.

VI. 공동체는분배의법없이불가능하며, 분배에의 해멸망한다

그러므로공동체와함께가족은멸망한다. 그리고가족과함께신랑과
신부, 아버지와어머니, 아들과딸, 형제와자매라는명칭들도사라진다.
일가친척과인척관계, 사회와하인신분, 공공생활과사생활의관념들은
희미해진다. 관계들과사실들의모든질서가사라진다. 사회주의는어떤
식으로자신을표현하든지숙명적으로이단순성에도달한다! 관념들을설
명하고관계들을정하고권리들, 의무상의원칙들을정식화하는대신그것
들을폐기하는이상한이론이다! 공산주의는과학이아니다. 그것은무로
돌리기다!

이카리아의유식한작가는어떤경우들에대해서자기집에서가족끼리
공화국의화물차와식품담당자들이차리는저녁식사를할허가를내준다.

나는또물어볼것이다. 왜각살림이자기음식물을공동의작업장에서
완전히가공된채로가져오는대신에조리하는것을허가하지않느냐고말
이다. 공동체는익힌고기에집착하는가날고기에집착하는가? 데운파이
에집착하는가찬파이에집착하는가? 아니면어떤절약의동기인가? 이경
우에는입법자에게이렇게말할것이다. “나를빼주세요, 그리고내식사의
가치와같은가치를현물로그리고내선택에따라내게주세요.”거기에다시
말할것이무엇일까?

그러므로우리는당좌계정들로, 산물들의분배와평가규칙의필요성
으로, 말하자면공동체의해체로돌아왔다. 왜냐하면모든당좌계정은차
변과대변으로, 달리말하면네것과내것으로균형을맞춘다. 모든분배는

이카리아에서는 (카베씨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내게 언제나 새로운 기쁨이다) 뜰과 정원 이 딸린 집마다 한 가족이 산다. 갑자기 규정에 세 가지에 외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가족의 분리, (2) 주거의 분리, (3) 살림의 분리. 이것이 다가 아니다. 카베씨가 이카리아인들에게 하도록 하는 네끼 (푸레에는 일곱 끼를 약속했다) 의 식사 중 두 끼는 작업장에서 행해진다. 이는 아침과 점심이다. 세 번째 식사는 공화국 식당에서 공동으로 행해진다. 네 번째인 밤참은 가정에서 행해진다. 왜 이런 구분을 두는가? 왜 동료들과 의 식사, 공민적 식사, 그리고 가정 식사가 있는가? 왜 언제나 공동으로, 아니면 언제나 따로 따로 먹지 않는가?

그대는 사적 소비를 찬성하기로 결심하는가? 살림의 매력이 무엇보다 아내의 재능에 관계되므로, 향유하는 기술은 생산하는 기술에 결코 못지 않게 어려우므로 탁월한 가정 주부를 둘 그런 사람은 같은 소득으로 그의 집에 두 배의 행복과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들은 더 이상 동등하지 않다. 이는 옳을 것인가? 그대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소비와 생산은 결국 같은 것인데 왜 그대는 노동에 소비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묻는다. 한마디로 왜 각자의 행복은 그가 향유하는 능숙함에 비례하는 것처럼 그가 생산하는 부지런함에 비례하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만들어진 예외의 이 결과는 공동체 자체의 폐지 일 것이다. 그러므로 규칙을 재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 생활을 보전 하려면 사적 생활을 금지할 것인가? ... 하지만 그러면 공동체는 사물에서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것, 이 수평화의 체계로는 모든 사람이 노예화되고 부정해 진다는 것을 그대에게 환기 시키는 바다. 그리고 나는 그대에게 반대 해 무서운 적인 자유가 솟아 오르는 것을 본다. 무엇인가! 우리는 세관, 특 권, 그리고 모든 장벽을 제거할 것이며, 소유권 증서를 불태우고, 울타리를 넘어 뜨리고 상속지의 경계석을 뽑아 내고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파괴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스무 명 미만의 사람들이 노동하고 잡담하거나 술 마시기 위해, 공화국의 청사에서 공화국 경찰이 감시하는 곳 말고 다른 곳에서 모일 수 없을 것이다. 아! 나는 그대가 곧 독재자, 관찮다면 심지어가 부장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그대의 이론을 실천할 테면 해 보라고 도전한다.

공동체 혹은 사회주의가 카베씨의 오류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와 다르게 말하는 자들 모두가 여전히 그와 같이 추론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예를 들어 팔랑스테르에서는 소유권자들 대신에 함창대 원들만 있으니 노동이 공동으로 개인적 창도 성 바깥에서 수행된다. 개별적 인작은 방을 용인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는 공동이고, 살림도 공동이고 식사 도 공동이다. 결혼은 거짓 맹세와 변심의 모든 돌발 가능성에 노출되어 선택 사항으로 남는다. 다른 유토피아 주의자들은 도시들을 파괴하고, 지상에 서 테베의 금욕주의 자들처럼 가족들을 고립시키고, 각 살림에 경작하고 보 고 해야 할 작은 소유지를 할당한다. 또 다른 유토피아 주의자들은 인구를 거

고 이는 맹목적인 만큼 다루기 힘든 어떤 사람들이 인민에게 설교하는 민주 주의, 보편적 소유권의 체제가 사회를 창조하기에 무능한 이유이다.

모든 소유권 중에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재능을 구실로 한 소유권이다.

예술가에게 시대와 사람들을 비교해, 여러 세기에 걸친 예술 작품의 불 평등은 특히 사회의 진자 운동에서, 신념들과 정신 상태의 변동에서 나온다 는 것, 그 사회에 그 예술가라는 것, 그와 그의 동시대인 사이에는 필요와 관 념의 공동체가 존재해서, 그로부터 그들의 의무와 관계의 체계가 생겨나 서, 공적은 임금처럼 언제나 엄밀하게 규정될 수 있다는 것, 취향의 규칙, 발 명, 작문, 그리고 실행의 법칙이 발견되어 예술은 그 예지적 특성을 잃고 몇 몇 예외적 본성을 지닌 자들의 특권 이기를 중단할 시대 가 오리라 하는 것을 증 명 해주라. 이 모든 관념은 예술가에게는 과도하게 우수한 것으로 여겨질 것 이다.

그에게 이렇게 말 해주라. “당신은 입상을 만들었고 내게 그것을 사라고 제안한다. 나는 물론 그러고 싶다. 하지만 이 입상이 정말로 입상이라면, 내 가 그 값을 내려면 내가 입상을 본 적도 없고 입상을 만들 능력도 전혀 없지만 단 하나의 측면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을 시詩와 조형의 어떤 조건들을 결합 해야 한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더라 도, 당신의 예술이 내 직업보다 아무리 우월해 보여도, 당신은 쓸모 없는 작 품을 만든 것이다. 당신의 작업은 아무 가치도 없다. 그것은 그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고, 당신의 무능을 명백히 보여주어 내 유감을 자극하는 데나 소용 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확립해야 할 것은 나와 당신의 비교가 결코 아니라 당 신의 작업과 당신의 이상간의 비교이기 때문이다. 그 후에 당신은 성공할 경 우에 얼마를 달라고 해야 할지 나에게 물을 것인가? 이 값은 필연적으로 내 능력에 맞추어지며, 내 지출을 정수로나 눈뭍으로 정해 진다고 당신에게 대 답한다. 그런데 이 비율은 무엇인가? 바로 입상이 당신에게 들이게 했을 비 용의 등가다.”

그런 말을 들은 예술가가 그 힘과 정당성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때에는 그에게서 이성 이상 상력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기 시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는 것은 감히 그들의 재능 을 값으로 매긴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 보면, 무게와 크기는 예술의 존엄성과 양립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이 광기는 퇴폐하는 사회 의 신호로서 그 사회에서는 더 이상 걸작이 만들어 지지 않을 것이다. 걸작을 알아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예술인들의 정신을 그들이 쫓아가 지 못할 추론과 이론이 아니라 사실에 의거해 계몽시키고 싶은 것은 이에 관 해서다.

지난 전람회에 예술가 약 1800 명이 예술품 4200 점을 보냈다. 이 예술 품들 (입상, 그림, 초상, 부조 등) 각각의 상업적 가치를 평균 300 프랑으 로 계산하면 누구나 진가보다 훨씬 밑으로 본 것이 아님을 확신한다. 그러므

로 126 만프랑의총가치가 1800 명예술가의산물이라고하자. 대리석, 화폭, 금박, 액자, 모델, 학습, 연습, 구상등에지출한돈이평균 100 프랑이라고가정하자. 그리고 3 개월간작업을한다고하자. 순 84 만프랑이 남는다. 즉인당 90 일에대해 466 프랑 65 상팀이다.

그러나전람회예보내지는 4200 점은그중절반에가까운작품이심사위원회에의해제거되어도, 바로그작가들의판단에그해동안의예술적생산의최상이고가장아름다운작품들이라는것, 이생산물중상당부분은초상화로이루어지며, 아주넉넉한그보수는예술작품들의시가를훨씬초과한다는것, 전시된물품의상당량이팔리지않은채로있다는것, 이전시마당바깥에서는다수의제작자들이전람회가격표보다훨씬낮은가격에작업한다는것, 비슷한관찰내용이음악, 무용, 모든예술범주에적용된다는것을생각한다면, 예술가의평균임금은 1200 프랑에못미친다는것, 산업인구에대해서처럼예술가인구에대해서도행복수준은슈발리에씨의위압적인공식, 1 인당하루에 56 상팀이라는것으로표현되는것을발견하게된다.

그리고빈곤이대조에의해더욱부각되고예술가의기능은아주사치에속하므로, 어떠한빈곤도예술가의빈곤만못하다는것은속담으로들어갔다. 내슬픔과같은슬픔이있는지 (Si est dolor, sicut dolor meus)!

그리고사회경제학앞에서예술작업과산업상의작업은어째서이렇게동등한가? 생산물의비례성밖에는부가없으며, 본질상평등과비율인부의최고표현인예술은바로이에의해평등과인간적우애의상징이되는것이다. 고집쟁이가반발해도처에서자기위신을내세우고특권을만들어도소용없다. 비례는휘어짐없이있다. 노동자들은서로간에연대성을유지하고있으며, 자연은그들의침해를벌할책임을맡는다. 사회가사치품에자기생산물의 5 퍼센트를소비한다면, 이생산에그노동자들의 20 분의 1 을고용할것이다. 사회에서예술가들의몫은그러므로필연적으로산업인들의몫과동등할것이다. 개인적재분배는사회가단체들에이를방치한다. 왜냐하면개인에의해모든것을실현하는사회는그의동의없이개인을위해아무것도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한예술가가총보수에서자기혼자만을위해 100 개의몫을챙긴다면, 그를위해매춘을하거나짚더미위에서죽는그의동료들 99 명이있다. 이계산은증권거래소의청산과마찬가지로확실하고, 확인된것이다.

그러므로예술가들은이를알도록하라. 그들이말하듯이흥정을하는것은식품상인이아니다. 물건의가격을정한것은필연자체다. 어떤시기들에서예술품값이레오 10 세, 로마황제들, 그리고페리클레스의세기들에서처럼올랐다면이는존재하기를중단한특혜적인특수원인들에관련되었다. 이탈리아예술가들에게지불해준것은그리스도교세계의금과면죄공물이었다. 황제들치세때그리스예술가들에게지불해준것은정복당한민족들의금이었다. 페리클레스치세때그들에게지불해준것은노예들

다. 마음들의융합에감각의억누를수없는욕망이뒤를잇는다. 그리고모든쾌락에는마찰이생긴다. 이런것들을판단하는데는인기있는비너스에대한세심한조사를생시몽처럼거칠필요는없다.

공동체가없든지아니면가족이없고따라서사랑이없든지둘중하나다. 그리로돌아올필요가있다.

모두가우리에게사회들의유기적요소로보여주는가족과함께사람의개성은그규정적성격을띠고, 모든기력을획득하고점점이기주의로돈다. 이는레굴루스같은자나사도를자칭하며자기자녀와아내를공공자선기관에방치해행위의권위를떨어뜨릴어떤광인의고립된에가아니다. 시조가되는사람은곧부성자체에의해집중되고사나워진다. 그는우주의적이다. 그의동료들은그에게모두낯선자들로, 적들로보인다. 결혼과부성은이웃에대한애착을사람에게서증진해주어야할것으로여겨지지만그의질투심, 불신, 증오를살려줄뿐이다. 가부장은독신자보다이익에더악착같고, 더가차없고, 더비사교적이다. 신을사랑하는나머지사람들을미워하게되는이신자들과비슷하다. 가부장에게는언젠가는그를계승할, 그리고그의뒤에일련의세대들을계속해갈자들의어린시절을보호하기에너무많은소망과이기심의에너지란있지않다는것이다. 사람을가르치는데는하루는충분하지않다. 수년간의고된작업과긴저축이필요하다. 사람은자신의생존을위해자연과투쟁중이며자기자녀의미래를위해사회전체와투쟁중이다. 공동체가이적대관계를파괴할것이라고그대는말한다. 공동체가가족을, 그리고결과적으로인류를파괴하거나공동체의해체자인가족을용인할줄밖에모른다면어떻게그렇게까지하게될것인가?

가족의반공산주의적, 내가거의반사회적이라고까지말한이특성은자녀들과아내들에게서순진무구하게드러난다. 나는소유권자의아들들이일꾼의아이들과사소한공통점을가지기보다는마치일꾼을비추어주는태양이귀족들의빛남을손상시키는듯이그들또래의놀이를멸시하고재산관리인의운명을감수하는것을보았다. 아내들로말한다면, 이들이자기들의살림이라부르는작은나라의주권자가되기위해서만결혼하기를갈망한다는것은통속적인진실이다. 아내에게서그의평화로운행정이고, 의기양양한소풍을떠나는출발점인살림을빼앗아보라. 그순간부터그는그대에게충실할이유를더이상가지지않으며, 그대에게속하기를그만둔다. 결혼은그의적인속성을상실하여성에게추상, 우연한연결이되어, 이는아무런실물에도뒷받침되지않아서처음싫증이나는때에해체될것이다. 공동체는기껏해야성매매여성들과수녀들에게좋은것이어서가모家母에게는불쾌하다. 공동살림여성과유녀사이의차이는표현에있을뿐이다. 고대에는이들을같은말로지칭했다.³

³ Zonah 는히브리, 칼데아어로서술집여주인과성매매여성을뜻한다.

을모방해능과자본의권리, 혹은결국에가서는힘의권리를유지하는바로그종파들이다. 재물의나눔에서의불평등, 사랑의나눔에서의불평등, 이것이야말로이위선적인개혁자들이원하는것이다. 이들이남들에게명령하고자들은즐긴다는조건에서는이들에게정의, 이성, 과학은아무것도아니다. 이들은결국소유권의변장한추종자들이다. 그들은공산주의를설교하는것으로시작해서자기들의배를불리기위해공동체를수용한다.

끝으로만약당신이결혼의불가침성을주장한다면, 그것만으로써거대한공동체중에하나의새로운공동체를창조하는것이다. 국가내의국가 imperium in imperio 인것이다. 당신은가족을도입하는것이고, 가족의불가분리적특성으로서살림, 소유권, 상속등일련의양립불가능하고모순된것들모두를도입하는것이다.

공동체는사물에만해당되고사람에게는해당되지않는다고그대는말한다. 이것이바로한판의속임수라고말하는것을나에게허락해달라. 사람들의공동체혹은단체는사물의매개에의해생겨난다. 사람들이서로잡아먹는것이아니라면공동체는같은물건들의사용에의해같은물건들의사용에의해서로간에성립한다. 이처럼내침실, 내침대, 내옷의공동체는내의사에반해서취득된것으로내인격을공유로한다, 즉성서의언어로그것을더럽히고억압한다. 나의노동, 나의애착, 나의즐거움에관계되는모든것도마찬가지다. 나는더먼공동체, 예를들어태양계공동체, 나라나언어공동체같은공동체안의내동류들과함께하는만큼더욱순수하고더욱자유롭고, 더욱침체되지않는다. 반대로그들이플라톤의방식과같은더가까운공동체안에서나와함께하는만큼더욱불경하고덜존엄하다. 그대는사랑에서상호동의가필요하다고본다. 부부공동체는이원리위에서세워진다. 그런데나의것인이나내가심지어자발적으로다른사람과통한다면, 그여자가성매매를하는시간에내잠자리에함께하고내품에서잠을잔다면그여자가내게성매매를시키고나를수치스럽게하는것이맞지않는가? 그여자는비열한매춘부의냄새를풍긴다 (Foeda lupanaris tulit ad pulvinar odorem)! 죄인의죽음말고아무것도나에게그러한모욕을값아줄수없다. 그리고공동체가그것을허가한다면나는공동체에반기를든다. 메스트르백작은말한다. 사람의입김은그의동류에게, 신체와정신에치명적이라고. 여성들의공동체는전염병의조직이다. 썩물러가라, 공산주의자들이여! 그대들의현존은내계약취이며, 그대들의시각은내가밥맛을잃게한다.

생시몽주의자들, 푸리에주의자들, 그리고가장순수한부끄러움, 섬세함, 영성을가지고자유로운사랑을허락할수있다고자부하는남창男娼들의체제로속히넘어가자. 비천한사회주의의서글픈환상, 망상에사로잡힌탕자들의마지막꿈이다. 변심에의해격정이치솟게해보라. 곧바로육체가정신에폭압을행사한다. 연인들은서로에게쾌락의도구에 불과하

의노동이있다. 평등이찾아왔다. 자유학에는노예제를다시가지오면서그이름을포기하기를원하는가?

재능은통상적으로총애를잃은본성의특성으로, 그에게서는적성들의부조화가이상한, 괴기스러운특수성을낳는다. 손이하나도없는사람은배로글을쓴다. 이것이바로재능의이미지다. 또한우리는모두예술가로태어난다. 우리의영혼은우리의얼굴처럼언제나그이상에서다소떨어져있다. 우리의학교들은성장을인도해본성의기형들과교정하는성형기관들이다. 바로그렇기때문에교육은점점보편성, 재능과지식들의균형을지향해간다. 또한바로그렇기때문에예술가는그와호화로운공동체를이론사회에둘러싸여서만가능하다. 예술의문제에서사회가거의모든것을한다. 예술가는그의찬양을불러일으키는불구의존재보다는애호가의머리에있다.

소유권의영향아래예술가는그의이성에서타락하고, 그의도덕관념에서문란하고그의동료들에대한멸시의감정으로가득차서그멸시의선전이그를단지값이나가게, 판매가치가있게그리고존엄성은없게만들어주는데, 이런그는이기심의불순한이미지다. 그에게서아름다운도덕은진부한사안이고모양내는일이다. 의와명의의관념은그의가슴에서는뿌리를내리지못하고미끄러진다. 그리고사회의모든계급중에예술가계급이강한영혼에서도, 고귀한품성에서도, 가장빈약하다. 만약사회직업들의의지의세기, 감정의위대성, 격정의위력, 진리와정의에대한열의, 학설들의가치에대해행해진추상에힘입어문명에가한영향력에따라배열하면사제들과철학자들이제 1 순위에나타날것이다. 그다음이위정자들과장수들, 그다음이상인들, 산업인들, 경작자들이다. 끝으로학자들과예술가들이된다. 사제는그시적인언어를구사하면서자신을신의살아있는신전으로간주하는반면, 철학자는스스로에게'너의모든행위가모범이요규준으로소용될수있도록행위하라'고말하는반면, 예술가는자기작품의의미에무관심한채로있다. 그는결코그가내세우고싶은전형을그작품에인격화하기를구하지않는다. 그는이를사상捨象한다. 그는아름다움과숭고함을펼치면서이를경배하지않는다. 그는그리스도를화폭에담지만성이그나티오스처럼그를자기가슴에두지않는다.

그본능이언제나아주확실한인민은입법자들과영웅들에대한기억을간직한다. 예술가들의이름은별로개의치않는다. 참오랜기간그불순한순진함속에서마치인생의이채색공을자신의악의선동자, 자기의억압의공모자로인정한듯이그들에게반감과멸시만을느낀다. 철학자는사치에술에대한인민의이불신을그의책에기록했다. 입법자는사직당국에이예술들을고발했다. 종교는같은감정에순종해그들을파문으로징벌했다. 예술, 즉사치, 쾌락, 관능, 이는사탄의작품들과화려함으로, 그리스도인을영원한저주에넘겨준다. 그리고일반적타락이다른어떤계급이나마찬가지로존경할만하게해준한계급의사람들, 결국자신의권리를사용한

이사람들을 비난하려는 마음 없이나는 그리스도교의 신화가 정당화된다 고 감히 말한다. 어느 때보다 더 예술은 공중의 빈곤에 대한 영구적 도발이며, 방탕함에 대한 가면이다. 소유권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최선의 것은 끊임 없이 사람이 가지는 최악의 것이 된다. 최선의 것의 타락은 최악의 비극이다 (corruptio opimi pessima).

경제학자들은 끊임 없이 인민에게 반복한다. “노동하라. 노동하라. 저축하라. 자본화하라. 때가 오면 소유권자가 되어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일꾼들이여, 당신들은 소유권의 신입 회원들이다. 당신들 각자는 주머니에 자신을 교정할 회초리를 넣고 다니며, 이는 언젠가는 다른 이들을 교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소유권을 얻을 때까지 노동으로 일어서라. 그리고 인간의 살을 맛보았을 때에는 다른 고기는 더 이상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기나긴 절욕을 보상하게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소유권으로의 추락! 노예 신분으로부터 폭정으로, 즉 플라톤에 따르면 여전히 노예 신분으로의 추락! 그렇기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노예 신분의 조건은 더는 견딜 수 없다. 행진해서 임금 생활자 신분에서 해방되고 자본가가 되고 폭군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들이여, 알겠는가? 인류에게 소유권은 선택 사항이 결코 아니며, 운명의 절대 명령이다. 당신은 당신 주인들을 예측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신에게 부과하는 종살이에서 속량된 후가 아니면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어느 여름 아름다운 일요일에 대도시 인민은 그들의 어둡고 습한 짐을 떠나 들녘의 활기차고 순수한 공기를 찾아간다. 하지만 무엇인가! 더 이상 들녘이 없는데! 토지는 천 개의 뻣뻣한 조각으로 분할되고 긴 밭둑들이 가로지른다. 토지는 더 이상 없다. 밭의 모습은 도시민에게는 극장과 박물관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새들만이 공중 높은 데서 실재하는 경치를 관조한다. 이 빗질된 땅 위의 한 오두막을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는 소유권자는 그의 들이라고 칭하는 잔디 조각을 이기주의자요 고독한 자로서 즐긴다. 이구석 말고는 그는 가난한 자처럼 토지로부터 추방된다. 자신의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순결한 남편들이여, 우리가 잔인하게 유린하는 이가 없는 자연을 재발견하려면 그의 숭고한 포옹을 즐기기도 더 멀리 사막으로 갈 필요가 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했던 소유권, 이 소유권은 그러므로 우리를 죄수들로 만든다. 무슨 말인가? 그것이 우리를 서로에 대해 신하와 폭군으로만 들어 우리를 타락시킨다.

사람들은 임금 생활자 신분인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가? 그것은 지휘권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자신의 편견에 집착하는 주인, 그 존엄이 특히 ‘이것을 내가 원하므로 나는 명령한다 (sic volo, sic jubeo)’는 것을 내세우고 결코 자신의 말을 해명하지 않는 데 있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이다. 얼마나 자주 이를 멸시하고 비웃는가! 임금 생활자 신분, 그것은 끊임 없이 남들의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정치적 대표자들로서 온건한 공산주의자들과 극단적 공산주의자들로 나누어진다! 그들 중에 좌파, 우파, 그리고 교조주의자들이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기조 (Guizot) 는 누구인가?

가장이 성적인, 가장 현실적인, 따라서 가장 덜 앞선 공산주의자, 그리고 그대, 친애하는 빌가르델은 이 중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공동체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찰하면서 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궁지에서 벗어난다고 믿는다. 그대는 카르포크라테스를 따라서, 모든 것은 공유 omnia communia 이지만 모두가 공유는 아니라고 non omnes communes 말한다.

결혼의 단조로움에 약간의 다양함으로 맛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대의 위대한 계시자인 플라톤과 영지주의자들, 마니교도, 생시몽주의자들 그리고 푸리에에 이 점에서 자아의 불가침성을 잊었다면 빈약한 추론가들이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의 재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들 중 가장 큰 재물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여성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가 나에게 그 물건의 공동체를 거부할 수 있는가? 나는 그의 형제가 아닌가? 그는 나의 자매가 아닌가?

부탁하노니 하나의 해결책이 내게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결과들을 성찰해 보라. 이는 내가 그대에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확언하는 결과들이니 말이다. 어떻게 공동체가 사랑의 문제에서 적용될 것이며, 양성 관계에 관해 관습은 무엇일까? 어떤 경우에도 범죄나 경범죄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런가? 초대 그리스도교인들 중에 어느 사람은 한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아 이기주의로 비난받았다. 그는 사과했고 자기 아내를 공동체가 마음대로 하도록 해서 모략하는 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런데 공동체가 남편을 강제할 수 있다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강제할 수 있다. 선착자 先着者는 심지어, 공동체가 부재할 경우에, 이 아내에게서 형제된 의무를 요구할 수 있고, 그가 거부하면 자기 손으로 복수할 수 있다. 공산주의에도 대체 강간, 유혹, 근친상간 혹은 간음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모두에 관해 나에게 증명, 그리고 증명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달라.

당신이 플라톤의 원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양성의 완전한 공동체를 찬성하는 의견을 공언한다면, 당신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인 사랑을 의무화하고 성매매를 강간으로 대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우애, 예의바름, 상호간 애정은 어디 있는가?

당신이 사람들의 동의가 언제나 즐겁게 선행해야 하리라고 유보 조건을 둔다면, 공동체는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 우리는 선호, 매수, 독점에 빠진다. 어떤 이들에게는 일부 다쳐, 다른 이들에게는 무흔이 행해져서 모두에게 부정·부진이 일어난다. 이는 현체제로서 푸리에에게 다른 이름으로 규율화한 것이다. 양성의 임의 선택적 공동체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종파들은 문명

로정해지고, 어떤사람들이통속적인고려사항들을넘어서올라가, 어떤 이들은새로운제도들을부추기는정신을짓밟고, 다른이들은황금시대의 기억들을짓밟으면서이런저런경향을체계적으로쳐부수고첫번째사람은공동체에서나온모든것을공동체로되돌릴필요가있다고주장하고, 두번째사람은전유될수있는모든것을계속전유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기 시작하는것을보게되는것은경험과성숙한성찰의여러세기가지난후일뿐이다. 이로부터모순적인두유평피아가나오는데, 하나는항상달아나는공동체의유평피아이고또하나는끊임없이커지는소유권의유평피이다. 소유권은결코그것이그렇게되기를갈망할것으로서온전하고절대적이지못했다. 또한공동체는완전하지않았다. 그리고참된공산주의자는참된소유권자처럼이성적존재다.

확실히나는공산주의가그적용에서그원리를한계까지밀어붙일욕구를가진다고가정할때공산주의에호의적이다. 그러나이는엄밀한이유로는충분치않다. 가능하다는것이무엇인가? 의무로제시되는공동체와 동시에의무로제시되는개성사이에무엇이이를결정할것인가? 내가어떤경우에서든다른것보다는어느하나의것에양보해야한다는것을누가내게증명해줄것이며, 어떻게그것을증명해줄것인가? 내가아무리공산주의자라도전유나공유가꺼려지는것들이무엇인지를인식하기위한원칙은언제나내게필요하지않은가? 그리고부터는공동체가그것을구성하고그것을결정하는원칙을필요로하니공동체는그자체로는아무것도아니며소유권도아무것도아닌은참이아닌가?

사실로가보자. 나는모든것들중일반여론이공동체의암초라고간주하는데의견일치를보는것, 가족으로시작한다.

공산주의신문 「뤼마니테르 l'Humanitaire」는여성들의공유에명확히찬성함을공표했다. 카베씨는공동체의문제를남겨놓으면서, 이를배척하지도인정하지도않으면서임시로결혼과가족을유지한다고선언했다. 페뢰르씨는자기나름대로일부일처제를다른속셈없이찬성한다고공언하며, 친애하는빌가르델, 나는그대가아무것도더요구하지않는다고가정하기에는너무벌붙일없는, 비너스를섬김에서도그녀의밤전쟁에서도굶뜬 (in venerem segnis nocturnaue bella) 동료라고믿는다. 나는이불일치에놀랄권리를가지지않는가? 페뢰르씨는결혼이라는표제에관해카베씨보다덜공산주의자다. 카베씨는 「뤼마니테르」보다덜공산주의자이고, 「뤼마니테르」는확실히모두중제가장논리적이다. 나는누구를믿을필요가있는가? 내가추론에다가사회주의자들중에아주두드러진왕성한식욕만을참조한다면 「뤼마니테르」와함께가족과결혼을반대한다. 내가양성간혼속이사랑을파괴함을성찰한다면사랑을위해하나의예외를받아들이지않을수없는데, 이는천가지다른예외를끌어들이는것이다. 이야말로내가방향을잃은것이고자의恣意에무방비로넘겨진것이다. 무엇인가! 공산주의자들이벌써공유하는관념으로서로결합

연구하면서스스로는아무생각도가지지않는것, 일용할빵과일자리를잃을두려움말고다른자극제를모르는것이다.

임금생활자는그의용역을빌리는소유권자가이런연설을하는것을듣는다. “당신이해야할것은당신과조금도관계없다. 당신은그것을감독할것이전혀없으며, 당신은책임지지않는다. 일체의관찰은당신에게금지된다. 당신에게는임금외에는아무이득도기대할것이없다. 어떤요행도기대할것이없고, 어떤비난도두려워할것이없다.”

기자에게이와같이말한다. “우리에게당신의기사를내놓아라. 그리고괜찮다면, 직분도내놓아라. 당신이말해야할것은이런것이고, 당신이침묵해야할것은이런것이다. 당신이우리의관념, 우리의목적과수단에대해무슨생각을하든, 언제나우리의의견을돋보이게하라. 이는당신을해할수없으며, 당신에게근심을끼칠수도없다. 기자의특성은무기명이라는것이다. 이는당신의급료 1 만프랑과 10 건의정기구독의대가다. 이는괜찮은가?” 그러자그기자는중상모략하는예수회원처럼한숨을쉬며대답한다. “나도살아야해요!”

변호사에게는이렇게말한다. “이찬반의건은내가운을걸기로결심한경기다. 그리고이를위해나는당신직업을가진사람을필요로한다. 당신이아니라면당신의동료, 당신의적수가맡게될것이다. 그리고내가이기면금화 1 천냥이, 내가지면 500 프랑이있다.” 그러자그변호사는머뭇거리는양심에게“나도살필요가있어!” 하고말하며존경의표시로고개를숙인다.

사제에게는이렇게말한다. “300 번의미사를위한돈이여기있소. 당신은작고한자의도덕성에전혀신경쓸것없소. 그는타인의재물을손에가득쥐고, 사람들의저주를끓어지고위선가운데죽어서신을전혀보지못할개연성이있소. 이는당신의일이아니오. 우리가돈을냅니다. 계속말해봐요.” 그러자사제는눈을하늘로향하며, “아멘, 나도살아야죠” 하고말한다.

공급업자에게말한다. “우리에게는소총 3000 정, 검 1 만자루, 총알 1000 쿤틀, 화약통 100 개가필요하다. 이걸가지고할수있는것은당신상관할일이아니다. 그모든것이적에게넘어갈수있다. 하지만 20 만프랑의이득이있을것이다.” 공급업자는대답한다. “중소. 저마다자기본업이있고, 모든사람은살아야하지요!” 사회를둘러보라. 그러면보편적절대주의를확인하고나서당신은보편적비열함을인정할것이다. 이비굴한체제의부도덕함이얼마인가! 이기계화한에얼마나불명예가있는가!

사람이무덤에다가갈수록그소유권자는화해불가능한것으로드러난다. 이는죽을때까지회개하지않음의무서운신화에서그리스도교가그린것이다.

친지들에게손해를끼치면서까지그가이익을주고자하는가정부는그의배려에분노한다는것, 교회는충분히부유하다는것, 정직한사람은기

도가 필요없다는 것, 그의 일가친척은 가난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다는 것, 일가친척 중에는 일으켜 세워 줄 용감한 소년들이 있고, 지참금을 줄 처녀들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 재산을 남겨 주면 그들의 감사를 받고, 여러 세대에 선행을 한다는 것, 유언장이 여러 가족의 결합과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이 늙은 색정광 또는 신자에게 지적해 주었다. “나는 원치 않아!” 하고 소유권자가 건조하게 대답한다. 그리고 유언장의 추문은 재산의 부도덕성을 뛰어넘는다. 그런데, 최고 원위의 한 분지 분기인 이 영지수여 및 전수 권리의 변경을 시도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 순간 다시 독점에 빠지게 된다. 당신은 소유권을 용익권으로, 지대를 종신연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당신은 소유권자의 독재를 국가의 절대주의로 대체하고, 그러면 그들로부터 하나가 된다. 봉건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소유권으로 돌아 가서 자본의 유통을 멈추고 사회를 퇴보시키든지, 아니면 공동체로, 무 無로 빠진다.

그 사람에게 소유권의 모순은 유언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속으로 넘어간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붙잡는다고 법이 말한다. 이와 같이 소유권의 치명적인 영향은 유언자로부터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한가 부장이 고풍스러운 저택에 그가 키운 일곱 아들을 남긴다. 그의 재산의 전수는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 두 체계가 등장하며, 이 둘이 차례로 시도되고, 교정되고, 변경되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다. 무서운 수수께끼가 아직 도 풀려야 할 것으로 있다.

장자권 아래서는 소유권이 장자에게 돌아간다. 다른 여섯 동생들은 가재도구를 받고 아버지의 소유지에서 쫓겨난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그 땅 위에서는 이방인이고, 재산도 신용도 없다. 안락한 삶으로부터 이행과 정도 없이 빈곤 상태로 넘어간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양육자였다. 동생들은 큰 형을 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장자권에 반대하는 온갖 것이 말해졌다. 그 체계의 반대를 살펴보자.

몹을 평등하게 나눌 때에는 모든 자녀가 상속 재산을 보전하고, 가족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만 충분한 것을 일곱 명이 어떻게 소유할까? 경매가 일어나서 상속자 인 가족은 소유를 잃는다. 현금을 주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낫선 사람이다. 상속 재산 대신 자녀들 각 사람은 돈을 받으며, 곧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확률이 99 대 1 이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한에서는 가족이 있었다. 지금은 모험가들 밖에 없다. 장자권은 적어도 이름의 계속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는 그 노인에게는 그의 조상들에 의해 세워지고 그의 손으로 보전된 기념물이 그의 일족 내에 남아 있을 보장 수단이었다. 몹의 평등은 가족이라는 신전을 파괴했다. 성주신들은 더 이상 없다. 정주 소유권과 함께 문명인들은 유목 생활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러나 상속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상속권을 판매하는 대신 상속인들이 이를 분할한다고 가정하자. 토지는 쪼개지고, 잘리고, 깊이 파인다. 경계석을 세우고, 도랑을 파고, 바리

장되는가? 어떤 비율로 요소는 집단적 유기체의 부분을 이루는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법칙에 따라,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는 형제가 될 것인가? 그러한 것이 공동체의 사전적 문제 이면서 최종적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유애, 연대, 사랑, 평등 등은 여러 이익들의 화해, 즉 노동의 조직과 교환의 이론에서 밖에는 나올 수 없다. 유애는 모든 형태의 연합과 정부의 목표인 것처럼 공동체의 목표 이 지원리가 아니다. 플라톤, 카베, 그리고 이사회주의의 두 최고 권위자에 이어서 우리에게 생산과 교환의 법칙들을 가르치는 대신 유애, 연대, 사랑을 가지고서 유토피아를 만들기 시작하면 서 권력과 돈을 요구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말하노니 결과를 원인으로, 결론을 원리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들은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천장에서부터 집 짓기를 시작한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건대 유애로 충분하다면 누가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막는가? 이를 위해 장관의 허가, 의회의 법률이 필요한가? 그러한 감동적인 광경이 세상을 감화할 것이며, 유토피아만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 헌신은 공산주의 적용기를 넘는 것일까?

이야말로 그들이 이를 고려할 상황에 있지 못하면서 무연히 카베씨에게 질문하게 된 시민들이 가슴 밑바닥에서 느낀 것이다. 그러나 스승이 그들에게 “나의 원리, 이는 유애로다” 하고 대답한 것 역시 아주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런 뒤집음 없이는 공산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카베씨는 이 결정 타뒤에 사람들이 그에게 유애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다. 이는 무한히 이어지는 문제들에 몸을 던지는 것일 테고 이를 끝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니 말이다.

V. 공산주의는 공동체의 형상이고 원형인가족과 양립 불가능하다

우리는 공동체의 기원, 그것이 문명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어떤 문제가 풀어야 할 것으로 공동체에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번증법을 공동체가 활용할 줄 아는지를 말했다.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그 업적에서, 그 유토피아의 설명에서 나타내 주려고 한다.

한편으로 어떤 것들의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다른 어떤 것들의 공동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게다가 소유권의 침해와 원시적 야만 시대를 지나서 생존한 아주 소수의 공산주의 적 제도들의 유지, 이는 투기가 절대로 쓸데 없이 들어가 지 않은 특정한 경제적 필요성의 결과이기도 한 것처럼 특정한 정신적, 정서적 성향의 결과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소유권과 공동체의 적대 관계가 정확 한 방식으

에 대한 결과처럼 공동체가 매여 있다. 말의유비類比, 이는 사회주의의 방법, 이론, 변증법이다. 친애하는 빌가르델, 그대는 열두가지 중추적 감정들, 그리고 대조되는 일련의 집단들이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일련의 공허한 말들에서 더 많은 수의 중간항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것이 언제나 우애에도 달하며 우애는 우리에게 인종들의 차이, 인류 일치와 기초에 의해 명확히 발현된다는 것이다. ‘우애 아니면 죽음!’ 이야말로 국민공회 Convention nationale²의 소유권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라면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에 설명했을 것이다. 이야말로 이 위대한 사람의 계승자인 카베씨가 운명의 책에서 뜯기 기분으로 읽었던 것이다. 그대가 뭐라고 하든지 옛날과 현대의 유토피아주의자들 중 아무도 과학의 비밀을 더 앞서 간파하지 못했다.

그러면 제 1, 제 2, 제 3 의원인들에 대한 이 경이로운 분별자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는 비길데 없는 능숙함을 갖추고서 사회주의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더 낫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으면서 세상을 근심하게 하는데만 이르렀나? 왜냐하면 결국 정치경제학이 그 업적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면, 사회주의는 오늘날 그 무능에 따라 평가될 커다란 위험을 겪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관행의 비정상성에 대해 한 것처럼 유토피아의 불임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사회성의 진보에 관해 성찰한 누구에게든, 실질적 우애, 입법자의 배려와 도덕가의 주의를 오직 끝만 한 이 가슴과 이성의 우애, 그리고 종족적 우애, 그것의 육적인 표현일 뿐인 이 우애는 내가 말한 대로 결국 사회주의자들이 믿듯이 사회완성의 원리, 사회진화의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목표이고 열매다. 문제는 정신과 가슴의 형제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벌이지 않고 서로 잡아먹지 않고 살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본성상 형제들이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감정의 해형제가 될 것인가, 우리의 이익들이 우리를 갈라놓는 대신 어떻게 우리를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유토피아가 근시안으로 만들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단순한 양식이 제시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 모순들의 그림을 가지고 증명해보인 것처럼, 문명화시키는 제도들의 발달이 격정들에 교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서 탐내는 식욕과 화를 내는 식욕에 불을 붙이고 이 신의 천사들을 사나운 짐승들로 만드는 불가피한 결과를 가지니, 쾌락의 운명을 지닌 초라한 피조물들로부터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무서운 상처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 간에 평화 조약의 기초를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노동은 어떻게 배분될까? 교환법칙은 어떤 것일까? 정의의 강제 이행수단은 무엇일까? 배타적 소유는 어디서 시작되며, 어디서 끝나는가? 공동체는 어디까지 확

케이드를 치고, 소송과 증오의 씨를 뿌린다. 소유권이 조각으로 갈라지고 통일성이 깨진다. 어떤 부분을 바라보든지 소유권은 사회의 부정, 그 목적의 부정에도 달한다.

이와 같이 소유권은 사람과 자연의 거룩한 결합을 완성해야 했던 소유권이 혐오스러운 매매춘에도 달할 뿐이다. 술탄은 그의 노예를 사용하고 남용한다. 토지는 그에게는 색욕의 수단이다. ... 나는 여기서 하나 이상의 비유를 찾아내며, 심오한 유비를 발견한다.

양성관계에서 결혼을 내연관계와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이 둘의 차이를 감지한다. 그 문제가 도덕관념의 방탕함과 소설들의 뻔뻔스러움에 의해 호해진 한에서 그것을 고려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녀들인가? 비합법적 교제가 가장 다산성이 큰 합법적 결합만큼, 그리고 그것처럼 자녀를 잘 생산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지속성인가? 독신자들 다수는 30년간 한 사람의 애인을 두며, 이 애인은 처음에는 욕을 먹고 품위가 떨어지지만 때가 되면 그의 별불일 없는 애인 위에 군림하고 그를 타락시킨다. 게다가 결혼의 계속성은 물론 무적이기는 하지만 결혼이 그의 성격의 아무것도 상실하지 않으면서 이 혼을 통해 임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계속성은 의문의 여지 없이 사랑의 맹세이고, 가족의 희망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결혼에 필수는 아니다. 결혼은 언제나 혼배성사를 훼손하지 않고 도일정한 원인으로 해서 중단될 수 있다. 끝으로 그것은 결혼식, 보좌신부와 사제 앞에서 선언된 네마디 말인가? 그러한 형식이 사랑, 불변성, 헌신을 위해 어떤 효능을 가질 수 있는가? 마라는 장자크처럼 숲에서, 태양 앞에서 그의 정부와 결혼했다. 그 거룩한 남자는 진심으로 혼약을 했으며, 그의 결합이 사회가 연서 連署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올바르고 존경스러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마라는 생의 가장 중요한 행위를 공화국의 개입 없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는 루이 블랑씨의 관념들에 따라서 자연적 사실을 협약 위에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라처럼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누가 못하게 막는가?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혼을 구성하는 것은 사회가 약속의 순간에 거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부의 동거가 지속되는 한에서 사회가 거기에 현존한다는 것이다. 내가 말한 건대 사회만이 부부 각자를 위해 상대방의 서약을 받는다. 사회만이 이들에게 권리를 준다. 사회만이 이 권리를 공신력 있게 만들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에게 상호의 무만부과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회는 실제로는 스스로를 위해 규정을 한다. “우리는 서로 간에 결합되기 전에 신안에서 결합된다. 성인들의 자녀는 짐승과야만 인이 하는 식으로 결합될 수 없다”고 토비는 사라에게 말한다. 사회의 가시적 기관인 사법당국에 의해, 그리고 사회를 대표하는 증인들 앞에서 성별된 이 결합에서 사랑은 자유이고 호혜적이라고 가정되며, 우연한 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세가 예상된다. 사

² 1792년 9월 21일부터 1795년 10월 26일까지 운영된 프랑스 정치체제. -역자주

량의 계속성은 바래며, 촉발되지만 보장되지는 않는다. 관능 자체는 허락된다. 차이라고는, 이 차이가 심연이지만, 내연관계에서는 이기심만이 결합을 지배하는 반면, 결혼에서는 사회의 개입이 이기심을 순화純化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라. 간음을 응징하고 거짓 선서를 벌하는 사회는 내연녀에 대한 내연남의 고소를 받지 않는다. 그러한 사랑은 개들의 짝짓기나 마찬가지로 사회를 고려하지 않는다. 개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성밖에 있으리라 (foris canes et impudici)! 사회는 질색을 하며 그런 것을 외면한다. 사회는 내연남의 과부와 고아를 저버리며, 상속에서 이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의 눈에 암마는 창녀이고, 그 아이는 개새끼다. 마치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당신은 나 없이 몸을 맡겼다. 당신은 나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먹고 살 것을 마련할 수 있다.” 아이에게는 “너의 아빠는 쾌락을 위해 너를 낳았다. 너를 입양하는 것은 내게 마땅치 않다.” 결혼을 훼손하는 자는 결혼의 보장을 권리로 청구할 수 없다. 그러한 것이 사회의 법, 엄격하지만 정당한 법으로, 이를 욕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우선, 순결한 사랑과의 실질적 사랑을 한꺼번에 원하는 자들이나 할 일이다.

사람의 극히 개인적이고 고극히 자발적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이감정, 사랑을 순결하게 만들어 이를 증진하는 현존하는 신에 대한 규정할 수 없는 이 존경은 부부에게는 알 수 없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애정의 원천이다. 결혼에서 남자는 모든 여자의 애인인데, 이는 결혼에서 만 그를 모든 여성에 동감으로 결합해주는 진정한 사랑을 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 밖에는 모르며, 아내 밖에 몰라서 더욱 사랑하는 데, 이는 이 육체적인 배제 없이 결혼은 사라질 것이고, 사랑도 이와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적 공동체는 현대의 개혁자들이 더욱 쉽게 다시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사랑을 주지 않으며, 사랑의 죽은 머리 caput mortuum 만을 제시한다. 이 육신과 영혼의 공산주의에서는 사랑은 확정되지 않아 추상과 꿈의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사랑의 참된 공동체이며, 모든 개인 소유의 전형이다. 사람들, 물건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사람은 사회와만, 즉 결국 국은 자기 자신과, 자기 안에 있는 이상적이고 거룩한 존재와만 진정으로 계약을 맺는다. 자아, 사회에 대한 이 존경, 성서에서 말하듯 우리의 모든 행위에, 우리의 모든 사고에 현존하는 신에 대한 이 두려움을 파괴해 보라. 그러면 사람은 자기 영혼과 정신, 자기 능력을 남용하고 자연을 남용해 그 사람이 더럽혀지고 오염되어, 거역할 수 없는 타락에 의해 방종자, 폭군, 불쌍한 자가 된다.

그런데 사회의 신비로운 개입에 의해 불순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되고, 무질서한 간음이 평화롭고 거룩한 결혼으로 변화하듯, 경제 질서에서 그리고 사회의 규정들에서 소유권, 돈을 받고 자본을 파는 것은 사회적이고 합법적인 소유의 첫 번째 계기일 뿐이다. 그때까지는 소유권자는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남용을 한다. 그의 지복至福은 음란한 공상이다. 그는 조르기

다”, “나의 이론, 이는 인력이다”, 아니, “나의 체계, 이는 사랑이다” 등등. 한마디로 왜 그는 우애를 선택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카베씨를 놀라게 하려 한다고 그가 상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절충주의를 잘못 써서 “나의 체계, 이는 사랑, 인력, 본능, 우애 등한 꺼번에 모든 것이로다” 하고 대답하지 않도록, 나는 1844년 11월의 「포필레르」에 실린 정의가 진정 초월적인 개념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공동체적 학문을 포함할 뿐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적 학문을 포함했으며, 카베씨가 “나의 원리, 나의 체계, 나의 학문, 이는 우애” 라고 말한 것은 무한히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친애하는 빌가르델, 그대가 아주 잘 알아낸 것처럼, 신화 시대부터 공동체가 점차 인간 제도들에서 사라졌다면, 이 사실로 인해 공동체는 이를 플라톤에서 연구하든, 아니면 모어에서, 바실리아드에서 혹은 이 카리아에서 이를 선호하든, 스스로 성립되고 보전될 수 없는 형태이며, 그것을 살리는 무언가를, 이를 떼면 어떤 원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 요소, 이 활력을 주는 효모는 카베씨에 따르면 우애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낳는가? 사회주의의 심오한 과학이 나타나지는 것이 이 지점이다.

내가 다양한 개혁 추진자들에게 저마다의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수단들에 관해 질문하면, 모든 이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대답한다. 사회를 재생하고 노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과학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재산과 공적 권위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이 본질적 교리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여론의 보편성이 있다. 사회주의 종파들의 친구들의 돈주머니에 대한 끝날 줄 모르는 호소는 이 관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사업주들이 되어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권력에 커다란 창도력을 주는 것이 좋다. 이는 블랑씨의 체계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권력은 가장 큰 힘을 취득하는가? 민주적으로 구성된다는, 혹은 공화국의 권력이라는 조건에서다. 이는 플라톤, 루소, 『나시오날 Le National』 등의 체계다. 정치 개혁은 사회 개혁의 의무적 예비 단계다. 그러나 왜 입헌군주제보다, 원로원보다 민주주의인가? 사람들이 연대적이라 이들을 정치적, 법적으로 평등하게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는 내 생각에 세프블리에 (Cherbuliez) 씨가 창설한 연대하는 사람들의 연합의 체계다. 사람들은 무엇에서부터 연대하는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묶어 주는 공통의 법칙, 인력 아래서 살아가는 데서 연대한다. 이는 푸리에의 체계다. 우리가 최근에 겨우 알게 된 인력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우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아는 사랑이고, 자비다. 이는 미술레씨의 체계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식의 양극처럼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를 배척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라는 것이다. 이는 카베씨의 체계다.

우애, 이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자연적이고 우주적인, 생리적이고 병리적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거대한 사실로서 이것에 원인

기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원리에의 하이 혼합 혹은 침투가 행해질 것인지, 어떤 이론에 따라 비율이나 분량을 정할 것인지를 묻는다. 또한 카베씨는 궁극해하는 자들에게 이런 불수리의 이유를 내밀어 속깊은 외교관임을 드러냈다. 나의 원리, 나의 이론, 나의 체계, 나의 학문, 나의 방법, 나의 학설 등, 이는 우애다. 카베씨는 이것 말고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그가 이를 어떤 눈썰미의 위력으로, 어떤 표현상의 승리로 단박에 발견했는지 경탄한다.

그런데,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이 우애라는 말을, 플라톤과 함께 그에 못지 않게 말해주는 것이 많은 공화국으로, 아니면 푸리에와 함께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인력으로, 아니면 미슐레씨와 함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과 본능으로, 아니면 다른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으는 연대성으로, 아니면 끝으로 루이 블랑씨와 함께 신의 전능함과 동의어인 국가의 위대한 창조력으로 대체하라. 그러면 모든 표현들이 완벽히 등치라서 자기에게 제기된 문제에 「포퓰레르」 저 높은 데서 “나의 학문은 우애다”라고 대답하면서 카베씨가 사회주의 전체를 편들어 말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모든 사회주의 유토피아들이 예외 없이 카베씨의 아주 짧고 아주 절대적인, 그리고 아주 명시적인 해명, “나의 학문 등등, 이는 우애로다” 하는 것으로 환원되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 거기에 단 한 마디의 주석이라도 덧붙이기를 감행하는 자는 즉시 배교와 이단에 빠질 것이며 이는 말하자면 플라톤도 영지주의자들도, 초대교부들도, 발도파도, 모어도, 캄파넬라도, 바뵈프도, 오언도, 생시몽도, 푸리에도, 그들의 계승자 카베씨도 자기들의 원리의 도움으로 사회를 설명할 힘이 없으며, 더구나 사회에 법칙을 제시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애, 사랑, 인력 등 동등한 힘을 가진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 모든 표현들 중에 어떻게 카베씨는 첫 번째 것을 선호했는가?

이는 설명할 만한 주제다.

IV. 공동체는 그 목적을 시작으로 간주한다

공동체가 종교와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어떠한 제도도 확실하고 최종적이지 못하게 하는 논쟁 정신을 틀어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카베씨에게, 그가 인민의 손에서 국가의 고삐를 받았을 때, 모든 정당이 그의 부권적 독재 아래 융합될 때, 모든 젊은이가 그의 심하는 자, 질문하는 자, 논쟁하는 자가 되도록 배우는 이 혐오스러운 체제인 보편 교육 체제를 무자비하게 가차 없이 뒤집어 놓으라고 권고한다.

사람들은 카베씨가 왜 낭트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 원리를 설명하면서 예례를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나의 원리, 이는 인력이

만하고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여전히 옛날에는 모욕당한 농노를 격앙시켰고 프랑스 혁명이 폐지할 수 없었던 영주의 이익겨운 권리다. 이 권리의 지배 아래 모든 노동 산물은 더럽다. 경쟁은 방탕에 대한 상호 자극이다. 재능에 주어진 특권은 몸과 파는 행위의 임금이다. 헛수고 이겠지만 국가는 경찰력을 이용해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를 인정하고 그들의 작업의 부끄러운 소산에 표시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 작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사악함에서 수태된 개새끼는 그 작자의 파렴치함을 공표한다. 상업은 운명이 정해진 노예 거래에 불과하다. 어떤 노예는 부자들의 쾌락용으로, 다른 노예는 인기 있는 비너스 숭배용으로 말이다. 그리고 사회는 사랑에 낙심한 각자가, 정직한 사람은 그의 사랑이 배반당했으므로, 행운아는 연애의 다양함이 사랑의 보충물이 되므로, 거기에 뛰어 들어 통음 난무에 뛰구는 매춘 앞선의 광대한 체제다.

남용! 사람의 사악한 짓! 이렇게 법률가들은 외친다. 우리를 질투하게 하고 탐욕적이게 하는 것, 우리의 걱정을 뛰게 하는 것, 우리의 악의를 그 궤변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다. 반대로 소유권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것이 우리의 걱정이고 우리의 악이다.

나는 내 연관계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걱정과 악으로 내 연관계를 더럽히고 부패시킨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는 것만큼은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박사님들이여, 내가 규탄하는 사실들이 소유권의 본질인가, 아닌가? 법적 관점에서 그 사실들은 일체의 사법적 조치를 면하는 은신처에 놓여 나무랄 데 없지 않은가? 나는 돈을 위해 매문 賣文을 하는 이 기자를 재판관에게 넘겨 법정에서 소환하게 할 수 있는가? 자기 말중 어떤 것을 악에게 팔기도 하는 이 변호사, 자기기도 중 어떤 것을 악에게 팔기도 하는 사제는? 가난한 자가 미리 요구되는 보수를 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죽게 놔두는 의사는? 화류계 여성을 위해 자기 자녀들을 낙담케 하는 늙은 호색한은? 나는 내 조상들의 추억을 폐하고 후세를 마치 근친상간이나 간통에서 나온 것처럼 조상도 없는 자들로 만들어 줄 경매를 막을 수 있는가? 나는 소유권자가 소유하는 것이 상으로 그에게 보상해 주지 않고, 즉 사회를 멸망케 하지 않고 그가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소유권은 소유권자의 범죄에 대해 무죄라고 당신은 말한다. 소유권은 그 자체로 선하고 쓸모있다. 그것을 타락시키는 것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악이다.

이와 같이 소유권을 구하기 위해 당신은 그것을 도덕과 구분한다. 그에 이어 왜 그것을 사회와 구분하지 않는가? 이는 바로 경제학자들의 추론이다. 로시씨는 말한다. 정치경제학은 그 자체로 선하고 쓸모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덕이 아니라고. 그것은 모든 도덕성에 대한 사상 捨象을 진행한다. 도덕의 상위 법칙에 따라 그의 이론을 남용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정치경제학, 사회의 경제학은 사회가 아니다. 사회의 경제학은 일체의 사회에 대한 사상

을 진행한다. 사회의 상위법칙에 따라 경제학의 이론을 남용하지 않고 경제학의 가르침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무슨 혼돈인가!

나는 단지 경제학자들과 함께 소유권은 도덕도 사회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한 소유권은 그 원리상 도덕에, 사회에 정반대라는 것, 이는 정치경제학 이론이 사회이익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이 반사회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주장한다.

정의에 따르면, 소유권은 사용하고 남용할 권리, 즉 사람이 자기인신과 제물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이고 책임 지지 않는 지배권이다. 소유권이 남용할 권리가기를 중단한다면, 소유권이기를 중단할 것이다. 나는 소유권자에게 허락된 남용행위의 범주에서 예들을 취했다. 합법성, 나무랄데 없는 소유권에 속하지 않은 것 중 무엇이 거기서 일어나는가? 소유권자는 자기 재화를 그에게 좋아 보이는 자에게 주고, 불이야 하고 외치는 일 없이 이웃이 불타 죽게 놔두고, 공익에 반대하고, 자기 상속 재산을 낭비하고 일꾼을 착취하고 갈취하며, 불량하게 생산하고 불량하게 판매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가? 소유권자는 그의 소유권을 잘 이용하도록 현명하게 강제될 수 있는가? 그는 남용을 하는 데서 방해받을 수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소유권은 바로 그것이 남용적이므로 입법자에게 더욱 성스러운 것으로 있는 모든 것이 아닌가? 경찰이 그 사용을 결정하고, 그 남용을 처벌하는 소유권을 상상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이 내연관계에 정직성을 도입하면서 내연관계를 파괴하는 것처럼 누가 소유권에 정의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소유권을 파괴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소유권은 원리와 본질상 부도덕하다. 이 명제는 이제부터 소유권 비판에 답한다. 따라서 소유권자의 권리들을 정하면서 도덕의 권리들을 남겨 두지 않은 법전은 부도덕의 법전이다. 법률학, 권리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유권자의 항목들을 집성한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니며, 부도덕하다. 그리고 소유권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남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의, 이 남용에 반대하려고 하는 자들에 맞서 강한 손을 빌려 주도록 명하는 정의, 소유권의 침해 사항들을 되돌리겠다고 감히 주장할 만큼 대담한 누구든지 마음 아프게 하고, 불명예로 낙인찍는 정의, 그런 정의는 추악하다. 무가치한 첩 때문에 부정 父情에서 밀려난 한 아들이 그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그에게 불명예를 주는 행위를 파괴한다면, 그는 정의 앞에서 책임을 질 것이다. 고발당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창녀가 소유를 얻는 동안에 그는 감옥에 가서 소유권에 명예로운 벌금을 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부도덕성은 어디 있는가? 불명예는 어디 있는가? 정의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슬을 계속 펼쳐보자. 그러면 우리는 곧 우리가 찾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남용적인 소유권, 부도덕한 소유권 일지라도 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의는 추악할 뿐만 아니라, 형법적 강제 이행은 추악하며, 철창과 교수대는 추악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계열을 포괄하는, 이 역겨운 계통이 나오는 소유권은 추악하다.

III. 공산주의 문제의 입장

카베씨의 어떤 제자들은 사회과학의 존재 혹은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는 하루는 그들의 스승에게 편지를 써서 공동체의 교리를 과학적으로 해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이카리아』라는 소설도, 태양의 도시나 팔랑스테르도 아무 과학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카베씨는 그들에게 「포퓰레르 Populaire」 1844년 11월호에서 대답했다.

“나의 원리는 우애요.

나의 이론은 우애요.

나의 체계는 우애요.

나의 과학은 우애라.”

카베씨는 다음으로 이 신도송에 주석을 달았다. 이는 감동적이었고 고상 고했다.

그러니 우애! 이것이야말로 카베씨에 따르면 공산주의적 가르침의 근본이고 모양이고 실체다. 왜냐하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데, 카베씨는 생시몽과 푸리에처럼 학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다. 성바올로는 그의 교리에 대해 묻는 불신앙의 유대인들에게 대답하면서 굉장한 풍자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가지만 아노라. 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다.” 카베씨는 성바올로처럼 말한다. 그는 신참자들에게 말한다. “나는 한 가지만 아노라. 이는 우애로다.”

나는 이렇게 카베씨에게 느닷없는 질문을 던진 시민들이 그의 대답에만 족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적어도 아주 합리적이었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틀림없이 친애하는 빌가르델 그대에게서 배운 대로 “개인 소유는 모든 사회에서 다소 제한된 용도를 가지며, 사용하고 심지어 남용할 권리는 대체 가능한 물건 혹은 완전히 개인적인 물건에 관해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유의 물건을 고유한, 혹은 인적인 물건과 분리하는 구분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분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아주 이치에 맞게 물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대가 어디선가 말하듯이 “배타적 소유의 권리는 그 한계를 지니며 게다가 개인들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고도, 아니, 최대 다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것보다 더 좁을 수 있다”면, 소유의 공동체 역시 한계를 지니며 이 한계는 최대 다수의 자유를 방해함이 없이도, 아니,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동체, 그리고 개인 소유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카베씨에게 의견을 구하는 이들이 물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또한 카베씨가 자기 원칙을 속이지 않고, 자기 깃발을 버리지 않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개인 소유와 뒤섞이거나 그것에 의해 침투된다면, 소유권에 의해 제한된다면, 공동체가

뒤누아예씨는무한히옳게이렇게외친다. “인간사회의정신에서모든개성, 모든집단적, 중간적존재를제거하고그안에다른모든존재들이필연적으로잡기는거대한일반적존재만존속하게두어야하는가? 사람들이그래도옹호하겠다고주장하는자유를이폭력적인집중과어떻게조화시키는가? 심지어이집중과사람들이획득하겠다고마음먹는진보와통일을어떻게조화시키는가? 사회적혹은민족적인거대단위에의해달성되어야할다른것들이훨씬더많은것을말하기를주저하지말자. 한거대한민족이정말로위대하고정말로하나이기 위해서는민족적으로움직일줄아는것으로는충분치않다. 또한무엇보다앞서민족을구성하는사람들이개인들로서, 가족들로서, 연합체들로서, 주민공동체들로서, 지방들로서적극적이고노련할필요가있다. 그것들이다양한측면들에서가치를획득했을수록그들은민족의몸으로서더욱가치를가진다.”

나는사회주의에이말을심사숙고하라고권고한다. 이말에는모든유평아주의자들의글보다더많은철학과더많은진정한사회과학이있다.

공동생활의특수한장점들에관해서말하면, 다음과같은것이이점에서일반여론인것처럼보인다.

행복수준이평등할때, 노동, 교환, 소비가완전한독립상태에서행해진다면, 그조건은최선으로판단된다.

노동이공동으로수행되고소비가사적소비로남으면, 그조건은벌써덜좋지만아직은참을만한것으로보인다. 이는대부분의인부들, 하위공무원들의조건이다.

노동, 살림, 수입과지출의모든것이공동이된다면, 삶은따분하고, 지치게하고, 역겨운것이된다.

그러한것이반공주의적편견으로, 어떠한교육으로도불식할수가없고심지어는교육에의해, 이교육이어떻게원리를변경할수있을지를발견할수없으면서강화된다. 끝으로이는소유권자들과똑같이공산주의자들도세뇌된것으로보이는편견이다. 이것없이그들의주저를어떻게설명할것인가? 그러면그들이서로간에자신들의관념을실현하는것을누가막으며, 그들이기다리는것은무엇인가? 내이성을공산주의원칙에복종시키기위해나는한가지증거만을요구한다. 두가정,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이완벽한공동체안에서쉬여함께살아가는것을내게보여주기바란다.

하지만공산주의는그자체가이해되지않는다. 공산주의는아직세계에서그역할이어떤것이어야하는지를이해해야한다. 인류는술취한사람처럼한편에서는소유권, 다른한편에서는공동체, 이두심연사이에서주저하고비틀거린다. 문제는인류가이좁은길, 머리가현기증에서로잡히고발은힘이빠지는이길에서어떻게벗어날것인지를알아내는것이다. 공산주의작가들은그점에무엇이라대답하는가?

소유권을수호하기위해무장한판사들, 소유권을고발하는자들에게영구적위협이되는열정을가진검사들, 나는당신들에게호소한다. 당신들은그런식으로당신의양심을굴복시키고당신의판단력을부패하게하는소유권에서무엇을보았는가? 의심의여지없이소유권보다높은, 소유권보다당신의존경을받기에더합당한어떤원리가당신에게소유권을그렇게소중하게만드는가? 소유권의작품들이그것을추약하다고공언하는때에당신은어떻게소유권이거룩하고신성하다고선포하는가? 어떤고려, 어떤선입견이당신에게와닿는가?

이는인간사회의장엄한질서로서당신이모르지만소유권이그흔들림없는기초가된다고가정하는질서인가? 그런소유권은당신에게질서그자체이니, 게다가소유권은그본성상남용적, 즉무질서하고반사회적임이증명되니그렇지않다.

이는당신이그법칙들을이해하지못하지만그구상을경외하는필연또는섭리인가? 분석에따르면소유권은모순적이고부패가능해그자체로서필연의부정이며섭리에대한손상이니그렇지않다.

이는높은데서인간의빈곤들을고려하고악에의거헌을마련하려고하는고급철학인가? 철학은이성과경험의합치이며, 경험의판단에서처럼이성의판단에서도소유권은유죄판결이되니그렇지않다.

이는종교일까? 아마도!

IV. 소유권에의한신가설증명

신이존재하지않는다면, 소유권자는일절없을것이다. 이는정치경제학의결론이다.

그리고사회과학의결론은이것이다. 소유권은지고의존재의범죄다. 사람에게는단하나의의무, 단하나의종교만있다. 이는신을부인하는것이다. 이것이크고첫째가계명이다 (Hoc est primum et maximum mandatum).

사람들중에서소유권의성립은선택과철학의사항이결코아니었음이증명된다. 그것의기원은왕정의기원, 언어와송배행위의기원처럼완전히자생적, 신비적이어서한마디로신적이다. 소유권은종교와권위의외피아래서어디서나우리고집센종자를지배하는본능적민음의거대한가족에속한다. 소유권은한마디로그자체가종교다. 소유권은그것의신학인정치경제학을가진다. 그것의결의론은법학이다. 그것의신화론과그것의상징은정의와계약들의외적형태들에있다. 소유권의역사적기원은모든종교의기원처럼어둠속에숨는다. 그자체에대해질문을받을때것은그존재의사실에의거해대답한다. 그것은전설로써설명이되며, 증거들로비유를제시한다. 끝으로소유권은모든종교처럼발달의법칙에종속한

다. 이처럼 소유권을 차례로 게르만인과 아랍인에서처럼 사용과 거주주의 단 순한 권리로, 유대인에서처럼 영구적으로 양도 불가능한 상속 재산의 소유로, 중세 때처럼 봉건적이고 장기 임대차적 소유권으로, 로마인들이 알고 우리가 오늘날 안 것 처럼 거의 절대적이고 소유권자의 의지로 유통이 가능한 소유권으로 본다. 그러나 벌써 소유권은 그 절정에도 달하고 쇠퇴로 접어 든다. 합자 회사에 의해, 새로운 담보법에, 공익을 위한 수용에, 농업 신용의 혁신에, 임대차⁷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 등에 공격을 받아 소유권이 곧 그 자체의 그림자에 불과할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일반적 모습에서 우리는 소유권의 종교적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 신비적이고 진보적인 특성은 특히 소유권이 그 고유한 이론가들에게 유발하는 기이한 환상, 소유권을 발달시키고 개혁하고 개선할수록 그 멸망을 진전시킨다는, 누구나 실제로는 그것을 덜 믿을 경우에 그것을 더욱 많이 믿는다고 언제나 상상한다는 환상, 게다가 모든 종교에 공통인 환상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사도들 증가장철학자 다운성 바울로의 그리스도교는 벌써 더 이상 성요한의 그리스도교가 아닌 것이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신학과 같지 않다. 그리고 보탱 (Bautin), 뷔셰 (Buche), 라코르데르 (Lacordaire) 씨의 로마가톨릭은 부르달루 (Bourdalu) 와 보쉬에 (Bossuet) 의 로마가톨릭이 결코 아니다. 그들이 옛 관념들을 질식시키는 때에 이를 확장시킨다고 상상하는 현대의 신비가들에게 종교는 거의 인간적 우애, 민족들의 일치, 지구의 경영에서의 연대와 조화에 불과하다. 종교는 무엇보다도 사랑, 언제나 사랑이다. 파스칼은 우리 시대 신자들의 예로 탁한 열망에 분노했다. 신은 19 세기에 가장 순수한 사랑이다. 종교는 사랑이다. 도덕은 역사 사랑이다. 보쉬에에게는 그 교리로부터 자선과 자선의 업적들이 흘러나올 것이니 그 교리가 전부였던 반면, 자선은 현대인들에 의해 제 1 의 자리에 놓이며, 그 교리는 그 자체로는 사소하고 그 모든 가치를 그 내용, 즉 사랑, 아니, 더 우아하게는 도덕에서 끌어오는 공식으로 전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진정한 적, 모든 시대에 그것의 열망을 위해 가장 애쓴 자들은 언제나 거기서 철학적 의미를 찾고 이성과 신앙의 일치라는 불가능한 작업에 헌신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인 성 바울로의 맹세에 따라 그것을 이성적인 것으로만 들려고 애를 써가면서 종교를 가장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해석한 자들이다. 내가 말하건대 종교의 진정한 적들은, 그들이 종교를 무덤으로 밀고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종교를 그들이 그 원리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이 혼합 리주의자들, 종교

⁷ 트롤롱, 『임대계약 Contract de louage』 (1 권) 을 보라. 거기서 그는 앞선 시대, 그리고 같은 시대의 모든 법학자들에 홀로 맞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임대차는 물적 조치와 인적 조치를 동시에 일으킨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우리 생각에는 타당하다.

을 혼합한 것을 본다. 그리고 이 모두는 자생적으로, 때로는 필요에 의해, 때로는 이기심에 의해 행해졌고 심지어 때로는 우연에 의해, 적어도 이렇다 할 의도 없이 행해졌다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임금 수령자들은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공동체에게서 임금을 받으면서 그들이 서로 결합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을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자 따로 살아간다. 아주 값비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살림살이는 비생산자들이 선호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고정된 보수를 가지고서 그들의 지출을 합치는 것은, 그 수입이 아주 불안정하고 아주 불균등한 산업인들보다 더 쉬울 것이다. 아마도 언젠가 국가의 임금 수령자들은 그들의 소비를 중앙 집중화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들이 모든 사람들처럼 공산주의 체제를 혐오한다는 것, 그들이 가족 생활을 모든 생활 증가 장거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는 존엄성과 고귀함의 감정의 효과인 것처럼 타락하고 야만적인 성정性情의 효과일 수 있다. 나는 이 점에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이유들을 발견하기를 기다리며 모든 추측들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그의 교육의 시기에, 그의 공민적이고 종교적인 의무 행에서, 그리고 공적 기능의 행사에서 반공산주의적인 것으로 보아 온 사람이 공업, 상업, 농업에서는 완전히 소유권자가 된다. 그는 오로지 독점적인 방식으로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며, 공동체와는 드문 관계밖에 유지하지 않는다. 저항할 수 없는 본능 혹은 역사의 가장 뒤로 소급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매혹적 편견의 효과로 모든 일꾼은 사업에 착수하기를 갈망하며, 모든 동료는 숙련자가 되기를 원하며, 옛날에 모든 평민이 귀족이 되기를 꿈꾸었듯이 모든 날 품팔이 농민은 날마다 이어서 일하는 것을 꿈꾼다. 그리고 나를 놀라게 하는 만큼 당신의 성급함을 흥분시킬 것으로서 아무도 분할의 단점, 살림의 부담, 소산업의 불완전성, 고립의 위험을 모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 인성은 모든 고려 사항들보다 더 강하다. 이기심은 복권 추첨의 위험을 공동체의 구속보다 선호하며, 정치 경제 학정리들을 우습게 여긴다.

요약하자면, 공동체는 우리를 근원에서 사로잡으며, 자연의 거대한 위력들에 견주어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과해진다. 그 본질로 말한다면 공동체는 정의의 定義를 싫어한다. 그것은 평등과 같은 것이 아니다. 물질과 전혀 관계없으며, 자유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연합과 구별되고 이기심을 건드린다. 산업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고 노동이 그 첫 밑그림을 그릴 때, 인성은 공동체와의 투쟁에 들어가며, 공동체는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집문턱 위에서, 그리고 부부의 침대에서까지 벌써 불완전하고 고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중에 우리는 공동체가 자유주의적이고 활기찬 교육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끝으로 공동체는 임금을 받는 직업들에서 급속히 쇠퇴하고 자유 노동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 모두는 우리 본성의 자생성에서 만큼이나 사물의 필연에서 결과적으로 나온다. 경제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를 인정했다.

했다. 이모두가다소간정규적인가아니면남용적인가하는것은이순간에 중요하지않다. 우리에게중요한것은사회생활이그극단들인소유권과공동체사이에서어떻게진자운동을하며소문에따르다면정치경제학과마찬가지로사회주의로부터도멀리떨어진제 3 항을찾는지를알아는것이다.

양성兩性을위한교육기관들에서, 식사, 일과시간과레크리에이션시간은공동이다. 그러나우리가벌써관찰할기회를가졌던모든것보다더중대한것으로서, 노동은개인적이다. 왜냐하면그것이개인적이 아니라면 교육은무효일것이기때문이다.

모든사람은수도원들에서독서, 즉교육이어떤것이였는지를안다. 이 의무를다하기위해단한권의책으로, 단한사람의낭독자로충분했다. 계시의체계에서는신앙이귀로들어와서 fides ex auditu 지성은피동적인채로있다. 교육은최고도의공동교육이다. 이때공산주의는침묵으로 표현된다. 상급자, 상부의사상기관이말하고신참자는듣고복종한다. 종교기구의완성은대상자에게일률적교리를주입하고, 이를언제나같은용어, 같은공식으로제시하고, 우연히그가거기서어떤근심을드러낸경우요지부동하게예견된결론에도달하도록그의정신을지도하는것이다. 이 점에서로마가톨릭전통의충실한제자이며, 모든공동체, 모든종교에필수적인규칙의까다로운준수자인예수회원들을사람들이아주어리석음에비난한점은공산주의적규율의이정신이다.

우리의학교들에는어떤차이가있는가! 초등학교에서부터사범학교에까지사람들은학생들을혼자서일하도록끊임없이훈련시킨다. 때로모두에게동일한작문을제공하는경우각자가그작문을따로, 그리고경쟁적으로취급하기를요구하며, 젊은이에게 스스로생각하게하는데에집착한다. 그에게학문의공통적근본을가르치면서도그가그학문을익힐것을요구하며, 그의발명능력을촉진한다. 말하자면그에게천재의이기주의, 여러견해들의소유권을갖도록부추긴다. 그리고그의뜻내기학식이독창적, 개인적, 반란적인형태를취할수록, 사람들은그의성공에박수갈채를보내며, 그런사람을만들어낸것을자축한다. 부모들과스승들은그들의선불금을잃지않은것을기뻐한다. 그리고사람들은이학생의괴상한관념들이아마도언젠가공동체를뒤집어엎을것을알고이학생에대해그가젊을때의지출들의값을했다고말한다. 그런데교육이문학적, 학문적인것에서작업적인것이된다면, 젊은이들을주도성과발견의능력을지닌독창적인사람들로만들려는이강박관념을가지고서공산주의원칙으로부터점점떨어진다는것, 형제애로결합된노동자들대신에우리는결국에국심과불굴의성격을지닌국민만을가지게되리라는것이명확하다. 나는이끔찍한문제에관해공산주의사상가들의사색을호소한다.

우리가이급한조사를진행해감에따라사람들이그들의정치, 종교, 산업, 군사, 교육기관들에서다양한비율로소유권의원칙과공동체의원칙

를죽이는문자로부터해방한다는, 즉종교의본질인상징주의로부터해방하고살리는정신에따라, 다른말로하면의심하는이성과증명하는과학에따라종교를가르친다는구실로전통을끊임없이손질하고신앙을왜곡하며성서의의미를비틀면서교리의눈에안띄는변질에의해그교리의형식적부정에도달하는준합리주의자들이다. 키케로의어원설명에의거해이거짓논리학자들이말한다. 종교는인류의연결이라고. 반면에그들은종교가사회법칙의표시, 상징이라고말해야했을것이다. 그런데이상징은매일비판의마찰에의해마모되어실증과학만이확인하고도달할수있는실재의기대만이남는다.

마찬가지로소유권은일단사람들이그본래의잔혹성을지켜주기를중단하자, 그것을규율하라고, 그것을도덕에종속시키라고, 그것을국가에복속시키라고, 한마디로그것을사회화하라고말하자몰락해가고멸망한다. 내가말하건대소유권은진보적이므로, 그것의관념이불완전하고, 그것의본성이아무런확정적인것도가지지않으므로, 그충체만이진정한관념을내놓을수있는계열의주된계기이므로, 한마디로그것은종교이므로열망한다. 사람들이보전하는것처럼보이는것으로서실제로는소유권의이름으로추구하는것은더이상소유권이아니다. 그것은과거에전례없는새로운형태의소유로서사람들이우리에게언제나물자체에서찾을필요가있는것, 즉그의의미와그위상을물의기원이나목적에서가정하게하는이논리적환각에따라소유권이가정되는원리나동기들로부터도출하려고애를쓰는것이다.

그러나소유권이종교라면, 그리고모든종교처럼그것이진보적이려면또한모든종교처럼그고유하고구체적인목적을지닌다. 그리스도교와불교는고행의종교, 또는인류교육의종교들이고, 무함마드는숙명의종교다. 철학자체는이성의종교다. 그러면여러종교들중가장완강한이특정종교, 다른모든종교를타락으로이끌, 그럼에도제일마지막으로멸망할이종교, 그관객들이더이상믿지않는이종교, 소유권은무엇인가?

소유권이점유와개발이용에의해발현되니, 지배권과상속에의한독점을강화하고확정하는것을목적으로삼으니, 지대를통해서노동없이수확하고담보를통해서보증없이위험을인수하니, 사회에복종하지않으니, 그규칙은마음대로이니, 그것은정의에의해멸망해야하니소유권은힘의종교다.

종교적우화들이그것을증언해준다. 소유권자인카인은, 창세기에따르면, 창으로땅을정복하고, 경건함으로위장하고, 소유권을마련하고가난한자, 프롤레타리아, 것처럼아담의아들인아벨, 그러나낮은카스트의비천한조건인사람을죽인다. 이어원들은교훈적이다. 이어원들이모든

주석자들보다그친진함으로더많은것을말한다.⁸ 사람들은언제나같은 언어를말했다. 언어의일치문제는그언어가표현하는관념들의동일성에 의해증명된다. 음성과문자의다른형태들에관해논쟁하는것은우습다.

이처럼우화에, 그리고분석에따르는것처럼문법에따르면힘의종교 인소유권은동시에종살이의종교다. 그것이무기를돈손에탈취당하느냐 아니면배제와독점을통해진행해가느냐에따라두종류의예속을낳는다. 하나는고대의프롤레타리아트로서정복이라는원시적사실, 또는인류아 담이카인과아벨로, 세습귀족과평민으로폭력적으로분단된원시적사실 의결과다. 또하나는현대의프롤레타리아트로서경제학자들의노동자계 급이며, 이들은우리가본것처럼지배권, 상속그리고지대에의한독점의 성별이라는중대한사실에서모두요약되는것이며, 경제적국면들의발달 에의해초래된다.

그런데소유권, 즉그가장단순한표현으로하면힘의권리는오랫동안 그원초적조잡성을간직할수없었다. 첫날부터자신의얼굴모습을구성하고, 본모습을숨기고, 여러번장으로자신을숨기기시작했다. 원리상강 도, 도둑과동의어인소유권자라는이름은장기적으로소유권의눈에안띄 는변형에의해, 그리고종교적문체에서아주흔한미래예상들중하나에 의해도둑과강도의바로정반대가되었다. 나는다른저작에서소유권의이 변질을이야기했다. 나는이를약간발전시켜재현하려고한다.

타인재물의약취掠取는입법자들이마치도둑질을때로는벌하고때로 는권장하기를원한듯이그간혹성과교묘함의정도에따라세심하게구별 하고분류한무수한수단들로행해진다. 이와같이사람들은공로公路에서, 단독으로혹은무리를이루어불법침입, 가택침입등으로살인강도를 저지른다. 단술절취로, 공문서나사문서위조로, 위조화폐제작으로그렇 게하기도한다.

이런종류는힘이나공공연한사기말고다른수단없이작업하는모든도둑들을포괄한다. 산적, 강도, 해적, 육지와바다의도적들이다. 옛영웅 들은이영예로운이름들에공지를가졌고그들의직업을돈이생기는것만 큼이나고귀한일로간주했다. 니므롯, 테세우스, 이아손과그의아르고호 원정대, 입다, 다윗, 카쿠스, 로물루스, 클로비스와그의메로빙거왕조 계승자들, 로베르가스카르, 오토빌의탕크레드, 보에몽과대부분의노 르만모험가들은강도와도둑이었다. 강도질은중세귀족들의직업전체였고, 유일한생존수단이였다. 영국이그모든식민지들을가지는것은이들 덕분이다. 야만민족들이노동을싫어한다는것을누구나안다. 그들의눈 에명예는생산하는것이아니라취하는것이다. 저주의형태로그들은서로

⁸ Qain, 신실한자, 창, 투창; qaneh, 라틴어 canna, 갈대, 창의재료; qanah, 기록한자에둘러싸이다. 획득하다; qiné, 달아건소유권자처럼질투하다. Bal, 부정의부사. bélimah, 전혀, 전무; bala, 소진하다. 낡다. 아무것도아닌것이되다. habal, 사라지다; habel, 아무것도아닌사람, 무인사람.

군인들은수프를공동으로먹는다. 그들은빵과고기를배급받으며, 무기장비를별도로받아서각자가이에관한책임을진다. 영창과내무반, 훈련과작전들역시그들에게공동이다. 그들중누군가가자기가족수당, 그것을팔아넘긴브로커의전도금을받는다면, 그는결코이를그의 동료들에게알릴의무는없다. 군인생활은충분히명백한공산주의의성격을띠어서 여기저기서전유의어떤면모들이섞인다. 100 명이사는식당에서손님들이서로접촉하지만고립된채로있는것은이래서이다. 이로부터나는또다른이원리를도출한다. 물질에만관련되는공동체는공동체가아니라는것이다. 공산주의를이기려면나를둘러싼것으로부터정신적으로분리되는 것으로충분하다. 이는심각한사실이며, 유토피아의미래를위한심각한 걱정을까치는사실이다!

인습적인삶은더심오한공산주의의삶이었다. 거기서는공동침실, 구내식당, 기도, 노동, 모든재물, 공동취득재산, 취득재산이공유였다. 사도행전의흔히인용되는구절과공동수도기관들의일반적정신에따르면 완성의극치는온전한초연함, 절대적소유권포기였다. 『사막교부들의 삶 Vies des pères du désert』에서그들이이이상에도달하기위해물 두하는훈련들을읽을수있다. 그러나주목할만한모순때문에, 공동체의 어떤설립자들, 성과코미우스와성안토니우스같은이들은초연함에지나 치게신경을쓴나머지형제들을고립시키기에, 즉공산주의적포기로부터 개체성이재탄생하게하기에이르렀다. 이는이처럼훈련된형제들에게수도자혹은은자들이라는이름을붙여주게한것이다. 공동체는이기주의에 닿는다!

결혼은모든신분중공동체를위해가장많은자원을제공하는신분이다. 그러나개별적경우에따라공동생활을위한결혼의이적합성은본질상성의구별에관련되어조직의완벽한동일성은체계에덜유리한것으로여겨진다. 이를확증해주는것은결혼으로형성된종류의공동체, 사람들이 가족이라는이름으로칭하는공동체가본질상모든낯선사람에게배타적이라서남편, 아내그리고자녀들과아울러부부의아버지들과어머니들을좀처럼부양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는속담으로“내리사랑은있어도 치사랑은없다”고말하게하는것이다. 이처럼공동체는일정크기에서만 적용가능할것이다. 사회의형성원리이기는커녕사회에서부차적역할밖에하지않을것이다. 적어도그러한것이결혼이론과실무의증언이다. 입법자는이관념에따라서결혼계약들에서부부재산제와공동재산제를구별했고, 후자에서공산주의의다양한정도를또한구체화한것이다. 그러면공산주의원칙의적용수단은무엇인가? 이야말로아는것이필요불가결 하면서도아무도아직말할줄몰랐던것이다.

끝으로결혼은공동체와연합을구분할기회를제공해, 두배우자가가슴과머리에서는완전히결합한상태이면서재산에서는분리되고주거와살림에서는공산주의이고, 이에더해상거래에서는연합을이룰수있도록

계산을 기어올라 그곳에서 변신해야 하는 반면 그산을 다시 내려가는 독창성을 띠는 변장한 소유권자들인 경제학자들의 따분한 표절자들이다.

그리고 내가 공산주의자가 될 것은 이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것을 피하기 위해 기괴한 것에 뛰어드는 셈일 것이며, 로올라를 두려워한 나머지 칼리오스트로를 꺼안은 셈일 것이다.

II. 고유한 것과 공통인 것의 정의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헌을 했다면, 이는 분명 1840 년에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의 저자다. 누구보다도 소유권에 대한 적으로서 나는 공산주의 조직의 가능성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실들과 용어들에 합의하고 순서에 따라 진행하자.

친애하는 빌가르델, 사회의 가장 미묘한 문제들에 내가 형이상학의 까다로운 형태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리에르의 어떤 인물을 상기시키는 이 무겁고 스콜라적인 발걸음은 그대 만큼이나 내게도 우스워 보인다. 하지만 뭐 어쩔까! 당신의 과단성 있는 지성은 가장 빠른 관념들을 재빨리 포착하는 반면, 나는 불행히도 가장 굵뚱이 해력의 소유자다. 직관과 자생성은 나에게 없다. 즉흥성은 내게 전무하며, 내 정신은 추론의 목발 없이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다.

태양, 공기 그리고 바다는 공유다. 이 물건들의 향유는 가능한 공산주의의 가장 높은 정도를 제시한다. 아무도 거기에 표지석을 세울 수도, 분할할 수도, 경계선을 정할 수도 없다. 거리의 엄청난, 꿰뚫어 볼 수 없는 깊이, 영속적인 불안정성이 겨우 그것들을 전유의 대상에서 빼낼 수 있었다. 우리를 분열과 전쟁으로 밀고 가는 이 본능의 힘은 그와 같이 아주 크다! 그러므로 이 첫번의 관찰, 과학에는 소중한 것이 관찰로부터, 소유권은 규정되는 모든 것이 공동체는 규정되지 않는 모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 그 후에 공산주의의 출발점은 어떤 것일 수 있는가?

인류의 거대한 도목 건조물들은 자연의 위력의 이 경제적 성격에 참여한 다. 도로, 공공광장, 교회, 박물관, 도서관 등은 공유다. 그것들의 건축비용은 비록 이 비용의 배분이 동등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각자가 자기 재산에 정확히 반비례해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공유가 되었다. 이에 따라 특기할 소중함의 것으로서 사람들은 평등과 공동체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다! ... 어떤 경제학자들은 심지어 공익 시설물이 더 활발한, 그들에 따르면 더 부지런하고 덜 비싼 민간 산업에 의해 경영되어야 하리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이 점에서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런 물건들의 사용에 관해서는 이는 변함 없이 공유로 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전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도 들지 않았다.

“너 밟갈 수도 있어!”라고 말한다. 도둑의 영웅적 성격은 아킬레스에 대해 말하는 호라티우스의 이 문구에서 표현된다. “그는 법률들이 자신을 위해만 들어진 것을 부인하며, 팔의 힘으로 모든 것을 요구한다 (Jura neget sibi nata, nihil non arroget armis).”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윗에게 적용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신비적으로 적용한 “다치는 대로 치고 밟아 (Manus ejus contra omnes)”라는 야곱의 이유언어에 표현된다. 이 약탈 성향은 모든 시대에 무인의 직업에 내재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패했다면, 그의 영웅들의 강도질에 대해 징벌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도 브로사르 (Brossard) 장군은 “나는 창과 방패로써 금, 포도주, 그리고 여자들을 가진다”고 말했다.

오늘날 도둑은 성서로 무장한 강자로서 늑대들과 하이에나들처럼 쫓긴다. 경찰은 그의 고귀한 산업을 죽였다. 법전의 조항들을 보면 그는 그의 특수성과 죄질에 따라 징역에서부터 단두대에 이르기까지 신체형과 명예형을 받는다. 볼테르가 노래한 정복의 권리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민족들은 이 점에서 서로에 대해 극단적인 과민성을 띤다. 국가의 양허나 협조박에서 행해지는 개인적 점유에 관해서 우리는 그 예를 더는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사기, 신임의 오용, 복권 추첨과 도박으로도 독질을 한다.

이 두 번째 도둑질은 정신의 섬세함을 날카롭게 해 주고 젊은 이들 중에서 발명의 재능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스파르타에서 평가되었고 리쿠르고스의 찬성을 받았다. 이는 돌론, 시논, 오디세우스, 야곱에서부터 도이츠⁹에게까지 고대와 현대의 유대인들, 보헤미아인들, 아랍인들, 그리고 모든 야만인들 범주다. 야만인은 부끄럼 없이, 뉘우침 없이 흠치는데 이는 그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진난만하기 때문이다. 루이 13 세, 루이 14 세 때에는 도박에서 속임수를 써도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이는 규칙의 일부가 되었으며, 정직한 사람들도 재산의 훼손을 교활한 기교로써 교정하는 데 스스럼이 없었다. 오늘날에도, 모든 나라에 걸쳐 크고 작은 상거래에서 거래를 할 줄 아는 것, 말하자면 세상을 속일 줄 아는 것은 농민들에게서 크게 고려되는 종류의 장점이다. 아이 딸린 여성의 제일가는 장점은, 그에게 판매하는 자들 혹은 끊임 없이 임금과 가격을 압류해 고용하는 자들을 털 줄 안다는 점이다. 그리고 폴루이가 말했듯이 우리가 모두 교태부리는 여자들의 자식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적어도 탕녀들의 자식이다. 정부가 얼마나 힘들게 복권의 폐지를 체념하며 받아들였는지를 우리는 안다. 가장 비싼 소유권들 중 하나를 상실했던 것이다. 몰수가 우리의 법에 불명예를 주기를 중단한 지 아직 60 년이 안 되었다. 모든 시대에 살인하는 강도에 게쳐 음드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사법당국의 첫 번째 생각은 그의 희생자를

⁹ 시몬도이츠 (Simon Deutz, 1802~1844), 독일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출세를 위해 로마가톨릭으로 개종한 인물. -역자주

헐벗기는 것이었다. 우리의 모든 조세, 우리의 모든 세관법은 도둑질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야바위꾼, 사기꾼, 약장수, 신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사회를 대표하는 자는 부적을 파는 자처럼 특히 자기 손의 숨씨, 자기 정신의 교묘함, 웅변의 마력과 상상의 커다란 산성을 활용한다. 그의 재능은 탐욕을 제대로 흥분시킬 줄 아는 데 있다. 또한 입법자는 재능과 친절함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완력과 고의만 활용해서 저지르고 가장 무서운 벌을 초래하는 범죄들의 범주 아래에 명예형이 아니라 교정적인 벌만 받는 경범죄 범 죄를 만들었다. 얼마나 괴상한 유심론인가!

사람들은 고리대금으로도 독질한다.

옛날에 교회에서 아주 험오스럽고 우리 시대에 아직 도 아주 흑하게 처벌받는 이 종류는 생산의 가장 정력적인 분야들 중 하나인 이자부대출과 결과 구분되지 않으며 금지되는 도둑질과 허가된 도둑질간의 이행을 이룬다. 또한 고리대금업은 그 때 한 본성 때문에 법률과 도덕에 수많은 모순을 일으키는데, 이는 법조계, 금융계 및 상업계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는 모순들이다. 이처럼 담보를 받고 10% 로 대부하는 고리대업자는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다. 같은 이자를 징수하는 은행가는 참으로 이자 명목이 아니라 수수료 명목으로 라면 왕실 특권에 의해 보호 받는다. 금융에 의해 저질러지는 모든 종류의 절도를 열거하려면 너무 길 것이다. 고대의 모든 민족들에게서 환전상, 은행가, 징세청부인은 별로 명예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음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오늘날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자금을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 어떤 경우에는 상업에, 3, 4, 5% 의 이자에 투자하는데, 즉 대부의 정당한 가격이 상으로 은행가들과 고리대업자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징수하는 사람들로서 사회의 꽃이다. 이는 여전히 같은 체계다. 도둑질의 완화가 우리의 미덕을 이룬다.

사람들은 지대, 임대료, 집세, 임대형성으로도 독질한다.

지대는 그 원리와 목적지로 고려해보면 대 모든 사람이 보증과 종신 보장을 받는 토지 소유권자가 될 수 단 인 농지법이다. 그 중요성으로 말하자면 이는 생산자의 임금을 초과하고 공동체에 속하는 결실의 몫을 대표한다. 조직 기간 동안 이 지대는 언제나 사실에 의거해 설명되는 바와 같이 개인화에 의해 발현하는 사회의 이름으로 소유권자에게 지불된다. 그러나 소유권자는 지대를 받는 것이 상의 일을 한다. 그는 그것을 혼자 누린다. 공동체에는 전혀 내 놓지 않는다. 그의 차지인 과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다. 그는 집단 노동의 산물을 거기에 자기 노동을 넣지 않으면서 집어삼킨다. 그러므로 절도, 말하자면 합법적 절도, 그러나 실질적인 절도가 있는 것이다.

기업가가 일꾼에게서 그의 임금을 대해 무언가를 유보하거나 그에 게 돌아 가는 것이 상의 이익금을 징수할 때는 언제나 상공업에 절도 행위가 있다.

나는 가치를 다루면서 모든 노동은 초과분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노동자의 소비가 언제나 같다고 가정할 때 그의 노동은 생계 수단

은 당신의 암시와 당신의 비방이다. 우리는 두 거짓 말 위에 살고 있다! ... 사람들이 모순적이라고 고발하는 것이 나라는 것은 이상하다! 내가 우리의 본성의 이 모순을 증명하는 일로 인생을 보내는 데 말이다.

I. 공동체는 정치경제학에서 생긴다

공산주의 유토피아에 대해 나를 지켜 준 첫 번째 것, 그러나 이 유토피아에 대해 대 소비난을 받는 추종자들이 의심하지 않는 것, 이는 공동체가 사회주의가 그와 맞서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그리고 내가 소유권자의 일상 관행의 묘사라고 정의한 정치경제학, 이자칭과학이라는 것의 범주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소유권이 독점을 제공한 것 것처럼, 공동체는 국가의 고양高揚, 경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가 독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 5 기에 등장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도달한 국면에 공산주의는 소유권을 저지하기 위해 나타난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역의 구도에서 정치경제학의 모든 모순을 재생한다. 그 비밀은 생산, 교환, 소비, 교육, 가족의 사회적 기능들 각각에서 개인을 집단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진화가 아무것도 화해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풀지 못하므로 이는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속명적으로 사악함과 빈곤에도 달한다.

이처럼 사회주의의 운명은 완전히 부정적이다.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서 나와 이기주의적이고 소유권자적인 일상 관행의 반증이다! 이 점에서 참으로 이는 틀림없이 일정한 쓸모가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의 무언가에 대한 대답이 철학에 쓸모 있는 것처럼 이는 사회과학에 쓸모 있다. 사회주의는 무의미한 말의 나열이다. 나는 경제학자들이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것에 놀란다. 공동체는 경쟁, 조세, 세관, 은행처럼 정치경제학의 분야에 속한다. 공동체는 노동분업, 집단적 힘, 일반적 비용, 주식회사와 합자회사, 저축금고와 보험금고, 유통은행과 신용은행 등등의 이론들의 근본에 있다. 공동체는 한마디로 공간처럼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플라톤의 아틀란티스에서부터 카베의 이카리아에까지 모든 사회적 유토피아들은 그들의 의미에서 추궁을 받는데, 하나의 이율배반을 다른 이율배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환원된다. 모든 유토피아들에서 발명성에 관한 공적은 영이다. 과장된 이야기는 거기서 미미한 부속물일 뿐이다. 그리고 저자들에게서 당신이 지적한 유토피아적 능력의 퇴화에 관해 말하자면, 퇴화는 오로지 경험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그리고 그만큼 그들 쪽의 배교에 해당하는 교정 사항들에서 나온다. 게다가 이 작가들은, 나는 그들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모두가 경제학자들, 인류가 고통스럽

셨나? 소유권에대한것이다. 그런데소유권의부정은공산주의다. 가장가난한이카리아사람은아리스토텔레스같은사람처럼이결과에도달할수있다. 그리고당신의현실적신앙고백은완전히이추론의숙명성에의존한다.

그러니왜당신은, 소유권에아주소리높여향의하는내가당신의모범을모방하지않는다고생각하는가? 그리고어떻게가장결연한부정에도불구하고나는고대인들보다뒤떨어진, 현대사회주의자들중에서가장뒤떨어진자의입장에있는가? 소유권을허무는것, 이는아름답고고상했다. 하지만그다음으로어떤형이상학인지내가모르는것의이름으로공동체를배척하는것, 그보다더앞뒤가안맞는것이있을수있는가? 6년전부터나는이에대한선언을지속하고있다. 당황하고불신하는사회주의에내가무슨대답을해야하나?

친애하는빌가르델, 그대가공산주의에대한나의비연대를높이인정한것에감사한다. 그에대한내변명은내가당신의저작들에서그모든요소들을발견하는만큼더욱쉬워질것이다. 그대는이렇게말한다. 사회주의나공산주의는지속적방식으로쇠퇴하며, 그것이유토피아, 즉무이기때문에쇠퇴한다고. 사회가와서, 자기내면의관념들을단언하고실현함에 따라, 그리고경험안에서자리잡음에따라사회주의는달아난다. 입법자가의법칙들을발견하고인류의순수본질이발현함에따라소유권이변경되는것과마찬가지다. 이것이야말로사회주의와정치경제학이차례로 확인했고우리가, 그대와내가그중하나로부터, 다른하나로부터그런것처럼받아들이는것이다.

그러므로나는그대와마찬가지로공산주의자다. 친애하는빌가르델, 하지만당지가설에따라서이고, 내가소유권을부정하는한에서그렇다. 소유권을처부수었으니, 공산주의가설을입증하는것이중요하다. 이때공산주의가소유권처럼계속적인쇠퇴중에있음을, 그것이유토피아적임을, 즉아무것과도같지않음을, 그것이재생하기를시도할때마다소유권의흉내로해소된다는것을발견하며나는나자신과의견을일치시키기위해, 경험에서처럼이성에도충실하기위해지금까지소유권에반대해서그랬던것처럼공동체에반대하는결론을내리지않을수없다. 그리고내가오늘날사회주의자들중에서가장뒤떨어진자의입장이라면, 이는내가유토피아에서벗어나는반면그들은거기머물기때문이다.

이이중의부정은오류에서, 혹은역지에서오는것인가? 친애하는빌가르델, 나는이렇게만들어진것이사회본성자체라고굳게믿는다. 그리고나는그대나와함께사회주의적신택의절정으로부터사물의실천적고찰로내려가길원치않는다면이에대해당신을설득하는데절망하지 않는다. 그대는다만내가그대에게내이유들을설명할때주장하는것이내견해가아니라는것만기억하라. 내가설명하는것은당신자신이고, 내가정당화하는것은당신의명분이고, 내가당신의신앙고백과화해시키는것

이상으로언제나더큰자본을창출해야할것이다. 소유권체제에서본질상 집단적인노동의초과분은지대처럼온전히소유권자에게넘어간다. 그런데공유물의변장한전유와사기성약취사이에서차이는어디있는가?

이약취의결과는, 집단적산출에서의자기몫을끊임없이기업자에게 몰수당하는노동자는언제나궁핍한반면, 자본가는언제나이윤을본다는 것, 본질적으로동등한가치물의상거래, 교환은 6 프랑의가치가나가는 것을 3 프랑에구매하고, 3 프랑의가치가있는것을 6 프랑에판매하는기술에불과하다는것, 소유권이힘의종교인것처럼소유권의존중의해유지되는이와같은상태, 이체제를지탱하고격찬하는정치경제학은도둑질 의이론이라는것이다. 노동은그것이생산하는부에참여한다고, 최근에 도덕및정치과학아카데미에서의담합에관한연설에서블랑키씨가말했다. 그러므로노동이거기참여하지않는다면이는옳지않다. 그리고그것이 옳지않다면이는절도행위이며, 소유권자들은도둑들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이여, 명확히말하라!

그러므로정의는옛시인들이황금시대라고부른부정적공동체를벗어나면힘의권리다. 조직에눈뜬사회에서능력들의불평등은가치관념을 일깨운다. 가치는공로와재산간의비율관념을유발한다. 그리고이때제 1 의, 그리고유일한인정된공로는힘이므로가장공로가커서최선의사람 aristos 로서가장큰몫에대한권리를가지는것은가장강한자 (aristos, 아레스 arês 의최상급, 마르스신의고유이름) 다. 그리고이몫이그에게 거절된다면아주자연스럽게그는이를탈취한다. 이로부터모든물건에대한소유권을가로채는것까지의한발짝밖에안된다.

그러한것이영웅적권리였으며, 이는적어도기억하기로는그리스인과로마인들에게서그들의공화국의마지막시대에까지보전된권리다. 플라톤은『고르기아스』에서그럴싸한이유들로힘의권리를주장하는칼리클레스라는자를소개하며, 평등 tou isou 의옹호자인소크라테스는논리보다는웅변으로이를반증한다. 사람들은위대한폼페이우스가곤잘화를내며, 그러던어느날무심코이런말을했다고이야기한다. “무기를들때 나는법을지키는것이다!”이모습은야심과양심이서로싸우는사람, 영웅적인격언, 도둑의속담으로자기의걱정을정당화하려고하는사람을그린다.

힘의권리에뒤이은것은피의권리였는데, 이는앞의것의타락이고정의의새로운발현일뿐이었다. 이는그일에뛰어나지못하고거기서너무손해를보는영웅들에게힘을받은권리다. 오이디푸스와스핑크스의잘알려진고사는승리자가전쟁에서처럼패자의생명의주인이라고하는이교묘함의권리에대한언질이다. 기만적인제안으로적수를속이는데서의능숙함은역시그보수를받을만한것으로여겨졌다. 그러나능수능란한자들이강자들을잔혹하고야만적이라부르며멸시하는동안, 벌써의義의참된

감정을 드러낸, 그렇기는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에 불과한 반응에 의해 강자들은 여전히 선의와 단순성을 자랑했다.

그시대에 말에 대한 존경과 맹세의 준수는 논리적 엄격함보다는 문자적 엄격함에 속했다. 12 동판법은 이렇게 말한다. ‘허가말할 것처럼, 권리는 그럴 것이다 (Uti lingua nuncupassit, ita jus esto).’ 태어나는 이성 은 형태보다 근본에 덜 집착한다. 그 확실성 전체를 이루는 것은 형태, 방식 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지략, 더 좋게 표현하자면 불성실한 말 이고 대로마의 정치거의 전체가 되었다. 다른 많은 예들 중에서도 비코는 몽 테스키외의 도 이야기 한 예를 인용한다.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인들에게 그들의 재물과 도시의 보전을 의도적으로 사회, 국가를 뜻하는 civitas 라는 말을 사용해 보장해 주었다. 반대로 물적 도시 urbs 로 알 아들은 카르타고인 들은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 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마인들 에게 공격을 받았다. 로마인들은 그 일에서 영웅적 권리를 따라 애매한 말로 적들을 속인 후에 불의한 전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대 외교는 이 고대의 관습에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법률이 금하는 바와 같은 절도에서 힘과 술수는 그것들만 부족물 없이 사용된다. 허가 받은 도둑질에서는 이 힘과 술수는 무언가 쓸모로 위장되는 데, 이 쓸모는 그 희생자들을 갈취하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된다.

폭력과 교활함에 대한 직접적 호소는 일찍이, 그리고 만장일치로 배척 되었다. 문명을 형성하며 문명을 구분하는 것은 힘을 포기하는 데서 이 민 족들의 의견 일치다. 어느 민족도 아직 노동, 재능 그리고 소유로 위장된 도둑질에서 벗어나는데도 달하지 못했다.

힘의 권리와 술수의 권리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여러 시들 에서 음유시인들이 찬미하던 것으로서 그리스 공화국들에 영감을 불어 넣 었고 로마 법들을 그 정신으로 채웠으며, 그것들은 이로부터 우리의 도덕 관 념과 우리의 법전들로 넘어왔다. 그리스도교는 그에 아무런 변화도 가지 않았다. 종교로 자리매김한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철학을 적대하고 과학 을 멀리해 종교적 본질에 속할 모든 것을 수용하는데 소홀할 수 없었다. 이렇 게 해서 성마태오와 성바울로 안에서 평등과 상식을 공언한 후 그리스도교 는 점점 그 주위에 처음에는 금했던 미신을 끌어모았다. 다신론, 이원론, 삼 원론, 마법, 강신술, 위계, 왕정체제, 소유권, 땅의 모든 종교들과 혐오스 러운 것들이다.

도덕과 관련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고위성직자들과 종교회의들의 무지는 광장과 집정관들의 무지에 필적했다. 그리고 사회와 권리에 대한 이 심각한 무지는 교회 타락시킨 것이 고 영구히 그가 르침에 불명예를 주는 것이다. 게다가 불성실이 일반적이었다. 그리스도교의 모든 종파가 그리스도의 계 율을 무시했다. 모든 종파가 그 교리에서 오류를 범했으므로 도덕에서 오류 를 범했다. 모든 종파가 거짓 명제들로 죄가 있으며, 사악함과 살인으로 가득 차 있다. 스스로를 무오류라고 하는, 그리고 맡겨진 것을 보전할 줄 몰

나의 벗 공산주의자 빌가르델¹에게

친애하는 빌가르델에게,
그대의 지난 두 출판물이나왔을 적마다 받았으며 이에 대해 그대에게 감 사한다.

나는 『이익들의 일치 Accord des intérêts』를 그대의 아주 예리한 정신, 그대의 생각이 있고 가벼운 생각, 언제나 회의적이고 빈정거리는 표현 을 내게 갖추게 해 줄 매력 을 느끼며 읽었다. 실제로 공산주의적인 글에서 작 가의 상상력과 재능이 아니라면 무엇을 찾겠는가?

『사회이념사 Histoire des idées sociales』에서 내게 충격을 준 것 은 〈현대 사회주의자들보다 앞서고 뛰어난 고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 이 라는 부제목이다. 나는 거기서 순진함보다는 악의를 훨씬 적게 발견한다는 것을 실도한다. 우리의 주의를 위한 아름다운 권고는, 부디 진보 관념에 세 뇌된 공중에 계몽이 소유권의 기초 위에서 발달함에 따라 우리들 사이에 발명이 약화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붕 위에서 그 밖에 참된 것, 즉 사회주 의는 플라톤과 피타고라스로부터 퇴락하고 있다는 것을 외쳐달라는 것이 다! 그리고 공산주의 출판물 서두에 웬 독자에 대한 예고냐는 말인가! 친애 하는 빌가르델, 그대는 팔랑스테르를 들락거렸다. 그리고 그대는 별로 약 지 못하다!

하지만 나는 그대가 소유권과 반대 방향으로 구상된 모든 개혁 프로젝트 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유토피아라는 이름을 아주 좋아한다. 사실상, 그리 고 권리상 사회주의는 이성과 사회적 실천에 영구적으로 항의하면서 아무 것도 될 수가 없고, 아무 것도 아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이 질곡을 경제학자 들은 시간을 가지고 이겨 내길 희망하며, 이는 항상 재연되는 것인데 사회주 의는 이를 결코 역행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를 위해 특정된 시간은 없다. 사 회주의는 영구적인 연기의 형벌에 처해졌다. 친애하는 빌가르델, 나는 그 대가 이다행스러운 발견을 한 것을 축하한다.

내 생각에 그대는 또한, 그리고 무한히 옳은 말인데, 공중은 사회주의의 모든 가지들을 공동체라는 고대의 줄기에 잡아맨다고 말한다. 그대 자신이 우선 생시몽의 유토피아를 조사하고, 나중에는 푸리에의 그것을 조사한 후 이 사람들이 선의가 아니라 중도에 멈추어 선 것을 발견하고 공산주의자 가 된 것은 그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시대에 개혁자들이 무엇에 대해 할 일 어

¹ 프랑수아 빌가르델 (François Villegardelle, 1810~1856).-역자주

제 12 장 제 9 기 — 공동체

랐던교회는사회에용서를구해야할것이다. 그의개혁적이라고하는자매교회들은수치를당할것이다. ... 환멸을느끼지만관대한인민은유의할것이다.

이와같이인습적권리인소유권은절충론이진리와다른것처럼, 가치가격표와다른것처럼정의와다른것으로서불의의두극단인잔혹한힘과허위의술수사이의일련의진자운동에의해형성되는데, 그들사이에서대립하는자들이언제나하나의협정을체결한다. 그러나정의는타협에따라온다. 협정은조만간에실물을표현할것이다. 참된권리는끊임없이변적이고자의적인권리로부터벗어난다. 개혁은지성과힘의투쟁에의해행해진다. 그리고그출발점이야만성의어둠속에있는이광대한운동, 사회가소유와가치의종합적관념으로상승하는날효력을상실하는이운동, 본능적으로수행되는이변혁과혁명의총체, 그과학적이고최종적인해법을추구하는이것을나는소유권의종교라고부른다.

그러나자생적이고진보적인소유권이종교라면이는왕정체제, 교황권처럼신권에속한다. 마찬가지로조건과재산의불평등, 빈곤은신권에속한다. 거짓맹세와도둑질은신적제도에속한다. 사람에의한사람의착취는신의천명이고표명이다. 참된유신론자들은소유권자들이다. 소유권의옹호자들은모두신을두려워하는사람들이다. 그들이소유권에관한불화에따라서로에게행하는사형및고문형선고는힘의신에게바치는인신희생제물이다. 반대로소유권의종말이임박했음을선포하고예수그리스도, 그리고성바울로와함께소유권의폐지를촉발하고, 부의생산, 소비, 분배에관해추론하는자들은아나키스트와무신론자들이다. 평등을향해, 과학을향해가시적으로행진해가는사회, 그사회는신의끊임없는부정이다.

소유권에의거한신가설의증명, 그리고사람의신체적, 정신적, 지적완성을위한무신론의필요성, 이런것은우리에게풀어야할숙제로남는이상한문제다. 약간의말이면충분할것이다. 사실은알려졌으며우리의증명은행해졌다.

세기의주된관념, 오늘날가장통속적이고가장공신력있는관념은진보관념이다. 레싱이래로사회적신념들의기초가된진보는여러사람들의정신속에서옛날에계시가하던것과동일한역할을한다. 사람들은레싱이계시를부정한다고하겠지만실제로는이를다른말로번역하기만한것이다. 라틴어 *revelatio* 는그리스어 *apokalupsis* 와마찬가지로축어적으로펼쳐짐, 진보를뜻한다. 그러나종교적인고대는신자신이사건이전에이야기한역사안에서이펼쳐짐을보였던반면, 현대인들의철학적이성은기정사실의계기繼起에서이를본다. 예언은역사철학의반대가아니라그것의신화다.

그러므로인류의발달이라는것은, 점점더커지는의식과함께할경우에우리의가장심오하고가장포괄적인관념이다. 언어와법률들의발달,

종교와 철학의 발달, 경제적, 산업적 발전, 힘, 술수 그리고 인습에 의한 정의의 발달, 학문과 예술의 발달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포괄하고, 모든 철학에 대립하고, 한편으로 계시에 근거하고, 다른 한편 고행에 근거하는 그리스도교, 즉 이성과 경험에 의한 사람의 교육을 믿는 그리스도교, 이는 그 전체가 진보의 상징이다.

진보에 대한 이 절정의 관념, 다산성이 고고도로 합리적인 관념을 대면해 또 하나의 관념이지속하며, 다시 활기를 띠는 것 같다. 이는 거대한, 수수께끼 같은, 궁창의 심오한 존재들이 망원경으로 통찰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변증법적 수단들로 통찰이 안 되는 관념으로서 신관념이다.

신이란 무엇인가?

신은 가설 상으로 영원하고, 전능하고, 무오류이고, 부동이고, 자생적 존재, 한마디로 모든 능력, 속성, 발현 형태에서 무한한 존재다. 신은 무한한 능력으로 상승한 지성과 활동이 숙명 자체에 적합하고 숙명 자체와 동일한 존재다. 최고의 법, 최고의 자유, 최고의 필연 (Summa lex, summa libertas, summa necessitas) 이다. 그러므로 신은 본질상 반진보적이고 반섭리적이다. 말해진 것은 행해진 것 Dictum factum 이라는 것이 그의 표어이고 그의 유일무이한 법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영원은 섭리를 배제하므로, 무오류성은 오류의 지각을 배제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악의 지각을 배제한다. 그 하시는 일 모두 거룩하다 (sanctus in omnibus operibus suis). 그러나 신은 모든 방향에서 무한한 품성에 의해 고유한 정의의 定義를 획득하며, 따라서 그를 자기적 대자로 인식하는 유한하고 진보적이고 섭리적인 존재에 대한 그의 대립에서 결과로 나오는 존재 가능성을 획득한다. 신은 한마디로 그 개념 안에 아무 모순적인 것도 가지지 않아서 가능하며, 우리의 이성의 본의가 아닌 이 가설을 입증할 여지가 있다.

이 모든 관념은 그 정신적, 지적 구성에서 고려된 인간 존재의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었다. 그 관념들은 반증되지 않는 변증법에 따라 우리의 우발적 본성과 우리의 지구상에서의 기능의 필연적 가정으로서 등장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처음에는 존재의 단순 가능성으로만 상상했던 것이 환원 불가능한 이원론과 존재들의 진행 과정 이론에 의해 어떤 개연성의 크기로 상승했다. 우리는 이원론적 실체에 관해 펼쳐지는, 그 이성과 마지막 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 과학에 이제부터 획득되는 진보적 창조라는 사실이, 그 근원에서 또 다른 사실, 자생성, 효과성, 확실성을 무한하게 가지는 본질, 그 모든 속성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속성과는 역전이 될 본질이라는 사실을 내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이 개연적 사실, 이성이 요구하고, 관찰이 시사하는 필요 불가결의 존재, 그러나 아무 것도 아직 증명하지 못하고, 모든 경우에 그 무한성과 그 고독성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빼앗는 존재를 밝히 드러낼 일이 남는다. 증명 불가능한 것을 증명하고, 접근 불가능한 것을 통찰하고, 한마디로 유한한 인간의 시야에 무한을 놓는 일이 남는다.

질이라도 내일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소유권자 2500 만명이여기 있다.”

이비코는 언사의 작자는 미슐레 (Michelet) 씨로서 그는 콜레주드프랑스의 교수이고 도덕 정치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다. 그가 빚대어 말한 어떤 사람은 바로 나다. 미슐레 씨는 내가 화를 내는 일 없이도 나를 거멸할 수 있었다. 소유권에 대한 정의는 나의 것이며, 내야심이라고는 내가 그의 의미와 이해된 바를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소유권, 이는 도둑질이다! 천년의 세월에 이와 같은 두 마디가 말해진 바 없다. 나는 지상에서 이 소유권에 대한 정의 말고 다른 재산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정의를 로스차일드의 수백만 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히 말하건대 이 정의는 루이 필리프 정부의 가장 대단한 사건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미슐레 씨에게 소유권의 부정이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를 함의한다고 말해주었는가? 그는 프랑스가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소유권이 폐지될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왜 소유권자 2500 만명 대신에 3400 만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제도들을 고발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것을 그는 어디서 알았는가? 그리고 그가 프랑스를 소유하는 2500 만명의 소유권자들이 내일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덧붙여 말할 때, 누가 그에게 이를 위해 그들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할 권리를 주는가? 미슐레 씨는 다섯 행으로 다섯 배는 터무니없이 말하는 재능을 가졌다. 그는 의문의 여지 없이 내가 옛날에 소유권을 장차 옹호할 그 누구에 대해서 건행한 예언을 실현하는데 집착했다. 그러나 역사를 40 년간 공부한 후에 알량한 학문이랍시고 19 세기에 본능에 의한 해방을 설교하게 된 사람에게 무엇이 대담해 줄 것인가? ... 다른 사람이 미슐레 씨와 논쟁할 것이다. 나는 그를 연대기로 돌려보내는 바다.

(Astiterunt reges terrae adversus Christum)! … 소유권의원인은 왕조들과교황권, 우민정치와계변, 비생산자들과기생자들의원인이다. 어떠한위선도, 어떠한유혹도이를 옹호하는데아껴지지않을것이다. 인민을끌어들이기위해그들의빈곤에대해동정하는것에서시작할것이다. 인민에게서사랑과온유함을부추길것이다. 이는용기를느슨하게하고의지를시들게할수있는모든것이다. 철학적성찰과학문위행복한본능을 높여줄것이다. 그리고는그들에게민족적영광을설교할것이다. 그들의애국심을뜨겁게데울것이다. 그들에게그민족의위인들에대해말할것이다. 그리고여전히금지된이성의승배를착취자들의승배로, 귀족들의우상승배로조금씩대체할것이다.

왜냐하면인민은자연처럼그관념들을실현하기를좋아하기때문이다. 이론적문제들보다는사람들의문제를선호한다. 인민이페르디난트에게반기를든다면이는마차니엘로에게복종하기위한것이다. 인민에게는라파에트, 미라보, 나폴레옹, 반신半神같은자들이필요하다. 장군복장을입지않는한대신의인사도받지않을것이다. 또한우상들에대한승배가얼마나번창하는지를보라! 사회를조직하고자하면서부엌하나도만들수없었던위인들인푸리에와선한이카리아인¹⁰에대해열광하는자들을보라. 민주주의자들, 위대함과공적이법정에서승소하는데에있다고보며, 전날밤필리포스로부터금을받아챙기고방패를전쟁터에던지고달아날데모스테네스라는사람의목소리를듣고카이로네이아로달려가는아테네인들처럼언제나인간강유역을달려갈준비가되어있는이들을보라.

관념들, 원리들, 기정사실의분별에는아무도관심이없다. 우리는벌써고대의지혜를너무많이가지는것같다. 그민주주의는루소의민주주의다. 왕당파와정통왕조파는루이 14 세에대해꿈꾼다. 부르주아들은루이르그로(루이 6 세) 에까지거슬러올라간다. 사제들은그레고리우스 7 세에서야멈추어선다. 사회주의자들은예수에게까지거슬러올라간다. 이는가장멀리소급될사람이다. 이런보편적쇠약함중에공부는파편적노동처럼사람이무더져가는방식에불과하다. 비판은무미건조한소극笑劇으로전락했다. 모든철학은유효기간이지난다.

이한에만인용하자면, 이는바로우리가몇달전에인민의벗이라는한학자가역사와진보를가르치겠다고공언하며애가조와디오니소스찬가지의문장들의홍수를헤집고서다음과같은한심한판단만을사회문제에대해표명할줄알았던때에본것이다.

“공산주의에대해말한다면한마디로죽하다. 소유권이폐지될마지막나라, 이는바로프랑스다. 이학파의어떤사람이말했듯이소유권이도둑

¹⁰ 영웅탐험가카베는이카리아섬에서어떤‘선한이카리아인’이독재자를타도한후공화국이수립되어있는것을발견했다. -역자주

첫눈에보기불가해하고, 그항목들에서모순적인이문제는누가이를 성찰하는수고를들인다면그안에서모든모순이사라지는다음정리定理로환원된다. 속명과진보간에등식을만들어서, 무한의존재와진보적존재, 서로에게들어맞지만일치하지는않고반대로서로역이되며서로침투하지만흔동되지않는이두존재가서로간에표현과법칙으로소용되면서, 우리에게그것들을구성하는정신과물질이그러하듯, 그러나다른차원에서존재의불가분하고환원불가능한두측면으로순서에따라나타나게한다.

사회과학에서관념들은모두가똑같이영구적이고진화적이며, 똑같이단순하고복잡하며, 똑같이격언식이면서종속적이라는것을우리는보았으며그에대해한번이상언급하도록유의했다. 초월적지성에게는경제체제에원리도, 결과도, 증명도, 연역도없다. 진리는연관조건없이하나이고동일한데, 이는그것이어디서나무한의측면에서, 그리고무한의이론들과체계들에서진리이기때문이다. 일련의명제들은단지교육적인해명에의해서발현한다. 사회는, 그뇌속에학문이살고있어서학문을그층체에서끌어안고처음도끝도없이의식하고모든부분에서동시에그리고 또렷하게파악하며, 그부분들에서각각동등한명증성과우선성을발견하는학자와같다. 그러나바로이사람은학문을만들기를원하는가? 그는어쩔수없이이를말로, 명제들로, 연설로연이어서펼쳐낸다. 즉어쩔수없이 불가분한전체로그에게나타나는것을하나의진행과정으로제시할수밖에없다.

이처럼자유, 평등, 네것, 내것, 장점과단점, 대변과차변, 종과주인, 비율, 가치, 경쟁, 독점, 조세, 교환, 노동분업, 기계, 세관, 지대, 상속 등등의관념들, 모든범주들, 모든대립물, 경제적어휘에서세상의시초부터명명된모든종합들이성에서는동시대적이다. 그렇기는하지만우리에게접근가능한학문을구성하려면이관념들은그것들이서로를낳는것을우리에게보여주는이론, 시작, 중간, 끝을가지는이론에따라배열될필요가있다. 인간적실천에들어가서효과적인방식으로실현되려면바로이관념들은진자운동을하는일련의제도들이천건의에기치않은사건들과긴모색과정을대동하는것으로등장해야한다. 한마디로학문에절대적이고초월적인진리와이론적진리가있는것처럼, 사회에는숙명과섭리, 자생성과반사성이같이있어서이두권능의두번째것이상시적으로첫번째것을대체하려노력하지만언제나실제로는같은구실밖에하지못한다.

숙명은그러므로존재와관념의한형태이며, 연역, 진보는다른형태다.

그러나숙명, 진보, 이는자연이알지못하는언어적추상들로서거기에서는모든것이실현되거나실현되지않는다. 그러므로인류안에는불가분이지만구분되는, 대립적, 적대적이지만영구적으로환원불가능한숙명적존재와진보적존재가있다.

본능적이고 불수의적인 자생성을 띠고 신체적, 사회적 유기체의 법칙에 종속된, 완전한 영구성을 부여받은, 그 항목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총체에서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발달과 성장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실현하는 피조물들로서 우리가 살고 성장하고 죽는 한, 우리가 일하고 교환하고, 사랑 등을 하는 한, 우리는 숙명적 존재다. 그 안에서 우리는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간다 (in quo vivimus, movemur et sumus). 우리는 동물, 식물, 돌들보다 덜 하지도 더 하지도 않은 자격으로 그의 실체, 그의 영혼, 그의 몸, 그의 형체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하고 성찰하고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한, 우리가 자연을 우리에게 종속시키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는 한, 우리는 진보적 존재이며 사람들이다. 생산하는 자연 natura naturans 인신은 사회의 기초, 영원한 실체다. 그리고 생산되는 자연 natura naturata 인사회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영속적으로 방출되는 숙명적 존재다. 생리학은 불완전하게라도 유기적 생명과 관계적 생명의 잘 알려진 구분에서 이원성을 나타낸다. 신은 사회 안에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 전체에 있다. 그러나 신이 진보적 존재와 의대립에 의해 지각되는 것은 사회 안에서 일뿐이다. 그 진화를 통해 원초적 범신론을 중단시키는 것은 사회이고, 인간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도 인간도 결코 연구하지 않으면서 생리와 물질 안으로 뛰어 들고 흡수되는 박물학자가 점차 신성의 감정을 상실하는 이유다. 그에겐 모든 것이 신이다. 즉 신은 전혀 없다.

본성상 다른 신과 인간은 그러므로 그 관념과 행위에 의해, 한마디로 그 언어에 의해 구분된다.

세계는 신의 의식이다. 신 안에 있는 의식적 관념이나 사실들은 인력, 운동, 생명, 수, 크기, 일체, 대립, 진행과정, 계열, 균형이다. 이 모든 관념들은 영구적으로, 따라서 계승, 예견, 오류 없이 의식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의 언어, 그의 관념들의 표상은 모든 존재들, 그리고 그들의 현상들이다.

사람에게 있는 의식적 관념이나 사실은 주의, 비교, 기억, 판단, 추론, 상상, 시간, 공간, 인과관계, 아름다움, 절정, 사랑과 증오, 슬픔과 즐거움이다. 이 관념들을 사람은 특정한 신호들으로써, 언어, 산업, 농업, 학문과 예술, 종교, 철학, 법률, 정부, 전쟁, 정복, 결혼식과 장례식, 혁명, 진보로써 바깥에 산출한다.

신의 관념들은 자연처럼 신에게서 오는, 심지어는 자연의 의식일 뿐인 사람, 신의 관념들을 그의 모든 관념의 원리와 재료로 삼으며 자신의 존재 안에 신적 실체를 변환하고, 끊임 없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공통이다. 그러나 사람의 관념들은 우리의 진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 우리 상상의 모든 산물이 괴물이자 무로 보이는 신에게는 낯설다. 그런 이유로 사람은 신의 언어를 자기 자신의 언어처럼 말하는 반면, 신은 인간의 언어를 말할 줄 모른다. 그리고 그들 간에 어떠한 대화도, 어떠한 협정도 가능하지 않다. 그

런이 유로 인류 안에서 신으로부터 오는, 신에게서 멈추거나 신에게 돌아가는 모든 것은 인간에게 적대적이고 인간의 발달과 완성에 해롭다.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말하자면 사람을 자기 품으로부터 내쫓는다. 그가 무한의 권능이며 그의 본질은 진보를 영구적으로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가톨릭 신학은 “영원한 아버지는 그녀가 스스로를 똑같이 낳다고 여겼던 때에 아이를 낳는다 (Pater ab aevo se videns parem sibi gignit natum)”고 말한다. 신과 인간은 그러므로 서로에게 필요하며 둘 중 하나는 다른 하나가 동시에 사라지지 않으면 부정될 수 없다. 절대적이고 부동인 법칙이 없다면 진보는 무엇일까? 숙명이 바깥으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신의 활동이 갑자기 중단된다고 가정해보자. 창조 세계는 혼돈한 존재로 들어간다. 형태 없는 물질, 관념 없는 정신, 분간이 안 가는 숙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신은 움직임을 중단하고,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과 사람은 그들을 연결해주는 필연에도 불구하고 환원 불가능하다. 도덕가들이 경건한 욕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라고 부른 것,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신에 대항한 전쟁, 성찰의 본능에 대항한 전쟁, 준비하고 선택하고 때를 기다리는 이성의 맹렬하고 치명적인 격정에 대항한 전쟁 일뿐인 것이 그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 신과 인간의 존재는 그들의 영원한 적대 의해 증명된다. 이것이야말로 승배행위들의 모순, 때로는 페드르가 비너스에게 자기 가슴에서 이폴리트의 사랑을 빼내도록 간청하듯,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유혹에 넘겨주지 말도록 신에게 간청하고 때로는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러듯이,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미사들에서 그러듯이 신에게 지혜와 지성을 요구하는 승배행위들의 모순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에 대부분의 내전과 종교전쟁, 관념들에 대해 행해진 박해, 관습에 대한 열광, 학문에 대한 증오, 진보에 대한 공포 등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악들의 제 1 원인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결코 자기 자신과 모순된 입장에 있을 수 없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신의 저항에 의해서만 교란과 찢어짐을 느낀다. 사람에게는 자연의 모든 자생성, 숙명적 존재의 교사 敎唆, 우주의 모든 신들과 악마들이 한테 모인다. 이 권능들을 종속시키고, 이 무정부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진보적 생각밖에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야말로 절정의 비극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반전 反轉이 총체적으로 모든 존재들의 지난 이유를 이룬다. 자연과 인간의 운명은 신의 형태 변화다. 그러나 신은 무진장이며 우리의 투쟁은 영원하다.

그러나 신비성과 종교를 공언하는 것, 신을 들추어 내거나 신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 원시적 무지를 향해 퇴보하려고 애쓰는 모든 것, 육신의 만족과 격정의 승배를 권장하는 모든 것이 소유권의 패거리이고 평등과정의 의적임을 드러낸다고 해서 놀라지 말자.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적들, 감각, 가슴, 상상력, 고집, 게으름, 의심이 인간에 맞서 음모를 꾸미는 전투의 전야에 있다. 그 기름부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썩거린다

④ 3년수유체계.²

이 체계의 저자는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동성애, 낙태 등등, 우리가 부분적으로 열거한 바 있는 터무니없고 부도덕하고 야만적인 이론들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열매를 잉태하고 보전하는 것이 여성 주된 임무 (Accipere aut tueri conceptum est maximum ac proecipuum munus foeminarum)’라는 로마법을 가지고 임신과 분만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비난하고, 창세기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을 유보 조건 없이 찬양한다.

그리고 인구의 가능한 증가는 자연적 증가가 아니라는 것을 원리로 제시하면서 저자가 신은 한 여자에게 한 남자만 점지했으며, 반대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점지했다는 것, 그의 눈에는 이미 첫째가 위대한 제약을 이루는 이것을 고려하면서 그는 다수의 권위와 사실들에 의거해 다음을 증명하는데 매달린다.

(1) 인생은 일정수의 정해진 시기들, 임신기, 수유기, 성장기, 번식기, 노화기로 나누어진다는 것, (2) 이 시기들 중에 젖의 분비는 3년간이 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젖을 먹이는 여성에게서 유방과 자궁간의 적대관계에 의한 자연적 불임이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각각의 여성이 만스물한 살에 결혼하고 자녀 각각에게 3년간 젖을 준다면, 인구는 증가하는 대신 오히려 줄어들고 소멸하는 경향을 띠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단언한다.

이 저작은 아주 큰 학식에서 나온 것이고, 르루의 『사회평론 Revue sociale』에서 정당한 찬사와 함께 인용된 것으로서 순수한 도덕성, 고상한 철학, 인민에 대한 심오한 사랑을 확연히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따르면 다만 정점을 이루는 것은 저자가 가진 관념이다. 이는 그 법칙에 따라, 그리고 그 자연적 시기에 이루어지는 출산 자체에서 출산의 한계들을 구한다는 관념인 것이다.

실제로 결혼의 정신적 나이를 앞당기든지 수유의 피로를 단축시켜 사람들의 재생산을 가속화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도 없다. 살인, 영아 살해 혹은 낙태에 의해서든 거세와 방탕함에 의해서든 이를 억제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산성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도, 억제하는 것도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의 오류에 의해 더 이상 반대를 받지 않으면서 우리 인류의 행복을 마련 해주었으며 자기 자신과 합치를 이루었는지를 탐구한다. 그런데 루돈 (Loudon) 박사에 따르면, 한편으로 수유의 자연적 시기가 3년이고, 다른 한편, 유방의 기능과 자궁의 기능 간에 비양립성이 있어서 같은 여성이 평생 동안 자연의 규정에 따르면 세 명이나 낳아야 네 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인구

² 『인구와 생존 수단 문제의 해결 Solution du problème de la population et des subsistances』, par Ch. Loudon, Paris, 1842.

유는 소비자의 독립성에 묶여 있다. 노동분업, 가치들의 비례성, 재산의 평등을 없애 보라. 그러면 백억 명의 부자들과 강자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는 지구가야만 몇 백만 명도 먹여 살리는 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를 없애 보라. 그러면 사람은 자기를 속인 희망의 사실을 무덤에까지 끌고 가는 불쌍한 강제 노역자일 뿐이다. 생존의 개인주의를 없애 보라. 그러면 당신은 인류를 거대한 군락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분업을 긍정하라. 그러면 공동체는 일률성과 함께 사라진다. 자유를 긍정하라. 그러면 경찰의 신비는 국가 종교와 함께 무너진다. 조직을 긍정하라. 그러면 그 불가피한 결과가 사람들의 공동체인 재물의 공동체는 망측한 악몽에 불과하다.

노동분업을 가지는 공동체, 자유를 가지는 공동체, 조직을 가지는 공동체는, 맏소사! 빛과 성명과 지성의 속성들을 가진 혼돈이다. 그리고 그대는 내가 왜 공산주의자가 아닌지 묻는다! 반의어 사전을 부디 찾아 보라. 그러면 내가 왜 공산주의자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VIII. 공동체는 정의 없이 불가능하며, 정의에 의해 멸망한다

“비아는 객관화되는, 자신에 대립하는, 그리고 자신을 남으로 간주하는 자이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 주체와 객체는 동일하다. A는 A와 같다.

모든 철학 체계에 기초로 사용되는 이 원리, 사색에서는 여전히 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이 원리는 또한 경제학의 출발점이며 분배적 정의의 제 1공리이다. 이 관념 질서에서 A는 A와 같다. 즉 실현된 노동은 생각된 노동과 수학적으로 동등하다. 따라서 일꾼의 임금 은 그의 생산물과 동등하며, 소비는 생산과 동등하다. 이는 자기 자신과만 교환할 뿐 집단적 노동자에게서, 그의 동료들에게서 격리되어 혼자서 온 인류가 된 사람에게서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생산자들과 교환하는 개인에게도 맞는 말이다. 집단적 노동자에게서 임금은 생산물과 동등하다. 따라서 모든 생산자들의 생산물은 서로 간에 동등하며, 그들의 임금도 같다. 거기에 조건과 재산의 평등 원리가 있다.

이처럼 평등은 집단적인 간에게서는 전체가 부분들의 총합과 동등하다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니다. 이는 그 다음으로 자유를 수단으로, 산업 조합들과 시민계급들 간에 성립한다. 끝으로 평등은 서서히, 그리고 무한한 진자 운동에 의해 개인들 간에 성립한다. 그러나 평등은 각 개인이 인류를 대표하므로, 그래서 인간이 인간과 동등하여 생산물이 모든 사람들 간에 생산물과 같게 되어야 하므로 결국은 보편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것은공동체의관점이아니다. 공동체는수치를싫어하며, 산술은공동체에치명적이다. 공동체는우주의법칙, ‘모든것을중량과수와크기에따라서 (Omnia in pondere, et numero, et mensura)’가또한사회의법칙이라는데동의하지않는다. 공동체는한마디로평등을수용하지않으며, 정외도결코수용하지않는다. 그러므로공동체가선호하는원리는무엇인가? 우리는그것을말했다. 카베씨에따르면우애다. 그리고내가실도할필요가있는것은, 이어리석은말의옹호자들중에는영예로운카베씨보다훨씬덜결백한사람들도있다는것이다.

이심오한이론가들이확언하는것은, 평등과정의는소유권과적대의관계일뿐이며이는사랑과헌신의법칙아래사라져야한다는것이다. 이새로운나라에서주는것은받는것과동의어다. 행복은몰을아끼지않는것에있다. 이기심의경쟁을헌신의경쟁이계승한다. 그러한것이사회주의의고등관념, 이를심화하는것이우리의의무가되는관념이다. 왜냐하면, 이고등관념덕분에우리는의, 불의, 권리, 의무, 준수사항, 손해등등모든하위관념들을잃기때문이다. 고등관념에서고등관념으로, 우리는더이상관념을가지지않는것으로끝낼것이다.

원시인이자신의물질적성향에내맡겨질때, 예수그리스도자신이피에르르루 (Pierre Leroux) 에따를때불완전하게밖에알지못할, 그리고공산주의자들이자신들의교리의기초로삼은동류에대한이신비로운사랑을미미하게느낀다는것은항상그렇다. 전쟁상태는인류의주된상태다. 서로에게헌신하기전에사람들은서로잡아먹는것으로시작한다. 이웃의희생은언제나이웃에대한희생에선행한다. 식인종과우애는경제적진화의두극단이다. 각개인이그의삶에서, 그리고그의삶의각순간에인류의이두면모를재현한다는것을덧붙이자.

이처럼우애는우리안에서천사가야수에승리를거두는것이표현되는것으로서, 자생적감정이라기보다는교육과노동의결실로개발된감정이다. 그러므로우애를교육하는체계는무엇인가? 우리가수많은우애의혼계를들은후에아직도이문제를제기하는신세에처한다는것은이상하다.

공산주의자들은우애가오로지설득에서태어나야하는것처럼추론한다. 예수그리스도와사도들은우애를설파했다. 사람들은우리에게우애를설교한다. 사람들은우리에게말한다. 형제가되라고, 그렇지 않으면너희는적이될것이라고. 당신의선택은자유가아니라고. 우애 아니면 죽음! 이진퇴양난앞에사람은결코망설이지않았다. 그는죽음을선택했다. 이는그의잘못인가?

나는내가어떤사물의필연성에대해가지는신념이어떻게이사물의동인이될수있는지이해하기는불가능하다. 이증명이내게자유를원하도록만드는데소용될수있었다고해도, 자유의탁월성이내게증명되어서가아니라사람을자유롭게하는조건들을내가결합하므로나는자유롭다. 마찬가지로

을모으는외과의사들에의해비밀리에추종된다. 이살인자들의단도는자궁의밑바닥에까지태아를찾아간다. 아기가살해되거나그꼭지에서떨어지면자연은저절로죽은열매를내버리며, 이는경제적언어로‘인구의과잉을예방한다’고불리며, 신문의문체로는‘잘못을감춘다’고불린다. 지방도시들에서의사들, 산파들이이산업을모방해불행한자들을세상에내보내는것은범죄이며, 자녀의수를제한하는것은양심의무라라고급경제원리에따라배설촉진제장사를한다. 그리고멜서스보다더멜서스주의적인경찰은임금문제를토론하는스무명의일꾼집회를적발할줄은알아도이런영아살해에는눈을감는데, 이문제에인구원리에관해경찰못지않게 눈을뜬배심원단은수많은정상참작거리를발견한다.

G... 박사의체계는팔랑스테르의에로스-바쿠스적불임의보완물인 것처럼경제학자들의도덕적이고신체적인억제책의불가피한보완물이다. 이모든학설들은절망적인관능주의의마지막노력으로서관련이되고연대성을 띤다. 그것들은인구의증가가정규적사회안에서생존수단의증가보다더빠르다는, 같은편견에서출발한다. 그결과들을본다면, 이는변함없이같은결과들이다. 빈곤, 약, 범죄의증가, 가족유대의해체, 경제운동의퇴보, 가난한자들, 고아들, 노인들, 모든쓸데없는입의강제적인금지. 살인의정당화, 우애와정의에대한파문.

③ 날짜피임체계 *Système des interruptions*. 이것을나는아주단순한예방방법으로이해하지만, 그성공에관해서는사람들이전혀의견일치를보이지않으며, 이는월경이전과이후여드레에서얼나홀동안성교를삼가는것이다. 여성은규정된시기외에는자연적불임이라고들말한다.

이런종류의절제는완전히신체적억제책의취향에들어간다. 나는어느수준까지생리학과정험이이방법의유용성을확증해주는지모른다. 게다가나는이에대해경제적관점에서만관심을둔다.

그러므로나는그러한실무의효과가사회와관련해서똑같이치명적일 것이라고, 빈곤과관련해서앞의것들의효과와똑같이비효과적일 것이라고말한다. 이런값을지불하지않고즐기는, 그리고적발되지않고죄를짓는순위순수단을가지고서는수치심은어리석고불편한편견에불과하며, 결혼은방해가되고무의한관습에불과하다. 가족에대한존중은짓밟힐것이다. 소년, 소녀들은유년기부터달콤한신비에입문해곧영혼의힘과인격의존엄성을상실할것이다. 미지의도덕관념으로타히티사람들의도덕관념보다더나쁜것이문명사회에성립할것이다. 노동은투기앞에서낮아질것이다. 그리고빈곤에대해서각자는색정적인독신자에게서피난처를찾아낸다고믿을것이지만, 빈곤은독점, 고리대, 파편적분업, 기능들과적성들의불평등에의해유지되어새로이도양의인구소멸, 자본의불임성 그리고중족의쇠퇴로자연의원수를값아줄것이다. 사회적진리는거기서발견될수없다. 우리는무엇을더깊이파고들필요가있는가?

진하는대신모두가성매매자가된다면발견된다. 자유사랑, 불임의사랑, 이는모두 … 그때이후로살림, 일부일처, 가족은무슨소용인가? 노동을주술로만들고사랑을체조로만드는것, 이는웬꿈인가! 이는팔랑스테르의꿈이다!

사회주의는정치경제학이나마찬가지로인구문제에관해죽음과치욕을발견했다. 노동과수치는유토피아의위선자들의입술을태우는말들이고단순한자들의눈에서그학설들의비천함을숨기는데만소용되는말들이다. 나는이종파들의사도들이어느정도까지그들의파렴치함을의식하는지모른다. 그러나나는사람에게서자기말에대한책임을면제해주는데동의하지않을것이고, 자기행동에대한책임을마찬가지일것이다.

② G… 박사의체계. 태아의적출혹은배아의제거.

이절차는자궁에서특별히마련된수단으로거기착상되었을배아와태아를부모의의사에반해끄집어내는것이다. 내가그원고를읽은, 그리고그저자가공중에게누리도록하는데지체할수없는상세한논문에서 G… 박사는정치경제학만큼이나철학에서도출된추론에의해사람은자기의출산을제한할권리와 의무를가진다는것, 이주제에아직어떤의문이남아있을수있다면이는원리에대한것이아니라양태에대한것임을증명한다.

G… 박사는말한다. 내가수입부족때문에, 댄서스가그렇게주장하듯이내독신자신세를견딜권리가있다면나는동일한이유로내가결혼한사람이라면독신으로돌아가고교회가승인하고댄서스후에모든경제학자들이인정하는것처럼내아내와의일체의관계도삼갈권리가있다.

이절제가생식과빈곤을예방하는것에서만그자체로장점을가진다면, 내가배우자에게의무를이행하는것을그만두지않고신체적억제책의추종자들이인정하는것처럼, 게다가논리가증명해주는것처럼입신을예방하는체외사정 retrace 으로충분할수있다.

그러나임신이란그자체로무엇인가? 정충의극미동물이형성된수컷기관에서암컷기관으로넘어가서단지그곳에서발달하는것이다. 극미동물이자궁에들어간후나들어가기전에내가그발달을멈추게하는것, 이는독신이범죄라면여전히동일한범죄다. 독신이무죄라면동일한행위는상관이없고무죄다. 그러므로나는임신이내게해롭다면입신을예방하는것처럼억제할권리와 의무를가진다.

그렇다면, 임신의순간에내게주어진내출산에대한권능을나는그에뒤이은순간에보전하며, 그다음날, 그다음주, 다음달에도보전한다. 왜냐하면내가그현상이완수된순간, 더구나그것을막으려는내의사에반해서완수된순간에그사실에대한아무지식도가질수없었기때문이다. 그런데억제에서일어난지체遲滯는태아를위해내권리에서효를정할수없다.

나는이추론을밀고나갈수고독자에게말긴다.

절국아주정직한사람이고속세의사람인것처럼훌륭한논리학자인 G… 박사의체계는파리에서그것을전문분야로삼아거기서급속히재산

가지로사람들은그들의운명에대해취득할지식에힘입어서만이아니라사회안에서조화를구성하는경제적, 정치적, 혹은다른조건들덕분에불화에서조화로넘어갈것이다. 그리스도의목소리에인류는사랑으로전을하고다정함에눈물흘렸다. 성스러운열정이영혼들을사로잡았다. 이는긴피로의반응적효과, 결과였다. 이정서는지속시간이짧았다. 그리스도교의불화는이상승배의증오를초월했다. 우애는꿈처럼흩어졌다. 이를지탱할아무것도예견되지않아참말로우애를먹어살릴양식이결핍되었기때문이다. 상황은아직도마찬가지다. 우애는언제나그랬던것처럼오늘날에도생존을위해그것을낳는원리를기다린다. 사회주의는자신이이조건을충족하고우애를실파하는데충분하다고생각하는가?

이와같이우리는허공에집을짓는다. 우리는지정된길을따라한단계씩가는대신공중을가로질러도달하기를원하는약속된땅을눈앞에두고비참하게멸망한다. 우애는존재하지않는다. 이는보편적으로인정된다. 그리고사회주의는우애의요소들을찾는대신말을하는것으로충분하다고상상한다. “우애가있으라!”하고말한다. … 하지만우애는있을수없다.

어떤이들은우애의모습들을우애자체로간주해예의, 부드러운어조, 관대한교육이불러일으키는감정들, 미래세대에대해친절하고애착을보이는도덕관념이누구도사회적신뢰를남용해헌신과우애의법칙을배반한다고가정하는것을허락하지않는다고확언한다. 이들은척도재를지폐로대체하고담보물을증표로대체하면서척도재의사용을폐지했다고상상하는경제학자들을닮았다. 그러나지폐는그것이담보로뒷받침되는만큼만가치를띤다. 마찬가지로세련됨, 예의, 헌신의맹세는이것들을지탱하는담보의조건에서만가치를지닌다. 그러니이담보가어디있는지내게말해주기바란다! 우정, 존경, 신뢰, 의무감을갖게하는성심誠心을생겨나게하는것은호혜성의확실성, 혹은같은것이지만개인적이고합법적으로취득된행복에대한인적존엄과독립의감정이다. 그곳에서종교가개성과소유권의일체의감정을배제하는데신경을썼던수도원들의번지르르한언행은그렇다면우애에속한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이형제들은그들스스로가서로를존중하기에는너무별볼일없는자들이었다. 그리고겸손과자기희생이규칙인종교적공동체들의예를통해사람들은자아의낮춤이언제나자선의파멸을초래하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한것이이수도회창설자들의커다란오류였다. 신은그들의선의를감안해이들에게평화를베풀었지만그체계는이제부터심판을받는다. 수사들의무례함, 나태, 방탕함은여러세기전부터속담이되었다. 종교적공동체들, 심지어노동을그들규율의필수부분으로삼은공동체들의이모든해악은정의밖에서우애를찾는이잘못된이론에서나왔다.

역사의증언에그이론은그증거를덧붙인다. 노동자들의사회가정의없이지내고애정의분출에의해서오로지지탱될수있으려면한가지가필

요할 것이며, 이것없이 는우에는그순간에멸망할것이다. 이는곧개인의 무오류성과범죄불가능성이다. 어떤사람이책을출판할계획을가진다. 누가중이, 조판, 인쇄, 제본, 판매, 우송료를선투자할것인가? 아무고 공동체말고다른곳에는속하지 않으며, 모든노동수단, 모든원재료, 모든생산물과이익이공동체에속하니의심할것없이공동체다. 그러나공동체는이글을인쇄하면서쓸모없는지출에노출된다. 누가이를보증할것인가? 원고를검사하기위해검열관들을지명할것인가? 그렇다면언론은더이상자유가아니다. 인쇄를투표에부칠것인가? 이는투표자들이바로그들이입도록하려고하는책을아는것을전제로한다. 저자가충분한수익에약구독자를얻기를기다릴것인가? 우리는판매와교환, 차변과대변의체계, 공동체의부정에들어간다.

풀수없는어려움이얼마나많은가! 얼마나모순이많은가! 공동체가사려깊다면, 자신을위해보증을요구해야한다. 즉자기바깥의소유를인정하고자자기자신의해체를공표해야한다. 저자가정말로충심을가지고헌신적이라면그는혼자서자기저작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 즉헌신으로써공동체와갈라서야한다. 그러나그가자신에게도자신바깥에도희생할수있고바칠수있는아무것도가지지못한다면이헌신자체에서어떻게행위를만들어낼것인가? ‘가지지않은것은누구에게도줄수없다 (Nemo dat quod non habet).’이렇게말하는것은복음서이고예수그리스도자신이다. 당신이아무것도내놓지않은데서는아무것도취할수없다. 그리고모든사람들중에희생을가장잘할수있는자는공산주의자가아니다. 이는소유권자다. 내가그렇게진부한진실을새로운것으로제시할필요가있는가?

그러므로공동체는그모든경로를거쳐자살에도달한다. 가족의전형에맞게구성되어가족과함께해체된다. 분배없이아아갈수없어분배에의해멸망한다. 조직화하지않을수없어조직이공동체를죽인다. 끝으로공동체는희생을전제로한다. 그리고희생의질료와형상을한꺼번에제거해공동체는자신의생존에필요한계열을구성할수있기는커녕자신의진화의척향도제기할수없다.

나에게무언가와합치되는무언가를달라. 그대상이파악되는관념, 분석이되고내가이해할수있는사실말이다. 그러면나는이사실을인정할것이고, 이관념에동의할것이다. 그러나그대는무無에서만상상이되며, 무와만화해하고, 무에의해서만존속하는공동체에대해내가무어라말하기를바라는가?

하고굽어죽지않는틀림없는수단이다. 이위대한사람은우리에게용감하게말한다. 당신들은두끼식사로살수없다. 일곱끼니를먹어라. 그러면만족을얻을것이다.

주지하듯이이는바로그경제학자가요구하는것이다. 그러나소비를두배로, 네배로늘리는수단, 필수품이부족할때사치를제공할수단은? 여기서푸리에에는일련의대조되는집단들을제시한다. 그의계산에따르면이들은즉각생산물을내배로할것이다. 그러나오늘날인정되는것은, 푸리에가쓰기로나선것들의첫마디말도몰랐다는것이다. 그는가치의관념을가지지않는다. 그는분배이론도교환법칙도보유하지않는다. 그는정치경제학의어떠한모순도풀지않았다. 그는이모순들의의미를짐작하지도못했다. 그는빈곤의원인들이모두자본의우세와노동의종속에서유래한다는것을몰랐다. 그러기는커녕자본, 노동, 재능이라는그의공식안에이우세와이종속을성별한다. 그와그의학파는이올배반들의중합에서자본과소유권보다높은원리에서노동자해방을구하는대신자본의원조와권력의호의를간청하기를그치지않았을때, 언제나이모순적여건에따라움직였다. 푸리에에는끝으로멜서스처럼그가풀어야했던문제를인류와지구사이에서위치하게하는대신이를인구와생존수단사이에두었을때문제의본성을오해했다. 사중적四重積에관해나는위에서, 이것이부의진보의이론에의해팔랑스테르주의학파의글들에서넘쳐나는이수천의물상식중하나였음을보여주었다. 그반증이비판을부끄럽게해줄허튼소리인것이다.

그러나인구문제에대한푸리에주의의해결책에는해야할더심각한비난이있다. 이는그부도덕성이인정된정신, 고도로조직해체적이고반사회적인지향이다. 나는내생각에병적인경우의일반화라고다른것아닌비만의방식이사람들이가정하는효과를가질지를검토하지않는다. 생리학은내분야가아니다. 나는그가설을받아들인다.

제 11 장에서소유권의역할과지향이무엇인지를찾으면서우리는그독특하고신호가되는모습으로가족의형성을발견했다. 푸리에주의는소유권의수호자로나선다. 그런데푸리에주의는소유권의원인도대상도모를뿐아니라, 이원인들을부정하고이것들을폐지하기를원한다. 푸리에주의는소유권의유기적요소인살림살이의부정이고소유권의영혼인가족의부정이고변형된소유권의형상인결혼의부정이다. 그리고푸리에주의는왜이모든것을폐지하는가? 푸리에주의가소유권의부정적 측면만을인정하기때문이고, 결혼과가족에의해발현되는정상적이고거룩한소유 대신푸리에주의는완전한성매매를열렬히, 온노력을다해추구한다. 이는인구문제에대한푸리에주의적해결책의모든비밀이다. 푸리에에는말한다. 창녀들은백만명에한명도어머니가되지않는다는것이증명된다고. 반대로살림살이, 가사의돌봄, 혼인의순결성은출산을현저하게조장한다. 그러므로인구의균형은우리가부부로결합하고배타적으로다산을촉

을외웠다. 나는어디서나농민들부부의침대위에그리스도상이걸려있는 것을보았다. 이는하늘의화와땅의재앙을막기위한무식하고광신적인인민의의존수단이였다. 시대가전진했다. 이성은해방되였다. 우리는빈곤의원인이자녀의과잉생산이라는것을배웠다. 대낮에젊은신부를들러싸고그의눈에들이다치고그의가슴을여생동안채울미신의딸랑이대신에이제부터는경찰관이그에게가정의무의상징으로정치경제학에서, 그리고공창公娼의은어에서만이름을가지는피임도구를제공해줄것이다! ...치욕이다!

그렇지만추론해가자. 더추론해가자. 부도덕은우리머리카락에까지올라왔다. 저명하라부아지에 (Lavoisier) 는대도시의구덩이들에서가난한오물수거인을덤키는질식사에대한치료법을찾기위해극도로혐오스러운것들을마다하지않았다.

도덕적억제책은갑자기신체적억제책이되었으며자기식대로인구문제를해결해결혼한사람들에게쓸모있는실무에속하는것이맞다면, 이쓸모는자유로운사람들에게도덜하지않다. 그런데 (이는여기서경제학자들이예견하지못한사물의부도덕한측면이다) 쾌락이출산이라는결과없이그자체로원해지고추구되면결혼은있으나마나한제한도가된다. 젊은이들의삶은불입의육체계안에서영위된다. 가족은소멸하고가족과함께소유권도소멸한다. 경제적인동은해결책없는상태로남고, 사회는야만시대로돌아간다. 맬서스와도덕적경제학자들은결혼을접근불가능한것으로만들었다. 의사醫師경제학자들은결혼을쓸모없는것으로만든다. 이사람들이나저사람들이나빵의결여에정의결여를더하며, 사회적곤의해체를촉발한다. 그리고이야말로극빈층을예방하는것이라부르는것, 빈곤의억제라는말로이해하는것이다. 심오한도덕가들이다! 심오한정치인들이다! 심오한박애주의자들이다!

이기치않은이계시에, 맬서스이론에대한이이상한주석에대해여론이전보다더많은에너지를가지고일어났다. 도덕가들은그들의선의에놓아진덫에대해불쾌감을표시했다. 사회주의자들은맬서스의원리에제안된타협이환상이라는것을발견했다. 전부냐아니면전무냐, 그들은외쳤다. 신체적억제책은한심한기만, 안전확보없는타협, 생리에대한위반, 사랑에대한모욕이다. 그리고경제적중용과반대로사회주의는그유평아들을만들기시작했다.

① 푸리에의체계. 인위적혹은비만에의한불임.

과학이감히눈길을보내는영예를받지못한이체계는우선은아주충격적인선결문제요구의오류를내보여서이저자가그의농담을얼마나진지하게취급하는지를모른다먼저자쪽에서익살을부린다고민게할수있을것이다. 무엇을말하는것인가? 이점에서맬서스의제자인푸리에에따르면생존수단의상대적부족이빈곤을낳으므로그것을늘리라는것이다. 소비를두배로, 네배로하라고푸리에는대답한다. 이는과잉의다산성을면

IX. 절충적이고, 똑똑하지않고분간이안되는공동체

우리는이를처음부터말했다. 먼저감각에없었던것으로지각되는것은없다 (Nihil est in intellectu, quod prius non fuerit in sensu) 는그학파의원리에맞게소유권자의관행에서재발견되지않는것은사회주의적유평아에는아무것도없다. 사회주의는그자신에게고유한것을아무것도가지지않는다. 사회주의를구별해주고형성해주고사회주의를사회주의이게하는것, 이는사회주의가차용해온것의자의성과부조리다.

이처럼공동체는무엇인가? 이는개인적인성과창도성의흡수에까지밀어붙여진국가의경제관념이다. 그런데공산주의는국가의본성과방향을이해하지도못했다. 체면을차리기위해이범주를점령하는공산주의는이관념에대해그반동적인면만을파악했다. 경찰조직을산업조직의전형으로간주해그무능력함을드러냈다. 국가는그고용자들의서비스를주권적으로처분하면서그대가로이들을먹이고, 재우고, 연금을준다고말해진다. 그러므로국가는농업과공업을실행할수도있고모든노동자를부양하고연금을줄수있다. 사회주의는정치경제학보다천배는더무식해서국가에노동의다른범주들을다시들어가게하면서이것만으로도생산자들을비생산자들로전환한다는것을알지못했다. 사회주의는공공서비스가바로공공적이거나국가에의해실행되기때문에그값어치보다훨씬비용이더든다는것, 사회의경향은그수를끊임없이줄이는것이여야한다는것, 개인의자유를국가에종속시키기는커녕개인의자유에종속시킬필요가있는것이국가이고공동체라는것을이해하지못한다.

사회주의는그모든흉내에서마찬가지로진행했다. 가족은사회주의에서사랑과헌신에근거한공동체의전형을제공했다. 곧바로사회주의는공업과농업처럼가족을국가에 옮겨놓기를서둘렀다. 그리고가족들의구별은독점들의구별이독점공동체에자리를내준것처럼가족공동체에자리를내주었다.

사회주의가가족을공유에흡수하기전에가족안에는무엇이있었나? 결혼, 양성의분리에의한사람의자신과의결합, 고독속의사회, 독백속의대화가있었다. 이는인간개성의절정이였다. 사회주의는그안에서자신의원리위반만을보았다. 야만인들의음탕함과위기에빠진문명안에만이빈번함을구실로가족을제거하고, 사랑의불가침성을짜짓기의면허로대체해모든것을치료했다.

사람의개성이사랑과노동안에이렇게억압된마당에, 노동의조직과생산물의분배로가는길은쉬워보였다.

노동을조직하고분배하는것, 그보다더쉬운것이무엇인가? 의문의여지없이노동의분업은약할대로약한정도로여러직업들을집단들의것으로만들어주고집단들내에서는개인들의것으로만들어준다는점에서반공反共이다. 또의문의여지없이공동체는그러한분배를피할수있다면더완벽할것이다. 그러나노동의전유의이폐단은생산물의소유포기에서사라질것이다. 아무도노동수단의보유를배타적으로취할수없고, 노동산물도, 그유통도, 그분배도그럴수없어서공동체는건재하며이때부터정부의할일이라고는가장많이생산하고가능한한적은비용으로생산하는것일뿐이다.

그러나노동분업의문제는단지가장많은액수의산물을실현하는데만있지않다고정치경제학이고찰했다. 이는또한노동자를위해신체적, 정신적혹은지적손해없이이양을실현하는것에도있다. 그런데노동자의지성은노동이더분화될수록그만큼더백치상태로쏟린다는것, 그리고거꾸로사람이더많은것들을자신의조합안에끌어안고실행의실증납과세부사항의주의는다른이들에게넘길수록그의이성은더욱강화되고그의천재성은높아지고지배하게된다는것이증명된다. 그러므로파편적분업의필요성과여러능력들의온전한발달을어떻게화해시킬까? 이는각시민에게권리요의무인발달이고, 모두에게평등한조건이지만개성을고양함으로써공산주의의죽음인발달이다.

이점에서사회주의는경멸받을팔이만큼초라한논리가라하는것이드러났다. 파편적분업에서사회주의는조각들위에조각들을, 절편切片에절편을, 무미건조한일에소란스러움을가해장면들의절단을추가했다. 사회주의는노동자들모두가일반화와중합을하는자들이되기를갈망하는것은원하지않는다. 이런구분은특권화된본성을가진자들을위해남겨둔다. 이들을때로는소유권자들과같은식으로착취자들로만들고 —“각자에게그의능력에따라, 각능력에는그공적에따라”— 때로는노예들을만든다. “처음온자는마지막에온자와같은것이고, 마지막에온자는처음온자와같은것이다.”사회주의는노동의분업이재산의진보와평등의수단인동시에지성의진보와평등의수단이라는것을몰랐다. 아니, 그보다는너무잘알았다. 이평등의무적희생을자유로운희생으로대체하므로사회주의는온힘을다해자신에게혐오스러운이평등을배척한다. 그리고때로는능력을파편적노동위에위치시키기도하고때로는이를그밑에내던지기도하는것은이때문이다. 플라톤에서처럼, 팔랑스테르에서처럼이카리아에서, 결국사회주의서적들어디에서나학문과예술은특산물과동업조합처럼취급받는다. 어디서도이것들이교육이모든사람에게서발달시켜야할능력들로나타나는것을보지못한다. 친애하는빌가르델, 그대는사회주의를책에서와마찬가지로그사람들에서안다. 진실을증언해달라. 사회주의는지력知力의평등을믿는가? 헌신을요구하는사회주의는조건평등을원하는가? 나는교조적사회주의를말하는것인데, 사회주

했갈리게감지되지만생생하게느껴지는멜서스이론의모순들은총체적흥분을야기했다. 반대자들의동기는언제나현명하지않았으며, 우리가보게될것처럼훨씬덜수했다. 그러나정치경제학은인구원리가폐지해야했던파렴치한일들, 그리고그반대로그재발을촉발했던것들의연대성을결국받아들이는만큼더욱이이론에대해서밖에불평할것이없었다.

멜서스말고모든사람이예견할불가피한이행에의해, 도덕적억제수단은가장결연한멜서스주의자들의펜끝과의도에서지체없이쾌락에별로무겁지않은, 기껏해야수치심에만걱정을끼칠수있을순수하게신체적인억제수단이되었다. 이와관련해서멜서스의마지막편집자는이렇게말한다. “빈곤(인구라고읽어라) 을예방하는절제의이다양성은생리(쾌락이라고읽어라) 의법칙들을무시하지않을경우에부도덕하다는것이증명되지않는다.”그영예로운작가가그의학설의이런해석에언제나항의했음에도, 사랑의문제에서는꾸밈이없는공중이멜서스의이론을이해한것은이런의미에서다.

실제로도덕이무엇이냐고, 부도덕이무엇이냐고, 혼자있을때는도덕적인것이입맞춤에서는어떻게부도덕한것이냐고그에게말할수있겠다. 철학자들의언어는사람을몸과영혼의이중적인추상으로만들었지만사람은하나다. 그러니그가정신적으로출산을삼가든지아니면신체적으로출산을삼가든지, 삼감이있다는조건에서는, 특히삼감이제때에일어난다는조건에서는무슨상관인가? 당신이무엇을하든정신은언제나신체에있고, 신체는언제나정신에있다. 이모든것에있는유일한것이핵심이다. 이는자녀를안만드는것이다. “너는많은일을염려하고걱정하는구나. 그러나필요한것은한가지뿐이다.(Turbaris erga plurima, porro unum est necessarium)!”

도덕적억제, 신체적억제. 그러므로이것이야말로극빈층의원인들에관해, 그리고그치유책에관해 19 세기에경제학자들의과학이, 절충론자들의도덕이, 그리고이신중한대학인들의철학이우리에게말할줄알았던것전부다. 그중로올라(Loyola) 라는하나의이름이종교계를웅성거리게하고, 덕있는사람들의낯을붉힌다! 사제들의독신, 그리스도교적처녀성을조롱하고이것들을자연과도덕에대한모욕이라고비난한후더이상감히결혼을권장하지도, 금욕을권고하지도못하는이위선자들은연인과부부에게도덕적억제를설파한다! 그리고그들은예수회원들을맹렬히비난한다! 산체스(Sanchez), 레모스(Lémos), 에스코바르(Escobar), 부젠바움(Busenbaum) 그리고그대, 축복받은리구오리(Liguori)여, 탄압하고벌하기위해서만악을아는자들이여, 물러가라. 정치경제학은너희모두를지워버린다. 옛날에우리의그리스도교교부들은그들의거처에서축복받은나뭇가지들을써서성상앞에서화재, 우박, 흉작, 집단사망을경계해지극히높은자의자비를구했다. 나는어린시절이가족기도문

계내로 제한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혼을 서른살이나 마흔살까지 연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맬서스가 그의 순진한 영혼으로 인구와 그 범람에 대해 더 유익하고 더 철학적이고 더 도덕적인 것으로 상상한 것이다. 사랑의 억제, 가슴의 기근이 그에 의해 위뿔의 기근에 대체되었다. 이는 그의 순결한 언어로 그가 물리친 살인이나 외설 등 신체적 억제의 모든 형태들에 대해 더 도덕적 억제라고 부른 것이다.

맬서스의 관념들은 장바티스트 세, 로시, 드로즈 등 경제학자들 중 가장 저명한 이들에게, 그리고 난점에 대한 출구를 발견하지는 못하면서도 쾌락의 황홀감보다 금욕의 영웅적 행위를 더 높은 곳에 위치시킨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보여줄 것처럼, 맬서스의 이론이 그 이론을 사람들이 이 이래로 제안한 모든 것보다 우월하게 해주는 위대하고 고상한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특히 이 이론이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그의 거대하고 중대한 결함은 억제 수단 *contrainte* 이다. 이 이름만으로도 벌써 모순이 튀어나온다. 자연은 사람에게 하나를 하도록 자극한다. 사회는 그에 다른 것을 명령한다. 내가 사랑에 굴복하면 나는 빈곤으로 위협을 받고, 내가 사랑에 저항하면 나는 그에 못지않게 비참하다. 차이라고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차이이다. 내가 어느 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침통함과 고뇌만 발견하게 된다. 이런 것이 균형인가?

다른 한편, 맬서스가 제안하는 치유책은 모름지기 섭리에 대한 고발, 자연에 대한 불신의 행위인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교 경제학자들이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은 것에 놀란다. 왜냐하면 여기서 종교와 사회가 배척하는 비합법적 쾌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락된 결함도 문제가 된다. 무슨 말인가? 모든 도덕가들이 좋은 도덕관념의 가장 확실한 보장책으로 간주하는 것, 젊은 이들의 결혼에 관한 문제다. 이제부터 맬서스의 이론을 가지고서는 결혼은 과년한 처녀들과 늙은 호색한들을 위해서만 행해질 뿐이다. 이런 따분한 결혼식으로 그것이 거의 꺼져갈 때에만 그 연정에 귀기울이는 것이 허락된다면 사랑의 부드러운 화살을 스무살에 느끼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리고 그렇게 슬픈 결과를 위해 인간의 사려분별로 신의 작품들을 교정할 필요성을 원리로 제시하는 이론이 무슨 이론인가!

끝으로 맬서스의 치유책은 실행 불가능하고 무력하다. 한편으로 인생의 시기들을 옮길 수 있다는 희망, 젊은이가 활기를 잃고 노인이 회춘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진지하게 가질 수 없으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 체제에서 맬서스의 이론은 직접 결혼을 재산 소유자의 특권으로만 들게 유도하니 사실상, 권리상으로는 실행 불가능하다. ... 빈곤이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인구의 과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고 독점의 징수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체제와 같은 체제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트림 없이 생겨날 것이니 무능하다. 이 연명에 대한 증명은 이 책의 면마다 발견된다. 이를 재론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의에서 그대는 허영심과 우둔함 말고 다른 것을 마주쳤는가? 내가 욕을 하는 것인 지 말해 보라.

그렇지만 사회주의는 하나의 발견을 했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작업의 발견이다.

정치경제학은 세상에 관찰과 경험의 과학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그 첫마디로 노동의 신성함을 선포했다. 종교들의 권위에 반대해 정치경제학은 노동이 결코 신의 저주가 아니며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랑, 놀이, 공부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세, 데스튀트드트라시, 조지프 드로즈 (Joseph Droz), 애덤스미스 등의 저작은 이런 관념으로 차있다. 정치경제학은 노동을 편들고 북아프리카 나라들의 타성과 유태의 신화에 반대하는 철학 사상의 항거다. 사회와 사람에게 필요한 노동이 정신과 신체를 강화하며 도덕관념과 건강의 수호자이고, 부의 생산자이고, 진보의 원리이며 인간 활동의 발현으로서 그 자체로는 주관적인 면에서는 *à parte subjecti* 아무런 괴로운 점을 가지지 않으며, 때로 피로와 실증을 수반하게 되는 입장이라도 이는 오로지 노동이 적용되는 사물의 질에서, 물적 측면에서 *à parte rei*, 혹은 실행에서의 절도의 결핍에서 나온다. 이것은 거기서 따라 나오며, 경제학자들은 이를 아주 잘 감지했다. 파편적 분업과 그 결과인 행위의 일률성은 경제학자들에게 해야 주 열띠게 지적된 것으로서 지겨운 것이 된 노동의 아주 잘 알려진 예들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했는가? 노동의 소재가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것을 제거하거나 덜고 신체와 정신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실무를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는 대신에 사회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작업을 발명했다.

우선, 노동은 사회주의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극단적 분할로 더 즐겁고 더 쉽게 되어 음악, 노래, 정중한 대화, 낭송, 장면들의 짧은 지속시간, 동작의 연속과 시합에 의해 지속적인 추제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러한 것은 카베씨가 카리아에 세운 체제로서 그는 이 점에서 플라톤, 캄파넬라, 매블리, 모델리, 푸리에 등 모든 위대한 스승들과 의견이 일치한다. 사회주의는 자신의 바보들을 경이롭게도 알아서 이들에게 온갖 여흥을 마련해준다. 자정에 신부의 창 밑에서 악기 연주로 신부의 잠든 감각을 깨울 때 세레나데를 부르는 자들이 사랑을 대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는 노동을 대한다. 이런 다양한 즐길 거리에 「프라테르니테」 1845년 1월호는 노동에 따르는 고령 사향과 상호 감시를 더한 것을 덧붙인다. 사회주의는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주의가 노역을 단축시키고, 줄이고, 변화시키고, 양념을 치고, 맛을 내고 끝으로 견책과 위반시 징역의 형벌로 무화하는 것은 매력적인 노역이라는 이 이상에도 달하는 데서 처하는 불가능성 때문임이 명확하다! 매력적인 노동의 발명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천재들인가!

하지만, 친애하는 선생님들이여, 바로 여러분이 모방의 기질이 아주 강하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세상만큼 오래된 것에

유의하라. 노동은노동이그한형태인사랑과마찬가지로그안에매력이있다는것, 다양함도, 짧은연속잡업도, 음악도담소도, 행진도부드러운말도, 경쟁관계도, 경찰도필요치않으며단지자유와지성이필요할뿐이라는것, 그것이요하는생명과정신의배출로우리의관심을끌고, 우리를기쁘게하고, 우리가열정을갖게한다는것, 그리고노동의가장큰적이오락이듯이노동의가장강한보조물은수확이라는것이다. 게으름의권장생활의수립을위해서라면우리각자를위한노동의총량이줄어들기는커녕끊임없이늘어나는것이라고발표하라. 끝으로결혼에의해서처럼노동에의해서사람의개성은끊임없이그최고의기력과독립성을띠게된다고알려라. 이는공산주의의마지막개연성을제거하는것이다. 이모든진리는경제학의 A, B, C 이고, 노동의순수철학이고, 사람의자연사自然史에서가장잘입증된부분이다.

사회주의는헌신, 우애, 공동체, 매력있는노동의그유평아들을가지고서도, 여전히자기가과파한다고자부하면서도끊임없이모방하는소유권자의적대관계에얼마나못미치는가!

사회주의는이를제대로파악하자면악의공동체이고, 개인의잘못들을사회에전가하는것이고, 각자의모든규정위반들간의연대성이다. 반대로소유권은그지향하는바가재화의교환적정의이며, 악이개인에게서나오는한에서악의비연대성이다. 이관점에서소유권은정의지향, 사람들이공동체에서는만나기어려운이것에의해구분된다. 활동과타성을서로연대를맺지않게하고, 개인적책임, 사회법칙의지고의강제이행수단을창조하고도덕관념의신중함, 공익에대한열정, 의무에대한복종, 서로간의존중과신뢰, 이웃에대한사심없는사랑을수립하기위해, 이모든것을보장하기위해, 돈, 불평등과정복의상징인이추악한돈이공산주의적인모든준비와처방약물보다백배나효율적이고, 청렴하고확실한수단이다.

우화작가가언어에대해말하듯이연설가들은돈에대해말했다. 그들은사회의모든선과모든악을동시에돈덕분인것으로말했다. 도시들을건설하고, 전투에서이기고, 상업을행하고, 여러재능들을장려하고, 노동에급료를주고사회의여러계정들을변제하는것은돈이라고어떤이들이말했다. 우리의모든악의효모, 우리의모든배반의원리, 우리의모든비열함의비밀인것이돈, 돈에대한집착, 빌어먹을돈에대한탐욕 auri sacra fames 이라고다른이들이대꾸했다. 이찬사와비난이참이라면, 화폐의발명, 시스몽디씨에따르면가장놀라운발명이고내건해로는경제적천재가만든가장다행스러운발명인것은분석에모순을제기할것이다. 결과적으로이는기각되고더도덕적이고더참된상위개념으로대체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그렇지않다. 귀금속, 척도재, 그리고은행권은그자체로는선의원인도악의원인도아니다. 진정한원인은가치의불확실성에있다. 가치의구성은우리에게는상징적으로돈안에서질서와행복의실현인

1 순위로는소유권자의사회에서, 그리고그해석자인멜서스에게서기근, 페스트, 전쟁이소유권의고귀한작업의집행자들등장한다. 그리스도교인과무신론자, 경제학자와박애주의자들얼마나많은사람들이오늘날에도그런것이실제로인구의자연적배출구라는것을확신하는가! 그들은체념하면서우명의요약적정의를받아들이며, 그들을치는손을침묵으로찬양한다. 이는이기심의논리들을그무기력함으로지지하는이성의정적주의다.

그렇기는해도그러한원인들때문에창출된균형은심각한비정상상태를사회안에드러낸다는것이명백하다. 그러나이는바로우리의관심을끄는지점이다. 기근, 전쟁, 페스트는정상적, 자연적이고섭리적인균형의원인들로서어떤점에서, 왜, 어떻게이성에받아들여질수없는가? 우리와함께의관상아주명확한것들에관해잠시성찰해보아야한다. 우리가우리차례에서만들어내야할이론의확실성이이에달려있다.

사회가조직된존재라는것이참이라면, 그안에서생명이어떠한추진력이나외적반발력의도움없이여러기관器官들의자유롭고조화로운작동에서나오는것이맞다면, 결과적으로식량부족, 전염병, 학살등인구를가끔씩급감시키는것들은균형의수단이기는커녕반대로내적부조화, 경제의교란의징후들인것이다. 기근과막힘은소비와다혈증이인체에대해서의미하는것을사회에대해서의미하며멜서스가이현상들을특징짓기위해사용한장애물들이라는용어는그가유기체, 경제그리고체계인것에대해가지는관념이얼마나잘못된것인지를보여준다.

그런데, 기근과다른자연의탄압수단이라고하는것들에관해우리가말하는것은인간이이과파작업에서섭리룰도우려고노력하는모든유사한수단들에적용되어야한다. 고대의모든인민들이활용하고여러철학자들이권장한영아유기, 옛날종교와도덕관념에의해성별되고아직도동방에서, 그리고모든야만인들에게서지배적인낙태와거세같은것들이다. 이런관습들은그들에게모범으로소용된듯한재앙과똑같이경제적무정부상태의증거들일뿐이다. 상식과논리는거기서영원한경찰의수단들, 균형수단들을보기를싫어한다.

이런원리들이확인되었으니최근시대에인구의과잉과식량의부족에맞서상상된다양한보험체제들의장점을알아보고, 이에따라더정확한방식으로우리가찾는법칙의특정성격을정하는것은쉬운일이다.

나는멜서스부터시작한다.

멜서스는그에따르면인구의과잉을예방하고억제하는자연적원인들을분석하고, 이모든수단들, 어떤것들은잔혹하고어떤것들은부도덕한이수단들중에어떤것도섭리의탓으로돌려질수없고, 이성으로써받아들여질수도없음을발견하고서자연의이무능함혹은이상상할수없는폭력에불복해인간의자유지예항소했다. 그는인류가스스로에게섭리로쓰이는것이우리인류의운명인것처럼존엄이라고, 자신의출산을정당한한

III. 인구균형의원리

I

인구문제는 그것만으로 책두권이 필요할 것이다. 공간이 부족하며 독자를 속이지 않고서는 해결을 더미룰 수도 없다. 그러므로 책 대신에 여기서 하나의 강령만 제시해야 한다면, 그리고 이 빈약한 시론 試論이 더욱 변적인 것에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진실한 개혁자인 나는 내가 진리를 차지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나는 제자들이 아니라 조력자들을 구한다.

인구문제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사람들과 생존수단 사이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해결은 의심스러운 것일 수 없었다. 이는 죽음이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per fas et nefas) 죽이거나 태어나지 못하게 막는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삶든 맬서스 이론이 도달해야 할 곳이다. 이야말로 여러 민족들의 실천이어야 할 것으로서, 빈곤에 맞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권고되는 해독제다. 소유권과 과단의 원칙에 충실하게 정치경제학은 소유권과 권위에 기초를 둔 모든 입법처럼 끝내야 했다. 헌장을 내놓고, 법전, 전례법규, 공식들을 펼쳐 보여주고 난 후에 남은 일은 그 강제 이행수단을 찾아내는 것이었으며, 이 강제 이행수단을 정치경제학은 힘에서 구했다. 맬서스의 이론은 정치경제학의 형법전이다.

반대로 진정한 경제학인 사회경제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모든 유기체는 자신 안에서 균형을 찾아내야 하며, 그 요소들의 무정부 상태에 맞서 예방책이나 억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친다. “당신의 모순들을 풀어라. 가치들의 비율을 확립하라. 교환법칙, 정의 자체인 이 법칙을 찾아라. 그러면 우선 당신은 복리를, 그리고 이 복리에 있어서 상위의 법칙, 지구와 인류의 조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선 경제적 자의성으로부터 인구문제에 관해 어떻게 도덕의 타락이나 오는지를 보여주자.

가치들 사이에 비례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의 조직도, 분배의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로부터 정의는 하나의 말이고, 평등은 괴물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은 그 실재가 결코 이승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낙원의 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이 잘못된 자료에 의해 부에서의 진보는 언제나 인구의 진보에 뒤처진 채로 있다고 주장하도록 유도된 정치경제학은 사랑에서의 사려분별, 결혼의 연기, 그리고 보조적인 모든 예방수단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자연 자체가 무서운 탄압으로 인간의 무분별을 보충해주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그렇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의 말로 자연이 우리를 위협한 이 탄압수단들은 무엇이었는가?

것으로 보이며, 가치의 불규칙적 진자 운동은 다른 산물들 안에서 모든 약탈과 빈곤의원리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해진 제 1의 가치물인 돈은 그러므로 모든 노동자를 위해 노동과 임금의 완벽한 보충수단을 탄생시킬 가치들의 일반적 구성의 날까지 선의 연대성과 악의 비연대성,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 책임과 정의의 가장 완벽한 기관으로 드러난다.

당신은 내가 내 형제들의 노동, 근면, 섬세함에 신뢰를 두기를 바란다. 경찰을 조직하고 상호적인, 게다가 해롭고 불가능한 염탐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 각자를 위해 행복이 오로지 노동에서 나와서 노동의 크기가 행복의 정확함 크기가 되고, 노동의 산물이 제 2의 양심처럼, 그리고 청렴한 양심처럼 되어서 그 증언이 사람의 각 행위를 그 공로와 과실에 따라 처벌하거나 보상하게 하라. 가치들을 비교하는 사다리나 표를 만들어서 예전의 진자 운동과 미래의 진자 운동을 한꺼번에 보여 주도록 해서 이를 통해 생산자가 언제나 과잉생산도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사업 운영을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 끝으로 모든 가치에 그것들 중 하나와 의 비교에서도 출된 공동의 표현을 제공해 이것이 모든 거래를 위한 척도로 쓰이게 하라. 그러한 조건에서 노동자는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가장 완벽한 독립성을 누리서 또한 가장 완벽한 보증을 제공하리라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그다음으로 자연의 장애가 촉구하는, 그리고 인류의 명예가 명령하는 모든 사전 대비와 자선수단을 취하도록 하라. 이는 권리가 거절한 것을 사랑으로 벌충하는 것뿐일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를 막으려고 애를 쓰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보충은 그 모든 도덕성, 따라서 그 가능성을 권리의 사전적인 정에서 풀어 낸다는 것, 정의 없이는, 네 것과 내 것의 정확한 정의 없이는 자선은 부당징수가 되고 우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돈의 지배는 정의와 우애의 기초인 가치들의 의미민주주의로 의 이행이다. 돈, 그리고 돈이 낳는 신용기관들은 산업적 가치물들을 척도재의 존엄성을 갖도록 높여서 범죄수치를 낮추었다. 돈과 신용기관들은 어디서나 판로를 열고 유통을 용이하게 하여 행을 축소했고, 안전보장과 함께 온정과 헌신을 증대했다.

왜 신은 사람 개인을 창조하는 대신 세상에 인류한 종을 가져다 놓았는가? 이 질문은 철학자가 어떤 견해를 갖든 그 철학자의 관심사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에 대답할 수 없다. 공산주의의 관점에서는 인류의 창조라는 것이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이카리아』의 저자는 로마가 톨릭 신앙에 대한 편견에서든 유럽 관습에 대한 존중에서든 페늘롱을 본받아 자기 공화국에서 일부 일처제를 보전했고, 다른 사항들에서 이에 의뢰를 보상받았다. 카베씨는 어디서나 부동성을 창조하고, 자생성과 환상을 내쫓는다. 여성용 모자 제조인의 기술, 보석세공인, 장식업자의 기술 등은 반공동체적이다. 카베씨는 지도자로서

복장의 불변성, 가구의 일률성, 동시에하는 체조, 공동식사 등등을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이카리아에는 왜이카르노 인 혹은 카베씨와 그의 아내 한 사람, 한쌍이상이 존재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같은 식으로 재단이 되고 옷을 입힌 꼭두각시들의 끝날 줄 모르는 이 반복이 무엇에 쓸데가 있는가? 인쇄업자들이 하는 식으로 여러 책을 찍어 내지 않으며, 같은 일을 되풀이 하면서 결코 동일한 것을 두 번 만들지 않는 자연은 진보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수천억의 다양한 개체들을 태어나게 하고, 이 무한한 다양성으로부터 자연에게는 유일한 주체인 사람이 생겨났다. 공산주의는 자연의 이 다양함에 한계를 부과한다. 자연에게 이렇게 영원한 존재가 대양에게 말하듯 말한다. 너는 여기까지 올 것이며, 더 멀리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 공동체의 인간은 일단 창조가 되면 영구적으로 창조된 것이다. ... 푸리에주의가 과학을 부동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식이 아닌가? 카베가 복장에 대해 행하는 것을 푸리에 진보에 대해 행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인류의 감사를 받을 만하냐?

더 확실하게 자신의 목적에도달하기 위해 이카리아인은 공공정신을 규제하고 새로운 관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이카리아에는 코뮌신문, 도신문, 나라신문이 있다. 이는 교회안에 교리문답, 복음서, 전례서가 있는 것과 같다. 생각할 자유, 이는 의회에 대해 제안할 권리다. 다수의 견해는 여론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의회들에서 이성인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성인 논박되지 않는다. 신문은 국가의 비용으로 인쇄되고 무료로 배포되어 의견들을 보도하고 소수파의 수를 알리며, 그 이유들을 분석한다. 그 후에 모든 것이 말해진다. 과학과 문학 책들은 제작되어 대표단에 의해 출판된다. 선전은 다른 누구의 몫도 아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공동체에 속하므로 아무도 자기 것을 가지지 않으며 허가되지 않은 책의 인쇄는 불가능하다. 달리 뭐라 말해야 할 것인가? 모든 선동적 관념은 그러므로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우리는 결코 언론의 위반 사항들을 보지 못한다. 이는 예방경찰의 이상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는 논리상 관념들의 불관용으로 인도된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달라! 관념들에 대한 불관용은 사람들에게 대한 불관용이다. 이는 배제이고, 소유권이다!

공동체, 이는 소유권이다! 이는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부인할 수 없다. 한번 살펴 보라.

뚜렷하지 못하고 퇴보적인 모든 편견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품는 편견은 독재다. 산업 독재, 상업 독재, 사회 생활과 사생활에서의 독재, 어디에서나 독재, 이런 것이 시나 이산위의 구름처럼 이카리아의 유토피아 위를 떠돈다. 사회 혁명을 카베씨는 제도들의 발달과 지성들의 협력의 가능한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관념은 그의 위대한 가슴에는 너무 형이상학적이다. 플라톤과 모든 계시자들에게 동의하고 푸리에, 아무것도 발견하게 남겨 두지 않은 사회 과학의 독재자인 이 사람에게 동의하고 끝으로 불량씨, 그리고 인민의 의사에 반해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 주고 권력에는 가

염려하라.”당신은 말한다. “인류는 이로써 일시적 위안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이를 당신에게 확인하는가? 노동에서 균형이 성립되어도 인구와 부에서의 인류 발전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벌써 사람들은 당신에게 섭리적 제도 안에서 생산이 인구보다 더 빠르게 행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기근에 눈물짓는 대신 당신이 당신의 논제를 위해 이 법칙을 이용하는 데 조금도 유념하지 않은 것은 놀랍다. 실제로 평등의 체제에서 노동은 사랑보다 더 빠르게 가서 당신은 약간의 일반화 뒤에 어떻게 토지가 산출물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거주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인지 질문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다. “신은 위대하고 섭리는 여러 조합을 만드는 데 능하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순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의 활동 영역이 우리의 능력과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 그러므로 당신의 통계를 교정한 후에 우리가 또한 당신의 논리들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와 같이 방금 인구를 위한 빵이 결핍될 것을 두려워한 경제학자가 이 측면에서는 안심하고 서속박장소 때문에 염려하려 고한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주에 한계가 있으니 인구에도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 25년마다 두 배가 된다면 다섯 세기가 못되어 지구상에는 1000억 명이 있게 될 것이다. 즉 일어서서 모두가 서로 몸이 닿게 땅을 채우게 되는 데 필요한 사람 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는 빈곤이 아닐 것인가? 아마 혈뺏음과 기근보다 더 견딜 수 없는 빈곤 말이다. ...”

경제학자여, 그대의 말을 제지한다. 그대가 제기해 온 문제는 확실히 철학자의 명상거리로 훌륭하지만 방금처럼 더 이상 인구와 생산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와 세상사이의 문제다. 나는 그대의 취학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더 멀리 나가기 전에 다음을 인정하자.

노동은 그 모든 기관 器官들을 종합하고 규율한 것으로 우리의 생존 수단을 언제나 우리의 필요보다 많은 양으로 배증할 능력, 따라서 인구의 증가가 얼마가 되든 우리의 행복을 끊임없이 증가시킬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

빈곤은 옛날야만 시대에는 게으름에서 나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명시에는 오로지, 경제적 대관계에서 나온다는 것.

이처럼 극빈층은 정규적인 사회에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며 풀어야 할 유일한 문제는 ‘인구와 지구사이의 균형 법칙은 무엇인가?’라는 것.

이 결론들, 그리고 이 결론들을 끝맺는 문제는 정치 경제학의 추락의 소위 所爲 爲다.

우리가 입증한 것은 오늘날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는 바로 맬서스가 생각지도 못한 것, 즉 조직된 사회 안에서 부와 생존 수단의 생산은 인구 자체보다 더 급속한 진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빈곤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맬서스처럼 분간할 수 없는 공식, 신화에만 다를 뿐인 동어반복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견해로는 극빈층의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인 소유권자의 일상관행을 정당화함으로써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모든 경제학자들, 영국, 프랑스, 그리스도교, 유물론, 절충론 경제학자들이 50년 전부터 그 찬양 자요 행상인이 되기를 기뻐했으므로 사람들은 산술급수의 맬서스식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를 침묵시킨다고 믿는가?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 적대자들의 마지막 논리를 듣지 못했다. 승리의 개가를 너무 서둘러 부르지 말자.

로시씨는 다시 일어나면서 말한다. “우리 제도들의 해악, 조건들의 과도한 불평등, 토양의 고갈될 수 없는 비옥성, 지구 표면에 남아 있는, 그리고 해외이주로 채울 수 있는 엄청난 빈 공간에 관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문제의 밑바닥에 닿지 못함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점들에 관해 가장 큰 양보를 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는 단지 하나 이상의 나라에서 고통과 불행의 다른 원인들이 가장들의 유죄가 되는 경솔함에 더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과도한 인구들이 흔히 더 나은 정부 아래서, 더 공평한 사회 조직 안에서, 더 활발하고 더 자유로운 상거래 안에서, 혹은 더 큰 해외이주 체제 속에서 일시적인 완화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산의 본능이 사려분별과 높고 어려운 도덕성에 의해 결코 고삐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수단들은 결국 고갈되리라는 것, 그러면 해악을 완화시킬 일시적 치료 수단도, 이를 누그러뜨릴 진통제도 더 이상 없는 만큼 해악이 더욱 현저하게 되리라는 것이 덜진실인가?”

모든 경제학자들은 로시씨의 이 생각으로 물려든다.

맬서스의 마지막 편집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 관찰을 중대한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어조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충고한다. 사회 상태를 완벽하게 할수록 맬서스의 주장을 뒤집지 않는다면 인구의 과잉은 더욱 두려워야 할 것이 된다.”

그러나 당신, 현명하게 군다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도움을 약속하는 당신은 그렇다면 당신의 격률을 실천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사회는 부조화를 이룬다. 당신이 해온 양보가 이를 가정한다. 우선 사회에 균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두려워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라. 당신은 완전히 가설적인 동향에 측에만 매달리며,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구가 지구상에 넘쳐나리라는 동향에 측이 제시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을 급감시키는 실질적인 악에서 눈을 돌린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현재를 치료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섭리에 대한 당신의 신앙이 결코 조롱이 아니라면 미래를 좀 덜

능한 한 최대의 창조력을 주기를 원하는 7월의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카베씨는, 어떤 인물, 영웅들, 메시아 그리고 이카리아인들의 대표의 자문, 의지, 고귀한 사명에 의한 개혁을 도래하게 한다. 카베씨는 대중선거에서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의회의 토론에서 새로운 법률이 태어나게하기를 삼간다. 이는 너무 완만한 수단이며,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하리라는 것이다. 그에겐 한 사람이 필요하다. 모든 개인적 지지를 제거한 후 그는 그의 지지를 하나의 지고의 개성에 집중한다. 이는 집단적 사고를 표현하는 것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처럼 하위의 모든 활동들을 솟아나게 한다. 이와 같이 관념의 단순한 발달에 의해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공동체의 이상은 절대주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핑계를 대기 위해 이 절대주의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논지시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떤 것이 단 한 순간 필요하다면 그것은 영구히 그렇게 될 것이니, 이행은 영구적이다.

공산주의는 유감스럽게도 소유권자의 일상관행을 빌려온 것으로서, 노동의 싫증, 삶의 권태, 사고의 제거, 자아의 죽음, 무의단언이다. 공산주의는 본성상으론 처럼 과학상으론 허무주의, 공유, 부동성, 밤, 침묵과 동의어다. 이는 실질의 반대이고, 창조자, 빛의 신이 그 위에 우주를 설계한 컴컴한 심연이다.

X. 공동체는 빈곤의 종교다

이 종교라는 말에, 그리고 각자에게 그에 합당한 평가를 해주기 위해 나는 여기서 종교적 견해의 문제에서는 『사회적 관념들의 역사 Historie des idées sociales』의 저자, 모렐리의 재건자, 캄파넬라의 번역자⁴보다 더 순수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 친애하는 빌가르델 그대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유와 더 적은 선입견을 가지고 신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의무로 간주한다. 공산주의가 그대에 대해서는 강한 정신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공산주의는 미신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되는가?

친애하는 빌가르델, 그대는 이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인데, 공동체는 진보하는 중이다. 즉 공동체의 시대가 멀어질수록 공동체를 상기하는 유토 피아주의자들은 끊임 없는 변경 사항들을 줌으로써 공동체가 다시 찾아오도록 노력한다. 경험이 소유권을 정죄함에 따라 소유권의 이론가들이 이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원만한 것으로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공산주의의 퇴보는 말하자면 이론에서만 지적된다. 소유권의 진보는 반대로 이론과 실천에서 모두 표현된다. 그러나 진보가 있으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변혁, 긍정적이고 종합적인 관념의 도래, 따라서 신화적 관념의 제거,

⁴ 빌가르델을 말함. 역자주

종교적신앙의폐지가있다. 이제일의특성상공동체안에서소유권에서처럼종교를인식하지않는것은불가능하다.

사실들이이합당한편견을뒤틀반침해준다.

종교성의질은안개는오늘날모든개혁주의자들의머리위에드리워진다. 이들이왕조지지자들과경제학자들처럼더잘보존하기위해서개혁을설파하든, 공산주의자들처럼모든것을되살리기위해서우선모든것을파괴하기를원하든말이다. 그대의친구카베는낙원과영원한천부天父에야유를보내면서, 그럼에도우애를천상의것이고신성한것이라고부르면서종교의본질로자랑한다. 그리고우리는그에게서우애가얼마나심오한비밀인지를보았다. 페코르씨는모든긍정적종교들(부정적종교란무엇인가?)을불경하다고선언하며자기의공동체를신의공화국 République de Dieu 이라칭한다. 우리는다음으로신新그리스도교인들과반反그리스도교인들을본다. 반그리스도교인들은르루씨에따르면생시몽주의자들과푸리에주의자들이다. 반반공산주의적민주주의는로베스피에르의고백, 신과영혼분별에집착한다. 중도파의선진적기관지인 「나시오날」은인민의영적이익에관해설교한다. 이는그잡지가정신이지극히없다는것을보여주는문제다. 경제학자들은신앙의품안으로도피한다. 이들을은멜서스주의이론의방향에서해석하고변경한다. 사법관들은프랑스적자유에대한그들의헌신을맹세하면서도비오 9 세의초자연적이고섭리적인선출에대해신에게감사를돌린다. 왕조적반대당과보수당과달사이에서드라마르틴씨는종교와신앙심만을호흡한다. 대학은자신의신조를말하고교회보다더신실함을자처한다. 심지어붉은남자가뵈리공원에다시출현해,

땅에입맞추고나서
예수회원의모자를놓는다
는말까지있다.

그러므로공동체는종교다. 하지만무슨종교인가?

철학에서공산주의는생각도하지않고추론도하지않는다. 논리, 변증법, 형이상학을싫어한다. 배우지도않고민는다. 사회경제학에서공산주의는수를헤아리지도, 계산하지도않는다. 조직을할줄도, 생산할줄도, 분배할줄도모른다. 노동은공산주의에는수상적이며, 정의는두려움을준다. 그스스로초라하고, 모든주문사항, 모든실현, 모든법칙과양립불가능하고, 자신의관념을가장낡은전통에서빌려오고, 모호하고, 신비적이고, 규정이불가능하고, 사치를증오해절제를설파하고, 자유를두려워해복종을, 선견지명이싫어서정적주의를설파해이어디서나결핍이고언제나결핍이다. 공동체는느슨하고무기력하게만들며, 발명이빈약하고, 실행력이빈약하고, 볼품이없어서공동체는빈곤의종교다.

내가사치라고명명해오고있는가? 정치경제학은이점에서아무런정확한것도내놓지않아서유토피아는아무것도취할것을지니지않았다. 그

런차이가나오는가? 핵심적이고주된원인이들있는데, 이는신경제학자들과사창박애주의자들의모든불평보다강한원인들이다. 그차이는노동자들의행실에서, 그리고인구와유동자본의비율에서나온다.”

로시씨, 내가선생에게정말로이말을하겠소. 선생에게는심장이없소. 선생은다른이들보다사려깊지도못하고용감하지도못하오. 선생은진정한원인들에는입을다무는군요.

노동자들을미혹한다고! 이는기조씨의과격파들을뒹뒹했다. 과학자들이여, 우리를가르치라. 그러면우리는미혹되지않을것이다. 하지만참된것말고아무것도말하지않도록하라. 당신들의얼버무림은당신들머리로떨어질것이기때문이다.

일꾼의행실은악하다고! 그럴수있다. 그리고이는아마도사람들이그를정당하게대우해주지않은데서나올것이다. 그리고정말로그가받는임금의크기가문제다. 그리고나서우리에게그의행실을말하라. 그러므로선생, 하루열네시간의노동이얼마의가치를가지는지를말해달라. 그리고선생이일꾼의노동에관해오류를범하는것을두려워한다면, 가슴에손을얹고선생은선생의노동을얼마로산정하는지말해달라. 우리는선생의수치를척도로삼을것이다.

유동자본은인구와무관하다! 소유권은자본이유통하는것을막는다. 실제로소비자가그스스로 4 에제공하던것을구입하는데 5 를지불해야한다면그것이어떻게유통될것인가?

“질서, 절약, 도덕성이결여된일꾼은빈곤의누더기를걸코떠나지못할것이다. 이에인구가 …라고덧붙여말하라.”결혼의사려분별에대한권고가이어진다.

늘꾸지람이고, 늘이어난한일꾼의행실탓이다! 그러니위선자는아직죽지않았다! 우리의후견인이우리의재물을취하는것은우리가무능하고형편없는강도들이기때문이다. 한량이노동자의육체노동의수고를먹어치우는것은그가살아가는법을가르쳐주기위한것이다! 그렇다면자비와절제의선교사들이여, 솔선수범하는것으로시작하라. 가자. 아들들은여집사를떠나고, 아버지들은하녀들과헤어지고, 결혼과성매매의연령은모든사람에게늦추어지도록엄격한형벌을만들라. 왕에서부터군속에까지모든종류의서비스에가격표를만들고, 돈의이자는정당한율로되돌리고토지의지대는모두에게배분되게하라! 그러면우리는경제학자들의천재성과선의를믿을것이다!

월리스 (Wallace), 콩도르세, 고드윈, 오언의공산주의적가설들에대답하면서, 그리고빈곤의직접적원인에관해그에게해명해줄수있는아무것도거기서찾아내지못해끊임없이자기의기하급수로되돌아와서정직한초조합에서다음과같이외쳤을때, 멜서스는진심이었다. “하지만어떻게공동체에서생산이인구수준을불잡을것인가? 태어나는것을막는장애물없이어떻게인류가굶주림으로죽지않을것인가?”

당신들은인구증가의이잠재력을사회주의를막는방패로삼는다! 그리고옛날사람들인우리가어려운과제, 그리고당신들이방치한과제, 애덤스미스, 리카도, 장바티스트세, 심지어앨서스같은이들의과제에다시착수해약탈적인원리를당신들앞에폭로할때, 우리가당신들에게인류는언제나빵과토지가모자라기전에습격을당한다는것을증명할때, 당신들면전에서우리가소유권자의횡령, 자본주의적허구, 상인의도둑질의메커니즘을전개할때, 당신들은아무것도보지않기위해눈을감고, 아무것도듣지않기위해귀를막고, 양심에굴복하지않기위해가슴을닫는다! 세기의악이당신들에게는가난한자의권리보다더소중하며당신들패거리의이익이과학의이익보다앞선다!

그러면좋다! 당신들이경솔함과인구를외치는한에서는우리쪽에서는위선과강도질이라고외칠것이다. 우리는당신들에게노동자들에게대한불신을지적해줄것이다. 그리고우리를살해하는착취와우리를더럽히는치욕에대해책임을져야할사람들은당신들, 오직당신들이다. 우리는어디서나천둥소리로그듯말할것이다. 정치경제학은빈곤의조직이며, 도둑질의사도들, 죽음의제공자들은경제학자들이라고.

오늘날모두에대해, 그리고모두에맞서, 논리에맞지않게, 그리고경험에맞지않게가치의불안정성, 생산물들의공측불가능성, 산업적힘들의균형상실을주장하는자는누구인가? 경제학자들이다. 분배의불평등, 교환의자의성, 경쟁의함정, 파편적노동의압제, 기계들의갑작스러운이행을옹호하는자는누구인가? 경제학자들이다. 비생산적질서의우세, 자유무역의거짓말, 신용의신비화, 소유권의남용행위를뒷받침하는자는누구인가? 경제학자들이다. 영국의사주를받아이무정부, 사기와강탈의체제를우주에적용하려고자유무역연맹을결성하는자는누구인가? 여전히경제학자들이다.

그리고완화와평화의언어를구사해감히다음과같이쓰는것은당신들이다.

“가장반대되는학파들이노동자들을미혹하려고음모를꾸민다고사람들이말하지않을까? 어떤이들은그들에게서더 나은미래에대한모든희망을빼앗아아이들을화나게하고, 다른이들은이들을유혹하는민을수없는이론들을이용해무질서로가도록자극한다. 끝으로더인간적이기도하고더현명하기도하면서노동자들에게괴상한권리에대해서도, 숙명적필연에대해서도말하지않는사람들이있다. 이사람들은그들에게온전한진실을감히말하지않거나말할줄을모른다!”

그러므로일단이진실을말하라. 그것이순전히당신들입에서나온다고.

“그렇다. 임금은최소한의필요를초과할수있다. 그렇다. 노동자에게절약이가능하다. 노동자가어떤제조업지구에서고생한다면, 노동자가명예로운안락가운데살아가는다른제조업지구들도있다. … 어디서이

리고카베씨는뜻밖의상황에서처했으며, 고르디우스의매듭을베는새로운알렉산드로스로서용감하게입장을취했다. 그는사치를금한다. 사치는절대안된다! 유행과폼치장을타도하자! 여성들은인공깃털을지닐것이다. 다이아몬드는우리장신구로대체될것이다. 부티나는양탄자, 고급가구는말과마차처럼국가에속할것이다. 이는질투심을일으키지않을것이다. 복장은일단모두에대해주권자의자문의견에의해규제될것이다. 스무개정도의모형에맞춘옷은허리모양을내고언제나맞는크기를보전하도록고무처럼탄력적일것이다. 고집과부패를위해창조된이영똥환상들에노동과공공재산을잃어버리는것이무엇에좋은가?

이처럼생각한것이피타고라스, 리쿠르고스, 플라톤, 제논, 디오게네스, 예수, 그리고에세네파, 영지주의자들과에비온파, 세네카, 모든교부들, 모든도덕가들, 트라피스트수도자들, 오언주의자들등이었다.

그렇지만이사치문제에대해사회주의전통은만장일치인채로있지않았다는것을말할필요가있다. 어떤이들은에피쿠로스주의자들처럼분열을일으켰다. 이들로부터생시몽주의자들, 육肉의복권의장본인들과푸리에주의자들, 사치와색욕의추종자들이모든양태, 종류와경우로 (in omni mode, genere et casu) 나왔다. 이들은전자의사람들이겸허함과중용을위해하겠다고 위협하는모든것을신입자들에게부, 사치, 호화로움, 쾌락, 웅장함측면에서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더나고매력있고더이득이되는전술을발견했다. 이분리는아무런놀랄것이없다. 이는모든취향을위해필요했으며, 이쪽이든저쪽이든아무것도무릅쓰지않았다. 신청자들은항상들어올것이다. 심지어비판을받는영예를얻은것을자랑할수있었으니그만큼세상은어리석다.

사치와관련해서금욕주의적사회주의건쾌락주의적사회주의건, 사회주의의오류는가치에대한잘못된관념에서나온다. 생산물의비례성법칙에따르면사치품은생산이마지막에이루어지고부부의구성에더미미한양으로들어가는물건들을가리키는데쓰이는순전히상대적인표현이다. 사회경제학의이초적관념에따르면, 사치를금지하기를원하는것만큼이를통상적이고쉽게만들라고말하는것도터무니없다. 한편으로가치들의계열을무시해신비화에도달하는것이며다른한편으로이계열을손상시켜이는빈곤을명하는것에해당하니말이다.

사치의적들을당황하게하는것으로서그변명자들이우애를저버리고가장완고한이기주의를표방함으로써만응답한것, 이는분배가행해질방식이다. 모든사람이평등하고자기것을아무것도가질수없는사회에서다이아몬드의치장, 진주팔찌는분할될수없어서그소유권자를위해새로운특권, 일종의귀족계층을창조하는물건일것이다. 그런데우리가보석들에대해말하는것을다른천가지것들에대해말할수있다. 사치품은희소성을원리로삼음에도불구하고무한히다양하다. 그러한남용을공동체안에서용인할수단은? 그리고지금나는여러분에게이를묻는다. 공동체의어

리석음을 비웃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이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이 카리아인들의 체제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입장에서 벗어나겠는가? 여성들의 애교, 젊은 이들의 환심을 사려는 언동, 모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쾌락에 대한 절제되지 않은 욕망, 이미 소유권이 있지 않다면 만족되기 위해 소유권을 필요로 하는 이 욕망을 생각해 보라. 확실히 이 아몬드가 유리알들보다 더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선한 이 카리아인은 이를 아무에게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희귀하고 어려운 하찮은 것들이 자기 주장과 질투, 불화의 얼마나 무진장한 주제인가! 여러분은 그분 배를 침체에 방치하는가? 이는 필수를 조장하는 것이다. 자극을 받은 모든 부분의 보석상, 금은세공인, 여성용 모자 제조인, 사치품과 퇴폐적인 물품을 만드는 장인들이 곧 반공 조합을 결성할 것이다. 안녕의 유일한 수단은 금이다. 부정한 비빌론의 부는 불길에 던져지거나 공화국의 행렬에 쓰도록 물수될 것이다.

그렇지만 공경에서 벗어날 쉽고 단순한 한 가지 수단이 있었다. 이는 자연에 (내다 버려) 분배하는 대신 등가에 의한 분배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각 노동자가 자기 산물을 양도하고 ... 의 물표를, 그에게서 상품으로 받아진 가치만큼을 그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수단에 의해 자기 소비의 유일한 심판자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출은 취향에 따라 달라져서 사치품의 분배는 저절로 아무런 질투도 일으키지 않고 행해진다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값이 지불되고 누구에게도 선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행이 어느 물건에 달라붙으면, 곧 가격 인상이 뒤따른다. 그리고 사회가 이 물건에 세금을 매겨, 사치품은 경제의 원소가 된다. 포도농산물 및 공산품에 관련해서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허가세, 직접세, 유통세와 매출세의 정신이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가까이 서들여 다 볼 때에는 사회에 균형으로 향하는 경향, 언제나 공산주의적 관성과 소유권자의 무정부성에 의해 반대를 받고 질식을 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유감스럽게도 화폐가 태곳적부터 아주 인기 있게 만들어 준 이 분배 체제에 공동체는 카토처럼 자기 자신의 손으로 찢어지지 않고서는 의존할 수 없다. 일체의 가치 척도는 개성의 순수한 표현이고 전유의 공식적 선언이다. 화폐는 공산주의의 사망진단서다. ...

공동체는 빈곤의 종교다. 유토피아주의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소리 높여 가르친다.

로시씨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정치경제학강의』에서 노동자들의 각가정이 어떻게 상호 보조와 공동 지출의 공평한 체제로 자신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바로 연합과 동료 관계의 정신에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이 한계 (궁핍의 한계) 안에서 종교적 공동체들과 수도원들의 예는 제한하기가 아주 좋다. 왜냐하면 고립은 지출할 것을 별로 가지지 않은 자들, 전투자를 할 수 없는 자들, 도매로, 유익한 때에 공급물자를 구입하고 가정 경제에 많은 배려와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자들에게는 치

하는 체질적이고 만성적인 빈곤을 증언한다. 확실히 여기에는 호기심을 활발하게 자극하면서 맬서스의 원리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 빈곤은 수단이 없는 개인들에 닥쳐서 살아 있는 사람 수에서 가난한 자들을 빼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종의 집단에 영향을 주고 연대적인 고생을 통해 그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인류가 미지의 악, 생존 수단의 부족보다 더 높은 데서 오는 악으로 죽는다는 것을 한번 더 말해주는 증거다. 우리에게 악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해 줄 텐가?

사람들은 이 사실에 평균 수명의 연장을 대치시킨다. 능숙한 통계학자들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인민에 관해서 이 수명 연장이 가지는 환각적인 점을 보여주었다. 나는 두 건의 관찰을 조사시키고 설명하는 한 마디 말만 덧붙일 것이다. 내가 주장하듯이 우리의 소유권 조직에서 극빈층이 계속해서 노동보다 앞서 생겨나는 것이 참이라면, 이미 리 생겨남이 갑작스러운, 때 이른 죽음에 의해 발현되든 아니면 단지 때 이른, 그리고 오랫동안 안 겪는 고뇌에 의해 발현되든 상관없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평균 수명의 수치가 유지되고 심지어 올라가면서도 빈곤이 향상 커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는 자들이 병 없이 산 시간보다 그들의 나이는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제학자들에게 그들의 통계를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한가?

더 많은 증거들을 축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깨알려져 있다. 각자는 이를 질문하고 거기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다. 빈곤이 시기상으로 앞서서서, 이야말로 야만 상태를 가르쳐 주는 모습인 것처럼 소유권 체제를 가르쳐 주는 모습이며, 내가 맬서스에게 들이 대고 그의 이론을 허무한 것으로 만드는 중대하고 보편적인 사실이다.

압도적인 다수의 사실들에 의해 확증된 과학의 자료들에 따르면, 인구는 그 비율이 2 인기하 급수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 반면에, 이 인구의 작업 인부의 생산은 그 비율이 4 인기하 급수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비율은 뒤집힌다. 인구의 증가 잠재력은 1, 2, 4, 8, 16, 32, 64... 의 기하 급수에 의해 변함 없이 표현되는 반면, 생산의 증가 잠재력은 1, 2, 3, 4, 5, 6, 7... 의 산술적 계열로만 표현된다.

그러면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이여, 당신들은 감히 우리에게 빈곤을 말한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당신들 자신의 이론의 도움을 받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면 생산은 네 배로 늘어난다는 것, 따라서 빈곤층은 사회 경제의 교란에서 만생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때, 당신들은 대담대신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 인구가 생산을 초과함을 비난한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빈곤을 말한다! 그리고 당신들에 따르면 인구의 초과가 극빈층을 정해 준다고 하지만 극빈층이 인구보다 훨씬 더 빠른 급수로 증가하는 것, 따라서 저 아래에 당신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비밀의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들의 통계를 손에 들고 보여 줄 때, 당신들은 모르는 체하고 맬서스의 이론을 끊임 없이 앞세운다!

자살

범죄와경범은자살, 질병, 신경의무더짐과마찬가지로빈곤이흘러가는문들이다. 공식수치에따르면, 인구의평균증가는 1000 분의 5 인데, 범죄의증가는총계가 31.2 여서극빈층은우리에게멜서스이론에따라우리가기다릴여지를가진것보다 6 과 4 분의 1 배빠르게도달하는결과가된다. 이불비례는무엇에관련되는가?

같은것이다른방식으로증명된다. 일반적으로여러민족이극빈층의사다리에서부의사다리에서와같은순위를차지한다. 영국에서는다섯명에한사람이궁핍한자다. 벨기에의북데파르트망에서는여섯명에한명이그렇다. 프랑스에서는아홉명에한명이다. 에스파냐와이탈리아에서는서른명에한명이다. 터키에서는천명에한명이다. 러시아에서는백명에한명이다. 아일랜드와북아메리카는피차예외적이고상반되는입장에처해있는데, 전자는두명에한명이상인놀라운비율이고, 후자는천명에한명그리고그미만도될수있는비율이다. 이처럼정치경제학이규칙적으로작동하는밀집한인구를가진모든나라에서빈곤은전적으로소유권의해노동계급에야기된적자로서이루어진다.

1789 년이전에보호소에서발견되고부양되는자녀들의수는 40,000 명이였다.

1800 년에는 51,000 명으로상승했다.

1815 년에는 67,966 명으로상승했다.

1819 년에는 99,346 명으로상승했다.

1834 년에는 129,699 명으로상승했다.

나는 1846 년의수치가얼마인지모른다. 이해의 「주르날데제코노미스트」 는연평균사생아수를 75,870 명으로보도한다. 이로부터위의급수에따라현재보호소에서부양되는사생아수는 16 만명보다적지않다는결론을내리는것이허락된다. 1789 년에서 1846 년까지인구는반도늘지않았다. 반면에부는다섯배늘었고, 도덕관념도개선되었다. 그리고사생아수는네배늘었다! 무엇을말해야하는가? 매년가족에대한권리, 혼인권 jus connubii 이박탈된소년, 소녀가 32 만명있고, 인구가정체한상태로있는가운데소유권의침략행위들은한눈에보아도프로레타리아트를키운다는것이다.

나는다른데서 (제 4 장) 경제학자들이관찰한평균신장의감소를언급했다. 의심되는것으로물리칠수없는이사실은노동을중단시키고생존수단을사라지게하는흥작에따라갑자기생겨나는것과같은우발적인빈곤이아니라중전체에다치고사회라는몸의모든지체들을심각하게공격

명적이기때문이다. 가난한자들에게는살림살이단위들의수를늘리는것은바보짓이다. 그리고아내와자녀를가진남자들에게는적당하지않고, 가족정신을파괴하는경향을떨절대공유의삶을꿈꾸는일없이부분적공동체, 구매, 조달, 난방, 식사, 상호부조의공동체가있으며, 이는아무런불가능한것도, 부도덕한것도없고그조합에의해노동자계급들의이해력을넘어서지도않는공동체다. 그공동체들이체계를만드는사람들의공상에귀를기울이는대신그들의공정성과자연적감각만을참조한다면이사실적질서안에서이미실현된실험들을어렵지않게배가시키고확장할수있을것이다. 이는결코소음을내지않으며, 광휘를발하지않고완수되기위해사회의회를멈추는여호수아도필요로하지않는다. 그러나이는또한중죄재판소로도, 사랑통정신병원으로도인도하지않는길들이다. 다소간에그들의노동도, 그들의생활전체도, 사람에게서더개인적인것과가족에게서더내밀한일도공동의일로두기위해서가아니라그들의이익, 지출, 소비, 물질적이고외적인가정생활의일부를상호부조의목적에서공유로두기위한다섯, 여섯, 열가족의자발적이고일시적인조합들은노동자들에게행복의수단일뿐아니라교육과도덕성의수단일것이다.”

그대는들었는가? 공동체는일반비용절감이론의적용으로서빈곤의한계안에서만인정이가능하며, 가난한자에게만좋다. 또한거기에는노동도, 생활전체도, 가족도, 자유도, 이익도두어서는안되고단지지출의일부만두어야한다. 그러나일단저축에의해형편이나아지고나서는공동체를피하라고그는그대에게말한다. 공동체는프로레타리아트의형태라는것이다.

그렇다. 로시씨, 당신은가난한자들에게특정한지출들을공동으로하는것을권장하면서, 비용절감의원리가절약의강력한수단이라면이는같은정도로빈곤의틀림없는수단이라는뜻으로말할때좋은말을하는것이다. 실제로이이론, 물건들의가격을무한히절감하는이기술은공동체의체계에서는소유권의체계에서처럼부의부정자체말고다른것이아니라는것을누가모르는가?

사회가비용절감에서구하는것은불모의축적동기에의해서가아닌새로운창조를위한, 즉언제나더큰생산과소비를위한원가절약이다. 반대로소유권은그배타적이고질투하는지배를무한히확장하고자주위에사막과공허를창조할수단밖에보지못한다. 이는순생산과총생산의구분을일으킨것으로, 전자는이익, 즉소유권적배제를표현한다. 후자는집단적행복을가리킨다. 이처럼시스몽디가주한심스러운그림을그린, 30 만 ~40 만명의주민을먹여살릴수있을로마근교농지 agro romano 소유권자들은그땅을경작하기보다는목초지로놔두는것이자기들에게더이익이됨을발견했다. 산업인들처럼그들의이익은일꾼들을두지않는데있다. 그들은‘가능한한많은것을가능한한많은수의사람들이생산하고소비하게하기’를문제로삼지않는다. 이것이정말로경제문제다. 그들은다

음의반사회적격률을규칙으로삼는다. ‘가능한한큰순생산을실현한다. 즉, 그들주위에노동과임금을제거한다.’

공동체는공동체를구별해주는열광적태도로이소유권자의일상관행을자기것으로만들어정확하게소유권처럼추론한다. 비용절감의이론에서모든사람을위한노동을줄일수단만을보며, 그러한감축이한계가없을 것이며, 필연적으로무위, 절대적공핍에도달할것임을감지하지못한다.

합승마차는확실히완전히공산주의적취향에따른경제적인차량이다. 각가족에게말과 1 두 2 료마차를줄정도로부유한사회를가정하자. 합승마차의존재이유는무엇일것이며, 그것의경제는무엇을의미할것인가? 그것의상대적인쓸모에도불구하고개별마차를대체한합승마차는부의진보이기는커녕반대로부의감소를가르쳐준다는것이제대로된이야기가아닌가? 그런데이것이야말로바로공산주의가행하는것이다. 소유권식으로궤변을부려서당신에게이렇게말한다. 이수백만의살림살이가, 패종시계, 금으로된손목시계, 옷장, 의자, 탁자, 그림, 부조, 서재, 난로, 등잔불과촛대, 식기류와부엌세간, 6 개월간의내의류, 갈아입을 의복과외투, 온갖보석과용구들이무슨소용인가? 이소동, 이방탕함은다무슨소용인가? 반면에우리가공동체로산다면, 우리는만찬실에서포부르동으로웅장하게시간을알리는종을치는훌륭한패종시계, 오페라에서처럼빛나는상들리에, 500 명이앉을수있는탁자, 서른말들이술, 그리고고회의장면들과공화국의승리의모습들이유화로그려진벽을가지게될것이다!

음! 그대들을해방시켜준다는사람들의놀림감이되는선량한사람들아, 보석상, 시계공, 주조공, 조각가, 고급가구세공인, 등잔불제작자, 난로제작자, 유리세공인, 인쇄업자, 여성용모자제조인들이무슨소용인가. 당신이부를금한다면노동이무슨소용인가? 인류가무슨소용인가? 아니, 공동체가무슨소용인가? 그대들은공동체없어도충분히혈벗고, 충분히불쌍하지않은가!

내가공산주의에대한불평을다쏟아내려면멀었다. 나는여러나라인민의산업적자유를해하려는영국경제학자의음모에이순간공산주의가내미는뜻밖의원조에대해아무것도말하지않았다. 한편으로 『데모크라시파시피크 Démocratie pacifique』 는장벽의철페에서팔랑스테르로의전진만을보며, 다른한편 『포뮐레르』 는루이필리프가코브던에게행한초청을그리스도교신자들에게이야기해주며, 우리나라의독립을위해위협이되는이사실로부터강자들과부자들이노동계급을위해무언가를할날이다가온다는결론을끌어낸다.

그러나나는모든것을이야기할수는없을것이다. 게다가내가말한것은이론을위해서는충분할것이다. 친애하는빌가르델, 사회주의의사실과행적에대해말한다면지난여러세기들에서처럼우리세기에도그대와나는이야기하기를포기한다. 그과제는내인내심을넘어설것이며, 이는

	5.7
공적사안에대한범죄및경범	
	7.8
도덕관념에대한범죄및경범	
	3.0
사람들에대한범죄및경범	
	5.6
소유재산에대한범죄및경범	
	5.4
그건수가무수한삼림관련경범외의위반	
	3.7
	265

106,149

1835~1837

121,221

1838~1840

145,062

1841~1843

151,624

이재미있는통계의저자는다음과같은말로결론을짓는다.

“범죄와경범의건수는그러므로급속하고가속화된방식으로증가한다. 이처럼인구의인평균증가가 1000 분의 5 도채안되고더늦어지는경향을띠는반면, 1000 을기준으로한연평균증가는범죄종류별로다음에달한다.”

“인구의증가가늦추어지는반면범죄및경범건수는증가하는경향을띤다. 그리고이증가는프랑스에만특별히해당하는것이아니다. 그것은심지어여러이웃나라들에서보다프랑스에서덜하다.”

증가율

종류

264

너무많은빈곤, 너무많은파렴치한것들을들추어내는일일것이다. 비평가로서소유권의부정에의해사회법칙들의탐구를진행해야했던나는사회주의자의맹세자에속한다. 이런관계속에서나는내가처음에한언명들을부인할것이아무것도없다. 그리고나는다행스럽게도내선행자들에게충실하다. 실현과진보의사람으로서나는온힘을다해머릿속이팅비고무능하고부도덕하고, 바보들과사기꾼들을만들기에만적당한사회주의를거부한다. 사회주의가 20 년전부터과학을공언하면서아무런난점도해결하지못하고세상에행복과부를약속하면서도스스로는적선으로만생존하고, 아무것도생산하지않으면서엄청난자본을집어삼키는모습을보여주는것은이런식이아닌가?

나로말한다면, 공언하노니, 대낮을구하고비판에맞서싸우는대신골목길의침침함속에숨는이런지하선전에직면해서, 이파렴치한관능주의, 이진흙탕문학, 이고삐풀린거지행세, 일부노동자들을얻기시작하는정신과가슴의이마비에직면해서사회주의적불명예에서깨끗하며, 다음과같은두마디말로과거, 현재그리고미래의모든조직유평아들에게관해내신양선언과내기준을밝힌다.

노동을조직하기위해권력과자본에호소하는자는누구든지거짓말을한것이다.

노동조직은자본과권력의권리박탈이어야하기때문이다.

제 13 장제 10 기 — 인구

I. 생식과노동에의한사회의파괴

“웅변가에밀리안 (Emilian) 의아버지, 에피테르세스 (Epithersès) 는그리스에서이탈리아를향해다양한상품과여러여행객을실은 배로향해해가는데, 저녁나절에모레 Morée 와튀니스사이에있는에 키나데스군도근처에서바람이뒤통을치고, 그들의배는팍소스 Paxès 근처로떠내려갔다. 그곳해변에닿아서어떤승객은잠들고어떤승객은깨 어있고다른승객들은먹고마시고있었고팍소스섬에서누군가가타문 (Thamoun) 을크게부르는소리가들려왔다. 이소리가모두를놀라게했 다. 바로이타무스 (Thamous) 는그들의조타수이며, 이집트사람이었 다. 승객몇사람말고는그이름을아는사람은없었다. 두번째로이음성이 들려왔는데이는타문을무서운음색으로부르는것이였다. 아무도대답하 지않았고조용히벌벌떨고있었다. 세번째로이음성이들려왔는데, 이는 전보다더무서웠다. 이에타무스가대답했다. ‘나여기있고, 그대는나에 게무얼요구하오, 내가무얼해주시기를바라는거요?’ 그때이소리가더크게 들렸다. 그에게팔로데스 Palodès 에가게되면위대한신, 판 (Pan) 이 죽었다고발표하라고명령하는것이였다!”

“이말을듣고는에피테르세스는선원들과승객들이모두탄복하고놀 랐다고말한다. 그들간에그음성이명한것을숨기는것이좋은지밝히는것 이좋은지를의논했다는것이다. 타무스는, 그들이순조로운바람을맞는 다면그에대해한마디도말하지말고향해해나가야하지만, 바람이뒤통을 치면들은것을이야기하겠다는것이그의의견이라고말했다. 이제그들이 팔로데스에가까이갔을때바람도없고해류도없었다. 그래서타무스는벳 머리에올라해안을바라보며명령을받은대로위대한판이죽었다고말했 다. 이말이끝나기무섭게깊은신음과큰탄식이한사람이아니라여러명이 함께내는소리로땅에서들려왔다.”

“이소식은많은이들이현장에있었기에급속히로마에퍼졌다. 그래서 당시의황제였던티베리우스는이타무스를데려오라고사람을보냈다. 그 리고그가하는말을들어본후에그말을믿게되였다. 그의궁전과로마에있 는학자들에게이판이누구나고물어서그는판이해로도토스와키케로가

이에따르면극빈층이시기상앞서는것이맞는가, 맞지않는가? 그리고이수치들이한편으로는공식적인수치들로서물론내가주는의미를지 닐다는증거는 1833 년이래로영국에서사람들이멜서스의이론을적용하 려고시도했다는것, 즉소득도임금도소유하지못하는자들을사멸하게방 치한것, 그리고이관념의첫번째결과는강제노동수용소의창설이었고, 최종적으로는곡물법의개혁, 즉빵값의자의적인인하였다는것이다. 사 람들은독점의폭력적폐지가빈곤을완화하는데에큰효과를지닐수있다고상상했다. 미래는이화려한개혁이포함한합리적이고유익한것을말해 줄것이다. 그러나경제학자들은대부분이자유무역동맹의지지자들로, 암묵적으로빈곤이자녀들의과잉생산말고다른원인들을가진다는것을 그에못지않게인정했다. 그들이독점에의해실행된약탈의명세를작성 하기시작했고, 그래서이를마무리했으니말이다!

나는프랑스의범죄에관한 「주르날데제코노미스트」 (1846 년 1 월) 의한기사에서, 모든종류의범죄및경범건수가기간별로다음과같았다는 것을읽는다.

기간	건수
1826~1828	88,751
1829~1831	96,083
1832~1833	263

주민수
1801
4,078,891
8,872,950
1818
7,870,801
11,978,875
1833
8,000,000
14,000,000
262

『신들의본성』 제 3 권에서전에적은대로메르쿠리우스와페넬로페의아들이라는것을알아냈다.”

“아무튼나는그를유다디아에서박사들과사제들, 모세율법의수도자들의질투와악행에의해치욕스럽게살해당한, 신자들의위대한구세주로 해석한다. 그리고그해석은부적절하지않은것같다. 왜냐하면그는우리의전부인지라정당한권리로그리스어로판이라불릴수있기때문이다. 우리의모든정체, 우리가사는전부, 우리가가지는전부, 우리가바라는전부가그이고, 그에게서이고, 그로부터이고, 그에의해서인것이다. 그는사랑많은목자코리돈 (Corydon) 이증언하듯이그의양떼만이아니라양떼의목자들에게서도사랑과애정을가진선한판, 위대한목자다. 그가죽었을때불평, 탄식, 한숨, 공포와한탄이하늘, 땅, 바다, 지옥할것없이우주의온조직에퍼져갔다. 내이런해석에는시대가들어맞는다. 왜냐하면아주선하고아주위대한판, 우리의유일한구세주는로마에서티베리우스황제가다스리던때에루살렘에서죽었기때문이다.”

이찬양할만한이야기, 아주심각한어조로말해지고아주신실한성찰로끝나는이이야기가플루타르코스에게초를둔것으로서라블레의펜에서나온다고누가믿겠는가? 그러나타무스가발표한신앙을예수그리스도에게적용한것에서영원한적들인, 독점과유평아에의해죽음을당한사회의상징을누가알지못하겠는가? 그리고바로이타무스에서그들이가장많은걱정의씨를뿌렸고섭리를더욱의심하게한사람, 뉘르스를누가알아보지못하겠는가?

그리스도가인류의화신이듯고대사는현대사의모습이다. 사회가타무스의배처럼경제적숙결에의해야만에서문명으로 옮겨지면서소유권자의해협을통과한후에공산주의의구덩이위를헤매오고있다. 뉘르스는우리에게사회가죽어간다고, 사회가죽었다고외치는조타수다. 그의부활에대한신앙을아직받아들이지못했으므로판신을애도하는영혼들은인류의살아있는표현이고, 인류의에감과슬픔의기관들인우리의모든웅변가들과우리의작가들이다. 이는라르네, 라마르틴, 미슐레같은사람들이다. 이는우리의경제학자들, 정치인들, 그리고우리의신비가들, 시스몽디, 블랑키, 뷔레, 기조, 티에르, 코르므냉 (Cormenin), 바로 (O. Barot), 뷔세, 라비냥 (Ravignan) 신부와라코르데르 (Lacordaire) 신부, 리옹 (Lyon) 및샤르트르 (Chartes) 예하, 쉬 (E. Sue) 등등이다.

그렇다. 정말로사회는그종말에달았다. 위대한신판은죽었다. 영웅들의그림자들이탄식하고지옥의악마들이전율하는구나. 판은죽었다. 사회는해체상태로떨어진다. 부자는자기의이기심안에문을달아걸고있으며대낮의밝은빛에서자기부패의결실을숨긴다. 불성실하고나태한종이주인에대해음모를꾸민다. 부자에게존엄성이더많고, 가난한자에게겸손이더많고, 충직함은어디에도없다. 학자는과학을재산으로, 그를인도해주는지하통로로간주한다. 그는과학에는조금도관심이없다. 정

의를 의심하는 법률가는 그 격률들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 사제는 더 이상 회심을 야기하지 못하고 유혹자가 된다. 군주는 황금 열쇠를 왕홀로 삼았다. 그리고 인민은 절망한 영혼, 우울해진 지성을 가지고 명상하고 침묵한다. 판은 죽었다. 나는 당신에게 이를 타무스와 맬서스 처럼 말한다. 사회는 바닥에도 달했다. 애도는 서둘러 끝내라. 그리고 우리 해부자들에게 이 시체가 인도되어 있으니 사체를 부검하자.

문명의 가장 놀라운 현상, 경험에 의해 가장 잘 증명되고 이론가들에게 가장 적게 이해되는 현상은 빈곤이다. 문제는 이보다 더 주의 깊게, 더 애써서 연구되지 않았다. 항구적 빈곤은 논리적, 역사적, 신체적, 정신적 분석에 종속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자연의 네 번째 시대로서, 속, 중, 변종으로 나누었다. 사람들은 그 효과, 원인, 필요, 전과, 목적지, 그 정도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그것의 생리학과 치료를 행해왔다. 그에 관해 쓰인 책들의 제목만으로도 한 권 분량을 채울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한 나머지, 그 존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긴 탐구에 이어 지금 빈곤이 정의 불가능한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겨우 감지하기 시작하는 정도다.

이처럼 빈곤은 꿰뚫어 볼 수 없으나 언제나 현존하는 신성처럼 그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가진다. 빈곤은 심지어 냉담자들을 가지는데, 이는 그것의 진보에 적지 않게 기여하는 것이다. 설령 슬픔과 죽음 일지라도 감정이나 감각에 의해서만 알게 된 것을 부인하도록 언제나 이성에 의해 유도되는 사람의 운명은 이상한 운명이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엘레아 학파는 운동을 부정했다. 스토아 학파는 슬픔을 부정했다. 부활과 율회의 추종자들은 죽음을 부정한다. 유심론자들은 물질을 부정한다. 유물론자들은 신을 부정한다. 회의주의자들은 서로를 비웃는다고 자처했지만, 부정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공간을 가로질러 웅장한 경주를 계속하기를 덜한 것이 아니다. 슬픔과 죽음은 희생자들을 덜한들 낸 것이 아니고, 신들에 대한 숭배는 성공을 덜 거둔 것이 아니다. 박애주의자들은 빈곤을 비웃어 보라. 우리는 그 재발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재앙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면 이상형 문자를 해독하려고 노력하자.

빈곤은 철학이 이를 나중에 사회에서 추방하고 싶다면 이성에서 제거해야 할 마지막 허깨비다. 하지만 허깨비는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고, 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허깨비의 원인, 본질, 발달, 그 사고事故들과 양태들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빈곤은 사회의 질서에서 악이다. 하지만 악이란 무엇인가? 라르네씨는 말한다. 악은 한계라고. 그런데 또한 한계란 무엇인가? 객관적 실물이 없는 정신의 개념이다. 이는 기하학적인 점과 선처럼 이성적 존재다. 한계는 그 자체가 한계가 없으므로, 그 정의는 정의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므로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라르네씨의 체계에서 악은 논리적 존재자, 실체가 없는 관계다. 악의 존재를 단언하는 것은 부정의 실재를, 무의 실재를 단언

우스운 구분, 가치들의 비례성 이론에 따라 앞서 반증된 우스운 구분이 다. 생존수단은 필연적으로 부의 다른 부분들과 관계가 있으며, 50 년 전부터 프랑스의 소득이 다섯 배로 늘어났다면 프랑스는 다섯 배 더 소비한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참이다. 사회 안에서 모든 가치들은 서로 측정된다. 즉 서로 절제를 해주며, 서로 지탱을 해준다. 사치품의 생산은 바로 생존수단이 충분한 양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결국 사치품의 값이 지불된 것은 이 생존수단이 돈이나 다른 가치물로서 지불된 것처럼 생존수단으로 지불되었으니 말이다. 50 년 전부터 1 차필수품의 물건 가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감지했는가? 정반대로 상대가 격은 오히려 약화도니 것 같다. 그리고 생존수단이 포도주처럼 인민에게 결핍된다면 그 잘못은 포도원이나 포도재배농부에게 있지 않다. 포도재배농부는 판매할 수 없다고 불평하니 말이다. 그 잘못은 정치경제학에 있다.

계다가 인간의 행복은 풍요와 다채로움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치라고 부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정한 저축일 뿐임을 누가 모르는가? 날고기와 몇 가지 짙은 기름으로 살아가는 야만인은 한 달 새에 나라의 1 평방리 외 (16 평방킬로미터) 의 자원을 거덜 낼 것이며, 그 부양에 숲의 사람들이 모르는 백만 가지 물건을 요하는 문명은 4 헥타르의 땅 위에서 생존할 것이다. 그의 사치는 야만인의 나체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삼사천 배 좁은 공간에서 유지도리 수 있다. 사치는 피부, 눈, 귀, 콧구멍, 상상, 기억에 의해 양식을 섭취하는 기술로 생리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빈곤은 반대로 유일 기능, 위뎃의 기능으로 축소된 생활이다. 무슨 말인가? 심지어는 우리의 음식을 천 가지 형태로 배증하고 우리에게 더 잘 먹도록 가르치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절약의 원천이 아닌, 세네카가 그의 황당한 과장에서 아가리의 기술이라고 부른 요리법도 없다. 요리는 노동 후에 부족에 대비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조수단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너무 많이 먹어서 대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그가 충분히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므로 내 질문을 강조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부는 다섯 배로 늘었고, 우리의 인구는 50 퍼센트만 늘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우리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가? 후세를 걱정하고 지구상에서 얼마의 주민이 살 수 있을지를 찾기 전에 내게 대답해 주기 바란다.

영국에서 구빈세는 다음과 같았다.

연도

액수 (파운드스털링)

처녀국이라! 하지만그나라땅은이로퀴이족들과휴먼족들을위해쓰였는데, 이들은아메리카대륙발견이전에 벌써우리가오늘날그러듯이부보다출산에서더빠르게나아갔고, 단순한사냥꾼들로서오래전부터산업을영위하는유럽인들이아직증식을하면서도부유해지기를중단하지않은바로그곳에서불쌍한자들로있었던것이다. 처녀국이라고! 차라리산업적위계의부재덕분에, 아메리카식민자들의이평등덕분에, 이평등은당신의경제적전행질차들의작용속에벌써사라지기시작하는술들이만들어준간격으로보호를받아서노동자는어디서나자기소출전체를누리고, 언제나쓸모있는작업을행해 18 년마다인구가두배가됨에도 불구하고부자가될수있었고, 부자로자신을유지할수있었다고말하라. 아메리카의에는단지인류가인구문제에서할수있는것만일증해주는것이아니다. 또한사람의잠재력이생산문제에서어디까지갈수있는지도보여준다. 저곳에서는아주명백하고아주공신력있는이병행이다른곳에서는왜지탱될수없었는가? 이런질문을하는이유는여기서는병행적인진보만큼진보의신속성이중요하지않기때문이다. 처녀국이라! 확실히영국, 스위스, 독일의개척자가살아오고인구가배증한것은이영구적인술들에불을질러서가아니다. 이는노동에서, 내가말하건대노동에서나온것이다. 우선은적절하게분화되고, 그다음은점점자본과기계를동반해서, 유통을통해가치를늘리고, 아직기생계급과독점에의해척박하게되지않은노동에서나온것이다. 그증거는, 유럽에서수입된정치경제학이이나라에서, 토지와공간이누구에게도결핍되지않고노동이자본의노예살이, 은행가의중개, 경찰의감독을거치지않고그자체로이익이되는곳인이나라에서, 다소너무일찍가능하기시작해인민이정치경제학을굴러가게놔두고, 단지그톱니바퀴를돌리기만하면되었다는것이다. 신용은낮은데서흘렀고, 은행들은도약했고, 개발자인자본은집어삼켜졌고미국인은노동과평등으로자기재산을추구했다. 의문의여지없이이경이로온진보가덜민첩한걸음으로갈날이올것이다. 하지만그때와마찬가지로의문의여지없이인구는제약과빈곤없이, 정치경제학, 불안정과도독질의이론인 이것이이조화를깨러오지않는다면, 자생적으로그도약의속도를늦출것이다.

뷔레 (E. Buret), 그리고그의뒤에픽스 (M. Fix) 씨는 50 년전부터프랑스에서국부가다섯배로늘어난반면인구는절반도늘어나지않았음을관찰한다. 이계산에서부는인구보다열배는빠르게전진했을것이다. 빈곤이비례적으로축소되는대신에증가한것은어디서유래하는가?

부를생존수단과혼동하지말라고경제학자는말할것이다. 부는노동의산물로서사람에게영양분과마찬가지로쾌락에서어떤가치든지가지는모든것으로구성된다. 생존수단은이부에서생활의유지에특별히더소용이되는부분이다. 그런데맬서스의산물급수를이해할필요가있는것은부의이부분에대해서다.

하는것이다. 그러면슬픔을어떻게설명하는가? 우리에게외치게하고는물흘리게하는, 우리에게서싫증과증오를자극하는, 심지어우에게죽음을주는이계속적경험을어떻게설명할까? 내가무엇이라말하는가? 악이한계말고다른것이아니라면이는존재의결정자체다. 사물은감각이가능해지고분간될수있게하는것이고, 아름다움과존재의필수전제조건이다. 이는우리감각과관념의지고의조건이며, 필연적존재다. 악은한마디로선이다. 이상한정의다!

더잘파악하기위해덜일반화하기를선호한뷔레에따르면, 빈곤은부부의보상이다. 빛이생겨라 fiat lux! 더숨쉬좋은자들이이를설명할수있으면해보라고하라. 나로말한다면, 내확신은저자자신도자기말을이해하지못했다는것이다.

빈곤계층의원인, 이는생산물의부족, 즉빈핍이라는것. 이는슈발리에씨의견해다. 빈곤계층의원인, 이는너무많은소비, 즉역시빈핍이라는것. 이는맬서스의견해다. 나는저자들로부터이명제말고다른것을결코끌어내지않으면서본문들을무한히배증할수있을것이다. 꾸란의첫구절, “신은신이다”와쌍벽을이룰만한명제다. 빈곤은빈곤이다. 악은악이다. 빈곤은종교처럼반철학적이고비합리적인무엇인가라는것, 이는허깨비이고, 신화라는것이참이아닌가?

그결론은이런전제들을지닐만하다. 생산을늘리고, 소비를억제하고, 아이를덜낳는것, 한마디로빈자가아니라부자인것, 이것이야말로빈곤과싸우기위해이를가장잘연구한자들이우에게말할줄아는모든것이고, 이것이야말로정치경제학의헤라클레스의기둥들이다!

하지만, 숭고한경제학자들이여, 당신들은인구를증가시키지않으면서부를증대하는것은일손의수를증가시키면서입의수를감소시키고싶어하는것처럼터무니없는것임을망각한다. 생각하지않는다면우리는더이상상식도가지지못할것이니부디생각을좀해보자. 가족은사회경제학의심장, 소유권의필수적대상, 질서를구성하는요소, 노동자가자신의모든야망, 자신의모든노력을끌고가는지고의선이아닌가? 그것없이노동자가사기꾼과도독이기를더좋아해서노동하기를중단할그런것이아닌가? 반대로그것과더불어노동자가당신들의경찰이라는명예를감수하고, 당신들의세금을납부하고, 입을봉하고, 빼앗아가도록놔두고, 독점을통해산채로깍질을벗기도록놔두고, 독점의사슬위에서체념해잡들고, 인생의 3 분의 2 의시간동안영원하기때문에인내력을가진다고사람들이말하는창조주와유사하게자기인격에서질러지는불의를더이상감지하지못하는것이다. 가족이없다면, 사회는없고, 노동도없다. 프롤레타리아트의소유권에대한이영웅적종속대신에사나운짐승들의전쟁이있는것이다. 그러한것이경제적조건에따르면우리의첫번째입장이다. 그리고당신이이순간에그필연성을발견하지못할것이라면, 내가당신을독점, 신용, 소유권의이론들로돌려보내는것을허락해달라.

지금가족의목적은자녀출산이아닌가? 이자녀출산은사람의생명발달의필연적결과가아닌가? 이는획득된, 말하자면젊음, 노동그리고후생에의해그의신체기관들에축적된힘에비례하지않는가? 그러므로인구를배증하는것은생존수단배증의불가피한결과다. 그러므로끝으로생존수단의상대적비율은, 무익한입을제거함으로써증가하기는커녕, 내가곧입증하기를희망하는것처럼, 그러한제거가지고의대상물이고노동의필수불가결조건인가족의파괴에의해서밖에행해질수없다면, 불가항력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떨것이다.

이처럼생산과인구는서로에대해결과와원인이된다. 사회는동시에, 그리고같은원리에힘입어, 부와사람들수에서발달한다. 이관계를변경할필요가있다고말하는것은, 피제수와제수가언제나같은비율로증가하고감소하는조작에서마치당신이그몹을두배로하라고말하는것과도같다. 당신이주장하는것이무엇인가? 젊은이들이사랑하기를그만두라는것, 프롤레타리아는 50 세가되어서야결혼을하든가아예하지말라고하는것, 가족은하나의특권이라는것인가? 이경우에당신의소유권들을수호하기위해효과적인수단을취하라. 당신의병정들의수를두배로늘려라. 창녀들의수를늘려라. 성매매보조금을창설하라. 일부다처제, 창녀와의결합, 게다가심지어남색, 편견이비난하는, 그러나과학은그불입성을고려해받아들여야할모든종류의사랑을추진하라. 왜냐하면가족이있으면부의진보를멈추는것이불가능하다는바로그이유때문에빈곤의진보를멈추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두항목은해소될수없는결혼의끈으로서로연결된다. 이것들을분리하고자하는것에는모순이있다.

이처럼빈곤은신비적이고필연적인것, 우리가그존재도부재도생각하지않는것이다. 선처럼악도우주의원리들중하나다. 우리는바로마니교에들어와있다!

하지만, 끝으로사회안에서악은어떻게표현되는가? 빈곤의공식은어떤것인가?

멜서스는공신력있는문서더미에의존해서, 첫째로인구가예를들어생존수단의부족같은아무런장애물을만나지않는다면, 25 년마다, 심지어 18 년마다두배로쉽게늘어나갈수있을것임을증명했다.

세는이기간을더단축시킨다. 그는인구가억제되지않는다면 26 년마다세배로늘어나리라는것을발견했다.

로시씨는이우아한공식에서같은생각을표현한다. “하나가들을낳고새로태어난이들이각각먼저의단위와같은생산력을가진다면, 둘이넷을낳을것이고, 넷은여덟을낳을것이고, 이런식으로계속된다. 그러므로, 추상적으로말해서멜서스는반박이불가능한원리를제시했다.”

이제부터는의심할것없는이첫번째사실과별개로, 멜서스는그에못지않게확실한다른원리를제시한다. 인구가기하급수에따라 2, 4, 8, 16, 32... 등으로증가하는경향을띠는반면에, 생존수단의생산은단지산술

혈땀이계속해서풍부함에서결과로나오고, 노동의금지가노동할필요의영속적인결과인우리의경제는진실로이상한경제다! 군주의칙령에의해 50 만명의기생자들이갑자기비생산자명단에서지워져서작업장과경작지로보내지면복리의증가대신에우리는빈곤의증가를보게될것이다. 비생산자계급에는고용도소득도없는 50 만명이있을것이다. 기업가, 소유권자, 산업수혜계급에는섬겨야할기생자가 50 만명줄어들것이고, 이미크게배증되어있는, 그리고임금이아주낮은노동자계급에는경쟁자가 50 만명더있을것이다. 일손의가격은낮아지고, 생산물의수량은늘어나고, 시장은축소된다. 프롤레타리아에게는절제와노예상태가진전되고소유권계층에게는사치와고집이진전되는, 이런것이이성이우리에게공공안녕의조치로가르쳐주는개혁의결과들일것이다. 우리는더부유해질것이기때문에바로그이유로더가난해질것이다. 그리고자신들의마법서에서아무것도이해하지못하는경제학자들이결혼의경솔함, 사랑의시기가좋지않음, 뭐랄까, 부부의외설적행동을비난하는것을보게될것이다!

사실들이쇄도하고축적되고사방에서정치경제학에맞서외쳐도소용없다. 이를이야기하고, 전개하고, 주석을다는작가들은아무것도보지않기위해서만눈을가지고, 아무것도듣지않기위해서만귀를가지며, 진실을숨기기위해서만지성을가지는듯하다. 소유권, 고리대, 조세, 경쟁, 기계, 파편적분업은인구가넘쳐나기전에인구를억제한다. 50 만의배급말고는생존을위해가진것없는 100 만의사람들이어떻게될것인지에만매달리고있는경제학자는, 왜 50 만명이 100 만명에게죽할것을가지고살아갈수없는지를자문해보지않는다. 선량왕장 2 세때에는프랑스인구가 1200 만명이었다. 루이 14 세때에는 1600 만명이었고, 루이 16 세때에는 2500 만명, 오늘날은 3400 만명이다. 이모든시대에가난한자들, 엄청난수의가난한자들이있었던것은변함없다. 가난한이들에맞서만들어진잔혹한법률들이이를증명해준다. 그런데이시대들중어느시대에프랑스사회가그수단들을고갈시켰다고말할수있는가? 10 세기전에프랑스는그생산을 20 배로할수있었다. 제 3 신분은게으름의혐의가없었다. 어디서극빈층이나왔는가?

경제학자들에게 26 년만에인구가두배로, 심지어세배로증가하는가장괄목할예들을제공한것은미국이다. 그런데한세기혹은한세기반전부터미국에서인구가 26 년마다두배, 세배로늘었다면, 생산은적어도같은시기에두배, 세배로늘었던것이명확하다. 그리고이경과시간중에인구는생산을쫓아가기만했다고말할수있다. 미국인구의진보를아주잘해설한멜서스가어떻게마찬가지로다른상황들에서생존수단의병행적진보를방해하거나중단시키는원인들을연구하지않았는가?

“아! 미국의경우는예외적이다. 미국은처녀국이였다”고그경제학자는대답한다.

가지금생산하는것의두배, 세배, 네배를생산할수있다는것은참이 아니다. 산출은필연적으로인구에비례하며인구는이번에는분업의정도, 기계들의힘, 유통활력등을정해준다. 그러나참인것, 과학이인식하고증명하는것, 이는인구의증가가두배면생산의증가는네배이며, 사회가경제법칙에복종할만큼오랫동안, 그리고지구의표면적이이증가분을포함할만큼멀리까지이런식으로무한히계속늘어난다는것이다.

유감스럽게도경제제도의적대성은그것들이충돌없이그효과를내도록허락하지않는다. 그로부터노동에대한실망이나오고, 그로부터빈곤의기습이나온다. 이처럼경쟁은그공정적이고사회적인면을이용해물건의가격을무한히낮추고, 따라서가치들의총계를끊임없이늘리며, 생산을인구보다앞서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러나그부정적이고이거적인측면때문에경쟁은그것이초래하는가격하락이한편에서는승리자에게만이득을주고, 패배자를일자리와자원이없이방치하니부에서빈곤으로방향을전환한다. 이론은경쟁이모든사람을부유하게해주어야한다고말한다. 그러나실제는, 사회적유기체의불완전성때문에경쟁이일반적이된곳에서는부유하게된자들과꼭같은만큼의불행한자들이있음을증명해준다. 이는우리가행한비판후에의심하는것이불가능한것이다.

여기서비난할필요가있는것은그러므로제도의고유한해악, 관념의부족함이다. 이제부터는빈곤의이필연성, 방금우리를망연자실함에빠지게한것이결코절대적이아님이증명된다. 그학파가말하듯이는우발적필연성이다. 일체의개연성에상반되게사회는사회의안녕을이루어주어야할것자체로고통을받는다. 언제나빈곤은때이른것이며, 언제나극빈층은미리생긴다. 무기력때문에흉년을맞는야만인과반대로빈곤은행동때문에우리에게찾아오며, 우리의노동은끊임없이궁핍을더해준다. 경제학자들은필연을비난하기전에그들의일상관행을개혁하는것으로시작하도록하라. 의사여, 그대를치료하시오 (Medice, cura te ipsum).

이재검토를계속하고일반적결론을표명하는것으로내게는충분할이장에내저작전체를다시필요는무엇인가? 나는사회가자기를피하는이균형을이공식, 저공식에서, 이제도, 저제도에서찾고있으며, 그런시도를할때마다같은비율로자기의호사豪華와자기의빈곤을성장하게만드는것을보여주었다. 일단공동체에도달하면사회는그출발점에놓인다. 경제적진화는완성되었고, 탐구의장은고갈되었다. 균형은도달될수가없어서여러이론들을중합해노동에그효능을주고그기관器官각각에잠재력을주는전체적해결에만희망이남아있다. 그때까지는빈곤이나태함에묶여있는것과마찬가지로극빈층은노동에불가항력적으로묵인채로남아있다. 그리고우리의섭리에맞선모든불평은우리의아둔함을증명할뿐이다.

급수에따라 1, 2, 3, 4, 5, 6... 등으로증가할뿐이라는것이다. 이는어쩔수없이이런결론, 모든나라에서인구의일부는끊임없이이뿌이없어서죽는다는결론을유도하는것이다.

멜서스는이두번째명제가즉시입증되는것으로나타나려면발표되는것으로축하다고주장했고따라서그증명은생각했지만, 나는생존수단의 1, 2, 3, 4... 의산술급수가어떻게인구의 2, 4, 8, 16, 32, 64... 의기하급수의보조정리인지를보여주면서그의침묵을보충하려고한다.

사람의생식은무엇에관련되는가? 씨의배출, 남자가허락하도록끊임없이자극을받는, 그에게서어떤노력도요하지않는배출이지만, 정반대로그의생명의지고의선, 그의노동의목적, 그의운명의필요인것이다. 그러나그가스스로자기생존수단을마련할능력이있게될날까지이씨앗을배태, 수유, 급양등의비용으로 10 년, 15 년, 20 년, 심지어는 25 년 동안그의부모가소비하는것의 12, 15, 20, 심지어 50 퍼센트의비용이들것이다. 그런데같은부부가자녀를넷, 여섯, 열또는열둘을낳는다고한다면, 수학적명증성을가지고서, 그리고엄청난통계를작성할필요도없이, 여행자들의이야기를참조하고연대기들을찾아볼필요도없이이부부의후생은그것들을확채율이유자체에의해 12, 15, 20, 30, 50, 심지어 80 퍼센트가감소할것이다.

그리고자녀들각각은학교를졸업하고수습생으로보내지자마자그의아버지가했던것을자기생각을가지고행할입장이되므로, 그의모든욕구와그의모든희망은그를이런모방을하도록몰고가므로, 절제는그에게서노동할마음을빼앗고그가질서와절약의정신을잃게하는것말고다른결과를가지지않을것이므로, 결과적으로사람들의출산이이긴다. 여전히뒤쳐진상태로있는부의생산을끊임없이이긴다. 그리고생식에의한인류의발달의위력, 그리고노동에의한인류발달의위력은서로간에다음의급수들과같다.

- 2, 4, 8, 16, 32, 64, 128, 256...
- 2, 3, 4, 5, 6, 7, 8, 9...

내가반복해서말하는데, 멜서스는이두급수를구분했다. 적어도내게는그가그연대성과동일성을명확히이해한것으로여겨지지않으며, 이부분에대해서는그의이론을위해보충하는것이유익하다. 게다가사실들, 즉천가지끔찍한형태, 보기무서운모습들 *terribiles visu formoe* 로발현되는인간의빈곤, 기근, 전쟁, 전염병, 질병, 방탕등은매일멜서스가엄청난학식을가지고서증명한것과같이이법칙의정확성을확증해준다. 수수께끼, 허구혹은환각이그러한에너지를가지고서표현되고그렇게저항할수없는사실들의위력을가지고서입증되는것을본적이있는가?

그러므로사회의질서에서는자연의질서에서처럼빈곤이속명적이다. 그로부터자신을지키고싶은것은로그의법칙이우리편한대로달라지기를바라는것이고, 산술이진리이기를중단하기를바라는것이다. 두급

수가서로 필연적관계로 연결되며 근본적으로 동일한 관념을 표현하고 동일한 사실을 드러내고 처음부터 자리잡은 동일한 영원한 법칙, '성장하고 배가하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자연이 움직이도록 놔둔다면, 자녀의 과잉생산에 의해 우리가 빈곤에 빠진다는 것, 우리가 자연에 저항하거나 환상적인 모충 조치로써 자연을 속인다면, 우선 우리가 가장 절박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곧 가족을, 그리고 이와 함께 노동을 증오하게 되며, 악폐들의 역의 계열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것이야말로 로그가장 명확하고 가장 모호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절망하게 하는 표현에서 정치경제학의 최종 신화이고 소유권의 왕관이고 노동과 가족의 우화다. 인류는 자신의 생기를 주는 능력들의 행사에 의해 소진되고 멸망한다. 그의 자살에 끝이 있을 수 있다면, 인류는 존재하기를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이론이 경험을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빈곤이라는 말을 발설했을 때, 이는 우리 발달의 내적 법칙, 우리 존재의 본질, 우리 생명의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 생존수단의 더 낮은 증가는 같은 관념, 유일무이한 현상의 두 측면이다. 이는 천체들의 운동을 주관하는 모든 법칙들처럼 확실한 법칙, 따라서 대수방정식처럼 불굴이고 무자비한 법칙의 신비로운 공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불쌍한 사람의 불평과 박애주의자의 임시방편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치하고 찜찜해보이겠는가! 숙명은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를 쓸어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에 대해 대가를 지불받는다. 우리가 외치고 탄식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들의 관념들의 연결성을 파악할 능력이 없었던 때에는 우리에게 자녀를 더 많이 낳으라고 말하고 어떤 때에는 덜 낳으라고 권고하는 이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인간생식의 이 두 형태가 서로 회복할 수 없이 엮이지 않았으며, 우리의 사전대비에 의한 빈곤 때문에 자연의 경솔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닥치는 빈곤을 대체하는데 이익이 있다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의심할 바 없이 맬서스의 이중법칙에 대해 아무 대답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내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와 부에서의 인간 발달의 불평등이나 무랄데 없는 확실성을 지닌 것이라면, 그것이 참된 관념에 적절한 것처럼 완전하고 최종적인 관념의 성격을 띤다면, 이 법칙이 한 마디로 명백한 모순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불평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숙명의 판결을 침묵 속에서 찬양할 것이다. 그런데 맬서스의 원리는 명백히 모든 이윤배반들의 경우에 속한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원리들에 따르면, 무오류라고 여겨지는, 반대되는 것들의 이 이론에 따르면, 인구와 생산에서의 진보의 적대관계는 오로지 균형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 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뭐라고! 동물들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특출함에도 불구하고 창조되었을 것이다. 섭리는 인간에게 땅을 소유하고 가족들로 조직을 이루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행복은 그에게는 노동과 사랑의 이 이중기능의 행

쟁의 수단들은 기계적 개량과 배분적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무한하므로 또한 경쟁의 생산적 잠재력은 강도와 연장에서 한계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고려할 한 가지는, 경쟁 때문에 부의 생산이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출산에 앞선다는 것이다. 이는 맬서스가 생존수단의 진보와 인구의 진보간에 확립한 관계를 경제적 비상식으로, 거꾸로 된 이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해 독자의 주의를 촉구한다.

경쟁에 의해 각 생산자는 언제나 더 낮은 가격에, 말하자면 언제나 소비자 자신의 수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따라서 매일 저녁 사회에 그 다음날의 생존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체제에서 생존수단의 총계가 인구의 필요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고립된 두 사람이 용구를 가지지 않으면서 짐승들처럼 빈약한 먹거리 거리를 얻으려고 싸우면서 2 에 해당하는 가치를 내놓는다고 가정한다. 이 두 불쌍한 사람이 체제를 바꾸어 분업에 의해, 그로부터 나오는 기계역학에 의해, 그리고 뒤따라오는 경쟁심에 의해 그들의 노력을 합친다고 하자. 각자가 단지 자신을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생산을 하니 그들의 생산물은 더 이상 2 와 같지 않을 것이고, 4 와 같을 것이다. 노동자가 두 배로 되어 분업이 이 배증에 비해 해전보다 더 심화되고 기계들이 더 위력이 있게 되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그들은 16 을 생산할 것이다. 그들의 수가 네 배가 되면, 64 를 생산할 것이다. 노동분업, 기계, 경쟁 등에 의한 산물의 이런 배가는 경제학자들이 여러 번 입증한 것이다. 거기에 그들이 이론의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이는 그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점이다. 그러나 실무는 사회가 마지막 개혁으로써 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동안에는 이론이 기대하게 하듯이 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생식적 재생산의 잠재력이 1, 2, 4, 8, 16, 32, 64... 등의 급수로 표현된다면, 산업적 재생산의 잠재력은 1, 4, 16, 64, 256, 1024, 4096...의 급수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조직된 사회에서 생산은 노동자수의 제공으로 증가한다.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정치경제학 자체다. 그 모든 책들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고착된 생각, 인구의 배증이라는 생각에서 사로잡힌 맬서스가 그것을 망각했다면 그의 동료들은 왜 이를 기억하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맬서스가 확정한 인구와 생존수단 사이의 증가 비율은 산업, 즉분업, 기계역학, 경쟁, 교역 등이 절대로 무이고 집단적 힘이 존재하지 않는 무기체 사회에 대해서만 수긍될 수 있고, 맞물려 있으며 산업들의 관리와 교역에 기초를 둔 사회, 각 사람이 수백만 소비자를 위해 생산하면서 수백만 생산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회에 대해서는 결코 수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화학자들이, 그리고 이들이 이어 어떤 맹목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사중적 (四重的, quadruple produit) 이라는 것으로 말하고자 한 것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구와 발달의 정도가 주어 진 어느 나라

하므로또한이런측면에서노동은무제한의, 따라서미지의정도로가속화될수있는다산성을누린다는것이확실하다.

그러므로기계는분업에의해야기된결함을복구하고빈곤을이겨내가는것같다. 이는아무것도아니다. 기계와더불어주인과임금수령자들, 자본가와노동자의구별이시작된다. 파편적노동이노동자에게초래한경의무더짐에서기계역학에의해구원을받아야했던노동자가오려려거기점점더깊이빠져든다. 그는인간적특성과함께자유를상실하고도구의조건에빠진다. 수장들에게는행복이증대하고, 하급자들에게는해악이증대한다. 카스트들의구분이시작되고기괴한경향, 사람들을배중하면서도사람들이해나가고자하는경향이나타난다. 이와같이보편적인공란이심각해진다. 이미파편적분업에의해고된빈곤은공식적으로세상에등장한다. 이순간부터빈곤은사회의영혼과신경이된다.

그러므로여기서빈곤을야기하는것이사람들의과잉생산인가, 아니면빈곤은오려려잘못된조작의결과인가? 모든지점에서생존의필요, 따라서노동할필요가느껴지니, 그리고노동의공급은수요에의해추월되니노동이부족한것은아니다. 모든부분에서판로가없고, 돈을지불한사람들이없고, 임금없이어디떨어지는산물의공급과잉에대해불평을하니생존수단도부족하지않다.

그러므로인류는문명적모습의떠돌이야만습성을다시떠고서그의무기력에서나오는빈곤을그의조합들에서나오는빈곤으로변화시키기만했다. 사람은그의힘을열배로키워주는노동의분업때문에, 이를백배로키워주는기계역학때문에사멸한다. 옛날에잡과게으름때문에사멸했던것과마찬가지다. 인류의해악의첫째원인은언제나그자신에게있다. 그런데운명을타하며외치기전에극복할필요가있는것은이원인이다.

그귀족주의적경향에대해서회는자유, 경쟁을대립시킨다. 그러면무슨일이일어나는가? 이를시야에서놓치지말자. 이를우리에게가르쳐주려고수고한자들, 이들은빈곤의사도들인경제학자들이다. 노동자를해방시키는경쟁은계산할수없는부의증대를낳는다. 노동의자유를목적으로한혁명에이어서다수인민에게서한세대내내빈곤이물리쳐진것을사람들은보았다. 그렇다면나는경제학자들에게, 파편적분업에의해생겨나고일정지점까지기계역학에의해억제된빈곤이아무런숙명적인것도가지지않는것들과마찬가지로, 기계에뒤따라서자본과임금노동의제도후에찾아온빈곤도불가항력적인인에조금도관련되지않았다는증거를보여줄것이다. 우리가전진해갈수록빈곤은우리에게더욱우발적이고비정상적인특성을가지고서, 자연의비인도성이아니라우리의미숙함에대해증언해주는간헐증상과악화를일으키며나타난다.

실제로위에서바라볼때, 대중사이의경쟁은무엇인가? 이는말하자면완전히형이상학적인힘으로서노동의산물들이끊임없이가격이낮아지고, 혹은같은것이지만계속해서양이증가하게해주는힘이다. 그리고경

사에놓였을것이다. 그의기력을끊임없이증대하고, 자신의산업적다산성을발달시키고, 자신의모든동정심을도약하게하는일이그에게맡겨진것은이때문이다. 그리고이웅장한약속을실현할때가찾아올때결코거짓말하지않는섭리는갑자기망측한기만으로탈바꿈할것이다! 행복을맛보기위해인류는사투르누스처럼자기자녀들을잡아먹어야할것이다! 사랑은너무빨리가며, 노동은너무느리다! 사회유기체는아주잘못규율되고아주잘못구상되어사람은자기살과피의끊임없는손실을통해서만자신을지탱할수있을것이다! 사람은재생산하기를삼가는편을선호하지않는한에서는살아가기위해멸망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는언제나파멸과빈곤인것이다! 죽음은인구와생존수단사이에균형을재확립하고사랑의업적들을노동의업적들의크기에중속시키고합리적적조물들의수를가치들의비례성에중속시킬책임을맡은정치경제학의가장위대한벼슬일것인가? 그러므로자연이, 섭리가우리의의도대로토지의다산성을증대시키면서동시에우리중의다산성을제한하고, 우리의유익한때에행해진생식능력을제어해이무시무시한박멸을멈추는것을누가막는가?

그러나공리주의적유물론자는당신에게이렇게대답한다. 사람과짐승을사로잡는, 당신에게항거하는이죽음의법칙은창조자, 파괴자, 복구자인현두의브라만, 시바, 비슈누의삼위일체에의해형상화된자연의위대한진화, 과학에의해공신력을가지고서인정되는진화, 영구적이고불가항력적인이원론에서직접나와서더이상바랄종할을가지지않는진화 말고무엇인가? 당신의희망은그러므로근거가없다. 여기서이올배반은해결책없는채로남는다. 창조세계는생명이먹이로생명에게던져지고, 끊임없이죽음에서다시태어나는광대한전쟁터다. 식물계는무기체왕국위에심어져이를흡수하고실뜯없이동화시키며, 순서에따라동물계의생존수단을공급한다. 동물계의무수한종들은서로에의해, 그리고인간에의해끊임없이파괴되지않는다면곧땅을헐벗게할것이다. 사람은자기위에아무것도, 천사도, 그를잡아먹는악마도가지지않으므로자기자신을잡아먹는다. 식인풍습은자연법칙의강제이행수단이다. 그리고섭리가독점과국가를세우고, 소유권을보장하고, 강자가약자를위협도없고후회도없이소비하게허락하는위계적질서에인간들을중속시킨것은그성취를확보하기위해서다.

이처럼모든것은무한의생존수단에서나와그리로서들어간다. 살아있는존재들의배출이행해지는행위는생식이다. 조직이끌어들이는요소들이공동의저장고에다시들어가는행위는죽음이다. 왜이법칙에대해수군대는가? 우리의권리주장이확장될수있다면모두를위해재산있는노년층의장점을확보한후에우리는또한영구적인생명과개화開花를요구해야할것이다. 노쇠로인해서사멸하는것은실제로빈곤으로인해서사멸하는것과똑같이불쾌하고받아들일수없는것이니말이다. 그러나이럴수는없다. 불멸성은무한히증식할능력과함께터무니없는것이다. 그리고극단

적인노령의경계에까지가는평균적수명연장은조금도연기될수없는격정의연기를요구할것이므로우리의체제와양립불가능하고, 우리의존재를위태롭게할것이다. 섭리가대량학살에바친불쌍한자들의피는사회적건축물의시멘트이고그톱니바퀴위로인간메커니즘을굴러가게하는기름이다. 희생자들의이마에꽃과띠로관을쓰워주라. 그들의희생에, 그들의죽음에갈채를보내라. 그들이죽으면서당신의경탄과당신의찬사의정당한공물을가져가도록하라. 하지만그들을제단으로부터대속하려고하지말라. 그들이당신을위해죽기에지쳤다면, 그들을위해죽어야할것은당신이기때문이다.

당신은이렇게말한다. 섭리는당신을살해하는대신기회가닿으면이생식적열정을중단시키고, 고삐를채울수있지않은가? ... 경솔하다. 누가노동자의거세를요구하는가! 그의몸과그의영혼에서활동과천재성의근원자체를고갈시킨후당신은거기서무슨산물을끌어낼것인가? 당신은곧노동자의의기소침때문에더강한생산의이익을상실할것이며, 빈곤의강도를악화시키지않고당신은중의생존을위태롭게할것이다. 이와관련해서그스승이우리에게말하는것에귀를기울여라.

“걱정은강하고일반적이다. 그리고걱정이약화되어가면, 그것이부족할개연성이있다. 그것이초래하는해악은이일반성과이기력의필연적결과다. 땅을사람으로채우는것이창조주의목적이었다고모든것이우리에게믿도록한다. 그러나이목적은인구를생존수단보다더급속히증가하게함으로써만달성될수있는것같다. 그리고우리가인식한증가법칙은사람들을지구표면에너무급속히퍼지게하지않았으니, 그법칙이그대상에어울리지않게만들어졌던것이아님은충분히명백하다. 인구가급속히, 과도하게성장하는경향이그강도를증대시키지않는다면생존수단의필요는충분히절박하지않을것이고, 인간능력에충분한발달을제공하지않을것이다.”¹

나는독자의정신에이런다양한고려사항들이어떤효과를낼것인지를모른다. 나로서는정치경제학의관점에서, 그리고우리가도달한끝에서, 한편으로우리목을조르는소유권을가지고, 다른한편으로우리를질식시키는공동체를가지고서, 대답할것을절대아무것도알지못한다고선언한다. 사실들은환상을가지는것이허락되기에는너무큰소리로말한다. 빈곤은존재한다. 즉생존수단은부족하다. 그리고먹여살릴입은너무 많다. 이는이해할수없는것이지만결국사실이다. 우리가덧붙여온것은그주석에불과하다.

그러므로이와같이무한의존재는창조를진행하면서막다른골목에들어간처지가되었다. 그리고우리진보적이고앞날을예측하는존재가그의무능의형벌을받는다. 필연은우연없이지낼수없었다. 질서는무질서에

그조직이마지막손길을받지못한한, 이는모호하고척박한힘이며, 분간이안가는관념이다.

그러므로노동의기관器官들은어떤것들인가? 다른말로하면인간노동이가치를생산하고구성하며빈곤을추방하는형태들은어떤것들인가? 왜냐하면, 오늘날노동과빈곤은질서와무질서처럼, 정의와악탈처럼, 존재와무처럼서로반대된다는것이충분히명백하기때문이다.

그런데이런노동의형태들과범주들을우리는열거했고, 그에대해비판했다. 이는노동분업, 기계, 경쟁, 독점, 국가혹은중앙집중, 자유무역, 신용, 소유권과공동체다. 노동이자신안에부를창조할수단들을소유한다면, 이수단들은그것들에고유한적대성때문에그만큼의새로운빈곤의원인들이될가능성을가진다는것이우리의분석결과로나왔다. 그리고정치경제학이이적대성의언명말고다른것이아니므로, 바로이에의해정치경제학은극빈층의존재긍정과조직이라는것이사실로드러난다. 그러므로노동이어떻게원시적빈곤을추방할것인가를아는것은더이상문제가아니다. 그것은오래전에사라졌다. 문제는우리가어떻게노동의고유한폐단에서, 혹은더제대로말해서노동의잘못된조직에서, 정치경제학에서나오는극빈층을제거할것인가다.

산업진화의첫순간에여러산업의분업혹은분리가나타난다. 토지는텅비고모호한상태를중단한다. 노동자들로뒤덮이고전유에의해비옥해진다. 노동은분업을통해초자연적다산성을획득한다. 그러나동시에이분업이행해지는방식으로인해노동이일꾼을무더지게만들면서노동은급속히자기자신의밀으로추락하고불충분한가치만을내놓는다. 생산물의풍부함덕에소비를유인한다음임금의미약함때문에노동은일꾼에게부족해진다. 빈곤을추방하는대신이를다시불러들인다. 노동분업은집단적존재에게유해한산업들이이를실행하는자들에게작용하는것과마찬가지로작용한다. 집단에풍부함을마련해주면서중독시키고, 생명으로초대한후에죽음을다시빠뜨린다.

그러므로여기서빈곤은노동의고유한해악이다. 부족을일으키는것은자연도섭리도아니다. 균형을결여하는것은경제적일상관행이다. 비난할필요가있는것은그것뿐이다. 파편적분업에서결과로나오는모순이더고도의조합을통해극복될수없음을아무것도증명해주지않는만큼더욱더그렇다.

정치경제학자채는이를감지했다. 그리고새로운기관인기계에게도와달라고서둘러호소하는것은이때문이다.

분업에결합된기계들의도움으로 50 평방리외 (800 평방킬로미터)의면적에거주하는 10 만노동자는야만인 10 억명보다더많이생산한다. 이야만인들은땅을굽기위한손톱만가지고서, 먹잇감을잡기위한손, 이를공격하기위한발만가지고서또한생존을위해지구면적의열배가되는토지면적을필요로할것이다. 그리고산업적발명의한계는획정이불가능

¹ 맬서스, p.472. édition de Guillaumin.

는다고. 그는자기자신의소위인불행을겪으며, 이불행에대해자연과섭리는그에게항의한다. 한세기가뒤틀리며미국의유럽인들은이광대한대륙의원주민모두가수천년동안거두어들인부와행복보다더많은것을창출했다. 그리고미국의새로운인구가 25 년마다두배로늘고또두배로늘기를계속하면서이인구는그의경이로운활동을통해홍인종들의야만상태가이전에창출한비참한자들보다더많은행복한자들을만들어냈다고말할수있다. 아메리카가숨긴부와행복의보물들은물론인간이이를취한수고의값어치가있었다. 그리고 30 세기동안인간이절제했다면이에대해책임을질것은정치경제학도섭리도아니다.

그러므로인간의빈곤에는불의없이자연에미룰수없고여러세대들의신속함에도불구하고오직인간의무기력에서유래하는몹이있다.

현재문명인을사로잡는빈곤이또한야만인의빈곤과마찬가지로필연적으로, 그리고언제나때이른것이아닌지, 그것이그정당한시간에앞서생겨난것이맞지않는지, 그리고그것이노동의부재가아니라노동의조직적해악을유일한원인으로한다는것이맞는말이아닌지를아는것이중요하다. 이경우에문명인도야만인과마찬가지일것이다. 그의빈곤은오직그에게만속할것이다. 그는그자신이필요한일을하지않았고그의근면으로써그를구제할필요를독촉하지않은한에서자연을비난할수없을것이다. 왜냐하면야만인의빈곤이온전히그의능력들을둔함에의존하는것처럼문명인의빈곤은질서의결여를유일한원인으로하는것이맞다면, 완벽한조직적상태에서는인간의분별력이다른어떤방식으로개입하여떠한인위적조치든지동원해서균형을재확립할필요없이, 빈곤이다시금일정시간연기될뿐아니라인구와생산사이에수준을재확립할구체적힘이존재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인류가이가설을입증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를사람들은느낀다. 그러한가설이진실이된다면빈곤은인간의무기력에서유래하는것이든, 산업조직의해악을원인으로하는것이든, 무한히피해지게될것이며, 우리운명의문제, 세계운명의문제는완전히다른면에서등장하게될것이다.

그러는데, 이중요한입증을우리는그부제목‘빈곤의철학’이충분히정신을환기시키는이저작물에서행했다.

노동은부의원리이고가치들을창조하고측정하고비율을만들어주는힘이라고우리는말했다. 측정하고비율을만들어주는것, 이는또한분배하는것이다. 그러므로노동은모든혈벗음을겪을위험에대해사람을보장해주어야할것으로보이는다산성과동시에균형의잠재력을지닌다.

그러나효과를나타내려면노동은정해지고규정될, 즉조직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우리가여러번언급한것처럼관념들에는분별가능성과발현의하나의조건만있는것처럼, 사물들에는효능과지속성의하나의조건만있기때문인데, 이는규정이된다는조건이다. 노동이규정되지않는한,

의해보전된다. 유기적존재들은무기체세계처럼운동의영구성을누리지못한다. 그리고영구적행복의관념에도순이없음에도불구하고자연의설명할수없는취약성때문에이영구성은불가능하다. 우리의기쁨은눈물을먹고산다. 우리의행복의보증수단은빈곤이다. 이대비가이성을위해일치의필요성을내포한다는것을사람들은부인하지않는다. 그러나이일치, 선과악이상위의사실로해소되는이조건을어디서발견할것인가? 어떻게이를상상할것인가? 그리고고생하느냐즐기느냐, 존재나비존재나이의이원론을넘어우리는무엇을상상할수있는가? 행복과고통은아我和비아非我和마찬가지로, 정신과물질과마찬가지로세계의두극으로서, 그것을넘어서는더이상중합이없고, 관념이없다. 그것들없이세계자체가없으니말이다. 이러하다면, 우리운명의비밀을더찾으려고해야할것이무엇인가? 노동이무슨소용이며, 우리의희망은어떤것일수있는가? 우리의운명은빈곤이다. 우리의노동은빈곤이다. 우리의희망은빈곤이다. 사회주의는그과제의반박에채우지못했다. 빈곤의원인들로서돈, 경쟁, 독점, 결혼, 가족, 소유권, 자유와정의를폐지한후이공동체의위선에서멈추는대신그것은또한노동을금지하고절망을설파해야했다. 사회주의는자살을그최종교리로삼는다. 왜냐하면산업, 학문, 예술에서언제나발전하는것이인류의법칙이라면진로중에내딛는발걸음마다자기피로도장을찍는것은사람에게필연이기도하기때문이다. 그가점점더쓰라린죽음을맞는것, 죽음이그의감정의섬세함, 그의애정의생생함, 그의작업들의다산성, 그의열심의깊이, 그의쾌락의기쁨을속죄하게하도록하는것은필연이다. 생명만큼많은형태를취해사람의심장, 감각기관들, 이성을공략하고그사람을백만번제거하는죽음말이다. 죽음! 이것이야말로우리의궁극의이유이며, 이야말로세계의신이다! 사람의최후는짐승과같다 (Finis est hominis sicut jumentum). 그런데우리가무에서빠내어진것이오로지죽기위해서라면우리에게, 우주에게그로부터빠져나올필요성은어디있었는가? 창조, 생명, 필연, 섭리, 신과인간, 모두가부조리하다.

이게무슨정신착란인가! 이와관련해서그리스도교인경제학자들은다시일어선다. 웬불경한발광인가! 그들은말한다. 그렇다. 사람의최후는짐승들의최후와같으며, 맬서스의법칙은사람을차별하지않는다. 하지만이법칙은현생에만포괄한다. 우리의진정한생명은결코이승이아니다. 우리를나타내게하고사라지게하고선과악을불균등하게배분하고개인처럼종종에게다치는우리운명의이불완전성은궁극적생명의실험, 준비, 전주곡말고다른것이아니며다른것일수없다. 우리는거짓말하지 않으며, 우리내장의밑바닥에행복의욕구와함께불명성에대한예감을놓아둔자의말을보증으로삼는다. 마지막숨을내쉬후영혼의영속성, 더 나은세계에서의부활, 이야말로자연의보완물이고생명의목적이고섭리의정당화다.

내가그에관해무언가를보도록하는것까지는아니라고해도단지내이성에그것을접근가능하게할수있다면이위로가되는유토피아를내가사랑의마음으로받아들일것이며, 열정을가지고이를포용해야할것이다! 하지만우주바깥에, 피조물계열의바깥에무엇이있을수있는가? 내가그일부가되는저주의세계가무한과같다면, 당신은내가기쁨의세계를어디에위치시키기를바라는가? 시간바깥의시간, 공간바깥의공간, 필연바깥의이성을어디서발견하는가? 슬픔이더이상도발하지않고자극하지않는선은어떻게상상하는가? 자아와비아의절대적분리, 물질과정신의분리를내포하는, 내오성의모든원리를질식시키는불멸성을어떻게형상으로떠올리는가? 영혼불멸의가설은확실성의기초를뒤집는다. 끝으로, 내가그일부가되는분해된창조세계와마찬가지로현저한, 신적무능의증거는어떻게내게불가능한존재에기초를둔분간이안되는혁신의담보가될것인가?

기하급수에따른인구증가, 산술급수에따른생존수단의증가, 이정리는대수학의모든정리들과마찬가지로증명된다. 한마디로정치경제학은인류에게사형선고를내렸고, 섭리에유죄판결을내렸고, 필연의오류를입증했고, 자연에나인을찍었다. 이야말로내이성이나로하여금고백하게하는것, 내감각들이내게보고, 만지고, 느끼게하는것이다. 사람들이내고통을누그러뜨리려고내게말하려하는모든것은그고통을더아프게만드는데소용될뿐이다. 그리고내비탄은이를극복하기위해상상된모든이유들에서더심각한것으로소생한다. 아니면정치경제학은중상모략을한것이다. 그리고어떻게이를확인하는가? 숫자의법칙이정치경제학을정당화할때어디서이를반증할논리들을찾는가? 사실들이정치경제학의편일때이를거짓이라고반박하는증거들은어디있다? ... 아니면자연, 필연, 신그리고인간은무의꿈들일뿐이다. 우주는한편의악몽이다. 이밤에얼마나황당한논리이며, 이죽음에웬철학인가!

그렇지만나는최종분석을시도할것이다. 체형을선고받은죄인처럼내판결문의낭독을즐기기위해서일뿐일지라도말이다. 나는마치내가더발견할수있는듯이, 마치과학의금언들, 백세기의증언에호소하는것이가능한법정이있는듯이, 내부에서나를사로잡는, 외부에서나를짓밟는사실을구한다. 모든희망에역행하는희망안에서 (In spem contra spem)! 불행한자여, 절망에굳게맞서라. 정치경제학은나를하도 많이속여서나는그것에이불신의증거를보여주어야만할의무가있다. 그밑에신비가있다. 그리고내가다시시도하는데는정치경제학이이를들먹이는것으로충분하다. 정치경제학은죽음이그것을도와주러오는것아닐까? 그런데죽음이이보조자를빼앗긴채단한걸음만후퇴한다면, 죽음이이후퇴하는행진으로정치경제학보다내가우위에서계해줄지누가아는가?

정치경제학은우리에게이렇게말한다. “나는여러분모두에게말을줄수없소. 왜냐하면여러분은내가여러분시중을들수있는것보다더빠르게

오기때문입니다. 이는소집을받은자들은많지만뿔뿔한자들은별로없는이유요!”

너무많은그의젓먹이들에대해평계를대기전에정치경제학은자기의무를이행했음을증명할필요가있다. 우리는일찌감치죽음에바쳐진다. 정치경제학은우리의형집행을준비하고, 청원하고, 가속화한것이아닐까? 정치경제학의실책을완화해주는데소용이되는이빈곤은부분적으로그것의작품이아닐까? 범죄가쏟아지는자가범죄를저지른다 (Is fecit cui prodest)! 정치경제학은우리를사멸시키는데관심을가진다. 정치경제학은거짓말을했다.

II. 빈곤은정치경제학의소행이다

나는아직빈곤이무엇인지전혀모른다. 하지만나는한가지는확신한다. 그것이생산보다앞시대에오며, 노동의척박성이이를허가하기전에우리를덜친다는것이다. 이사실은멜서스가이야기한사실들중어느것이나마찬가지로증명된것으로서내가이작가의이론에들이대기를원하는유일한사실이다. 이는내가이이론을완전히뒤엎기에충분할것이다.

나는우선인류의존재에서두주요시기를구분한다. 야만상태는본질적으로정태적인시대로서사람이노동을몰라서도양의자연산물로, 그리고동물들의날고기로만살아가는시대다. 그리고문명은본질적으로진보적인시대로서사람은근면해지고, 재료를변형시키면서자기산물로생존한다.

앞선시기에빈곤, 즉보급품의고갈과일차필요물품의부족은그사람의게으름, 그의여러능력들의일반적무기력을직접적이고즉각적인원인으로한다. 생산적노동을통해무기력에서나온이빈곤을완전히제거하는것은아니라도적어도연기하는것이가능했으므로, 사람이자연력을취해자연력이줄수있는모든것을내놓도록하기오래전에빈곤이생겨났으므로, 그러한빈곤이너무이른시기에생겨났다는것, 합당한시간에앞서생겨났다는것, 따라서그것이비정상이라는것이명확하다. 그리고야만상태에서사람의무기력은영원하니또한시기적으로앞섬에도, 그리고이에의해빈곤의비정상성에도영속성이있다.

이야말로우리가정치경제학을야만민족들을죽이고급감시키는빈곤의원인이라고고발하는경우에그것이자기를방어하기위해아주옳게말할내용이다. 정치경제학은이렇게대답할것이다. 조금더뒤에가서그의노력의에너지와지성에도불구하고빈곤이문명인을다시사로잡는것이가능하다고. 그러나인간이빈곤을멀리하기위해그에게달려있는모든것을행하지않은한, 그의노동으로써그가, 말하자면섭리에게독촉하지않았을한에서는그사람은학문을비난하고불평을발설할권리를지니지않

피에르조제프프루동
경제적모순들의체계혹은빈곤의철학제 2 권
1846 년

kr.theanarchistlibrary.org

는결혼전에, 그리고번식기동안죽는자들을빼면인구는정태적이될것이며, 심지어자발적으로후퇴하게될것이다. 이런것이루동박사의견해다.

그러므로여기서는예방도없고, 억제도없고, 장애물도없다. 균형이사회의도덕관념과경제에아무런폐단도없이사물의본성에서나온다.

유감스럽게도이이론은그원리상으로는아주합리적이지만오로지생리학적이고완전히사회경제학바깥에있다는회복할수없는결함을가진다. 이로부터루동박사에대해의료계의동료들이할필요가있을비난, 우리의자격에속하는것은아닌이비난과는상관없이, 이로부터우리가그의체계에속하는것으로보려고하는악들이나온다고나는말한다.

우선이체계는수유의법칙이결코관찰되지않았다면저자 자신의결론에따를때어떻게인류가증가할수있었는지를짐작하지못한다는의미에서보수주의와심지어자의성이뚜렷한특성을제시한다. 인구가첫번에균형을찾았다면더이상증가할여지는없었다. 그러나인구에게증가할여지가없었다면생산에도증가할여지가없었다. 그리고이야말로산업, 과학, 예술, 도덕관념이, 인류가간헐적이다. 인류가그진로에서제지당하면더이상진보적이고섭리적인존재가아니다. 인류는변함없이신으로있으며, 짐승이다. 루동박사의실무를당신마음에드린인류의시기에적용한다면문명은 3 년수유덕분에곧멈추고우리는경계석들이된다. 더일찍결혼하고수유기간을 18 개월로줄여서이를치유하기가쉽다고말할것인가? 나는이것은조롱하는것이라고대답한다. 사회의진보는이처럼인간의자의에맡겨질수없다. 우리의자유는숙명의한계안에포함되어야하며, 우리의본성은늘어놓는것이지, 초월하는것도다시만드는것도아니다. 게다가 3 년의수유기가젓먹이에게필요불가결하다면, 당신은그에게잘못을하지않으면서젓을뺄수없다. 반대로이 3 년이필요불가결하지않다면, 이론은무엇이되는가?

이처럼우리는이미더이상처음볼때루동박사의체계가우리에게기대하게한이자연법칙, 홀로, 그리고사람의도움없이사회와개인생활의모든순간에중단도, 불규칙한요동도없이작용할법칙을발견하지못한다. 이체계에서는모든다른체계들에서처럼자연은아무것도계획하지않았다. 그리고사람이갑자기절제에의해서든, 적출에의해서든, 작업중단에의해서든, 성매매에의해서든, 끝으로생식기관을희생시키는수유기관 의서비스연장에의해서든그생식의진보에개입하지않는다면, 인구는그순간범람하고, 식량은부족하고사회는교란되고죽는다! 이는여전히동일한계변이아닌가?

그리고어떻게그사회적역할이점점커지는여성들에게, 네자녀의어머니에게는 16 년의노예살이가될끝날줄모르는이수유노동, 상당부분자녀들의생명력에무기한노예살이의노동을부과할것인가? 사람이동물성의억압에서해방되도록그에게지성이주어졌다면, 그가자기유기체의법칙들을해석하고사회의더높은법칙들에따라이를변경할자리가여기

가아닌가? 나는가난하고혈뱃은유목민안에수유기의연장이있다고생각한다. 거기서아기는너무거친음식을섭취할수없어서자기한테젖을먹이는여자의품말고다른수단을가지지않는다. 그러나노동이우리에게주는행복과함께, 사람이동물들에게행사하는지배력과함께, 동물들의암컷이사람에게아주소중한젖먹이는여자가되어여성의처지는달라진다. 그러니여성에게 60 세기의문명에의해폐지된법칙들을다시지키게하는것은정말로여성을짐승으로되보시키는것이다. 3 년수유는여전히하나의빈곤으로다른빈곤을대체하는것이다. 이와관련해서루동박사의이론은또한부도덕성을지닌다.

다시금다른모든이론들처럼멜서스의잘못된가설에서태어난이이론도해결하겠다고나서는난점을더잘공략하지못한다는것을언급하자. 3 년수유의관습이어디서나자리잡았다고잠시가정하자. 인구는정체된상태로있으며이는경이롭다. 하지만빈곤은인구가아니라독점을근원으로하고끊임없이생산과노동보다앞서니빈곤은여전히제갈길을간다. 이처럼빈곤이계속해서세상에서사람들을없어지게해서, 곧어쩔수없이노동계급의손실을복구하기위해조혼과수유기의단축으로인구를촉진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이는우리들여전히뒤죽박죽으로만들어놓는것이다.

끝으로 3 년수유체계는또한인구와지구의관계에서의인구문제를더애매한상태로둔다는것을볼수있다. 왜냐하면둘중하나이기때문이다. 3 년수유에도불구하고여성들이여전히인구가증가하도록충분한자녀를낳을거시다. 그리고이경우에이증가의한계는어디일것인가? 아니면, 인구가정체상태로있거나심지어되보할것이다. 그러면인류안의모든것이정체하고되보하게되며, 이정체에의해, 이되보에의해인류와인류가거주하는행성의관계는무가되고사람은땅에서이방인으로남는다. 이는터무니없는것이다.

요컨대, 경제학자들만큼이나사회주의자들이제안한인구문제를위한해결책은, 이들이모두잘못된가설의당파들이고자연에밀접하고경제질서에본질적인아무것도도의존하지않는당파들이어서모두잘못되고, 모순적이고, 실행불가능하고, 무능력하고, 부도덕하다. 사람이자신의산업활동영역에서발견했다고상상하는것처럼자신의애정활동영역에서생산하지않으면서즐기는비밀을발견하도록하라. 그러면우리는우리가노동에서관찰한것, 경쟁, 신용과소유권을사랑, 결혼, 그리고가족에서보게될것이다. 우리는사랑이발작적이고신경질적인흥분으로바뀌는것, 당황스러운투기거래가교환을계승하는것처럼혼거混居가부부의신실함을계승하는것, 사회가독점때문에부패한것처럼여성들때문에부패하는것, 정치단체가결국부패에빠지는것을보게될것이다. 이는인류의소행일것이다.

그러므로문제는온전히남아있다. 이제우리가할일은새로운탐구를 시도하는것이다.

인류의인구는 1, 2, 4, 8, 16, 32, 64...의무한한기하급수에따라증가하는경향을띤다는것이증명된다.

다른한편, 바로이인류의자본과부의발달은 1, 4, 16, 64, 256, 1024, 4096...으로무한히나가는더빠른급수를따르며, 그각항은앞의급수의상응하는항의수의제곱으로간주될수있다는것이증명된다.

이두급수는평행을이루고연대관계로서풀수없는연계로서연결되는데, 서로를원인과결과로활용하며, 게다가엄밀한진리를표현하는것보다는경향을서술하는데소용되는것들로서그항들각각에서동일한시기에종속된다.

이첫번째사항이확인되었으니, 남은것은사람들과생산물들로서지구전체표면을넘치게하는데서두세세기로충분할때증가가세상의전체지속기간동안동일한강도로유지되기는기하학적으로불가능하니생산물에서만큰인구에서인류의증가하는이경향이어떻게스스로를제한하는가하는것이다. 그런데신이우리에게생육하고번성하라고, 그리고땅에충만하라고명령했다면, 그는우리에게경계를넘어가라고말하지않았다. 그계명의내용이홀로이를가르쳐준다.

그러면인구와부에서인류의증가의자연적한계는무엇인가?

우선인구의두배증가와부의상응하는네배증가가이루어지는시기는본질적으로가변적이라는것, 그합법칙성이나비정상성을우리가아직전혀탐색할필요가없는다양한원인들의작용속에서그시기는차례로 14년, 18년, 20년, 25, 50, 100년, 500년, 1000년, 그리고그이상이드는것으로밝혀졌다는것을관찰하자.

그런데벌써이배증시기의유동성이문제의해결책을포함한다는것이명백하다. 이시기가무한히연장될수있다면인구와생산이언제나증가하면서정체하는상태로있게될순간이올것이니말이다. 유일하게중요한것은그시기의연장을결정하는원인, 그리고따라서인류의수치적부동성을결정하는원인이일체의억제, 억압과자의에서해방된사회조직에밀접하다는것, 그것은우리의여러능력들의충분하고자유로운행사에서나온다는것이다. 중요한것은그로부터결과로나오게될균형이인류전체에서느껴질뿐아니라인류의부분들각각, 민족, 도시, 가족, 개인에게서도느껴지는것, 다소먼미래시기에만아니라역사의모든시기에, 사회생활과개인생활의세기마다, 날마다, 매분느껴지는것이다.

그런데아직미지인이원인, 모든외관상으로는인류에게더현존하고, 사회와인간에게더밀접한것으로존재할이원인을, 노동의총합이감소하는대신끊임없이증가하며, 노동자들의수에비례해서만이아니라산업,

과학, 예술에서 성취되는 진보에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 그래서 행복의 증가는 진정으로 인간에게는 그의 과제의 증가를 표현할 뿐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파악할 것이다. 실제로 노동의 이 증가로부터 우선 생산물 배증의 시기는 끊임없이 연장되어 인류가 여전히 노동은 하면서도 아무런 축적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자본화를 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결과 될 것이다. ... 인간의 생산은 그때 그 최대에도 달했을 것이다. 인구가 같은 발걸음으로 따라가면서 이 최대치에서 어떻게 멈출 것인지를 아는 일이 남을 것이다. 인구와 생산의 이 두 항목은 필연적으로 연결되며 연대적 관계에 있으니 말이다.

우선은 노동에 전념하자.

노동은 사람의 첫 번째 속성, 핵심적 성격이다.

사람은 노동자, 즉 창조자요 시인이다. 그는 관념들과 기호들을 내놓는다. 자연을 개조하면서도 자신의 밑천으로 생산하고, 자신의 실체로 살아간다. 이는 대중적인 문구인, 자기 노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러므로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노동하며, 자연이 결코 만들지 않은 것들을, 신에게 그 능력들이 결여되므로 창조할 능력이 없는 것들을 존재하게 한다. 이는 인간이 그의 능력들의 특수성 때문에 신적 권능이 성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경쟁자인 인간은 신과 똑같이, 그러나 신과는 다르게 노동한다. 말하고, 노래 부르고, 글을 쓰고, 이야기하고,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고, 여러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로 자신을 그리고, 자기 존재의 기억할 만한 행위를 기념하고, 기념일들을 제정하고, 전쟁 때 문에 화를 내고, 종교, 철학, 예술로써 자신의 사고를 부추긴다. 존속하기 위해 자연 전체를 사용한다. 이를 차지하고자 기적으로 만든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는 밑그림을 그리고, 의식과 취향을 둔다. 그러나 더욱 경이로운 것은 노동 분업에 의해, 그리고 교환에 의해 인류 전체가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것, 그렇지만 각 개인은 이 행위 공동체에서 자유롭고 독립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의무들의 호혜성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사회성 본능을 정의로 전환하고, 자기 말에 대한 담보로 자신에게 형벌을 자초한다. 오로지 사람을 구분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노동의 형태, 속성, 법칙들이며, 우리의 생명의 방출, 우리 영혼의 유출로 간주될 수 있다.

동물들은 그들의 의식을 초월하는 이성의 지배 아래 움직인다. 인간만이 자기 노동의 의식하고, 자기의 의식의 도움으로 자기 이성을 형성하므로 노동한다. 우리가 비유로 노동자들이라고 이름 붙이는 동물들은 두적대적 창조자들인 신과 인간 중 하나의 손안에 있는 기계들일 뿐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생산하지 않는다. 때로 그들을 우리에게 접근시켜주는 것 같은 외적 행위들, 동우리에서 살고 먹을 것을 비축하고, 옷을 해 입는 여러 동물들의 내재적 재능은 도덕성면에서는 유기 생명체의 운동들

과구분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선 완벽하며, 가능한 완성의 여지가 없다. 의식의 관점에서 누에의 소화와 그것의 천짜기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알을 품는 제비는 어떤 점에서 집을 짓는 제비보다 열등한가?

그러므로 노동은 무엇인가? 아무도 아직 그것을 정의하지 않았다. 노동은 정신의 배출이다. 노동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지출하는 것이다. 노동하는 것은 한마디로 헌신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유토피아 주의자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헌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헌신은 노동이며 그 업적에 의해 표현되고, 측정되는 노동이다.

사람은 마라톤의 병사처럼 열심의 노력에서 자기 영혼을 소진하든, 우리 공장들의 인부처럼, 우리 들판의 농민처럼 50년, 60년의 노동으로 자기 생명을 소진하든 노동과 헌신으로 죽는다. 그는 노동하므로 죽는다. 아니, 더 제대로 말해 그는 노동자로 태어나므로 죽기 마련이다. 사람의 지상 운명은 불멸성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동물들은 그들의 생명을 지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는 인간과 공통인 것밖에 말할 것이 없다. 이는 생식이다. 어떤 종들에게서는 생명은 재생산의 순간까지 지속한다. 이지고의 행위가 완수되면 개체는 죽는다. 그는 자기 생명을 소진했으며, 더 이상 생존 이유를 가지지 않는다. 꿀벌과 개미처럼 노동을 한다고 하는 종들에서는 성은 조금도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개체들에게 남겨진다. 일하는 것들은 성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사람이 종속시키는 동물들 중에 그가 자신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들은 곤활력을 상실한다. 그것들은 어리고 물러진다. 노동은 그것들에게는 조속한 늙음과도 같다.

결과적으로 노동은 짐승들의 처지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거된다면 자연에는 절단, 쇠퇴, 그리고 이어서 죽음으로의 지향이라는 연속적 해결책이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자연에서는 균형이 파괴에 의해 성립한다. 초식동물, 설치류 등은 식물 의 왕국에서 살며, 육식동물에게 먹이로 소용되지 않는다면 이를 곧 소진시킬 것이다. 육식동물들은 모든 것을 잡아먹은 후 서로를 잡아먹으며 결국 사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멸종은 자연에서의 순환과 생명의 법칙으로 나타난다. 사람은 동물로서 같은 숙명에 종속된다. 그는 자기 생존 수단을 두고 고래, 상어, 늑대, 호랑이, 사자, 쥐, 독수리, 곤충들과 다투어 이 모두를 쫓고 죽인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에게 전쟁을 걸고, 자신을 잡아먹는다.

그러나 보편적 생명의 원이 담히는 것은 결코 이런 식이 아니며, 현대 화학이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계시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인간은 피와 살의 형태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빵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며, 이는 그의 노동의 산물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Hoc est corpus meum). 노동은 빈곤의 예상을 멈추고 식인 풍습을 끝맺는다. 사납고 신적인 신화를 인간적이고 섭리적인 리가 계승한다. 노동에 의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동맹이 형성된다. 그리고 자

연의영속성은인간의자발적희생에의해보장된다. 주님이맺는언약의피다 (Sanguis foederis quod pepigit Dominus). 이처럼종교적전통은경제적진리에서기한이끝났다. 이는예수그리스도와멜기세덱의성찬희생을예고했으며, 이는예전에는아론과노아의희생이표현한것이고, 더옛날에는또한토리드 Tauride³의인신희생도이를가리켰다. 현대의노동제도는이를새로이예고하고선포한다. 우주는사람이사람을먹는원리위에세워졌다는것이고다른말로하면인류는스스로를먹고산다는것이다.

그러나인류가자기노동으로먹고산다면, 말하자면자기자신의생명을먹고산다면, 인류의실체, 따라서자신의생명력은필연적으로그의산업적방출에비례한다. 그런데이방출의위력은무엇인가?

우리는정치경제학의가장중대한사실로철학자의명상을가장자극할만한사실에달한다. 이는노동의증가, 혹은더제대로말하자면, 가중을말하고자하는것이다.

상업이아무것도아니고각자가모두자신만을위해생산하는때인미분할의시대에는노동은그다산성이최소에있다. 부는개인들의수와같이증가한다. 그때에는땅은소수의주민들만부양할수있다. 야만인앞에서는땅이줄어드는것같다. 인구는끊임없이멜서스가지적한비율에따라생산을앞서가는경향을띤다. 그리고곧모든방면에서그한계를밀어붙여절정에달하고죽는다.

노동의분업, 기계, 상업, 신용, 그리고모든경제적장치와함께땅은사람에게무한한자원을제공한다. 이때땅은그것을개발하는자앞에서확장된다. 복리는인구를앞질러간다. 부는노동자수의제공으로성장한다.

그러나인구와생산의이중적운동과는별도로현재까지경제학자들이무시한, 그리고사회주의는더구나보지않으려고한또다른운동이발현한다. 이는내가말해온것처럼노동의가중화다.

조직된사회에서노동의총계는분업, 기계등에의해항상감소하는것으로보임에도반대로집단적노동자에게, 그리고각개인에게계속해서증가하며, 이는경제발전의사실자체에의해이에비례한다. 그래서과학, 예술, 그리고조직에힘입어산업이완성될수록노동은모든사람에게강도와지속성(질과양) 이증가하며, 따라서상대적생산은감소한다. 그리고이런결과에도달한다. 사회에서생산물의다양성은노동의배증과동의를어다.

이는내가이해시키려고노력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리카도의이론으로돌아가보자. 품질이다른네토지 A, B, C, D 가동일한비용과같은면적에대해서 A 는 120, B 는 100, C 는 80, D 는 60 을생산하고있다고하자. 이네토지의지주들을서로비교해본다

³ 고대의크림반도를일컬음.-역자주

면첫번째지주는부자이고, 두번째지주는안락하고, 세번째지주는수입과지출을맞추고, 네번째지주는가난하다는것이명확하다. 그러나집단적인간에대해서이재산의불평등은무엇을의미하는가? 이는한편으로사회가제 1 급의토지경작으로부터하급토지의경작으로넘어갈수록실제로가난해졌다는것이다. 이는둘째로, 그사회가첫째종류의토지를개발이용하면서만났던복리를보전하기 위해서는그사회는같은토지표면적에대해도질이어떠하든지생산물을증가하게해주는작용수단을발명해야했다는것이다. 그런데사회는불균등한토질이야기한빈곤을극복했을뿐아니라그자본과원시적인복리를증대시켰다. 사회는이복리를처음개간한노동자들을위해서만이아니라그에뒤이어나온모든이들을위해증대시켰다. 그러므로인간은점차토양의무기력을보충하고자기실체의항상더큰양을재료에들어가게하는것이필요하다. 한마디로말하면언제나더많은노동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사물을어떤식으로바라보든지, 복리는토지의증가하는불모성과소비자들수의배증에도불구하고증대되어제거할것으로남아있을특권과교란요인들을제외한다면노동의총계역시사회와각개인에게필연적으로증대했다.

이점에서우리에게환상을갖게하는것은기계의도입으로야기된가치의진자운동이다. 순간적인교란후에는언제나우리에게복리의증대를가져다주어실제로는우리의업무의축적만을나타내는반면에휴식을향해내딛는그만큼의발걸음으로우리에게여겨지는진자운동이다.

실제로기계는무엇인가? 노동의요약된방식이다. 그러므로기계가발명될때마다과잉의필요, 빈곤의압박이있는것이다. 노동은더이상제공하지않았다. 기계가나타나균형을재확립한다. 흔히심지어휴식시간을마련해준다. 이관점에서벌써기계는노역의악화를증명해준다.

그러나다시한번물노니기계는무엇인가? (나는여기서독자의모든주의를촉구한다) 자신의경찰, 예산, 인원, 비용등을가지고직간접적으로다른모든생산중심들이그에종속하는특정한행위중심으로서모든다른생산중심들각각에대해그것은하위관련을맺고있다. 이처럼기계는이익의원천인동시에지출의구심점, 노예신분의근원이다. 왜냐하면산업이어떤기계를가동하든지원동자는여전히사람이기때문이다. 사람이만드는기구들은사람이그것에전달해주는, 그리고그가계속해서갱신해주지않을수없는잠재력말고는잠재력을가지지않는다. 사람이기계에더많이둘러싸일수록그는더많은감독과수고를자초하는것이다. 조종사, 운전사가한순간기관차를방치하면, 예언자가말하듯이 (바퀴들안에영이있었다 spiritus erat in rotis) 그정신이바퀴에생명을불어넣는것같은경이로운차량은그순간멈춘다. 기사가단하루방들을방문하기를그치면그차량은여섯주를계속가지못할것이다. 광부가그것에연료를공급하기를중단하면결코움직이지않을것이다.

그런데 결국이들어보지못한노력은무엇을지향하는가? 이천재성의 발취, 이거인의작업은왜하는가? 땅에서우리에게거절하는부를획득하기위해서, 이전까지는불모였던지역을비옥하게하기위해서, 그리고 36 등급, 72 등급의토지를활용하기위해서다. 산업시설은사막의개발이용을위한가축입대차다.

그러므로우리가새로운발명마다, 개간때마다매번앞서획득된복리의수준으로유지해가기를원한다면, 우리가이복리를심지어증대시키겠다고한다면, 우리각자가마지막토지의개발이용이요하는지출에서자기몫을하는것이절대로필요하다. 이것없이는처음에가장부유한형편에처한자, 예를들어토지 A 의지주는곧가장가난한자가될것이다. 그러므로결국우리가인구와부에서진보를더많이이룬다면우리의노역또한더욱가중될것이다. 그토록참된명제에더우아한공식을제시하지못하는것을아쉽게생각한다.

나는 (제 4 장에서) 노동증대의증거로서철도의예를인용했다. 거기서노예노동이무섭게증대하는것을보게된다. 나는광산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한마디할것이다.

자연이우리에게식물연료와과학이아직파악할수없었던, 그러나미래가우리앞에서달하는것을우리가보고싶지않다면곧우리가의존하는것이필요할열과빛의보편적매체사이의이행단계로마련해준듯한이광대한저장고안의석탄을퍼내는것보다겉모양으로보기에더간단하고그보다비용이덜드는것이무엇인가? ... 그런데노동이첫번째노출을공략하고나자, 곧바로하나의산업, 하나의과학이엄청난규모로조직되어갑자기거기서솟아난다. 나는광물개발이포함하는엄청나고복잡한작업의세부내용에는들어갈수없다. 간단한전문용어가내목적에는충분하다.

광산인원에는소장, 엔지니어, 사무원, 총감독, 채탄광부, 수레꾼, 수레미는사람, 소모는사람, 하역인부, 갱목공사인부, 수리공, 도로작업자, 성토인부, 석탄운반차적재인부, 마부, 광부, 선광인부, 석탄검수인, 물검수인, 기계운전자, 운전사, 석고작업인부, 돌고르는사람, 수공노동자, 석고작업자, 짐수레꾼, 대장장이, 석탄운반차작업자, 화물차적재인, 석수와하인이있다. 물론나는잊어버린다. 루아르광산의외출명세서상의목록을취했을뿐이다.

그런데, 갱을굴착하는데, 도구를만드는데, 채굴에서사용되는자재를운반하고채취된석탄을운반하는데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들을추가하라. 연료의부족때문에필요하게된이모든세계를유지하기위해, 이모든지출들에직면하고앞서획득된복리를보전하기위해, 같은규모로농업, 공업및상업수익을증대시키고어디에서나더큰노력, 새로운지출을촉발할필요가있었다. 그리고가능하다면, 말해보라. 원초적노동은얼마나엄청난양으로증대되어야했는가?

모든산업상의기업, 그리고이를대표하는기계들은땅과마찬가지다. 이를번영하게하려면항상증가하는자본이필요하다. 이는부가소멸하고복리가사라지는것을보지않으려면노동자의업무를끊임없이더해줄필요가있다는말이다. 기계의도움으로우리가부유해져서우리의노동을제거하거나줄일수있다고상상하는것, 이는운동의영속성이존재할수없는곳에서그것을찾는것, 끊임없는퇴화에종속되고무기력한존재들에서운동의영속성을찾는것이다. 이는그원인들보다더큰결과들을가정하는것이다. 자연에서아무것도무에서창조되지않는것처럼경제질서에서사람은그자신의품에서끌어내는것말고아무것도생산하지않는다. 그의생명의한계들이그의다산성의한계들이기도하다.⁴

이를더손에잡히는방식으로제시하자. 프랑스의연간생산이 100 억 프랑으로평가된다고하자. 프랑을가치들의비교의계측단위로채택한다면, 인당노동총계는 394 다. 그런데프랑스에서인구가겨우절반만كم도증가하지못한반면생산이 50 년전부터두배이상되어서, 결과적으로프랑스는네배가더부유해지면서 50 년전에하던것보다네배의노동을하는것이된다. 노역의이네배는노동일수의네배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산업과기계역학의진보를고려할필요가있으니말이다. 나는노동이지속시간에서만큼강도에서네배가되었다는것, 증대는영혼과몸에한꺼번에자극을가했다는것을말한다. 이는총계에는아무변동도주지못하는것이다. 기계들은우리에게일정한수작업을줄여주고보충해주기만한다. 기계들이노동을감축시키는것이아니라노동을움기는것이다. 우리가이제까지우리의근육에요구하는것이두뇌로 옮겨졌다. 신체에서지성으로 옮겨지는것이행위의양식이아니라면노동에서는아무것도달라지지않는다. 그러므로사람이끊임없이그에게고유한힘덕분에자연의증가하는관성과그의필요의증대에승리한다는것이증명된다면, 동시에증명되는것은그의노역의총계가항상증가한다는것이다.

노동의이계속적증대를증언해줄사실들은풍부하며, 우리가이사실들을보지않고도외시하는부주의는언제나나에게가장큰놀라움으로닥친다.

파리, 리옹, 릴, 루앙같은산업중심지들에서평균노동은, 지속시간만보면열세시간에서열네시간이다. 종업원들, 하인들과똑같이주인들

⁴ 사람들은과학계에한영국농학자의경험들을알려왔다. 그로부터나오는결과는현저하게더많은수확을얻지않고토지에비료의양을두배로늘릴수있다는것이다. 비슷한증명을하려면 19 세기에살필요가있었다. 죽으로사람을만들어내지않는다. 죽을먹고소화하는것도일정정도로한사람의실험대상, 어린이가필요하다. 마찬가지로어떤사람이자기생존수단을재생산하기위해충분한분뇨를내놓는다는것을증명할때, 사람들이더앞선것은아닐것이다. 땅이필요하다. 밀씨를퇴비더미에뿌려라. 그대는이를준비된토지에뿌릴경우보다수확을덜하게될것이다. 또한그것은값도덜나갈것이다. 그러므로산물을늘리려면경작가능면적으로늘리고, 노동을늘려야한다. 천연비료나인공비료는결코부족하지않을것이다.

도이노예의노역에참여한다. 어디에서나상업에서는일과시간이열여덟시간에까지도달하는것이드물지않다. 아이들과여성들도결코예외가아니다. 입법자는최근몇년간산업이어린이들과여성들에게지우는끔찍한노역에분개했다. 언론은법정에서고발된남용들에서착취자들의탐욕과야만성밖에볼줄을몰랐다. 아무도이착취자들이결국그대리인일뿐인경제적숙명을고려하려고애쓰지않았다. 톱니바퀴들로맷물린우리사회에서노동은자본과마찬가지로멈추지않는다는것, 자본이복리이자에의해증가하는것처럼노동은본업과기계에의해무한히가중되는것을사람들은보지못했다. 노동과자본은창조와시간처럼언제나도달될수없으면서추구되는것들이다. 그러나생산이너무느려서이것이이자의점진적감소의제 1 원인이므로자본이고리대에의해증대할수없고, 노동도자연의계속증가하는관성의힘때문에본업에의해더이상생산적이될수없는시간이온다. 이는인류안에서미성년기가성년기에자리를내주고, 숲을헐떡이는사회가독점과경쟁이옛날에그사회에그리도록했던엄청난진자운동대신미미한진동이상을느끼지못하는시간, 평등이불평등자체안에서진전되며생명에게“너는더멀리가지못할것이다!”하고말하는것같은시간이다. 네가여기까지오고더넘어가지못하리니네높은파도가여기서그칠지니라 (Usque huc venies, et non procedes amplius, et hic confringes tumentes fluctus tuos).

노동의악화를더욱두드러지게하는것, 심지어다른관점에서이를재생산하기만하는것은교육의증대된요구들이다. 생산과소비가동일하고맞물리는두항목인것처럼교육은노동의연습이자행복의연습으로간주될수있다. 향유할능력은, 생산할능력처럼과학과연습을필요로한다. 그것은심지어잘판단해보자면생산할능력일뿐이다. 그리고사람의재능과그의지식의다양성에대해그의필요와수효와본성에따라평가할수있다. 현대사회에서생명의높이에있으려면과학적, 심미적, 산업적으로엄청난발달이필요하다. 그래서즐기기위해서비생산자는생산자가생산하기위해하는거의그만큼노동할필요를지닌다. 특권층의교육에는 25 년이충분하지않다. 그러니이특권층이다시노동자가될때는언제일까?

모든생산자계급중에오늘날가장힘을덜들이는것은농업계급이다. 마지막으로평등에도달할것도이계급이다. 다른데서는어디서나상업과공업노동은극히작은가중도견딜수없는수준에도달해있다. 그러나여기서는반대로나는감히평등이임박해있다고말한다. 평등이노동자들간에아주긴밀하게존재하며예오를이루는개인들, 주인들, 자본가들, 기업가들, 한마디로귀족부분은 5 퍼센트를넘지않는다. 이높은머리들을낮추는것은누구에게도어려운일일수없을것이다.

모든부분에서엄청나게비통한불평이노동의과도함에대해치솟는다. 모든부분에서일군은임금상승과일과시간단축을위해파업한다. 이는명제를내세우고입증하는것이아니라무더지게만드는것과빈곤에맞

서관성적힘으로항거하기만하는일꾼에게는용서가되는일이다. 그러나 노동의필요성을설파하면서도그들의바보스러운애도에의해노동에대한혐오감을품는, 그리고앞으로나아가도록밀어주어야일꾼에게“그만하라”고말하는것같은박애주의경제학자들에게는한심한일이다.

그러면, 우리가더많이생산할수없다면어떻게빈곤을치유할것인가? 부의증대없이, 즉신체적이건지적이건노역의끊임없는증대없이문명의 지난한작업을어떻게추구해나갈것인가? 생산을줄이고물가를높이면서 어떻게빈곤층을물러가게할것인가? 그무식이인기를얻는또하나의자격으로보이는지도자들에게의해부추겨진프롤레타리아가실업때문에품귀品貴를일으켰을때그를위해누가지불해줄것인가? … 우리가처한극단적상황에서임금의모든상승, 그리고따라서물가의모든인하가불가능하게된다면, 이는혁명이가깝다는, 퇴로가우리에게막혔다는신호가아닌가?

나는노동의끊임없는가중화라는웅장하고정말로언적인이사실에 관해내생각을더펼치기를원했지만, 시간이없다. 그리고내가틀리지않다면독자는내게서형식상의증명보다는해결책을더기다린다. 증명은독자가말아서할것이다. … 그러므로노동이그분업이라는사실자체와그것이기계들에게서받는지원에의해인간에게줄어드는대신항상가중화된다는것이사회경제의법칙이라면, 우리의생명은한정성이있고우리의연수와날수는헤아려질때, 동일한가치증대를위해언제나더많은시간이우리에게요구되는결과, 부의내배증가에, 그리고인구의두배증가에필요한시기는무한히연장되는결과, 사회가항상행진해가면서정체상태로있게되는시간이온다는결과가된다.

그러나노동의증대에의한생산의감소는어떻게인구에 옮겨지는가? 이는우리에게고찰할것으로남는다.

첫번째사실이성립되는것으로나타난다. 가치들의창조를주관하는같은힘, 같은생명원리가또한중의재생산도주관한다. 원시언어는이점에서인류의직관을증언한다. 성서에서하늘과땅의사실들은다음과같다 (Istae sunt generationes coeli et terra), 야곱의생의행적들은다음과같다 (Hoe sunt generationes Jacob) 등의단어가노동과생식의 산물들을표현하는데쓰인다. 프랑스어는복수의명칭일 oeuvres 의이중적의미, 라틴어의 generatio 와히브리어의 ialad 처럼, 노동과사람을말하는의미에서이비유를보전했다. 외설적의미에서취해진일을보다 *besogner* 라는옛단어는같은관념에서도출된다. 노동과사랑의친척관계는얼빠진, 어리석은멋과활기를잃은존재에대해서말해지는이인기있는문장에서더심오하게보인다. “그는사랑없이노동한다.”그리고이비유는노동의기계적도구에까지넘어왔다. 사람들은살아있는모서리, 살아있는칼날이라고말한다. 자르는튐, 조이는줄에대해사랑을가진다고말한다.

모두 직관과 감정에서 나온 이 관념의 결과는 노동과 사랑의 자연적 대 관계다. 인민의 자생적 판단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은 두 출구 중 하나에서 나온다. 그중 하나는 다른 하나가 흘러나올 때 닫힌다. 여기서 경험은 본능 의 계시를 확증해 준다. 산업적 능력은 번식 능력을 희생시킨 대가로 행사된다. 이는 도덕과 마찬가지로 생리학의 금언으로 통할 수 있다. 노동은 사랑에게는 생각의 적극적인 원이다. 이는 모든 성욕 억제물 중 가장 강력한 것인데, 특히 그것은 정신과 몸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만큼 더욱더 강력하다.

나는 사람들이 세상의 경제에서 그 중요성을 볼 줄 몰랐기 때문에 별로 주목하지 않은 만큼 통속적인 진리성을 가진 사실에 대해 길게 내 이야기를 펼칠 필요가 없다. 이처럼 맬서스는 아메리카의 야만인들이 고난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을 영위하면서 사랑에는 미미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나 그는 이 불감증이 풍요와 휴식과 함께 빠르게 감소한다고 덧붙인다. 그렇지만 도덕적 억제책의 발명자인 맬서스는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데 40년의 힘든 삶을 바친 사람으로서 진정한 해결책으로 그들이 끌어줄 사실을 일 반화하는데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게다가 맬서스는 노동 증가의 법칙을 인식할 줄 몰랐고, 이 법칙을 넘어서 부의 진보의 법칙, 그리고 이것과 인구 진보의 밀접한 연대 관계를 인식할 줄 몰랐던 때부터 이 사실로부터 거기 담겨 있는 모든 결과들을 어떻게 끌어낼 줄 알았겠는가?

또한 이처럼 경제학자들은 궁핍한 계급의 이상한 다산성을 찾아냈다. 방대한 지식 을 가진 오귀스트 콩트 씨는 심지어 이 현상을 정치 경제학의 가장 주목할 만한 법칙들 중 하나로 지적했다. 사람들은 궁핍이 별로 일하기 좋아하지 않는 그 본성에서 나오고, 가난한 자는 어떠한 지적 인 지출도 없 이 경제적 노역에 종속되어 언제나 아무리 그의 생존 수단이 빈약해도 자기의 한 심한 후세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힘을 보전한다는 것을 동시에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순결은 노동의 동료다. 나태함은 무기력의 속성이다. 명상하는 사람들, 열렬한 사상가들, 이 모든 위대한 노동자들은 사랑의 서비스에는 미미한 역량을 지닌다. 파스칼, 뉴턴, 라이프니츠, 칸트,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심오한 사색 중에 자신이 남자임을 잊었다. 여성은 그들을 간파한다. 이 강인함의 천재들은 여성에게 별매력을 주지 못한다. 사랑스러운 베네치아 여인⁵이 장자크에게 말한다. “여자들은 그냥 두고 수학이나 공부해.” 격투기 선수가 연습과 절제로 원형 경기를 준비한 것처럼 노동하는 사람은 쾌락에서도 망친다. 포도주와 사랑의 약하게 만드 는 즐거움을 끊는다 (abstinuit venere et baccho). 미라보는 그의 체질의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침실의 만용을 법정의 승리에 결합시키기를 원해서 사멸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에서 언제나 우리의 조상들보다 낫게 되는 것이 필연적 법칙이라면, 사랑의 놀이에서 우리가 언제나 용기를 덜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

⁵ 루소의 『고백 Les Confessions』 에 나오는 쥘리에타 (Zuliett) 를 말한다.

떠올린다. 그리고 사회적 모순들의 체계는 나에게 망각의 강위에 놓인 마술의 다리처럼 나타난다.

가지 필연에서 나온다. 인구는 장기적으로 이 불가피한 냉각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는 여전히 억제책이고, 여전히 억압이고, 여전히 절단이라고 사람들은 틀림없이 말할 것이다. 뭐라고! 당신들은 자연을 따르게 하고 이를 인류 안에 균형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생리적 수단들을 금지하고는, 생리학을 들먹인다! ... 아니, 사람이 그리로 끌려가는 꼴을 겪을 것은 황소나 수탉이 처럼 꼬뚜레를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이성과 자유에 의한 것이다. 노동으로 기진맥진해진 그는 사랑할 능력을 상실해서 빈곤을 바꾸기만 할 것이다. 그에 대해 섭리는 언제나 유죄일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계모일 것이다. 그건 그렇고 처방의 효능을 누가 당신에게 보장하는가? 인구를 배증하는 것은 사랑에서의 사치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절육일 것이다. 몇 시간의 휴식이 자연에 그 모든 잠재력을 준다. 너무 오랫동안 억압된 격정은 더 맹렬한 기세로 터진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에는 불티만 있으면 된다. 베르나르(Bernard), 예로니모(Jérôme), 오리게네스(Origène)⁶에게 노동, 단식, 철야, 고독으로써 육신을 복종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잘못된 규율은 휴식, 미식(美食), 여성과의 대화보다 더 많은 부정(不貞)을 만들어냈다. 선택된 그릇인 성바울로는 엄청난 피로 중에도 “나는 나를 괴롭히는 악마를 달고 다닙니다”라고 쓰지 않았는가?

이 열면 불평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사막의 빈궁 가운데 투덜대는 것을 듣는 것 같다. “우리에게 이 집트의 고기와 생선, 오이와 멜론을 달라! 우리 영혼은 말라붙었고 우리는 이 만나를 원하지 않는다!”

관능적인 영혼들이여, 마음을 가라앉히라. 섭리는 그대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대들은 고기를 원한다고! 싫어질 때까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독자는 우리에게 의심할 바 없이 경고했다. 노동이 사랑에 작용을 가할 것은 생리적이고 숙명적인 영향에 의해서 결코 아니고 덕과 자유의 인상에 의해서라고. 잠시만 기다려주면 우리의 논제는 완성될 것이다.

노동에서는 사랑에서처럼 가슴은 소유에 의해 매달린다. 반대로 감각들은 싫증을 낸다. 그 산업적 능력과 번식 능력의 행사에서 사람의 신체와 정신의 이적대성은 사회적 기계의 추축이다. 사람은 그 발달에서 끊임없이 숙명에서 자유로, 본능에서 이성으로, 물질에서 정신으로 간다. 사람이 점점 괴로운, 그리고 혐오스러운 노동의 억압에서처럼 감각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진보 덕분이다. 사람을 하늘을 향해 올리는 대신 언제나 진흙을 향해 속이는 사회주의는 육신에 대해 쟁취한 승리에서 빈곤의 새로운 원인만을 보았다. 마치 기분 전환과 곡예에 의해 노동의 지겨움을 극복한다고 자랑하는 듯이 사회주의는 결혼의 단조로움을 애정의 승배가 아니라 밀통과 배우자 변경으로 싸워서 이겨내려 했다. 이 더러움을 휘젓는데 내가 아무리

⁶ 그리스도교의 교부들. 역자주

혐오감을느끼더라도독자는체념할필요가있다. 상식적인몇가지진리를 확립하기위해내가모든논리의장치를활용할필요가있다면, 이것이사람들을돌볼임무를맡지않은내잘못인가?

노동이분화된것자체로인해노동자각자에게노동은전문화되고확정된다. 그러나이전문성이나확정성은집단적노동에비해분수의표현인것으로간주되어서는안된다. 이는노예살이의관점에위치하는것, 유포피아가온힘을다해카스트들의복권에노력하는수단이되는원리를채택하는것이다. 전문성을말하는자는끝이나상단을말한다. 어원이이를증명해준다. spiculum(창), spica(못), speculum(거울), species(겉모습), aspicio(나는본다) 등등. 같은어근이지적하는행위, 바라보는행위를가리키는데사용된다. 노동에서모든전문성은각노동자가사회경제의총체를지배하고고찰하고그중심이면서감독자가되는높은곳의정상이다. 그러므로노동에서모든전문성은관계들의다양성과다채로움때문에무한이다. 이로부터결과적으로각노동자가노동의싫증과혐오감을극복하기를배우는것은산업, 과학과예술에서의중앙집중화되고조율된이행체계에의해서이지결코규율없고, 전망없는동작들의다양성에의해서가아니라는것이된다.

마찬가지로결혼에의해서사랑은확정되고개인화된다. 그리고사람이사랑의물질주의와단조로움을이길것은역시전부도덕적인이행들의체계에의해서, 감정들의정화에의해서, 사람이자기존재를바친대상의승배에의해서다.

예술, 즉사람에게서, 자기아내와자녀에게서, 자기관념들에서, 자기언설에서, 자기행동에서, 자기산물에서아름다움의추구, 진리의완성, 이런것이노동자의마지막진화이고, 자연의원을영광스럽게만들도록접지된국면이다. 미학, 그리고미학위에도덕, 이것이야말로경제적건축물의핵심이다.

인간적관습의총체, 문명의진보, 사회의여러지향들이이법칙에대해증언한다. 사람이하는모든것, 그가사랑하고미워하는모든것, 그에게영향을미치고그의관심을끄는모든것이그에게는예술의소재가된다. 그는노동의마력에의해, 말하자면소재를사라지게하기까지이를구성하고운내고이에조화를준다.

사람은자연에따라서는아무것도하지않는다. 내가감히그런식으로내생각을표명한다면, 사람은만드는동물이다. 그가손질하지않았다면아무것도그의마음에들지않는다. 그가손대는모든것을그는배열하고교정하고정화하고재창조할필요가있다. 자기눈의즐거움을위해그는그림, 조각, 조형예술, 장식, 모든부속물들의세계를발명하고그에대해그는그것이그에게상상의필요물이고그것이그에게마음에든다는것말고는그이유와쓸모를말할줄모를것이다. 자신의귀를위해그는자신의언어를다듬고, 음절수를세고, 발성시간을잡는다. 그리고그는멜로디와화음

체계는인민에게별로중요하지않다. 그런데인민이무언가를원할때는, 그리고인민에게그것을어떻게획득할수있을지를아는것말고중요한것이없을때는그발견은결코시간을끌지않는다. 거대한가장행렬이내려오는것을볼준비를하라.

사제는마지막으로죄는빈곤이며, 진정한덕, 우리가영원한생명에합당하게해주는덕은종교와신에맞서투쟁하는것이라는정신을가져야한다. 철학자는자신의고집, 철학의눈썹 supercilium philosophicum을내려놓고자진해서이성은사회이며, 철학을한다는것은자기손으로작품을만드는것임을배워야한다. 예술가는그가옛날에올림포스산에서그리스도의마구간으로내려왔으며, 이마구간에서갑자기미지의광채로상승했다는것, 그리스도교처럼노동이그를재생케해야한다는것을기억해야한다. 자본가는은과금이진정한가치물들일뿐이며, 교환의진실성에의해모든산물이같은존엄성을갖도록상승해생산자마다자기집에조폐국을가질것이며, 생산적자본의허구가일꾼에대한약탈을행한것처럼조직된노동은자본을다시흡수하리라는것에유념해야한다. 소유권자는그가사회의지대를징수하는자일뿐이며, 그가옛날에전쟁의도움으로도지에대한금지령을둘수있었다면, 프롤레타리아는이번에조합에의해수확물에대한금지령을두고소유권의시효를만료시킬수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군왕과그의거만한수행원, 그의군사, 그의재판관들, 그의자문관들, 그의중신들과비생산자들의모든군대는노무자와산업인에게'자비를베푸소서!'하고서둘러외칠일이다. 노동의조직은권력의중속과동의어이며, 비생산자를공핍에방치하고권력을수치와굶주림가운데사멸하게하는것은노동자하기에달린일이기때문이다.

이모든일이에기치못한, 기대하지않은새로운사건, 인민의격정이나어떤사람들의노련함에서나오는결과가아니라사회가순간적으로방치되었던태도의관습으로자생적으로돌아감에따라서도래할것이다. 그방치의원인은...

인류는그진자운동을하는행진에서끊임없이자기자신에게로돌아온다. 인류의진보는그전통이다시젊어지는것일뿐이다. 그체계들은외관상아주대립되지만언제나다른여러측면들에서본같은기초를제시한다. 문명의운동에서진리는언제나동일하고언제나옛것이고언제나새롭다. 종교, 철학, 과학은드러나기만한다. 그리고이는바로인간이성의섭리와무오성을구성하는것이다. 진보의품자체안에서우리존재의불변성을보장하는것이고, 사회를그본질에서변질이불가능하게만드는동시에그혁명에서저항이불가능하게만드는것이다. 그리고전망을계속확장해언제나멀리اما지막해결을보여주면서우리의신비로운예감의권위를세워주는것이다.

인류의이싸움에관해성찰할때나는본의아니게그리스도교의상징체계에서전투적교회를마지막날에승리하는교회에게승해야한다는것을

리인류의 운명인 것으로 보아는 확정적 조직에도 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모순의 일반적 방정식을 만드는 것 말고 남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정식의 공식은 어떤 것일까?

벌써 우리에게 이틀간과 하는 것이 허락된다. 이는 교환법칙, 상호성 이론, 우리민사적이고 상업적인 회사들의 옛 형태들을 결정해주는 체계로 서비판이 지적인 효능, 진보, 정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들의 체계, 더 이상 그 저통념적인 것만 아니라 실재적인 사회로서, 파편적 분업을 학문의 수단으로 바꾸고, 기계들의 노예제를 폐지하고, 기계들의 등장 위기를 예방하고, 경쟁을 이득으로 만들고, 독점을 모두를 위한 안전보장의 담보로 만들고, 자신의 원리의 잠재력에 의해서 자본에 신용을 요구하고 국가에 보호를 요구하는 대신 노동에 자본과 국가를 종속시키고, 교환의 성실성에 의해서 여러 인민들 간에 진정한 연대성을 창조하고, 개인적 창조성을 금지하지 않고, 가내의 절약을 금지하지 않고 전유가 사회에서 빼돌린 부를 끊임없이 다시 가져다 주고, 자본의 일출입 운동에 의해서 민들의 정치적, 산업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방대한 체계에 의해서 향상 수준을 높여가면서 기능들의 평등과 적성들의 등가성을 마련해 주고, 정의, 복리, 그리고 덕성에 의해서 인간 양심을 갱신하면서 여러 세대의 조화와 균형을 보장해주는 사회, 한마디로 일거에 조직과 이행이면서 임시적인 것을 피하고 모든 것을 보장하며, 아무것도 저당 잡히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상호성 혹은 소비대차 mutuum, 즉 현물 교환의 이론은 그가 장단순한 형태가 소비대출로서 집단적 존재의 관점에서는 소유권과 공동체라는 두 관념의 종합이다. 이는 사회가 여러 발명들과 체계들의 미로를 가로질러 그 원초적 관습으로 돌아가는 것, A는 A와 같다는 근본 명제에 대한 6000년의 명상의 결과 말고 다른 것이 아니니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 만큼 오래된 종합이다.

모든 것이 오늘날이 엄숙한 복원을 위해 준비중이다. 모든 것이 허구의 왕국이 지나갔다고, 사회는 그 본성의 진실성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다. 독점은 세상에 맞먹을 정도까지 부풀었다. 그런데 세상을 포괄하는 독점은 배타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공화제가 되거나 아니면 터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선, 매수 가능성, 성매매, 절도가 공공 양심의 기초를 이룬다. 그런데 인류가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배우지 않으려면 정의와 속죄가 다가온다고 믿을 필요가 있다.

벌써 사회주의는 그것의 유평아들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실물과 사실에 매달린다. 사회주의는 파리에 서 자기 자신에 대해 웃는다. 베를린, 쾰른, 라이프치히, 브레슬라우에서 논쟁을 벌이고 영국에서 생명의 전율을 한다. 대양 저쪽에서 천둥 소리를 낸다. 폴란드에서 죽임을 당하고 베른과 로잔에서 정부 진출을 시도한다. 사회주의는 대중에 파고 들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인민은 여러 학파의 명예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노동, 과학, 행복, 평등을 요구한다.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는 조건에서는

을 발명한다. 그는 강력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교향악들을 만들며, 그가 이를 연주하게 하는 음악회에서 천상의 음악과 보이지 않는 정신들의 노랫소리를 듣는다고 믿는다. 단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변장과 환상에 대한 그의 민감함에는 종류가 필요하다. 그는 먹고사는 것을 거의 불쾌한 것으로 본다. 그는 배고픔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며 위와 타협을 한다. 자기 음식을 풀 뜯어 먹듯 먹는 대신 스스로 굶어 죽을 것이다. 바위의 맑은 물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신들의 음식과 신의 술을 발명한다. 그가 통제에도 달하지 못하는 자기 생활의 기능들을 그는 수척스럽고 정직하지 못하고 무식하다고 부른다. 그는 견고 뛰기를 습득한다. 그는 잠을 자고 일어나고, 앉고, 웃을 입고, 싸우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정당한 대접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는 심지어 꿈쩍한 것의 완성, 우스운 것의 극치, 추한 모습의 이상도 알아냈다. 끝으로 그는 서로 인사하고, 서로 존경을 표시하고 자신의 인격을 세심하게 숭배하며, 자기 자신을 신성으로서 찬미한다!

사람의 모든 활동들, 운동들, 언설들, 사고들, 산물들, 애착들은 이런 예술가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 예술 자체, 그것을 계시하는 것은 사물의 관습이며, 그것을 발달시키는 것은 노동이다. 그래서 사람의 근면이 이상에 접근할수록 그 자신도 감각 위로 더욱 상승한다. 노동의 매력과 존엄성을 이루는 것은 사고를 통해 창조한다는 것, 모든 메커니즘에서 해방된다는 것, 자신으로부터 토대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 지향은 감각적 삶에 완전히 잠긴 어린이에게서는 아직 약하고, 자신의 힘과 유연성을 자부하는, 그러나 이미 정신의 장점에 민감한 젊은이에게서는 좀 더 두드러지지만, 성숙한 사람에게서는 점점 더 발현된다. 이 일꾼들에게서 작품에 대한 오랜 열중이 자생적으로 예술가, 그에게 노동의 완성은 생존 수단 만큼이나 절대적인, 예술가 그리고 외관상 인색한 전문 분야에서 갑자기 찬란한 전망들을 발견하는 예술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람이 그의 예술가적 본성에 의해서 자신의 노동을 이상화하는 경향을 띠는 것처럼, 또한 그의 사랑을 이상화하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의 필요 사항이다. 그의 존재의 이 능력을 그는 그의 상상력이 가지는 더 섬세하고 더 강력하고 더 매혹적이고 더 시적인 모든 것으로 꿰뚫는다. 사랑을 하는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기술이고 모든 기술 중 가장 많이 개발되고 가장 잘 느껴지는 기술로서 그 형태에서 풍부한 만큼 그 표현에서 다채로운 것인데, 로마가 툴릭의 위력의 시대 무렵 가장 크게 도약했다. 그것이 중세 전체를 채웠다. 그것은 현대 사회를 단지 극장, 소설, 사치 예술로 사로잡는데, 이 모두는 그것에 보조 수단으로 소용되기 위해 존재할 뿐인 것들이다. 끝으로 사랑은 예술의 소재로서 인류의 위대하고, 진지하고 거의 유일한 일이라고 나가는 말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혼에 의해 확정되고 고정되자 곧바로 신체 기관들의 횡포에서 해방되기를 지향한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 즉 해방이라는 속담

이표현하고자한것은사람이그에대해첫날부터그의감각의냉랭함에의해기별을받는, 그리고그에관해수많은사람들이아주불쌍하게환상을가지는이절박한경향이다. 그언어가언제나구체적인인민은여기서사랑을억누를수없는욕망의폭력, 피에불은불로이해했다. 속담에따를때결혼에서꺼지는것은완전히신체적인이사랑이다. 인민은그의타고난순결에서, 그리고무한한섬세함에서부부의잠자리의비밀을드러내기를원하지않았다. 인민은그신비를간파하고그경고를유익하게사용하는수고를각자의지혜에맡겼다.

그렇지만진정한사랑은사람의죽음에서시작된다는것, 정중함이승배로바뀌는것은결혼의필연적효과라는것, 모든남편은어떤표정을짓더라도영혼깊숙이에서는우상승배자라는것, 여성의머리를벗어나기위해남자들간에공공연한공모가있다면여성을찬양하기위해서는암묵적인협정이있다는것, 여성의연약함만이이따금남자에게제국을다시장악하지않을수없게한다는것, 그리고거기에부부의부드러움과조화의원리가있다는것을인민은알았다.

남자가자기아내를자기일을사랑하듯이정신적으로사랑하는것, 아내를만드는것, 꾸미는것, 장식하는것은저항할수없는필요, 그에게서그의근면의진보, 그의관념의발달, 그의감각의세련화, 그의애착의섬세함으로부터자생적으로태어나는필요다. 그가아내를사랑할수록아내가더빛나고고결하고느긋빠르기를원하고, 아내를결작, 여신으로만들기를갈망한다. 아내곁에서그는자기감각을잇으며, 자기상상력이상을따르지않는다. 그의의식하고그가만진다고생각하는이이상을그의손이더럽히는것을두려워한다. 그는옛날에그의욕구의열정 가운데그에게전부인것처럼보였던것을아무것도아닌것으로간주한다. 인민은살과피를환기시키는모든것에대해본능적인, 세련된공포를느낀다. 바쿠스적이고성욕을유발하는흥분제의사용은성욕의날을세우는것을사랑으로착각하는동방사람들에게서는아주흔하지만, 문명화된종족들을격분하게한다. 이는아름다움에대한모욕이고, 예술의부조리다. 그러한도덕관념은독재의그늘에서만, 카스트의구별에의해서만, 그리고불평등의도움으로만생겨난다. 그런것은정의와양립불가능하다.

예술을이루는것은선들의순수함, 운동들의멋, 음색들의조화, 배색의화려함, 형태들의어울림이다. 이모든예술의질은또한사랑의속성들로서, 사랑안에서그속성들은순결, 수줍음, 겸손등의신비로운명칭을취한다. 순결은사랑의이상이다. 이명제가곧바로받아들여지는데는이제부터공인되기만하면된다.

노동이증가함에따라예술은언제나직업에서솟아나므로노동은그것이강화된형오스럽고고통스러운점을상실한다. 마찬가지로사랑은그것이강화됨에따라그파렴치하고외설적인형태를상실한다. 야만인이짐승처럼즐기고, 무지와잡속에서즐기면서살때, 문명인은점점활동, 부, 아

독점자들의소유를박탈하지않고이것이어떻게이루어질수있을까? 그리고독점이산업적능력의자유로운행사의필연적결과인경우에어떻게이를막겠는가? 애덤스미스가수립하고자했던정의는소유권체제에서실행불가능하다. 그런데정의가실행불가능하다면, 그것이심지어불의가된다면, 그리고이모순이사물의본성에밀접하다면연전히공정성과인간성에대해말하는것이무슨소용인가. 섭리가공정성을아는가, 아니면숙명이박애주의자인가? 우리가지향해야할것은결코독점을파괴하는것이아니고노동을파괴하는것도아니다. 독점체로하여금모두의이익을위해누군가에게남겨줄재화들을생산하게하는것은독점의모순이불가피하게만드는종합에의해서다. 이해결책말고는섭리는우리의눈물에냉담한채로있다. 숙명은확고하게제길을간다. 그리고우리가심각하게앞아서의와불의에관해토론하는반면, 우리를생각에서신처럼모순되게, 우리의언설에서모순되고우리의행위에서모순되게만들어준신은우리에게웃음을터뜨림으로대답한다.

노동으로자신을실현하면서, 그리고거대한잠재력을가지고사회에서자신을표현하면서도모든것을그것이있어야할것과는역방향으로도래하게만들고사회에용단을뒤집은모습혹은동물의뒤로돈모습을보여주는것은우리관념들의이본질적모순이다. 사람은노동분업을통해, 그리고기계를통해점차학문과자유로올라가야했다. 그리고분업과자유를통해사람은무더지고노예가된다. 조세는재산에비례해야한다고이론이말한다. 그리고정반대로조세는빈곤에비례한다. 비생산자는복종해야하는데, 쓰라린능멸에의해비생산자가명령한다. 신용은그이름의어원에따르면, 그리고그이론적정의에따르면노동의제공자다. 실제로는그것은노동을쥐어짜고죽인다. 소유권은그것의가장아름다운특권의정신에서토지의확장이며, 바로이특권의행사에서소유권은토지의금지다. 그모든범주들에서정치경제학은종교적관념의모순을재생산한다. 사람의생명은동물성과자연의영속적인해방이고신에대한투쟁이라고철학이단언한다. 종교적실천에서생명은사람의자기자신에대한투쟁이고, 상위의존재에대한사회의절대적종속이다. “신을네마음을다해사랑하고영생을위해네영혼을미워하라”고복음서가우리에게말한다. 이성이우리에게명령하는것의정반대다.

나는이요약을더이상써나가지않을것이다. 내길의끝에이르러내관념들이아주많이, 그리고아주격렬하게밀려들어벌써내가발견하는것을이야기하려면새책이내게필요할정도이고, 연설의예법에도불구하고나는갑자기중단하는것말고다른끝맺을수단을알지못할정도다.

내가틀리지않는다면독자는적어도한가지확신해야하는데, 이는사회적진리가유토피아에서도일상관행에서도존재하지않는다는것, 정치경제학은사회의과학이결코아니며창조이전의혼돈이우주의요소들을담았던것처럼이과학의재료들을담고있다는것이다. 이는지구상의우

다면아주자연스럽게나나자신을위해지대를규정하게된다. 당신은내 비밀을소유할것이고, 나대신제작할것이고내물레방아를돌릴것이고, 내들판에서수확할것이고, 내포도밭에서수확할것이지만 4 분의 1, 3 분의 1, 혹은절반을나누어가질것이다.

이모든사슬은필연적이고풀수가없다. 저밑에뱀도악마도없다. 이는 사물의법칙자체이며상식의명령 dictamen 이다. 상거래에서약취掠取는교환과동일하다. 그리고정말로놀랄일은, 약탈과같은체제가당사자들의선의에의해서용서가될뿐아니라정의에의해명령된다는것이다.

어느사람이자기이웃숯장수에게서숯한자루를사고, 식품점에서에트나산황을일정량구입한다. 그는약재상이관초석을일정비율넣어혼합물을만든다. 이모든것에서폭약이나오고그 100 파운드는성채하나를망가뜨리는데충분할것이다. 그런데, 나는묻는다. 목재를숯으로만든나무꾼, 황을모은시칠리아의목동, 운송을행한선원, 마르세유로부터재발송을한중개인, 그것을판상인, 이들은그재앙의공모자들인가? 그들간에폭약의활용에서만아니라내가말하는것이제조에서도조금의연대성이라도존재하는가?

그런데각자자기도모르게폭약의생산에협조한다양한개인들간에조금의행위의연관성도발견하는것이불가능하다면, 같은이유로판매의이익에관해서그들간에연관성과연대성은더구나존재하지않는다는것, 그사용에서나올수있는이익은또한전적으로그발명자에게속한다는것, 범죄나과실에따라반야야하는것이될수있을처벌은그에게사적인것이라는점이명확하다. 소유권은책임과동일하다. 동시에소유권에동의하지않고는책임을언명할수없다.

그러나이성이사리에어긋남을찬양하라! 합당하고그기원에서흡잡을데없는바로이소유권은그행사에서명백한악을이룬다. 그리고그것도거기에이를변경시키는어떠한요소가담하지않고그원리의전개에의해서만그렇게된다.

공업과농업이시장에가져오는산물들을총체적으로고찰해보자. 폭약, 비누같은산물들은모두어느정도든일반적창고에서꺼낸재료들로조합한결과물이다. 이산물들의가격은변함없이우선여러범주의노동자들에게지불된임금, 둘째로기업가와자본가들이요구한이윤들로구성된다. 그래서사회는두계급의사람들로나누어져있다. (1) 모든소비물품에대한독점권을가지는기업가, 자본가, 그리고소유권자들, (2) 이물건들을사는데그값어치의반밖에낼수없는임금수령자들이나노동자들, 이는그들에게소비, 유통, 재생산을불가능하게하는것이다.

애덤스미스가우리에게이렇게말해도소용없다.

“단순한공정성은민족의몸전체를입히고먹이고숙박시키는자들이그들자신의노동에서스스로가관찰게먹고입고거주하기에충분한몫을가질것을요구한다.”

름다움을구한다. 그는근면하면서예술가이고순결하다. 게으름과사치는완전히동일한악이아니라면병렬된악이다.

그러나예술은노동에서태어나필연적으로쓸모에의존하고필요에상응한다. 그자체로보면예술은이필요를충족하는다소우아한방식일뿐이다. 예술의도덕성을이루는것, 노동에그매력을보전해주는것, 그것의경쟁심을일깨우고, 열정을자극하고, 영광을보장해주는것은그러므로가치다. 마찬가지로사랑의도덕성을이루고그색정을끝내는것은자녀들이다. 부모됨은사랑의유지이고, 그강제이행수단이고, 그목적이다. 그것이획득되면사랑은그경로를다뺐은것이다. 사랑은사라진다. 아니, 더제대로말해형태변화를일으킨다.

모든노동자는그가선택한전문분야에서, 그리고이전문분야의척도에따라예술가가되어야한다. 비슷하게여성에게서태어나그여성의무를위에서먹여지고키워진모든존재, 아들, 연인, 남편그리고아버지는자신에게서사랑의이상을실현하고그모든형태들을차례로표현해야한다.

노동의이상화에서, 그리고사랑의거룩함에서보편적동의로덕이라 칭한것이, 혹은누군가말한사람의고유한힘 (가치) 이숙명적존재, 신적존재의힘인격정과대립해서생겨난다.

언어는이관계를성별한다. 덕, 라틴어 vir-tus 는 vir, 남자에게서나온다. 그리스어로는 arété 혹은 andréia 인데, 이는 arês 또는 anêr, 남자에게서나온것이다. 반의어는라틴어 fortitudo 인데이는 fero, 휴대하다, fortis, 집꾼, robus, 떡갈나무와힘에서나온다. 그리스어에서는 rômê 인데, 이는맹렬한힘, 자연적활력이다. 히브리어는 geborrah 라고하는데, 이는 gebar, 남자에서나온다. 그리고반대로 éial 은생명력, éil 은반추동물들의수컷인데, 이로부터 élohim, 신이나온다.

신적인힘과상반되게남자의덕은그러므로이상에의한자연으로부터의해방이다. 이는활동과지식의모든영역에서자유이고, 사랑이다. 덕의반대는추함, 불순, 불화, 무례함, 비굴, 제약이다.

남자가숙명에서벗어나점차자기자신에대한완벽한소유에도달하는것은덕 (이날말에서이제부터우리는하나의관념을가진다) 에의해서다. 그리고노동에서매력이자연스럽게혐오를계승하는것처럼사랑에서는순결이자생적으로음란을대체한다. 이순간부터사람은그모든잠재력에서성화되고, 노동에의해길들여지고, 예술에의해고상하게되고, 사랑에의해영적으로되어그의존재안에서자연의산물인모든것에, 이성과자유 의지에서나오는모든것에명령하듯이명령한다. 사람은점점더신을이긴다. 이성이걱정의한가운데서지배하며이성에이어서균형, 즉평온, 기쁨이발현된다.

사람은이때더이상여성을바라보고격정의눈물을흘리는불명예스러운노예가아니다. 그는천사로서그에게서순결, 물질에대한멀시가남성성과동시에발달한다. 노예적노동이사람에게서침통하고저주받은무기

력만을 낳는 것처럼 자유로운 노동은 과학, 예술, 정의에 의해 매력을 띠게 되어 매력적인 순결, 사랑을 낳는다. 그리고 곧 이 이상의 도움을 받아 정신이 언제나 육신을 이겨서 사랑의 완성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낳는다.

그러므로 생식 작업에 대해 말한다면 사랑은 그 고유한 한계를 가진다. 부부의 섹스는 출산과 유사처럼 인생에서 그 시기가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진화에서 다른 모든 진화들에서처럼 자연의 사자 使者 이며 운명들의 찬양자인 사람은 법칙을 만들지 않는다. 그것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보편적 감정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주요한 다섯 시기로 나눈다.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욕 혹은 생식기, 그리고 성숙 혹은 노년기가 그것이다.

남자는 첫 시기 동안 여성을 엄마로서 사랑한다. 둘째 시기에는 누이로서 사랑하고, 셋째 시기에는 여선생님으로서 사랑하고, 넷째 시기에는 신부로서 사랑하고, 다섯이자 마지막 시기에는 딸로서 사랑한다.

사랑의 이 시기들은 경제 생활의 비슷한 시기들에 상응한다. 유아기에는 남자는 말하자면 꺾꽂이가 지의 상태로만, 혹은 기계들의 제작과 유지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된 재료들로만 존재한다. 그는 사회의 희망, 담보, 저당물이다. 청소년기에 그는 수습생이다. 청년기에는 직인 職人이다. 성욕기에는 마이스터다. 성숙기에는 노장이다. 이 이중적 진화는 남자에게서와 똑같이 여자에게서도 펼쳐진다고 덧붙일 필요도 없다.

사랑의 형태들은 산업에서의 등급들처럼 배타적이고 양립 불가능하다. 즉 동일한 개인에게서 동시에 존재할 수도, 같은 것에, 같은 사람에게 변함 없이 적용될 수도 없다. 산업인이 노동의 모든 요소들, 그를 끌어들이는 전문 분야의 모든 부분들을 차례로 통과해 가는 것처럼 그는 한꺼번에 특질적 사랑으로 그의 엄마, 그의 누이, 그의 여선생님, 그의 아내나 그의 딸밖에 사랑할 수 없다. 그가 이 자격들 중 하나의 자격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는 결코 다른 자격으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중복된 사랑에 대해 일정한 혐오감을 불어넣어 그것에 근친상간, 즉 부정 不貞, 잘못된 사랑의 결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자연 자체다.

다른 사랑에 의해 제거된 모든 사랑은 우정이라는 일반적인 범주에 들어감이며 이는 애정의 격류에서 상실된다.

자기 여선생님과 결혼하는 남자 (가장 일상적인 경우)는 일정 수준까지 규칙에 예외가 된다. 같은 사람을 성격이 다른 사랑으로 두 번 연이어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하지만, 자신의 신부와 사는 것처럼 여선생님과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내연 관계 혹은 단순한 감이라 불리는 일종의 근친상간을 이루며, 여성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인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사랑하는 것을 그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아니다. 이는 간통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자유로운 사랑, 자연적으로 결합에 선행하는 이 사랑은 결혼을 그 필연적 결과로 삼지 않는다. 서로 결혼하는 자들이 여러 사람에게 대해 사랑을 느꼈던 것이 사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심

이고, 비생산자의 권리이고, 가장 강한 자의 이성이며 아무도 내가 그를 잡아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 무서운 수수께끼는 가장 명민한 지성들을 절망케 했다.

“토지의 전유와 자본의 축적이 전에 노동의 전체 생산물은 일꾼에게 속했다. 그가 같이 나누어야 할 소유권자도 주인도 없었다. 이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노동 임금은 본업이 일으키는 생산적 잠재력의 이 모든 증가와 함께 증가했을 것이다. 극히 적은 노동량으로 생산된 그것들은 항상 더 적은 양으로 취득되었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의 논평자는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이자, 이윤 또는 임대료의 이름으로 다른 개인들의 산물을 차지할 권리가 탐욕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한가한 사람의 풍요를 더 해주기 위해 노동의 보수를 줄이면서 산업을 성장시키거나 사회의 부의 진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스미스도, 그의 논평자도 알아채지 못한 이 공제의 이유를 우리는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준엄한 법칙이 새로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되도록 다 시말해 줄 것이다.

노동을 분업화하는 것, 이는 부속품들만 생산하는 것이다. 가치가 있으면 조립이 필요하다. 소유권 제도 이전에 각자는 대양에서 그의 음식에 넣을 소금을 채취하는 물을 퍼내고, 기름을 짤 올리브를 따고, 철과 금을 함유하는 광석을 모으는 주인이다. 각자는 또한 그가 수확했을 것의 일부를 타인 이만든 물자의 등가량과 교환할 자유가 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노동의 신성한 권리와 토지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내인적 노동에 의해서든, 교환에 의해서든 자연의 모든 산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면, 그리고 이렇게 취득된 소유가 완전히 합법적이라면, 나는 비슷하게 내가 노동과 교환을 통해 조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산물을 조립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내 소유권이거나 다른 사람 모두에 배타적으로 이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나는 예를 들어 내가 소다를 추출할 소금을 통해, 그리고 내가 올리브와 참깨에서 짜는 기름을 가지고 내 이를 세탁하는 데 적합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내게는 청결과 위생의 관점에서 소중한 쓸모를 지닌다. 나는 심지어 이 화합물의 비밀을 간직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교환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뽐낼 수 있다.

그런데 비누 1 온스의 제조와 100 만킬로그램의 제조간에 권리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크고 작은 양이 그 일의 도덕성에 무언가를 달라지게 하는가? 그러므로 소유권은 상거래처럼, 노동처럼 자연권으로서 세상의 아무것도 내게서 그 행사 권리를 빼앗지 못한다.

그러나 그 물건을 구성하는 재료들과 똑같이 내 배타적 소유권인 산물을 내가 조립한다는 것 자체에 의해 결과적으로 한 작업장, 사람들의 활용이나에 의해 조직되고, 나와 같이 업무 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들에게 손해가 되면서 이익이 내 손에 축적되고, 당신이 내 사업에서 나를 대체하기를 갈망한

우리가사회적감성주의위로올라가서위에서사실들, 사물의힘, 문명의내밀한법칙을고찰하기원한다면, 왜아니겠는가?

노동이란무엇인가? 특권이란무엇인가?

노동은창조적활동의유비물로서관념, 법칙이그것을꿨지못하는한, 자기자신의의식하지못하면서, 불확정적이고, 열매맺지못하는것이지만가치가만들어지는도가니이고문명의위대한모태이며, 사회의피동적혹은여성적원리다. 자유의지에서유래하는특권은개인화를결정하는전기스파크, 실현하는자유, 명령하는권위, 숙고하는두뇌, 지배하는자이다.

노동과특권의관계는그러므로암컷과수컷의관계, 신부와신랑의관계다. 모든민족에게서여성의간통은언제나남성의것보다더비난받아야할것으로여겨졌다. 그것은결과적으로더엄격한형벌의처분에놓였다. 여러형태들의잔혹성에만신경쓰면서그원리를막강하고여성에대해행사되는야만행위만을보는자들은 『렐리아』의저자의이야기들에등장할만한소설의정객들이다. 일꾼들의모든규율위반은여성이지지르는간통과유사하다. 그렇다면법정측에서일꾼의불평과주인의불평을같은호의로받아들인다면, 인류가그바깥에서는살수없는위계적끈이끊어질것이며사회의원순경계가멸망할것임이명백하지않은가?

게다가사실의거해판단해보라. 일꾼들의파업모습과기업가들의담합행진을비교해보라. 거기에정당한권리의불신, 선동, 소요가있으며, 바깥으로는외침과떨림이, 안으로는공포, 복종의정신과평화의갈망이있다. 반대로여기서계산된결의, 힘의감정, 성공의확실성, 실행에서의냉혈성이있다. 그러므로당신들생각에잠재력은어디있는가? 유기적원리는어디에? 생명은어디에? 의심할바없이사회는모두에게지원과보호를해줄의무가있다. 나는여기서인류의억압자들의소訴를제기하지않는다. 하늘의복수가그들을짓몽개기를바란다! 그러나프롤레타리아의교육이완수될필요가있다. 프롤레타리아는노동과덕의해불멸에도달하는헤라클레스다. 그러나헤라클레스는에우리스테우스의학대없이무엇을할것인가?

여러민족들의이파괴자가로마앞에까지와서진을쳤을때, 교황성레오 1 세는아틸라에게물었다. “그대는누구인가?”그야만인은이렇게대답했다. “나는신의채찍이오.”교황은말을잇는다. “신에게서우리에게오는모든것을우리는감사함으로받아들이노라. 하지만그대는그대에게명해지지않은것은행하기를삼가라!”

소유권자들이여, 당신들은누구인가?

이상한일은소유권이자비, 정의, 사회경제의이름으로사방에서공격을받으면서도자기의정당화를위해이런말로밖에대답할줄몰랐다는것이다. “나는존재하므로존재한다.”나는사회의부정이고, 노동자의약탈

지어더났다. 그리고이는자유로운사랑을부부의사랑과구분하고이것들을서로양립불가능한것으로간주하는데충분하다.

사랑하는이한사람이다른모든사랑을대신할수있으며, 자연에의해정해진기한을넘어연장될수있다. 그러한것은자신의효심을늘을때까지보전하는독신자다. 그러한것은또한때가되기전에홀아버가되어자식의머리위로온갖애정을집중시키는아버지다.

사랑의이러한형태들을모르는사람, 이러한늪양스들을전혀구별하지못하고미묘한점들을파악하지못하는사람, 이런사람은사랑에대해아무것도모르는것이다. 그는사랑의객설만아는것이고사랑에대해소설가처럼생각하는것이다.

이처럼노동과사랑은인생에서병행하는시기들에진행된다. 초년기에사람은감각과본능에온통매여있어결코노동자로서아직들어가는것이아니다. 그는받기만하고주지는않으며, 소비만하고아무것도생산하지는않는다. 자기엄마의사랑에만민감해서그는다른어떤감정도모른다. 우정자체를그는모른다.

곧그는그의애정들을생각하기시작한다. 그는예의범절의형태들, 알고행하는것의요소들을배운다. 그는학생이면서수습생이되었다. 그는동무들을가진다. 그리고부화된그의서늘한영혼에서형제적사랑의부드러운향기를내신다.

이매력적인청소년기를잇는것은청년기로서순수하고수줍어하는사랑의시대인것처럼경쟁심과체육경기의시적인시대다. 가을에도달한인간의가슴에는그의푸르른청년기에처녀의보호자, 동료, 순결의동참자였던것이얼마나기억할일인가! 세기는이참된즐거움을불쌍히여겼다. 사회주의와낭만문학은우리의세대를발정한상태로해놓았다. 철학은예를제시하며재주있는여성들은산파역할을한다. 그러나방탕의과잉은그자체가이이상理想의필요성에대한증거다. 이것바깥에서는사람에게행복도존엄도없다. 사회는성애적묘사들, 어떤것들은순수성을빼앗고, 다른것들은걱정처럼끌려가며그러나언제나경이로운, 따라서덜거칠고덜물질적인세련미가박힌묘사들의무더기속에서변신을꿈꾼다. 그가짓밟은수치심의나름대로의순교자인조르주상드르보라. 아스파시아와같은유녀이고루크레티우스같은송사작성자인조르주상드느잔 (Jeanne) 을써서천재성의이반격으로써그의불순한찬미자들의저속한격정에향의한다.

그러나신부가신랑에게주어질시각의종이울린다. ... 시작되는것은노동의위대한시기다. 이는사람이자기능력들의충만함을즐기고사랑이그의영혼의원순현을진동하게하며, 기억들의현존이그의가슴의원순즐거움을느껴지게만들어주는순간이다. 아들, 형제, 연인, 신랑, 이제곧아버지로서그는어디서나사랑하고, 포화상태가되도록사랑한다. 그의삶은충만하다. 그는천재성과아름다움이한창인상태에있다. 줄어드는

것밖에할수없다. 그의소원의절정에도달하자마자사랑은그에게그런신성과순수성을잃는것으로보이며, 그의모든노력은이제부터는별써그를피해가는이이상을불잡아두는것을지향할것이다!

다산성의시기는 10 년에서 15 년떨쳐진다. 10 년간의결혼경험은그의지성이시들거나그의가슴이타락하는것이아니라면사람을싫증나게하기에충분하다. 이경우에격정은약해지는대신만족감에서다시태어나며새로이대상들을구한다. 성적인폭발이불타오르는것으로다시나타난다. 그리고가족들안에번뇌와부끄러움을가져오는이폭풍이터지는것은이런식이다. 더많은사랑, 예술을위한예술과같이쾌락을위한쾌락이다. 남편은아내를향락의기계로만든다. 키르케는오디세우스에게활력을주면서동시에그를짐승으로바꿔주는일격을가한다. 즐기고, 또즐기고, 끝없이즐기며, 공격, 공격. 이런것이더이상사랑하지않는이들의비참한처지다.

끝으로쇠퇴의시대가온다. 이는감정이역방향으로정해지는시대다. 가부장의가슴속에서부부의사랑을계승하는것은장성하는딸에대한형언할수없는따뜻함의감정으로, 이는이아버지의가슴에서쾌락의마지막 흥분을내쫓는다. 온전히가족에헌신하는어머니는그의신랑에대해친구의자격이상을바라지않는다. 새로운배반을한그어머니는예전에자기형제, 아버지, 인자한어머니보다선호했던자리를이번에는자기의청소년아들을위해돌보지않는다. 우리는자식에게가장큰존경을보여야한다(Maxima debetur puero reverentia)! 선생가족면전에서한비밀스러운음성이부부에게금욕을권유한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수치심이그대들에게명한다. 서로떨어져라!

“만 18 세가안된남자, 만 15 세가안된여자는혼약을맺을수없다.”(민법, 제 144 조)

입법자는신체적역량에만관심을두었다. 주권자로서가아니라생물학자로서말한것이다. 그리고또한뒤떨어지는것을두려워하는듯이제 145 조에서이렇게덧붙인다.

“왕이그비용을대는것은허락된다.”

다행히도공공의이성과사물의힘이이점에서법령의착오를교정한다. 누구나남자이고먹고살수단을벌때는결혼한다. 교육을마치는데필요한, 그리고매력으로충만한연구로, 즉내핍으로채워져야할연기延期만이사람의머릿속에들어온다.

그런데결혼시기와관련해서, 자연에서주어진자유가질서라고상식적으로믿지않았다면, 반대방향으로취해진같은자유가범이라고, 그리고남자에게는일단결혼하면생명의온기가다할때까지번식능력을행사할의무가있다고말할수있는가?

인구의가능한증가는그것의자연적증가와같은것이아니라고루동박사는아주잘말한다. 그렇지만생식잠재력의지속은반드시그활동성을보

직조공들의주인은그의직조공들의임금에대해서처럼삼실에대해그가선지급한값에대해서도 5 퍼센트를요구할것이다.”

이야말로주피터 — 소유권자에서시작해서노예에서끝나는경제적위계의생생한묘사다. 노동, 노동의분업, 주인과임금노동자의구별, 자본의독점에서지주, 금융가, 기업가, 부르주아, 마이스터, 작업반장의카스트가생겨나지대를소비하고, 고리대를거두고노동자를압박하고무엇보다도착취와빈곤의가장무서운형태인경찰력을행사하는일을한다. 정치와법의발명은오로지소유권의작품이다. 누마와에게리아, 타르퀴니우스와타나퀸은나폴레옹과샤를마뉴와똑같이귀족들이었다. “자기백성들에게두려움의대상인군주들, 이나라들에서다스리는것은주피터다(Regum timendorum in proprios greges, reges in ipsos imperium est Jovis)”라고호라티우스가말했다. 가난한영혼을괴롭히러지옥의모든구석에서달려온지옥의영들의군단을사람들이말할것이다. 그영혼을사슬로끌고잡과먹을것을빼앗아라. 때려라. 불태워라. 불로달군집게로집어라. 봐주는것없다. 동정하는것없다! 왜냐하면노동자를봐주면, 우리가노동자를정당히대우해주면, 우리에게는남은것이없을것이고우리는사멸할것이다.

오, 맏소사! 그대가그를간수들에게방치해그들이그를아주흡신두들겨패주고, 먹을것은노랑이의손으로주게할만한무슨범죄를이불행한자가저질렀는가? 그리고당신들, 소유권자들은섭리에게선택받은막대기들로서규정된한도를넘지말라. 그대들의중의가슴에분노가치밀어오르고그의눈이붉게충혈되어있다.

노동자들의반란은무자비한주인들에게서양보를얻어낸다. 행복의날, 환희만세! 노동은자유다. 그러나무슨자유인가, 이런! 프롤레타리아에게자유는노동하거나, 즉더빠앗기거나, 아니면노동하지않을, 즉굶어죽을능력이다. 자유는힘에만이익이된다. 경쟁을통해자본은어디서나노동을짓누르며산업을독점체들의방대한담합으로전환한다. 두번째로노동하는평민은귀족에게무릎을꿇는다. 자기임금에대해논할가능성도, 권리조차도없다.

신탁은이렇게말한다. “주인들은어디서나그리고언제나무언의동맹, 그러나항상적이고일률적인동맹을이루어임금을기존율이상으로올리지않는다. 이규칙을범하는것은배신행위다. 그리고역겨운입법으로이동맹은용인되는반면일꾼들의결탁은가혹하게처벌받는다.”

그러면왜스미스가변질되지않는초연함에서역겹다고공언하기를마다할수없었던이새로운악이있는가? 그렇게괴씩한불의가아직도필요했던것일까, 그리고사람들을차별하지않는다면숙명은오류를저지른것이고섭리는실패한것일까? 우리는독점에서인류의이편파적경찰을정당화할수단을발견할것인가?

제나노동하고, 창조하고, 배가하고, 완성할필요가있다. 노동자에게 그가발견한것을누리게두라. 그는자기의관념위에서잡들것이다. 그의 지성은더이상전진하지않는다. 이것이야말로에덤스미스에게충격을 준, 그렇지만그차분한역사가가한마디꾸지람도하지않은이악의비밀이다. 비록그는이를고려할수없었지만신의손길이거기에있다는것, 노동이땅을채우는날까지문명은비생산적소비를동력으로한다는것, 사람들 사이에우애가모르는사이에성립하는것은강탈에의해서라는것을느꼈다.

사람은노동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섭리의권고로도독질이제정되고, 조직되고성화되었다! 소유권자가움켜쥐기를게을리했다라면, 프롤레타리아는곧바로생산하기를게을리했을것이며, 미개상태, 끔찍한빈곤이문앞에와있을것이다. 소유권이취소된폴리네시아사람은재물과사랑을완전한공동체안에서누리는데왜노동을하는가? 토지와아름다움은모두의것이고, 자녀는누구의것도아니다. 당신은그에게무엇때문에도덕, 존엄성, 인격, 철학, 진보에관해말하는가? 그리고더멀리갈것도없이, 코르시카사람은그의밤나무밑에서 6 개월간식량과잠자리를얻는데 왜그가노동하기를바라는가? 당신의징병, 철도, 법정, 언론이그에게무슨의미가있는가? 밤을까먹었으면잠을자는것말고무슨필요가있는가? 코르시카지사는이섭을문명화하려면밤나무들을베필요가있다고말했다. 더확실한방도는밤나무들을전유하는것이다.

그러나벌써소유권자는노동자의실체를잡아먹기에더이상충분히강하지않다. 그는자기가충애하는자들, 광대들, 보좌관, 공모자들을부른다. 우리에게이무서운음모를드러내주는것역시스미스다.

“어느산물의새로운변형때마다이윤들이늘어나라뒤에이어지는이윤이앞서의이윤보다더크다. 그것이나오게하는자본이필연적으로언제나더크기때문이다. 실제로임금의상승은채무의누적에서단순이자그런것처럼상품가격에작용하는반면이윤의상승은복리이자처럼작용한다. 예를들어직물공장에서아마의삼빛질하는자들, 실짓는여공들, 직조공들등인부들의임금이모두하루에 2 드니에가오른다면, 직물한필의가격을단지직물을제조하는인부들의수에그들의노동일수를곱하고 2 드니에를곱한만큼만올릴필요가있을것이다. 그상품에가해질일손의다른정도를각각에서임금으로해소되는그가격의부분은단지이임금상승의산술적비율로만올것이다. 그러나이일꾼들을고용하는모든상이한주인들의이윤이 5 퍼센트상승하면이윤으로해소되는가격의부분은수공의상이한등급각각에서이이윤을상승의누진비율로, 혹은기하급수로상승할것이다. 삼빛질공의주인은그의아마를팔면서재료와그가인부들에게선지급한임금의총가액에 5 퍼센트의추가를요구할것이다. 실짓는여공들의주인은여공들의임금총액에대해서처럼그가선지급한빛질된삼의가격에대해서도 5 퍼센트의추가이윤을요구할것이다. 결국

여주는척도는아니다. 동물들사이에서암컷들은임신과수유동안에는몸을피한다. 남자는자기에게고유한법칙을가진다. 그의존엄성과더관계깊은법, 이는그의자녀들의청소년기다. 나는방금자녀들에대한존중은부모에게금욕의의무를만들어준다고말했다. 더심각한고려사항들도이법을확증해준다.

그러면우선자녀들에대해서는정의正義가있다.

사람은사춘기전부터자신을쓸모있게만들수있다. 교육은제대로말한다면스승의수업들을수습생의서비스로교환하는것일뿐이다. 이는점점더커져서스승의배려를보상해주면서동시에부모의선지급을충당하는데소용되는서비스다. 이와같이수습계약에서우리에게가르침의참된원리를드러내주는대중적이성이이를원한다. 아이가아무것도생산하지않는한, 그의생존수단전체가그의아버지의부담인한, 그는아버지에대해아무런권리가없다. 그는사람들이그에게공동상속인을생기게하는것에불평할수없다. 그러나그가노동할능력이있게되면서부터, 그가부양하는데힘을보탤동생들이주어지는것은그가받은것보다더많은것을그에게요구하는것이며, 그를그가낳지않은자들의아버지로만드는것이며, 그를가족에서내쫓는것이다. 그러므로정의에의해지시된자연적한계가자녀의출산에는있다. 수습의이론에서도출된이동기는최고의동기다.

부부쪽에서는순결은겸손과정직의절박한의무가된다. 통념적정당성을이성적정당성과구분할필요가있는것은특히이지점이다. 마흔살무렵남자는감정의시적정취와활력, 섬세함, 형태의우아함과순수함등그의젊음을구별해주던것들을잃기시작하고그의존재전체에다친변화는그에게사랑을포기하라고명령한다. 그를아주순결하게해주던아름다움이흐려져가면서즐거움이변질해파렴치로된다. 노인들의사랑은왜우습고역겨운가? 이는그것이그사랑을미학적으로정당하게해주는조건들을결여하는것이기때문이다. 시든감각에서실현되어는더이상사랑이아니고, 사랑의집이다. 매달려있는침대위에서파리스와헬레네가함께자는것을호메로스가우리에게보여줄때, 그들은간통에도불구하고아름답다. 불의의죄인들인젊음, 우아함, 정신은여전히그들을진심의베일로덮어주는것같다. 그러나사투르누스와레아, 데우칼리온과피라, 다윗과아비삭은나를화나게한다. 부부의명목은거기서아무것도아니며, 그들은외설적이다.

남자는사랑이그에게모순이되면서부터남편의권리를상실한다. 그의아내가그에게거룩해지면서부터! 그들이서로를순수정신으로간주하면서부터. 왜냐하면진실로그들은더이상몸을가지지않기때문이다. 남자는그의감각의퇴화가그에게금지하는즐거움을계속맛본다면, 망측한불꽃으로그의나머지날들을태울것이다. 그의사후의연인들은그를그의아내에게역겹게만들어줄것이고, 그의자녀들을화나게할것이고그에대

해모두의멸시를불러일으킬것이다. 그의방탕한노년은불명예를당할것이다. 그의아내는그의부끄러운요구들때문에도도해져서그를노예로취급할것이다. 그의이성은치욕중에소멸할것이다.

정의, 수치심, 존엄성모두가여기서가부장에게절제의법이된다. 그런데이성이마련해둔것인노동이자연의고갈을기다리지않고이를달성한다. 오랜노동으로덕을계발한남자, 사랑이격정의횡포에서벗어나이를아름다움과동일시하는남자는스스로애쓰지도후회하지도않고옛날 그것들을그에게소중하게해주었던것과같은매력을가지고그의섬세한 마음을해치는쾌락, 그의자녀들에게남겨진재물로서말고는그에게관심사가아닌쾌락을포기한다.

이원리에따라, 결혼이남자에게만 28 세에, 여자에게 21 세에성립하고평등가운데유모의활용은사라지고, 수유기간은 15 개월이나 18 개월로줄어들고가임기는 10 년에서 15 년으로갈수있게되면서동일한결혼에서나오는자녀의수는다섯명이상으로많아지기가어려울것이다.

- 이숫자로부터다음을공제한다면,
- 불임, 과부, 결혼의지체, 사고, 임신중절 1.5
- 결혼적령기이전사망 (오늘날그수치는 50% 를크게초과한다) 2.5
- 독신 0.5
- 합계 4.5

약 30 년전의각기간당인구는이렇게 10 분의 1 밖에늘지않아서⁷ 두배가되는것은세세기만에일어날것이다.

그러나출생수는계속감소하는경향을띠며, 두배가되는기간은두가지이유로연장되는경향을띤다. (1) 노동의끊임없는증가와새로운도덕관념의발달에따른가임기간단축, (2) 독신자수증가.

사회의질서에서비록모두가사랑을할운명이예정되었을지라도모든남자가결혼을하고아버지가될운명이예정된다는것은참이아니다. 단지덕의계발에의해, 그리고사랑을위한손실없이완벽한동정을지키며살수있는것은남자의특권이다. 또한우리세대를괴롭히는사랑의어리석음이일단지나가면처녀들의수, 복음서에서말하는, 천국을위하여스스로고자된 (qui se castraverunt propter regnum coelorum) 자들은매일증가해야한다. 그리고결혼할능력을가지면서독신의희생에동의할자들이누구인지묻는다면, 나는주저없이대답할것이다. 오늘날방종가운데사는자들자신들이라고. 그동기와대의大義에서무효가되어버린독신은다시명예롭고순수하게될것이다. 그러한것이반대향들의법칙이며, 우리에게는운명의말자체인법칙이다.

⁷ 가임기간 15 년을수유기간 18 개월과임신기간 9 개월의합인 27 로나누면 6.7 이 되고여기서 4.5 를빼면 2.2 가되어, 한세대에 10 분의 1 의인구가증가한다. 여기서저자의계산방식은불명확한점이있다. -역자주

한다. 말벌은꽃위에앉지않으며, 벌통에달려든다. 노동자가생산하는것은그에게서곧빼앗아진다. 일꾼은주인의손에있는사냥개같다.

노동으로기진맥진한노예는쟁기를발명한다. 말이끄는단단하게만들어진나무이빨로토지를개간해열배, 백배의소출을낼수있게만든다. 주인은한눈에그발견의중요성을파악한다. 그는토지를빼앗고, 소득을차지하고, 그아이디어마저자기것으로만들고, 이굉장한선물대에대인간들의찬양을받는다. 그는신들의동등자로서행세한다. 그의아내는넉프이고, 케레스이고, 그는트립톨레모스다. 빈곤은발명하고소유권은거두어들인다. 왜냐하면천재는빈곤한상태로남아있을필요가있기때문이다. 풍요는그를질식시킬것이다. 소유권이세상에해준가장큰봉사는노동과천재의이영속적인불행이다.

그러나이날알더미로무엇을할까? 주인이그의말들, 소들, 그리고노예들과나누는부는얼마나초라한가! 이득이라고는쌀과귀리몇줌더값아 먹는것뿐이라면부자인것이오죽도필요하겠!

한노파가이가빠진입에풀칠하려고날알을뺀후반죽이시어지고발효하고재밀에서익어서날말이나구운밀보다비교도할수없이좋은음식을내놓는것을눈치챈다. 기적이다! 매일먹을빵이발견된것이다. 다른노파는버려진포도알을항아리안에재어놓고서그즙이불꽃위에서처럼끓어오르는소리를듣는다. 액체가그불순물을토해낸다. 붉고, 향이강하고, 불멸의빛을발한다. 아하! 그것을발견한것은소유권자의애지중지하는아들, 신들의총애를받는아이, 젊은바쿠스다. 주인이몇주일도못먹었을것인데, 마시는데는 1 년도족히마실것이다. 포도나무는수확물, 토지처럼전유가된다.

매년아주많은양의공물을가져다주는이무수한양털로무엇을할까? 소유권자가그의정자높은곳에침대를올려놓을때, 그의화려한천막을서른배로늘릴때이쓸모없는사치품은그의무능을증언해줄뿐이었다. 재물들은넘쳐나고이를즐길수가없다. 얼마나웃음거리인가!

한양치기처녀가주인의탐욕때문에헐벗은채로방치되었는데, 덤불위에양털뭉치를모아놓는다. 이양털을꼬아서균등하고가는실로늘리고이를창끝에잡아매고엮어서유연하고가벼운겉옷을만들어입는다. 이는그를경멸하는여주인의몸을감싸는기움질한가죽보다천배는우아하다. 이런기적을창조한것은아라크네라는직조여공이다! 곧주인은그의어린양들, 낙타, 염소의털을깎기시작한다. 그는아내에게한무리의노예들을주어그의명령에따라실을жат고옷감을짜게한다. 신들이영감을준것은더이상비천한여종아라크네가아니다. 그것은소유권자의딸인팔라스다. 그의질투심은아라크네를끓겨죽여그에게복수를한다.

무에서모든것을창조하는노동, 그리고언제나자기가결코만들지않은것을먹어치우려고도착하는특권, 이노동과특권의끊임없는투쟁, 이는얼마나구경거리인가! 사람의운명은계속되는행진인것이다. 그는언

이것이야말로 애덤스미스가 일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주인을 위해서이고, 일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를 볼의, 약탈, 도둑질이라 불러도 경제학자는 동요되지 않는다. 약탈자 인 소유권자는 이 모든 것에서 약탈당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꼭 두 각 시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들이 질투도 동정도 끝만한 자들이 못된다는 증거는, 노동자들은 배고파서 죽을 경우에만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자본가, 기업가 혹은 소유권자는 일생에서 죽는 순간에도 조금도 뉘우침을 느끼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공공의 무식하고 잘못된 식을 탓하라. 사람들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우리에게 여럿의 웅변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서 애덤스미스는 사실들을 고려하기만 한다.

이처럼 노동자들 중에서 한 특권 가진자, “너희 형제들 중의 나자렛 사람 (nazaraeum inter fratres tuos)”을 지정하면서 사회적 이성은 집단적 힘을 의인화했다. 사회는 신화와 우의寓意에 의해 진행된다. 문명의 역사는 광대한 상징 체계다. 호메로스는 영웅적 그리스도를 요약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받으며, 노력을 하는 가운데 길고 괴로운 아픔 속에서 자유, 정의, 덕을 갈망하는 인류다. 샤를마뉴는 봉건적 전형이다. 롤랑은 기사사의 신분이다. 은자피에르는 십자군이다. 그레고리우스 7 세는 교황권,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이다. 마찬가지로 산업 기업가는 노동자 집단에 힘입어 자본을 이용하는 자로서 집단적 힘의 의인화다. 기계의 손잡이가 힘을 모으듯이 그 집단적 힘에서 그는 이윤을 흡수한다. 이는 정말로 영웅적인 사람, 노동의 왕이다. 정치 경제학은 완전히 상징 체계이고 소유권은 종교다.

애덤스미스를 따라가자. 모호한 잡동사니 안에 흩어져 있는 그의 빛나는 관념들은 원초적 계시의 재탕으로 보인다.

“한 나라의 토양이 사적 소유가 됨에 따라 소유권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들이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좋아하며 토지의 자연적 산물에 대해서 조차 임대료를 요구한다. 숲의 목재들에, 들판의 풀에, 그리고 땅의 모든 자연적 열매들의 추가의 값이 매겨지는데, 이는 공동 소유로 될 때는 일꾼에게 그것들을 채취하는 수고만 이드는데, 지금은 그에게 더 많은 비용 이드는데, 그는 그것들을 수확할 허가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즉 소유권자에게 그가 수확하는 것, 혹은 그가 소유권자 없이 그의 노동으로써 생산하는 것의 일정 몫을 소유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독점이 있다. 자본이 있다. 지대가 있다! 애덤스미스는 모든 계시 받은 자들처럼, 보기는 보아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이야기 하지만 이해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신에게 영감을 받아 말하지만 놀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 그리고 그의 말의 의미는 그에게는 수수께끼다. 얼마나 냉혈한 마음으로서 소유권자의 명령을 말하는지! 토지가 아무것도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 노동이 이를 개간하지도, 비옥하게 만들지도, 활용하지도, 가치 있게 이용하지도 않은 한에서는 소유권은 이를 무시

그리스도교는 처녀성을 모든 덕목 위로 높여 그것을 사제들을 위한 의무로 만들었을 때 이런 미례를 예감한 것이다. 거기서는 다른 많은 것들에서처럼 그리스도교는 예언적이었다. 이는 성찰이 스스로 철학자들의 글에서 말하기를 기다리며 인민을 선동하고 룩교황들의 입에서 표명된 사회적 자생성이었다. 그리스도교는 순결한 사랑, 진정한 사랑의 관념을 낳았다. 그것은 여성을 남자의 조할결성자로도, 동등자로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분할되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했다.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 (os ex ossibus meis, et caro ex carne mea). 인도인이 부부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과 혼동하고, 아랍인이 이를 내연관계 밑으로 일부다처제, 노예제에 의해 깎아내리고, 로마인은 어머니를 그 자녀들 각자의 몫과 같은 몫으로 상속에 들어가게 하는 법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부부의 사랑을 동화시킨 때에 그리스도교는 부부의 사랑을 다른 사랑들과 구분했다. 그리스도교는 끝으로 자발적 동정童貞에서 가장 순화된 형태를 세상에 제시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혼과 그리스도와 의신 비로운 결합, 즉 지속적인 약혼 말고 다른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남자가 자기 어머니 안에서, 자기 누이 안에서, 자기 여선생님 안에서, 자기 신부 안에서, 자기 딸 안에서 찬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자기 자신, 인류의 이상으로서 그에게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부드러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신화와 언어가 우리에게 이를 드러내 준다. 남자는 자신의 모든 미덕을 여성화했다. 그는 그 미덕들을 예배했는데, 이는 신들에게 하는 예배로서가 아니라 여신들에게 하는 예배로서 한 것이다. 테미스, 비너스, 히기에이아, 팔라스, 미네르바, 헤베, 케레스, 유노, 키벨레, 뮤즈, 곧 정의, 아름다움, 건강, 지혜, 웅변, 젊음, 농업 (고대인들의 정치 경제학), 부부의 신의, 모성, 학문과 예술이다! 이런 이름들과 이런 신성들의 여성은 어떠한 분석보다, 어떠한 증언보다 모든 시대에 여성이 남성에게 의미한 것을 더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미적 감각과 그것이 낳는 사랑이 아주 생기고 아주 순수해서, 말하자면 이들이 찬양하는 인간적 이상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형상이나 실재도 필요하지 않은 이들이다. 아니, 차라리 이 이상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그들의 눈에 드러난다. 유명한 다윗이 스스로에 대해 말했듯이 그 영혼들에게는 추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영혼은 너무 고상하고, 그들의 지성은 너무 순수해서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페늘롱, 빈첸시오 드 폴, 성녀 테레사, 수많은 동정녀들과 수많은 성인들이 그들이다! 이런 선택 받은 가슴의 소유자들에게 신랑, 신부, 자녀는 쓸데없는 것들이다. 사랑의 가시적 형태들은 그들 밑에 있고, 그들을 돕기보다는 괴롭히는 것은 모습들이다. 그들은 반응 없이 사랑을 즐긴다. 온 인류는 그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신랑, 신부, 아들, 딸을 대신해 준다. 모든 다른 결합은 그들에게는 타락이고 형벌이다.

내가논지를나치게가다듣는다고사람들이주장한다면나는그만두겠다. 나는노동의가중화의이무서운법칙에매달리며, 이항거할수없는진보, 우리에게끊임없이자본과행복을늘리도록승승장구하는힘으로밀어붙이면서언제나우리의과제에얼마동안을더해주고, 우리의집에약간의알곡을더해주는이진보에서도래할것을내게말해주시기를에원한다. 둘중하나다. 인구가노동에의해성인들의사회가되든지, 아니면독점과빈곤에의해문명이엄청난프리아포스신축제일뿐이든지할것이다. 사물이흘러가는연장선상에서그리고노동과임금의치지들을온통바꾸는개혁이아니라면노역의일체의증대, 따라서부의일체의증대는우리에게곧불가능해질것이다. 토지가우리에게부족하기오래전에우리의생산은멈출것이다. 극빈증과범죄는언제나증가할것이다.

대부분의문명국들에서평균노동시간은이미열두시간이다. 그런데인구가두배로늘어나려면, 사회에는네배의생산이, 따라서또한네배의힘의지출이필요하다. 이네배증가가우리의불평등한사회에서독점의약탈과소유권의횡포를가지고서생겨나는것이가능한가? 사회경제의현조건에서노동과부의이증가가불가능하다면, 노동자가더많은것을만들기를사람들이바란다면노동자가노예상태에서벗어나는것이절대필요하다. 그러나노동자를야만상태가그의능력들을발휘하지못하게붙여놓는억압에서해방시키려면노동자를교육으로훈련시키고복리로그를고상하게만들고, 덕으로써그를고양시킬필요가있다. 그런데덕이란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무엇인가? 훈련이란무엇인가? 노동이란무엇인가? ... 우리는원을땀땀다. 그러나이원은인류의원이고, 섭리의원이다. 인류는쓸모, 아름다움, 의로움과거룩함에의해균형에도달한다. 아카데미에서제기한문제, 물적복리의진보와그취향이여러인민의도덕성에어떤영향력을행사하는가하는문제는다른문제들과함께풀린다. 복리와덕사이에는동일성이있다.

지논리학의첫번째관념들을받아들인자에게는영구적으로되살아나는이모든대립들이영구적으로풀려야한다는것은명백하다. 그런데이는경제학자들이결코그렇게이해하기를원하지않는것이다. 이들에게가치에내재하는재정의원리는모든결정에서항하는것같이보인다. 그리고이것은철학에대한두려움과함께, 사회에아주치명적인경제학의지체를유발한다.

존램지매컬럭 (John Ramsay McCulloch) 은말한다. “절대적가치를말하는것만큼더무니없는것이절대적높이와깊이를말하는것이다.”

경제학자들은모두같은것을말한다. 그리고사람들은이예를통해그들이가치의본성에관해, 그리고그들이사용하는단어들의의미에관해얼마나마음이통하는것과는거리가먼지를판단할수있다. 절대라는표현은온전성, 완성, 혹은충만, 따라서정확성그리고올바름의관념을내포한다. 절대다수는제대로된다수 (절반더하기하나) 이며, 이는제한없는다수가아니다. 마찬가지로절대적가치는산물들간의정확한비교에서도출된정확한가치다. 세상에그렇게단순한것은없다. 그러나이로부터중대한결과가나오는데, 그것은가치가서로비교측정이되어결코무작위로진자운동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러한것이사회의지고의서원誓願이다. 이러한것이그중체로볼때그중합이틀림이없이참된가치를낳는모순들의그림말고다른것이아닌정치경제학자체의의미다.

이처럼사회는필연성과임의성사이에서일종의균형잡기에의해점차성장하며정의는도독집에의해형성된다. 평등은사회안에서단호한수준으로서생겨나지않는다. 이는모든위대한자연의법칙들처럼추상적인사항이며, 그안쪽과그바깥쪽에서사실은끊임없이다소크고다소규칙적인호들을그리며진자운동을한다. 평등은사회의지고의법칙이다. 그러나이는고정된형태는아니다. 이는무수한방정식들의균형이다. 우리에게평등이경제적진화의제 1 기, 노동분업에서부터나타난것은이런식이다. 그리고그러한것이형상적으로섭리의입법에서부터발현되었다.

애덤스미스는사회경제의거의모든거대문제에관해일종의직관을가진자로서노동을가치의근원으로인정하고분업법칙의마법적효과를묘사한후에이분업에서생겨나는산물의증대에도불구하고노동자의임금은증가하지않는다는것, 흔히그반대로임금이감소하고집단적힘의이득이결코노동자에게가지않고주인에게로간다는것을관찰한다.

사람들은아마도이렇게말할것이다. “이윤은노동의특별한종류, 감독과지휘의노동의임금에붙는이름말고다른것이다. 아니다. 그러나이윤은임금과는본성이다르고다른원리들에규율되고, 감독과지휘의노동이라고하는것의수량및본성과는아무관계도가지지않는다. 이윤은완전히활용된자본의가치에따라규율되고, 이자본의크기에비례해서크기가다르다. ... 이처럼노동의산물은온전히일꾼에게속하지않는다. 일꾼은이를소유권자와나눌필요가있다.”

해명한것, 추론을불신하기를배운것, 어떻게사람이관념들에서올바름과가슴에서정직함을가질수록그가바보가되고영터리가될위험을더욱무릅쓰는것인지를아는것은아무것도아닌가? 우리의모든정치적, 종교적, 경제적등등의오해는사물에내재하는모순에서나온다. 그리고그러한것은또한사회에원리들의부패, 양심들의매수가능성, 신앙고백의협잡, 의견들의위선이흘러나오는원천이다.

현재경제학의대상은무엇인가?

방법이스스로그것을우리에게가르쳐준다. 이올배반은자연에서의인력과균형의원리다. 그러므로이올배반은인류에서의진보와균형의원리이며, 경제학의대상은정의다.

사회경제학이관심을가지는유일한것들인순수하게객관적인그관계들에서고찰되었을때정의는가치를표현방식으로삼는다. 그런데가치란무엇인가? 실현된노동이다.

애덤스미스는말한다. “각물건의실재적가격, 각물건이이를조달하고자하는자에게실물로초래하는비용은그것을획득하기위해자신에게부과할필요가있는노동과수고다. … 돈이나상품으로구입하는것은우리가우리마의땀으로획득하는것과마찬가지로노동을통해구입하는것이다. 이돈, 이상품은그때노동의같은양의가치를포함한다고가정되는것으로, 우리가교환하는일정량의노동의가치를포함한다. 노동은모든물건의원초적구매를위해지불된화폐, 최초의대가였다. 세상의모든부는애초에금과은이아니라노동을가지고구매되었던것이다. 그리고그것들의가치는그것들을소유하고새로운생산물들과교환하려고하는자들에게는정확히그것들이그들로하여금구매하거나출자할수있는상태로해주는노동의양과같다.”

그러나가치가노동의실현이라면이는동시에산물들간의비교의원리다. 이로부터모든경제학을지배하는비례성의이론이온다. 애덤스미스가경험의체계를논리의도움으로추구하는그시대의정신안에있었다면그이론으로올라섰을것이다.

그러나사회안에서정의가어떻게발현되는가, 다른말로하면, 가치들의비례성이어떻게성립하는가? 장바티스트세는이렇게말했다. 쓸모의가치와교환가치사이의진자운동을통해성립한다고.

여기서정치경제학에서는노동과관련해그것의주인인, 그리고너무나도흔히그것의학대자인재정裁정의원리가나타난다.

과학의출발에서노동은방법을결여하고가치의정보가없이그첫번째시도들을겨우더듬거리면서부름형성하고물건의가격을정하기위해자유의회호소한다. 이순간부터두잡재력이싸움에들어가며, 사회조직의위대한작업이시작되었다. 왜냐하면노동과자유의회, 이는나중에우리가노동과자본, 임금제도와특권, 경쟁과독점, 공동체와소유권, 평민과귀족, 국가와시민, 조합과개인주의라고부를것이기때문이다. 누구든

제 14 장 요약과 결론

사람들은뉴턴이발견한사항들의엄청남을표현하기위해그가인간무지의심연을드러냈다고말한다.

여기서는뉴턴은없으며, 우주과학에서이위대한사람에게후세가배당하는뭇과같은뭇을경제학에서는아무도주장할수없다. 그러나여기에뉴턴이전혀집착하지못한것이있다고나는감히말한다. 천상의심오함은우리지성의심오함만같지못하며, 우리지성안에서는경이로운체제들이움직인다. 사람들은천국과지옥처럼공간과시간바깥에존재하는새로운미지의영역, 그곳에우리의눈이무언의찬미로바닥없는심연에서처럼뛰어든다.

마치땅이어떤힘때문에안쪽깊은데서하품하며지하세계의거주지들과신들에게미움받은창백한왕국을드러내려하는것과꼭같았다.

그리고위에서부터엄청난심연이보였고죽은이들의영은빛이들어가기공포에빠질참이었다.

Non secus ac si qua penitus vi terra dehiscens
Infernas reseret sedes et regna recludat
Pallida, Dis invisae, superque immane barathrum
Cernatur, trepidentque immisso luine Manes.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lib.VIII.

기기서영원한힘들이서로밀치고서로부딪치고서로균형잡는다. 거기서섭리의신비들이밝혀지고속명의비밀들이드러나보인다. 이는보이지않는것이가시화되고, 만져지지않는것이물적으로되고, 관념이실물, 지극히환상적인유토피아들보다천배는더경이롭고더웅장한실물이되는것이다. 현재까지우리는그것의단순한공식에서이방대한기계의일치성을보지못한다. 이거대한툽니바퀴장치의중합은여러세대들의행복과빈곤을부수고새로운창조물을만드는것인데, 이는아직우리를피하고있다. 그러나벌써우리는사회경제에서일어나는어떤것도자연에표본을가지지않는다는것을안다. 우리는유례없는사실들에대해끊임없이특별한이름들을짓고, 새로운언어를만들지않을수없다. 이는초월적세계로서그원리들은기하학과대수학보다상위의원리들이고, 그위력들은인력도, 어떠한물리력도드러내지않지만기하학과대수학을하위도구처럼사용하고자연의위력들자체를그재료로삼는다. 끝으로이는시간, 공간, 발생, 생명, 죽음의범주들에서벗어난세계로서거기서는모든것이영원

하면서현상으로나타나고동시적이면서세계적이고, 제한적이면서무제한이고, 무계를짚수있으면서짚수없는것으로보인다. ... 내가더무엇을 말할것인가? 이는말하자면사실에대해파악된창조자체다!

그리고우리에게우화와같이여겨지는, 우리의판단습관을뒤집으며 끊임없이우리의이성을반증하는이세계, 우리를감싸고우리를꿰뚫고, 우리를격동하면서도우리가영의눈으로밖에보지못하고, 기호들로밖에만지지못하는이이상한세계, 이는사회이고, 우리들이다!

그효과들, 즉그신호들에의하지않고누가독점과경쟁을보았는가? 누가신용과소유권을만져보았는가? 집단적힘, 노동의분업, 그리고가치는무엇인가? 그리고그렇기는하지만이모든것보다더강하고더확실하고더분간이잘되는것이무엇이있는가? 밭아다져진땅위에여덟마리말이끄는, 그리고옛날식결옷을입은남자가모는마차를멀리서보라. 이는동물의힘에의해네바퀴로움직이는물질덩어리일뿐이다. 당신은거기서외관상생리적현상에의해정해진기계역학적현상만을발견할것이다. 그너머에서는더이상아무것도감지하지못한다. 더앞으로꿰뚫어보라. 이남자에게그가하는것, 그가원하는것, 그가어디로가는지, 어떤생각에힘입어, 어떤명목으로그가이수레를굴리는지를물어보라. 그러면그자신이 그의행렬의섭리이므로, 곧당신에게문서를, 그의권위와그의섭리를보여줄것이다. 당신은이문서에서그가마차꾼이며, 이자격으로일정량의상품운송을중량과거리에따라행한다는것, 그는자신의서비스에대한다가를압류당하지않으려면일정한도로와일정한시한안에길을가야한다는것, 이서비스는마차꾼쪽에서는물건들의불가항력과고유의결함에서와는다른원인들에서유래하는손실과손상에대한책임을함축한다는것, 차량의가격에는예기치못한사고에대한보험, 그리고권리의압초이면서법률가들의골칫거리인천가지다른세부사항들이포함되거나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을읽게될것이다. 내가말하노니이사람은손만한크기의종잇장에우리에게무한의질서, 경험과순수이성의생각할수없는혼합물로서사람의모든천재성이우주의경험의도움을받아서도사람이집단적삶에들어가기위해개인적생존을떠나지않았다면발견하기에무능력했을질서를계시해줄것이다.

실제로, 노동, 가치, 교환, 유통, 소비, 책임, 소유권, 연대성, 연합등의이관념들에대한전형은어디에있는가? 누가그표본들을제공했는가? 반은물질적이고반은분간이되는이세계, 반은필연이고반은허구인이세계는무엇인가? 노동이라고불리는이힘, 우리가더자유롭다고스스로민는만큼더욱더확실하게우리를이끄는이힘은무엇인가? 우리를거지지않은불꽃으로, 우리의기쁨과고통의원인인불꽃으로태우는이집단적삶은무엇인가? 우리가살아가는한, 우리가있는한, 우리도감지하지못한채로, 그리고우리능력들의크기와우리산업의전문분야에따라모든것이역시생각하고혼자서돌아가는엄청난기계생각하는용수철, 생각하는바

노동에의해발현된인간적자아, 이는그러므로철학의구체적형태인정치경제학의탐구영역이다. 이두과학의, 혹은더저대로말해서이두회의론의동일성은이책의전체흐름에서우리에게드러났다. 이처럼관념들의형성은우리에게기초적범주들의분화에서처럼노동의분업에서나타났다. 그리고서우리는자유가자연에대한인간의작용에서태어나는것을보았고, 자유에이어서인간이사회와, 그리고자기자신과맺는모든관계들이생겨나는것을보았다. 결과적으로경제학은우리에게한꺼번에존재론, 논리학, 심리학, 신학, 정치학, 미학, 상징학, 그리고도덕이었다.

그학문의영역이인식되고그한계의확정이행해지고나서우리는그방법을인식해야했다. 그런데경제학의방법은아직철학의방법과같아, 노동의조직은우리생각에따르면상식의조직과다른것이아니다.

이조직을구성하는법칙들중에우리는이울배반에주목했다.

모든참된사고는하나의시간과두계기로제시된다는것을우리는고찰했다. 이계기각각은다른것의부정이고돌다상위의관념속에서만사라져야해서결과적으로이울배반은생명과진보의법칙자체이며, 영구적운동의원리다. 실제로어떤사물이그안에있는진화의잠재력에힘입어바로그것이상실하는모든것을보상받는다면, 결과적으로이사물은파괴가능하며, 이를지탱하는운동은영구적이다. 사회경제에서경쟁이끊임없이만들어내는데종사하는것을독점은끊임없이해체하는데종사한다. 노동이생산하는것을소비는집어삼킨다. 소유권이차지하는것을사회는빼앗는다. 이로부터계속적운동이나오며, 인류의영속적생명이나온다. 적대하는두힘중하나가속박을받아, 개인적활동이예를들어사회적권위밑에짓눌린다면조직은공산주의로타락하고무에도달한다. 반대로개인적창도성이견제하는힘을결여한다면집단적유기체는부패하고문명은카스트, 악과빈곤의체제에서간신히발걸음을옮긴다.

이울배반은인력과운동의원리이고, 균형의이유다. 격정을낳는것, 모든조화와모든일치를해체하는것은이것이다.

그다음으로급수級數와계열의법칙, 존재들의멜로디, 아름다움과승고함의법칙이온다. 이울배반을없애보라. 존재들의진보는설명이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이진보를낳을힘이어디에있느냐는말이다. 계열을없애보라. 세상은목표도관념도없이불모의대립항들의혼합, 보편적인들끓음에불과하다.

우리에게순수진리인이사색들이심스럽게여겨질지라도, 우리가그에대해행한적용은아직엄청난쓸모가있을것이다. 이를잘성찰해보기바란다. 같은사람이같은원리들과같은이론들을, 의심할바없이다소간 의선의를가지고, 그러나또한언제나양심을완전히편안하게하지는못해도격정을일으키고정신안애의심이퍼지게하기에충분한그럴듯한이유들을가지고한꺼번에공정도하고부정도하는일은인생에서단순순간도없다. 그러므로원한다면논리를그냥두자. 그러나사물의이중적측면을

그림, 역사, 체계는 그러므로 유비적인, 아니 상동相同的의 표현으로 서이에의해 우리는 일정수의 관념들이 우리의 정신에 완전히 대칭적이고 완벽한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들은 어떤 경우에는 혼동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정치경제학의 역사로서 발견들의 일자가 아니라 이론들의 순서에 따라서 제시했을 때 우리가 이 저작의 서두에서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역량을 순수사건의 사물들로, 혹은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본체들로 의식하며,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다른들을 감각이 가능한 것들로, 혹은 현상들로 의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은 아무런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외적지각에 의해 자아에 각인된 두 형태다. 비슷하게 지성 또한 아무 실제적인 것도 아니다. 이는 경험의 자아에게 제시하는 관념들이 있을 경우에 유비의 해자아가 자기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형태다.

관념들, 직관이나 현상들의 획득 순서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 전형들이나 실재들이 공간에 포함되는 것들에서 시작하며, 시간이 신고가는 관념들을 말하자면 날아가는 중에 붙잡기를 계속한다고, 끝으로 우리는 감각적 지각의 도움으로 갑자기 외적인 모델 없이 우리가 우리 지성이라고 칭하는 역량의 이허상안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관념들이나 개념들을 발견한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것이 우리 지식의 진보다. 우리는 감각적인 것에서 출발해 추상으로 상승한다. 우리가 성의 사다리는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정신의 심오한 내용들로 상실된다.

이제 이 계열을 뒤집어서, 창조를 시간과 공간의 하등영역들 안에 지성이라는 상위영역의 관념들이 추락하는 것으로 상상하자. 이는 관념들이 원래는 순수한 것이었다가 이것들을 실현하고 표현하는 몸 혹은 기체 (基體, substratum) 를 취하게 되는 추락인 것이다. 이 관점에서 창조된 모든 사물, 자연의 현상들, 그리고 인류의 발현들은 때로는 고정되고 직선적인 구도인 공간에서, 때로는 굽어지고 유동적인 구도인 시간에서 우리에게 비물질적이고 부동인 정신의 투사로 나타날 것이다.

이로부터 서로 동등한, 그리고 정신 안에서 동시대적이고 조율된 관념들은 인류와 자연 안에 무질서하게 흩어져서, 국지화되고, 종속되고, 계속적으로 던져져서 원초적 설계와는 전혀 닮지 않은 그림들과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과학은 이 혼동 안에서 영원한 생각의 추상적 체계를 재발견하는 데 있다. 생물학자들이 유기체들과 무기체들의 체계를 재발견한 것은 이 종류의 복원에 의해서다. 사회가 우리에게 고립되고 비밀적이고 무정부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사회경제의 여러 국면의 계열을 우리가 재확립하고자 시도한 것은 같은 절차에 의해서다. 우리가 착수한 주제는 정말로 경제학자들이 수집한 파편들에 따른 노동의 자연사다. 그리고 우리의 분석에서 나온 체계는 린네와 쥐시외 (Jussieu) 가 발견한 식물의 체계들, 그리고 퀴비에의 동물계와 같은 명목에서 참이다.

퀴, 생각하는 톱니바퀴, 생각하는 저울추 등등인 것이다. 과학은 이성과 경험의 합치를 원리로 삼는다고 우리가 말했다. 그러나 과학은 경험도 이성도 창조하지 않는다. 이와 다르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경험에 의해서도, 이성에 의해서도 선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과학, 인류가 모든 것을, 물자체도 현상도, 보편개념도 범주들도, 사실들과 관념들도 자기 자신 안에서 끌어내는 그런 과학, 끝으로 단순하게 모든 다른 과학처럼 실재에 대한 이성적인 묘사인 것이 아니라 실재와 이성의 창조자체인 과학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처럼 경제적 이성의 저자는 인간이다. 경제적 소재의 창조자는 인간이다. 경제체제의 건축가, 이역시 인간이다. 이성과 사회학적 경험을 낳은 후에 인류는 자연과학을 건설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과학의 건설을 진행한다. 인류는 인류 스스로 한 경험과 이성을 일치시키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인류 안에서 모두가 유토피아로부터 원리와 행동들을 취할 때 인류는 유토피아를 배제함으로써 만 스스로를 아는 데에 도달한다.

사회주의가 정치경제학에 항의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 당신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은 일상관행일 뿐이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이 사회주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다. 당신은 실재도, 가능한 실행방도 없는 유토피아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차례로, 사회주의는 인류의 경험을, 정치경제학은 인류의 이성을 부정하면서 둘 다 인간적 진실의 핵심 조건들을 위배한다.

사회과학은 사회적 이성 과 실천의 일치다. 그런데 이 과학은 우리의 거장들이 희미한 불티만을 감지한 것으로서, 그 지고의 찬란함과 조화를 가진 것으로 이를 사색하는 것은 금세기에 할 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협잡과 편견이 세상을 나누어가지는 이 순간에 우리의 희망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은 불신이나 아니라 자만심이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아직 모호한 예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서 시작하자.

멜서스에 대한 탁월한 전기 작가 샤를 콩트씨는 이렇게 말한다. “멜서스는 정치경제학에는 일정한 한계안에 갇혀 있는 만큼만 참인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심오한 확신을 품었다. 그는 복잡한 원인들의 빈번한 조합에서, 원인과 결과들의 서로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에서, 그리고 한계를 두거나 중요한 명제들 다수에 예외를 두어야 할 필요성에서 그 과학의 주된 난점들을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멜서스가 정치경제학에 대해 생각한 것이며, 우리가 이 순간 출간하는 저작은 그의 관념의 증명일 뿐이다. 이 증언에 우리는 그에 못지 않게 믿음직한 다른 하나의 증언을 결합한다. 도덕 및 정치 과학 아카데미의 최근 회의들 중 한 회의에서, 파벌의 이해관계에도, 무식한 반대자들이 불러일으키는 멸시에도 현혹되지 않는 정말로 우수한 사람인 뒤누아예씨는 멜서스와 마찬가지로 솔직함과 고양된 감정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했다.

“정치경제학은 일정수의 확증된 원리들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사실들과 잘도 출된 관찰 사항들의 상당한 양에 의존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확고한 과학이 되려면 먼 것으로 보인다. 정치경제학 연구가 펼쳐져야 할 장의 넓이에 관해서도, 그 연구가 대상으로 삼아야 할 근본적 대상물에 관해서도 완전한 동의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정치경제학이 포괄하는 작업들의 총체에 관해서도, 그 작업들의 잠재성이 연결되는 수단들의 총체에 관해서도, 그 어휘가 형성된 단어들의 대부분에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정확한 의미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 세부적인 진리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그 과학은 총체적으로 무한히 아쉬운 점을 남기며 과학으로서 성립되기에는 아직 먼 것으로 보인다.”

로시씨는 뒤누아예씨보다 한 술 더 뜬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그 과학의 현대적 대표자들을 향한 비난의 형태로 정식화한다.

“모든 체계적 사상은 오늘날 경제학에서 포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방법 없는 과학은 없다”고 그는 외친다 (〈와틀리씨의 강연에 대한 로시씨의 보고 Compte-rendu par M. Rossi du corus de M. Whateley〉)

블랑키, 볼로프스키, 슈발리에씨는 모두 여러 사회들의 경제에 다소 심오한 눈길을 던진 자들인데 같은 말을 한다. 그리고 현대 유토피아들의 가치를 가장 좋게 평가한 작가인 피에르 르루는 「르뷔소시알」의 각면에 이렇게 쓰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 문제의 해결책을 찾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끊임없이 찾자. 이는 우리 시대가 할 일 전부다!” 그런데 프로레타리아트 문제는 사회과학의 형성이다. 근시안의 경제학자들과 광적인 사회주의자들 말고는 없다. 이들에게 과학은 온통 “만들게 놔두고 유통하게 놔두라 (Laissez faire, laissez passer)” 아니면 “사회적 자원의 규모에서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라는 공식으로 요약되며, 이들은 경제학을 소유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사회적 진리의 이 지체 遲滯는 이것만으로 경제학자의 기만을 조장하고 개혁자를 자처하는 자들의 착취에 신뢰를 주는 것인데, 이는 무엇에 관련되는가? 우리 생각으로는 그 원인은 벌써 아주 오래된, 철학과 정치경제학의 분리에 있다.

철학, 즉 형이상학, 혹은 이게 더 낫다면 논리학은 사회의 대수학이다. 정치경제학은 이 대수학의 실현이다. 장바티스트 세도 벤담도 감하지 못한 것이고, 경제학자들과 공리주의자들의 이름으로도 덕계안에서 분열을 일으켰고 거의 동시에 정치와 철학에 반란을 일으킨 모든 이들이 감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성의 철학, 이론은 노동보다, 즉 이성의 실천보다 더 확실한 어떤 감독을 바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역으로, 경제학은 철학의 공식들보다 더 확실한 어떤 감독을 바랄 수 있었는가? 내가 장소 중한 희망인데, 오늘날 가장 능숙한 건설자들이 모두 길고 힘겨운 수습 기간을

거쳐 교육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도덕 및 정치과학의 거장들이 작업장과 계산대에 있을 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하나의 과학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 관찰의 장과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상을 정하고, 그 방법을 조직한다는 조건에서다. 이 점에서 경제학자는 철학자처럼 자신을 표현한다. 방금 보고한 뒤누아예씨의 말은 문자 그대로 리드 (Reid) 책의 번역서에 대한 주프루아의 머리말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철학에서 관찰의 장은 자아다. 경제학에서 관찰의 장은 사회, 즉 역사자이다. 사람을 알고 싶은가, 사회를 연구하라. 사회를 알고 싶은가, 사람을 연구하라. 사람과 사회는 서로를 주체와 객체로 이용한다. 두 과학의 병렬 관계, 동의성은 완벽하다.

그러나 이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자아는 무엇인가? 아주 생소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 관찰의 장은 무엇인가? 이를 발견하기 위해 유비적인 것들을 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고, 계기하거나 초월적인 세력량 안에 배열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진다. 그 바깥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상상하지도, 절대로 의식하지도 못한다. 이는 공간, 시간 그리고 지성이다.

모든 물체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 의식되는 것처럼, 또한 인과관계로서 연결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시간 안에서 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순수하게 추상적인 우리의 표상들은 우리에게 의해 우리가 지성인 혹은 지성이라고 명명하는 특정한 용기 容器에 관련된 다.

지성은 그 나름대로 공간과 영원성처럼 무한한 역량이다. 거기서 여러 세계들, 무수한 유기체들이 복잡한 법칙들에 따라 다양하고 예기치 못한 효과를 일으키며 움직인다. 그 웅장함과 조화로는 우주를 가로질러 창조자가 씨를 뿌린 세계들, 시간의 지속 중에 빛을 내고 꺼지는 유기체들과 동등하다. 정치학, 정치경제학, 법률학, 철학, 신학, 시학, 언어, 도덕관념, 문학, 미술, 자아의 관찰의 장은 자연의 관찰의 이중적 장인 공간과 시간보다 그것만으로도 더 광대하고 더 비옥하고 더 풍부하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같이 자아는 무한하다. 인간, 그리고 인간의 산물인 것은 공간을 가로질러 던져진 존재들 그리고 시간 안에서 계기하는 현상들과 함께 신의 삼중 발현을 이룬다. 이 세 무한, 무한의 무한한 표현들은 불가분리적으로 환원 불가능하게 서로 침투하고 서로를 지탱한다. 공간 혹은 연장 延長은 운동 없이 의식되지 않는 것이고 운동은 힘의 관념, 즉 자생성, 자아를 내포한다.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들의 관념은 우리의 상상에서 그림들이 이룬다. 우리가 시간 안에 그 대상들을 위치시키는 관념들은 역사 안에 펼쳐진다. 끝으로, 시간의 범주에도 공간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관념들이나 관계들로서 지성에 속하는 것은 체계들로 조율된다.